(겉표지 앞면)

국립국어원 2013-01-49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480-01

한국어 교육 문법 · 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

연구 책임자

양 명 희

국립국어원

(속표지)
국립국어원 2013-01-49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480-01

한국어 교육 문법 · 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

연구 책임자
양 명 희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한국어 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15일

연구 책임자: 양 명 희(중앙대학교)

연구 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양명희

공동 연구원 안경화, 김재욱, 이선웅, 고홍희, 정선화, 유해준, 박지순

연구 보조원 이지용, 고예진, 이찬희, 김지연, 이결

[국문 초록]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사업의 제2단계로 계획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어 숙달도상 초급, 중급에 해당하는 문법·표현 항목을 선정하고 등급화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어 교육 문법의 표준적 준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초급 문법·표현 항목에 대한 교육 내용을 심도 있고 충실하게 기술하여 한국어 교육 문법의 기초 자료를 풍부하게 생성함으로써 한국어 교수자나 연구자, 교재 개발자가 학습자의 언어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중국어와의 대조언어학적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다국어 대조 한국어 교육 문법·표현 내용을 개발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제1단계에서는 초급 단계에서 제시되는 문법・표현 선정 및 등급화, 문법·표현 내용 기술안 개발, 학습자 모국어와의 문법·표현 비교라는 세 가지 세부 연구 과제를 진행한 바 있다. 본 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 선정된 문법·표현 항목을 정련하여 최종 기술 항목을 선정하였다. 항목 선정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의 문법 항목을 기본으로 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문법 항목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또한 1단계의 문법·표현 항목 선정 및 등급화 기준을 적용하여 중급 문법·표현 항목을 문법 범주별로 제시하였다.

선정된 문법·표현 항목 교수를 위해 1단계에서 마련한 내용 기술의 틀을 수정·보완하여 최적화된 기술 지침을 마련하였다.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활용이 용이한 기술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서울과 충청 소재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6곳의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요구사항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마련한 기술 지침에 따라 초급 단계의 문법·표현 항목 조사 29개, 선어말어미 3개, 어말어미 12개, 전성어미 6개, 종결어미 14개, 표현 28개, 총 89개의 항목을 기술하였다.

초급 문법·표현 항목은 ‘표제어, 의미 및 용법·예문, 도입, 형태 정보, 문장 구성 정보, 제약 정보, 확장, 유사 문법’으로 이루어진 틀에서 기술하였다. 예문은 문법·표현이 사용된 담화 예문을 우선 제시하고 문장 예문을 제시하는 순서로 실제성을 높였다. 도입에서는 실제 수업 현장에서 교사가 해당 문법·표현 항목을 교수하기 위해 시작하는 담화 상황을 제시하였다. 형태 정보에서는 초급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사, 형용사와의 결합형을 규칙화하여 보여주었다. 문장 구성 정보에서는 패턴화된 통사적 정보를 기술하였다. 제약 정보에서는 문장 구성에서 발생하는 동사·형용사 등의 결합 제약, 주어 인칭 제약, 동일 주어 제약, 시제 형태소 제약, 문장 종결 제약 등을 기술하였다. 확장에서는 해당 문법·표현 항목 관련형의 용법, 준말·본말, 관용적 용법, 중·고급 용법 등 부수적이고 심화된 정보를 기술하였다. 유사 문법에서는 해당 항목과 형태적·의미적으로 유사한 모든 문법·표현 항목들을 비교·대조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선정된 한국어 교육 초급과 중급의 표준 문법·표현 항목 및 기술된 초급 문법·표현 항목의 상세 내용과 중국어와의 대조언어학적 분석 자료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이면서도 실제성이 높은 문법 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어 교육 연구의 기초 자료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한국어 교육, 초급 단계, 중급 단계, 문법 항목, 표현 항목, 선정, 등급화, 도입, 형태 정보, 문장 구성 정보, 제약 정보, 유사 문법, 대조언어학, 중국어 대조

[목 차]

제1장 연구 목적 및 범위 ---- 1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 범위 ---- 3
1.3. 로드맵 수정안 ---- 16

제2장 문법·표현 내용 기술 지침 ---- 19
2.1. 기술 필드 ---- 20
2.1.1. 기술 필드 분류 ---- 20
2.1.2. 각 필드의 내용 ---- 20
2.2. 필드별 지침 ---- 23
2.2.1. 표제어 ---- 23
2.2.2. 의미 및 용법, 예문 ---- 23
2.2.3. 도입 ---- 26
2.2.4. 형태 정보 ---- 26
2.2.5. 문장 구성 정보 ---- 30
2.2.6. 제약 정보 ---- 31
2.2.7. 확장 ---- 32
2.2.8. 유사 문법 ---- 34
2.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 36
2.3.1. 주요 내용 ---- 36
2.3.2. 지침 ---- 36

제3장 초급 문법·표현 내용 기술의 실제 ---- 39
3.1. 조사 ---- 39
3.1.1. '과' ---- 39
3.1.2. '까지1' ---- 46
3.1.3. '께' ---- 49
3.1.4. '께서' ---- 54
3.1.5. '도' ---- 59
3.1.6. '마다' ---- 63

3.1.7. ‘만1’ ---- 66
3.1.8. ‘밖에’ ---- 70
3.1.9. ‘보다’ ---- 74
3.1.10. ‘부터’ ---- 78
3.1.11. ‘에’ ---- 82
3.1.12. ‘에게’ ---- 96
3.1.13. ‘에게로’ ---- 102
3.1.14. ‘에게서’ ---- 105
3.1.15. ‘에다가’ ---- 109
3.1.16. ‘에서’ ---- 115
3.1.17. ‘에서부터’ ---- 123
3.1.18. ‘으로’ ---- 127
3.1.19. ‘은1’ ---- 134
3.1.20. ‘을1’ ---- 140
3.1.21. ‘의’ ---- 145
3.1.22. ‘이’ ---- 150
3.1.23. ‘이나’ ---- 159
3.1.24. ‘이다1’ ---- 167
3.1.25. ‘이랑’ ---- 172
3.1.26. ‘처럼’ ---- 179
3.1.27. ‘하고’ ---- 183
3.1.28. ‘한테’ ---- 190
3.1.29. ‘한테서’ ---- 195
3.2. 선어말어미 ---- 199
3.2.1. ‘-겠-’ ---- 199
3.2.2. ‘-었-’ ---- 207
3.2.3. ‘-으시-’ ---- 212
3.3. 연결어미 ---- 216
3.3.1. ‘-거나’ ---- 216
3.3.2. ‘-게’ ---- 222
3.3.3. ‘-고’ ---- 228
3.3.4. ‘-는데1’ ---- 237
3.3.5. ‘-다가’ ---- 245

3.3.6. ‘-어서’ ---- 251
3.3.7. ‘-으니까’ ---- 263
3.3.8. ‘-으러’ ---- 272
3.3.9. ‘-으려고1’ ---- 277
3.3.10. ‘-으면’ ---- 282
3.3.11. ‘-으면서’ ---- 288
3.3.12. ‘-지만’ ---- 293
3.4. 전성어미 ---- 298
3.4.1. ‘-기’ ---- 298
3.4.2. ‘-는2’ ---- 303
3.4.3. ‘-은2’ ---- 307
3.4.4. ‘-은3’ ---- 311
3.4.5. ‘-을2’ ---- 315
3.4.6. ‘-음’ ---- 319
3.5. 종결어미 ---- 325
3.5.1. ‘-고4’ ---- 325
3.5.2. ‘-네’ ---- 329
3.5.3. ‘-는군’ ---- 334
3.5.4. ‘-는데2’ ---- 339
3.5.5. ‘-습니까’ ---- 343
3.5.6. ‘-습니다’ ---- 347
3.5.7. ‘-어’ ---- 351
3.5.8. ‘-으세요’ ---- 363
3.5.9. ‘-으십시오’ ---- 374
3.5.10. ‘-을게’ ---- 381
3.5.11. ‘-을까’ ---- 387
3.5.12. ‘-을래’ ---- 396
3.5.13. ‘-읍시다’ ---- 404
3.5.14. ‘-지’ ---- 409
3.6. 표현 ---- 415
3.6.1. ‘-게 되다’ ---- 415
3.6.2. ‘-고 싶다’ ---- 420
3.6.3. ‘-고 있다’ ---- 425

3.6.4. '-기 때문에' 434
3.6.5. '-기 전에' 439
3.6.6. '-기로 하다' 443
3.6.7. '-는 것' 447
3.6.8. '-는 동안에' 455
3.6.9. '-어 보다' 460
3.6.10. '-어 있다' 468
3.6.11. '-어 주다' 474
3.6.12. '-어도 되다' 480
3.6.13. '-어야 되다' 486
3.6.14. '-은 것' 492
3.6.15. '-은 적이 있다' 505
3.6.16. '-은 지2' 511
3.6.17. '-은 후에' 517
3.6.18. '-을 것 같다' 523
3.6.19. '-을 것1' 529
3.6.20. '-을 것2' 533
3.6.21. '-을 때' 541
3.6.22. '-을 수 있다' 546
3.6.23. '-을 수밖에 없다' 554
3.6.24. '-을까 보다' 559
3.6.25. '이 아니다' 568
3.6.26. '-지 말다' 572
3.6.27. '-지 못하다' 578
3.6.28. '-지 않다' 584

제4장 중급 문법·표현 항목 선정 및 정련 591
4.1. 내용 기술 후 변경된 초급 문법·표현 항목 591
4.2. 중급 문법·표현 항목 선정과 정련 591
4.2.1. 1단계 유보 항목 591
4.2.2. 범주별 조정 항목 593

제5장 연구의 의의와 과제 612

5.1. 연구의 의의 ---- 613
5.2. 향후 과제 ---- 613
5.3. 정책 제안 ---- 614

<부록 1> 문법 용어 해설 ---- 617
<부록 2> 연구 진행 일정 및 내용 ---- 623

제1장 연구 목적 및 범위

1.1. 연구 목적

1.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들어 국내외 다양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학습자, 학습 환경에 따라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그에 맞는 한국어교육 교재가 개발되고 있으나 교재 개발자와 교육과정 개발자 등이 참조할 만한 한국어교육 표준 문법의 부재로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재 집필, 평가 도구 개발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가 체계적이고 충실한 문법 교육을 하고 한국어교육 연구자가 심도 있는 문법 내용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법에 관한 축적된 기초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충실한 기초 자료가 부족하여 현장과 학계에서 이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

이미 국립국어원에서「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1, 2」(2005)가 개발되어 교육 현장의 한국어 교사들과 한국어교육 연구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고 있고,「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0, 2011)이 2단계까지 진행되어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문법 및 표현 항목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문법·표현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 성격의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문법 교육 내용 정보는 부족하여 이를 채우는 것은 온전히 교수자와 연구자의 몫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한국어교육 문법에 관한 연구를 보완하여 한국어 문법·표현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 충실히 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표준 문법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심화된 문법 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어교육 연구의 기초 자료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어교육에서 참조 문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표준 한국어교육 문법의 틀과 내용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체계적인 문법 교육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어 숙달도상 초급, 중급에 해당하는 문법표현 항목을 설정하고 기본적인 내용 정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어교육 문법의 표준적인 준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문법·표현 항목에 대한 교육 내용을 심도 있고 충실하게 기술하여 한국어교육 문법의 기초 자료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한국어 교수자나 연구자, 교재 개발자, 그리고 학습자가 언어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그간 학계에 축적된 연구 자료와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기 개발된 한국어 문법서와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연구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기존 연구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층 체계적이고 충실한 문법·표현 내용 자료를 개발한다.

본 과업의 수행을 통하여 마련된 한국어교육 중급 표준 문법·표현 항목과 한국어교육 문법 항목에 대한 최적화된 기술은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심화된 문법 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어교육 연구의 기초 자료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범위

1.2.1.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의 연구 범위

본 과제의 연구 범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2012)를 중심으로 초급 수준의 문법・표현 항목 선정 및 등급화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초급 항목을 최종 선정하는 것이다. 둘째, 중급 수준의 문법·표현 항목을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2012)의 문법・표현 항목 선정 및 등급화 기준을 적용하여 정련하여 중급 문법・표현 항목을 문법 범주별로 제시할 것이다. 셋째,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1단계 연구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1단계에서 마련한 내용 기술의 틀을 검토하여 정련된 초급 문법·표현 항목의 문법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법・표현 항목 교수를 위한 타당하고 객관적인 기술 지침을 마련한다. 넷째, 학습자의 모국어에 따른 문법 교수의 수월성을 위해 1단계에서 시도되었던 중국어와의 대조 연구 내용을 초급 문법 항목에 한정하여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연구 결과로 정련된 초급 문법·표현 항목을 모두 기술 정리하고, 중급 문법·표현 항목의 정련 및 선정 작업을 할 것이다. 더불어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중국어와의 대조 내용을 교육적 목적에 알맞게 기술할 것이다.

o 초급 문법・표현 항목의 추가 내용 기술

1단계에서 제시된 문법・표현 내용 기술의 틀을 검토하여 한국어교육에 최적화된 기술 틀을 세우고 초급으로 정련된 문법・표현 항목을 모두 기술한다. 즉, 2단계의 문법・표현 내용 기술 대상 및 범위는 초급 항목 전체이며, 이를 위한 집필 지침을 마련하였다.

최적화된 기술 틀을 마련하는 데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조사 결과는 사업 주관 기관의 사업적 요구를 고려하여 집필 지침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문법 내용 기술 시 학교 문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였으며, 한국어교육 문법·표현의 교육 목적 및 학습자 집단의 차이를 반영하여 문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풍부한 정보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학계와 교육 현장에 축적된 연구 성과와 교육 경험을 반영하여 교수에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 정보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o 중급 수준 문법·표현 항목의 선정 및 교육 내용 기술

초급 문법・표현 항목의 선정 원리 제시 및 절차를 따라 중급 문법・표현 항목을 선정한다.

문법 항목 선정 및 등급화의 기초 자료인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0, 2011)의 문법 항목은 초급-중급-고급-최고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한국어능력시험」의 문법 항목은 초급-중급-고급으로 구분되어 등급상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0, 2011)의 문법 항목을 우선으로 재정련하였다.

중급 문법・표현 항목에는 복합형이 많고 담화화용적 기능에서 부담이 많은 표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3단계에서는 중급 문법・표현 항목의 내용 기술에 적합하게 내용 기술의 틀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o 비교 언어로 선정된 학습자 모국어와의 문법·표현 비교

1단계에서 시도된 중국어와 몽골어와의 대조언어학적 기술을 중국어로 한정하여 기술한다.

1단계의 기술 방식과 달리 대조언어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교육에 유용한 대조언어학적 기술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대조언어학적 관점에 따른 문법적 설명과 오류 예문을 제공하여 해당 언어 모국어 학습자를 교수하는 교육자들에게 충실한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2.2. 교사 요구 및 문법서 사용 현황 분석

1.2.2.1. 요구 조사 설문 조사 대상자

교사들의 요구 분석은 서울 소재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 기관 3곳, 충청 소재 한국어교육 기관 3곳의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유효 설문지는 총 104개가 수거되었고 성, 연령, 학력 등 설문 대상자의 변인별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설문 조사 대상자의 분포(104명)

변인	세부 내용	인원(명)	비율(%)
성별	남성	16	15.4

	여성	88	84.6
연령	20대	12	11.5
	30대	55	52.9
	40대	30	28.8
	50대	7	6.7
학력	학사	14	13.6
	석사	69	67.0
	박사	20	19.4
학부전공	한국어교육	12	11.5
	국어교육 및 국어국문학	29	27.9
	외국어 및 외국어 교육	37	35.6
	기타	26	25.0
한국어교육 전공여부	학부	3	3.2
	석사	45	47.9
	박사	15	16.0
	교사양성과정	31	33.0
자격증	미취득	28	27.7
	1급	9	8.9
	2급	48	47.5
	3급	16	15.8
기관유형	대학부설기관	97	96.0
	사설기관	1	1.0
	공공기관	2	2.0
	기타	1	1.0
경력	초보	39	38.6
	경력	62	61.4

본 과제에서는 3년 미만 경력의 교사를 초보 교사로, 3년 이상을 경력 교사로 보고 초보 교사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기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력 교사들의 초보 교사 시기의 경험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력 교사도 설문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1.2.2.2. 요구 조사 분석 결과와 대안

A. 한국어교육 문법서 사용 현황과 부족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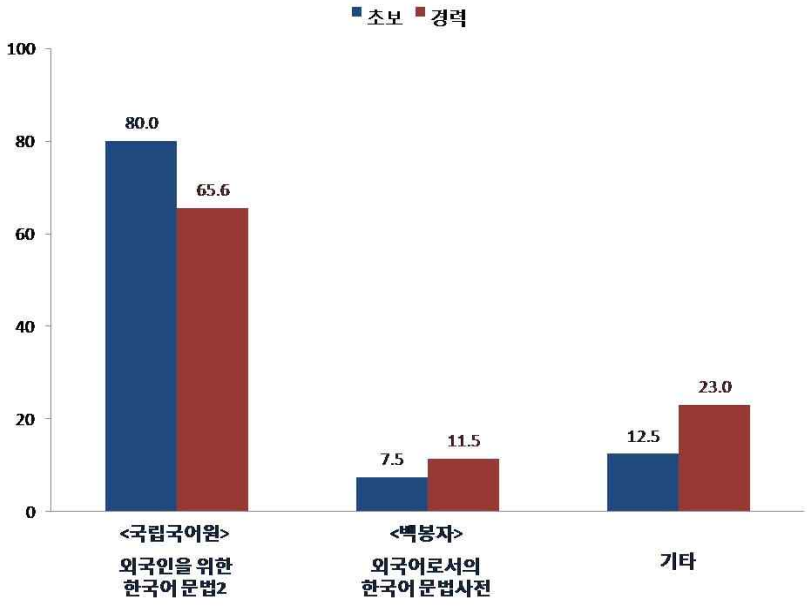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문법서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느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사용하고 있는 문법서의 부족한 점을 질문하였다.

□ 한국어교육 문법서 사용 현황

먼저 한국어교육 문법서 사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문법 교육을 할 때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국어교육용 문법서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초보 교사들과 경력 교사들 모두 국립국어원에서 출간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문법서의 사용을 보면 초보 교사는 단일 문법서의 사용 빈도가 높은 반면 연차가 쌓인 경력 교사들은 다양한 문법서를 참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하는 문법서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간략한 설명과 유사문법을 찾기 위해'라는 대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 문법서 사용 현황(초보/경력)

문법서 \ 경력	초보	경력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80.0	65.6
<백봉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	12.5	23.0
기타	7.5	11.5



[도표 1] 문법서 사용 현황(초보/경력)

■ 반영

내용 기술 시 주요 한국어 문법서를 참고하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국립국어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2」를 참고로 한다. 전체적인 기술은 쉽고 간략한 설명을 기본으로 하며 유사문법을 기술 필드에 반드시 포함한다.

□ 현행 문법서의 부족한 점

다음 설문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문법서의 부족한 점을 질문하였다. 응답으로는 '사용된 예문을 수업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의미나 용법 설명이 수업에 활용되기 어렵다'가 높은 비율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예문 제시 방법과 제시 범위 등을 논의하였고, 역시 쉬운 의미, 용법 설명을 위한 대안을 숙고하였다.

■ 반영

예문을 담화 예문과 문장 예문으로 나누어 수업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의미나 용법 설명은 메타언어적 설명과 기능적 설명, 또한 예문을 이용한 실제 사용 설명 등을 반복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실제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입 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문법 · 표현 항목의 의미 및 기능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제안해 보았다. 초보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간략하고 쉽게 제시하려고 하였다.

B. 새로 개발되는 문법(표현) 항목 내용 기술에 대한 요구 조사

새로 개발되는 문법·표현 내용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를 조사하였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였는데, 먼저 문법서에 사용하는 용어들의 적절성에 대해 실제 예를 주고 설문을 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문법서를 참고하는 목적을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한국어 문법서에 추가적으로 더 기술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질문하였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문법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적절성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 초보 교사는 '결합 정보, 형태 정보, 제약 정보' 등의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경력 교사들은 문법·표현 교육 내용 기술에 사용된 용어들이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답변하였다.

<표 3> 초보 및 경력 교사들의 문법 용어에 대한 적절성 판단

	초보	경력
적절	끝음절, 어간/어미	어간/어미, 앞 절, 끝음절, 결합정보, 형태정보, 제약정보
보통	앞 절/뒤 절	
부적절	결합정보, 형태정보, 제약정보	

■ 반영

초보 교사들은 '결합'이라는 용어 사용이 가장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형태'와 '제약'이라는 용어 또한 부적절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런데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이들

을 대체할 만한 쉬운 용어들을 사용한 결과, 기술 내용의 정확성과 용이성이 떨어짐을 부인할 수 없어 기존 용어들을 기술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웹 서비스 시 용어 사용을 재고하는 것을 제안한다.

□ 문법서의 이용 목적

한국어 문법서를 참고하는 이유는 '문법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로 개발되는 초보 교사용 문법서에 수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법 정보가 기술되는 것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 반영

초보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중요 문법적 지식을 빠뜨리지 않고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초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과 심화확장으로 나누어 교수 학습 내용과 교사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분리하여 제시한다.

□ 문법서의 보완점

한국어 문법서에 추가적으로 보완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유사 문법과의 차이', '자주 발생하는 오류 및 교수 시 유의점', '사용 가능한 예문' 순이었다.

■ 반영

유사 문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 내용으로 추가하였다. 의미가 유사한 문법 표현들의 사용상의 차이점에 대한 학습자들의 질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제약 정보에서 주로 기술하고, 그 외 문장 구성 정보 등에서도 추가로 기술한다.

C. 문법・표현 항목 내용 기술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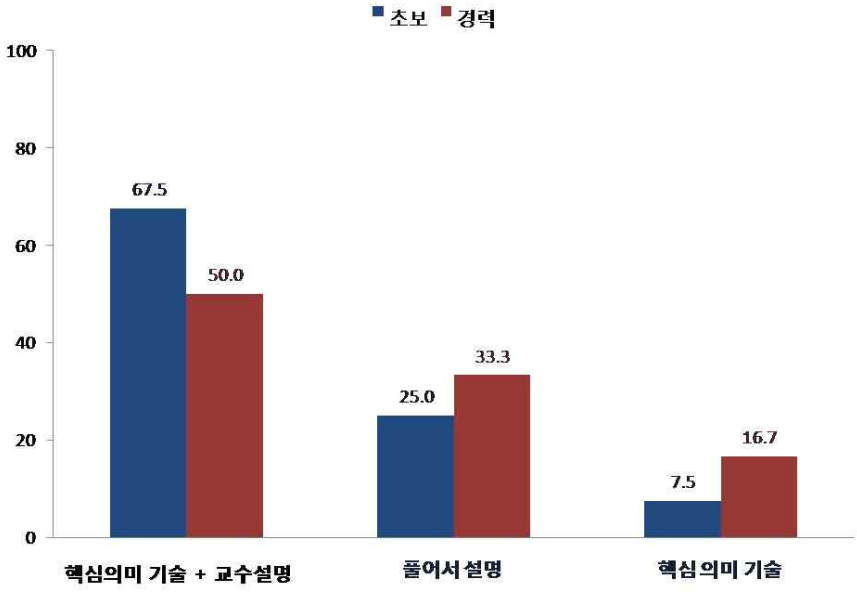
1단계 집필 지침과 요구 조사, 그리고 연구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문법・표현 항목의 내용을 기술한 후 이를 대상으로 교사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의미 기술 방법, 도입 예문 제시 방법, 형태 정보 제시 방법, 주정보 및 부가 정보 제시 방법 등을 질문하였다.

□ 의미 기술 방법

초보 교사는 '핵심의미 기술 + 교수설명'을 선호하는 반면, 경력이 늘어나면 '풀어서 설명' '핵심의미 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의미 기술 방법 선호도

	초보	경력
핵심 의미 기술 + 교수 설명	67.5	50.0
풀어서 설명	25.0	33.3
핵심 의미 기술	7.5	16.7



[도표 2] 의미 기술 방법 선호도

■ 반영

현재 의미 기술은 3단계로 되어 있다. 표제어에서 메타 기술, 의미 및 용법에서 쉬운 의미 및 용법 기술, 도입에서 예문이 사용되는 상황에 기댄 기술 등이다. 다음은 표제어에서의 메타 기술, 의미 및 용법에서의 쉬운 의미 기술의 예이다.

-어서[-아서/-여서][연결어미] 1) **이유**나 **원인** 2)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서1):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 어떤 상태가 왜 그런지,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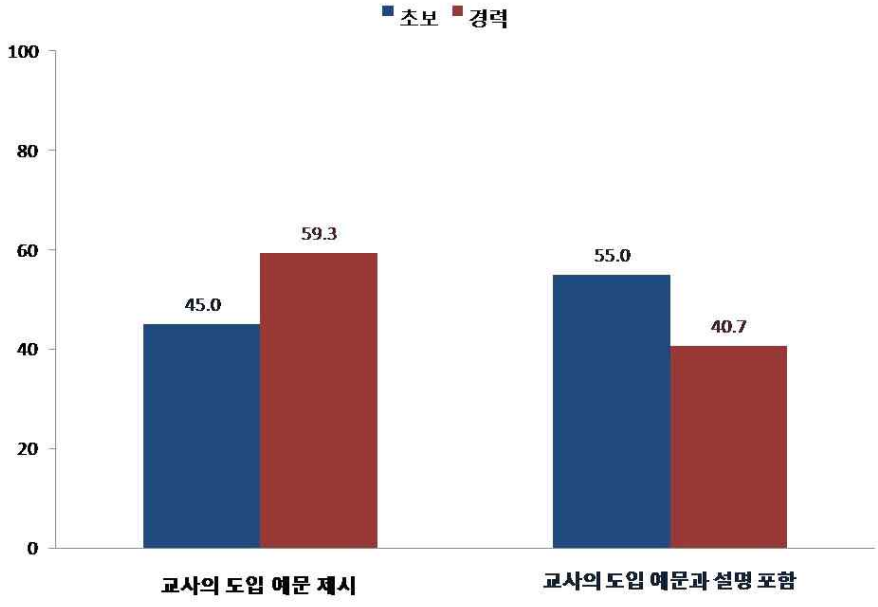
□ 도입 예문 제시 방법

초보 교사는 '교사의 도입 예문과 설명 포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경력 교사는 '교

사의 도입 예문 제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도입 예문 제시 방법 선호도

	초보	경력
교사의 도입 예문 제시	45.0	**59.3**
교사의 도입 예문과 설명 포함	**55.0**	40.7



[도표 3] 도입 예문 제시 방법 선호도

■ 반영

초기에는 초보 교사의 선호에 따라 도입 예문과 설명을 같이 포함하여 기술하기로 하였으나, 경력 교사와 초보 교사의 의견이 실제로 큰 차이가 없고 설명을 포함하는 도입 예문 제시 방법이 오히려 정확한 의미 기능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도입 예문만 제시하기로 하였다.

도입과 설명을 같이 제시하는 방식은 쉬운 설명을 지향하다 보면 유사한 문법 항목의 경우 거의 유사한 설명을 하게 되어 오히려 문법 항목의 의미나 사용 차이를 인식시키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신 도입 예문 아래 +를 달아 도입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주의할 점이 있는 경우 설명을 덧붙였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우리 교실이 어때요?
학생: 넓어요.
교사: 네, 교실이 넓어요. 또 어때요?
학생: 깨끗해요.
교사: 교실이 넓어요. 그리고 교실이 깨끗해요.
교실이 **넓고** 깨끗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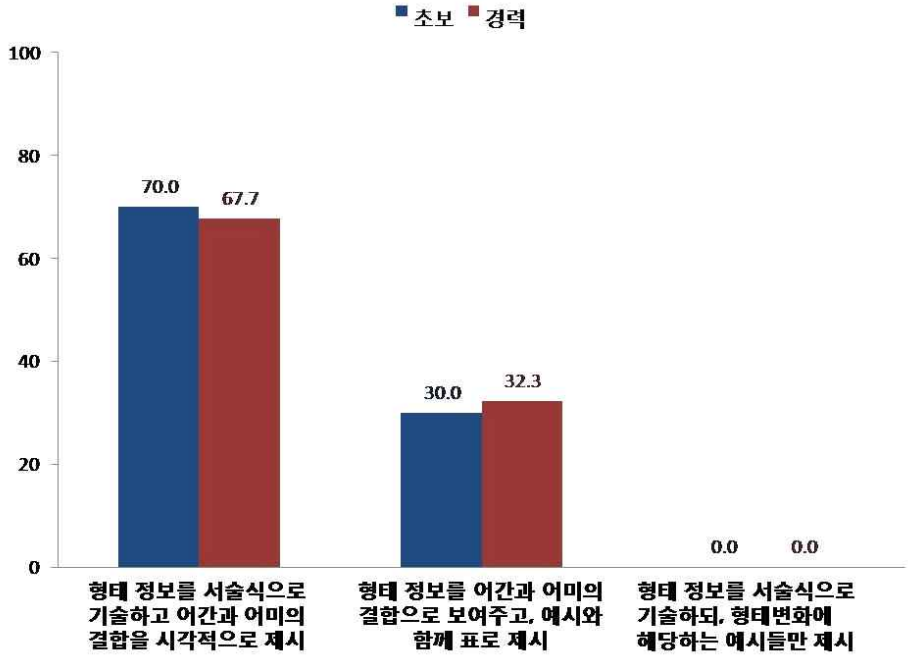
+ '-고1)'을 도입할 때 '교실', '생활' 등의 주제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사실이나 내용을 두 가지 이상 이끌어낸다. 두 가지 사실을 나란히 나열하고 사이에 '-고'를 넣어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형태 정보 제시 방법

경력 유형에 관계없이 '형태 정보를 서술식으로 기술하고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형태 정보를 서술식으로 기술하되 형태 변화에 해당하는 예시들만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형태 정보 제시 방법 선호도

	초보	경력
형태 정보를 서술식으로 기술하고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시각적으로 제시	70.0	67.7
형태 정보를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보여주고, 예시와 함께 표로 제시	30.0	32.0
형태 정보를 서술식으로 기술하되, 형태변화에 해당하는 예시들만 제시	0.0	0.0



[도표 4] 형태 정보 제시 방법 선호도

■ 반영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형태 정보를 서술식으로 기술하고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과'를 쓴다.

예) 가방 + 과 → 식당과　　연필 + 과 → 연필과
도서관 + 과 → 도서관과　　핸드폰 + 과 → 핸드폰과
은행 + 과 → 은행과　　책 + 과 → 책과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와'를 쓴다.

예) 컴퓨터 + 와 → 컴퓨터와　　전화 + 와 → 전화와
학교 + 와 → 학교와　　의자 + 와 → 의자와
한국어 + 와 → 한국어와　　종이 + 와 → 종이와

①	받침 o	+ 과	가방과, 연필과, 도서관과, 핸드폰과, 은행과, 책과
②	받침 x	+ 와	컴퓨터와, 전화와, 학교와, 의자와, 한국어와, 종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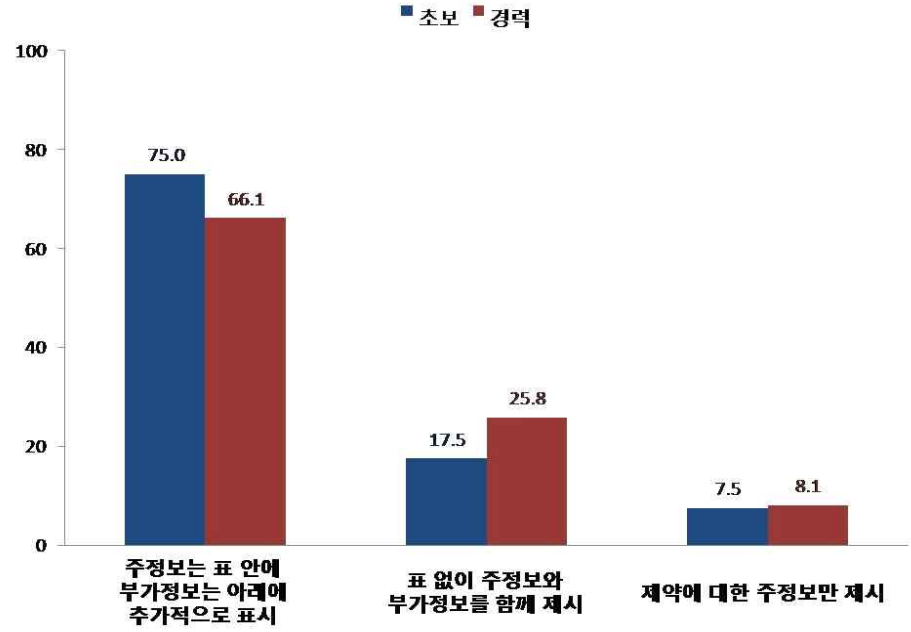
□ 주정보 및 부가 정보 제시 방법

문장 구성 정보나 제약 정보를 기술할 때 주정보와 부가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질문하였다. 초보 교사는 '주정보는 표 안에, 부가 정보는 아래에 추가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경력직 교사가 되면 '표 없이 주정보와 부가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다.

<표 7> 주정보 및 부가 정보 제시 방법 선호도

	초보	경력
주정보는 표 안에 부가 정보는 아래에 추가적으로 표시	**75.0**	66.1
표 없이 주정보와 부가 정보를 함께 제시	17.5	**25.8**
제약에 대한 주정보만 제시	7.5	8.1



[도표 5] 주정보 및 부가 정보 제시 방법 선호도

■ 반영

초보 교사에게는 주정보를 표로 제시하여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이렇게 할 경우 표가 많아져 오히려 산만할 수 있기 때문에 표로 보여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에만 표를 만들어 제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초기에 초보 교사를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가 이후 그 대상이 확장되고 내용을 쉽게 기술하는 것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으로 목표가 변경되면서 표는 형태 정보와 유사 문법 기술에만 사용하게 되었다.

1.2.3. 초급 문법・표현 항목(최종)

2단계에서 기술해야 할 초급 문법 항목은 총 89항목이다. 1단계에서 90항목이 선정된 바 있는데 집필 과정에서 항목 변화가 있었다.[1)]

3장에서 기술된 초급 문법・표현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사,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표현으로 나누어 표로 제시한다.

<표 8> 초급 문법・표현 항목(최종)

조사[2)] (29)	이/가, 과/와, 께, 께서, 이나/나1(접속/보조), 을1/를/ㄹ1, 이랑/랑(격/접속), 으로/로, 보다, 에, 에게, 에게로, 에게서, 에서/서2, 의, 이다1, 처럼, 하고, 한테, 한테서, 까지1, 은1/는1/ㄴ1, 도, 마다, 만1, 밖에, 부터, 다가, 에다가/에다, 에서부터/서부터
선어말 어미 (3)	-겠-, -었-/-았-/-였-, -으시-/-시-
연결어미[3)] (12)	-거나, -게, -고, -는데1/-은데1/-ㄴ데1, -다가, -으러/-러, -으면/-면, -어서/-아서/-여서, -지만, -으려고/-려고, -으면서/-면서, -으니까/-니까
전성어미[4)] (6)	-기, -는, -은1/-ㄴ1, -은2/-ㄴ2, -음/-ㅁ, -을/-ㄹ
종결어미 (14)	-는군/-군/-는군요/-군요, -는데2/-ㄴ데2/-은데2/-는데요/-ㄴ데요/-은데요, -을게/-ㄹ게/-을게요/-ㄹ게요, -을까/-ㄹ까/-을까요/-ㄹ까요, -습니까/-ㅂ니까, -습니다/-ㅂ니다, -읍시다/-ㅂ시다, -으세요/-세요/-으셔요/-셔요/-으시어요, -으십시오/-십시오, -어/-아/-여/-야/-어요/-아요/-여요/-에요, -지/-지요(-죠), -네/-네요, -을래/-ㄹ래/-을래요/-ㄹ래요, -고4/-고요

1) 이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5장의 중급 문법·표현 선정 및 등급화 방안에서 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초급 항목의 재조정이 항목 기술 과정에서 변경된 것이 있고, 1단계에서의 오류에 의한 것, 1단계에서 유보된 항목의 정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를 상세하게 기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현[5] (28)	-고 있다, -어 있다/-아 있다/-여 있다, -기 때문에/-기 때문이다, -기 전에/-기 전, -기로 하다, -을 것 같다/-ㄹ 것 같다/-는 것 같다/-은 것 같다/-ㄴ 것 같다, -은 지2/-ㄴ 지2, -은 후에/-ㄴ 후에/-은 후/-ㄴ후<유의: -은 뒤에/-ㄴ 뒤에/-은 뒤/-ㄴ 뒤>, -을 때/-ㄹ 때, -을까 보다/-ㄹ까 보다, -는 동안에/-는 동안, -은 적이 있다/-ㄴ 적이 있다/-는 적이 있다<반의: -은 적이 없다/-ㄴ 적이 없다/-는 적이 없다>, -게 되다, -고 싶다, -을 수밖에 없다/-ㄹ 수밖에 없다, -을 수 있다/-ㄹ 수 있다<반의: -을 수 없다/-ㄹ 수 없다>, -어 보다/-아 보다/-여 보다, -어 주다/-아 주다/-여 주다, -어도 되다/-아도 되다/-여도 되다, -어야 되다/-아야 되다/-여야 되다<유의: -어야 하다/-아야 하다/-여야 하다>, -지 말다, -지 못하다, -지 않다, 이 아니다/가 아니다, '-는 것, -은 것, -을 것2, -을 것1

2) 1단계에서 30항목이 선정되었으나 기술 과정에서 '다가'를 제외하였다.
3) 1단계와 마찬가지로 12항목이 선정되었는데 실제 항목에서는 차이가 있다. 교재 분석 결과 '-지1'가 제외되었고 '-다가'가 추가되었다.
4) 1단계에서 5항목이 선정되었으나 기술 과정에서 '-은'을 동사 뒤에 결합되는 '-은1'과 형용사 뒤에 결합되는 '-은2'로 나누었다.
5) 1단계에서 24항목이 선정되었으나 유보 항목을 확정하면서 '-는 것'과 '-을 것1'을 초급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는 것'은 기술 과정에서 다시 '-는 것, -은 것, -을 것2'로 나누어 집필하였다.

1.3. 로드맵 수정안

1.3.1. 로드맵 수정의 필요성

본 연구는 기존의 한국어교육 문법에 관한 연구를 보완하여 한국어 문법·표현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 충실히 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 표준 문법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첫째, 한국어교육에서 참조 문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표준 문법의 틀과 내용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체계적인 문법 교육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실질적인 차원에서 문법·표현 항목에 대한 교육 내용을 심도 있고 충실하게 기술함으로써 한국어교육 문법의 기초 자료를 풍부하게 하여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목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그간 학계에 축적된 연구 자료와 이론을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층 체계적이고 충실한 문법·표현 내용 자료를 개발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12년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최초 로드맵은 연차별 3단계로 기획되었으며 단계별 주요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초급 문법·표현 항목을 선정, 재정련하고, 문법·표현 항목 기술의 틀을 개발한 후, 개발된 틀에 따라 선정된 문법·표현 항목을 범주별로 견본 기술한다. 또한 1단계에서 선정된 학습자 모국어인 중국어와 몽골어의 2개 언어에 대한 대조언어학적인 교수·학습 정보를 문법 범주별로 제공한다.

○ 2단계: 1단계에서 선정된 문법·표현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내용을 기술하고, 중급 문법·표현 항목을 선정하여 선정된 중급 문법·표현 항목의 내용을 전수 기술한다. 또한 1단계의 학습자 모국어를 확장하고 문법 범주를 확대하여 대조언어학적 교수·학습 정보를 제공한다.

○ 3단계: 고급 수준의 문법·표현 항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항목의 내용을 기술하며 2단계에서 선정된 학습자 모국어를 확장하고 문법 범주를 확대하여 대조언어학적 교수·학습 정보를 제공한다.

위와 같은 3단계의 로드맵에 따르면 2단계에서 초급 문법·표현 항목 전체의 내용을 기술하고, 중급 수준의 항목을 선정할 뿐 아니라 선정된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내용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각 수준별 문법·표현 항목 선정의 토대로 삼고 있는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단계)」에 의하면 초·중·고급의 단계별 문법·표현 항목 개수가 초급에서 고급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제의 전반적인 범위를 고려할 때 2단계에서 기술하여야 할 내용이 과도하게 많아지게 된다.

또한 학습자 모국어와의 대조언어학적 교수·학습 정보 제공의 범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데 1단계에서 선정된 중국어와 몽골어의 2개 언어에서 각 단계마다 다른 언어로 확장하는 것은 해당 언어로 제공되는 대조언어학적 정보의 범위가 초·중·고급 전 단계에 걸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계로만 한정되어 교수·학습 정보로서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문법 범주별 대조언어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언어권별로 한국어와의 대조언어학적 기초 연구 성과가 충분해야 하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적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반이 아직 무르익지 않아 학문적·실용적 성과물을 내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한편 고급 수준의 과업과 관련해서는 문법·표현 항목의 선정과 기술 두 가지 측면에서 애초의 로드맵대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즉, 고급 수준의 항목은 대부분 표현 항목들인데 표현의 경우에는 형태나 통사 등의 정보보다 의미, 화용상의 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기초가 될 만한 연구 성과물이나 자료가 학계와 교육 현장에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또한 고급 수준에서는 학습자의 요구와 숙달도를 고려했을 때 교수·학습의 방법도 초·중급과는 달라져야 하므로 내용 기술의 틀이 초·중급과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1.3.2. 로드맵 수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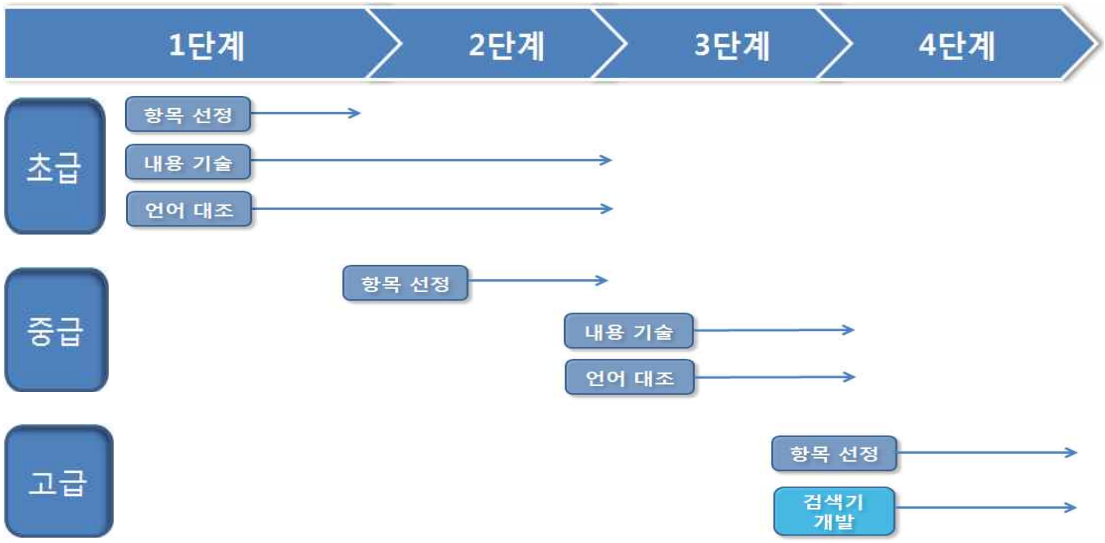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전체 사업의 로드맵을 변경할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의 로드맵을 변경하기로 한다.

첫째, 전체 사업을 3단계가 아니라 4단계로 확대하여 종전의 로드맵에 따르면 2단계 사업에서 초급과 중급 문법·표현 항목을 모두 기술하게 되어 있던 것을 2단계에서는 초급 항목만을 기술하고 3단계에서 중급 항목을 기술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고급 수준의 문법·표현은 4단계 사업에서 항목을 선정하고 내용 기술은 하지 않는다.

둘째, 학습자 언어와의 대조언어학적 정보는 초·중급 공히 중국어로만 한정하여 제공한다. 국내외 한국어 학습자 중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초·중급에 해당하는 모든 문법·표현 항목에 대하여 중국어와의 대조언어학적인 교수·학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각 단계별로 학습자 언어를 확장하여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교육 현장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1~3단계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웹 기반의 검색기를 개발하는 것을 4단계 사업의 과업에 포함한다. 검색기는 향후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탑재되어 연구자, 현장 교사, 교재 개발자, 학습자들이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로드맵 수정안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1]과 같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초급
항목 선정
내용 기술
언어 대조
중급
항목 선정
내용 기술
언어 대조
고급
항목 선정
검색기 개발

[그림 1] 로드맵 수정안

제2장 문법·표현 내용 기술 지침

1. 본서는 초보 한국어 교사를 위한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기술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초보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교육 경력 1~3년의 교사를 가리키며, 이는 국립국어원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2.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초급, 중급, 고급 문법·표현 항목은 국립국어원의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Ⅰ,Ⅱ(2010, 2011)의 수준별 문법 항목을 1차 대상으로 하되,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에서 제시한 항목 정련 기준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하였음을 밝힌다.

3. 기술에 사용된 문법 용어 중 반복되어 나타나며, 개념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용어들은 따로 <문법 용어 해설>을 두어, 개념 설명을 하였다.

4. 본서는 초보 한국어 교사들에게 교수에 필요한 문법·표현 내용 기술을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출간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의 사전식 기술을 따르지 않고, 교안 작성에 필요한 의미 및 용법 설명과 예문, 학습자 오류와 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유사 문법 설명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5. 각 기술 필드 아래에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을 두어 중국어 화자를 교수하는 교사들이나 학습자들이 알아 두면 좋을 중국인 학습자들의 빈번한 오류 유형을 제시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2.1. 기술 필드

2.1.1. 기술 필드 분류

<기술 필드>
1. 표제어
2. 의미 및 용법, 예문
3. 도입
4. 형태 정보
5. 문장 구성 정보
6. 제약 정보
7. 확장
8. 유사 문법

※ 기술 필드 구성 및 배열

· 크게 3단계로 구성

1~3: 초급 용법과 예문

4~6: 해당 문법 항목의 기본적인 문법 내용

7~8: 확장된 초급 용법과 중고급 문법 내용

· 필드의 배열 및 내용

1~3: 문법 항목의 제시 및 예문을 통한 의미 및 용법 이해를 목표로 함.

4~5: 형태 정보와 문장 구성 정보를 통해 해당 문법 항목을 연습하고 활용하도록 함.

6: 주요 제약 정보를 익혀 오류를 최소화함.

7: 기본적인 초급 문법 내용 이상을 요구하는 학습자를 위해 교사가 알아 두면 좋을 문법 지식과 중·고급 단계에서 필요한 용법을 제공함.

8: 유사 문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1.2. 각 필드의 내용

2.1.2.1. 표제어 제시

- 기술할 항목을 제시하는 필드이다.
- 대표형(1단계 사업 결과 반영)을 먼저 제시하고, 이형태, 관련형, 문법 범주, 간단한 의미를 차례로 기술한다.
- 의미 기술은 국립국어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를 준용한다.

2.1.2.2. 의미 및 용법, 예문

- 의미 및 용법은 표제어에서 기술한 의미 단위에 따라 별도로 기술된다.

-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쉽고 정확한 설명을 지향한다.
- 예문은 담화 예문과 문장 예문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 담화 예문은 해당 문법 항목이 자주 사용되는 담화 예문을 보여 줌으로써 의미를 좀 더 선명히 하고 상황에 맞게 문법 항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문장 예문 역시 초급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예문을 보여 주는 것이 원칙이며, 문법 항목의 연습을 위해 다양한 결합 관계를 보인다.

2.1.2.3. 도입

- 도입은 교사가 문법 항목을 교수할 때 그 항목을 도입하기에 적절한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소 두 개를 제시하되, 교실 내 환경을 이용하는 상황을 주로 제시하고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도입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 이를 제시한다.
- 도입에 의해 제시되는 문법 항목의 의미와 용법은 동일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 더 큰 의미에 포함되는 세부적 의미가 포함되기도 한다.

2.1.2.4. 형태 정보

- 문법 항목으로 문장을 만들기 위한 기초 단계로, 초급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휘와의 결합형을 규칙화하여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이다.
- 초급에서 다루어지는 불규칙 정보도 포함한다.
- 기술과 예시를 같이 보여 준다.

2.1.2.5. 문장 구성 정보

- 문장 구성 정보는 해당 항목으로 어떤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지 기술하는 필드이다.
- 자주 같이 사용되는 부사나 서술어, 문법 항목 등을 예문과 함께 기술한다.
- 문장 구성 정보는 패턴화하여 가르치는 정보를 말한다.

2.1.2.6. 제약 정보

- 문장을 구성하는 데 제약으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필드이다.
- 학습자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약 정보 내용을 기술한다. 학습자 오류와 관계가 없다면 [형태 정보]에서 기술한다.

2.1.2.7. 확장

- 확장은 관련형의 용법과 초급에서 가르치지 않지만 알아두면 좋을 추가적 용법, 중·고급 용법을 기술하는 필드이다.
- 중·고급 용법은 사전식으로 의미를 세분화하지 않고 교수 시 필요한 용법을 단위로 하여 제시한다.

2.1.2.8. 유사 문법

- 교사나 학습자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유사 문법을 문법 설명과 예문을 함께 들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드이다.
- 의미와 용법이 비슷하여 자주 오류를 보이는 문법 항목을 비교, 대조한다.

- 유사 문법 항목을 초급이 아닌 중급, 고급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기술한다.

※ 각 필드별로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경우 + 기호를 사용하여 설명을 덧붙인다.

2.2. 필드별 지침

2.2.1. 표제어

- '대표형+이형태+문법 범주+간단한 의미 기술'의 순서로 기술한다.(※대표형 1단계 보고서 참고)

> **과[와][조사]**: 1) 여러 사물이나 사람을 **연결**하거나 2) 행위를 **함께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

- 형태적 이형태가 아닌 경우, 즉 관련형은 { }로 표시한다.

> **-기 때문에{N 때문에/-기 때문이다}[표현]**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

- 표제어 표기: ① '붙임표'가 필요한 어미는 붙임표를 사용한다. ② 용언으로 끝나는 항목은 기본형 '-다'로 표기한다. ③ 1단계의 어깨번호를 유지한다. 이 어깨번호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2」의 동음이의어 표지이다. ④ 진하게 표시한다.
- 문법 범주: 1단계에서 정리한 '조사(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 선어말어미, 표현'을 사용한다.
- 표제어에는 결합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다.
- 간단한 의미 기술: ① 국립국어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를 준용하되 다른 사전 및 교재의 의미 기술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이를 택한다. ② 교재, 참고 자료 등을 참고하여 교수하는 의미 단위를 제시한다. 이 의미 단위별로 나머지 다른 필드의 기술이 이루어진다. 의미가 두 개 이상일 때는 1), 2) 번호를 붙인다. ③ 주요 의미를 진하게 표시한다.

> **-어 있다[-아 있다/-여 있다][표현] 결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표현.

> **-고 있다[표현]** 1) **동작의 진행** 2) **결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표현.

2.2.2. 의미 및 용법, 예문

2.2.2.1. 의미 및 용법

- '결합정보+의미+용법'의 순서로 기술한다.
- 결합정보는 '~에 붙어'를 사용하며 소괄호로 표시한다.
- 체언은 '명사'라고 표현한다.[6)]

6) 국립국어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2」에서는 체언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명사'를 사용하였다. 「한국

- 용언은 '동사, 형용사, 이다(아니다)'를 구분한다.
- 동사 및 '있다, 없다'와 결합하는 경우 "동사나 '있다, 없다, 계시다'에 붙어"를 사용한다.
  예) -는
- 의미는 '나타낸다', 용법은 '사용한다'를 사용하여 일관성 있게 기술한다.

> **-고 있다1)**: (동사에 붙어) 어떤 동작이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금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한다. 또한 진행의 의미가 확장되어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지속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는 주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요즘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

- 종결어미, 표현 등은 기능을 밝혀 기술하는 것을 권장한다.

> **-고1)**: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어떤 상태나 행위를 나열함을 나타낸다. 시간의 순서와 관계없이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이나 내용을 대등하게 연결할 때 사용한다.

2.2.2.2. 예문

2.2.2.2.1. 담화 예문

- 문법 항목의 용법을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담화 예문을 4~5 개 제시한다.
- 도입의 예문이나 문장 예문과 겹치지 않는 상황으로 가장 전형적인 예를 들도록 한다.

담화예문	가: 어떤 게 왕밍 씨 가방이에요? 나: 저 가방이에요. 제 가방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가: 미안해요.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나: 그럼 먼저 영화관에 **들어가 있을게요**. 가: 박물관 구경은 잘 했어요? 나: 아니요, 문이 **닫혀 있어서** 못했어요. 가: 작년에 심은 꽃이 살아 있어요? 나: 네, 잘 **자라고 있어요**. 가: 할아버지께서는 어떠세요? 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 결합 정보를 모두 보여 줄 수 있도록 담화예문을 작성한다.
- 정보성이 없는 대화는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예) **교사**: (영화를 보는 그림을 보여 주며) 왜 영화관에 가요?
  학생: 영화를 봐요.

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1단계」 에서도 이를 따라 '명사'로 체언을 대표하였다.

- 격식적인 담화에서 사용하는 문법 형태는 대화가 아닌 글의 형태로 보일 수 있다.
  예) -습니다

2.2.2.2.2. 문장 예문

- 문장 예문으로 문법·표현 항목을 연습할 수 있도록 전형적인 예문을 예로 든다.
- 주어가 있는 문장을 예로 드는 것이 원칙이나 1인칭 대명사가 주어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예문은 10여 개를 제시한다.
- 도입이나 담화 예문과 겹치지 않는 예문을 만든다.
-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을 보인다.
- 초급은 종결어미 '-어요'를 사용하는 문장의 예를 주로 보이되, 예문 말미에 격식적 어미인 '-다, -습니다'의 예를 한두 개 정도 제시한다.
- 격조사 예문의 기술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격조사가 결합된 어절의 성분을 고려하여 기본 문형의 예문을 먼저 제시한다.
  예) 장소의 '에'
  ② 받침에 따라 교체를 하는 경우 받침 있는 명사 뒤의 형태를 먼저 제시한다.
  ③ 결합 빈도가 높은 명사를 먼저 배열하며, 다양한 명사 결합(사람, 사물, 동물, 장소 등)을 보인다.
- 보조사 기술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여러 성분과의 결합 관계를 제시한다.
  ② 명사 외의 품사와 결합하는 경우 이를 제시한다.
  ③ 연결 어미 뒤에 결합하는 조사를 기술한다.
- 어미 기술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첫 번째 예문은 '-다' 형식의 긍정문, 현재, 받침 있는 어간, 규칙형의 예로 한다.
  ② 용언 결합형 → 이다, 아니다 → 있다, 없다(필요 시 넣음) 순으로 한다.
  ③ 2에서 동사, 형용사의 결합 형태가 다르면 동사, 형용사 순으로 한다.
  ④ 규칙 받침 o → 규칙 받침 x → 이형태나 음운 축약, 합음의 예(1~2개) → 불규칙 순으로 한다.
  ⑤ 시제 형태소 제약이 있는 문장 예문은 후반부에 보인다.

문장예문	· 수지 씨 가방에 책과 지갑이 **들어 있어요.** ·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 저는 **앉아 있고** 친구는 **서 있어요**. · 영수가 침대에 **누워 있어요.** · 식당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어요.** · 교실에 불이 **꺼져 있어요.** · 지갑이 복도에 **떨어져 있어요**. · 식탁에 꽃병이 **놓여 있어요**. ·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요.** · 기차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2.2.2.2.3. 상세 설명

- 예문 아래 해당 문법 항목의 의미나 용법에 대한 상세 설명을 덧붙인다. 이때 시작하는 기호는 '+'이다.
- 의미 및 용법의 상세 설명에는 예문을 활용하여 의미 및 용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필요한 경우 학교문법적 설명을 할 수 있다.

2.2.3. 도입

- 교실 내 환경을 이용하는 상황을 주로 제시하고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도입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 이를 제시한다.
- 도입은 교사와 학습자의 대화로 제시한다.

> 교사: (책상 위에 책, 볼펜 등을 놓은 후)
> 책상에 무엇이 있어요?
> 학생1: 책이 있어요.
> 학생2: 펜이 있어요.
> 교사: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모두 치우고 책만 둔다)
> 책상에 무엇이 있어요?
> 학생: 책이 있어요.
> 교사: 다른 것이 있어요?
> 학생: 아니요.
> 교사: 책상 위에 책이 있어요. 책**만** 있어요.

- 목표 문법을 도입하고 설명을 붙이는 경우 이 설명은 예문 상황을 이용해서 한다. 설명이 필요 없으면 하지 않는다. 설명에서 '행위, 상태' 등의 용어는 쓰지 않는다.

> 교사: (의자에 앉은 후) 선생님이 지금 앉았어요, 섰어요?
> 학생: 앉았어요.
> 교사: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있어요. 선생님은 의자에 **앉아 있어요.**

- 도입에 의해 제시되는 문법 항목의 의미와 용법은 동일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 더 큰 의미에 포함되는 세부적 의미가 포함되기도 한다.
- 도입 예문 아래 해당 문법 항목의 도입에 대한 상세 설명을 덧붙인다. 이때 시작하는 기호는 '+'이다.

2.2.4. 형태 정보

- 문법 항목으로 문장을 만들기 위한 기초 단계로, 초급에서 주로 사용되는 동사, 형용사와의 결합형을 규칙화하여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이다. 문장 패턴 드릴에 활용할 정보를 준다.
- 초급에서 배우는 축약형도 형태 정보에서 제시한다.

예) 의: '나의'가 '내'로 축약되는 예

- 규칙형 뒤에 불규칙형을 제시한다.
- 예시는 형태별로 4~5개를 제시한다.
- 규칙형은 추가로 표로 정리해서 보여 준다.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십시오'를 쓴다.

예) 읽- + -으십시오 → 읽으십시오　　앉- + -으십시오 → 앉으십시오
잡- + -으십시오 → 잡으십시오　　찾- + -으십시오 → 찾으십시오
참- + -으십시오 → 참으십시오　　먹- + -으십시오 → 먹으십시오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십시오'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십시오 → 가십시오　　쓰- + -십시오 → 쓰십시오
자- + -십시오 → 자십시오　　하- + -십시오 → 하십시오
살- + -십시오 → 사십시오　　만들- + -십시오 → 만드십시오

+ '-으십시오'는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ㄴ'이 결합한다.
+ 학습자들이 '어서 오십시요', '안녕히 계십시요'와 같이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발음은 '-으십시요'로 나지만 동사 어간에 '-으십시오'가 붙은 형태이므로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로 쓰도록 주의한다.

①	받침 o	+ -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잡으십시오, 찾으십시오, 참으십시오, 먹으십시오
②	받침 x	+ -십시오	가십시오, 쓰십시오, 자십시오, 하십시오
	ㄹ 받침	+ -십시오 (어간 'ㄹ' 탈락)	사십시오, 만드십시오

③ 불규칙 동사

듣-　예)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눕-　예) 어서 침대에 **누우십시오.**
낫-　예) 감기 빨리 **나으십시오.**

- 한 항목의 두 번째 의미를 기술할 때는 형태 정보를 상세히 기술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기술한다.

  예) -고 있다2): 앞의 '-고 있다1)'을 참고하되, 일부 동사와만 결합하므로 이에 주의한다.
  과2): 앞의 '과1)'을 참고한다.

- 설명되지 않은 형태 오류는 맨 마지막에 '√' 기호를 하고 보인다.

  예) -지만: √ 마셔지만(x), 마시지만(o)

- 기술 용어와 예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동사, 형용사와 모두 결합하는 경우는 동사, 형용사 순으로 예를 보인다.

· 예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받침○ → 받침x → 음운 축약 → 합음 → '一' 탈락 → 피동사(음운 축약의 예)

· 불규칙 용언은 문장 예를 보인다. 불규칙 동사의 순서는 ㄷ, ㅂ, ㅅ, ㅎ, 르 순으로 하되, 어휘는 초급에 해당하는 것만 제시한다.

1) 어/아 교체

· 기술 순서와 용어: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인 경우 '-아 있다'를 쓴다/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가 아닌 경우 '-어 있다'를 쓴다/'-하다'가 붙은 동사 어간에는 '-여 있다'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 있다'로 쓴다.

①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인 경우 '-아 있다'를 쓴다.

예) 남- + -아 있다 → 남아 있다　　앉- + -아 있다 → 앉아 있다
살- + -아 있다 → 살아 있다　　가- + -아 있다 → 가 있다
오- + -아 있다 → 와 있다　　나오- + -아 있다 → 나와 있다

②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가 아닌 경우 '-어 있다'를 쓴다.

예) 들- + -어 있다 → 들어 있다　　죽- + -어 있다 → 죽어 있다
피- + -어 있다 → 피어 있다/펴 있다　　서- + -어 있다 → 서 있다
닫히- + -어 있다 → 닫혀 있다　　놓이- + -어 있다 → 놓여 있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어간에는 '-여 있다'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 있다'로 쓴다.

예) 입원하- + -여 있다 → 입원해 있다　　정지하- + -여 있다 → 정지해 있다

①	ㅏ, ㅗ	+ -아 있다	남아 있다, 앉아 있다, 살아 있다, 가 있다, 와 있다, 나와 있다
②	ㅏ, ㅗ 이외	+ -어 있다	들어 있다, 죽어 있다, 피어 있다(펴 있다), 서 있다, 닫혀 있다, 놓여 있다
③	-하다	+ -여 있다 (-해 있다)	입원해 있다, 정지해 있다

④ 불규칙 동사

붇- 예) 비가 많이 와서 한강의 물이 **불어 있어요.**
눕- 예) 감기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붓- 예) 어제 넘어져서 다리가 계속 **부어 있어요.**

.

· 예시는 받침 있는 동사, 'ㄹ' 받침 동사, 받침 없는 동사, 형용사 순으로 한다.

2) 받침 유무에 따른 교체

· 기술 순서와 용어

조사: 명사류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받침이 없으면 '~'를 쓴다.

어미, 표현: 동사(및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없으면 '~'를 쓴다.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과'를 쓴다.

예) 가방 + 과 → 식당과　　연필 + 과 → 연필과
도서관 + 과 → 도서관과　　핸드폰 + 과 → 핸드폰과
은행 + 과 → 은행과　　책 + 과 → 책과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와'를 쓴다.

예) 컴퓨터 + 와 → 컴퓨터와　　전화 + 와 → 전화와
학교 + 와 → 학교와　　의자 + 와 → 의자와
한국어 + 와 → 한국어와　　종이 + 와 → 종이와

①	받침 o	+ 과	가방과, 연필과, 도서관과, 핸드폰과, 은행과, 책과
②	받침 x	+ 와	컴퓨터와, 전화와, 학교와, 의자와, 한국어와, 종이와

.

3) 교체가 없는 항목

· 기술 용어

조사: 명사류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어미, 표현: 동사(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고 있다'를 쓴다.

예) 찾- + -고 있다 → 찾고 있다　　먹- + -고 있다 → 먹고 있다
잡- + -고 있다 → 잡고 있다　　살- + -고 있다 → 살고 있다
가- + -고 있다 → 가고 있다　　흐르- + -고 있다 → 흐르고 있다

①	받침 o	+ -고 있다	찾고 있다, 먹고 있다, 잡고 있다, 살고 있다
	받침 ×	+ -고 있다	가고 있다, 흐르고 있다

.

4) '이다, 아니다'

· 기술 용어

'이다, 아니도'는 '-지만'을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지만'이라고 쓴다.

· 예시 순서: 받침 유무에 따라 교체하는 어미의 경우 예시 순서는 받침 있는 것 → 없는 것 → '아니다' 순으로 보인다. 명사에 받침이 없는 경우는 줄인 꼴과 함께 보인다.

② '이다, 아니다'는 '-지만'을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지만'이라고 쓴다.

예) 학생이- + -지만 → 학생이지만　　책이- + -지만 → 책이지만
의사이- + -지만 → 의사이지만/의사지만　　사람이- + -지만 → 사람이지만
가수이- + -지만 → 가수이지만/가수지만　　아니- + -지만 → 아니지만

+ 'N+-지만'은 격식적인 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5) 기타 상세 설명의 기술 용어

+ 이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으'일 때는 '으'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때 '으' 모음은 탈락한다. 참고) -어도 되다
+ '이 아니다'의 '이'는 주격 조사 '이'와 형태가 같은 보격 조사로 주격 조사와 마찬가지로 명사류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참고) 이 아니다
+ 'ㄹ' 받침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할 때 'ㄹ' 받침이 탈락하지 않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참고) -음
+ '-은'은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ㄴ'이 결합한다. 참고) -은
+ '-으면'은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데,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다른 받침과 달리 '-으면'이 아니라 '-면'이 결합한다. 참고) -으면
+ '가숩니다', '요리삽니다'는 격식적인 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참고) -ㅂ니다
+ '아니다'에 어미 '-어요'가 붙은 '아니어요'는 줄여서 '아녀요'라고 쓴다. '아니여요'는 잘못된 표기이다. 참고) -어요
+ '-고 있다'는 동사와 결합하며, 어떤 동사가 와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2.2.5. 문장 구성 정보

- 결합의 정도성에 따라 문장 구성 정보와 확장의 내용이 구분된다. 즉 문장 구성 정보는 패턴화하여 가르치는 정보를 말한다.
  예) 문장 구성 정보의 예: -을테니까 ~ 하세요 / 비록 -을지라도 / 만약 -으면
  확장의 예: 지금 -고 있다
- 제시 순서: 결합 용언(필요한 경우), 자주 같이 사용되는 부사나 서술어, 호응 구문, 부정문, 높임법

1) 유형 1: 결합 용언

① 착용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와 감정 및 인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타동사와 결합한다.

예) 동생이 시계를 **차고 있어요**.
동생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 결합되지 않은 용언은 제약 정보에서 다룬다. 참고) -고 있다: 순간 동사와의 결합 제

약은 제약 정보에서 기술

2) 유형 2: 자주 같이 사용되는 부사나 서술어

① 현재 진행의 의미를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 '지금'과 같은 부사가 함께 사용된다. 예) 가: 지갑을 찾았어요? 나: 아니요, 지금 **찾고 있어요.**

예) 비록 -을지라도 / 만약 -면

3) 유형 3: 호응 구문

예) -을 테니까 ~하세요

4) 유형 4: 부정문, 높임법, 시제에 대한 정보

· 학습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오류를 보이는 정보를 기술한다.

· 부정문에 대한 정보는 부정 요소가 두 군데 전부 결합할 시, 뭔가 설명이 필요할 때 한다. 예를 들어 '-는 동안에'는 부정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으며, '-어야 되다'는 필요하다.

② 부정문은 '-고 있지 않다, 안 -고 있다'로 쓴다. '안 -고 있다'는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 지금 비가 **오고 없어요**. (x) 지금 비가 **오고 안 있어요**. (x)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아요**. (o)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어요**. (o)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o) ③ 문장의 주체를 높일 경우에는 '-고 계시다'로 쓴다. 예)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보고 있으세요**. (x)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보고 계세요**. (o)

· 시제 정보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④ 과거는 '-고 있었다'로 쓴다. '-고' 앞에 '-었-'을 붙이지 않는다. 예) 눈이 **내렸고 있어요**. (x) 눈이 **내렸고 있었어요**. (x)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o)

※ 만약 '-었-'이나 '겠-' 중 하나라도 결합 제약이 있으면 제약 정보에서 같이 기술한다.

① 과거는 '-었기 때문에'로 쓴다.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요. (o) 밥을 다 **먹겠기 때문에** 배가 부를 거예요. (x)

2.2.6. 제약 정보

- 제약 정보에는 조사, 어미 등 문법 범주에 따라 제약으로 설명하는 것이 교수에 효과적인 정보를 말한다.
- 조사의 경우 조사 결합 제약은 제약 정보에서 제시한다.
  예) 은1: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 어미의 경우 동사, 형용사 등 결합 제약, 주어 인칭 제약, 동일 주어 제약, 시제 형태소 제약, 문장 종결 제약 등이 있다.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날씨가 **춥고 있습니다**. (x) 수지가 **예쁘고 있습니다**. (x) + 형용사 뒤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동사가 되면 '-고 있-'이 결합할 수 있다.

· 이때 제시 순서는 동사·형용사 등 결합 제약, 주어 인칭 제약, 동일 주어 제약, 시제 형태소 제약, 문장 종결 제약, 기타로 한다.
· 동일 주어 제약이 있는 연결어미에 의한 접속문은 후행절의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제약이라고 할 수 없으나 학습자들이 오류를 자주 범하는 경우 이를 기술해 준다.
· 시제 형태소 제약에는 선행절에 시제 형태소를 사용할 수 없는 제약도 있고, '-지만'의 예처럼 선행절의 시제를 절대시제로 표시해야 하는 제약도 포함된다.
 · 기술 용어: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 문장 종결 제약의 기술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한다.
  예) 뒤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
- 간략히 표로 제시할 수 있으면 표를 사용한다.

2.2.7. 확장

- 확장에는 초급에서 다루어지지 않지만 교사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문법 정보와 중·고급 용법을 포함한다.
- 확장에 포함되는 정보는 관련형의 용법, 준말/본말, 자주 결합해서 사용하는 조사, 조사 생략, 관용적 용법 등이 포함된다.
- 제시 순서: 중·고급 용법을 맨 뒤에 제시한다.

1) 유형 1: 관련형의 용법

① 'N 때문에'의 구성으로 쓰기도 한다. 'N'만으로 이유나 원인을 추측할 수 있을 때 사용한다. 예) 저는 **부모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기 때문에/효도하기 위해) **비 때문에** 길이 막힌다. (비가 오기 때문에/비가 와서 앞이 잘 안 보여서..) **너 때문에** 오늘 학교는 못 가겠다. + 'N+(이)기 때문에'는 '(　　)이 N+이다'라는 문장에 '-기 때문에'가 결합한 것이므로 위의 문장을 아래의 문장으로 대체할 수 없다.

예) 저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요. (x)
비이기 때문에 길이 막힌다. (x)
너이기 때문에 오늘 학교는 못 가겠다. (x)

+ 'N+(이)기 때문에'의 구성으로 쓸 수 있는 문장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예) 저는 **아빠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나는 아빠이므로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주어와 N이 같음)
저는 **아빠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아빠에게 효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주어와 N이 같지 않음)

② '-기 때문이다'의 구성으로 쓰기도 한다. 문어에서는 주로 '왜냐하면'과 결합하여 사용한다.

예) 가: 왜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나: 한국 가수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 '-기 때문이다'를 사용하면 이유가 뒤 절에 온다.

예)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 제가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이유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2) 유형 2: 준말/본말

① '-지만'은 '-지마는'의 준말이다. 보통 '-지만'을 더 많이 사용한다.

예) 형은 키가 **크지만** 나는 키가 작아요.
= 형은 키가 크지마는 나는 키가 작아요.
나는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청춘이다.
= 나는 비록 몸은 늙었지마는 마음은 청춘이다.

3) 유형 3: 자주 결합해서 사용하는 조사

① '는, 도, 만' 등의 조사와 함께 쓰인다.

예) 어머니**께서는** 늦게 주무세요.
할머니**께서도** 텔레비전을 보십니다.
아버지**께서만** 집에 일찍 들어오셨어요.
할아버지**께서만** 음식을 드십니다.

4) 유형 4: 조사 생략

③ 비격식적인 구어에서는 흔히 '을'을 생략한다. 격식적인 구어나 문어에서는 '을'을 잘 생략하지 않는다.

예) 커피∅ 잘 안 마셔요.
휴지∅ 주세요.

수업이 끝나고 누구∅ 만나요?
식사 후에 어디∅ 가요?

5) 유형 5: 관용적 용법

② '미안하다, 죄송하다, 실례하다' 등에 붙어, 부탁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상황에서 관용적으로 쓰인다.

예) **미안하지만** 그 책 좀 나한테 줘.
죄송하지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어디 계세요?
바쁘시겠지만 같이 좀 갑시다.

6) 유형 6: 중・고급 용법(중・고급 용법을 교수 단위별로 나누어 제시한다.)

② 어떤 상황의 원인임을 나타낸다.

예) 이번 태풍**에** 집이 무너졌어요.
큰 소리**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비**에** 옷이 젖었어요.
오랜 유학 생활**에** 건강이 안 좋습니다.

2.2.8. 유사 문법

- 유사 문법은 초급 항목과 유사한 모든 문법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설명은 두 항목 모두에서 한다.
- 각 용법에 따라 비교할 수 있도록 설명과 예시를 함께 제시한다.
- 화용적 차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제외. 화용인지 문법인지 헷갈릴 때, 관습화된 화용적 정보는 집필. (불분명한 것은 제외)
- 표로 제시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표 형식: ① 위에 항목을 쓰되, 왼쪽에 집필 표제어, 오른쪽에 유사 문법 항목(따옴표 사용하지 않음)을 쓴다. ② 첫 비교 칸에는 유사점을 쓴다. ③ 다음 칸에는 칸을 나누어 차이점을 기술한다.

으로	**에3)**
. 행위가 향하는 목적지를 나타낸다. 예) 수업이 끝나면 식당**에** 오세요. 수업이 끝나면 식당**으로** 오세요.	
・도착점을 나타낼 때 쓸 수 없다. 예) 나는 서울**로** 도착했다. (x)	・도착점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다. 예) 나는 서울**에** 도착했다. (o)
. 목표점이나 방향, 경유지를 나타낼 때 쓸	. 목표점이나 방향, 경유지를 나타낼 때 쓸

수 없다. 예) 나는 부산**으로** 떠났다.(목표점) (o) 화장실에 가려면 아래**로** 내려가세요.(방향) (o) 이 길**로** 돌아가면 빠르다.(경유지) (o)	수 없다. 예) 나는 부산**에** 떠났다.(목표점) (x) 화장실에 가려면 아래**에** 내려가세요.(방향) (x) 이 길**에** 돌아가면 빠르다.(경유지) (x)

-어서1)	**-으니까1)**	**-기 때문에**
·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낸다.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비가 **왔어서** 여행을 취소했다. (x)	· 과거 '-었-'과 결합한다. 예) 비가 **왔으니까** 여행을 취소했다. (o)	· 과거 '-었-'과 결합한다. 예) 비가 **왔기 때문에** 여행을 취소했다. (o)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비가 **와서** 여행을 취소하자. (x)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있다. 예) 비가 **오니까** 여행을 취소하자. (o)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비가 **오기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자. (x)

- 표 아래에는 '+'를 사용하여 상세한 설명을 덧붙인다.

2.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2.3.1. 주요 내용

- 중국어 화자를 교수하는 교사들에게 기존 한국어 문법서에서 기술하지 않았던 중국어와의 대조언어학적인 정보를 포괄적이고 충실하게 제공하였다.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와 목표어인 한국어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를 예측하고 그 원인을 밝힐 수 있게 하므로 한국어 교수 학습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여긴다.
- 해당 항목의 한국어 기본 의미 내용 기술에 기초하여 중국어에 대응되는 형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학습자의 오류 말뭉치를 통해 교수·학습상의 난점이나 특징들을 제시한다.
-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은 '① 대응 표현'과 '② 용법과 오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 ① 대응 표현에서는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응하는 중국어 문법·표현을 제시한다. 그리고 대응 문법·표현의 한국어 예문과 중국어 예문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해당 문법·표현이 각각의 언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 ② 용법과 오류에서는 기능 또는 의미상으로 유사하여 대응이 가능하지만 해당 문법·표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비롯한 용법상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오류 예문을 원인별로 제공한다. 기술 내용은 한국어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조 기술할 것이며 문법적 차이로 발생하는 오류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아래와 같이 기술할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예) 한국어 문장 - 중국어 문장
② 용법과 오류
예) 대응 표현의 차이로 인한 오류문 제시, 대응 표현이 없어 생기는 오류문 제시, 학습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오류문 제시 등

2.3.2. 지침

① 대응 표현
- 일대일 대응 방식이 가능할 경우, 해당 중국어 문법·표현 항목을 제시한다.

4.10. '하고'

① 대응 표현: '和'

- 일대다 대응 방식일 경우, 가능한 대응 표현을 모두 제시한다.

4.11. ‘한테서’

① 대응 표현: '从', '向', '跟'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 대응 방식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시한다.

4.12. ‘-고’

① 대응 표현: 없음.

- 예문은 결합하는 방식과 품사의 양상을 다양하게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국어와 중국어의 해당 문법·표현을 진하게 표시하여 대응되는 형식을 보여 준다.

3.2.2. ‘-었-’

① 대응 표현: ‘了’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친구와 같이 영화를 **봤어요**. - 和朋友去看电影**了**.
주말에 뭘 **했어요**? - 周末做什么**了**？
철수 씨 말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 听**了**哲洙的话，心情可不好**了**.
어제 만난 사람이 철수 씨 형**이었어요**. - 昨天见到的那个人是哲洙的哥哥.

② 용법과 오류

- 한국어 문법·표현과 중국어 대응 표현의 사용상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오류와 원인을 밝히고 오류 예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습자의 오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유형

1) 중국어 대응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용법이 다를 때

3.3.9. ‘-으려고1’

- 목적, 의도를 나타내는 '-으려고1'은 명령문이나 청유문과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 '为', '为了'는 이런 제약이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이번 경기에 우승하려고 열심히 노력합시다. (x)
책을 빌리려고 도서관에 가세요. (x)

2) 중국어에는 한 가지 형식이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이나 의미로 나타날 때

3.1.6. ‘마다’

- 조사 '마다'와 관형사 '매'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모두 '每……'이므로 학습자들이 '마다'로 실현되어야 하는 상황에 관형사 '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대응 표현 '每……'가 명사 앞에 오므로 관형사 '매'의 용법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예) 나는 매 방학에 집에 가요. (x)
매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x)
매 교실에 책상과 의자가 있어요. (x)

- 중국어에 대응 표현이 없을 때

3.2.3. '-으시-'

- 중국어에는 대응 표현이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으시-'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키가 큽니다. (x)
할머니께서는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x)

제3장 초급 문법·표현 내용 기술의 실제

3.1. 조사

3.1.1. '과'

과[와][조사] 1) 여러 사물이나 사람을 **연결**하거나 2) 행위를 **함께하는 대상** 등을 나타내는 조사.

과1): (명사에 붙어)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뜻을 나타낸다. 앞뒤 명사 모두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교실에 무엇이 있어요? 나: 책상**과** 의자가 있어요. 가: 편의점에서 무엇을 샀어요? 나: 빵**과** 라면을 샀어요. 가: 앤디 씨는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나: 네, 꽃**과** 책을 받았어요. 가: 식당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나: 앤디**와** 수지를 만났어요. 가: 철수 씨는 방학 때 어디에 갔습니까? 나: 저는 대구**와** 부산에 갔습니다.
문장예문	· 마이클**과** 앤디는 제 친구입니다. · 저는 수학**과** 컴퓨터를 배워요. · 저는 수박**과**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 동생은 밥**과** 김치를 먹어요. · 오늘**과** 내일은 수업이 없어요. · 엄마**와** 아빠가 중국으로 여행을 가십니다. ·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 갑니다.

	· 언니는 목걸이**와** 귀걸이를 했습니다. · 왕밍은 바지**와** 가방을 샀어요. · 흐엉 씨는 한국어**와** 영어를 공부해요.

+ '과1)'은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교실에 무엇이 있어요?'의 대답으로 제시된 '책상과 의자가 있어요.'를 보면 교실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과1)'로 접속되는 두 명사는 자리를 바꾸어 '의자와 책상이 있어요.'로 사용해도 의미가 같으며, 접속되는 명사는 꼭 둘이 아니라 셋 이상이어도 무방하다. (둘이 가장 많이 사용됨.)
+ '과1)'로 연결된 두 명사의 격을 나타내는 조사는 '[책상과 의자]가, [빵과 라면]을'에서 보듯 맨 뒤에 오는 명사 뒤에 붙는다.

[도입]

(1)
교사: 교실에 무엇이 있어요?
학생: 책상이 있어요.
교사: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학생: 컴퓨터가 있어요.
교사: 네, 교실에 책상**과** 컴퓨터가 있어요.
학생: 책도 있어요.
교사: 네, 교실에 책상**과** 컴퓨터**와** 책이 있어요.

(2)
교사: 앤디 씨 집에 누가 있습니까?
학생: 아버지가 계십니다.
교사: 또 누가 계십니까?
학생: 어머니가 계십니다.
교사: 또 누가 계십니까?
학생: 할머니가 계십니다.
교사: 네, 앤디 씨 집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머니가 계십니다.

+ '과1)'을 도입할 때 (1)처럼 연결하고자 하는 대상을 학생들로부터 유도한 후 '과1)'을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실이나 병원 등 특정 공간에 있는 사물을 활용하거나 가족, 좋아하는 음식 등 학생들에게 친근한 소재를 이용하여 명사를 연결하는 '과1)'을 이해하게 한다.

[형태 정보]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과'를 쓴다.

예) 가방 + 과 → 식당과　　연필 + 과 → 연필과

도서관 + 과 → 도서관과　　핸드폰 + 과 → 핸드폰과
은행 + 과 → 은행과　　책 + 과 → 책과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와'를 쓴다.

예) 컴퓨터 + 와 → 컴퓨터와　　전화 + 와 → 전화와
학교 + 와 → 학교와　　의자 + 와 → 의자와
한국어 + 와 → 한국어와　　종이 + 와 → 종이와

①	받침 o	+ 과	가방과, 연필과, 도서관과, 핸드폰과, 은행과, 책과
②	받침 x	+ 와	컴퓨터와, 전화와, 학교와, 의자와, 한국어와, 종이와

[제약 정보]

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과'를 사용할 수 없다. 이때는 '그리고'를 사용한다.

예) 철수는 영어를 공부해요. **와** 앤디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x)
철수는 영어를 공부해요. 그리고 앤디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o)

+ 다음 예처럼 두 문장의 구성이 같고 주어만 다르거나 목적어만 다를 때, 접속 조사 '과'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 철수는 영어를 공부해요. 그리고 철수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철수는 영어**와** 한국어를 공부해요.
철수가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영희가 학교에 갑니다.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 갑니다.

[유사 문법]

① '과1)', '이랑1)', '하고1)'

과1)	이랑1)	하고1)
. 명사에 붙어 여러 개의 사물이나 사람을 연결할 때 쓴다.		
.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쓴다.	. 주로 말할 때 쓴다. 예) 가: 명동에서 무엇을 샀어요? 나: 목걸이**랑** 반지를 샀어요.	. 주로 말할 때 쓴다. 예) 주인: 무엇을 드릴까요? 손님: 김밥**하고** 떡볶이 주세요.
. 주로 격식적인 자리에서 쓴다. 예)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 격식적인 자리에서 잘 안 쓴다. 예)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믿음**이랑** 용기를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 격식적인 자리에서 잘 안 쓴다. 예)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믿음**하고** 용기를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 제일 끝에 연결되는 명사 뒤에 사용할 수 없다. 예) 옷**과** 가방**과** 사요. (x)	. 제일 끝에 연결되는 명사 뒤에 사용할 수 있다. 예) 옷**이랑** 가방**이랑** 사요. (o)	. 제일 끝에 연결되는 명사 뒤에 사용할 수 있다. 예) 옷**하고** 가방**하고** 사요. (o)

+ '과1)'은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모두 사용하지만 '이랑1)'이나 '하고1)'은 주로 말을 할 때 자주 사용된다. 또한 '과1)'은 주로 연설, 발표, 토론 등의 격식적인 자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반면 '이랑1)'과 '하고1)'은 격식적인 자리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 '과1)', '이랑1)', '하고1)'은 의미는 같지만 서로 섞어 쓰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저는 수박하고 딸기하고 바나나하고 귤을 좋아해요.'와 같은 문장을 '저는 수박하고 딸기와 바나나랑 귤을 좋아해요.'와 같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준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和'

예) 책상 위에 연필**과** 책이 있다. - 桌子上有铅笔**和**书.
아침에 빵**과** 우유를 먹습니다. - 早上吃面包**和**牛奶.
저는 누나**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 我有姐姐**和**弟弟.
아버지**와** 어머니는 은행원이십니다. - 爸爸**和**妈妈是银行职员.

② 용법과 오류

- 명사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과', 받침이 없으면 '와'가 결합한다. 그런데 조사 '이', '은', '을' 등은 모두 받침이 있는 명사 뒤에 결합되고 받침이 없는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는, 를)가 결합되므로 학습자들이 헛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예) 나무과 꽃 (x)
책상와 의자 (x)

과2): (명사에 붙어)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함께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누구 또는 무엇과 같이 어떤 행위를 함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마이클 씨는 누구**와** 농구를 해요? 나: 저는 친구들**과** 농구를 해요. 가: 철수 씨는 어제 저녁에 가족들**과** 식사했어요? 나: 네, 가족들**과** 식사했어요. 가: 수지 씨는 누구**와** 여행을 갈 거예요? 나: 저는 언니**와** 여행을 갈 거예요.

	가: 앤디 씨는 라면을 먹을 때 무엇하고 먹어요? 나: 저는 라면을 먹을 때 김치**와** 먹어요. 가: 왕밍 씨는 친구**와** 있으면 무엇을 해요? 나: 저는 보통 친구**와** 같이 영화를 봅니다.
문장예문	. 저는 어제 친구들**과** 영화를 봤어요. . 형은 부모님**과** 서울에서 살아요. · 저는 수업 후에 선생님**과** 공부해야 해요. · 마이클은 내일 동생**과** 도서관에 갈 거예요. . 저는 앤디**와** 명동에서 쇼핑해요. . 수지는 철수**와** 커피를 마셨어요. . 어제 언니**와** 한강에서 운동했어요. . 동생은 엄마**와** 편의점에 갔어요. · 저는 매일 강아지**와** 산책해요. · 저는 누나**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 '과2)'는 어떤 행위를 함께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누구와 농구를 해요?'의 대답으로 제시된 '친구들과 농구를 해요.'를 보면 '과2)'의 의미가 농구라는 행위를 친구들과 함께함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친구와 같이 영화를 봅니다'의 예문에서 보듯 'N+과' 뒤에 '같이, 함께' 같은 공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가 어울려 사용된다.

[도입]

(1)
교사: 마이클 씨, 학교에 혼자 와요?
학생: 아니요, 친구 같이 와요.
교사: 네, 마이클 씨는 학교에 친구**와** 와요.
교사: 앤디 씨, 혼자 살아요?
학생: 아니요, 친구 같이 살아요.
교사: 네, 앤디 씨는 친구**와** 살아요.

(2)
교사: 철수 씨 방학 때 여행 가요?
학생: 네, 가요.
교사: 누구 같이 가요?
학생: 친구 같이 가요. / 부모님 같이 가요.
교사: 네, 철수 씨는 여행을 친구**와** 가요. / 부모님**과** 가요.

+ '과2)'를 도입할 때 '친구, 부모님' 등의 명사를 사용하여 '과2)'가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함께 하는 대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학습자에게 '누구와 같이'라는 의미의 대답을 유도한 후, 마지막에 교사가 목표 문법을 활용하여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게 한다.

[형태 정보]
앞의 '과1)'을 참고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같이', '함께'와 같은 공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와 자주 쓰인다.

예) 저는 친구**와** 같이 영화를 봤어요.
앤디는 동생**과** 같이 숙제를 했습니다.
언니는 엄마**와** 함께 운동을 해요.
수지는 오빠**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확장]
① 주로 '비교하다, 비슷하다, 같다, 다르다, 가깝다, 친하다' 등의 동사, 형용사와 함께 쓰여 비교의 대상이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예) 앤디는 마이클**과** 비교하면 키가 큰 편이에요.
우리 학교 수업 시간은 다른 학교**와** 비슷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물**과** 같다.
언니는 생김새가 나**와** 달라요.
수지는 미도리**와** 친합니다.

② 어떤 행위를 함께하는 상대를 나타낸다.

예) 앤디 씨는 수지 씨**와** 사귑니다.
언니**와** 남자친구는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 남자는 나**와** 결혼해요.
저는 동생**과** 자주 싸워요.

+ 이때 'N+과'를 생략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반면 '함께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N+과2)'는 생략해도 문장이 문법적이다.

예) 앤디 씨는 수지 씨**와** 사귑니다.
앤디 씨는 사귑니다. (??)
저는 어제 친구들**과** 영화를 봤어요.
저는 어제 영화를 봤어요. (o)

[유사 문법]
① '과2)'와 '이랑2)'과 '하고2)'

과2)	이랑2)	하고2)
. 명사에 붙어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함께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쓴다.	. 주로 말할 때 쓴다. 예) 저는 주로 친구들**이랑** 밥을 먹어요.	. 주로 말할 때 쓴다. 예) 저는 주로 친구들**하고** 밥을 먹어요.
. 주로 격식적인 자리에서 쓴다. 예) 국민 여러분과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 격식적인 자리에서 잘 안 쓴다. 예) ??국민 여러분**이랑**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 격식적인 자리에서 잘 안 쓴다. 예) ?국민 여러분**하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和'(과), '和……一起'(과 같이)

예) 주말에 친구**와** 등산했어요. - 周末**和**朋友爬山了.
나는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 我想**和**朋友去看电影.
부모님**과**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요. - 想**和**父母**一起**去旅行.
언니가 동생**과** 같이 갔어요. - 姐姐**和**妹妹**一起**去的.

② 용법과 오류

- '과2)'는 부사격 조사로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같이'와 함께 사용된다.

예) 철수는 영희**와** 영화를 보러 갔어요. (o)
철수는 영희**와**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o)

3.1.2. ‘까지1’

까지1[조사] 범위의 **끝 지점**을 나타내는 조사.

까지1: (명사에 붙어) 시간이나 공간 범위의 끝 지점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가: 몇 시**까지** 공부해요? 나: 오후 다섯 시**까지** 공부해요. 가: 이 가게는 일요일에 문을 열어요? 나: 네, 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 열어요. 가: 언제**까지** 시험 기간이에요? 나: 10월 25일**까지** 시험 기간이에요. 가: 여기에서 도서관**까지** 가까워요? 나: 네, 버스로 10분쯤 걸려요. 가: 명동에서 대학로**까지** 어떻게 가요? 나: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세요.
문장예문	· 2월**까지** 방학이에요. · 한 시**까지** 교실로 오세요. · 앤디는 다섯 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요. · 미도리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친구를 기다립니다. · 마이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갑니다. · 흐엉은 버스정류장**까지** 걸어 다녀요. · 영희는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었어요. · 한국에서 중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 저는 내년까지**는** 한국에 있을 거예요. · 철수는 오후 2시까지**만** 일을 합니다.

+ ‘까지’는 어떤 범위의 끝 지점이나 한계를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주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며 ‘오후 6시까지’, ‘10월 25일까지’처럼 시간의 끝 지점을 나타내기도 하고 ‘도서관까지’, ‘대학로까지’처럼 공간적 장소의 끝 지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까지’는 ‘은/는, 도’와 같은 다른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도입]

(1)
교사: 앤디 씨는 몇 시에 일어나요?
학생: 여섯 시에 일어나요.
교사: 앤디 씨는 아침 여섯 시에 일어나요. 앤디 씨는 아침 여섯 시**까지** 자요.

(2)
교사: 고향이 어디예요?
학생: 북경이에요.
교사: 고향에 어떻게 가요?
학생: 비행기로 가요.
교사: 얼마나 걸려요?
학생: 두 시간 걸려요.
교사: 네, 인천 공항에서 북경**까지** 두 시간 걸려요.

+ '까지'를 도입할 때는 (1), (2)와 같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다. (1)의 '까지'는 시간적인 범위의 끝을 나타내며, (2)의 '까지'는 공간적인 범위의 끝을 나타낸다. (1)처럼 시간적 범위를 나타낼 때는 시작점이 생략이 되어도 가능하지만, (2)처럼 공간적 범위를 나타낼 때는 범위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조사인 '에서'나 '부터'와 주로 결합한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까지'를 쓴다.

예) 오늘 + **까지** → 오늘까지
끝 + **까지** → 끝까지
학교 + **까지** → 학교까지
다음 주 + **까지** → 다음 주까지
오후 + **까지** → 오후까지
여름 + **까지** → 여름까지
도서관 + 까지 → 도서관까지
어제 + **까지** → 어제까지
여기 + **까지** → 여기까지

①	받침 o	+ 까지	오늘까지, 여름까지, 끝까지, 도서관까지
	받침 x	+ 까지	학교까지, 어제까지, 다음 주까지, 여기까지, 오후까지

[문장 구성 정보]
① '까지'는 범위의 끝 지점을 나타내며, 어떤 행위나 상태가 시작하는 지점 또는 출발점을 나타내는 '부터, 에서, 에서부터' 등과 자주 함께 쓴다.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어를 공부해요.
철수는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일을 해요.
여기**부터** 저기**까지 몇 미터예요?**
마이클 씨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갑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到', '之前'

예) 집에서 학교**까지** 가까워요. - 从家**到**学校很近.
8시부터 10**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 从8点**到**10点上课.
저는 내년**까지** 한국에 있을 겁니다. - 我在韩国待**到**明年.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报告书明天**之前**交上就可以.

② 용법과 오류

- 대부분의 경우 '까지'는 중국어에서 '到'로 대응되지만 시간의 한계를 나타낼 때에는 중국어 대응 표현이 '之前'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중국어에서 '到'로 표현되는 경우에만 '까지'를 사용하고 한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까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내일 이 일을 끝내야 합니다. ('내일까지'로 표현해야 할 경우) (??)
6시 전에 학교 정문으로 오세요. ('6시까지'로 표현해야 할 경우) (??)

3.1.3. ‘께’

께[조사]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조사.

께: (명사에 붙어) 어떤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화자보다 나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 뒤에 결합하여 대상에 대한 높임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앤디 씨는 누구에게 책을 줘요? 나: 저는 선생님**께** 책을 드려요. 가: 마이클 씨, 어머니**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나: 손수건이 좋겠어요. 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나: 네, 조금 전에 드렸어요. 가: 아이를 어디에 맡겼어요? 나: 어린이집 선생님**께** 맡겼어요. 가: 할아버지**께** 말씀 드렸어요? 나: 아니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문장예문	· 오늘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 학생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 철수가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릴 거예요. · 제가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 어머니**께** 영어를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 친구는 어머니**께** 음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 수지 씨가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 이 일은 삼촌**께** 맡겨요. . 어른**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 ‘께’는 높임을 나타내는 사람 명사에 붙어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께’는 ‘에게’의 높임 표현으로 ‘에게’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 ‘께’는 ‘에게’와 마찬가지로 ‘가르치다, 보내다, 전화하다, 던지다, 전하다, 선물하다’ 등의 서술어와 함께 쓰이는데, ‘에게’와 사용되는 ‘주다, 말하다, 묻다’ 대신 높임말인 ‘드리다,

말씀 드리다, 여쭈다'가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생님께 선물을 주다, 할아버지께 말하다, 할머니께 묻다'는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다, 할아버지께 말씀 드리다, 할머니께 여쭈다'로 써야 맞다.

[도입]

(1)
교사: (수지가 선생님께 책을 주는 그림을 보여 주며) 무엇을 주었어요?
학생: 책을 주었어요.
교사: 네, 누가 누구에게 책을 주었어요?
학생: 수지가 선생님 책을 주었어요.
교사: 네, 수지가 선생님**께** 책을 드렸어요.

(2)
교사: (앤디가 할아버지께 전화하는 그림을 보여 주며) 앤디 씨가 무엇을 해요?
학생: 전화해요.
교사: 앤디 씨가 누구 전화해요?
학생: 할아버지 전화해요.
교사: 네, 앤디 씨가 할아버지**께** 전화해요.

+ '께'를 도입할 때 '드리다, 전화하다(전화 드리다), 말씀 드리다' 등을 활용하여 대화를 구성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를 쉽게 이끌 수 있다. '께'가 사용되는 전형적인 상황을 제시할 때 처음에는 교사가 '께'가 사용된 예문을 주고 두 번째는 학생에게서 '께'가 사용된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낸다. 이때 교사, 학생 간의 행동으로 상황을 제시하거나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사용 맥락을 학생이 이해하도록 한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께'를 쓴다.

예) 선생님 + 께 → 선생님께　　삼촌 + 께 → 삼촌께
사장님 + 께 → 사장님께　　어른 + 께 → 어른께
할머니 + 께 → 할머니께　　아버지 + 께 → 아버지께
어머니 + 께 → 어머니께　　할아버지 + 께 → 할아버지께

①	받침 o	+ 께	선생님께, 삼촌께, 사장님께, 어른께
	받침 x	+ 께	할머니께, 아버지께, 어머니께, 할아버지께

[확장]

① '가다, 오다' 등의 동사와 함께 쓰여 그 대상이 행위의 진행 방향이나 목적지임을 나타낸다.

예) 앤디는 할아버지**께** 갔어요.
아이들이 할머니**께** 뛰어갔습니다.
미도리가 그 어른**께** 왔어요?
학생이 선생님**께** 다가갔습니다.

+ 이때 '께'는 '께로'와 바꿔 쓸 수 있다. '께'에 비해 '께로'는 행위의 진행 방향이라는 의미가 강조된다. '앤디는 할아버지께 갔어요.'를 '앤디는 할아버지께로 갔어요.'로, '아이들이 할머니께 뛰어갔습니다.'는 '아이들이 할머니께로 뛰어갔습니다.'로 바꿀 수 있다.

② '있다, 없다, 남다, 많다, 적다, 생기다' 등의 동사, 형용사와 함께 쓰여, 무엇이 있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예) 할머니**께** 돋보기가 있다.
할아버지**께**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머니**께** 대학에 다니는 나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③ '맞다, 알맞다, 어울리다, 비하다, 뒤지다' 등의 동사, 형용사와 함께 쓰여, 비교의 대상이나 기준임을 나타낸다.

예) 할머니**께** 이 옷이 맞을까요?
이 반지가 어머니**께** 어울릴 것 같아요.
선생님**께** 알맞은 일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작은아버지**께** 비하면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④ '받다, 얻다, 배우다' 등의 동사와 함께 쓰여, 행동이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예) 저는 어머니**께** 용돈을 받아요.
저는 삼촌**께** 영어를 배웠습니다.
수지는 할머니**께** 편지를 받았습니다.
앤디는 어른들**께** 도움을 받습니다.

⑤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시킴을 받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예) 이 선생님이 김 선생님**께** 보고서를 내게 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께** 약을 먹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께** 병원에 가게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모**께** 물을 마시게 합니다.

⑥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형용사와 함께 쓰여, 어떤 느낌을 가지거나 어떤 상태에 있는 주체임을 나타낸다.

예) 삼촌은 박 선생님**께** 사랑을 느낍니다.
미도리는 할머니**께** 매우 죄송해합니다.
아버지**께** 필요한 것은 저희입니다.

김 선생님**께** 영어는 쉽습니다.

[유사 문법]

① '께', '께서'

께	께서
. 명사 뒤에 붙어 높임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할아버지**께** 드립니다. (o) 할아버지**께서** 주십니다. (o)	
.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예) 할머니**께** 빵을 드립니다. (o) 할머니**께서** 빵을 드립니다. (x)	.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낸다. 예) 할머니**께서** 빵을 드십니다. (o) 할머니**께** 빵을 드십니다. (x)

+ 이때 '께서'는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것이므로 주어와 관련된 어휘를 높임으로 쓰지만 '께'는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므로 '드리다'와 같은 상대 높임 어휘를 사용한다.

② '께', '에게', '한테'

께	에게	한테
.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에게'의 높임 표현으로, 높임의 대상에게 쓴다.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모두 쓴다. 예) 동생**께** 편지를 쓴다. (x) 선생님**께** 편지를 쓴다. (o) 선생님**께** 편지를 써요. (o)	.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모두 쓴다. 예) 동생**에게** 편지를 쓴다. (o) 동생**에게** 편지를 써요. (o)	. 주로 말할 때 쓴다. 예) 동생**한테** 편지를 써요. (o)

+ '에게'는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모두 사용하고, '한테'는 주로 말할 때 사용한다. '께'는 '에게', '한테'의 높임 표현이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给', '使'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어휘로만 실현되기도 함.

예) 할머니**께** 전화를 합니다. - **给**奶奶打电话.

할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 **给**爷爷写信.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 **给**父母礼物.
어른**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 **给**长辈让座了.
이 가방이 어머님**께** 어울릴까요? - 这个包适合妈妈吗?

② 용법과 오류

- '께'와 '에게', '에'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모두 '给'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 세 문법 항목을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나무에게 물을 주었어요? (x)
주말마다 언니께 전화해요. (x)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x)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뛰어갔다. (x)

- 조사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생략함으로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나는 자주 부모님 전화해요. (x) ('부모님께'를 써야 할 자리에)
나는 부모님 선물을 드렸습니다. (x) ('부모님께'를 써야 할 자리에)

- 높임을 나타내는 '께'와 혼용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할머니께 청소를 하십니다. (x)
교수님께 연구실에 계십니다. (x)
꽃을 어머니께서 드렸습니다. (x) ('어머니께'로 표현해야 할 경우)
할아버지께서 모자를 사 드렸습니다. (x) ('할아버지께'로 표현해야 할 경우)

3.1.4. ‘께서’

께서[조사] 어떤 동작을 하는 **주체** 또는 어떤 상태에 있는 **대상**이 **높은 사람**임을 나타내는 조사.

께서: (명사에 붙어)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상태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높은 사람임을 나타낸다. 문장의 주어가 화자보다 높은 사람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아버지**께서** 언제 오세요? 나: 아버지**께서** 오후에 돌아오세요. 가: 할아버지**께서** 주무세요? 나: 네, 할아버지**께서** 주무세요. 가: 누가 2급 수업을 해요? 나: 이 선생님**께서** 2급 수업을 하세요. 가: 어머니**께서** 목소리가 좋으세요. 나: 할아버지**께서** 텔레비전을 보십니다. 가: 선생님**께서** 어디 계세요? 나: 선생님**께서** 학교에 계세요.
문장예문	· 할머니**께서** 책을 읽으세요. · 어머니**께서** 청소를 하십니다. ·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세요. · 삼촌**께서** 비빔밥을 드세요. · 이모**께서** 산책을 하십니다. · 김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세요. ·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십니다. · 작은아버지**께서** 중국에서 오셨어요. · 할아버지**께서** 청소를 하십니다.

+ ‘께서’는 동작의 주체, 상태의 대상이 화자보다 높을 때 사용되는 주격 조사이다. 이때 ‘께서’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께서’를 쓰면 주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에 반드시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으시-’를 쓴다. 그렇지만 역으로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를 서술어에 쓴다고 해서 반드시 주격 조사 ‘께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입]

(1)
교사: ('선생님'과 '학생' 이름표를 만들어 두 학생에게 붙인다. '학생'이 '선생님'께 책을 주게 한다.) 누가 책을 줘요?
학생: 학생이 책을 줘요.
교사: 네. 학생이 선생님께 책을 드려요.
교사: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주게 한다.) 누가 책을 줘요?
학생: 선생님이 책을 줘요.
교사: 네.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책을 주십니다.

(2)
교사: (할아버지가 신문을 보는 그림을 보여 주며)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학생: 신문 봐요.
교사: 네. 할아버지**께서** 지금 신문을 보세요.
교사: (할머니가 요리하는 그림을 보여 주며)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
학생: 요리해요.
교사: 네. 할머니**께서** 지금 요리를 하세요.

+ 도입(1)은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직접 책을 주는 행위를 보여 줌으로써 높임을 나타내는 사람 명사 뒤에 조사 '께서'가 결합함을 자연스럽게 인지시킨다. 도입(2) 역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그림을 보여 주어 '께서'의 쓰임을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이때 '께서'가 쓰이면 서술어도 높임 표현이 쓰인다는 것을 알려 준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께서'를 쓴다.

예) 선생님 + 께서 → 선생님께서　　삼촌 + 께서 → 삼촌께서
부장님 + 께서 → 부장님께서　　어른 + 께서 → 어른께서
어머니 + 께서 → 어머니께서　　할아버지 + 께서 → 할아버지께서
아버지 + 께서 → 아버지께서　　이모 + 께서 → 이모께서

①	받침 o	+ 께서	선생님께서, 삼촌께서, 부장님께서, 어른께서
	받침 x	+ 께서	어머니께서,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이모께서

[문장 구성 정보]

① 서술어에 주체를 높이는 어미 '-으시-'를 쓰거나 '주무시다, 계시다' 등의 높임을 나타내는 용언과 호응한다.

예) 어머니**께서** 과일을 사 오셨어요.
할머니**께서** 주무십니다.
아버지**께서** 집에 계십니다.
할아버지**께서** 음식을 드십니다.

[확장]

① '는, 도, 만' 등의 조사와 함께 쓰인다.

예) 어머니**께서는** 늦게 주무세요.
할머니**께서도** 텔레비전을 보십니다.
아버지**께서만** 집에 일찍 들어오셨어요.
할아버지**께서만** 음식을 드십니다.

[유사 문법]

① '께서', '께'

께서	**께**
. 명사 뒤에 붙어 높임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할아버지**께서** 주십니다. (o) 할아버지**께** 드립니다. (o)	
.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낸다. 예) 할머니**께서** 빵을 드십니다. (o) 할머니**께** 빵을 드십니다. (x)	.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예) 할머니**께** 빵을 드립니다. (o) 할머니**께서** 빵을 드립니다. (x)

+ 이때 '께서'는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것이므로 주어와 관련된 어휘를 높임으로 쓰지만 '께'는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므로 '드리다'와 같은 상대 높임 어휘를 사용한다.

② '께서', '이'

께서	**이**
. 문장의 주어 위치에 온다. 예) 동생**이** 집에 있어요. (o) 할머니**께서** 집에 계세요. (o)	
. 높임을 나타내는 사람 명사가 오는 경우에 쓴다. 예) 동생**께서** 집에 있어요. (x) 할머니**께서** 집에 계세요. (o)	. 일반적인 사람 명사 뒤에 쓰인다. 예) 동생**이** 집에 있어요. (o) 할머니**가** 집에 있어요. (x)

+ '께서'의 경우 서술어에는 일반적으로 높임의 어미 '-으시'를 넣거나 높임 어휘로 바꿔 사용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할아버지**께서** 주무세요. - 爷爷在睡觉.
할머니**께서** 청소를 하십니다. - 奶奶打扫卫生.
아버지**께서** 주말마다 등산을 하십니다. - 爸爸每周末去爬山.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십니다. - 教授在上课.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는 대응하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사를 생략하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할아버지 신문을 읽으십니다. (x)
아버지 주말에도 출근하십니다. (x)

- 높임을 나타내는 '께'와 혼용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할머니께 청소를 하십니다. (x)
교수님께 연구실에 계십니다. (x)
꽃을 어머니께서 드렸습니다. (x) ('어머니께'로 표현해야 할 경우)
할아버지께서 모자를 사 드렸습니다. (x) ('할아버지께'로 표현해야 할 경우)

- '께서'를 '에게서'의 높임으로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이 책은 제가 교수님께서 빌린 것입니다. (x)
('교수님에게서'로 표현해야 할 경우)
부모님께서 용돈을 받아 씁니다. (x) ('부모님에게서'로 표현해야 할 경우)

- '이/가'는 '좋다, 부럽다, 무섭다, 그립다' 등의 형용사와 함께 쓰여 어떠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지만,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 '께서'는 이러한 용법이 없는데도 학습자들이 '이/가'와 '께서'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저는 할아버지께서 좋아요. (x)
나는 선생님께서 무서워. (x)

- '이/가'는 '되다, 아니다'의 앞에 쓰여 주어가 된 대상, 주어가 아닌 대상을 가리키지만, '께서'는 이러한 용법이 없는데도 학습자들이 '이/가'와 '께서'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그분은 교수님께서 아닙니다. (x)

그는 나중에 교수님께서 되었다. (x)

3.1.5. ‘도’

도[조사] 어떤 대상이나 사태에 **더함**을 나타내는 조사.

도: (명사에 붙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낸다.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임을 나타내거나(역시), 어떤 것 외에 그와 유사한 것이 있음(또한)을 말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오늘 아침에 영화 보고 왔어요. 나: 나**도** 아침에 영화 봤어요. 가: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해요. 나: 우리 언니**도** 커피를 좋아해요. 가: 중국 여행이 재미있었어요? 나: 네, 내년에**도** 또 가고 싶어요. 가: 가방에 무엇이 있어요? 나: 연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어요. 가: 도서관에서 뭐 해요? 나: 공부**도** 하고 책**도** 빌려요.
문장예문	· 나**도**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 우리 형**도** 군인이에요. · 제 의자에**도** 가방이 있어요. · 흐엉 씨가 어제 저녁에**도** 연락을 했어요. · 밥만 먹지 말고 반찬**도** 먹어요. · 수지 씨 자리에 음료수**도** 있어요. · 이 식당은 값**도** 싸고 음식**도** 맛있어요. · 앤디**도** 미국 사람이고 마이클**도** 미국 사람이에요. · 이번 방학에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갈 거예요. · 영수는 돈**도** 없이 여행하고 있어요.

+ ‘도’는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임을 나타내거나(역시), 어떤 것 외에 그와 유사한 것이 있음(또한)을 말할 때 사용하는 보조사이다. ‘도’가 ‘역시’(같음)로 사용되는지 ‘또한’(첨가, 나열)으로 사용되는지 예문만을 보고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담화예문을 통해 의미를 구분해 주는 것이 좋다.

+ '도'는 '연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어요.'나 '공부도 하고 책도 빌려요.'와 같이 보통 '~도 ~도'의 구성으로 쓰여 유사한 행위나 대상을 나열할 때도 사용된다.
+ 문장예문의 마지막 예문 '돈도 없이'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뜻의 '도'가 사용된 예문이다.

[도입]

(1)
교사: (여러 음식 그림을 보여 주며) 앤디 씨,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학생: 비빔밥을 좋아해요.
교사: 선생님**도** 비빔밥을 좋아해요.

(2)
교사: (가족사진을 보여 주며) 누가 있습니까?
학생: 어머니가 있습니다.
교사: 또 누가 있습니까?
학생: 아버지가 있습니다. 동생이 있습니다.
교사: 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동생**도** 있습니다.

+ 먼저 도입(1)의 '도'는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임을 나타내는(역시)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학생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은 뒤 교사도 마찬가지임을 '도'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제시한다. 도입(2)는 어떤 것 외에 그와 유사한 것이 있음(또한)을 말할 때 사용하는 '도'로, 유사한 것을 둘 이상 나열할 때 '~도 ~도'의 구성으로 사용된다. 두 의미 모두 초급 단계에서 사용되므로 학생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주지시킨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도'를 쓴다.

예) 지갑 + 도 → 지갑도　　라면 + 도 → 라면도
책상 + 도 → 책상도　　가방 + 도 → 가방도
나무 + 도 → 나무도　　학교 + 도 → 학교도
어머니 + 도 → 어머니도　　아버지 + 도 → 아버지도

①	받침 o	+ 도	지갑도, 라면도, 책상도, 가방도
	받침 x	+ 도	나무도, 학교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문장 구성 정보]

①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나열할 때는 주로 '~도 ~도'의 구성으로 쓰인다.

예) 아기가 눈**도** 코**도** 다 예뻐요.
나는 차**도** 있고 집**도** 있어요.

계란은 삶아**도** 먹고 익혀**도** 먹는다.
공원에는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어요.

[제약 정보]

① '도'는 주격조사 '이',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예) 너가**도** 왔니? (x) 사과를**도** 샀어요? (x)
너**도** 왔니? (o) 사과**도** 샀어요? (o)

[확장]

① '께서, 에, 에게, 와/과, 로' 등과는 같이 쓸 수 있다.

예) 할머니께서**도**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o)
서울에**도** 눈이 많이 왔어요. (o)
마이클에게**도** 전화했어요? (o)
다른 나라 친구들과**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o)
마이클 씨는 한국어로**도** 일기를 쓸 수 있다. (o)

② '-지도 -지도 못하다/않다'의 구성으로 쓰여 반대되는 사실을 나란히 들어 전체 부정을 나타낸다.

예) 죽지**도** 살지**도** 못해요.
이 음식은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아요.
그의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습니다.
그 산은 높지**도** 낮지**도** 않았어요.

③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 다른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음을 나타낸다.

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지요.
어린 아이도 하니까 마이클 씨**도** 할 수 있어요.
그 동안 시간이 없어서 연락**도** 한 번 못했네요.
교실에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수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운동했습니다.

④ 기대에 못 미치지만 받아들임을 나타낸다.

예) 밥이 없으면 라면**도** 좋아요.
연필이 없으면 볼펜**도** 괜찮아요.
찢어진 우산**도** 돼요?

⑤ 정도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그 정도가 기대한 것보다 많거나 적음을 나타낸다.

예) 가까워서 오는 데 오 분**도** 안 걸렸어요.
마이클은 아이만큼**도** 못 뛰어요.
흐엉은 십 킬로미터**도** 넘는 거리를 걸어간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섯 명**도** 안 됩니다.

⑥ 일부 부사어나 연결어미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예) 공부를 열심히**도** 했구나.
아직**도** 학교에 다녀요?
아마**도** 마이클이 병원에 갔을 거예요.
미도리는 피곤해서 밥을 먹지**도** 않고 잤습니다.

⑦ 놀라움, 감탄, 실망 등의 감정을 강조할 때 쓴다.

예) 날**도** 참 덥네요.
시장에 사람**도** 사람**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수지는 참 예쁘기**도** 하네요.
흐엉은 참 부지런하기**도** 하구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也', '既……又……'

예) 우리**도** 도서관에 가요. - 我们**也**去图书馆.
주말에**도** 출근해요? - 周末**也**上班吗?
이 음식점은 값**도** 싸고 맛**도** 있어요. - 这家餐馆**既**便宜**又**好吃.
주말에 영화**도** 보고 쇼핑**도** 했어요. - 周末看电影, 逛街了.

② 용법과 오류

- 한국어에서는 체언 뒤에 조사 '도'가 결합하여 더함이나 나열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중국어에서는 부사어 '也' 또는 접속부사 '既……又……'에 의해 더함이나 나열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표현의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도'가 결합해야 할 체언의 위치를 헷갈려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나도 철수를 좋아한다. (x)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나는 철수도 좋아한다'인 경우)
나도 반찬을 많이 먹었다. (x)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나는 반찬도 많이 먹었다'인 경우)
철수는 도서관에서도 공부한다. (x)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철수도 도서관에서 공부한다'인 경우)

- 조사 '이/가', '은/는', '을/를' 위치에 쓰일 때에는 '이/가', '은/는', '을/를'을 생략하고, 기타 조사 뒤에 쓰일 때에는 대체로 조사 뒤에 결합되어 '에도', '에서도', '에게도'와 같이 실현된다. 중국어에는 이와 같은 조사의 결합 현상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철수가도 오세요. (x)
슈퍼에서 사과를도 샀다. (x)
영희도에게 알려 줘. (x)

3.1.6. ‘마다’

마다[조사]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마다: (명사에 붙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비슷한 상황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또는 각 상황이 되풀이됨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가: 텔레비전이 교실에 있어요? 나: 네, 텔레비전이 교실**마다** 있어요. 가: 엄마한테 왜 혼났어요? 나: 방**마다** 불을 켜 놓아서 혼났어요. 가: 무엇이 힘들어요? 나: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가: 버스가 몇 분에 한 대씩 와요? 나: 버스가 십 분**마다** 와요. 가: 언제 축제를 해요? 나: 일 년**마다** 한 번씩 축제를 해요.
문장예문	· 사람**마다** 얼굴이 달라요. · 주말에는 가는 곳**마다** 사람이 많아요. · 설에는 집**마다** 떡국을 끓여 먹어요. · 마이클은 책**마다** 자기 이름을 써 놓았다. · 부모님이 생각날 때**마다** 편지를 씁니다. · 수지는 날**마다** 학원에 가요. · 한국은 계절**마다** 날씨가 달라요. · 지하철이 몇 분**마다** 와요? · 흐엉은 방학**마다** 해외여행을 해요. · 오빠는 토요일**마다** 영어를 배웁니다.

+ ‘마다’는 ‘낱낱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담화예문의 ‘교실마다’나 ‘방마다’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두 비슷한 상황에 있음을 나타내는 ‘마다’의 예시이고, ‘아침마다’, ‘십 분마다’, ‘일 년마다’는 각 상황이 되풀이됨을 나타내는 ‘마다’이다.

[도입]

(1)
교사: (같은 이름이 써 있는 물건을 보여 주며) 공책에 뭐라고 썼어요?
학생: 마이클이요.
교사: 책은요?
학생: 마이클.
교사: 지우개?
학생: 마이클.
교사: 네, 맞아요. 물건에 모두 같은 이름 썼어요. 선생님이 물건**마다** 같은 이름을 썼어요.

(2)
교사: 앤디 씨는 매일 아침에 뭐 해요?
학생: 세수해요.
교사: 앤디 씨는 매일 아침 세수해요. 아침**마다** 세수해요.

+ 도입(1)은 '마다'가 모두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같은 이름이 써 있는 물건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공통점이 있는 대상이나 상황을 제시하여 '마다'의 의미를 인지하도록 한다. 도입(2)는 매일 아침 되풀이하는 상황을 학습자에게 물어 답을 도출한 후 '마다'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제시하는 방법이다. '아침'뿐 아니라 '저녁, 토요일, 방학' 등 때에 따라 반복하는 일을 화제로 다양한 상황의 도입이 가능하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마다'를 쓴다.

예) 아침 + 마다 → 아침마다　　방 + 마다 → 방마다
주말 + 마다 → 주말마다　　공책 + 마다 → 공책마다
의자 + 마다 → 의자마다　　나라 + 마다 → 나라마다
학교 + 마다 → 학교마다　　컴퓨터 + 마다 → 컴퓨터마다

①	받침 o	+ 마다	아침마다, 방마다, 주말마다, 공책마다
	받침 x	+ 마다	의자마다, 나라마다, 학교마다, 컴퓨터마다

[확장]
①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처럼 관용적으로 쓰인다. '밤이면 밤마다'는 '매일 밤'이라는 의미로, '날이면 날마다'는 '매일'의 의미로 사용된다.

예) 밤이면 밤**마다** 텔레비전을 봐요.
이런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지는 않아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每'

예) 사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 **每**个人的性格都不一样.
방학**마다** 집에 갑니다. - **每**次放假都回家.
부모님이 생각날 때**마다** 전화를 합니다. - **每**次想起父母的时候给他们打电话.
아침**마다** 조깅을 해요. - **每**天早上跑步.

② 용법과 오류

- 조사 '마다'와 관형사 '매'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모두 '每'이므로 학습자들이 '마다'로 실현되어야 하는 상황에 관형사 '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대응 표현 '每'가 명사 앞에 오므로 관형사 '매'의 용법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예) 나는 매 방학에 집에 가요. (x)
매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x)
매 교실에 책상과 의자가 있어요. (x)

3.1.7. ‘만1’

만1[조사] 오직 그것만 **한정**하며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함을 나타내는 조사.

만1: (명사 뒤에 붙어)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며 오직 그것만 선택하여 한정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왕밍 씨, 교실에 미국 사람이 있어요? 나: 네, 한 명 있어요. 앤디 씨**만** 미국 사람이에요. 가: 줄리아 씨,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배우세요? 나: 아니요. 저는 한국어**만** 배워요. 가: 철수 씨가 뭐 해요? 나: 아침부터 게임**만** 하고 있어요. 가: 여러분, 모두 책을 가지고 왔어요? 나: 아니요. 현우 씨**만** 책을 가지고 왔어요. 가: 앤디 씨, 수업 끝나고 같이 영화를 볼까요? 나: 미안해요. 오늘은 집에 꼭 일찍 가야**만** 해요.
문장예문	· 제 가방에는 필통**만** 있어요. · 내일 수지 씨**만** 도서관으로 오세요. · 언니는 날씨가 추워도 치마**만** 입는다. · 교실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 흐엉 씨는 밤**만** 되면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요. · 동생**만** 혼자 집에 있으면 안 돼요. · 왕밍 씨는 한국에서 아직 부산**만** 못 갔어요. · 어제 줄리아 씨는 수업은 안 듣고 잠**만** 잤어요. · 페이페이 씨는 한국 드라마에**만** 관심이 있어요. · 선생님께서는 항상 빨간색 펜**만으로** 쓰십니다.

+ ‘만1’은 다른 것을 모두 배제하고 오직 유일한 것을 한정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보조사이다. 유일함을 뜻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강조된다.

[도입]

(1)
교사: (책상 위에 책, 볼펜 등을 놓은 후)
책상에 무엇이 있어요?
학생1: 책이 있어요.
학생2: 펜이 있어요.
교사: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모두 치우고 책만 둔다)
책상에 무엇이 있어요?
학생: 책이 있어요.
교사: 다른 것이 있어요?
학생: 아니요.
교사: 책상 위에 책이 있어요. 책**만** 있어요.

(2)
교사: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워요?
학생: 한국어를 배워요.
교사: 영어도 배워요?
학생: 아니요.
교사: 수업 시간에 한국어를 배워요. 영어는 안 배워요. 한국어**만** 배워요.

+ '만1'을 도입할 때 (1)과 같이 처음에는 모든 물건이 있는 상황을 보여준 후에 교사가 한 가지만을 제시한다. 이는 오직 그것만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다. 또는 (2)와 같이 두 개를 제시하여 그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여 제한함을 보여 준다.

[형태 정보]
① 명사의 끝음절 받침 유무에 상관없이 '만'을 쓴다.

예) 동생 + 만 → 동생만　　책 + 만 → 책만
선생님 + 만 → 선생님만　　부산 + 만 → 부산만
가수 + 만 → 가수만　　한국어 + 만 → 한국어만
나 + 만 → 나만　　우유 + 만 → 우유만

①	받침 o	+ 만	동생만, 책만, 선생님만, 부산만
	받침 x	+ 만	가수만, 한국어만, 나만, 우유만

[제약 정보]
① '만'은 주격 조사 '이',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이, 을'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결합 순서는 '만이, 만을'로만 쓰고, '이만, 이을'로는 쓰지 않는다.

예) 너**만**이 학교에 안 왔어. (o)　　너**만** 학교에 안 왔어. (o)
너**만**을 사랑해. (o)　　너**만** 사랑해. (o)

[확장]

① '께서, 에, 에게, 와/과, 로' 등과도 같이 쓸 수 있다.

예) 할머니께서**만**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o)
서울에**만** 눈이 많이 왔어요. (o)
마이클에게**만** 전화했어요? (o)
너와**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o)
마이클 씨는 한국어로**만** 일기를 쓸 수 있다. (o)
= 마이클 씨는 한국어**만**으로 일기를 쓸 수 있다. (o)

② 수나 양을 최소의 상태로 한정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 저에게 천 원**만** 빌려 주세요.
시험 시간이 10분**만** 남았어요.
식당에 손님이 한 명**만** 있어요.
사과 딱 한 개**만** 더 주세요.

+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에 붙어 사용하며, '사과 딱 한 개만 더 주세요'와 같이 수량 표현 앞에 '딱'을 붙여 그 의미를 강조한다.

③ 앞에 나타나는 사실이나 동작을 강조함을 나타낸다.

예) 아기가 밥을 줘도 울기**만** 해요.
밥을 조금**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다.
동생 말대로**만** 했어도 기차를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1등을 했다고 좋아**만** 할 때가 아니에요.

+ 강조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만'을 명사뿐 아니라 부사, 어미 뒤에 붙여 쓸 수 있다.

예) 밥을 많이**만** 먹는다고 살이 찌지는 않아.
지금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야.

[유사 문법]

① '만', '밖에'

만	밖에
· 어떤 것을 한정하거나 제한된 선택임을 나타낸다.	
· 뒤에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말을 모두 쓴다. 예) 흐엉 씨는 고기**만** 먹어요. (o) 흐엉 씨는 고기**만** 안 먹어요. (o)	· 뒤에 반드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을 쓴다. 예) 흐엉 씨는 고기**밖에** 안 먹어요. (o) 흐엉 씨는 고기**밖에** 먹어요. (x)

+ '밖에'는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반드시 같이 쓰이기 때문에 '만'보다 강조의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진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부사어 '只', '只有'

예) 나는 과일 중에서 사과**만** 좋아한다. - 在水果中我**只**喜欢吃苹果.
철수에게**만** 주고 나에게는 주지 않았다. - **只**给哲洙，没有给我.
영희**만** 나를 믿어 주었다. - **只有**英姬相信我.

② 용법과 오류

- 한국어에서는 체언 뒤에 조사 '만' 결합하여 한정,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중국어에서는 부사어 '只, 光, 仅' 등에 의해 한정,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표현의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만'이 결합해야 할 체언의 위치를 헷갈려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나만 철수를 좋아한다. (x)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나는 철수만 좋아한다'인 경우)
나만 밥을 먹고 반찬을 안 먹었다. (x)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나는 밥만 먹고 반찬을 안 먹었다'인 경우)
철수는 도서관에서만 공부한다. (x)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철수만 도서관에서 공부한다'인 경우)

- 조사 '이/가', '은/는', '을/를' 위치에 쓰일 때에는 '이/가', '은/는', '을/를'을 생략하거나 앞에 쓰여 '만이', '만은', '만을'로 실현되고, 기타 조사나 어미 뒤에 쓰일 때에는 대체로 조사 뒤에 쓰여 '에만', '에서만', '에게만', '-아야만'과 같이 실현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철수가만 오세요. (x)
슈퍼에서 사과를만 샀다. (x)
영희만에게 이야기해. (x)

3.1.8. ‘밖에’

밖에[조사] 오직 그것만을 **선택함**을 나타내는 조사.

밖에: (명사에 붙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거나 그것이 유일한 선택임을 나타낸다. 반드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수지 씨, 교실에 사람이 많아요? 나: 아니요. 3명**밖에** 없어요. 가: 수지 씨, 생일에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나: 아니요.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가: 앤디 씨, 약속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나: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가요. 가: 영수 씨, 가방에 무엇이 있어요? 나: 가방 안에 책**밖에** 없어요. 가: 마이클 씨, 어젯밤에 잘 잤어요? 나: 아니요. 잠이 안 와서 4시간**밖에** 못 잤어요.
문장예문	· 왕밍 씨는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요. · 저는 지금 돈이 천 원**밖에** 없어요. · 줄리아 씨가 숙제를 조금**밖에** 못 했어요. · 다이어트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 식탁 위에 남은 음식이 하나**밖에** 없다. · 페이페이 씨는 남자 친구**밖에** 몰라요. · 이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앤디 씨**밖에** 없다. · 수지 씨는 한국에서 서울**밖에** 몰라요. · 작년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한 개**밖에** 못 받았어요. · 어제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선물을 살 수 없었습니다.

+ ‘밖에’는 다른 가능성이나 상황에 대한 여지가 없으며, 앞에 사용하는 명사가 유일한 선택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보조사이다.

[도입]

(1)
교사: 교실에 한국 사람이 몇 명 있어요?
학생: 한 명 있어요.
교사: 한국 사람이 또 있어요?
학생: 아니요. 없어요.
교사: 교실에 한국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2)
교사: (책상 위에 책 한 권만 올려놓은 후에)
책상 위에 무엇이 있어요?
학생: 책이 있어요.
교사: 연필이 있어요?
학생: 아니요. 없어요. 책만 있어요.
교사: 책상 위에 책만 있어요. 책**밖에** 없어요.

+ '밖에'를 도입할 때는 오직 그것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1)에서와 같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량적 선택 상황을 보여 주거나, (2)와 같이 한정된 종류를 보여 주면서 다른 가능성이 없음을 인지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밖에'를 도입한다.

[형태 정보]
① 명사의 끝음절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밖에'를 쓴다.

예) 학생 + 밖에 → 학생밖에　　가방 + 밖에 → 가방밖에
서울 + 밖에 → 서울밖에　　주말 + 밖에 → 주말밖에
친구 + 밖에 → 친구밖에　　영화 + 밖에 → 영화밖에
하나 + 밖에 → 하나밖에　　우유 + 밖에 → 우유밖에

①	받침 o	+ 밖에	학생밖에, 가방밖에, 서울밖에, 주말밖에
	받침 ×	+ 밖에	친구밖에, 영화밖에, 하나밖에, 우유밖에

[문장 구성 정보]
① '밖에'는 항상 '안, 못, 없다, 모르다'와 같이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쓴다.

예) 영화표가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과일 중에서 사과**밖에** 못 먹어요.
지금 집에 라면**밖에** 없어요.
제 여자 친구는 자기**밖에** 몰라요.

[제약 정보]
①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인 '아니다', '-지 말다' 등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예) 수지 씨는 선생님**밖에** 아니에요. (x)

그 구두는 수지 씨의 생일 선물**밖에** 아니에요. (x)
사과를 조금**밖에** 먹지 마세요. (x)
버스가 늦게 와도 30분**밖에** 기다리지 맙시다. (x)

+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모두 '밖에'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정된 상황임을 나타내더라도 '아니다', '-지 말다'는 '밖에'와 함께 쓸 수 없다. '사과를 조금밖에 먹지 마세요'와 같이 사용하면 안 되고 '사과를 조금밖에 안 먹어요'의 형태로 바꿔 써야 한다.

[확장]

① 그 상황이 아무리 계속되더라도 그것 외에 더한 일은 없음을 나타내며 반드시 의문형으로 사용한다.

예)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밖에** 더 하겠어요?
줄리아 씨가 만든 케이크를 먹는다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미도리 씨가 이삿짐이 많아서 열심히 도와주기**밖에** 뭘 하겠어요?

+ 그것을 선택한 화자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며 이때 '밖에'의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억양에 따라 비꼬거나 과장하는 식의 말투가 될 수 있다.

[유사 문법]

① '밖에', '만'

밖에	만
· 어떤 것을 한정하거나 제한된 선택임을 나타낸다.	
· 뒤에 반드시 부정을 나타내는 말을 쓴다. 예) 흐엉 씨는 고기**밖에** 안 먹어요. (o) 흐엉 씨는 고기**밖에** 먹어요. (x)	· 뒤에 긍정과 부정을 나타내는 말을 모두 쓴다. 예) 흐엉 씨는 고기**만** 안 먹어요. (o) 흐엉 씨는 고기**만** 먹어요. (o)

+ '밖에'는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반드시 같이 쓰이기 때문에 '만'보다 강조의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진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只'

예)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쉬어요. - 一个星期只休息一天.
책상 위에 책**밖에** 없어요. - 桌子上只有书.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아침에 우유**밖에** 안 마셔요. - 为了减肥, 早晨只喝牛奶.
어제 시험 준비를 하느라 세 시간**밖에** 못 잤다.
- 昨天为了准备考试，只睡了三个小时.

② 용법과 오류

- '밖에 + 부정 표현'이 중국어에서 유일한 선택을 나타내는 '只.....'에 대응하는데, 중국어 '只' 뒤에는 긍정 표현이 오는 것에 반해 한국어 '밖에'는 뒤에 부정 표현이 오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오늘 회의에 철수밖에 왔어요. (x)
  아침에 우유밖에 먹었어요. (x)

- '밖에 + 부정 표현'과 '만'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모두 '只'이므로 학습자들이 이 두 표현을 혼용함으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오늘 철수만 안 왔어요. (x) ('오늘 철수밖에 안 왔어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오늘 철수밖에 왔어요. (x) ('오늘 철수만 왔어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3.1.9. ‘보다’

보다[조사] 비교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

보다: (명사에 붙어) 앞의 말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시계가 싸요, 가방이 싸요? 나: 시계가 가방**보다** 싸요. 가: 불고기와 비빔밥 중에서 무엇을 더 좋아해요? 나: 저는 불고기**보다** 비빔밥을 더 좋아해요. 가: 앤디 씨는 운동을 잘해요? 나: 아니요, 생각**보다** 운동을 잘 못 해요. 가: 저는 서울을 좋아해요. 나: 경주가 서울**보다** 더 좋아요. 경주에 꼭 가 보세요. 가: 은행과 도서관 중에서 어디가 학교에서 더 가깝습니까? 나: 은행에서**보다** 도서관에서가 더 가깝습니다.
문장예문	· 비행기가 버스**보다** 빨라요. · 저는 수학**보다** 영어가 어려워요. . 미도리가 흐엉**보다** 운동을 잘 해요. · 화장실**보다** 교실이 깨끗해요. · 밥이 빵**보다** 맛있어요. · 일본에서**보다** 미국에서가 한국에서 가까워요. · 콜라**보다** 우유가 건강에 좋아요. · 영희가 동생**보다** 예뻐요. · 운동화가 구두**보다** 편해요. · 농구가 축구**보다** 재미있습니다.

+ 조사 ‘보다’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첫 번째 문장예문 ‘비행기가 버스보다 빨라요.’를 보면, ‘버스’라는 명사에 ‘보다’라는 조사가 붙어 '버스보다’가 비교의 기준이 되는 부사어로 사용된다.
+ ‘보다’를 사용한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담화예문과 같이 선택의문문을 사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두 번째 담화예문처럼 ‘~ 중에서’를 사용해서 질문할 수도 있다. 마

지막 담화예문 '나'에 제시된 '은행에서보다 도서관에서 더 가깝습니다.'와 같이 '보다'는 명사뿐만 아니라 부사 뒤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문들을 통해 '보다'의 쓰임을 학습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지시켜 줄 수 있다.

[도입]

(1)
교사: (세계 지도를 보여 주며) 무엇입니까?
학생: 지도입니다.
교사: 중국과 한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커요?
학생: 중국이 커요.
교사: 네, 중국이 한국**보다** 더 커요.

(2)
교사: (컴퓨터와 펜을 보여 주며) 무엇입니까?
학생: 컴퓨터와 펜입니다.
교사: 컴퓨터와 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비싸요?
학생: 컴퓨터가 비싸요.
교사: 네. 컴퓨터가 **펜보다** 비싸요.

+ '보다'를 도입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자료를 먼저 제시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다음에 학습자 스스로가 비교할 수 있도록 끌어낸 후 교사가 비교가 되는 대상에 '보다'를 붙여 비교 대상 및 기준에 '보다'가 붙을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주지시킨다. 교실 환경을 활용하거나 교사와 학생의 물건 등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도입을 할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보다'를 쓴다.

예) 선생님 + 보다 → 선생님보다　　동생 + 보다 → 동생보다
펜 + 보다 → 펜보다　　책상 + 보다 → 책상보다
컴퓨터 + 보다 → 컴퓨터보다　　친구 + 보다 → 친구보다
사과 + 보다 → 사과보다　　학교 + 보다 → 학교보다

①	받침 o	+ 보다	선생님보다, 동생보다, 펜보다, 책상보다
	받침 x	+ 보다	컴퓨터보다, 친구보다, 사과보다, 학교보다

[문장 구성 정보]

① 'N1+이 N2+보다 ~하다'의 구성으로 사용한다. 이때 'N2+보다 N1+이 ~하다'로 도치하여 사용하여도 뜻이 같다.

예) 오늘이 어제**보다** 더워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워요.
딸기가 바나나**보다** 맛있어요.　　바나나**보다** 딸기가 맛있어요.

비행기가 버스**보다** 빨라요. 버스**보다** 비행기가 빨라요.
책이 지우개**보다** 커요. 지우개**보다** 책이 커요.

② 서술어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 경우 'N1+이 N2+보다 N3+를 V' 또는 'N1+이 N3+를 N2+보다 V'의 구성으로 사용한다.

예) 앤디는 사과**보다** 딸기를 좋아해요. = 앤디는 딸기를 사과**보다** 좋아해요.
형이 동생**보다** 농구를 잘해요. = 형이 농구를 동생**보다** 잘해요.
수지가 빵**보다** 밥을 자주 먹어요. = 수지가 밥을 빵**보다** 자주 먹어요.
흐엉이 언니**보다** 쇼핑을 많이 해요. = 흐엉이 쇼핑을 언니**보다** 많이 해요.

③ 'N1+이 N2+보다 더 V'의 구성으로 사용한다.

예) 여름이 봄**보다** 더 좋아요.
자장면이 짬뽕**보다** 더 맛있어요.
이메일이 편지**보다** 더 편해요.
농구가 축구**보다** 더 재미있어요.

+ 이때 'N1+이 N2+보다 V'의 구성의 '더'와 비슷한 '더욱, 훨씬' 등의 부사도 결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름이 봄보다 더 좋아요.'는 '여름이 봄보다 더욱 좋아요.', '여름이 봄보다 훨씬 좋아요.'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더'는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더욱'은 '정도나 수준 따위가 한층 심하거나 높게'의 의미를, '훨씬'은 '정도 이상으로 차이가 나게'라는 뜻을 가지어 강조하는 정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N1+이 N2+보다 덜 V'의 구성으로 사용한다.

예) 여름이 봄**보다** 덜 좋아요.
자장면이 짬뽕**보다** 덜 맛있어요.
이메일이 편지**보다** 덜 편해요.
농구가 축구**보다** 덜 재미있어요.

+ 이때 '덜'은 '어떤 기준이나 정도가 약하게 또는 그 이하로'라는 뜻을 가지어 ③에 제시된 '더, 더욱, 훨씬'과는 그 의미가 반대됨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예문 '여름이 봄보다 덜 좋아요.'는 여름이 좋은 정도가 봄을 좋아하는 정보보다 약하게 또는 그 이하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의미를 구분하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확장]

① 나이를 비교하거나 정도를 비교할 때는 '더욱, 훨씬' 등의 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 수지가 앤디**보다** 오 년 선배예요.
언니가 나**보다** 세 살 위예요.
동생이 나**보다** 두 살 아래예요.
부산이 서울**보다** 5도 높아요.

+ 위의 예문과 같이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서 나이나 정도를 비교할 때는 '더욱, 훨씬' 등의 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도를 강조하는 '더'와 같은 부사는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예문 '수지가 앤디보다 오 년 선배예요' 같은 경우 '수지가 앤디보다 오 년 더욱 선배예요', '수지가 앤디보다 오 년 훨씬 선배예요'와 같은 문장은 성립할 수 없지만 '수지가 앤디보다 오 년 더 선배예요'와 같은 문장은 가능하다.

③ 비교하면서 특별히 대조를 나타낼 때는 '보다는, 보다도'의 형태로 쓰이기도 한다.

예)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 생각**보다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지**보다는** 미도리가 키가 커요. / 수지**보다도** 미도리가 키가 커요.
이 교실**보다는** 저 교실이 넓습니다. / 이 교실**보다도** 저 교실이 넓습니다.
콜라**보다는** 주스가 좋아요. / 콜라**보다도** 주스가 좋아요.

[유사 문법]

① '보다', '~에 비해(서)'

보다	~에 비해(서)
. 비교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비교의 대상에 상관없이 사용한다. 예) 오늘이 어제**보다** 춥다. (o) 생각**보다** 운동이 힘들다. (o)	. 주로 비교의 대상이 특별히 지정된 경우에 사용한다. 예) 오늘이 어제**에 비해서** 춥다. (o) 생각**에 비해서** 운동이 힘들다. (x)

+ 비교의 대상이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예문과 같이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 '비해서'보다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는 격조사 '보다'가 자연스럽게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比', '比起', '相比'

예) 동생이 형**보다** 키가 크다. - 弟弟**比**哥哥个子高.
서울이 부산**보다** 추워요. - 首尔**比**釜山冷.
영희가 철수**보다** 노래를 더 잘 불러요. - 英姬唱歌**比**哲洙好.
저는 농구**보다** 배구를 더 좋아해요. - **比起**篮球，我更喜欢排球.

3.1.10. '부터'

부터[조사]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조사.

부터: (명사에 붙어)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시작되는 시간이나, 어떤 순서나 서열상 제일 먼저 할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선생님, 수업은 언제 시작해요? 나: 수업은 9시**부터** 시작해요. 가: 미도리 씨, 시험이 어땠어요? 나: 처음**부터** 너무 어려웠어요. 가: 흐엉 씨, 여름방학이 언제예요? 나: 여름방학은 6월**부터** 8월까지예요. 가: 앤디 씨,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거예요? 나: 저는 잠**부터** 잘 거예요. 가: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차례로 드세요.
문장예문	. 저는 오늘**부터**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예요. . 흐엉 씨가 아침**부터** 삼겹살을 먹어요. . 할머니는 항상 10시**부터** 주무세요. . 현우 씨가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요. . 마이클 씨는 6시**부터** 9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 저는 아침에 신문**부터** 읽어요. . 철수**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 학교에 도착했을 때**부터** 배가 아팠어요. · 수지 씨는 그 약을 먹고**부터** 몸이 좋아졌어요. . 저는 다음**부터** 혼자 여행 가지 않을 거예요. . 현우 씨는 원래**부터** 마음이 착합니다.

+ '부터'는 동작이나 상태가 시작하는 지점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주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지만 '잠부터, 철수부터'처럼 여러 가지 일 중 어느 하나를 먼저 시작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일반 명사와도 함께 쓰인다. '먹고부터'의 예처럼 구 뒤에 결합하기도 하며, '6월부터 8월까지'의 예처럼 '까지'를 함께 사용하여 시간적 범위를 나타내기

도 한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은행은 몇 시에 문을 열어요?
학생: 은행은 9시에 문을 열어요.
교사: 은행은 9시**부터** 시작해요.

(2)
교사: (하루 일정이 표시된 계획표를 들고) 수지 씨의 일정 표예요. 수지 씨는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해요?
학생: 운동을 해요.
교사: 수지 씨는 운동을 가장 먼저 해요.
수지 씨는 운동**부터** 해요.

+ '부터'를 도입할 때는 (1), (2)와 같이 뜻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다. (1)의 '부터'는 동작이나 상태가 시작되는 시점을 나타내며, (2)는 순서나 서열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인 것을 나타낸다. (2)에서 개인의 일정표 외에도 순서를 매길 수 있는 목록, 즉 하고 싶은 일, 여행하고 싶은 곳 등을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부터'를 쓴다.

예) 오늘 + 부터 → 오늘부터　　처음 + 부터 → 처음부터
동생 + 부터 → 동생부터　　운동 + 부터 → 운동부터
어제 + 부터 → 어제부터　　원래 + 부터 → 원래부터
언니 + 부터 → 언니부터　　식사 + 부터 → 식사부터

①	받침 o	+ 부터	오늘부터, 처음부터, 동생부터, 운동부터
	받침 x	+ 부터	어제부터 , 원래부터, 언니부터, 식사부터

[문장 구성 정보]

① '부터'는 어떤 행위나 상태가 시작하는 지점을 나타내며, 끝을 나타내는 '까지'와 자주 함께 쓴다. 주로 시간에 대한 범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 저는 9시**부터** 12시까지 한국어를 배웁니다.
시험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철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마이클 씨가 8월**부터** 9월까지 여행을 갑니다.

[유사 문법]

① '부터', '에'

부터	에
.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온다.	
. 시간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예)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우리 집에 오세요. (x) 서울은 겨울**부터** 눈이 와요. (x)	. 시작점을 나타내지 않고 행위가 일어나는 시간을 나타낸다. 예) 토요일 오후 4시**에** 우리 집에 오세요. (o) 서울은 겨울에 눈이 와요. (o)

② '부터', '에서'

부터	에서
. '까지'와 함께 사용되어,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시간과 장소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예) 저는 6월**부터** 9월**까지** 미국을 여행할 거예요. 저는 6월**에서** 9월**까지** 미국을 여행할 거예요. 수지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했습니다. 수지는 집**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했습니다.	
. 주로 시간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예) 수지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했습니다. (o) 수업이 9시**부터** 시작합니다. (o)	. 주로 장소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시간의 시작점을 나타낼 때 쓸 수 없다. 예) 수지는 집**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했습니다. (o) 수업이 9시**에서** 시작합니다. (x)

+ 장소 명사에 따라서 '부터 까지'가 어색한 경우가 많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从……(开始)', '先'

예)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이 있어요. - **从**9点到12点有课.
내일**부터** 3일간 쉽니다. - **从**明天**开始**休息3天.
아침**부터** 배가 아팠어요. - **从**早上**开始**肚子疼.
집에 오면 항상 TV**부터** 봐요. - 我到家经常**先**看电视.
식사**부터** 하고 일을 계속합시다. - **先**吃饭再做工作.

② 용법과 오류

- '부터'는 주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여 시작점을 나타내지만 '부터'에 대응하는 중국어의 '从'은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집부터 학교까지 걸어서 5분 걸립니다. (x)
기차가 서울부터 출발했습니다. (x)

- 순서나 서열의 시작을 나타내는 '부터'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부사 '先'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先'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으로 항상 부사 '먼저'를 생각하게 되므로 한국어 문장을 만들 때 조사 '부터'로 '先'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적다.

  예) 철수가 먼저 하세요. ('철수부터 하세요.'를 써야 할 자리에)
  밥을 먼저 먹고 일을 시작해요. ('밥부터 먹고 일을 시작해요.'를 써야 할 자리에)
  네가 먼저 잘 해. ('너부터 잘 해.'를 써야 할 자리에)

3.1.11. ‘에’

에[조사] 1)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장소** 2) 어떤 동작이나 행위, 상태가 일어나는 **시간** 3) 행위의 **목적지** 4) 셈을 하거나 값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단위**임을 나타내는 조사.

에1): (명사에 붙어)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거나 위치하는 곳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학생들이 어디**에** 있어요? 나: 학생들이 운동장**에** 있어요. 가: 동생이 도서관**에** 있습니까? 나: 아니요, 동생이 도서관**에** 없습니다. 가: 어디**에** 살아요? 나: 신촌**에** 살아요. 가: 저는 어디**에** 앉아요? 나: 이 의자**에** 앉으세요. 가: 식당**에** 사람이 많아요? 나: 네, 사람이 많아요.
문장예문	· 시계가 교실**에** 있습니다. · 냉장고**에** 우유가 있어요. · 주스가 식탁 위**에** 있어요. · 강아지가 의자 아래**에** 있어요. · 오빠가 집**에** 없어요. · 극장**에** 사람이 많아요. · 동화책**에** 그림이 적어요. · 앤디가 서울**에** 살아요. . 접시**에** 음식이 남았어요. · 이 컴퓨터**에** 사진이 많이 들어 있어요.

+ 조사 ‘에1)’은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명사 뒤에 ‘에’가 붙은 단어들 ‘운동장에, 도서관에, 신촌에, 의자에, 식당에’ 등은 문장 안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조사 ‘에’는 주격, 목적격 조사 다음으로 오류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장소를 나타내는 ‘에서’ 등과 용법이 유사하여 학습자들이 사용에 혼란을 많이 겪는다. ‘에1)’은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살다, 남다’ 등의 서술어와 함께 쓰인다.

[도입]

(1)
교사: 여기는 어디입니까?
학생: 교실입니다.
교사: 시계가 있습니까?
학생: 네, 시계가 있습니다.
교사: 교실입니다. 시계가 있습니다. 교실**에**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교실**에** 있습니다.
교사: 누가 있습니까?
학생: 선생님이 있습니다.
교사: 네,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있습니다. 교실**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2)
교사: (백화점 그림을 보여 주며) 어디입니까?
학생: 백화점입니다.
교사: 무엇이 있습니까?
학생: 옷이 있습니다.
교사: 네, 여기는 백화점입니다. 옷이 있습니다. 백화점**에** 옷이 있습니다. 옷이 백화점**에** 있습니다.

+ '에1)'을 도입할 때 (1)처럼 교실이라는 장소에 있는 '책상, 의자, 시계, 칠판, 컴퓨터' 등 여러 사물을 활용하여 연습시킬 수 있다. 사람이 장소에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 학생을 이용해 도입에 활용할 수도 있다. 도입(2)는 그림을 보고 백화점에 '옷, 신발, 가방' 등의 물건이 있음을 학습자들이 '에'를 활용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에'를 쓴다.

예) 서점 + 에 → 서점에　　교실 + 에 → 교실에
주말 + 에 → 주말에　　도서관 + 에 → 도서관에
의자 + 에 → 의자에　　시계 + 에 → 시계에
학교 + 에 → 학교에　　기숙사 + 에 → 기숙사에

①	받침 o	+ 에	서점에, 교실에, 주말에, 도서관에
	받침 x	+ 에	의자에, 시계에, 학교에, 기숙사에

②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 '거기, 여기, 저기'와 의문대명사 '어디'에 붙여 사용할 때

'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예) 거기에(거기) 앉아요.
여기에(여기) 이름을 쓰세요.
선생님이 저기에(저기) 계세요.
어디에(어디) 살아요?

[확장]

① 구어에서 '어디' 뒤의 '에'가 자주 생략되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장소의 '에'는 잘 생략되지 않는다.

예) 어디∅ 살아요?
철수가 서울 살아요. (??)
시계가 교실 있습니다. (??)
냉장고 우유가 있습니다. (??)

② 어떤 상황의 원인임을 나타낸다.

예) 이번 태풍**에** 집이 무너졌어요.
큰 소리**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비**에** 옷이 젖었어요.
오랜 유학 생활**에** 건강이 안 좋습니다.

③ 어떤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예) 친구 집**에** 선물을 보냈어요.
수지는 꽃**에** 물을 주었어요.
우유를 냉장고**에** 넣으세요.
학교**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 이때 '에' 대신에 '에다, 에다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에다, 에다가'는 격식적인 문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④ 어떤 행위나 상태의 도구나 수단, 방법을 나타낸다.

예) 라면은 불**에** 끓여 먹어야 해요.
앤디는 칼**에** 손을 베었습니다.
수지는 세수한 물**에** 걸레를 빨았어요.
마이클은 빨래를 햇볕**에** 말렸습니다.

+ 이때 '에' 대신에 '에다, 에다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에다, 에다가'는 격식적인 문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⑤ 앞의 말에 다른 내용이 더해짐을 나타낸다.

예) 2**에** 8을 더하면 10입니다.
눈**에** 비까지 와서 밖이 매우 춥습니다.
회사 일**에** 집안일까지 많아서 바빠요.
티셔츠**에** 재킷까지 입어서 따뜻합니다.

+ 이때 '에' 대신에 '에다, 에다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에다, 에다가'는 격식적인 문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⑥ 둘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쓴다.

예) 점심으로 불고기**에** 김치찌개**에** 불고기**에** 여러 가지를 먹었더니 매우 배불러요.
마이클은 생일선물로 컴퓨터**에** 휴대전화**에** 책**에** 이것저것 많이 받았습니다.
그 시장은 사과**에** 딸기**에** 바나나**에** 없는 게 없어요.
앤디는 빵**에** 음료수**에** 과자**에** 잔뜩 사 가지고 갔습니다.

+ 이때 '에' 대신에 '에다, 에다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에다, 에다가'는 격식적인 문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 나열의 '에'는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 접속 조사이다. 나열의 접속 조사에는 '에' 외에도 '하고, 하며, 이고, 이니, 이며' 등이 있다.

⑦ 지위나 자격, 신분을 나타낸다.

예) 수지가 반장**에** 뽑혔어요.
그 사람이 회장**에** 적당합니다.
이 선생님이 학장**에** 취임하셨어요.
지금까지 사회**에** 미도리였습니다.

⑧ 비교의 대상이나 기준이 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예) 그 학생의 답은 정답**에** 가까워요.
돈은 건강**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의 행동은 예의**에** 벗어나요.
뚱뚱한 사람을 돼지**에** 비유합니다.

[유사 문법]

① '에1)', '에서1)' (장소)

에1)	**에서1)**
.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사용한다. 예) 수지가 부산**에** 산다. 수지가 부산**에서** 산다.	
. 사람이나 물건이 존재하거나 위치하는 곳임을 나타낸다. 예) 앤디가 한국**에** 있다. (o)	.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곳임을 나타낸다. 예) 앤디가 한국**에서** 있다. (x)

냉장고**에** 우유가 없다. (o) 학생들이 운동장**에** 축구를 한다. (x) 철수가 식당**에** 밥을 먹는다. (x)	냉장고**에서** 우유가 없다. (x)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o) 철수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o)
. 주로 위치나 존재를 나타내는 '있다, 없다, 살다, 남다' 등과 쓰인다. 예) 수지가 은행**에** 있어요. (o) 앤디가 한국**에** 없어요. (o) 흐엉이 서울**에** 살아요. (o) 영수가 교실**에** 남아요. (o)	. 일반적인 행위나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내므로 여러 동사가 올 수 있다. 예) 흐엉이 친구를 교실**에서** 만나요. (o) 영수가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o)

+ '에1)'과 '에서1)'은 모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사용하는데, '에'는 존재나 위치를 나타내고 '에서'는 행위나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점이 다르다. '살다, 모이다' 등의 동사는 명사 뒤에 '에, 에서'가 모두 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수지가 부산에 살아요.'는 부산에 거주하거나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수지가 부산에서 살아요.'는 사는 행위, 즉 생활을 부산에서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② '에', '에게' (대상)

에	**에게**
.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을 나타낸다.	
. 무정명사 뒤에 사용한다. 예) 꽃**에** 물을 줍니다. (o) 친구 집**에** 선물을 보냈어요. (o) 개**에** 밥을 줍니다. (x) 친구**에** 선물을 줍니다. (x)	. 유정 명사 뒤에 사용한다. 예) 꽃**에게** 물을 줍니다. (x) 친구 집**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x) 개**에게** 밥을 줍니다. (o) 친구**에게** 선물을 줍니다. (o)

③ '에'와 '으로' (도구)

에	**으로**
. 도구나 수단, 방법을 나타낸다. 예) 생선을 불**에** 익혀 먹었다. 생선을 불**로** 익혀 먹었다.	
. 도구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예) 나는 잘못해서 종이**에** 손을 베었다. (o) 수지는 돌**에** 걸려 넘어졌다. (o) 흐엉은 안경**에** 눈을 찔렸다. (o) 종이를 칼**에** 잘랐다. (x)	. 도구로 의도적으로 행동하였음을 나타낸다. 예) 나는 잘못해서 종이**로** 손을 베었다. (??) 수지는 돌**로** 걸려 넘어졌다. (x) 흐엉은 안경**으로** 눈을 찔렸다. (x) 종이를 칼로 잘랐다. (o)

철수는 열쇠**에** 문을 열었다. (x)	철수는 열쇠**로** 문을 열었다.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중국어에서는 대체로 조사 '에'에 대응하는 표현이 없이 어휘들이 어순에 따라 배열되어 문장을 형성하게 된다. 단 일부 경우에 '上(위)', '里(안)' 등 방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에'에 대응하여 쓰여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를 표현한다.

예) 언니가 집**에** 없어요. - 姐姐不在家.
의자**에** 앉으세요. - 请坐在椅子**上**.
철수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 哲洙在哪**里**?
교실**에** 책상과 의자가 있다. - 教室**里**有桌子和椅子.

② 용법과 오류

-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서'와 혼동하여 사용함으로 나타나는 오류들이 있다.

예) 교실에서 학생이 많아요. (x)
의자에서 앉았습니다. (x)
학생들이 운동장에 운동을 해요. (x)

- 중국어에 대응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말하거나 쓰기를 할 때 조사 '에'를 생략하여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 우리 집 텔레비전이 두 대 있어요. (x)
식구가 우리 집 네 명 있어요. (x)
새가 나무 위 있어요. (x)

에2): (명사에 붙어) 어떤 동작이나 행위, 상태가 일어나는 시간이나 때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언제 수업이 끝나요? 나: 한 시**에** 수업이 끝나요. 가: 언제 꽃이 피어요? 나: 봄**에** 꽃이 피어요. 가: 무슨 요일**에** 아르바이트 가요? 나: 금요일**에** 아르바이트 가요. 가: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나: 한 시**에** 점심을 먹어요. 가: 언제 운동을 합니까? 나: 저는 보통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문장예문	· 저는 여덟 시**에** 아침을 먹어요. · 아버지는 아침**에** 출근을 하세요. . 수지는 지난달**에** 영화를 봤어요. · 부모님은 일요일**에** 교회에 가세요. · 우리는 다음 주**에** 쇼핑을 할 거예요. · 마이클은 작년**에**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 저는 내년**에도** 고향을 갈 거예요. · 앤디는 수업 전**에** 운동을 해요. . 흐엉은 운동이 끝난 후**에** 친구를 만나요. · 한국에서 1월 1일**에는** 떡국을 먹어요. · 미도리는 1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 '에2)'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동작이나 행위, 상태가 일어나는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에'는 '여덟 시에, 아침에, 지난달에, 일요일에, 다음 주에, 작년에'처럼 구체적인 시간, 요일, 해 등을 나타내는 어휘와 결합할 수 있으며, '수업 전에, 끝난 후에'처럼 명사 '전, 후'와 결합해서도 사용된다.
+ '에'는 '내년에도, 내년에는'에서 보듯 보조사 '도, 는'과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만에'에서와 같이 의존명사 '만'에 결합하여 그 의미를 한정시키는 역할도 한다.

[도입]

(1)
교사: 언제 수업을 시작해요?
학생: 아홉 시요.
교사: 네, 아홉 시**에** 수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한 시**에** 수업이 끝나요.
교사: 언제 공부를 해요?
학생: 오후요.
교사: 앤디 씨는 오후**에** 공부를 해요.

(2)
교사: 고향에 언제 가요?
학생: 방학이요.
교사: 수지 씨는 방학**에** 고향을 가요. 언제 와요?
학생: 2월이요.
교사: 네, 수지 씨는 2월**에** 와요.

+ '에2)'를 도입할 때 '수업을 시작하다, 수업이 끝나다, 공부하다'와 같이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어휘를 사용하여 '시간+에' 형태를 인지시킬 수 있다. 교사가 '언제'로 시작하는 질문을 하고 학습자들의 대답을 들은 후 '에'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시켜 줌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형태 정보]
앞의 '에1)'을 참고한다.

[제약 정보]
① 시간을 나타내는 '그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언제' 등에는 '에'가 결합할 수 없다.

예) 그제**에** 산책을 했어요. (x)	그제 산책을 했어요. (o)
어제**에** 숙제를 했습니다. (x)	어제 숙제를 했습니다. (o)
오늘**에** 운동을 해요. (x)	오늘 운동을 해요. (o)
내일**에** 쇼핑을 할 거예요. (x)	내일 쇼핑을 할 거예요. (o)
언제**에** 텔레비전을 봐요? (x)	언제 텔레비전을 봐요? (o)

[확장]
① 보조사 '는, 도, 만, 까지' 등과 결합할 수 있다.

예) 2014년**에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월요일**에는** 운동을 합니다.
3월**에는** 꽃이 피어요.
여름**에는** 날씨가 덥습니다.

예) 작년**에도** 여행을 갔어요.
오전**에도** 책을 읽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쇼핑을 할 거예요.
가을**에도** 비가 옵니다.

예) 내년**에만** 학교를 다닐 거예요.
화요일**에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오전**에만** 공부를 해요.
겨울**에만** 눈이 옵니다.

예) 2년 후**에까지** 유학을 할 거예요.
목요일**에까지** 숙제를 합니다.
2월**에까지** 고향에 있을 거예요.
봄**에까지** 날씨가 춥습니다.

②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다음에 '에'를 쓰지만, 두 개 이상의 시간 명사가 나오면 '에'는 마지막 명사 뒤에 한 번만 사용한다.

예) 이번 주**에** 수요일**에** 오후**에** 네 시**에** 생일 파티가 있어요. (x)
이번 주 수요일 오후 네 시**에** 생일 파티가 있어요.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저녁 6시**에** 만납시다. - 晚上6点见吧.
이곳은 여름**에** 아주 더워요. - 这里夏天很热.
몇 시**에** 저녁을 드십니까? - 几点吃晚饭?
수요일**에** 수업이 없습니다. - 星期三没课.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 대응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조사를 생략하여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 주말 친구를 만납니다. (x)
일요일 쉽니다. (x)

- '그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언제' 등에는 '에'가 결합할 수 없지만 학습자들이 '에'를 사용함으로 오류가 나타난다.

예) 저는 내일**에** 베이징에 가요. (x)
오늘**에** 수업이 없습니다. (x)

에3): (명사에 붙어) 행위의 목적지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어디**에** 가요? 나: 은행**에** 가요. 가: 언제 집**에** 와요? 나: 일곱 시쯤요. 가: 앤디가 어느 학교**에** 입학했어요? 나: 앤디는 한국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가: 내 모자 못 봤어요? 나: 모자가 땅**에** 떨어졌어요. 가: 언제 식사를 합니까? 나: 서울**에** 도착하면 식사를 할 겁니다.
문장예문	· 수지가 학교**에** 가요. · 저는 회사**에** 다녀요. · 미도리가 일본**에** 돌아갔어요.

	· 앤디는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왔어요. · 마이클이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 왕밍이 중국**에** 도착했어요. · 마이클은 영국**에** 유학을 갈 거예요. · 학생들이 모두 교실**에** 들어갔다. · 동생은 내년부터 한국대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 영수가 탄 배가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 '에3)'은 '가다, 오다, 다니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나가다, 나오다, 도착하다' 등의 이동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쓰여 행위의 진행 방향이나 목적지 등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위 예문들에게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에'는 도착점이나 목표점, 방향 등을 나타낸다.

[도입]

(1)
교사: 수업이 끝나고 어디 가요?
학생: 식당 가요.
교사: 흐엉 씨는 수업이 끝나고 식당**에** 가요.
교사: 식사를 하고 어디 가요?
학생: 집 가요.
교사: 네, 흐엉 씨는 식사를 하고 집**에** 가요.

(2)
교사: (세계 지도를 보여 주며) 선생님은 방학에 미국**에** 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여행 가고 싶어요?
학생: 중국이요.
교사: 마이클 씨는 중국**에** 여행 가고 싶어요. 앤디 씨는 어디**에** 가고 싶어요?
학생: 프랑스요.
교사: 네, 앤디 씨는 프랑스**에** 여행 가고 싶어요.

+ '에3)'을 도입하기 위해 (1)에서 보듯 이동 동사 '가다'를 이용하여 대화를 유도한다. (2)는 가고 싶은 여행지를 학습자들에게 물어 목적지를 나타내는 '에'를 익히게 하는 방법이다.

[형태 정보]
앞의 '에1)'을 참고한다.

[확장]
① 일부 비격식적인 구어에서 '에3)'을 생략해서 말하기도 한다.

예) 학교∅ 갈 거예요. / 학교에 갈 거예요.

+ 비격식적인 구어라도 일음절 명사 뒤의 '에'는 생략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방에 가요, 집에 가요'를 '방 가요, 집 가요'로 사용하지 않는다.
+ 문어나 격식적인 구어에서는 '에'를 생략하지 않는다.

예) 수지가 올해 대학교∅ 입학했습니다. (??)
철수는 회사∅ 다닙니다. (??)

[유사문법]

① '에3)', '으로'

에3)	**으로**
. 행위가 향하는 목적지를 나타낸다. 예) 수업이 끝나면 식당**에** 오세요. 수업이 끝나면 식당**으로** 오세요.	
· 도착점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다. 예) 나는 서울**에** 도착했다. (o)	· 도착점을 나타낼 때 쓸 수 없다. 예) 나는 서울**로** 도착했다. (x)
. 목표점이나 방향, 경유지를 나타낼 때 쓸 수 없다. 예) 나는 부산**에** 떠났다.(목표점) (x) 화장실에 가려면 아래**에** 내려가세요.(방향) (x) 이 길**에** 돌아가면 빠르다.(경유지) (x)	. 목표점이나 방향, 경유지를 나타낼 때 쓸 수 없다. 예) 나는 부산**으로** 떠났다.(목표점) (o) 화장실에 가려면 아래**로** 내려가세요.(방향) (o) 이 길**로** 돌아가면 빠르다.(경유지) (o)

+ 도착점을 가리킬 때는 '에', 목표점이나 방향, 경유지를 나타낼 때는 '으로'를 사용한다.

② '에3)', '을'

에	**을**
. 행동의 목표가 되는 장소를 나타낸다. 예) 흐엉이 학교**에** 갑니다. 흐엉이 학교**를** 갑니다.	
. 명사가 목적이 되는 행위일 때 쓸 수 없다. 예) 철수가 목욕/구경/등산/여행/소풍/낚시/일**에** 갔다. (x)	. 명사가 목적이 되는 행위일 때 쓸 수 있다. 예) 철수가 목욕/구경/등산/여행/소풍/낚시/일**을** 갔다.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기차역**에** 갑니다. - 去火车站.
서울**에** 도착하면 전화 주세요. - 到首尔给我来电话吧.
지난주**에** 중국**에** 돌아갔어요. - 上周回中国了.
언제 서울**에** 왔습니까? - 什么时候来首尔的?

② 용법과 오류

-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는 '로'가 쓰이지만 학습자들이 '에'로 표현함으로 오류가 나타난다.

예) 동쪽 방향에 가시면 됩니다. (x)
이쪽에 오세요. (x)

- 중국어에 대응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격식적인 구어나 문어에서 '에'를 생략하여 오류가 나타난다.

예) 저는 어제 한국 왔습니다. (x)
기회가 되면 미국 가고 싶습니다. (x)

에4): (명사에 붙어) 셈을 하거나 값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단위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하루**에** 몇 번 식사를 해요? 나: 저는 하루**에** 세 번 식사를 해요. 가: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어요? 나: 저는 한 달**에** 네 권을 읽어요. 가: 이 바나나를 어떻게 나누어요? 나: 이 바나나를 한 사람**에** 두 개씩 나눠 가지세요. 가: 이 치마를 얼마**에** 샀어요? 나: 저는 이 치마를 2만 원**에** 샀어요. 가: 이 귤은 얼마예요? 나: 이 귤은 세 개**에** 천 원입니다.
문장예문	· 앤디는 하루**에** 두 번 세수해요. · 수지는 이틀**에** 한 번 도서관을 가요. · 부모님께서는 일 년**에** 두 번 해외여행을 가세요. · 미도리는 한 달**에** 한 번 등산을 해요.

	· 이 지우개는 천 원**에** 두 개예요. · 이 사과는 오천 원**에** 네 개예요. · 귤이 열**에** 아홉이 썩었다. · 앤디는 책을 다섯 번**에**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 이 과자를 한 사람**에** 몇 개씩 줄까요? · 선생님이 열 사람**에** 상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 '에4)'는 셈을 하거나 값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단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부사격 조사이다. 예문에서 보듯 주로 '기간, 가격, 개수, 횟수, 사람 수' 등 단위가 될 수 있는 명사에 결합하여 사용된다.

[도입]

(1)
교사: 흐엉 씨는 하루**에** 몇 번 거울 봐요?
학생: 다섯 번이요.
교사: 네, 흐엉 씨는 하루**에** 다섯 번 거울을 봐요.
교사: 흐엉 씨는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해요?
학생: 세 번이요.
교사: 네, 흐엉 씨는 일주일**에** 세 번 운동해요.

(2)
교사: 이 책 얼마예요?
학생: 2만 원이요.
교사: 네, 그럼 두 권, 4만원이에요. 이 책은 한 권**에** 2만 원, 두 권**에** 4만 원이에요.
교사: 연필 몇 개예요?
학생: 두 개요.
교사: 네, 연필 두 개**에** 2천 원이에요. 이 연필은 한 개**에** 천 원이에요.

+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초급 어휘를 이용하여 대답을 도출할 수 있다. '하루에, 일주일에, 한 달에, 일 년에' 등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에'가 셈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단위임을 자연스럽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도입(2)는 값을 매길 때 '에'가 사용되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다. 교실에 있는 물건을 이용하거나 상점의 그림을 이용하여 물건의 가격을 말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

[형태 정보]
앞의 '에1)'을 참고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중국어에는 대응하는 표현이 없이 어휘가 직접 쓰여 문장을 형성한다.

예) 사과 3개**에** 2000원입니다. - 苹果三个2000韩元.
하루**에** 세 번 양치합니다. - 一天刷三次牙.
1년**에** 두 번 정도 만납니다. - 一年大概见两次.
한 사람**에** 두 개씩 주세요. - 每个人给两个吧.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는 대응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에'를 생략하는 오류가 종종 나타난다.

예) 한 달 책을 2권 읽어야 합니다. (x)
이틀 한 번 도서관에 갑니다. (x)

3.1.12. ‘에게’

에게[조사]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

에게: (명사에 붙어) 사람이나 동물이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철수 씨, 영희**에게** 생일 선물 줬어요? 나: 네, 어제 줬어요. 가: 마이클 씨, 수지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네, 조금 전에 했어요. 가: 가방을 어디에 맡겼어요? 나: 경비실 아저씨**에게** 맡겼어요. 가: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나: 저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가: 개**에게** 먹이를 줬어요? 나: 아니요, 오늘은 개**에게** 물만 줬습니다.
문장예문	· 책을 동생**에게** 주었다. · 철수는 친구**에게** 책을 선물했어요. · 수지가 왕밍**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 언니**에게** 옷을 빌려 주었다. · 왕밍이 미도리**에게** 공을 힘껏 던졌다. · 흐엉 씨가 오빠**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 동생이 식구들**에게** 대학 합격 소식을 말했다. · 친구는 고양이**에게** 늘 생선을 먹여요. . 누나**에게** 아이를 맡기고 외출을 했습니다.

+ ‘에게’는 사람이나 동물이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에게’의 앞에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는 점에 유의하고, 주로 ‘주다, 가르치다, 보내다, 전화하다, 말하다, 던지다, 전하다, 선물하다’ 등의 서술어와 함께 쓰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 편지나 카드를 쓸 때 보통 첫 줄에 받는 대상을 쓴다. 이때 ‘에게’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수지에게, 보고 싶은 딸에게’처럼 쓴다.

[도입]

(1)
교사: (학생에게 책을 주며) 무엇을 주었어요?
학생: 책을 주었어요.
교사: 네, 왕밍 씨**에게** 책을 주었어요. (학생에게 연필을 주며) 그리고 무엇을 주었어요?
학생: 연필을 주었어요.
교사: 네, 왕밍 씨**에게** 연필을 주었어요.

(2)
교사: (앤디가 수지에게 전화하는 그림을 보여 주며) 앤디 씨가 무엇을 해요?
학생: 전화해요.
교사: 앤디 씨가 누구**에게** 전화해요?
학생: 수지 씨**에게** 전화해요.
교사: 네, 앤디 씨가 수지 씨**에게** 전화해요.

+ '에게'를 도입할 때 '주다, 전화하다, 말하다' 등을 활용하여 대화를 구성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를 쉽게 이끌 수 있다. '에게'가 사용되는 전형적인 상황을 제시할 때, 처음에는 교사가 '에게'가 사용된 예문을 주고 두 번째는 학생에게서 '에게'가 사용된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낸다. 이때 교사, 학생 간의 행동으로 상황을 제시하거나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사용 맥락을 학생이 이해하도록 한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에게'를 쓴다.

예) 학생 + 에게 → 학생에게　　딸 + 에게 → 딸에게
동생 + 에게 → 동생에게　　친구 + 에게 → 친구에게
누나 + 에게 → 누나에게　　강아지 + 에게 → 강아지에게

①	받침 o	+ 에게	학생에게, 딸에게, 동생에게
	받침 x	+ 에게	친구에게, 누나에게, 강아지에게

[문장 구성 정보]

① 사람과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사용한다.

예) 철수가 마이클**에게** 편지를 보내요.
수지 씨가 동생**에게** 전화해요.
왕밍 씨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줘요.
앤디가 강아지**에게** 공을 던져요.

② '나에게, 저에게, 너에게' 등은 '내게, 제게, 네게' 등으로 줄여 쓸 수 있다. '내게, 제게, 네

게' 등은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 **나에게** 줘요. **내게** 줘요.
저에게 보내세요. **제게** 보내세요.
너에게 선물할 거야. **네게** 선물할 거야.

[확장]

① '가다, 오다' 등의 동사와 함께 쓰여, 행위의 진행 방향이나 대상임을 나타낸다.

예) 앤디는 수지 씨**에게** 갔어요.
아이들이 마이클**에게** 뛰어갔습니다.
미도리가 흐엉**에게** 왔어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 이때 '에게'는 '에게로'와 바꿔 쓸 수 있다. '에게'에 비해 '에게로'는 방향의 '로'가 결합된 형태로 행위의 진행 방향이라는 의미가 강조된다. '앤디는 수지에게 갔어요.'를 '앤디는 수지에게로 갔어요.'로, '아이들이 마이클에게 뛰어갔습니다.'는 '아이들이 마이클에게로 뛰어갔습니다.'로 바꿀 수 있다.

② '있다, 없다, 남다, 많다, 적다, 생기다' 등의 동사, 형용사와 함께 쓰여, 무엇이 있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예) 누나**에게** 국어사전이 있다.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나**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수지**에게** 이렇게 큰 동생이 있어요?

③ '맞다, 알맞다, 어울리다, 비하다, 뒤지다' 등의 동사, 형용사와 함께 쓰여, 비교의 대상이나 기준임을 나타낸다.

예) 나**에게** 맞는 일을 할 거예요.
이 책이 당신**에게** 알맞습니다.
이 옷은 손님**에게** 어울려요.
다른 친구들**에게** 비하면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④ '받다, 얻다, 배우다' 등의 동사와 함께 쓰여, 행동이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예) 저는 누나**에게** 용돈을 받아요.
저는 선배**에게** 영어를 배웠습니다.
수지는 동생**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앤디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싫어해요.

+ 이때 '에게'는 거의 모든 경우에 '에게서'와 바꿔 쓸 수 있다. '저는 누나에게 용돈을 받아요.'를 '저는 누나에게서 용돈을 받아요.'로, '저는 선배에게 영어를 배웠습니다.'를 '저는 선배에게서 영어를 배웠습니다.'로 바꿀 수 있다. 그렇지만 주어가 행위를 당하는 경우에는

'에게서'로 바꾸면 어색해진다. 예를 들어 '저는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저는 친한 친구에게서 사기를 당했습니다.'와 같은 경우는 어색하다.

⑤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시킴을 받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예) 선생님이 마이클**에게** 시험을 보게 했어요.
수지는 아픈 동생**에게** 약을 먹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책을 읽히셨어요.
어머니는 동생**에게** 방 청소를 시키셨어요.

⑥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형용사와 함께 쓰여, 어떤 느낌을 가지거나 어떤 상태에 있는 주체임을 나타낸다.

예) 수지는 친구**에게** 실망했습니다.
앤디는 여자 친구**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미도리는 동생**에게** 매우 미안해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입니다.
마이클**에게** 영어는 쉽습니다.

[유사 문법]

① '에게', '한테', '께'

에게	한테	께
.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모두 쓴다. 예) 동생**에게** 편지를 쓴다. (o) 동생**에게** 편지를 써요. (o)	. 주로 말할 때 쓴다. 예) 동생**한테** 편지를 써요. (o)	. '에게'의 높임 표현으로, 높임의 대상에게 쓴다.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모두 쓴다. 예) 동생**께** 편지를 쓴다. (x) 선생님**께** 편지를 쓴다. (o) 선생님**께** 편지를 써요. (o)

② '에게'와 '에'

에게	에
.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을 나타낸다.	
. 유정명사 뒤에 사용한다.	. 무정명사 뒤에 사용한다.

예) 꽃**에게** 물을 줍니다. (x) 친구 집**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x) 개**에게** 밥을 줍니다. (o) 친구**에게** 선물을 줍니다. (o)	예) 꽃**에** 물을 줍니다. (o) 친구 집**에** 선물을 보냈어요. (o) 개**에** 밥을 줍니다. (x) 친구**에** 선물을 줍니다. (x)

+ 의인화된 무정명사의 경우에는 '에게'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나무에게 말을 해요'와 같은 문장이 이에 해당한다.

③ '에게', '더러', '보고'

에게	**더러, 보고**
.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모두 쓴다.	. 주로 말할 때 쓴다.
. 특별한 제약 없이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예) 앤디가 수지**에게** 가자고 말했다. (o) 수지가 앤디**에게** 청소하도록 했어. (o) 수지가 앤디**에게** 전화를 걸었다. (o)	. 주로 인용 구문에서 말하는 행위와 관계된 '말하다, 묻다, 요청하다, 권하다' 등의 동사나 '-게 하다, -도록 하다' 등의 일부 표현과 사용된다. 예) 앤디가 수지**더러(보고)** 가자고 말했다. (o) 수지가 앤디**더러(보고)** 청소하도록 했어. (o) 수지가 앤디**더러(보고)** 전화를 걸었다. (x)

+ '더러'와 '보고'는 '에게'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에게'는 '더러'와 '보고'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给', '使' (경우에 따라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 **给**朋友打电话.
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 **给**姐姐写信.
동생**에게** 한국어 사전을 사 주었습니다. - **给**弟弟满了韩国语词典.
저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 我教中国学生韩国语.

② 용법과 오류

- '에게'와 '에'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모두 '给'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 두 문법을 혼동하여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나무에게 물을 주었어요? (x)
주말마다 집에게 전화해요. (x)
강아지에 먹이를 주었다. (x)

- 조사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생략함으로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나는 친구 자주 전화해요. (x) ('친구에게'를 써야 할 자리에)
철수는 나 생일 선물을 주었습니다. (x) ('나에게'를 써야 할 자리에)

3.1.13. ‘에게로’

에게로[조사]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향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

에게로: (명사에 붙어)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향하는 대상을 나타낸다. '~를 향하여'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어느 직원**에게로** 가요? 나: 1번 직원**에게로** 가세요. 가: 선생님**에게로** 소포가 와 있어요. 나: 내 방으로 가져다 주세요. 가: 앤디 씨는 왜 나**에게로** 왔어요? 나: 마이클 씨가 편해서 마이클 씨**에게로** 갔어요. 가: 저는 강아지가 무서워요. 나: 강아지**에게로** 다가가 봐요. 순해요. 가: 여자 친구를 다시 만나요? 나: 네, 여자 친구**에게로** 돌아갔어요.
문장예문	· 앤디가 친구**에게로** 가요. · 고양이가 언니**에게로** 옵니다. . 아기가 강아지**에게로** 다가가요. · 동생이 형**에게로** 뛰어갔어요. · 내 마음이 수지**에게로** 향했다. · 어머니는 누나**에게로** 돈을 내밀었습니다. · 마이클은 앤디**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 형은 동생**에게로** 걸어갑니다. · 모든 관심이 나**에게로** 쏟아졌어요. · 카메라가 모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 '에게로'는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를 향하여'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행위를 받는 대상을 가리키는 조사 '에게'에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 '로'가 결합한 형태이다. '에게로'는 '에게'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사용하며 주로 '가다, 오다'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인다.
+ '에게로'는 '에게'로 대체가 가능하며, '에게'와 비교하여 방향을 나타내는 '로'가 첨가되어

방향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

[도입]

(1)
교사: (수지가 앤디 쪽으로 걸어가는 그림을 보여 주며) 수지가 무엇을 해요?
학생: 걸어가요.
교사: 어디로 걸어가요?
학생: 앤디 씨요.
교사: 네, 수지가 앤디 씨**에게로** 걸어가요.

(2)
교사: (학생들에게 번호표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 몇 번입니까?
학생: 1번입니다.(2번입니다...)
교사: (1번 학생에게 가며)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학생: 1번 학생에게 갑니다.
교사: 네, 선생님이 1번 학생**에게로** 갑니다.

+ '에게로'를 도입할 때 구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서술어를 제시한 후 '에게로'를 자연스럽게 인지시킨다. (2)번 도입은 번호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후 학생들에게 번호를 묻고 교사가 그쪽으로 가는 동작을 보여 준 후 문장을 만들어 제시하는 방법이다. 학생들끼리도 서로 번호나 또는 이름을 묻고 이 활동을 하게 하여 '에게로'를 익히게 할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에게로'를 쓴다.

예) 학생 + 에게로 → 학생에게로　　딸 + 에게로 → 딸에게로
동생 + 에게로 → 동생에게로　　강아지 + 에게로 → 강아지에게로
친구 + 에게로 → 친구에게로　　누나 + 에게로 → 누나에게로

①	받침 o	+ 에게로	학생에게로, 딸에게로, 동생에게로
	받침 x	+ 에게로	강아지에게로, 친구에게로, 누나에게로

② '나에게로, 저에게로, 너에게로' 등은 '내게로, 제게로, 네게로' 등으로 줄여 쓸 수 있다.

예) 나**에게로** 와요. (o)　　내게로 와요. (o)
저**에게로** 걸어오세요. (o)　　제게로 걸어오세요. (o)
너**에게로** 돌아갈 거야 (o)　　네게로 돌아갈 거야. (o)

[문장 구성 정보]

①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사용한다.

예) **왕밍에게로** 가요.
친구**에게로** 뛰어가요.
나**에게로** 오세요.
아기**에게로** 가지 마세요.

+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向'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카메라가 주인공**에게로** 향했습니다. - 镜头转**向**了主人公.
친구**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 去朋友那里的路上.
너**에게로** 돌아갈 거야. - 我要回到你身边.
모든 관심이 나**에게로** 쏟아졌다. - 大家都关注我.

② 용법과 오류

- '에게로'는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만 사용하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학교에게로 뛰어 갔어요. (x)
학생에게로 걸어갔다. (x)

3.1.14. ‘에게서’

에게서[조사] 어떤 행위의 출발점이나 어떤 행위가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

에게서: (명사에 붙어) 어떤 행위가 나온 출처나 어떤 행위가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어떤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주어진 행위가 시작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철수 씨는 누구**에게서** 그 말을 들었어요? 나: 선배**에게서** 들었어요. 가: 누가 편지를 보냈어요? 나: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가: 수지 씨**에게서** 연락 있었어요? 나: 어제 수지 씨**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가: 앤디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나: 아니요, 저는 아직 부모님**에게서** 용돈을 받아요. 가: 이 냄새가 무슨 냄새예요? 나: 고양이**에게서** 나는 냄새예요.
문장예문	· 수지는 언니**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 왕밍은 누나**에게서** 피아노를 배웠어요? · 마이클은 형**에게서** 책을 얻었어요. · 철수는 수지**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 미도리는 앤디**에게서** 돈을 빌렸어요. · 이 아기는 제 언니**에게서** 태어난 아기예요. · 이 이야기는 동생**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 영수는 선배**에게서** 항상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요. · 고양이는 강아지**에게서** 먹이를 뺏었어요.

+ ‘에게서’는 어떤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주어진 행위가 시작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행위를 받는 대상을 가리키는 조사 ‘에게’에 행위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조사 ‘서’(‘에서’의 준말)가 결합한 형태이다. ‘에게서’는 ‘에게’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사용하며, 주로 ‘받다, 배우다, 듣다’ 등의 서술어와 함께 쓰인다.
+ ‘에게서’는 ‘에게’로 대체가 가능하며, ‘에게’와 비교하여 출발점을 나타내는 ‘서’가 첨가되어 비롯됨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

[도입]

(1)
교사: (앤디 씨가 왕밍 씨에게 책을 주게 하며) 앤디 씨가 책을 주었어요. 왕밍 씨는 무엇을 해요?
학생: 왕밍 씨는 책을 받아요.
교사: 네, 왕밍 씨가 앤디 씨**에게서** 책을 받았어요.
교사: (앤디 씨에게 왕밍 씨에게 연필을 주게 하며) 그리고 왕밍 씨가 무엇을 받았어요?
학생: 왕밍 씨가 연필을 받았어요.
교사: 왕밍 씨가 누구**에게서** 연필을 받았어요?
학생: 왕밍 씨가 앤디 씨**에게서** 연필을 받았어요.

(2)
교사: (수지 씨가 왕밍 씨에게 중국어를 배우는 그림을 보여 주며) 수지 씨가 무엇을 해요?
학생: 수지 씨는 중국어를 배워요.
교사: 네, 수지 씨가 왕밍 씨**에게서** 중국어를 배워요.

+ '에게서'를 도입할 때 '받다, 전화가 오다, 배우다' 등을 활용하여 대화를 구성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를 쉽게 이끌 수 있다. '에게서'가 사용되는 전형적인 상황을 제시할 때, 처음에는 교사가 '에게서'가 사용된 예문을 주고 난 다음, 학생에게서 '에게서'가 사용된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낸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에게서'를 쓴다.

예) 학생 + 에게서 → 학생에게서　　딸 + 에게서 → 딸에게서
형 + 에게서 → 형에게서　　선배 + 에게서 → 선배에게서
친구 + 에게서 → 친구에게서　　누나 + 에게서 → 누나에게서

①	받침 o	+ 에게서	학생에게서, 딸에게서, 형에게서
	받침 x	+ 에게서	선배에게서, 친구에게서, 누나에게서

② '나에게서, 저에게서, 너에게서' 등은 '내게서, 제게서, 네게서' 등으로 줄여 쓸 수 있다.

예) 동생은 **나에게서** 피아노를 배워요. (o)　　동생은 **내게서** 피아노를 배워요. (o)
그 사람이 **저에게서** 떠났어요. (o)　　그 사람이 **제게서** 떠났어요. (o)
축하 인사는 **너에게서** 들을 거야. (o)　　축하 인사는 **네게서** 들을 거야. (o)

[문장 구성 정보]
①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사용한다.

예) 선생님**에게서** 한국어를 배워요.
돼지**에게서** 냄새가 난다.

+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유사 문법]

① '에게서', '한테서', '으로부터'

에게서	한테서	으로부터
. 어떤 행위의 출발점이나 어떤 행위가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모두 쓰인다.	. 주로 말할 때 쓰인다.	.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모두 쓰인다.
. 사람이나 동물에 쓰인다. 예) 사장님**에게서** 월급을 받았어요. (o) 회사**에게서** 월급을 받았어요.(x)	. 사람이나 동물에 쓰인다. 예) 사장님**한테서** 월급을 받았어요. (o) 회사**한테서** 월급을 받았어요. (x)	. 앞에 나오는 명사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 사장님**으로부터** 월급을 받았어요. (o)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어요.(o)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o)

② '에게서', '에서'

에게서	에서
. 어떤 행위의 출발점이나 어떤 행위가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사람이나 동물 뒤에 사용한다. 예)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o) 친구**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o)	. 장소나 사물, 추상적인 대상 뒤에 사용한다. 예)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o) 철수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요. (o) 사람들은 책**에서** 지식을 얻습니다. (o) 꽃**에서** 향기가 나요. (o) 한국어 수업은 말하기 공부**에서** 시작됩니다.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从', '向', '跟'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친구**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 **从**朋友那儿听到了消息.
형**에게서** 빌린 돈입니다. - **向**哥哥借的钱.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 妈妈打来电话.
생일에 친구**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 生日的时候收到了朋友的礼物.

② 용법과 오류

- '에게서'와 '에서'의 중국어 대응 표현이 모두 '从'이므로 학습자들이 '에게서'와 '에서'를 혼동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선배에서 전화가 왔다. (x)
회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x)

- '에게서'는 구어와 문어에 모두 쓰이지만 '한테서'는 주로 문어에 쓰인다. 그러나 중국어에는 이러한 구별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문어에 '한테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3.1.15. ‘에다가’

에다가{에다}[조사] 1)앞의 명사에 뒤의 명사를 **첨가**하거나 2) 일정한 위치의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다가1): (명사에 붙어) 앞의 명사에 뒤에 오는 명사가 부가됨을 나타낸다. 다른 사물이나 상황을 덧붙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미도리 씨, 어제 명동에서 무엇을 샀어요? 나: 옷**에다가** 신발까지 많이 샀어요. 가: 수지 씨, 오늘 많이 바빠요? 나: 네, 아르바이트**에다가** 친구 생일잔치도 있어서 바쁠 것 같아요. 가: 앤디 씨,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나: 책**에다가** 도시락까지 넣어서 가방이 무거워졌어요. 가: 왕밍 씨, 줄리아 씨가 많이 아파요? 나: 네, 줄리아 씨가 감기**에다가** 몸살까지 걸려서 많이 아파요. 가: 선생님, 오늘 시험이 있습니까? 나: 네, 오늘은 듣기 시험**에다가** 말하기 시험도 있습니다.
문장예문	. 부모님**에다가** 형제들까지 모두 미국에 살아요. . 어제 흐엉 씨가 라면**에다가** 떡볶이도 먹었어요. . 수지 씨는 생일 선물로 옷**에다가** 구두까지 받았어요. · 오늘은 눈**에다가** 바람도 불어서 날씨가 추울 것 같아요. . 2**에다가** 8을 더하면 10이 돼요. . 저는 가방을 고를 때 크기**에다가** 무게도 생각해요. . 지영 씨 방에는 비싼 구두**에다가** 좋은 가방이 많이 있어요. . 제 커피**에다가** 설탕을 많이 넣어 주세요. . 어제는 휴일**에다가** 세일 기간이어서 백화점에 사람이 많았어요. . 영수 씨가 지난주부터 담배**에다가** 술까지 끊었습니다.

+ ‘에다가1)’은 앞에 나오는 명사에 뒤의 다른 명사가 더해진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에다가’로 연결되는 두 명사는 ‘한식, 양식’, ‘옷, 구두’처럼 서로 연관된 것이어야 한다. ‘에다가’가 첨가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에다가’의 앞뒤 명사를 바꿔 써도 전체 문장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 ‘에다가1)’은 첨가의 ‘에’와 강조의 보조사 ‘다가’가 결합된 조사로, ‘에’로 대체가 가능하며

또는 '에다'로 줄여 쓸 수 있다.

[도입]

(1)
교사: 미도리 씨, 연필을 갖고 있어요?
학생: 네, 있어요.
교사: 그럼 지우개도 있어요?
학생: 네, 지우개도 갖고 있어요.
교사: 미도리 씨는 연필을 갖고 있어요. 지우개도 있어요.
미도리 씨는 연필**에다가** 지우개도 갖고 있어요.

(2)
교사: 흐엉 씨, 집에 무엇이 있어요?
학생: 냉장고가 있어요.
교사: 또 무엇이 있어요?
학생: 침대가 있어요.
교사: 흐엉 씨의 집에는 냉장고가 있어요. 침대도 있어요.
흐엉 씨의 집에는 냉장고**에다가** 침대도 있어요.

+ '에다가1)'을 도입할 때 교실이나 집에 있는, 학생과 관련된 물건을 이용하여 질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에다가1)'로 연결되는 명사는 '연필, 지우개', '냉장고, 침대'처럼 서로 연관된 것이어야 한다. '에다가1)'를 도입한 후 '에다가' 대신 '에다, 에'가 사용될 수 있음을 예문으로 보여 준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에다가'를 쓴다.

예) 비빔밥 + 에다가 → 비빔밥에다가
안경 + 에다가 → 안경에다가
비 + 에다가 → 비에다가
바람 + 에다가 → 바람에다가
불고기 + 에다가 → 불고기에다가
시계 + 에다가 → 시계에다가

①	받침 o	+ 에다가	비빔밥에다가, 바람에다가, 안경에다가
	받침 x	+ 에다가	불고기에다가, 비에다가, 시계에다가

[문장 구성 정보]

① 첨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에다가'는 상황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때, '까지'와 함께 사용한다.

예) 불고기**에다가** 비빔밥까지 먹어서 배가 불러요.
시험**에다가** 아르바이트까지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비**에다가** 태풍까지 와서 학교에 갈 수 없어요.
결혼**에다가** 이사까지 해서 돈이 많이 들어요.

[확장]

① '에다가' 대신 준말 '에다'와 조사 '에'를 사용할 수 있다. '에다가, 에다'는 구어에서 주로 사용한다.

예) 5**에다가** 4를 더하면 9가 돼요.
= 5에다 4를 더하면 9가 돼요.
= 5에 4를 더하면 9가 돼요.
영수 씨가 야구**에다가** 축구도 잘 해요.
= 영수 씨가 야구에다 축구도 잘 해요.
= 영수 씨가 야구에 축구도 잘 해요.

② 용언 뒤에 결합하는, 첨가의 의미를 지니는 '-(으)ㄴ/는 데다가'가 있다. 이때 '다가'는 '에다가'의 '다가'와 같은 조사이다.

예) 오늘은 날씨가 **좋은 데다가** 따뜻해요.
마이클 씨는 키가 **큰 데다가**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 식당은 음식이 **맛있는 데다가** 값도 싸요.
줄리아 씨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데다가** 친구와 떠들어요.

[유사 문법]

① '에다가', '과'

에다가	**과**
. 여러 사물을 열거할 때 사용한다.	
. 앞의 명사에 뒤의 명사가 첨가됨을 나타낸다. 예) 줄리아 씨가 술**에다가** 물을 탔다. (o) 지영 씨가 지갑**에다가** 돈을 넣다. (o)	. 앞의 명사에 뒤의 명사가 첨가되는 것이 아니다. 예) 줄리아 씨가 술**과** 물을 탔다.(x) 지영 씨가 지갑**과** 돈을 넣다.(x)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和', '加上', '又'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응 표현이 없이 어휘들이 어순에 따라 배열되어 문장을 형성하는 경우도 많다.

예) 삼겹살**에다가** 냉면도 먹었어요. - 吃了烤五花肉**和**冷面.
아르바이트**에다가** 시험까지 있어서 아주 바쁩니다.
- 因为要打工, **加上**还有考试 , 所以 很忙.
비**에다가** 바람도 불어서 쌀쌀해요. - 下雨**又**刮风, 所以很凉.
선물로 목걸이**에다가** 반지도 받았다. - 作为礼物, 收到了项链, 戒指.

에다가2): (명사에 붙어) 일정한 장소를 나타내거나 어떤 행위를 받는 위치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치앙 씨, 휴대전화를 도서관**에다가** 놓고 왔어요. 나: 같이 찾으러 가요. 가: 수지 씨, 이 짐을 어디에 둬요? 나: 기숙사 방 앞**에다가** 두세요. 가: 선생님, 어디에 이름을 쓸까요? 나: 시험지 위**에다가** 이름을 쓰세요. 가: 어머니, 제 책이 어디에 있어요? 나: 아까 네 가방**에다가** 책을 넣어 놨어. 가: 마이클 씨가 집을 어디에 지었습니까? 나: 언덕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문장예문	. 앤디 씨가 가방을 책상 위**에다가** 놓았어요. · 어머니가 과일을 냉장고 안**에다가** 넣고 계세요. . 영수 씨가 포스터를 벽**에다가** 붙이고 있어요. . 왕밍 씨가 책을 책꽂이**에다가** 꽂고 있어요. . 지영 씨가 제주도**에다가** 집을 샀어요. . 지금 상처**에다가** 약을 바르면 빨리 나을 거예요. . 빨래는 햇볕**에다가** 말려야 좋아요. . 제가 책상 위에 있는 봉투**에다가** 용돈을 넣었어요. . 어디**에다가** 신발을 벗어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 할머니가 어제 저기**에다가** 화분을 두셨습니다.

+ '에다가2)'는 일정한 장소를 뜻하거나 행위를 받는 대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첨가'의 '에다가'와는 달리 앞뒤 명사를 바꾸어 쓸 수 없으며, '가방을 책상 위에다가 놓다/책상 위에다가 가방을 놓다'처럼 두 성분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 '에다가'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와 강조의 보조사 '다가'가 결합된 조사로, 하여 만들어진 복합 조사로, '에'로 대체가 가능하며 또는 '에다'로 줄여 쓸 수 있다.
+ '거기, 여기, 저기, 어디'처럼 부사로 사용되는 명사 뒤에서는 '거기다가, 여기다가, 저기다가, 어디다가'처럼 '에'를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다.

[도입]

(1)
교사: (책상에 펜을 놓으며) 선생님이 펜을 어디에 두었어요?
학생: 책상 위에 두었어요.

교사: 선생님이 책상 위**에다가** 펜을 두었어요.

(2)
교사: (봉투를 보여주며) 봉투에 이름을 쓰고 싶어요.
어디에 쓸까요?
학생: 왼쪽에 쓰세요.
교사: 좋아요. 봉투 왼쪽에 이름을 써요.
선생님이 봉투 왼쪽**에다가** 이름을 써요.

+ 장소를 나타내는 '에다가2)'를 도입할 때 (1)과 같이 '책상 위에 물건을 두는' 등의 행동을 학생들에게 보여 준다. '에다가2)'를 도입한 후 '에다가' 대신 '에다, 에'가 사용될 수 있음을 예문으로 보여 준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에다가'를 쓴다.

예) 교실 + 에다가 → 교실에다가
부산 + 에다가 → 부산에다가
학교 + 에다가 → 학교에다가
제주도 + 에다가 → 제주도에다가
식당 + 에다가 → 식당에다가
옆 + 에다가 → 옆에다가
냉장고 + 에다가 → 냉장고에다가
아래 + 에다가 → 아래에다가

①	받침 o	+ 에다가	교실에다가, 식당에다가, 부산에다가, 옆에다가
	받침 x	+ 에다가	학교에다가, 냉장고에다가, 제주도에다가, 아래에다가

② 장소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 '거기, 여기, 저기'와 의문대명사 '어디'에 붙여 사용할 때 '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예) 거기다가(거기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쓰세요.
저는 항상 돈을 여기다가(여기에다가) 넣어 둬요.
어머니가 저기다가(저기에다가) 꽃을 꽂아 주셨어요.
수지 씨가 어디다가(어디에다가) 선물을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확장]

① '에다가' 대신 준말인 '에다'와 조사 '에'를 사용할 수 있다. '에다가, 에다'는 구어에서 주로 사용한다.

예) 민준 씨가 주차장**에다가** 차를 두고 왔어요.
= 민준 씨가 주차장에다 차를 두고 왔어요.
= 민준 씨가 주차장에 차를 두고 왔어요.
히로 씨가 창문 옆**에다가** 풍선을 달았어요.
= 히로 씨가 창문 옆에다 풍선을 달았어요.
= 히로 씨가 창문 옆에 풍선을 달았어요.

[유사 문법]

① '에다가', '에'

에다가	에
. 일정한 장소를 나타내거나 어떤 행위를 받는 위치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 사람이나 사물이 위치하는 곳을 나타내지 않는다. 예) 영수 씨가 운동장**에다가** 앉아 있다. (x) 선생님이 교실 안**에다가** 계신다. (x)	. 사람이나 사물이 위치하는 곳을 나타낸다. 예) 영수 씨가 운동장**에** 앉아 있다. (o) 선생님이 교실 안**에** 계신다.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중국어에서는 조사 '에다가'에 대응하는 표현이 따로 없이 어휘들이 어순에 따라 배열되어 문장을 형성하게 된다. 일부 경우에 '上(위)', '里(안)' 등 방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에다가'에 대응하여 쓰여 위치를 나타낸다.

예) 시험지 위**에다가** 이름을 쓰십시오. - 在试卷上写**上**姓名.
책을 책상 위**에다가** 놓았어요. - 把书放在桌子**上**了.
책을 가방**에다가** 넣으세요. - 巴蜀放进包**里**吧.
휴대전화를 집**에다가** 두고 왔다. - 把手机落在家**里**了.

② 용법과 오류

- '에다가'와 '에' 용법의 유사성으로 인해 이 두 문법 항목을 혼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즉 '에'로 실현되어야 할 문장에 '에다가'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의자에다가 앉으세요. (x)
책상과 의자가 교실에다가 있어요. (x)

3.1.16. ‘에서’

에서[조사] 1)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나 2)행위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조사.

에서1): (명사에 붙어)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임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가: 앤디 씨는 어디**에서** 공부해요? 나: 저는 보통 학교**에서** 공부해요. 가: 이번 올림픽은 일본**에서** 합니까? 나: 네, 이번 올림픽은 일본**에서** 합니다. 가: 내일 도서관**에서** 만날까요? 나: 네, 내일 7시에 도서관**에서** 만납시다. 가: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나: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 수지 씨는 이 물건을 어디**에서** 사 왔습니까? 나: 저는 이 물건을 시장**에서** 사 왔습니다.
문장예문	· 저는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살아요. . 앤디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어요. · 수지는 기숙사**에서** 숙제를 해요. · 마이클은 방**에서** 책을 읽어요. · 미도리는 극장**에서** 영화를 봤어요. · 언니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요. · 엄마가 부엌**에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 왕밍 씨는 어느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요? · 우리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 ‘에서1)’은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명사 뒤에 ‘에서’가 붙은 단어들 ‘도서관에서, 한국에서, 백화점에서, 기숙사에서, 방에서’ 등은 문장 안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조사 ‘에서’는 장소를 나타낸다는 공통점 때문에 조사 ‘에’와 혼동을 하는 학습자들이 있다. 따라서 그 차이와 쓰임을 확실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도입]

(1)
교사: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림을 보여 주며) 학생들이 어디에 있어요?
학생: 학생들이 교실에 있어요.
교사: 학생들이 무엇을 해요?
학생: 학생들이 공부해요.
교사: 네, 학생들이 교실에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해요.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해요.

(2)
교사: (백화점에서 옷을 사는 그림을 보여 주며) 수지 씨가 어디에 있어요?
학생: 수지 씨가 백화점에 있어요.
교사: 수지 씨가 무엇을 해요?
학생: 옷을 사요.
교사: 네, 수지 씨가 백화점에 있어요. 수지 씨가 옷을 사요. 수지 씨가 백화점**에서** 옷을 사요.

+ '에서1)'을 도입할 때 (1)처럼 공부를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학교임을 강조하여 학생들에게 '에서'를 활용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때 '공부하다' 외에 '숙제하다, 책을 읽다, 이야기하다' 등의 동사도 활용할 수 있다. (2)는 옷을 사고 있는 장소가 백화점임을 나타낸다. 이때 백화점 외에 '시장, 편의점, 가게' 등의 다른 장소를 활용하여 무엇을 사는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 조사 '에서'를 사용한다는 점을 인지시킨다.
+ 보통 '에'를 먼저 배우고 '에서'를 배우므로 도입에서처럼 '에'와 '에서'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하면 좋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에서'를 쓴다.

예) 서점 + 에서 → 서점에서　　교실 + 에서 → 교실에서
도서관 + 에서 → 도서관에서　　가게 + 에서 → 가게에서
학교 + 에서 → 학교에서　　기숙사 + 에서 → 기숙사에서

①	받침 o	+ 에서	서점에서, 교실에서, 도서관에서
	받침 x	+ 에서	가게에서,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확장]

① '에서'는 '서'로 줄여 쓸 수 있다.

예) 저는 보통 도서관**서** 숙제해요.
내일 다섯 시에 학교**서** 출발할 겁니다.
앤디는 식당**서** 자주 식사해요.
여기**서** 버스를 타면 명동에 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 이때 '에서'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집에서 공부한다.'를 '나는 집서 공부한다.'로, '철수는 회사에서 일한다.'를 '철수는 회사서 일한다.'로 줄일 수 없다.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용법이 아님을 알려 준다.

② 행위의 근거나 이유임을 나타낸다.

예)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에요.
모든 병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행복은 행복하겠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③ 어떤 사실이나 상태의 배경이나 범위, 영역임을 나타낸다.

예) 우리 반**에서** 수지가 제일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가수 중**에서** 빅뱅이 제일 좋아요.
저는 과일 중**에서** 딸기가 제일 맛있어요.

+ 단체 명사일 경우 '에서', 단체 명사가 아닌 경우 '중에서'를 사용한다. '가수, 과일'은 단체 명사가 아니므로, '중'이 결합된 후 '에서'가 사용된다.

④ 비교의 기준점을 나타낸다.

예) 수지는 표준 체중**에서** 미달이에요.
지금 키**에서** 5센티만 더 크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건강이 더 나빠지면 안 됩니다.
철수는 자기 기준**에서** 성적이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 이때의 '에서'는 비교의 기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보다' 또는 '에서보다'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다만 '에서'가 '보다'에 비해 '기준점'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조된다.

⑤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낸다.

예) 오늘 우리 학교**에서** 축제를 해요.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 휴대 전화를 만들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이 대회를 후원했습니다.

+ 이때 '에서'는 부사격 조사가 아닌 '주격 조사'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학교 문법에서는 단체 명사를 나타내는 '에서'를 주격 조사로 보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 유명합니다. (x)'의 예에서 보듯 단체 뒤에 사용되는 주격 조사 '에서'는 서술어가 상태성을 지닌 경우 사용될 수 없다. 이때는 주격 조사 '이'를 써야 한다.

[유사 문법]

① '에서1)', '에1)'

<table>
<tr><th>에서1)</th><th>에1)</th></tr>
<tr><td colspan="2">.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사용한다.
예) 수지가 부산에서 산다.
수지가 부산에 산다.</td></tr>
<tr><td>. 어떤 행위나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곳임을 나타낸다.
예) 앤디가 한국에서 있다. (x)
냉장고에서 우유가 없다. (x)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o)
철수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o)</td><td>. 사람이나 물건이 존재하거나 위치하는 곳임을 나타낸다.
예) 앤디가 한국에 있다. (o)
냉장고에 우유가 없다. (o)
학생들이 운동장에 축구를 한다. (x)
철수가 식당에 밥을 먹는다. (x)</td></tr>
<tr><td>. 일반적인 행위나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내므로 여러 동사가 올 수 있다.
예) 흐엉이 친구를 교실에서 만나요. (o)
영수가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o)</td><td>. 주로 위치나 존재를 나타내는 '있다, 없다, 살다, 남다' 등과 쓰인다.
예) 수지가 은행에 있어요. (o)
앤디가 한국에 없어요. (o)
흐엉이 서울에 살아요. (o)
영수가 교실에 남아요. (o)</td></tr>
</table>

+ '에1)'과 '에서1)'은 모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사용하는데, '에'는 존재나 위치를 나타내고 '에서'는 행위나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점이 다르다. '살다, 모이다' 등의 동사는 명사 뒤에 '에, 에서'가 모두 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수지가 부산에 살아요.'는 부산에 거주하거나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수지가 부산에서 살아요.'는 사는 행위, 즉 생활을 부산에서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在', '自'

예) 학생들이 교실**에서** 공부해요. - 学生**在**教室学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립니다. - **在**图书馆借书.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납시다. - **在**学校正门见吧.
우리는 극장**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 我们**在**电影院看电影了.

② 용법과 오류

-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서'와 존재의 장소나 목적지를 나타내는 조사 '에'를 혼동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우리는 식당에 밥을 먹습니다. (x)
마트에 과일을 삽니다. (x)
주말에는 방에서 있습니다. (x)
책을 사러 서점에서 갑니다. (x)

에서2): (명사에 붙어) 그 대상이 어떤 행위나 상태의 출발점이나 시작점임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가: 서울**에서** 몇 시에 떠나요? 나: 한 시에 떠나요. 가: 앤디 씨, 어디**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가: 마이클 씨는 내일 서울**에서** 출발해요? 나: 아니요, 저는 내일 인천**에서** 출발해요. 가: 시험에서 1등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나: 시험에서 1등을 하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가: 서울역**에서** 명동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나: 지하철로 10분 정도 걸립니다.
문장예문	· 왕밍은 중국 북경**에서** 왔습니다. · 출입국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 고향**에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 학교**에서** 가면 얼마나 걸려요? · 마이클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였다. ·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 이 물건은 외국**에서** 전해졌어요. · 사장님은 돈을 회사**에서** 받았어요. ·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려요? · 집**에서** 기숙사까지 걸어서 갑니다.

+ '에서2)'는 구체적인 장소, 추상적인 대상에 붙어 그 상황이 시작된 출발점이나 근원, 출처임을 나타내는데, 더 나아가 각각의 행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 '에서'는 '로부터/으로부터'로 바꿔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왕밍은 중국 북경에서

왔습니다'는 '왕밍은 중국 북경으로부터 왔습니다.'로, '출입국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는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로 각각 바꿔 쓸 수 있다.

[도입]

(1)
교사: (학교 지도를 보여 주며) 여기가 어디입니까?
학생: 학교입니다.
교사: (식당과 기숙사를 가리키며) 기숙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학생: 10분 걸려요.
교사: 네, 식당**에서** 기숙사까지 10분 걸려요.

(2)
교사: (고향에서 온 전화를 받는 그림을 보여 주며) 앤디가 무엇을 합니까?
학생: 전화를 받아요.
교사: 네, 어디에서 전화가 왔습니까?
학생: 고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사: 네, 고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 '에서2)'는 대상이 어떤 행위나 상태의 출발점이나 시작점임을 나타내므로 도입을 할 때, (1)처럼 출발점과 도착점을 함께 보여 주어 '에서'가 가지는 출발점의 의미를 강조하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형태 정보]
앞의 에서1)을 참고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에서'가 도착점을 나타내는 '까지'와 짝을 이루어 어떤 일이나 사건의 범위가 펼쳐지는 출발점 또는 시작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 '에서'는 '부터', '에서부터'로 바꿔 쓸 수 있다.

예) 그 여자는 머리**에서**(부터/에서부터) 발끝까지 예뻐요.
서울**에서**(부터/에서부터) 베이징까지 비행기로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가게는 7일**에서**(부터/에서부터) 10일까지 문을 닫아요.
사무실은 한 시**에서**(부터/에서부터) 두 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유사 문법]
① '에서', '부터'

에서2)	부터

. '까지'와 함께 사용되어,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시간과 장소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예) 저는 6월**에서** 9월**까지** 미국을 여행할 거예요. 저는 6월**부터** 9월**까지** 미국을 여행할 거예요. 수지는 집**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했습니다. 수지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했습니다.

. 주로 장소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시간의 시작점을 나타낼 때 쓸 수 없다. 예) 수지는 집**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했습니다. (o) 수업이 9시**에서** 시작합니다. (x)	. 주로 시간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예) 수지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했습니다. (o) 수업이 9시**부터** 시작합니다. (o)

② '에서2)', '를'

에서2)	**를**
. 행동이 시작되는 곳을 나타낸다. 예) 우리는 9시에 서울**에서** 떠났다. 우리는 9시에 서울**을** 떠났다.	
. 행위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쓴다. 예) 앤디는 학교**에서** 공부해요. (o) 올림픽은 일본**에서** 해요. (o) 올림픽은 일본**을** 해요. (x)	. 행위의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는 쓰지 않는다. 예) 앤디는 학교**를** 공부해요. (x)

+ '에서2)'가 행동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될 때 서술어가 '떠나다, 출발하다, 내려오다, 나오다' 등이 오면 '에서2)'를 '를'로 교체할 수 있다. 이때 '에서2)'는 '를'보다 출발점, 시작점의 의미가 강하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 '从'

예) 부산**에서** 오후 5시에 출발했습니다. - 下午5点**从**釜山出发的.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 您**从**哪里来?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립니까? - **从**家到学校走路需要多长时间?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왔습니다. - 我来自北京.

② 용법과 오류

- '부터'와 '에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모두 '从'이므로 학습자들이 혼동하여 오류가 나타난다.

예) 오전 9시에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x)

오늘에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x)
저는 서울부터 왔습니다. (x)

3.1.17. ‘에서부터’

에서부터{서부터}[조사]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장소나 시간의 **시작점**임을 나타내는 조사.

에서부터: (명사에 붙어) 어떤 행위나 상태가 시작되는 장소나 시간을 나타낸다. 어느 장소에서 그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언제 그 상황이 시작되었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영수 씨, 어디부터 차를 타고 왔어요? 나: 부산**에서부터** 계속 차를 타고 왔어요. 가: 미도리 씨, 여기서 대구까지 몇 시간 걸려요? 나: 서울**에서부터** 대구까지 기차로 3시간 걸려요. 가: 줄리아 씨, 이 의자들을 어디에 둘까요? 나: 여기**에서부터** 두면 돼요. 가: 앤디 씨, 쉬는 시간이 언제예요? 나: 쉬는 시간은 11시**에서부터** 11시 30분까지예요. 가: 현우 씨, 그 학교가 왜 마음에 듭니까? 나: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모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장예문	. 저는 남산**에서부터** 학교까지 걸어 왔어요. . 선생님과 저는 정류장**에서부터** 만나서 같이 왔어요. . 6월에서부터 8월까지는 여름 방학입니다. . 치앙 씨가 저기**에서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 마이클 씨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 모르겠어요. . 수지 씨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뻐요. . 흐엉 씨는 매일 3시**에서부터** 5시까지 피아노를 배워요. . 어머니께서는 부엌**서부터** 청소하고 계세요. . 지영 씨는 산 정상**에서부터** 여기까지 뛰어서 내려왔습니다. . 저는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 ‘에서부터’는 어떤 행위나 상태가 시작되는 공간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까지’와 같이 쓰여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나타내며, ‘서부터’의 형태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 ‘에서부터’는 출발점 또는 시작점을 나타내는 격조사 ‘에서’와 역시 출발점, 시작점을 나타

내는 보조사 '부터'가 결합된 조사로 그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

[도입]

(1)
교사: (기차 옆면에 '서울→부산'이 쓰여 있는 기차 그림에서 '서울'은 가려 놓은 채로) 이 기차는 어디까지 가요?
학생: 부산까지 가요.
교사: 그럼, 어디에서 출발해요?
학생: 몰라요.
교사: (서울을 가린 부분을 떼어내며) 이 기차는 서울**에서부터** 출발해요.

(2)
교사: 히로 씨, 제주도에 어떻게 가요?
학생: 비행기를 타고 가요.
교사: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 걸려요?
학생: 30분 걸려요.
교사: 제주도까지 비행기로 30분 걸려요.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비행기로 30분 걸려요.

+ '에서부터'를 도입할 때는 (1), (2)와 같이 구체적인 장소 명사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1)에서는 출발을 나타내는 '에서부터'를 '에서'와 함께 도입하였고, (2)에서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같이 말하는 예를 보임으로 '에서부터'가 주로 '까지'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에서부터'를 쓴다.

예) 부산 + 에서부터 → 부산에서부터
남산 + 에서부터 → 남산에서부터
제주도 + 에서부터 → 제주도에서부터
머리 + 에서부터 → 머리에서부터
도서관 + 에서부터 → 도서관에서부터
병원 + 에서부터 → 병원에서부터
학교 + 에서부터 → 학교에서부터
회사 + 에서부터 → 회사에서부터

①	받침 o	+ 에서부터	부산에서부터, 도서관에서부터, 남산에서부터, 병원에서부터
	받침 x	+ 에서부터	제주도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회사에서부터

[확장]

① '에서부터'는 줄여서 '서부터'로 사용된다. '서부터'는 주로 구어에서 사용된다.

예) 철수는 집**에서부터** 뛰어왔다. = 철수는 집**서부터** 뛰어왔다.

수지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다.
= 수지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다.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청소하세요. =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청소하세요.

[유사문법]

① '에서부터', '에서', '부터'

에서부터	에서	부터
. '까지'와 함께 사용되어,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시간과 장소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예) 저는 6월**에서부터** 9월**까지** 미국을 여행할 거예요. 저는 6월**에서** 9월**까지** 미국을 여행할 거예요. 저는 6월**부터** 9월**까지** 미국을 여행할 거예요. 수지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했습니다. 수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했습니다. 수지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했습니다.		
.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예) 수지는 집**에서부터** 걸어왔어요. (o) 수업이 9시**에서부터** 시작한다. (o)	. 주로 장소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시간의 시작점을 나타낼 때 쓸 수 없다. 예) 수지는 집**에서** 걸어왔어요. (o) 수업이 9시**에서** 시작합니다. (x)	. 주로 시간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예) 수지는 집**부터** 걸어왔어요. (??) 수업이 9시**부터** 시작합니다. (o)

+ '에서'가 어떤 행위의 출발점임을 나타낼 때는 뒤에 서술어 '가다, 오다, 들어오다, 들어가다, 다니다' 등 이동 동사가 올 때이다. 예를 들어 '수지는 집에서 달렸다'에서는 '에서'가 출발점이 아니라 장소만을 뜻하며 이때 '에서'에 '부터'가 결합된 '에서부터'를 사용해야만 출발점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从'

예) 북경**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 **从**北京坐火车来的.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기차로 4시간 걸립니다.
- **从**首尔到釜山坐火车大概需要4个小时.

철수는 집**에서부터** 뛰어왔다.
- 哲洙**从**家里跑过来的.

어른**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영화를 좋아한다.
- **从**小孩到大人都喜欢这部电影.

② 용법과 오류

- '에서부터', '에서', '부터'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모두 '从'으로 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혼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학교는 집부터 5분 걸려요. (??)
  9시에서 수업이 시작한다. (??)

3.1.18. ‘으로’

으로[로][조사] 1) 향하는 **목적지**나 **방향**이나 2)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

으로1): (명사에 붙어) 향하는 목적지 또는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가: 오후에 학교**로** 가요? 나: 네, 수업이 있어요. 가: 여행을 어디**로** 갈 거예요? 나: 미국**으로** 갈 거예요. 가: 여기서 뭐하세요? 나: 학교**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 회의가 끝나면 아래층**으로** 내려오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가: 영화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왼쪽**으로** 가세요. 우체국 옆에 있습니다.
문장예문	· 앤디는 프랑스**로** 여행을 간다. · 가족들과 같이 극장**으로** 갈 거예요. · 수업이 끝나고 식당**으로** 오세요. · 내일 아침에 운동장**으로** 와야 해요. · 지하철 5번 출구**로** 나오세요. · 강의실에 가려면 2층**으로** 내려가세요. · 수지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 왕밍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언니는 문 쪽**으로** 가서 나를 불렀어요. · 이 버스는 아파트 안**으로** 지나갑니다.

+ ‘으로1)’은 장소나 방향을 뜻하는 명사에 붙어 그 지점이나 방향을 목적지로 하거나 그곳을 통하여 이동하거나 향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주로 ‘가다’, ‘오다’와 같은 동사에 결합하며 세부적으로는 ‘어떤 지점을 목적지로 함’, ‘어떤 방향을 향함’,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한 방향’ 등을 나타낸다. 마지막 문장예문 ‘이 버스는 아파트 안으로 지나갑니다.’에서 ‘으로’는 어떤 지점을 통하거나 통과한다는 경로의 의미를 나타낸다.

[도입]

(1)
교사: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며) 선생님이 지금 어느 쪽 가요?
학생: 앞 가요.
교사: 네. 선생님이 앞**으로** 가요.
교사: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이며) 선생님이 지금 어느 쪽 가요?
학생: 뒤 가요.
교사: 네. 선생님이 뒤**로** 가요.

(2)
교사: (교실 물건이 적힌 종이를 뽑게 한다. 예: 칠판, 교탁, 문, 창문, 에어컨 등.) 앤디 씨 무엇을 뽑았어요?
학생: 칠판요.
교사: (칠판을 가리키며) 앤디 씨는 칠판**으로** 가요.
교사: 수지 씨 무엇을 뽑았어요?
학생: 의자요.
교사: 수지 씨는 의자**로** 가요.

+ 먼저 도입(1)은 '으로'가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예문이고, (2)는 '으로'가 향하는 목적지를 나타내는 도입 예문이다. 도입(1)을 제시할 때는 '앞으로, 뒤로, 밖으로, 안으로'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형태 정보]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로'를 쓴다.

예) 식당 + 으로 → 식당으로　　왼쪽 + 으로 → 왼쪽으로
도서관 + 으로 → 도서관으로　　집 + 으로 → 집으로
은행 + 으로 → 은행으로　　병원 + 으로 → 병원으로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로'를 쓴다.

예) 컴퓨터 + 로 → 컴퓨터로　　가게 + 로 → 가게로
학교 + 로 → 학교로　　의자 + 로 → 의자로
절 + 로 → 절로　　서울 + 로 → 서울로

①	받침 o	+ 으로	식당으로, 왼쪽으로, 도서관으로, 집으로, 은행으로, 병원으로
②	받침 x	+ 로	컴퓨터로, 가게로, 학교로,

			의자로, 아파트로, 카페로
	ㄹ 받침	+ 로	절로, 서울로

[문장 구성 정보]

① 주로 '가다, 오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등과 함께 쓰인다.

예) 영수가 학교**로** 가다.
카페**로** 와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세요.
5층**으로** 올라가세요.

+ 장소나 방향을 뜻하는 명사에 붙어 '가다, 오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류의 서술어와 함께 쓰이며 이때 '으로'는 무엇을 하러 이동함의 뜻을 나타낸다.

[확장]

① 'N+이 N+으로'의 구성으로 쓰여 어떤 결과로 바뀌거나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예) 수업 시간**이** 오전에서 오후**로** 바뀌었다.
논**이** 학교**로** 변했다.
어린 꼬마**가** 숙녀**로** 성장했다.
아이들의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커졌다.

②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가 됨을 나타낸다.

예) 이 음식은 빵과 채소**로** 만들었어요.
초밥은 밥과 생선회**로** 만듭니다.
이 책상은 재활용품**으로**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콩**으로** 간장을 담그십니다.

③ 자격이나 신분, 명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예) 앤디가 반장**으로** 뽑혔어요.
수지는 학교의 회장**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흐엉은 대학교 야구 선수**로** 5년 동안 있었어요.
한국은 김치**로** 유명합니다.

+ 첫 번째 예문은 앤디에게 반장의 자격이 주어졌음을, 두 번째 예문은 수지가 학교의 회장 자격을 가지고 활동했음을 나타낸다. 세 번째 예문은 흐엉이 대학교 야구 선수의 자격, 신분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며 마지막 예문은 한국이 김치로 유명한 나라라는 명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예) 앤디 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어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눈**으로** 차가 많이 막혀요.
신제품**으로** 우리 회사가 유명해졌어요.

⑤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시간적 범위를 나타낸다.

예)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추워요.
밖이 밤낮**으로** 시끄러워요.
수업 시간이 네 시간**으로** 정해졌으니 일찍 오세요.

[유사 문법]

① '으로', '에' (장소)

으로	**에3)**
. 행위가 향하는 목적지를 나타낸다. 예) 수업이 끝나면 식당**에** 오세요. 수업이 끝나면 식당**으로** 오세요.	
· 도착점을 나타낼 때 쓸 수 없다. 예) 나는 서울**로** 도착했다. (x)	· 도착점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다. 예) 나는 서울**에** 도착했다. (o)
. 목표점이나 방향, 경유지를 나타낼 때 쓸 수 없다. 예) 나는 부산**으로** 떠났다.(목표점) (o) 화장실에 가려면 아래**로** 내려가세요.(방향) (o) 이 길**로** 돌아가면 빠르다.(경유지) (o)	. 목표점이나 방향, 경유지를 나타낼 때 쓸 수 없다. 예) 나는 부산**에** 떠났다.(목표점) (x) 화장실에 가려면 아래**에** 내려가세요.(방향) (x) 이 길**에** 돌아가면 빠르다.(경유지) (x)

+ 목표점이나 방향, 경유지를 나타낼 때는 '으로', 도착점을 가리킬 때는 '에'를 사용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방향을 나타내는 어휘에 결합할 경우에는 중국어 '往'과 대응하지만, 구체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어휘와 결합할 경우에는 대응하는 표현이 없이 목적지가 직접 동사 뒤에 쓰여 문장을 형성한다.

예) 앞**으로** 가면 보일 거예요. - **往**前走就能看见.
첫 번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 在第一个十字路口**往**右拐.
매일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요. - 每天坐公交车去学校.

② 용법과 오류

-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는 '로/으로'가 쓰이지만 학습자들이 유사 문법 '에'로 표현함으

로 오류가 나타난다.

예) 오른쪽에 가시면 됩니다. (x)
저쪽에 가세요. (x)

- 중국어에 대응하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격식적인 구어나 문어에서 '로'를 생략하여 오류가 나타난다.

예) 오른쪽 가십시오. (x)
이 열차는 북경 가는 열차입니다. (x)

으로2): (명사에 붙어) 행위나 도구의 수단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가: 이름을 잘못 썼어요. 나: 지우개**로** 지워요. 가: 한국 사람은 무엇**으로** 식사해요? 나: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식사해요. 가: 버스**로** 갈까요? 나: 길이 막히니까 지하철**로** 갑시다. 가: 시험 볼 때 펜**으로** 쓰세요 나: 연필**로** 쓰면 안 돼요? 가: 이삿짐을 어떻게 옮길까요? 나: 트럭**으로** 옮깁시다.
문장예문	· 흐엉이 종이를 가위**로** 자른다. · 수지는 컴퓨터**로** 영화를 봐요. · 왕밍은 연필**로** 그림을 그려요. · 앤디는 한국어**로** 말할 수 있어요. · 미도리는 이메일**로** 부모님과 연락해요. · 언니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요. · 수영을 할 때는 입**으로** 숨을 쉬어요. · 문을 열쇠**로** 잠갔어요. · 일기를 지우개**로** 다 지웠어요. · 김 선생님은 정장 차림**으로** 수업을 합니다.

+ '으로2)'는 어떤 행위의 도구나 수단, 방법임을 나타낸다. 첫 번째 문장예문은 자르는 행위

의 도구가 가위임을, 두 번째 문장예문은 영화를 보는 데 사용하는 수단이 컴퓨터임을, 마지막 문장예문은 김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정장 차림이라는 것으로 하나의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도입]

(1)
교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학생: 분필입니다.
교사: (칠판에 쓰며) 선생님이 무엇을 합니까?
학생: 씁니다.
교사: 네. 선생님이 분필**로** 씁니다.

(2)
교사: (한국 사람들이 식사하는 그림을 보여 주며) 한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학생: 숟가락, 젓가락 필요해요.
교사: 네.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국을 먹어요. 젓가락**으로** 반찬을 먹어요.

+ 도입(1)은 교사가 직접 분필로 쓰는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분필이 '쓰는 행위의 도구'가 되는 것임을 자연스럽게 인지시켜 준다. 도입(2)는 한국 사람들이 식사하는 그림을 보여 주며 그때 사용되는 도구로 숟가락, 젓가락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킨다.

[형태 정보]
앞의 '으로1)'을 참고한다.
+ 도구가 되는 명사에 결합됨에 유의한다.

[유사 문법]
① '으로', '에' (도구)

으로	에
. 도구나 수단, 방법을 나타낸다. 예) 생선을 불**에** 익혀 먹었다. 생선을 불**로** 익혀 먹었다.	
. 도구로 의도적으로 행동하였음을 나타낸다. 예) 나는 잘못해서 종이**로** 손을 베었다. (??) 수지는 돌**로** 걸려 넘어졌다. (x) 흐엉은 안경**으로** 눈을 찔렸다. (x)	. 도구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예) 나는 잘못해서 종이**에** 손을 베었다. (o) 수지는 돌**에** 걸려 넘어졌다. (o) 흐엉은 안경**에** 눈을 찔렸다. (o)

종이를 칼로 잘랐다. (o)	종이를 칼**에** 잘랐다. (x)
철수는 열쇠**로** 문을 열었다. (o)	철수는 열쇠**에** 문을 열었다. (x)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用', '通过'

교통 수단 등을 나타낼 경우에는 중국어 대응 표현이 따로 없다.

예) 볼펜**으로** 글을 씁니다. - **用**圆珠笔鞋子.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 这个桌子是**用**木头做的.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 可以**用**韩国语进行对话吗?
이메일**로** 부모님과 연락합니다. - **通过**邮件和父母联系.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는 '로'가 결합되지만 '으로'를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연필으로 글을 씁니다. (x)
쌀으로 밥을 만듭니다. (x)

3.1.19. ‘은1’

은1[는1][조사] 문장에서 **주제**임을 나타내거나 **대조** 및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은1: (명사나 부사어, 일부 연결어미 또는 합성동사의 선행 요소에 붙어) 주제임을 나타내거나, 둘 이상을 대조하여 각각을 말할 때, 행위나 상황 자체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어제 집에 누가 왔어요? 나: 수지가 왔어요. 가: 수지가 누구예요? 나: 수지**는** 같은 학교 친구예요. 가: 동생이 대학생이에요? 나: 네, 제 동생**은** 한국대학교에 다녀요. 가: 미도리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나: 저**는** 일본 사람이에요. 가: 운동 좋아해요? 나: 아니요. 가: 그럼 음악**은** 좋아해요? 나: 네, 운동**은** 좋아하지 않지만 음악**은** 좋아해요. 가: 지금 바빠서 식사할 수 없어요. 나: 바빠도 식사**는** 하세요.
문장예문	· 오늘**은** 집에서 공부해요. ·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 마이클**은** 학생입니다. · 제주도**는** 아주 아름다워요. ·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주부입니다. ·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봄에**는** 꽃이 피어요. · 흐엉이 학교를 지나**는** 갔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 아무리 피곤해도 운동**은** 해요. · 영희야, 멀리**는** 가지 마라. · 수지가 요리를 하고**는** 앤디를 불렀습니다.

+ ‘은1’은 주제를 나타내거나 대조 및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주로 주어 자리에

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주격 조사 '은'과 헷갈려 하는 학생들이 많다. 첫 번째 담화예문에서 보면 '이'는 새로운 화제(수지)를 등장시키며, '는'은 이미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는 정보로 대화의 주제(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세 번째 예문에서 '미도리는'이 첫 대화문에서 사용된 것은 이미 화자와 청자가 '미도리'에 대해 알고 이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예문은 대조의 '은'의 사용을 보여 주며, 다섯 번째 예문의 '바빠도 식사는 하세요.'는 행위나 상황 자체를 강조하는 '은'의 강조 용법을 예를 든 것이다.

+ 문장예문 '흐엉이 학교를 지나는 갔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멀리는 가지 마라.'에서 '은'은 합성동사의 선행 요소, 연결어미, 부사 뒤에 붙어 사용되고 있는데 대조와 강조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도입]

(1)
교사: (이름, 직업, 취미가 써 있는 송혜교의 사진을 보여 주며)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학생: 송혜교예요.
교사: 직업이 뭐예요?
학생: 영화배우예요.
교사: 취미가 뭐예요?
학생: 독서예요.
교사: 네, 이 사람**은** 송혜교입니다. 직업**은** 영화배우입니다. 취미**는** 독서입니다.

(2)
교사: (형은 책을 읽고 동생은 전화하는 그림을 보여 주며) 형 뭐 해요?
학생: 책을 읽어요.
교사: 동생 뭐 해요?
학생: 전화해요.
교사: 네, 형**은** 책을 읽어요. 동생**은** 전화해요.

+ 먼저 도입(1)은 '은/는'이 화제, 즉 무엇을 설명하는 대상에 쓰임을 알게 하기 위한 도입 예문이다. 도입(2)는 '은/는'이 둘 이상을 대조하여 말할 때 쓴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도입 예문이다. 서로 상반되는 그림을 보여 줌으로써 대조의 기능은 비교적 쉽게 익힐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을 쓴다.

예) 학생 + 은 → 학생은　　서울 + 은 → 서울은
　　선생님 + 은 → 선생님은　　한국 + 은 → 한국은

책 + 은 → 책은　　직업 + 은 → 직업은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는'을 쓴다.

예) 저 + 는 → 저는　　제주도 + 는 → 제주도는
어머니 + 는 → 어머니는　　프랑스 + 는→ 프랑스는
식사 + 는→ 식사는　　취미 + 는→ 취미는

①	받침 o	+ 은	학생은, 서울은, 선생님은, 한국은, 책은, 직업은
②	받침 x	+ 는	저는, 제주도는, 어머니는, 프랑스는, 식사는, 취미는

[제약 정보]

① 주어, 목적어 자리에 '은'을 사용하려면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를 탈락시키고 붙인다.

예) 수지**는** 대학생입니다. (o)　　수지가**는** 대학생입니다. (x)
수지가 음악**은** 좋아합니다. (o)　　수지가 음악을**은** 좋아합니다. (x)

[확장]

① '에서, 에, 보다' 등의 조사 뒤에 붙어서 쓸 수 있다.

예) 교실에서**는**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학교에**는** 어떻게 가요?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큽니다.

② 말할 때 '는'은 받침이 없는 명사와 결합하여 'ㄴ'으로 줄여 쓸 수 있다.

예) **전** 대학생입니다.
어젠 눈이 왔어요.
나는 제주도에 가요. **제주돈** 아름다워요.
영희는 음식을 **만들어선** 동생에게 주었어요.

③ 그 명사에 관한 사실이나 진리를 말할 때 쓴다.

예) 지구**는** 둥글다.
하와이**는** 따뜻하다.
일 더하기 이**는** 삼이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③ '가기는 간다'와 같이 반복되는 두 말을 잇는 곳에 쓰여 앞의 사실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조건이 뒤따름을 나타낸다.

예) 가기**는** 가지만 곧 돌아올게요.
사기**는**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김 사장이 큰 인물**은** 인물이야.
그 아이가 물건**은** 물건입니다.

[유사 문법]

① '은1', '이'

은1	이
. 주로 문장의 주어 위치에 온다. 예) 영희**는** 반장입니다. (o) 영희**가** 반장입니다. (o)	
. 주어 자리뿐 아니라 목적어, 부사어 자리에도 온다. 예) 나**는** 빵**은** 먹는다. 영희**는** 오늘 학교**는** 안 간다.	. 주어 자리에만 온다. 예) 빵**이** 맛있다. 영희**가** 오늘 학교에 안 간다.
. 대조(중립적 배제)의 기능이 있다. 예) 철수**는** 그 사실을 알고 영희**는** 그 사실을 모른다.	. 대조(중립적 배제)의 기능이 없다. 예) 철수**가** 그 사실을 알고 영희**가** 그 사실을 모른다.
. 앞에서 말한 것을 다음 문장에서 다시 말하여 문장의 주제를 나타낼 때 쓴다. 예) 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 제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o)	. 새로운 화제를 도입할 때 쓴다. 예) 가: 마이클은 학생입니다. 나: 마이클**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o)
. 정보의 초점이 서술절에 있을 때 쓴다. 예) 저**는** 김진수입니다. (o) (저 사람은 박아영이고 저는 김진수입니다.)	. 정보의 초점이 체언에 있을 때 쓴다. 예) 제**가** 김진수입니다. (o) (저 사람이 김진수가 아니라, 제가 김진수입니다.)
. 내포절에는 '은/는'이 사용되지 않는다. 예) 그 과자는 {철수는 먹던} 것이다. (x) 나는 {수지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 (x)	. 내포절에 사용될 수 있다. 예) 그 과자는 {철수**가** 먹던} 것이다. (o) 나는 {수지**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 (o)
. 보조사이므로 격조사와의 결합이 비교적 자유롭다. 예) 교실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요. (o) 철수에게**는** 국어사전이 많이 있다. (o)	. 격조사이므로 다른 격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교실에서**가** 조용히 해야 해요. (x) 철수에게**가** 국어사전이 많이 있다. (o)
. 다른 부사, 어미와 결합한다. 예) 조금**은** 알겠습니다. (o) 먹고**는** 싶지만 먹지 않아요. (o)	. 다른 부사, 어미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조금**이** 알겠습니다. (x) 먹고**가** 싶지만 먹지 않아요. (x)

+ '이/가'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예문을 이용하여 문장 전체로 인지할 수 있

도록 돕는다. 특히 '은/는'은 자기소개를 할 때, 사물의 명칭을 지칭할 때, 주제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되므로 이러한 예문을 사용하여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주격 조사 '이'와 보조사 '은'을 헷갈리는 것은 보조사 '은'이 주어 자리에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은 주어 자리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빵은 먹는다'처럼 목적어 자리에도 오고 '교실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요.'처럼 부사어 자리에 오며 부사격 조사와의 결합도 자유롭다.
+ '은'은 대조(중립적 배제), 주제, 구정보임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이'는 대조의 기능이나 주제의 기능은 없고 신정보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 새로운 화제를 도입할 때 '이'를 사용하는 것이 신정보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 내포절에는 '은/는'이 사용되지 않는다. 내포절의 주어는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포절 안에서 '은/는'이 대조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은/는'을 사용한다.

예) 내 반에는 {국어**는** 좋아하지만 수학**은**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다.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나**는** 학생이다. - 我是学生.
철수**는** 주말에 친구를 만난다. - 哲洙周末见朋友.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요. - 今天想在家里休息.
위험할 수 있으니까 멀리**는** 가지 마. - 会有危险, 不要去太远.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는 대응하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어에서도 조사를 생략하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영희 나의 고등학교 친구이다. (x)
우리 학교 아주 아름답습니다. (x)

- 주격조사 '이/가'와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해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자기소개)
제가 학생입니다. (x)
제가 한국어를 좋아합니다. (x)

비는 올 때 밖에 나가지 마세요. (x)
오늘 날씨는 참 좋네요. (x)

철수가 키는 커요. (x) ('철수는 키가 커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 중국어에서는 대조, 대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에 의해 대조,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접속사가 쓰이지 않고 문장의 내용에 따라 대조, 강조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조사 '는'이 충분히 대조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도 접속사만 사용하고 조사 '는'을

사용하지 않거나 접속사와 조사 '는'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사과가 있어요. 그러나 배가 없어요. (?)
동생이 작아요. 형이 커요. (?)

3.1.20. ‘을1’

을1[를][조사] 어떤 행위가 미친 직접적인 **대상**이나 행위의 목적지가 되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을1: (명사에 붙어) 어떤 행위가 미친 직접적인 대상이나 행위의 목적지가 되는 장소를 나타낸다. 문장의 목적어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영희 씨가 무엇**을** 마셔요? 나: 영희 씨가 콜라**를** 마셔요. 가: 우리 무엇**을** 할까요? 나: 우리 같이 텔레비전**을** 봅시다. 가: 동생이 뭐 하고 있어요? 나: 동생이 한국 노래**를** 듣고 있어요. 가: 어느 학교**를** 다닙니까? 나: 네 한국대학교**를** 다닙니다. 가: 이번 주말에 뭐 해요? 나: 명동**을** 갈 거예요.
문장예문	· 친구가 공부**를** 해요. · 저는 책**을** 읽습니다. · 어머니가 요리**를** 하세요. · 미도리가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 마이클이 방에서 음악**을** 들어요. · 흐엉은 교회**를** 다녀요. · 저는 다음 주에 프랑스**를** 갈 거예요. · 저는 친구와 서울**을** 떠날 거예요. · 길**을** 오래 걸어서 피곤해요. · 그 사람은 밤에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 ‘을1’은 어떤 행위가 미친 대상 및 행위의 목적지가 되는 장소를 나타내는 목적격 조사이다. 담화예문에서 ‘콜라, 텔레비전, 노래’는 각각 마시는 대상, 보는 대상, 듣는 대상으로 이때 서술어는 타동사가 사용된다. 언어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타동사를 사용하여 충분한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 ‘대학교를 다니다. 명동을 가다’의 ‘을’은 행위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조사로 ‘에’로 대치가

가능하다. 이 '을'을 학자에 따라서는 목적격 조사가 아니라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보기도 하는데, 이때 서술어는 '가다, 오다, 다니다'와 같은 이동 동사가 온다.

+ 말을 할 때 주격 조사와 마찬가지로 목적격 조사도 자주 생략된다. 그러나 글에서 목적격 조사를 생략하면 어색한 경우가 많다. 간혹 초급 교실에서 목적격 조사를 생략하는 교사가 있는데 초급 교실에서는 가능하면 조사를 자주 노출시켜 한국어의 조사 사용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 좋다.

[도입]

(1)
교사: (수지 씨가 책을 사는 그림을 보여 주며) 무엇을 삽니까?
학생: 책 삽니다.
교사: 네, 책 삽니다. 수지 씨가 책**을** 삽니다.
교사: (이번에는 펜을 사는 그림을 보여 주며) 무엇을 삽니까?
학생: 펜 삽니다.
교사: 네, 펜 삽니다. 수지 씨가 펜**을** 삽니다.

(2)
교사: (학교에 가는 그림을 보여 주며) 이 사람이 어디 갑니까?
학생: 학교 갑니다.
교사: 네. 이 사람이 학교**를** 갑니다.
교사: (시장에 가는 그림을 보여 주며) 이 사람이 어디 갑니까?
학생: 시장 갑니다.
교사: 네. 이 사람이 시장**을** 갑니다.

+ 도입(1)은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의미하는 '을'을 도입하는 예문이다. 책과 펜을 사는 그림을 보여 주고 수지가 '사는' 행위가 미친 직접적인 대상이 '책'과 '펜'임을 알게 하고, 이때 조사 '을'이 쓰인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도입(2)는 목적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을'의 도입 예문이다.

[형태 정보]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로 쓴다.

예) 식당 + 을 → 식당을　　컵 + 을 → 컵을
도서관 + 을 → 도서관을　　핸드폰 + 을 → 핸드폰을
은행 + 을 → 은행을　　책 + 을 → 책을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를'로 쓴다.

예) 컴퓨터 + 를 → 컴퓨터를　　전화 + 를 → 전화를
학교 + 를 → 학교를　　의자 + 를 → 의자를
휴지 + 를 → 휴지를　　피자 + 를 → 피자를

①	받침 o	+ 을	식당을, 컵을, 도서관을, 핸드폰을, 은행을, 책을
②	받침 x	+ 를	컴퓨터를, 전화를, 학교를, 의자를, 휴지를, 피자를

[문장 구성 정보]

① '을/를'이 행위의 대상을 나타낼 때는 주로 '사다, 먹다, 보다, 만들다, 쓰다, 부르다' 등과 같은 타동사와 함께 쓰인다.

예) 엄마가 옷**을** 샀어요.
나는 영화**를** 봤습니다.
수지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마이클은 한국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확장]

① 말할 때 '을'은 받침이 없는 명사와 결합하여 'ㄹ'로 줄여 쓸 수 있다.

예) 뭐 + 를 → 뭘　　누구 + 를 → 누굴
저 + 를 → 절　　너 + 를 → 널
피자 + 를 → 피잘　　전화 + 를 → 전활

② '을/를'이 장소를 나타낼 때는 주로 '가다, 걷다, 다니다, 떠나다' 등의 이동 동사와 함께 쓰인다.

예) 왕밍은 학교**를** 갑니다.
미도리는 길**을** 걷습니다.
엄마는 교회**를** 다닙니다.
언니는 부산**을** 떠납니다.

③ 비격식적인 구어에서는 흔히 '을'을 생략한다. 격식적인 구어나 문어에서는 '을'을 잘 생략하지 않는다.

예) 커피∅ 잘 안 마셔요.
휴지∅ 주세요.
수업이 끝나고 누구∅ 만나요?
식사 후에 어디∅ 가요?

+ '을/를'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에 '을/를'을 쓰게 되면 그 대상을 선택하거나 지정한다는 의미가 첨가된다.

예) 커피**를** 안 마십니다.
휴지**를** 주세요.
수업이 끝나고 누구**를** 만나요?
식사 후에 어디**를** 가요?

④ 수 표현에 붙어 어떤 행위의 시간이나 거리, 그 행위 대상의 수량을 나타낸다.

예) 수지는 두 시간**을** 쇼핑했다.
마이클은 한국에서 이 년**을** 살았어요.
철수는 매일 2킬로미터**를** 걷습니다.
앤디가 물 세 잔**을** 마셨습니다.

⑤ '~를 ~로'의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위의 기준이 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예) 왕밍은 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공부해요.
일곱 살 어린이**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면접을 끝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을 시작합니다.

[유사 문법]

① '을1', '에3)'

을1	**에3)**
. 행동의 목표가 되는 장소를 나타낸다. 예) 흐엉이 학교**에** 갑니다. 흐엉이 학교**를** 갑니다.	
. 명사가 목적이 되는 행위일 때 쓸 수 있다. 예) 철수가 목욕/구경/등산/여행/소풍/낚시/일**을** 갔다. (o)	. 명사가 목적이 되는 행위일 때 쓸 수 없다. 예) 철수가 목욕/구경/등산/여행/소풍/낚시/일**에** 갔다. (x)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 我喜欢春天.
동생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 弟弟在房间看书.
주말에 보통 무엇**을** 합니까? - 周末一般做什么?
영화관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 在电影院见到朋友了.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서는 목적어를 나타내는 문법적 표지가 따로 없이 체언이 용언 뒤에 쓰여 목적어를 나타내므로 학습자들이 구어가 아닌 문어에서도 조사 '을/를'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예) 대표팀이 다음 주에 우리 회사 방문할 예정입니다. (x)
내일 체육대회 개최합니다. (x)

3.1.21. ‘의’

의[조사]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여 앞 명사가 뒤 명사를 **수식**하게 하는 조사.

의: (명사에 붙어) 앞말과 뒷말 간에 소유, 소속, 소재, 주체 등의 의미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여 하나의 명사구를 구성하게 하고, 앞의 말이 뒤의 말을 수식하게 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누구 책이에요? 나: 앤디 씨**의** 책이에요. 가: 이 개**의** 주인이 어디 있을까요? 나: 글쎄요. 가: 저는 한국**의** 축구 대표 선수가 되고 싶어요. 나: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가: 꽃밭**의** 나비 좀 봐요. 나: 참 예뻐요. 가: 한국 시인**의** 시를 읽어 보셨어요? 나: 아니요, 아직 못 읽어 봤어요. 가: 누구 부탁으로 왔어요? 나: 수지 씨**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문장예문	· 이 옷은 어머니**의** 옷이에요. · 이 분은 앤디 씨**의** 선생님이세요. · 꽃**의** 향기가 참 좋네요. · 이 지갑**의** 주인을 찾아 주세요. · 우리 학교**의** 한국어 선생님들이 정말 잘 가르치세요. · 한국**의** 영화 감독들이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 서울**의** 아파트는 비싸다. · 겨울**의** 바닷물은 차지 않다. ·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 마이클은 십 년**의** 세월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 왕밍 씨**의** 고향은 중국입니다. · 흐엉 씨**의** 남편은 일본 사람이에요.

+ '의'는 주로 앞말이 뒷말에 대하여 소유, 소속, 소재 관계를 나타내는 관형격 조사이다. '의'는 소유의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앤디 씨의 책, 어머니의 옷'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 개의 주인, 이 지갑의 주인'은 앞말이 소유물인데 소유주에 '임자, 주인'처럼 제한된 소유주만이 사용된다. '한국의 축구 대표 선수, 우리 학교의 한국어 선생님'의 '의'는 소속, '꽃밭의 나비, 서울의 아파트'의 '의'는 소재의 의미로 볼 수 있다.
+ 주체의 의미로 사용되는 '의'는 중간에 서술어가 숨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 시인의 시'는 '한국 시인이 쓴 시', '수지 씨의 부탁'은 '수지가 한 부탁'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의'는 앞 뒤 명사의 의미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 문법적으로는 '의'에 의해 연결된 두 명사는 하나의 명사구를 이루고, 앞말은 뒷말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된다.

[도입]

(1)
교사: (학생의 책을 달라고 해서 들고) 이 책 누구 거예요?
학생: 미도리요.
교사: 네, 이 책은 미도리의 책이에요. (다른 학생의 책을 달라고 해서 또 물어 본다) 이 책 누구 거예요?
학생: 왕밍이요.
교사: 네, 이 책은 왕밍**의** 책이에요. (교사의 책을 들고) 이 책은 누구 거예요?
학생: 선생님**의** 책이에요.

(2)
교사: 앤디 씨는 몇 급 몇 반 학생이에요?
학생: 1급 1반.
교사: 앤디 씨는 1급 1반**의** 학생이에요.
교사: 선생님은 몇 급 몇 반 선생님이에요?
학생: 1급 1반.
교사: 네, 선생님은 1급 1반**의** 선생님이에요.

+ 도입(1)은 앞말이 뒷말에 대하여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고, 도입(2)는 뒷말에 대하여 소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도입(1)에서는 다양한 사물을 활용하여 소유의 의미를 인지시킬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의'를 쓴다.

예) 선생님 + 의 → 선생님의
꽃 + 의 → 꽃의
사과 + 의 → 사과의
동생 + 의 → 동생의
어머니 + 의 → 어머니의
학교 + 의 → 학교의

①	받침 o	+ 의	선생님의, 동생의, 꽃의
	받침 ×	+ 의	어머니의, 사과의, 학교의

+ '의'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알려 준다.

② '나', '저', '너'에 '의'가 붙은 '나의', '저의', '너의'는 줄여서 '내', '제', '네'로도 쓰인다.

예) 저것은 **내** 컴퓨터예요.
앤디는 **제** 친구입니다.
제 고향은 러시아예요.
네 동생 참 귀엽다.

[확장]

① '의'는 '소유주-피소유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전체-부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잘 생략되지 않는다.

예) 철수**의** 연필 = 철수 연필
강아지**의** 집 = 강아지 집
호랑이**의** 발 = 호랑이 발
앤디**의** 누나 = 앤디 누나
춘천은 호반**의** 도시이다.(o) 춘천은 호반 도시이다. (x)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o) 5월은 계절 여왕이다. (x)

② 앞말이 뒷말에 대하여 행위의 대상이나 목표임을 나타낸다. 이때 뒷말은 행위를 뜻하는 명사가 온다.

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두 노력합시다.
외식 가격**의** 상승으로 외식을 자주 하기 어려워졌다.
선생님은 한국어교육**의** 발전에 온 열정을 쏟았다.
물**의** 오염을 막으려면 하수 처리를 잘해야 한다.

③ 앞말이 뒷말의 속성을 나타내거나, 수량을 한정함을 나타낸다.

예) 그것은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 남자는 최고**의** 남자예요.
책상 위에 다섯 자루**의** 연필이 있어요.
두 반**의** 학생들이 서로 다릅니다.

④ 앞말과 뒷말이 비유의 관계임을 나타낸다.

예) 대처 수상은 철**의** 여인으로 불린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한다.
그에게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지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⑤ 일부 조사에 붙어, 그 조사의 의미 특성을 가지고 뒷말을 수식할 때 쓴다.

예) 학교에서**의** 하루는 재미있다.
가족을 위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미국으로**의** 유학이 기대됩니다.

+ 앞말이 뒤에 연결되는 조사의 의미를 가지고 뒷말을 꾸미는 기능을 가짐을 나타낸다. 즉, '학교에서의 하루'와 같이 '학교'가 조사 '에서'와 결합하여 '학교에서'가 되고 이것이 '의'와 결합하여 '하루'를 꾸미는 기능으로 쓰인다.

[유사 문법]

① '의', '에'

의	**에**
. 체언 뒤에 사용하며, '의'는 주로 '에'로 발음된다.	
. 명사에 '의'가 붙어 관형어 구실을 하며,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 예) 기분 좋은 날**의** 데이트 (o) 기분 좋은 날에 데이트 (x)	. 명사에 '에'가 붙어 부사어 구실을 하며, 뒤에 오는 서술어를 수식한다. 예) 기분 좋은 날**에** 데이트를 했다. (o)

+ 원래 '의'와 '에'의 뜻은 다르지만 발음 때문에 그 의미를 헷갈려 하는 학습자들이 많다. 예문을 통해 문법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인지시킨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的'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저것은 저**의** 책가방입니다. - 那个是我**的**书包.
지은 씨**의** 성격이 아주 좋아요. - 知恩**的**性格很好.
이 책**의** 저자는 유명한 교수님이다. - 这本书**的**作者是有名的教授.
저**의** 어머니는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 我妈妈是中学老师.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서 '的'이 생략이 가능한 표현이 한국어에서는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저 아버지는 회사원입니다. (x)
그 아빠도 선생님이니? (x) ('그의 아빠도 선생님이니?'로 표현해야 할 경우)

- '의'는 '에', '에서'와 같은 일부 조사에 붙어 그 조사의 의미 특성을 가지고 뒷말을 수식할 때 쓰이는데,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러한 조사의 결합에 익숙하지 않아 '의'를 생략하는 오

류를 보인다.

예) 친구와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x)
('친구와의 약속'으로 표현해야 할 경우)
북경에서 만남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x)
('북경에서의 만남'으로 표현해야 할 경우)

3.1.22. ‘이’

이[가][조사] 어떤 동작을 하는 **주체** 또는 어떤 상태에 있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

이: (명사에 붙어) 어떤 동작을 하는 주체 또는 어떤 상태에 있는 대상을 나타낸다.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아기**가** 자요? 나: 네, 아기**가** 자요. 가: 누**가** 밥을 먹어요? 나: 마이클**이** 밥을 먹어요. 가: 영수**가** 어디에서 공부합니까? 나: 영수**가** 도서관에서 공부합니다. 가: 동생**이** 작습니까? 나: 네, 동생**이** 작습니다. 가: 철수**가** 학생이에요? 나: 아니요, 회사원이에요.
문장예문	· 왕밍**이** 학교에 갑니다. · 오빠**가** 중국에서 왔어요. · 동생**이** 일기를 써요. · 제**가** 청소를 합니다. · 김 선생님**이** 수업을 하세요. · 미도리**가** 비빔밥을 먹어요. · 연필**이** 많아요. · 꽃**이** 예뻐요. · 날씨**가** 좋습니다. · 컴퓨터**가** 책상에 있어요. · 언니**가** 의사입니다.

+ ‘이’는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이다. 서술어로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가 오며, 서술어가 동사일 때 'N+이'는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고 서술어가 형용사(명사+이다)일 때 ‘N+이’는 상태나 성질의 대상을 나타낸다.
+ 말을 할 때 주격 조사는 자주 생략되나, 글에서는 생략하면 어색한 경우가 많다. 간혹 초

급 교실에서 주격 조사를 생략하는 교사가 있는데 초급 교실에서는 가능하면 조사를 자주 노출시켜 한국어의 조사 사용에 익숙하게 하는 것이 좋다.

[도입]

(1)
교사: (아기가 자는 그림을 보여 주며) 누구예요?
학생: 아기예요.
교사: 아기 뭐 해요?
학생: 자요.
교사: 아기 자요. 아기**가** 자요.

(2)
교사: (학생이 학교에 가는 그림을 보여 주며) 학교 갑니까?
학생: 학교 갑니다.
교사: 누구 학교 갑니까?
학생: 학생 갑니다.
교사: 네, 학생 갑니다. 학생 학교 갑니다. 학생**이** 학교 갑니다.

(3)
교사: (꽃을 가리키며) 무엇입니까?
학생: 꽃입니다.
교사: 예쁩니까?
학생: 네
교사: 네, 꽃**이** 예쁩니다.

+ '이/가'를 도입할 때 (1)처럼 주어인 명사를 먼저 끌어내고 다음에는 서술어를 끌어 낸 후 둘을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다시 주어인 명사에 '이/가'를 붙인 형태를 제시한다. 교실 환경이나 교사와 학생의 물건, 외모 등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도입을 할 수 있다. 도입(2)는 학생이 학교에 가는 행위가 나타난 그림을 보여 주어 '이/가'의 쓰임을 인지할 수 있게 한다. 도입(3)은 '예쁘다'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꽃'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다. 이때 학생들에게 '꽃'과 '예쁘다'의 어휘를 유도하여 두 어휘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형태 정보]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로 쓴다.

예) 식당 + 이 → 식당이　　연필 + 이 → 연필이
도서관 + 이 → 도서관이　　핸드폰 + 이 → 핸드폰이
은행 + 이 → 은행이　　책 + 이 → 책이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가'로 쓴다.

예) 컴퓨터 + 가 → 컴퓨터가　　전화 + 가 → 전화가
학교 + 가 → 학교가　　의자 + 가 → 의자가
한국어 + 가 → 한국어가　　종이 + 가 → 종이가

①	받침 o	+ 이	식당이, 연필이, 도서관이, 핸드폰이, 은행이, 책이
②	받침 x	+ 가	컴퓨터가, 전화가, 학교가, 의자가, 한국어가, 종이가

③ '가'가 붙을 때 형태가 변하는 예가 있다. '누구'와 '가'가 함께 쓰이면 '누가'로 쓰며, '너, 나, 저'와 같이 쓸 때는 '네가, 내가, 제가'로 쓴다.

누구+가	누가	누가 중국 사람이에요?
나+가	내가	내가 학생이에요.
저+가	제가	제가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너+가	네가	네가 영수니?

+ 조사가 없는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은 조사가 환경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면 대개 혼란스러워 한다. 선행 명사의 받침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를 구제적인 예를 통하여 제시한 뒤, 다시 표를 사용하여 문법을 각인시키고 연습을 여러 번 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
+ ③의 형태 정보는 한꺼번에 교수하지 않고 어느 정도 용법에 익숙해진 후 가르치는 것이 좋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의문사(누구, 무엇, 어디, 어느 등)가 주어로 사용된 의문문이나 그에 대한 대답의 주어에는 '이/가'를 쓴다.

예) 가: 누**가**(*누구는) 김 선생님입니까?
나: 저 분**이** 김 선생님입니다.
가: 어느 것**이**(*어느 것은) 제 책입니까?
나: 저것**이** 마이클 씨 책입니다.
가: 수지의 생일선물로 무엇**이**(*은) 좋을까?
나: 스카프**가** 좋을 것 같은데요.
가: 어디**가**(*는) 수학 여행지로 좋을까요
나: 설악산**이** 어떨까요?

+ '이'는 신정보를 나타내므로 의문문에 사용되는 의문사 뒤에는 '은'이 아닌 '이'가 붙는다. 의문사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모르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때 대답도 새로운 정보이므로 조사 '이'가 붙는다.

[제약 정보]

① 받침이 있는 한국 사람 이름 뒤에는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 '이'가 붙어 주격조사 '가'와

함께 쓰인다.

예) 영철**이가** 가요. (o)　　영철**이** 가요. (x)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
수진**이가** 와요. (o)　　수진**이** 와요. (x)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
영진**이가** 가요. (o)　　영수**가** 와요. (o)　　영진**이** 와요. (x)
수영**이가** 와요. (o)　　수지**가** 와요. (o)　　수영**이** 와요. (x)

② 받침이 있는 한국 사람 이름이라도 성과 이름을 같이 말할 때는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 '이'를 붙이지 않는다.

예) 영철**이가** 갑니다. (o)　　김영철**이가** 갑니다. (x)　　김영철**이** 갑니다. (o)
수진**이가** 옵니다. (o)　　이수진**이가** 옵니다. (x)　　이수진**이** 옵니다. (o)
영진**이가** 가요. (o)　　박영진**이가** 가요. (x)　　박영진**이** 가요. (o)
수영**이가** 와요. (o)　　최수영**이가** 와요. (x)　　최수영**이** 와요. (o)
영수가 옵니다. (o)　　김영수가 옵니다. (o)

③ 받침이 있는 외국 사람 이름에는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 '이'를 붙이지 않고 바로 주격조사 '이'를 붙인다.

예) 수잔**이** 가요. (o)　　수잔**이가** 가요. (x)
마이클**이** 와요. (o)　　마이클**이가** 와요. (x)
힐러리 클린턴**이** 좋습니다. (o)

④ 보조사 '는, 도' 등이 붙으면 '이/가'는 탈락한다.

예) 사과**는** 맛있어요. (o)　　사과가는 맛있어요. (x)
수박**은** 시원해요. (o)　　수박이는 시원해요. (x)
영수**도** 옵니다. (o)　　영수가도 옵니다. (x)
수진**이도** 갑니다. (o)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

+ '수진이도 갑니다'의 '이'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어조를 고르는 접미사' '이'이다.

⑤ 보조사 '만, 부터, 까지'와 결합할 때 '이/가'는 이들 조사 뒤에 온다.

예)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o)　　사람이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x)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o)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x)

+ ①~③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한국 사람 이름 중 받침 있는 이름 뒤에는 '이'가 바로 붙어 사용되지 않고 어조를 고르는 '이'가 먼저 붙은 다음 주격 조사 '가'가 붙는 것이 특별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연습을 충분히 한 후 이 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④~⑤는 다른 보조사를 배운 후에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참고로 제시한다.

[확장]

① 비격식적인 구어에서는 흔히 '이'를 생략한다. 격식적인 구어나 문어에서는 '이'를 잘 생

략하지 않는다.

예) 철수∅ 오늘 학교 안 왔어요. / 철수가 오늘 학교에 안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 무슨 일이 있어요?
모자∅ 참 예쁘다. / 모자가 참 예쁩니다.
나∅ 몸이 좀 아파요. / 내가 몸이 좀 아파요.

+ 비격식적 구어에서는 주어인 '나'가 주로 생략되며, '나'가 사용되더라도 '이/가'가 자주 생략된다. '내가 몸이 좀 아파요'처럼 주어인 '나'와 '이/가'가 사용되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강조하는 의미가 덧붙는다.

② ('좋다, 부럽다, 무섭다, 그립다' 등의 형용사와 함께 쓰여) 어떠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이때 문장이 평서문이면 '나', 즉 화자가 주어가 되고, 의문문이면 청자가 주어가 된다.

예) 저는 책**이** 좋아요.
나는 호랑이**가** 무섭습니다.
왕밍 씨는 한국어**가** 어려워요?

+ 서술어가 자동사나 형용사인 경우 '이/가'가 붙은 명사구가 두 번 연달아 올 수 있다. 학교문법에서는 앞에 오는 주어를 전체 문장의 주어로 뒤에 오는 주어를 서술절(내포절의 한 종류)의 주어로 설명한다. 이론 문법에서는 대주어-소주어, 간접 주어-직접 주어로 지칭하기도 하며, 변형 문법에서는 앞의 주어가 기저에서는 주어가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앞의 주어 뒤에는 주격 조사 '이/가'보다 '은/는'이 더 자주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가'가 오면 초점이 앞의 명사구에 온다.

예) 토끼**가** 귀**가** 깁니다.
수지**가** 눈**이** 예쁩니다.
이 회사**가** 월급**이** 많아요.
시장**이** 물건 값**이** 싸요.
이 책**이** 디자인**이** 예쁩니다.

③ '되다, 아니다'의 앞에 쓰여 주어가 된 대상, 주어가 아닌 대상을 가리킨다.

예)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 온 지 삼 년**이** 되었어요.
흐엉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수지는 스무 살**이** 아닙니다.

④ 지적하여 강조할 때 쓴다.

예) 배가 고프지(**가**) 않아.
그 사람이 싫지(**가**) 않았다.
도대체(**가**) 말이 안 돼.
거의(**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생긴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다.
나는 커피**가{를}** 마시고 싶다.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자기는 커서 엄마랑 살겠대요.

+ 예문에서 볼 수 있듯 '-지 않-' 구문, '도대체, 거의, 본래' 같은 부사, '부터' 조사구 뒤에 '이/가'가 사용되면 그 성분이 강조가 된다. '-고 싶-' 구문에서는 '-고' 앞의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일 때 목적격 조사 '을/를'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가'가 오기도 한다. 마지막 예문은 인용되는 말이 주어가 되는 예로 종결어미로는 인용의 뜻을 나타내는 '-더라, -래, -대' 등이 주로 온다.

[유사 문법]

① '이', '은'

<table>
<tr><th>이</th><th>은</th></tr>
<tr><td colspan="2">. 주로 문장의 주어 위치에 온다.
예) 영희가 반장입니다. (o)
영희는 반장입니다. (o)</td></tr>
<tr><td>. 주어 자리에만 온다.
예) 빵이 맛있다.
영희가 오늘 학교에 안 간다.</td><td>. 주어 자리뿐 아니라 목적어, 부사어 자리에도 온다.
예) 나는 빵은 먹는다.
영희는 오늘 학교는 안 간다.</td></tr>
<tr><td>. 대조(중립적 배제)의 기능이 없다.
예) 철수가 그 사실을 알고 영희가 그 사실을 모른다.</td><td>. 대조(중립적 배제)의 기능이 있다.
예) 철수는 그 사실을 알고 영희는 그 사실을 모른다.</td></tr>
<tr><td>. 새로운 화제를 도입할 때 쓴다.
예) 가: 마이클은 학생입니다.
나: 마이클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o)</td><td>. 앞에서 말한 것을 다음 문장에서 다시 말하여 문장의 주제를 나타낼 때 쓴다.
예) 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 제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o)</td></tr>
<tr><td>. 정보의 초점이 체언에 있을 때 쓴다.
예) 제가 김진수입니다. (o)
(저 사람이 김진수가 아니라, 제가 김진수입니다.)</td><td>. 정보의 초점이 서술절에 있을 때 쓴다.
예) 저는 김진수입니다. (o)
(저 사람은 박아영이고 저는 김진수입니다.)</td></tr>
<tr><td>. 내포절에 사용될 수 있다.
예) 그 과자는 {철수가 먹던} 것이다. (o)
나는 {수지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 (o)</td><td>. 내포절에는 '은/는'이 사용되지 않는다.
예) 그 과자는 {철수는 먹던} 것이다. (x)
나는 {수지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 (x)</td></tr>
<tr><td>. 격조사이므로 다른 격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교실에서가 조용히 해야 해요. (x)</td><td>. 보조사이므로 격조사와의 결합이 비교적 자유롭다.
예) 교실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요. (o)</td></tr>
</table>

철수에게**가** 국어사전이 많이 있다. (o)	철수에게**는** 국어사전이 많이 있다. (o)
. 다른 부사, 어미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조금**이** 알겠습니다. (x) 먹고**가** 싶지만 먹지 않아요. (x)	. 다른 부사, 어미와 결합한다. 예) 조금**은** 알겠습니다. (o) 먹고**는** 싶지만 먹지 않아요. (o)

+ 주격 조사 '이'와 보조사 '은'을 헷갈리는 것은 보조사 '은'이 주어 자리에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은 주어 자리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빵은 먹는다'처럼 목적어 자리에도 오고 '교실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요.'처럼 부사어 자리에 오며 부사격 조사와의 결합도 자유롭다.
+ '은'은 대조(중립적 배제), 주제, 구정보임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이'는 대조의 기능이나 주제의 기능은 없고 신정보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 새로운 화제를 도입할 때 '이'를 사용하는 것이 신정보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 내포절에는 '은/는'이 사용되지 않는다. 내포절의 주어는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포절 안에서 '은/는'이 대조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은/는'을 사용한다.

예) 내 반에는 {국어**는** 좋아하지만 수학**은**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다. (o)

② '이/가', '께서'

이/가	**께서**
. 문장의 주어 위치에 온다. 예) 동생**이** 집에 있어요. (o) 할머니**께서** 집에 계세요. (o)	
. 일반적인 사람 명사 뒤에 쓰인다. 예) 동생**이** 집에 있어요. (o) 할머니**가** 집에 있어요. (x)	. 높임을 나타내는 사람 명사가 오는 경우에 쓰인다. 예) 동생**께서** 집에 있어요. (x) 할머니**께서** 집에 계세요. (o)

+ '께서'의 경우 서술어에는 일반적으로 높임의 어미 '-으시-'를 넣거나 높임 어휘로 바꿔 사용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1. 어떠한 상황이나 상태의 주체나 대상임을 나타냄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꽃**이** 아름답습니다. - 花很美.
복숭아**가** 너무 비싸요. - 桃子太贵了.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는 대응하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사를 생략하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철수 교실에서 공부한다. (x)
앞의 건물 도서관이다. (x)

- 문장의 주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은/는' 용법과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과일은 너무 비싸요. (x) (강조의 의미가 전혀 없이 '과일이 비쌈'을 기술할 경우)
오늘 저는 갈게요. (x)
눈은 오면 경치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x)
제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x) (자기소개)

2. 새로운 화제를 도입하여 말할 때 씀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이 건물에 어떤 남자 아이**가** 살고 있었다.
- 这个楼上住着一个小男孩.
옛날에 한 마을에 어떤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 很久很久以前, 一个村庄住着一个樵夫.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는 대응하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사를 생략하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옛날에 한 할아버지 살았다. (x)
어떤 마을에 부자 살고 있었다. (x)

- 문장의 주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은/는' 용법과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옛날에 한 할아버지는 살았다. (x)
어떤 마을에 부자는 살고 있었다. (x)

3. '좋다, 부럽다, 무섭다, 그립다' 등의 형용사와 함께 쓰여 어떠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대상임을 나타냄.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나는 여름**이** 좋아. - 我喜欢夏天.
주말이면 부모님**이** 그립다. - 周末很想念父母.
나는 선생님**이** 무서워. - 我害怕老师.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는 대응하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사를 생략하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나는 친구 그리워요. (x)
나는 할아버지 무서워. (x)

- '좋다, 부럽다, 무섭다, 그립다' 등 느낌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중국어에서는 '喜欢羡慕 , 害

怕 , 想念' 등 타동사와 대응하므로 느끼게 하는 대상이 중국어에서는 목적어가 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이/가'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를/을'을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나는 봄을 좋다. (x)
나는 공부를 잘하는 영희를 부럽다. (x)
나는 아버지를 무섭다. (x)

4. '되다, 아니다'의 앞에 쓰여 주어가 된 대상, 주어가 아닌 대상을 가리킴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그는 커서 의사**가** 되었다. - 他长大成为医生了.
저것은 나의 가방**이** 아닙니다. - 那个不是我的包.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는 대응하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사를 생략하는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그 사람은 철수 아니다. (x)
동생이 커서 경찰 되었다. (x)

- '되다, 아니다'가 중국어에서는 타동사 '成为 , 不是'이므로 주어가 된 대상 또는 주어가 아닌 대상이 중국어에서는 목적어가 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이/가'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를/을'을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나는 은행원을 되고 싶다. (x)
그는 나의 같은 반 친구를 아니다. (x)

3.1.23. ‘이나’

이나[나][조사] 1) **선택**의 뜻을 나타내거나 2) **차선**의 선택을 나타내거나 3) 수량이 **기대보다 크거나 많음**을 나타내는 조사.

이나1): (명사에 붙어) 두 가지 이상을 나열하여 그중에 어떤 것을 선택함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가: 주말에는 보통 무엇을 해요? 나: 농구**나** 야구를 해요. 가: 영수 씨에게 무엇을 선물할까요? 나: 책**이나** 펜을 선물하세요. 가: 방학에 뭐 하고 싶어요? 나: 바다**나** 산에 가고 싶어요. 가: 무엇을 타고 갈까요? 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 가: 언제 극장에 갈 거예요? 나: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갈 거예요.
문장예문	· 피자**나** 스파게티를 먹는다. ·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요. ·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어요. ·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쉬어요. · 연필**이나** 펜으로 쓰세요. · 주스**나** 커피를 주세요. · 도서관**이나** 은행 앞에서 만나요. · 책**이나** 잡지를 읽어요. · 일곱 시**나** 여덟시에 만나요. · 사과**나** 귤을 먹습니다.

+ ‘이나1)’은 둘 이상의 대상을 나열하여 그중에 어떤 것을 선택함을 나타내는 접속 조사이다. 첫 번째 문장예문 ‘피자나 스파게티를 먹는다.’에서 ‘피자나 스파게티’는 ‘피자’와 ‘스파게티’ 중 하나를 먹는다는 의미이다. 만약 둘을 다 먹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려면 ‘피자와 스파게티’처럼 ‘와’로 두 대상을 연결해야 한다.
+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조사 ‘이나’는 부사 ‘또는’과 의미가 같다.

[도입]

(1)
교사: 학교 올 때 지하철 타요? 버스 타요?
학생: 지하철이요. 버스요.
교사: 선생님은 오늘은 지하철 탔어요. 어제는 버스 탔어요. 선생님은 학교에 올 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요.

(2)
교사: 오늘 점심(저녁)에 무엇을 먹어요?
학생: 김치찌개를 먹어요.
학생: 된장찌개를 먹어요.
교사: 점심에 우리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먹어요. 다 먹어요? 아니요 둘 중 하나만 먹어요.

+ 도입(1)은 '지하철'과 '버스'를 학교 오는 방법으로 제시한 다음 교사가 둘 중 아무것이나 하나를 선택하여 학교에 온다는 뜻의 문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나'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도입(2)는 학생들에게 점심에 먹을 음식에 대해 물어본 후 그 대답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나'의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 필요하면 둘 중 하나라는 의미를 부각하여 설명한다.

[형태 정보]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나'를 쓴다.

예) 식당 + 이나 → 식당이나
왼쪽 + 이나 → 왼쪽이나
도서관 + 이나 → 도서관이나
핸드폰 + 이나 → 핸드폰이나
은행 + 이나 → 은행이나
책 + 이나 → 책이나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나'를 쓴다.

예) 컴퓨터 + 나 → 컴퓨터나
전화 + 나 → 전화나
학교 + 나 → 학교나
의자 + 나 → 의자나
어제 + 나 → 어제나
피자 + 나 → 피자나

①	받침 o	+ 이나	식당이나, 왼쪽이나, 도서관이나, 핸드폰이나, 은행이나, 책이나
②	받침 x	+ 나	컴퓨터나, 전화나, 학교나, 의자나, 어제나, 피자나

[확장]

① '~이나(나) ~이나(나)'의 구성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때에는 '~이든 ~이든 구별하지 않고 다 같이'의 뜻을 나타낸다.

예) 김치**나** 고추장**이나** 똑같이 맵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다 필요합니다.
왕밍은 공부**나** 운동**이나** 다 잘해요.
여름에는 산**이나** 바다**나** 모두 사람이 많습니다.

② '~이나 되는 것처럼', '~이나 되는 듯이'의 구성으로 쓰여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행동함을 나타낸다.

예) 왕밍은 이 집이 자신의 집**이나** 되는 것처럼 말한다.
언니는 그 공원이 자기의 것**이나** 되는 듯이 이야기해요.
그는 자기가 주인**이나** 되듯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했어요.
수지는 이 목걸이가 자신의 목걸**이나** 되는 것처럼 사용합니다.

+ 모두 자기의 소유물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동함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빈정거리는 뜻이 드러난다.

③ '무엇', '어느 곳', '아무 것', '무슨 일' 등의 뒤에 붙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음을 나타낸다.

예)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슨 행동**이나** 할 수 있어요.
어느 곳**이나** 다 비슷해요.
아무 책**이나** 빌려 주세요.
마이클은 무엇**이나** 다 잘 먹어요.

+ 이때 '이나'는 '이든'으로 대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어느 정도가 되어야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예) 똑똑한 사람**이나** 그 어려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힘이 센 사람**이나** 힘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나**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⑤ 부사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예) 그 여자는 무척**이나** 예뻐요.
왕밍 씨는 퍽**이나** 친절해요.
가뜩**이나** 몸이 안 좋은데 일을 해서 피곤해요.
마이클은 달리기를 꽤**나** 잘 해요.

+ '무척이나, 퍽이나, 가뜩이나, 꽤나'는 부사 '무척, 퍽, 가뜩, 꽤'를 강조하고 있다.

⑧ '~이나 다름없다/같다/마찬가지이다'의 구성으로 쓰여 비교의 뜻을 나타낸다.

예)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나** 다름없다.
수지는 흐엉의 가족**이나**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합격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옷은 비싼 옷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 이때 '이나'는 비교를 나타내는 '과'로 대치가 가능하다.

[유사 문법]
① '이나1)', '또는', '혹은'

이나	또는	혹은
. 선택의 뜻을 나타낸다.		
.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예) 사과**나** 귤을 먹어요. (o)	. 부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예) 사과 **또는** 귤을 먹어요. (o)	. 부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예) 사과 **혹은** 귤을 먹어요. (o)
.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모두 쓴다. 예) 강의한 내용을 책**이나** 공책에 써요. (o)	. 주로 글을 쓸 때 쓴다. 예) 강의한 내용을 책 **또는** 공책에 씁니다. (o)	. 주로 글을 쓸 때 쓴다. '혹'이 한자어로 '또는'보다 격식 있는 글에 쓴다. 예) 강의한 내용을 책 **혹은** 공책에 씁니다.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或' , '或者'

예) 주말에 보통 농구**나** 야구를 해요. - 周末一般打篮球**或**打棒球.
사과**나** 배를 좀 사 오세요. - 买点苹果**或**梨.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합니다. - 通过电话**或**邮件联系.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갑니다. - 坐公交车**或者**地铁去学校.

이나2): (명사에 붙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괜찮은 정도의 차선임을 나타낸다. 더 좋은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괜찮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식사 시간이 지났어요. 나: 그럼 김밥**이나** 사서 먹어요. 가: 방학한 후에 무엇을 할 거예요?

	나: 시간이 많으니까 여행**이나** 가려고요. 가: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요. 나: 그럼 영화**나** 보러 가요. 가: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 할까요? 나: 점심**이나** 먹으면서 이야기 합시다. 가: 무엇을 드릴까요? 나: 물**이나** 주세요.
문장예문	· 생일 파티는 안 해도 되니까 밥**이나** 먹읍시다. · 시험이 끝났으니까 잠**이나** 잡시다. · 식당에 사람이 많으니까 차**나** 마셔요. · 놀이공원에 줄이 너무 기니까 구경**이나** 할까요? · 심심하니 텔레비전**이나** 봅시다. · 두 사람의 말**이나** 먼저 들어 봅시다. · 밥이 없으니 라면**이나** 먹을까요? · 해외여행은 비싸니까 국내여행**이나** 갑시다. · 전화는 괜찮으니 편지**나** 쓰세요. · 맥주는 비싸니까 소주**나** 마십시다.

+ '이나2)'는 최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차선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첫 번째 문장예문 '밥이나', 두 번째 문장예문 '잠이나'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최소한 할 수 있는 차선의 선택임을 나타낸다.

[도입]

(1)
교사: 수업이 끝나고 식사를 할까요?
학생: 네
교사: 어디에 갈까요?
학생: 학교 앞 식당에 가요.
교사: 학교 앞 식당은 머니까 학생식당**이나** 갑시다.

(2)
교사: 시험 끝나고 뭐 하고 싶어요?
학생: 놀고 싶어요.
학생: 쉬고 싶어요.
교사: 네. 시험 끝나면 놀 수 있어요. 쉴 수 있어요. 그러니

까 지금은 공부**나** 합시다.

+ 도입(1)은 식사를 하자는 말로 시작해서 어디에 가는 것이 좋을지 질문하여 대답을 유도한 후 먼 다른 식당보다 가까운 학생식당에 가자는 말로 연결시켜 '이나'를 노출하고 있다. 도입(2)는 미래의 하고 싶은 일들을 물어봐서 대답을 유도한 후 지금은 그것보단 차선의 다른 것을 하자는 말로 연결시켜 '나'를 제시하고 있다.

[형태 정보]
앞의 '이나1)'을 참고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시간이 많으니까 여행**이나** 가려고요. - 时间很多, 想去旅游.
밖에 비가 오니까 집에서 TV**나** 봅시다. - 外面下雨呢, 在家看电视吧.
해외여행은 비싸니까 국내여행**이나** 갑시다.
- 海外旅游费用太高了, 我们去国内旅游吧.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라면**이나** 먹어요. - 没时间, 我们简单吃点方便面吧.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는 '이나'에 대응하는 표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나'를 써야 하는 상황에 '이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 날씨도 좋고 휴일인데 놀이공원에 갑시다.
('놀이동산에나 갑시다'로 표현하면 더 적합한 상황)
심심하니까 텔레비전을 봅시다.
('텔리비전이나 봅시다'로 표현하면 더 적합한 상황)

이나3): (명사에 붙어) 수나 양이 생각했던 정도를 넘어 크거나 많음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가: 흐엉 씨가 밥을 삼 인분 먹었어요. 나: 삼 인분**이나** 먹었어요? 가: 저는 가방이 삼십 개 있어요. 나: 삼십 개**나** 있어요? 가: 어제 열 두 시간**이나** 잠을 잤어요. 나: 아주 많이 잤군요. 가: 가족이 몇 명이에요?

	나: 저희 가족은 열 명**이나** 돼요. 가: 일주일에 책을 몇 권 읽어요? 나: 저는 일주일에 다섯 권**이나** 읽어요.
문장예문	· 우리 집엔 고양이가 일곱 마리**나** 있다. ·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16km**나** 됩니다. · 어제 커피를 다섯 잔**이나** 마셨습니다. · 콘서트에 사람이 천 명**이나** 왔습니다. · 하루에 영화를 세 편**이나** 봤어요. · 교실에 학생이 오십 명**이나** 있어요. · 이번 시험은 다섯 과목**이나** 봅니다. · 이 핸드폰은 삼 년**이나** 사용했어요. · 이 집에서 십 년**이나** 살았어요. · 연필을 오십 자루**나** 샀습니다.

+ '이나3)'은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수량이 예상되는 정도를 넘었거나 꽤 많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첫 번째 문장예문의 '나'는 수사 '일곱' 뒤에 붙어 고양이의 수가 예상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두 번째 문장예문 역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예상한 거리보다 길다는 것을 뜻한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려요?
학생: 5분이요.
학생: 10분이요.
교사: 선생님은 집에서 학교까지 두 시간**이나** 걸려요. 오래 걸려요.

(2)
교사: (사람 수가 써 있는 단체 사진 두 장을 보여 주며) 여러분 이 사진에 학생이 몇 명 있어요?
학생: 다섯 명 있어요.
교사: 네, 이 사진에 학생이 다섯 명 있어요.
교사: 이 사진에 학생이 몇 명 있어요?
학생: 구십 명? 백 명?
교사: 네, 이 사진에는 학생이 백 명**이나**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 도입(1)에서는 학생들에게 집에서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을 물어 대답을 유도한 후 교사의

걸리는 시간과 비교하여 그 정도가 많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이나'를 인지시킨다. 도입 (2)에서는 다섯 명의 사람이 있는 단체 사진과 백 명의 사람이 있는 단체 사진을 비교해 줌으로써 사람 수를 통해 한 쪽의 수가 꽤 많음을 나타내어 '이나'의 의미를 알려 준다.

[형태 정보]

앞의 '이나1)'을 참고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세 그릇**이나** 먹었다. - 因为太饿了, 吃了三碗米饭.
오늘 특강에 학생이 백 명**이나** 왔다. - 今天讲座, 竟然来了100个学生.
하루에 영화를 다섯 편**이나** 봤다. - 一天竟然看了五篇电影.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2시간**이나** 걸려요. - 从家到学校坐公交需要两个小时.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는 '이나'에 대응하는 표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나'를 써야 하는 상황에 '이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 생각 밖에도 오늘 회의에 학생이 무려 150명 왔다.
('무려 150명이나 왔다'고 표현하면 더 적합한 상황)
오늘 하루 책을 5권 읽었다.
('책을 5권이나 읽었다'로 표현하면 더 적합한 상황)

3.1.24. ‘이다1’

이다1[조사] 대상의 부류나 속성을 지정하여 문장의 **서술어**가 되게 하는 조사.

이다1: (명사에 붙어)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부류나 속성을 지정하는 뜻임을 나타낸다. 명사가 문장의 서술어가 되게 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 이것은 책**입니다**. 가: 마이클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나: 마이클은 미국 사람**이에요**. 가: 이 아이는 누구**야**? 나: 내 딸**이야**. 가: 바나나가 얼마**예요**? 나: 하나에 이천 원**이에요**. 가: 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나: 한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문장예문	· 왕밍은 중국 사람**이다**. · 여기가 한국대학교**다**. · 저쪽이 출구**입니다**. · 이것이 쓰레기통**이에요**. · 앤디는 항상 말썽**이군**. · 수지가 지금 오는 중**이래**. · 환자가 수술 중**이니** 조용히 해 주세요. · 마이클은 훌륭한 학생**이었다**. · 김 선생님은 예전에 의사**였어요**. · 제 이름은 미도리**입니다**.

+ ‘이다’는 명사를 문장의 서술어가 되게 하는 조사로, 학교문법에서는 서술격 조사라고 한다. ‘N1+이 N2+이다’ 구성으로 주로 사용되어 N1의 부류나 속성을 ‘N2+이다’로 나타낸다. ‘이다’는 조사라고는 하지만 다른 조사와 달리 동사나 형용사처럼 활용을 한다. ‘이다’는 형용사처럼 활용하여 ‘*학생인다’가 아니라 ‘학생이다’로 사용하고, ‘이다’의 어간 ‘이-’가 받침이 없기 때문에 ‘*학생이습니다’가 아니라 ‘학생입니다’로 사용한다.

+ '이다'의 활용은 좀 복잡하다. '이다' 뒤에 해체 어미 '어'가 오면 '학생이야'처럼 '이야'로 사용되고 해요체의 어미는 '어요'보다는 '에요'가 더 많이 사용된다. '이다'의 기능을 이해하도록 한 후 '이다'의 활용을 틀리지 않도록 규칙화해서 알려 줄 필요가 있다.

[도입]

(1)
교사: (책을 보여 주며) 무엇**입니까**?
학생: 책
교사: 네, 이것은 책**입니다.**
교사: (연필을 보여 주며) 뭐**예요**?
학생: 연필
교사: 네, 이것은 연필**이에요.**

(2)
교사: 앤디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학생: 미국 사람.
교사: 네, 앤디 씨는 미국 사람**입니다**.
교사: 왕밍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학생: 중국 사람.
교사: 네, 왕밍 씨는 중국 사람**이에요**.

+ '이다'를 도입할 때는 도입(1)과 도입(2)에서 보듯 명사 뒤에 '이다'를 사용하여 의문문을 만들어 제시하고 다시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여 '이다'가 명사 뒤에 붙어 서술어 노릇을 함을 저절로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도입을 제시할 때 가능한 '이다'의 다양한 활용 형태를 보여 주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이다'를 쓴다.

예) 선생님 + 이다 → 선생님이다　　동생 + 이다 → 동생이다
책상 + 이다 → 책상이다　　도서관 + 이다 → 도서관이다
사과 + 이다 → 사과이다　　학교 + 이다 → 학교이다
친구 + 이다 → 친구이다　　나라 + 이다 → 나라이다

+ '이다'는 앞말이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이다'로 쓰지만, 앞말이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이-'가 생략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과이다'의 경우 '사과다'로, '학교이다'의 경우 '학교다'로 '이-'를 생략하여 쓸 수 있다.

①	받침 o	+ 이다	선생님이다, 동생이다, 책상이다, 도서관이다
	받침 ×	+ 이다	사과이다, 학교이다, 친구이다, 나라이다

② '이다' 뒤에 해요체 어미는 주로 '-에요'가 결합한다. '-에요'는 명사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형태가 줄지 않고 받침이 없으면 '이에요'가 '예요'로 줄어 사용된다.

예) 앤디 씨는 미국 사람이에요. (o)
앤디 씨는 미국 사람이어요. (?)
앤디 씨는 미국 사람예요. (x)
우리 언니는 의사이에요. (?)
우리 언니는 의사이어요. (?)
우리 언니는 의사예요. (?)

[제약 정보]

① '이다' 뒤에 선어말어미 '-었-'이 올 때 명사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형태가 줄지 않고 받침이 없으면 '이었-'이 '였-'으로 줄어 사용된다.

예) 앤디 씨는 선생님**이었어요**. (o)
앤디 씨는 선생님**였어요**. (x)
앤디 씨는 선생님**이였어요**. (x)
우리 언니는 의사**이었어요**. (o)
우리 언니는 의사**였어요**. (o)
우리 언니는 의사**이였어요**. (x)

+ '선생님이였어요, 의사이였어요'는 잘못된 표기이다. 소리는 이렇게 나지만 표기는 이렇게 하지 않음에 유의한다.

② '이다' 뒤에 연결어미 '-어서'가 오면 '이어서, 이라서'로 사용되는데 '이라서'를 더 많이 쓴다. 명사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이어서'가 '여서'로 줄 수 있으며 '이라서'의 '이'는 생략하고 '라서'로 사용된다.

예) 앤디 씨는 미국 사람이어서/이라서 영어를 잘해요.
언니는 교사이어서/여서/라서 매일 학교에 가요.

③ '이다' 뒤에 해체 어미 '-어'가 오면 '이야'로 사용된다.

예) 철수는 학생이야. (o) 철수는 학생이어. (x)
우리 언니는 의사야. (o) 우리 언니는 의사이어. (x)
이 아이는 누구야? (o) 이 아이는 누구어? (x)

[확장]

① 일부 명사 및 부사에 붙어, 어떤 상황이나 상태임을 나타낸다.

예) 저는 그 계획에 찬성**입니다**.
그가 장학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다**.
언제 해외여행을 갈지는 아직 미정**이다**.

+ 첫 번째 예문은 '이다'가 '찬성, 걱정, 반대' 등에 붙어 서술어로 사용된 예이다. '찬성이다,

걱정이다, 반대이다'뿐 아니라 '찬성하다, 걱정하다, 반대하다'도 사용되는데 앞의 서술어는 상태성이 강하며 뒤의 서술어는 동작성이 강하다. 두 번째는 '이다'가 '제법', '물론'과 같은 일부 부사에 붙어 서술어로 사용된 예이다. 마지막 예문은 '이다'가 '미달, 미정' 등 일부 명사 붙어 서술어로 사용된 예로 이때는 '*미달하다, *미정하다'로 쓰이지 않는다.

② 'N+적' 명사에 붙어 어떠하다는 속성을 나타낸다.

예) 그의 주장은 매우 과학적**이다**.
그는 무엇을 볼 때 항상 분석적**이에요**.
선생님의 설명은 늘 구체적**입니다**.
내가 한 경험은 간접적**이었어요**.

③ 어미 '-아서'에 붙어 이유나 목적 등을 나타낸다.

예) 언니가 병원에 일찍 간 것은 많이 아파서**이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온 건 내 식사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배가 아픈 건 어젯밤에 많이 먹어서**예요**.
그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이유는 많이 사랑해서**입니다.**

+ 위의 '아파서', '위해서', '먹어서', '사랑해서'는 동사나 형용사에 어미 '-아서'가 붙은 활용형인데 '이다'가 이들 뒤에 붙어 서술어 '아파서이다', '위해서입니다', '먹어서예요', '사랑해서입니다'가 된다. 네 예문 모두 이유를 나타내면서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유사 문법]

①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속성을 지정하며 문장의 서술어로 쓰인다.	
. 품사가 조사이며, 명사에 직접 붙어 쓴다. '명사+이다'를 서술어로 본다. 예) 나는 학생**이다**. (o)	. 품사가 형용사이며, 앞말과 띄어 쓴다. '아니다' 자체가 서술어이다. 예) 나는 학생**아니다**. (x) 나는 학생이 **아니다**. (o)

+ '이다'와 '아니다'는 그 의미가 다르지만 한국어 문장 내에서 영어의 'be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같은 범주에 놓고 이해하기 쉽다. 예문을 통한 문법 설명을 통해 학습자들이 올바로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是'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저것은 저의 책가방**입니다**. - 那个**是**我的书包.
이분은 우리 한국어 선생님**이십니다**. - 这位**是**我们的韩国语老师.

마이클 씨는 유학생**이에요**. - 迈克**是**留学生.
저건 은행나무**다**. - 那个**是**银杏树.

② 용법과 오류

- '걱정', '찬성', '물론', '미정' 등과 같이 어떤 상황이나 상태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이다'가 결합할 경우에는 대응 표현 '是……'가 쓰이지 않고 직접 상황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또는 형용사로 실현되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하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합니다. (x)
뭐가 걱정해요? (x)

- '-적' 명사에 '이다'가 결합할 경우에도 대응 표현 '是……'가 쓰이지 않고 직접 상황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또는 형용사로 실현되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다'를 사용하지 않고'하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그의 주장은 아주 과학적하다. (x)
그는 모든 일에 적극적한다. (x)

3.1.25. '이랑'

이랑[랑][조사] 1) 여러 사물이나 사람을 **연결**하거나 2) 행위를 **함께하는 대상** 등을 나타내는 조사.

이랑1): (명사에 붙어)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뜻을 나타낸다. 앞뒤 명사 모두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교실에 무엇이 있어요? 나: 책상**이랑** 의자가 있어요. 가: 편의점에서 무엇을 샀어요? 나: 빵**이랑** 라면을 샀어요. 가: 앤디 씨는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나: 네, 꽃**이랑** 책을 받았어요. 가: 식당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나: 앤디**랑** 수지를 만났어요. 가: 철수 씨, 방학 때 어디에 갔어요? 나: 대구**랑** 부산**이랑** 갔어요.
문장예문	· 마이클**이랑** 앤디는 제 친구예요. · 저는 수학**이랑** 컴퓨터를 배워요. · 저는 수박**이랑** 바나나를 좋아해요. · 동생은 밥**이랑** 김치를 먹어요. · 오늘**이랑** 내일은 수업이 없어요. · 언니**랑** 오빠가 중국으로 여행을 가요. · 철수**랑** 영희가 학교에 가요. · 언니는 목걸이**랑** 귀걸이를 했어요. · 왕밍은 바지**랑** 가방을 샀어요. · 흐엉 씨는 한국어**랑** 영어를 공부해요.

+ '이랑1)'은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 주로 입말에서 사용된다. '교실에 무엇이 있어요?'의 대답으로 제시된 '책상**이랑** 의자가 있어요.'를 보면 교실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랑1)'로 접속되는 두 명사는 자리를 바꾸어 '의자**랑** 책상이 있어요.'로 사용해도 의미가 같으며, 접속되는 명사는 꼭 둘이 아니라 셋 이상이어도 무방하다. (둘이 가장 많이 사용됨.)

+ '이랑1)'로 연결된 두 명사의 격을 나타내는 조사는 '[책상이랑 의자]가, [빵이랑 라면]을'에서 보듯 맨 뒤에 오는 명사 뒤에 붙는다.

[도입]

(1)
교사: 교실에 무엇이 있어요?
학생: 책상이 있어요.
교사: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학생: 컴퓨터가 있어요.
교사: 네, 교실에 책상**이랑** 컴퓨터가 있어요.
학생: 책도 있어요.
교사: 네, 교실에 책상**이랑** 컴퓨터**랑** 책이 있어요.

(2)
교사: 백화점에서 무엇을 사요?
학생: 옷, 구두, 가방...
교사: 네, 백화점에서 옷**이랑** 구두**랑** 가방**이랑** 사요.

(3)
교사: 한국 음식 무엇을 좋아해요?
학생: 불고기, 삼겹살, 김치, 된장 찌개...
교사: 네, 앤디 씨는 불고기**랑** 김치를 좋아해요.

+ '이랑1)'을 도입할 때 (1)처럼 연결하고자 하는 대상을 학습자로부터 유도한 후 '이랑1)'을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실이나 상점 등 특정 공간에 있는 사물을 활용하거나 쇼핑, 좋아하는 음식 등 학생들에게 친근한 소재를 이용하여 명사를 연결하는 '이랑1)'을 이해하게 한다.
+ '이랑1)'은 '과1)'과 달리 주로 구어에서 사용되며, (2)의 도입에서 보듯 제일 뒤에 오는 명사 뒤에도 결합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이 이미 '과1)'의 용법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랑1)'의 용법이 '과1)'과 같음을 인지시키고 사용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형태 정보]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랑'으로 쓴다.

예) 가방 + 이랑 → 식당이랑　　연필 + 이랑 → 연필이랑
도서관 + 이랑 → 도서관이랑　　핸드폰 + 이랑 → 핸드폰이랑
은행 + 이랑 → 은행이랑　　책 + 이랑 → 책이랑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랑'으로 쓴다.

예) 컴퓨터 + 랑 → 컴퓨터랑　　전화 + 랑 → 전화랑
학교 + 랑 → 학교랑　　의자 + 랑 → 의자랑
한국어 + 랑 → 한국어랑　　종이 + 랑 → 종이랑

①	받침 o	+ 이랑	가방이랑, 연필이랑, 도서관이랑, 핸드폰이랑, 은행이랑, 책이랑
②	받침 x	+ 랑	컴퓨터랑, 전화랑, 학교랑, 의자랑, 한국어랑, 종이랑

[문장 구성 정보]

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랑'을 사용할 수 없다. 이때는 '그리고'를 사용한다.

예) 철수는 영어를 공부해요. **랑** 앤디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x)
철수는 영어를 공부해요. 그리고 앤디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o)

+ 다음 예처럼 두 문장의 구성이 같고 주어만 다르거나 목적어만 다를 때, 접속 조사 '이랑'을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 철수는 영어를 공부해요. 그리고 철수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철수는 영어**랑** 한국어를 공부해요.
철수가 학교에 가요. 그리고 영희가 학교에 가요.
철수**랑** 영희가 학교에 가요.

[유사 문법]

① '이랑1)', '하고1)', '과1)'

이랑1)	하고1)	과1)
. 명사에 붙어 여러 개의 사물이나 사람을 연결할 때 쓴다.		
. 주로 말할 때 쓴다. 예) 가: 명동에서 무엇을 샀어요? 나: 목걸이**랑** 반지를 샀어요.	. 주로 말할 때 쓴다. 예) 주인: 무엇을 드릴까요? 손님: 김밥**하고** 떡볶이 주세요.	.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쓴다.
. 격식적인 자리에서 잘 안 쓴다. 예)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믿음**이랑** 용기를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 격식적인 자리에서 잘 안 쓴다. 예)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믿음**하고** 용기를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 주로 격식적인 자리에서 쓴다. 예)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 제일 끝에 연결되는 명사 뒤에 사용할 수 있다.	. 제일 끝에 연결되는 명사 뒤에 사용할 수 있다.	. 제일 끝에 연결되는 명사 뒤에 사용할 수 없다.

예) 옷**이랑** 가방**이랑** 사요. (o)	예) 옷**하고** 가방**하고** 사요. (o)	예) 옷**과** 가방**과** 사요. (x)

+ '과1)'은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모두 사용하지만 '이랑1)'이나 '하고1)'은 주로 말을 할 때 자주 사용된다. 또한 '과1)'은 주로 연설, 발표, 토론 등의 격식적인 자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반면 '이랑1)'과 '하고1)'은 격식적인 자리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 '과1)', '이랑1)', '하고1)'은 의미는 같지만 서로 섞어 쓰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저는 수박하고 딸기하고 바나나하고 귤을 좋아해요.'와 같은 문장을 '저는 수박하고 딸기와 바나나랑 귤을 좋아해요.'와 같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준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和'

예) 책상위에 연필**이랑** 책이 있다. - 桌子上有铅笔**和**书.
아침에 빵**이랑** 우유를 먹었어. - 早上吃面包**和**牛奶.
주말에 영어**랑** 수학을 공부해요. - 周末学习英语**和**数学.
엄마**랑** 아빠는 다음 주에 제주도로 여행가요. - 妈妈**和**爸爸下周去济州岛旅行.

② 용법과 오류

- '와/과'는 구어와 문어에 모두 쓰이지만 '이랑'은 구어에 사용된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문어에서도 '하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이번 행사에 교직원이랑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문어에서) (??)

이랑2): (명사에 붙어)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함께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누구 또는 무엇과 같이 어떤 행위를 함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마이클 씨는 누구**랑** 농구를 해요? 나: 저는 친구들**이랑** 농구를 해요. 가: 철수 씨는 어제 저녁에 가족들**이랑** 식사했어요? 나: 네, 가족들**이랑** 식사했어요. 가: 수지 씨는 누구**랑** 여행을 갈 거예요? 나: 저는 언니**랑** 여행을 갈 거예요. 가: 앤디 씨는 라면을 먹을 때 뭐**랑** 먹어요? 나: 저는 라면을 먹을 때 김치**랑** 먹어요.

	가: 왕밍 씨는 친구**랑** 있으면 무엇을 해요? 나: 저는 보통 친구**랑** 같이 영화를 봐요.
문장예문	. 저는 어제 친구들**이랑** 영화를 봤어요. . 형은 부모님**이랑** 서울에서 살아요. · 저는 수업 후에 선생님**이랑** 공부해야 해요. · 마이클은 내일 동생**이랑** 도서관에 갈 거예요. . 저는 앤디**랑** 명동에서 쇼핑해요. . 수지는 철수**랑** 커피를 마셨어요. . 어제 언니**랑** 한강에서 운동했어요. . 동생은 엄마**랑** 편의점에 갔어요. · 저는 매일 강아지**랑** 산책해요. · 저는 누나**랑** 사진을 찍었어요.

+ '이랑2)'는 어떤 행위를 함께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주로 입말에서 사용된다. '누구랑 농구를 해요?'의 대답으로 제시된 '친구들이랑 농구를 해요.'를 보면 '이랑2)'의 의미가 농구라는 행위를 친구들과 함께함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친구랑 같이 영화를 봐요'의 예문에서 보듯 'N+이랑' 뒤에 '같이, 함께' 같은 공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가 어울려 사용된다.

[도입]

(1)
교사: 마이클 씨, 학교에 혼자 와요?
학생: 아니요, 친구 같이 와요.
교사: 네, 마이클 씨는 학교에 친구**랑** 와요.
교사: 앤디 씨, 혼자 살아요?
학생: 아니요, 친구 같이 살아요.
교사: 네, 앤디 씨는 친구**랑** 살아요.

(2)
교사: 철수 씨 방학 때 여행 가요?
학생: 네, 가요.
교사: 누구 같이 가요?
학생: 친구 같이 가요. / 부모님 같이 가요.
교사: 네, 철수 씨는 여행을 친구**랑** 가요. / 부모님**이랑** 가요.

+ '이랑2)'를 도입할 때 '친구, 부모님' 등의 명사를 사용하여 '이랑2)'가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함께 하는 대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학습자에게 '누구와 같이'라는 의미의 대

답을 유도한 후, 마지막에 교사가 목표 문법을 활용하여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게 한다.

[형태 정보]
앞의 '이랑1)'을 참고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같이', '함께'와 같은 공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와 자주 쓰인다.

예) 저는 친구**랑** 같이 영화를 봤어요.
앤디는 동생**이랑** 같이 숙제를 해요.
언니는 엄마**랑** 함께 운동을 해요.
수지는 오빠**랑** 함께 산책을 해요.

[확장]
① 주로 '비교하다, 비슷하다, 같다, 다르다, 가깝다, 친하다' 등의 동사, 형용사와 함께 쓰여 비교의 대상이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예) 앤디는 마이클**이랑** 비교하면 키가 큰 편이에요.
우리 학교 수업 시간은 다른 학교**랑** 비슷해요.
언니는 생김새가 나**랑** 달라요.
수지는 미도리**랑** 친해요.

② '사귀다, 어울리다, 결혼하다, 싸우다' 등의 동사와 함께 쓰여 어떤 행위를 함께하는 상대를 나타낸다.

예) 앤디 씨는 수지 씨**랑** 사귀어요.
언니**랑** 남자친구는 아주 잘 어울려요.
그 남자는 나**랑** 결혼해요.
저는 동생**이랑** 자주 싸워요.

+ 이때 'N+이랑'을 생략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반면 '함께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N+이랑2)'는 생략해도 문장이 문법적이다.

예) 앤디 씨는 수지 씨**랑** 사귀어요.
앤디 씨는 사귀어요. (??)
저는 어제 친구들**이랑** 영화를 봤어요.
저는 어제 영화를 봤어요. (o)

[유사 문법]
① '이랑2)', '하고2)', '과2)'

이랑2)	하고2)	과2)
. 명사에 붙어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함께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주로 말할 때 쓴다. 예) 저는 주로 친구들**이랑** 밥을 먹어요.	주로 말할 때 쓴다. 예) 저는 주로 친구들**하고** 밥을 먹어요.	.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쓴다..
. 격식적인 자리에서 잘 안 쓴다. 예) ??국민 여러분**이랑**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 격식적인 자리에서 잘 안 쓴다. 예) ?국민 여러분**하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 주로 격식적인 자리에서 쓴다. 예) 국민 여러분**과**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和', '和.....一起'

예) 주말에 친구**랑** 등산했어요. - 周末**和**朋友爬山了.
나는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 我想**和**朋友去看电影.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요. - 想**和**父母**一起**去旅行.
언니가 동생**이랑** 같이 갔어요. - 姐姐**和**妹妹**一起**去的.

② 용법과 오류

- '와/과'는 구어와 문어에 모두 쓰이지만 '이랑'은 구어에 사용된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문어에서도 '이랑'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모든 학생들은 내일 교수님**이랑** 같이 참석해 주십시오. (??)

3.1.26. ‘처럼’

처럼[조사] 비유나 **비교**의 대상임을 가리키는 조사.

처럼: (명사에 붙어) 어떤 명사에 빗대어 그와 상태나 행동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가: 앤디 씨가 노래를 잘 불러요? 나: 네, 앤디 씨는 가수**처럼** 노래를 잘 불러요. 가: 수지 씨 얼굴이 예뻐요? 나: 네, 수지 씨 얼굴이 영화배우**처럼** 예뻐요. 가: 동생이 착해요? 나: 네, 동생이 천사**처럼** 착해요. 가: 이 구두가 편해요? 나: 네, 이 구두는 운동화**처럼** 편해요. 가: 흐엉 씨가 한국어를 잘해요? 나: 네, 한국 사람**처럼** 한국어를 잘해요.
문장예문	. 동생이 토끼**처럼** 귀여워요. · 저도 새**처럼** 날고 싶어요. · 친구 집이 우리 집**처럼** 편안해요. · 제주도가 그림**처럼** 아름다워요. ·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간다. · 요즘 날씨가 겨울 날씨**처럼** 추워요. · 이 드라마**처럼** 재미있는 드라마가 또 있어요? · 흐엉 씨는 한국 사람**처럼** 김치를 잘 먹어요. · 저는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 수지 씨와 미도리 씨가 자매**처럼** 닮았습니다.

+ ‘처럼’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상태나 행동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을 때 이를 비유하여 사용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앤디 씨가 노래를 잘 불러요?’의 대답으로 ‘네, 가수처럼 노래를 잘 불러요.’라고 하는 것은 앤디 씨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가수가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 즉 그 정도로 잘 부른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도입]

(1)
교사: (키가 큰 농구 선수의 사진을 보여 주며) 이 농구 선수는 키가 큽니까?
학생: 네, 키가 커요.
교사: 네, 이 농구 선수는 키가 커요. (농구 선수와 키가 비슷한 앤디의 사진을 보여 주며) 앤디 씨는 키가 큽니까?
학생: 네, 키가 커요.
교사: 네, 앤디 씨도 키가 커요. 앤디 씨가 농구 선수**처럼** 키가 커요.

(2)
교사: (아이가 공주처럼 옷을 입은 사진을 보여 주며) 이 아이의 옷이 누구 옷하고 비슷해요?
학생: 공주 옷이요.
교사: 네, 이 아이의 옷이 공주 옷하고 비슷해요. 이 아이가 공주**처럼** 옷을 입었어요.

+ '처럼'을 도입할 때 사진이나 그림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인지시킬 수 있다. 사진을 활용하면 시각적으로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고 분명한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럼'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시킬 수 있다. 마지막에 교사가 '처럼'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처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처럼'을 쓴다.

예) 선생님 + 처럼 → 선생님처럼　　모델 + 처럼 → 모델처럼
인형 + 처럼 → 인형처럼　　천사 + 처럼 → 천사처럼
가수 + 처럼 → 가수처럼　　영화배우 + 처럼 → 영화배우처럼

①	받침 o	+ 처럼	선생님처럼, 모델처럼, 인형처럼
	받침 ×	+ 처럼	천사처럼, 가수처럼, 영화배우처럼

[확장]

① '누구의 말, 예상, 짐작' 등에 붙어, 앞의 말과 다름이 없음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선생님의 말씀**처럼** 시험이 어려웠어요.
언니의 예상**처럼** 오늘은 날씨가 더웠어요.
친구의 말**처럼** 그 식당은 맛이 없어요.
동생의 짐작**처럼** 아버지는 늦게 퇴근하셨습니다.

[유사 문법]

① '처럼', '같이'

처럼	같이
. 상태나 행위가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비유함을 나타낸다.	
. 앞말과 유사함을 나타낸다. 예) 수지 씨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요.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의 말씀**처럼** 시험이 어려웠어요. 언니의 예상**처럼** 오늘은 날씨가 더웠어요.	. 형용사 '같다'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처럼'보다 동일함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 예) 수지 씨 얼굴이 사과**같이** 빨개요. 선생님**같이**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의 말씀**같이** 시험이 어려웠어요. (?) 언니의 예상**같이** 오늘은 날씨가 더웠어요. (?)

+ '처럼'은 큰 의미 차이 없이 조사 '같이'와 바꿔 쓸 수 있다. 대부분의 지도서에서도 '처럼'과 '같이'를 구분 없이 기술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둘의 차이보다는 유사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 '처럼', '만큼'

처럼	만큼
. 비슷한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 비교나 비유 둘 다 사용한다. 예) 집이 운동장**처럼** 넓다. (o) 선생님이 꽃**처럼** 아름답다.(o)	. 주로 비교할 때 사용한다. 예) 집이 운동장**만큼** 넓다. (o) 선생님이 꽃**만큼** 아름답다. (?)

+ '처럼'이 비슷한 두 대상을 비교하면서 그 중 하나를 나타내는 말에 붙어 사용할 때 '만큼'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처럼'과 '만큼'의 의미는 '같은 정도로'의 뜻을 나타낸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像……一样'

예) 철수는 가수**처럼** 노래를 잘 부른다. - 哲洙**像**歌手一**样**唱歌唱得很好.
저는 새**처럼** 날고 싶어요. - 我很想**像**鸟儿一**样**飞.
왕메이 씨는 한국 사람**처럼** 한국어를 잘해요. - 王梅说韩语**像**韩国人一**样**流利.
겨울인데 봄**처럼** 따뜻해요. - 是冬天, 但和春天一**样**暖和.

② 용법과 오류

- '만큼'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像……一样'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선생님이 꽃만큼 아름답다. (x)
눈만큼 하얀 피부 (x)

3.1.27. ‘하고’

하고[조사] 1) 여러 사물이나 사람을 **연결**하거나 2) 행위를 **함께하는 대상** 등을 나타내는 조사.

하고1): (명사에 붙어)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뜻을 나타낸다. 앞뒤 명사 모두를 가리킬 때 사용한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교실에 무엇이 있어요? 나: 책상**하고** 의자가 있어요. 가: 편의점에서 무엇을 샀어요? 나: 빵**하고** 라면을 샀어요. 가: 앤디 씨는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나: 네, 꽃**하고** 책을 받았어요. 가: 식당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나: 앤디**하고** 수지를 만났어요. 가: 철수 씨는 방학 때 어디에 갔습니까? 나: 저는 대구**하고** 부산에 갔습니다.
문장예문	· 마이클**하고** 앤디는 제 친구입니다. · 저는 수학**하고** 컴퓨터를 배워요. · 저는 수박**하고**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 동생은 밥**하고** 김치를 먹어요. · 오늘**하고** 내일은 수업이 없어요. · 엄마**하고** 아빠가 중국으로 여행을 가십니다. · 철수**하고** 영희가 학교에 갑니다. · 언니는 목걸이**하고** 귀걸이를 했습니다. · 왕밍은 바지**하고** 가방을 샀어요. · 흐엉 씨는 한국어**하고** 영어를 공부해요.

+ ‘하고1)’은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 주로 입말에서 사용된다. ‘교실에 무엇이 있어요?’의 대답으로 제시된 ‘책상**하고** 의자가 있어요.’를 보면 교실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고1)’로 접속되는 두 명사는 자리를 바꾸어 ‘의자**하고** 책상이 있어요.’로 사용해도 의미가 같으며, 접속되는 명사는 꼭 둘이 아니라 셋 이상이어도 무방하다. (둘이 가장 많이 사용됨.)

+ '하고1)'로 연결된 두 명사의 격을 나타내는 조사는 '[책상하고 의자]가, [빵하고 라면]을'에서 보듯 맨 뒤에 오는 명사 뒤에 붙는다.

[도입]

(1)
교사: 교실에 무엇이 있어요?
학생: 책상이 있어요.
교사: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학생: 컴퓨터가 있어요.
교사: 네, 교실에 책상**하고** 컴퓨터가 있어요.
학생: 책도 있어요.
교사: 네, 교실에 책상**하고** 컴퓨터**하고** 책이 있어요.

(2)
교사: 백화점에서 무엇을 사요?
학생: 옷, 구두, 가방...
교사: 네, 백화점에서 옷**하고** 구두**하고** 가방**하고** 사요.

(3)
교사: 한국 음식 무엇을 좋아해요?
학생: 불고기, 삼겹살, 김치, 된장찌개...
교사: 네, 앤디 씨는 불고기**하고** 김치를 좋아해요.

+ '하고1)'을 도입할 때 (1)처럼 연결하고자 하는 대상을 학생들로부터 유도한 후 '하고1)'을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실이나 상점 등 특정 공간에 있는 사물을 활용하거나 쇼핑, 좋아하는 음식 등 학생들에게 친근한 소재를 이용하여 명사를 연결하는 '하고1)'을 이해하게 한다.
+ '하고1)'은 '과1)'과 달리 주로 구어에서 사용되며, (2)의 도입에서 보듯 제일 뒤에 오는 명사 뒤에도 결합이 가능하다. 학습자들이 이미 '과1)'의 용법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하고1)'의 용법이 '과1)'과 같음을 인지시키고 사용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하고'를 쓴다.

예) 책 + 하고 → 책하고　　책상 + 하고 → 책상하고
식당 + 하고 → 식당하고　　사과 + 하고 → 사과하고
컴퓨터 + 하고 → 컴퓨터하고　　지우개 + 하고 → 지우개하고

①	받침 o	+ 하고	책하고, 책상하고, 식당하고
	받침 x	+ 하고	사과하고, 컴퓨터하고, 지우개하고

[제약 정보]

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하고'를 사용할 수 없다. 이때는 '그리고'를 사용한다.

예) 철수는 영어를 공부해요. **하고** 앤디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x)
철수는 영어를 공부해요. 그리고 앤디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o)

+ 다음 예처럼 두 문장의 구성이 같고 주어만 다르거나 목적어만 다를 때, 접속 조사 '하고'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 철수는 영어를 공부해요. 그리고 철수는 한국어를 공부해요.
철수는 영어**하고** 한국어를 공부해요.
철수가 학교에 가요. 그리고 영희가 학교에 가요.
철수**하고** 영희가 학교에 가요.

[확장]

① 'N+하고'를 반복하여 사용하여 서술어와 연관된 여러 사물들을 연결하고 이들이 한 부류임을 나타낸다. 이때 '하고'는 '이고, 이니, 이며, 하며'와 바꿔 쓸 수 있다.

예) 수지는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다 예뻐요.
언니는 나에게 연필**하고** 지우개**하고** 공책**하고** 모두 사 주었어요.
여행갈 때 치약**하고** 칫솔**하고** 샴푸**하고** 준비하세요.

[유사 문법]

① '하고1)', '이랑1)', '과1)'

하고1)	이랑1)	과1)
. 명사에 붙어 여러 개의 사물이나 사람을 연결할 때 쓴다.		
. 주로 말할 때 쓴다. 예) 주인: 무엇을 드릴까요? 손님: 김밥**하고** 떡볶이 주세요.	. 주로 말할 때 쓴다. 예) 가: 명동에서 무엇을 샀어요? 나: 목걸이**랑** 반지를 샀어요.	.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쓴다.
. 격식적인 자리에서 잘 안 쓴다. 예)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믿음**하고** 용기를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 격식적인 자리에서 잘 안 쓴다. 예)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믿음**이랑** 용기를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 주로 격식적인 자리에서 쓴다. 예)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 제일 끝에 연결되는 명사 뒤에 사용할 수 있다.	. 제일 끝에 연결되는 명사 뒤에 사용할 수 있다.	. 제일 끝에 연결되는 명사 뒤에 사용할 수 없다.

예) 옷**하고** 가방**하고** 사요. (o)	예) 옷**이랑** 가방**이랑** 사요. (o)	예) 옷**과** 가방**과** 사요. (x)

+ '과1)'은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모두 사용하지만 '이랑1)'이나 '하고1)'은 주로 말을 할 때 자주 사용된다. 또한 '과1)'은 주로 연설, 발표, 토론 등의 격식적인 자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반면 '이랑1)'과 '하고1)'은 격식적인 자리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 '과1)', '이랑1)', '하고1)'은 의미는 같지만 서로 섞어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저는 수박하고 딸기하고 바나나하고 귤을 좋아해요.'와 같은 문장을 '저는 수박하고 딸기와 바나나랑 귤을 좋아해요.'와 같이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준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和'

예) 책상위에 연필**하고** 책이 있다. - 桌子上有铅笔**和**书.
아침에 빵**하고** 우유를 먹습니다. - 早上吃面包**和**牛奶.
저는 누나**하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 我有姐姐**和**弟弟.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은행원이십니다. - 爸爸**和**妈妈是银行职员.

② 용법과 오류

- '와/과'는 구어와 문어에 모두 쓰이지만, '하고'는 구어에 사용된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문어에서도 '하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이번 행사에 교직원하고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

하고2): (명사에 붙어)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함께 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누구 또는 무엇과 같이 어떤 행위를 함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마이클 씨는 누구**하고** 농구를 해요? 나: 저는 친구들**하고** 농구를 해요. 가: 철수 씨는 어제 저녁에 가족들**하고** 식사했어요? 나: 네, 가족들**하고** 식사했어요. 가: 수지 씨는 누구**하고** 여행을 갈 거예요? 나: 저는 언니**하고** 여행을 갈 거예요. 가: 앤디 씨는 라면을 먹을 때 뭐**하고** 먹어요? 나: 저는 라면을 먹을 때 김치**하고** 먹어요. 가: 왕밍 씨는 친구**하고** 있으면 무엇을 해요?

	나: 저는 보통 친구**하고** 같이 영화를 봐요.
문장예문	. 저는 어제 친구들**하고** 영화를 봤어요. . 형은 부모님**하고** 서울에서 살아요. · 저는 수업 후에 선생님**하고** 공부해야 해요. · 마이클은 내일 동생**하고** 도서관에 갈 거예요. . 저는 앤디**하고** 명동에서 쇼핑해요. . 수지는 철수**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 어제 언니**하고** 한강에서 운동했어요. . 동생은 엄마**하고** 편의점에 갔어요. · 저는 매일 강아지**하고** 산책해요. · 저는 누나**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 '하고2)'는 어떤 행위를 함께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주로 입말에서 사용된다. '누구하고 농구를 해요?'의 대답으로 제시된 '친구들하고 농구를 해요.'를 보면 '하고2)'의 의미가 농구라는 행위를 친구들과 함께함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친구하고 같이 영화를 봐요'의 예문에서 보듯 'N+하고' 뒤에 '같이, 함께' 같은 공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가 어울려 사용된다.

[도입]

(1)
교사: 마이클 씨, 학교에 혼자 와요?
학생: 아니요, 친구 같이 와요.
교사: 네, 마이클 씨는 학교에 친구**하고** 와요.
교사: 앤디 씨, 혼자 살아요?
학생: 아니요, 친구 같이 살아요.
교사: 네, 앤디 씨는 친구**하고** 살아요.

(2)
교사: 철수 씨 방학 때 여행 가요?
학생: 네, 가요.
교사: 누구 같이 가요?
학생: 친구 같이 가요. / 부모님 같이 가요.
교사: 네, 철수 씨는 여행을 친구**하고** 가요. / 부모님**하고** 가요.

+ '하고2)'를 도입할 때 '친구, 부모님' 등의 명사를 사용하여 '하고2)'가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함께 하는 대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학습자에게 '누구와 같이'라는 의미의 대답을 유도한 후, 마지막에 교사가 목표 문법을 활용하여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게 한다.

[형태 정보]
앞의 '하고1)'을 참고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같이', '함께'와 같은 공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와 자주 쓰인다.

예) 저는 친구**하고** 같이 영화를 봤어요.
앤디는 동생**하고** 같이 숙제를 해요.
언니는 엄마**하고** 함께 운동을 해요.
수지는 오빠**하고** 함께 산책을 해요.

[확장]
① 주로 '비교하다, 비슷하다, 같다, 다르다, 가깝다, 친하다' 등의 동사, 형용사와 함께 쓰여 비교의 대상이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예) 앤디는 마이클**하고** 비교하면 키가 큰 편이에요.
우리 학교 수업 시간은 다른 학교**하고** 비슷해요.
언니는 생김새가 나**하고** 달라요.
수지는 미도리**하고** 친해요.

② '사귀다, 어울리다, 결혼하다, 싸우다' 등의 동사와 함께 쓰여 어떤 행위를 함께하는 상대를 나타낸다.

예) 앤디 씨는 수지 씨**하고** 사귀어요.
언니**하고** 남자친구는 아주 잘 어울려요.
그 남자는 나**하고** 결혼해요.
저는 동생**하고** 자주 싸워요.

+ 이때 'N+하고'를 생략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반면 '함께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N+하고 2)'는 생략해도 문장이 문법적이다.

예) 앤디 씨는 수지 씨**하고** 사귀어요.
앤디 씨는 사귀어요. (??)
저는 어제 친구들**하고** 영화를 봤어요.
저는 어제 영화를 봤어요. (o)

[유사 문법]
① '하고2)', '이랑2)', '과2)'

하고2)	**이랑2)**	**과2)**
. 명사에 붙어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함께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주로 말할 때 쓴다. 예) 저는 주로 친구들**하고**	주로 말할 때 쓴다. 예) 저는 주로 친구들**이랑**	.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쓴다.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 격식적인 자리에서 잘 안 쓴다. 예) ??국민 여러분**하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 격식적인 자리에서 잘 안 쓴다. 예) ?국민 여러분**이랑**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 주로 격식적인 자리에서 쓴다. 예) 국민 여러분**과**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和', '和.....一起'

예) 주말에 친구**하고** 등산했어요. - 周末**和**朋友爬山了.
나는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 我想**和**朋友去看电影.
부모님**하고** 같이 여행을 가고 싶어요. - 想**和**父母**一起**去旅行.
언니가 동생**하고** 같이 갔어요. - 姐姐**和**妹妹**一起**去的.

② 용법과 오류

- '와/과'는 구어와 문어에 모두 쓰이지만 '하고'는 구어에 사용된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문어에서도 '하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

3.1.28. ‘한테’

한테[조사]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

한테: (명사에 붙어) 사람이나 동물이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철수 씨, 영희**한테** 생일 선물 줬어요? 나: 네, 어제 줬어요. 가: 마이클 씨, 수지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네, 조금 전에 했어요. 가: 가방을 어디에 맡겼어요? 나: 경비실 아저씨**한테** 맡겼어요. 가: 선생님께서는 뭘 가르치세요? 나: 저는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가: 개**한테** 먹이를 줬어요? 나: 아니요, 오늘은 개**한테** 물만 줬어요.
문장예문	· 책을 동생**한테** 주었어요. · 철수는 친구**한테** 책을 선물했어요. · 수지가 왕밍**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 언니**한테** 옷을 빌려 주었어요. · 왕밍이 미도리**한테** 공을 힘껏 던졌어요. · 흐엉 씨가 오빠**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 동생이 식구들**한테** 대학 합격 소식을 말했습니다. · 친구는 고양이**한테** 늘 생선을 먹여요. . 누나**한테** 아이를 맡기고 외출을 했습니다.

+ ‘한테’는 사람이나 동물이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한테’의 이러한 용법은 ‘에게’와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한테’는 주로 구어나 비격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한다는 점이다. ‘한테’의 앞에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는 점에 유의하고, 주로 ‘주다, 가르치다, 보내다, 전화하다, 말하다, 던지다, 전하다, 선물하다’ 등의 서술어와 함께 쓰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입]

(1)
교사: (학생에게 책을 주며) 무엇을 주었어요?
학생: 책을 주었어요.
교사: 네, 왕밍 씨**한테** 책을 주었어요. (학생에게 연필을 주며) 그리고 무엇을 주었어요?
학생: 연필을 주었어요.
교사: 네, 왕밍 씨**한테** 연필을 주었어요.

(2)
교사: (앤디가 수지에게 전화하는 그림을 보여 주며) 앤디 씨가 무엇을 해요?
학생: 전화해요.
교사: 앤디 씨가 누구**한테** 전화해요?
학생: 수지 씨**한테** 전화해요.
교사: 네, 앤디 씨가 수지 씨**한테** 전화해요.

+ '한테'를 도입할 때 '주다, 전화하다, 말하다' 등을 활용하여 대화를 구성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를 쉽게 이끌 수 있다. '한테'가 사용되는 전형적인 상황을 제시할 때, 처음에는 교사가 '한테'가 사용된 예문을 주고 두 번째는 학생에게서 '한테'가 사용된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낸다. 이때 교사, 학생 간의 행동으로 상황을 제시하거나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사용 맥락을 학생이 이해하도록 한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한테'를 쓴다.

예) 학생 + 한테 → 학생한테　　딸 + 한테 → 딸한테
동생 + 한테 → 동생한테　　친구 + 한테 → 친구한테
누나 + 한테 → 누나한테　　고양이 + 한테 → 고양이한테

①	받침 o	+ 한테	학생한테, 딸한테, 동생한테
	받침 x	+ 한테	친구한테, 누나한테, 고양이한테

[문장 구성 정보]

① 사람과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사용한다.

예) 철수가 마이클**한테** 편지를 보내요.
수지 씨가 동생**한테** 전화해요.
왕밍 씨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줘요.
앤디가 강아지**한테** 공을 던져요.

[확장]

① '가다, 오다' 등의 동사와 함께 쓰여, 행위의 진행 방향이나 대상임을 나타낸다.

예) 앤디는 수지 씨**한테** 갔어요.
아이들이 마이클**한테** 뛰어갔습니다.
미도리가 흐엉**한테** 왔어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다가갔습니다.

② '있다, 없다, 남다, 많다, 적다, 생기다' 등의 동사, 형용사와 함께 쓰여, 무엇이 있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예) 누나**한테** 국어사전이 있다.
남편**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나**한테**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수지**한테** 이렇게 큰 동생이 있어요?

③ '맞다, 알맞다, 어울리다, 비하다, 뒤지다' 등의 동사, 형용사와 함께 쓰여, 비교의 대상이나 기준임을 나타낸다.

예) 나**한테** 맞는 일을 할 거예요.
이 책이 당신**한테** 알맞습니다.
이 옷은 손님**한테** 어울려요.
다른 친구들**한테** 비하면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④ '받다, 얻다, 배우다' 등의 동사와 함께 쓰여, 행동이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예) 저는 누나**한테** 용돈을 받아요.
저는 선배**한테** 영어를 배웠습니다.
수지는 동생**한테** 편지를 받았습니다.
앤디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것을 싫어해요.

+ 이때 '한테'는 거의 모든 경우에 '한테서'와 바꿔 쓸 수 있다. '저는 누나한테 용돈을 받아요.'를 '저는 누나한테서 용돈을 받아요.'로, '저는 선배한테 영어를 배웠습니다.'를 '저는 선배한테서 영어를 배웠습니다.'로 바꿀 수 있다. 그렇지만 주어가 행위를 당하는 경우에는 '한테서'로 바꾸면 어색해진다. 예를 들어 '저는 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저는 친한 친구한테서 사기를 당했습니다.'와 같은 경우는 어색하다.

⑤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시킴을 받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예) 선생님이 마이클**한테** 시험을 보게 했어요.
수지는 아픈 동생**한테** 약을 먹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책을 읽히셨어요.
어머니는 동생**한테** 방 청소를 시키셨어요.

⑥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형용사와 함께 쓰여, 어떤 느낌을 가지거나 어떤 상태에

있는 주체임을 나타낸다.

예) 수지는 친구**한테** 실망했습니다.
앤디는 여자 친구**한테** 사랑을 느낍니다.
미도리는 동생**한테** 매우 미안해합니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친구예요.
마이클**한테** 영어는 정말 쉬워요.

[유사 문법]

① '한테', '에게', '께'

한테	에게	께
.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을 나타낸다.		
. 주로 말할 때 쓴다. 예) 동생**한테** 편지를 써요. (o)	.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모두 쓴다. 예) 동생**에게** 편지를 쓴다. (o) 동생**에게** 편지를 써요.(o)	. '에게'의 높임 표현으로, 높임의 대상에게 쓴다.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모두 쓴다. 예) 동생**께** 편지를 쓴다. (x) 선생님**께** 편지를 써요.(o)

② '한테', '에'

한테	에
.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을 나타낸다.	
. 유정 명사 뒤에 사용한다. 예) 꽃**한테** 물을 줍니다. (x) 친구 집**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x) 개**한테** 밥을 줍니다. (o) 친구**한테** 선물을 줍니다. (o)	. 무정명사 뒤에 사용한다. 예) 꽃**에** 물을 줍니다. (o) 친구 집**에** 선물을 보냈어요. (o) 개**에** 밥을 줍니다. (x) 친구**에** 선물을 줍니다. (x)

+ 의인화된 무정명사의 경우에는 '한테'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나무한테 말을 해요'와 같은 문장이 이에 해당한다.

③ '한테', '더러', '보고'

한테	더러, 보고
.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 특별한 제약 없이 행위의 영향을 받는	. 주로 인용 구문에서 말하는 행위와 관

사람임을 나타낸다. 예) 앤디가 수지**한테** 가자고 말했다. (o) 수지가 앤디**한테** 청소하도록 했어. (o) 수지가 앤디**한테** 전화를 걸었다. (o)	계된 '말하다, 묻다, 요청하다, 권하다' 등의 동사나 '-게 하다, -도록 하다' 등의 일부 표현과 사용된다. 예) 앤디가 수지**더러(보고)** 가자고 말했다. (o) 수지가 앤디**더러(보고)** 청소하도록 했어. (o) 수지가 앤디**더러(보고)** 전화를 걸었다. (x)

+ '더러'와 '보고'는 '한테'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한테'는 '더러'와 '보고'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给', '使' (경우에 따라 대응 표현이 없이 어휘로만 실현되기도 함)

예)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 **给**朋友打电话.
언니**한테** 편지를 써요. - **给**姐姐写信.
동생**한테** 한국어 사전을 사 주었습니다. - **给**弟弟满了韩国语词典.
저는 중국인 학습자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 我教中国学生韩国语.

② 용법과 오류

- '한테'는 주로 구어에 많이 쓰이는데 학습자들이 작문 등 쓰기에서도 '에게'를 사용하지 않고 '한테'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 대회에서는 수상자들한테 전자사전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시민들한테 편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한테'와 '에'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모두 '给'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 두 문법을 혼동하여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나무한테 물을 주었어요? (x)
주말마다 집한테 전화해요. (x)
강아지에 먹이를 주었다. (x)

- 조사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한테'를 생략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나는 친구 자주 전화해요. (x)
철수는 나 생일 선물을 주었습니다. (x)

3.1.29. ‘한테서’

한테서[조사] 어떤 행위의 **출발점**이나 어떤 행위가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

한테서: (명사에 붙어) 어떤 행위가 나온 출처나 어떤 행위가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어떤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주어진 행위가 시작됨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주로 구어에서 사용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철수 씨는 누구**한테서** 그 말을 들었어요? 나: 선배**한테서** 들었어요. 가: 누구**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나: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가: 누구**한테서** 나온 이야기예요? 나: 과장님**한테서** 나온 이야기예요. 가: 앤디 씨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나: 아니요, 저는 아직 부모님**한테서** 용돈을 받아요. 가: 이 냄새가 무슨 냄새예요? 나: 고양이**한테서** 나는 냄새예요.
문장예문	· 누구**한테서** 나온 이야기예요? · 수지는 언니**한테서** 선물을 받았어요. . 왕밍은 누나**한테서** 피아노를 배웠어요? · 마이클은 형**한테서** 책을 얻었어요. · 철수는 수지**한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 미도리는 앤디**한테서** 돈을 빌렸어요. · 이 아기는 제 언니**한테서** 태어난 아기예요. · 이 이야기는 동생**한테서** 들은 것입니다. · 영수는 선배**한테서** 항상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요. · 고양이는 강아지**한테서** 먹이를 뺏었어요.

+ 행위의 출처나 행위가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낼 때 부사격 조사 ‘한테서’를 사용한다. ‘한테서’의 앞에 주로 사람 명사가 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때 ‘한테서’는 주로 ‘받다, 배우다, 듣다’ 등의 서술어와 함께 쓰인다. 위의 서술어들을 활용하여 조사 ‘한테서’와 자

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도입]

(1)
교사: (앤디 씨가 왕밍 씨에게 책을 주게 하며) 앤디 씨가 책을 주었어요. 왕밍 씨는 무엇을 해요?
학생: 왕밍 씨는 책을 받아요.
교사: 네, 왕밍 씨가 앤디 씨**한테서** 책을 받았어요.
교사: (앤디 씨에게 왕밍 씨에게 연필을 주게 하며) 그리고 왕밍 씨가 무엇을 받았어요?
학생: 왕밍 씨가 연필을 받았어요.
교사: 왕밍 씨가 누구**한테서** 연필을 받았어요?
학생: 왕밍 씨가 앤디 씨**한테서** 연필을 받았어요.

(2)
교사: (수지 씨가 왕밍 씨에게 중국어를 배우는 그림을 보여 주며) 수지 씨가 무엇을 해요?
학생: 수지 씨는 중국어를 배워요.
교사: 네, 수지 씨가 왕밍 씨**한테서** 중국어를 배워요.

+ '한테서'를 도입할 때 '받다, 전화가 오다, 배우다' 등을 활용하여 대화를 구성하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를 쉽게 이끌 수 있다. '한테서'가 사용되는 전형적인 상황을 제시할 때, 처음에는 교사가 '한테서'가 사용된 예문을 주고 두 번째는 학생에게서 '한테서'가 사용된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낸다. 이때 교사, 학생 간의 행동으로 상황을 제시하거나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사용 맥락을 학생이 이해하도록 한다.

[형태 정보]

① 명사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한테서'를 쓴다.

예) 학생 + 한테서 → 학생한테서　　딸 + 한테서 → 딸한테서
동생 + 한테서 → 동생한테서　　친구 + 한테서 → 친구한테서
누나 + 한테서 → 누나한테서　　선배 + 한테서 → 선배한테서

①	받침 o	+ 한테서	학생한테서, 딸한테서, 동생한테서
	받침 ×	+ 한테서	친구한테서, 누나한테서, 선배한테서

[문장 구성 정보]

①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사용한다.

예) 선생님**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o)
돼지**한테서** 냄새가 난다. (o)
책**한테서** 도움을 받아요. (x)

[유사 문법]

① '한테서', '에게서', '으로부터'

한테서	에게서	으로부터
. 어떤 행위의 출발점이나 어떤 행위가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주로 말할 때 쓰인다.	.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모두 쓰인다.	. 말할 때나 글을 쓸 때 모두 쓰인다.
. 사람이나 동물에 쓰인다. 예) 사장님**한테서** 월급을 받았어요. (o) 회사**한테서** 월급을 받았어요. (x)	. 사람이나 동물에 쓰인다. 예) 사장님**에게서** 월급을 받았어요. (o) 회사**에게서** 월급을 받았어요. (x)	. 앞에 나오는 명사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 사장님**으로부터** 월급을 받았어요. (o)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어요. (o)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o)

② '한테서', '에서'

한테서	에서
. 어떤 행위의 출발점이나 어떤 행위가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낸다.	
. 사람이나 동물 뒤에 사용한다. 예) 선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o) 친구**한테서** 선물을 받았어요. (o)	. 장소나 사물, 추상적인 대상 뒤에 사용한다. 예)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o) 철수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요. (o) 사람들은 책**에서** 지식을 얻습니다. (o) 꽃**에서** 향기가 나요. (o) 한국어 수업은 말하기 공부**에서** 시작됩니다.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从', '向', '跟'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친구**한테서** 소식을 들었다. - **从**朋友那儿听到了消息.
형**한테서** 빌린 돈입니다. - **向**哥哥借的钱.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 妈妈打来电话.
생일에 친구**한테서** 선물을 받았어요. - 生日的时候收到了朋友的礼物.

② 용법과 오류

- '한테서'와 '에서'의 중국어 대응 표현이 모두 '从'이므로 학습자들이 '에게서'와 '에서'를 혼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선배에서 전화가 왔다. (x)
  회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x)

- '한테서'는 주로 구어에 쓰이나, '-에게서'는 구어와 문어에 모두 쓰인다. 그러나 중국어에는 이러한 구별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문어에 '한테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3.2. 선어말어미

3.2.1. '-겠-'

-겠-[선어말 어미] 1) 미래에 대한 **의지**나 2)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1): (동사에 붙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때 사용한다. 말하는 사람의 의지,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흐엉 씨, 언제까지 이 책을 읽을까요? 나: 저는 이번 주말까지 **읽겠습니다**. 가: 시험이 끝나면 무엇을 할 거예요? 나: 저는 명동에 **가겠어요**. 가: 수지 씨, 새해에 계획이 있어요? 나: 네, 저는 올해 다이어트를 **하겠어요**. 가: 현우 씨, 커피와 주스가 있는데, 어느 것을 드실래요? 나: 저는 주스를 **마시겠어요**. 가: 내일 앤디 씨 생일이어서 케이크를 만들려고 해요. 같이 만들까요? 나: 네, 저도 같이 **만들겠습니다**.
문장예문	· 저는 이번 학기에 꼭 장학금을 **받겠어요**. · 저도 오늘부터 수업을 열심히 **듣겠습니다**. · 저희가 어머니의 지갑을 **찾겠어요**. · 나는 새로 나온 컴퓨터를 **사지 않겠다**. . 제가 이제 담배를 피우지 **않겠어요**. · 저는 스무 살이 되면 운전부터 **배우겠어요**. · 제가 현우 씨에게 생일 선물을 **주겠어요**. · 내일 아침에 제가 왕밍 씨에게 **전화하겠어요**. · 주말마다 줄리아 씨와 같이 **운동하겠어요**. · 제가 교실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겠-'은 말하는 사람이 미래에 하는 행동에 대한 자신의 의지나 의도를 나타낼 때 쓴다. 말하는 이가 주어가 되며, 동사에만 결합해서 사용한다는 데 유의한다.

[도입]

(1)
교사: 주말에 무엇을 해요?
학생1: 저는 영화를 봐요.
학생2: 저는 친구와 같이 부산에 가요.
교사: 영화를 봐요. 저는 주말에 영화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가요. 저는 주말에 부산에 가**겠**어요.

(2)
교사: 내일은 왕밍 씨 생일이에요. 무엇을 해요?
학생: 저는 왕밍 씨에게 생일 선물을 줘요.
교사: 선물을 줘요. 저는 내일 왕밍 씨에게 선물을 주**겠**어요. 앤디 씨는요?
학생: 저는 노래를 부르**겠**어요.

+ (1)과 (2)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통해 '-겠-'이 미래에 하는 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좋다. 학생들에게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을 통해 자신이 미래에 하는 행동에 대한 의도나 의지를 나타낼 때 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 줄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겠-'을 쓴다.

예) 먹-+-겠-+-다 → 먹겠다　　듣-+-겠-+-다 → 듣겠다
찾-+-겠-+-다 → 찾겠다　　가-+-겠-+-다 → 가겠다
보-+-겠-+-다 → 보겠다　　만나-+-겠-+-다 → 만나겠다

①	받침 o	+ -겠-	먹겠다, 듣겠다, 찾겠다
	받침 ×	+ -겠-	가겠다, 보겠다, 만나겠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안 -겠어요, -지 않겠어요'의 두 가지 형태를 모두 쓸 수 있다.

예) 밤에 늦게 안 **자겠어요**/자지 **않겠어요**.
이제 담배를 안 **피우겠어요**/피우지 **않겠어요**.
주말에 쇼핑을 안 **하겠어요**/하지 **않겠어요**.
오늘부터 술을 안 **마시겠어요**/마시지 **않겠어요**.

[제약 정보]

①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낼 때, 1인칭 이외의 주어를 쓸 수 없다.

예) 페이페이 씨가 저와 같이 점심을 **먹겠어요**. (?)
저는 페이페이 씨와 같이 점심을 **먹겠어요**. (o)
너는 내일 학교에 **오겠어요**. (?)
저는 내일 학교에 **오겠어요**. (o)
수지 씨는 다음 달에 **결혼하겠어요**. (?)
저는 다음 달에 **결혼하겠어요**. (o)

+ 2,3인칭의 주어를 쓸 때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어의 의지가 아닌 추측의 뜻을 나타낸다.

② '의지'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저는 내년부터 키가 **크겠어요**. (x)
제가 시험이 끝나면 기분이 **좋겠어요**. (x)
저는 점심을 먹은 후에 **아프겠어요**. (x)
제가 내일부터 **예쁘겠어요**. (x)

[확장]

① 인사말과 같은 관용적 표현에 '-겠-'을 넣어 사용한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길 좀 **묻겠습니다**.

② 다른 사람의 의향에 대해 공손하게 물어볼 때도 '-겠-'을 쓰며, 이때 주로 의문문에서 사용한다.

예) 수지 씨, 제가 만든 김밥 좀 **드시겠어요**?
앤디 씨,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겠어요**?
왕밍 씨, 오늘 제 공부 좀 **도와주시겠어요**?
손님, 다른 색의 옷도 **입으시겠어요**?

+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생각이나 마음에 대해 알고 싶을 때, 주로 다른 사람을 존대하여 나타내는 공손한 표현으로 쓴다.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지만, 때로는 요청이나 제안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 '오늘 제 공부 좀 도와주시겠어요?'는 겉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지만, 엄밀히 보면 '오늘 제 공부를 도와주세요.'와 같은 요청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사 문법]

① '-겠-', '-을 것이-'

-겠-	**-을 것이-**
· 미래에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	

· 1인칭 주어에서만 의지를 나타내며, 그 외의 주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예) 제가 김치찌개를 **먹겠어요**. (o) 미도리 씨가 비빔밥을 **먹겠어요**. (x)	· 모든 주어에 사용할 수 있다. 예) 저는 김치찌개를 **먹을 거예요**. (o) 미도리 씨가 비빔밥을 **먹을 거예요**.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要'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 今天开始我**要**认真学习.
여름 방학 때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 暑假**要**去旅游.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 再也不见那个女生了.
너도 내일 같이 **가겠니**? - 明天你也一起去吗?

② 용법과 오류

- 인사말과 일부 관용적 표현에 '-겠-'을 자주 넣어 사용하지만 중국어에는 대응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 선생님, 설명을 들었는데도 잘 몰라요. (x) ('모르겠어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잘 먹습니다. (x) ('잘 먹겠습니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 의지를 나타날 때 1인칭 주어만 사용되는데 반해 중국어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2, 3인칭 주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철수 씨도 내일 가겠습니다. (x)
너도 내일 가겠다. 나 알아. (x)

- 의지를 나타내는 '-겠-'은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나는 꼭 제일 예쁘겠다. (x)
너는 꼭 용감하겠다. (x)

-겠-2):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다른 사람의 일이나 상황에 대해 추측함을 나타낸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근거로 추측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이번 시험에서 현우 씨가 1등을 했어요. 나: 와, 현우 씨가 장학금을 **받겠어요**. 가: 미도리 씨, 오늘은 날씨가 흐려요.

	나: 네, 곧 비가 **오겠어요**. 가: 어제 게임을 하다가 늦게 잤어요. 나: 그래요? 많이 **피곤하겠어요**. 가: 다음 주에 수지 씨 생일파티에 같이 갈까요? 나: 네, 좋아요. **재미있겠어요**. 가: 남자친구가 어제 꽃을 주었어요. 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문장예문	·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동생이 다 **먹겠다**. · 수지 씨가 다음 주에 결혼하니 기분이 **좋겠어요**. · 왕밍 씨가 1등을 했으니 선물을 **받겠어요**. · 주말이니 미도리 씨가 친구를 **만나겠어요**. · 현우 씨가 일이 많아서 **바쁘겠다**. · 부모님이 키가 크시니, 앤디 씨도 키가 **크겠어요**. · 내일이 시험이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 도서관은 여름에도 **시원하겠어요**. · 그 배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영화가 **재미있겠다**. · 줄리아 씨가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힘들었겠습니다**.

+ '-겠-2)'는 상황이나 행위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따른 추측을 나타내므로, 1인칭 주어를 제외한 모든 주어가 사용될 수 있다. 이때 '-겠-'은 과거, 현재, 미래 사실에 대한 추측의 뜻을 지닌다.

예) 어제 백화점에 사람이 많이 **왔겠어요**. (o) : 과거에 대한 추측
지금 시간에는 백화점에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o) : 현재에 대한 추측
내일 백화점에 사람이 많이 **오겠어요**. (o) : 미래에 대한 추측

[도입]

(1)
교사: (어려운 한국어 책을 보여 주며)
이 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학생: 어려워요.
교사: 이 책은 어려워요. 이 책은 **어렵겠어요.**

(2)
교사: 수지 씨는 한국에서 5년 동안 살았어요.
한국어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학생: 한국어를 잘 해요.

교사: 네, 수지 씨가 한국어를 잘 할 것 같아요. 수지 씨가 한국어를 **잘 하겠어요.**

+ (1), (2)에서와 같이 학생들이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상황을 교사가 직접 보여 주거나 그림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형태 정보]

① 동사나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겠-'을 쓴다.

예) 읽- + -겠- + -다 → 읽겠다　　좋- + -겠- + -다 → 좋겠다
작- + -겠- + -다 → 작겠다　　오- + -겠- + -다 → 오겠다
사- + -겠- + -다 → 사겠다　　바쁘- + -겠- + -다 → 바쁘겠다

①	받침 o	+ -겠-	읽겠다, 좋겠다, 작겠다
	받침 ×	+ -겠-	오겠다, 사겠다, 바쁘겠다

[제약 정보]

①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추측하거나 추정하는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가 1인칭인 경우 자신에 대한 추측의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

예) 저는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겠어요**. (x)
저는 1등을 해서 기분이 **좋겠어요**. (x)
저는 어제 친구를 만나서 **반가웠겠어요**. (x)
저는 주말에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가서 **재미있겠어요**. (x)

+ 상황에 대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1인칭 주어를 쓸 수 있다.

예) 이렇게 하다가는 (제가) 수업에 **늦겠어요**.
저 사람처럼 운동하면 (나도) **날씬해지겠어요**.

[확장]

① 원인을 나타내는 '-아/어', '-아/어서'와 같이 쓰여 '-아/어 겠다', '-아/어서 -겠다'의 구성으로 쓰기도 한다. 그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곧 그러한 상태나 상황이 될 것임을 나타낸다.

예) 요즘 비가 안 와서 곧 호수가 **마르겠어요**.
날씨가 추워서 감기에 **걸리겠어요**.
부모님이 오셔서 기분이 **좋겠어요**.

+ '죽다, 미치다' 등의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극단적인 감정 상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곧 빠른 시간 안에 그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 친구가 말을 안 해서 답답해 **죽겠어요**.
남자친구와 싸워서 속상해 **미치겠어요**.

② 사람의 능력이나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낸다.

예) 저도 그 정도 요리는 할 수 **있겠어요**.
앤디 씨도 그만큼의 책은 읽을 수 **있겠어요**.
교실에 학생 30명은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어떻게 혼자 **들겠어요**.

③ 곧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임을 추측하여 나타낸다.

예) 비행기가 5분 후에 서울에 **도착하겠습니다**.
내일은 눈이 많이 **오겠습니다**.
다음은 빅뱅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잠시 후에 영화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12시가 **되겠습니다.**

+ 주로 일기예보, 교통 정보, 방송 등에서 다음에 발생하는 행위나 상황에 대해 안내할 때 '-겠-'을 쓴다. 이때 '-겠-'은 추측에 의한 미래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유사 문법]

① '-겠-', '-을 것이-'

-겠-	**-을 것이-**
·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 추측의 근거가 말하는 이의 생각이나 판단에 있을 때 사용한다. 예) 제 생각에 이게 **좋겠어요**. (o) 전에 먹어 봤는데 음식이 **맛있겠어요.** (x) 채소를 끓는 물에 넣으면 바로 **익겠어요**. (x)	· 추측의 근거가 말하는 이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 일반적 사실에 있을 때 사용한다. 예) 제 생각에 이게 **좋을 거예요.** (?) 전에 먹어 봤는데 음식이 **맛있을 거예요**. (o) 채소를 끓는 물에 넣으면 바로 **익을 거예요**. (o)

+ '결혼해서 좋겠어요'는 추측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데 반해, '결혼해서 좋을 거예요'는 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会', '应该'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드라마가 **재미있겠어요**. - 连续剧**会**很有意思.
도서관은 여름에도 **시원하겠어요**. - 图书馆夏天也**会**很凉快.
철수가 많이 **컸겠어요**. - 哲洙**应该**长高了很多.
이렇게 많이 준비하느라 **힘들었겠어요**. - 准备这么多, 肯定很辛苦.

② 용법과 오류

-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경우에는 '-겠-' 앞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쓰이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은 '-었-'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 어제 이사를 하느라 많이 힘들겠어요. (x)
  지금쯤 집에 이미 도착하겠어요. (x)

- 추측을 나타날 때 1인칭 주어가 사용되지 않는데 반해 중국어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서 저는 아주 힘들겠어요. (x)
  오랜만에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저는 기분이 아주 좋겠어요. (x)

3.2.2. '-었-'

-었-[-았-/-였-][선어말 어미] 상황이나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과거에 발생한 상황이나 사건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부차적으로 과거의 상황이나 사건이 이미 완료됨을 나타내거나, 과거의 상황이나 사건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마이클 씨, 빵이 어디에 있어요? 나: 제가 어젯밤에 **먹었어요**. 가: 흐엉 씨,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나: 저는 친구와 같이 쇼핑을 **했어요**. 가: 줄리아 씨, 여름 방학에 어디에 **갔어요**? 나: 남자친구와 같이 제주도에 **갔어요**. 가: 현우 씨, 어제 본 영화가 어땠어요? 나: 영화가 너무 **무서웠어요**. 가: 이 집이 김 선생님 집이에요? 나: 네, 20년 전부터 여기 **살았어요.**
문장예문	· 영수 씨가 지난달에 책을 5권이나 **읽었다**. · 마이클 씨는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 어제 동생이 보낸 편지를 받고 기분이 **좋았어요**. · 제 동생은 어렸을 때 정말 **예뻤어요**. · 왕밍 씨는 2011년에 대학교를 **졸업했다**. · 작년 여름에 서울은 정말 **더웠어요**. . 수지 씨가 늦잠을 자서 눈이 **부었어요**. · 어제 냉장고에 음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 작년에 제가 받은 생일 선물은 **구두였어요**. · 앤디 씨는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 '-었-'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이미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동사에 따라 완료를 나타내거나 과거에 발생한 행위나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됨을 나타내기도 한다. 마지막 담화예문에서 '살았어요'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았다는 지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 외양을 나타내는 일부 동사 '생기다, 닮다, 찌다, 마르다' 등에 '-었-'이 붙은 '생겼다, 닮았다, 쪘다, 말랐다'는 '-었-'이 결합되었지만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의미로 사용된다. '앤디 씨는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는 과거 완료된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입]

(1)
교사: 어제 무엇을 해요?
학생: 공부를 해요.
교사: 어제 공부를 해요. 어제 공부를 **했어요.**

(2)
교사: 수지 씨, 고등학교 때 키가 커요? 작아요?
학생: 키가 작아요.
교사: 키가 작아요. 수지 씨는 고등학교 때 키가 **작았어요**.

+ '-았-'은 (1), (2)와 같이 '어제, 지난 주말'과 같은 가까운 과거에서부터 '작년, 고등학교 때' 등 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그 상황에 대한 상태를 물어보면서 도입할 수 있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임을 분명히 제시하기 위해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현재를 나타내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동일한 내용을 과거로 물어보거나 이야기하면서 현재와 과거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인 경우 '-았-'을 쓴다.

예) 찾- + -았- + -다 → 찾았다　　작- + -았- + -다 → 작았다
좋- + -았- + -다 → 좋았다　　살- + -았- + -다 → 살았다
가- + -았- + -다 → 갔다　　보- + -았- + -다 → 봤다
고프- + -았- + -다 → 고팠다.

+ 2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으'일 때는 '으'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때 '으' 모음은 탈락한다.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가 아닌 경우 '-었-'을 쓴다.

예) 먹- + -었- + -다 → 먹었다　　싫- + -었- + -다 → 싫었다
쓰- + -었- + -다 → 썼다　　주- + -었- + -다 → 주었다
크- + -었- + -다 → 컸다　　예쁘- + -었- + -다 → 예뻤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및 형용사 어간에는 '-였-'을 쓰는데, 흔히 줄여서 '했-'으로 쓴다.

예) 운동하-+-였-+-다 → 운동하였다/운동했다　도착하-+-였-+-다 → 도착하였다/도착했다

①	ㅏ, ㅗ	+ -았-	찾았다, 작았다, 좋았다, 갔다, 봤다
②	ㅏ, ㅗ 이외	+ -었-	먹었다, 싫었다, 썼다, 주었다, 컸다, 예뻤다
③	-하다	+-였-(-했-)	운동했다, 도착했다

④ '이다', '아니다'는 '-었-'을 쓴다.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었-', 받침이 없으면 줄여서 주로 '-였-'이라고 쓴다.

예) 학생이- + -었- + -다 → 학생이었다
학생이 아니- + -었- + -다 → 학생이 아니었다
의사이- + -었- + -다 → 의사이었다/의사였다
의사가 아니- + -었- + -다 → 의사가 아니었다

⑤ 불규칙

듣- 예) 저는 3년 전에 한국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춥- 예) 지난 1월에 한국은 정말 **추웠어요**.
낫- 예) 어제 수지 씨의 감기가 다 **나았어요**.
파랗- 예) 작년 가을 하늘은 정말 **파랬어요**.
부르- 예) 어제 저녁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렀어요**.

[확장]

①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확신을 갖고 당연한 결과를 예상함을 나타낸다. 미래 사건에 대한 동작의 완료를 미리 생각하고 '-었-'을 사용한다.

예) 지금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것을 보니, 오늘도 집에 다 **갔다**.
숙제를 하나도 안 했으니, 너는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다**.
왕밍 씨가 거짓말한 것을 어머니께 들켰으니, 이제 큰일 **났다**.
동생이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온 걸 보니, 나는 이제 오늘 공부는 다 **했다**.

② 과거에 나타난 상황이 계속되지 않고, 다른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았었/었었-'을 쓴다.

예) 작년에 저는 부산에 **살았었어요**.
예전에는 김치가 매워서 못 **먹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뚱뚱했었어요**.
영수 씨는 미도리 씨를 **좋아했었어요**.

+ '작년에 저는 부산에 살았었어요'는 작년에는 부산에 살았으나, 지금은 부산에 살지 않는다는 뜻으로, 상황이 바뀌었음을 나타낸다. '예전에는 김치가 매워서 못 먹었었어요'도 과거에는 김치를 먹지 못했으나, 지금은 먹을 수 있다는 뜻으로, 상태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유사 문법]

① '-었-'(과거), '-어 있-'

-었-(과거)	-어 있-
· '어떤 행위가 끝났음'을 나타낸다.	
· 과거의 동작을 나타낸다. 예) 학생이 의자에 **앉았다**. (학생이 의자에 앉은 사실만을 나타냄.)	· 동작이 완료된 결과 그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예) 학생이 의자에 **앉아 있다**. (학생이 의자에 앉은 후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됨.)
· 결합되는 동사에 따라 상태 지속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예) 수지는 이미 **결혼했다**. (o) 철수는 오늘 청바지를 **입었다.** (o)	· 이때 '-어 있다'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 수지는 이미 **결혼해 있다**. (x) 철수는 오늘 청바지를 **입어 있다.** (x)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동사의 뒤에서는 '了', 형용사, '이다, 아니다' 뒤에서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친구와 같이 영화를 **봤어요**.- 和朋友去看电影了.
주말에 뭘 **했어요**? - 周末做什么了?
철수 씨 말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 听了哲洙的话, 心情可不好了.
어제 만난 사람이 철수 씨 형**이었어요**.- 昨天见到的那个人是哲洙的哥哥.

② 용법과 오류

-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인 경우에는 '-았-', 'ㅏ, ㅗ'가 아닌 경우 '-었-', '-하다'가 붙은 동사 및 형용사 어간에는 '-였-'을 쓰는데, 흔히 줄여서 '-했-'으로 쓰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문법 현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쉽게 오류를 보이게 된다.

예) 키가 작었어요. (x)
키가 많이 크었어요. (x)
날씨가 나뻤다. (x)
숙제를 다 하었어요. (x)

- 동사의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오류를 많이 보인다.

예) 저는 3년 전에 한국 노래를 처음 듣었어요. (x)
지난 1월에 한국은 정말 춥었다. (x)
감기가 다 낫았어요. (x)
작년 가을 하늘은 정말 파랗았어요. (x)

노래를 부르었다. (x)

-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 '이었-', 없으면 주로 '-였-'으로 쓰이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문법 현상이 없으므로 학습자들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예) 철수 씨 책였어요. (x)
어제 본 그 동물이 사자이었어요. (x)

- 형용사나 '이다', '아니다'의 과거시제가 중국어에 대응 표현이 없으므로 학습자들이 '-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 그때 아주 추워요. (x)
어릴 때는 날씬해요. (x)
알고 보니 철수 씨 지갑이에요. (x)

3.2.3. '-으시-'

-으시-[-시-][선어말 어미] 문장 내 주어의 상태나 상황을 **존대함**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으시-: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문장 안에 등장하는 주어를 높여서 주어의 행위나 상태를 존대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수지 씨, 선생님께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나: 기분이 매우 **좋으세요**. 가: 사장님께서 언제 **나가셨습니까**? 나: 1시간 전에 **나가셨습니다**. 가: 줄리아 씨, 어머니께서 키가 **크세요**? 나: 아니요. 선생님은 키가 **작으세요**. 가: 마이클 씨, 할머니께서 어디에 **사세요**? 나: 지금 미국에 **사세요**. 가: 앤디 씨,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나: 저희 아버지는 **의사이십니다**.
문장예문	· 선생님께서 교실 앞에 있는 의자에 **앉으십니다**. · 사장님께서 돈이 **많으신** 것 같아요. · 아버지께서 내일 출장을 **가세요**. · 교수님의 따님이 매우 **예쁘십니다**. · 할아버지께서는 비가 오면 항상 다리가 **아프세요**. · 할머니께서 지금 제 노래를 **들으십니다**. · 집에 손님이 와서 어머니께서 음식을 **만드세요**. · 미도리 씨, 한국에 언제 다시 **오시겠어요**? · 어제 부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 은행에서 나오신 분이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 우리 어머니는 한국 분이 **아니세요**.

+ '-으시-'는 문장에 나타나는 주어를 존대하여 그 주어의 상태나 행위를 높여서 나타낼 때 사용하며, 높임을 받는 대상과 관계가 있는 소유물이나 신체의 일부가 문장의 주어일 경우 이를 높이기 위해 쓴다. '교수님의 따님이 매우 예쁘십니다.'에서 문장의 주어는 '따님'으로 존대할 필요가 없으나, '교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므로 이와 관계된 '따

님'에도 '-으시-'를 붙여 사용한다. 이는 신체의 일부가 문장의 주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할아버지께서는 비가 오면 항상 다리가 아프세요.'에서 주어는 '다리'로 존대하지 않아도 되나, 이는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와 분리할 수 없는 신체의 일부이므로 '-시-'를 사용하여 높임을 나타낸다.

[도입]

(1)
교사: (책 읽는 그림을 보여 주며) 앤디 씨는 무엇을 해요?
학생: 앤디 씨가 책을 읽어요.
교사: 선생님은 지금 무엇을 해요?
학생: 선생님은 책을 읽어요.
교사: 선생님은 책을 읽어요. 선생님께서 책을 **읽으세요**.

(2)
교사: (아이가 요리하는 사진을 보여 주며) 아이가 요리합니다.
(할머니가 요리하는 사진을 보여 주며) 누구입니까?
학생: 할머니입니다.
교사: 할머니가 무엇을 합니까?
학생: 할머니가 요리합니다.
교사: 할머니가 요리합니다. 할머니께서 **요리하십니다**.

+ '-으시-'를 도입할 때는 (1)과 같이 높임을 받지 않는 대상과 높임을 받는 대상을 비교하여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으시-'의 쓰임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2)에서와 같이 높임을 받는 대상이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경우를 분명히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이 좋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시-'를 쓴다.

예) 읽- + -으시- + -다 → 읽으시다　　받- + -으시- + -다 → 받으시다
찾- + -으시- + -다 → 찾으시다　　많- + -으시- + -다 → 많으시다
작- + -으시- + -다 → 작으시다　　좋- + -으시- + -다 → 좋으시다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시-'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시- + -다 → 가시다　　보- + -시- + -다 → 보시다
크- + -시- + -다 → 크시다　　예쁘- + -시- + -다 → 예쁘시다
만들- + -시- + -다 → 만드시다　　살- + -시- + -다 → 사시다

①	받침 o	+-으시-	읽으시다, 받으시다, 찾으시다, 많으시다, 작으시다

②	받침 ×	+-시-	가시다, 보시다, 크시다, 예쁘시다
	ㄹ 받침	+-시- (어간 'ㄹ' 탈락)	만드시다, 사시다

③ '이다, 아니다'도 '-시-'를 쓴다.

예) 선생님이- + -시- + -다 → 선생님이시다　　의사이- + -시- + -다 → 의사이시다
아니- + -시- + -다 → 아니시다

[확장]

① 높임을 나타낼 때 어휘의 형태가 완전히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예) 먹다 → 드시다/잡수시다　　아버지께서 비빔밥을 **드시다/잡수시다**.
아프다 → 편찮으시다　　할머니께서 어제부터 **편찮으시다**.
자다 → 주무시다　　어머니께서 일찍 **주무시다**.
있다 → 계시다　　선생님께서 교실에 학생들과 같이 **계시다**.
죽다 → 돌아가시다　　할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다**.

+ '먹으시다, 자시다'는 쓸 수 없으며, '아프시다, 있으시다'는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프시다'는 문장의 주어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존대하는 주어의 신체 일부를 높일 때 쓴다. '있으시다' 또한 존대하는 대상과 관계된 소유물을 높여서 말할 때 쓴다.

예) 아프다 → 아프시다　　할아버지께서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편찮으세요)
있다 → 있으시다　　선생님은 책이 많이 **있으세요**. (*계세요)

② '주다'는 '주시다'와 '드리다' 두 가지 형태로 높임 표현이 나타난다. 말하는 대상을 높이는 경우 '주시다'를 사용하고, 받는 대상을 높이는 경우에는 '드리다'를 사용한다.

예)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시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도시락을 **주시다**.
제가 선생님께 책을 **드리다**.
영수 씨가 할머니께 꽃을 **드리다**.

③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과 관계된 소유물이 주어 뒤에 올 때 '-으시-'를 쓸 수 있다.

예) 우리 어머니께서는 눈이 **예쁘세요**.
선생님, 아드님이 참 **잘생기셨어요**.
요즘 일은 잘 **되세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읽으십니다**. - 爷爷在看包装哦.
교수님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 教授病得很严重吗?
이분이 저의 할머니**십니다**. - 这位是我的奶奶.

할머니께서는 비가 오면 다리가 **아프셔요**. - 一下雨, 奶奶就腿疼.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는 대응 표현이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으시-'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키가 큽니다. (x)
할머니께서는 요즘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x)

- '먹다, 마시다, 자다, 말하다, 있다' 등의 동사는 높임을 나타낼 때 어휘의 형태가 완전히 변화하여 사용되는데, 중국어에는 이러한 언어 현상이 없기 때문에 '먹다, 마시다, 자다, 말하다, 있다'에 '-으시-'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할아버지께서 과일을 먹으십니다. (x) 할아버지께서 과일을 **잡수십니다**. (o)
할머니, 편히 자십시오. (x) 할머니, 편히 **주무십시오**. (o)
어머니께서 오늘 집에 있으세요. (x) 어머니께서 오늘 집에 **계세요**. (o)

- '드시다', '계시다', '주무시다' 등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의 경우에는 어간에 '-시-'가 쓰이지 않지만 학습자들이 '-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시십니다. (x)
교수님께서 연구실에 계시십니까? (x)
할머니, 일찍 주무시십시오. (x)

3.3. 연결어미

3.3.1. '-거나'

-거나[연결어미] 1) **선택** 2) 어느 것이나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거나1):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둘 이상의 행위나 사실 중 하나를 선택함을 나타낸다.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란히 나열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감기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요? 나: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세요. 가: 부모님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나: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해요. 가: 경치가 좋은 곳으로 여행가고 싶어요. 나: 그러면 설악산으로 **가거나** 제주도로 가세요. 가: 수지 씨는 언제 택시를 타요? 나: **바쁘거나** 짐이 많을 때 택시를 타요. 가: 영철 씨, 왕밍 씨 직업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나: 잘 모르지만 **회사원이거나** 교사인 것 같아요.
문장예문	· 저는 주로 한국 신문을 **읽거나** 한국 드라마를 봐요. · 여름에는 모자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껴요. · 친구가 늦으면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 저는 결혼하면 미국에서 **살거나** 캐나다에서 살고 싶어요. · 학교에서 **가깝거나** 집세가 싼 집이 인기가 많습니다. · 흐엉 씨는 **슬프거나** 외로울 때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요. · 그 가게의 물건들은 모두 가격이 **싸거나** 품질이 좋습니다. · 강아지가 배가 많이 **고팠거나** 욕심이 많은 게 틀림없어요. · 내일은 **흐리거나** 눈이 오겠습니다. · 여기는 **도서관이거나** 박물관일 것입니다.

+ '-거나1)'은 '-거나1)'의 앞과 뒤에 나타난 상태나 행동 모두가 아니라 그중 하나의 형태임

을 나타내거나 하나의 행동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도입]

(1)
교사: 아침에 무엇을 먹어요?
학생: 밥을 먹어요. 빵을 먹어요.
교사: 밥과 빵 다 먹어요?
학생: 아니요, 하나만 먹어요.
교사: 아침에 밥을 먹어요. 아침에 빵을 먹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아침에 밥을 **먹거나** 빵을 먹어요.

(2)
교사: 주말에 무엇을 해요?
학생: 숙제를 해요. 영화를 봐요.
교사: 숙제를 해요. 영화를 봐요. 다 해요?
학생: 아니요, 한 개만 해요.
교사: 주말에 숙제를 해요. 영화를 봐요.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주말에 숙제를 **하거나** 영화를 봐요.

+ '-거나1)'을 도입할 때 학생들에게서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끌어낸 다음, 이것을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것임을 알려 준다.
+ 도입(2)의 경우 두 가지를 모두 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한하기 위해 그림 카드를 제시하는 게 좋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거나'를 쓴다.

예) 앉- + -거나 → 앉거나
오- + -거나 → 오거나
놀- + -거나 → 놀거나
좋- + -거나 → 좋거나
크- + -거나 → 크거나
길- + -거나 → 길거나
줍- + -거나 → 줍거나
다니- + -거나 → 다니거나
만들- + -거나 → 만들거나
넓- + -거나 → 넓거나
예쁘- + -거나 → 예쁘거나
멀- + -거나 → 멀거나

+ 어떤 동사나 형용사가 와도 형태가 변하지 않음에 주의한다.

①	받침 o	+ -거나	앉거나, 줍거나, 놀거나, 만들거나, 좋거나, 넓거나, 길거나, 멀거나
	받침 x	+ -거나	오거나, 다니거나, 크거나, 예쁘거나

② '이다, 아니다'는 '-거나'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거나'라고 쓴다.

예) 가방이- + -거나 → 가방이거나　　꽃이- + -거나 → 꽃이거나
사과이- + -거나 → 사과이거나/사과거나　의자이- + -거나 → 의자이거나/의자거나
아니- + -거나 → 아니거나

+ 'N+-거나'는 격식적인 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보통은 두 가지 다른 내용을 연결할 때 사용하지만 세 가지 이상의 내용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예) 재미있거나 **슬프거나** 감동적인 영화를 좋아해요.
주말에 보통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만화책을 봐요.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찾거나** 친구에게 묻거나 선생님께 여쭈어 봅니다.

② '-거나' 뒤에 '하다'가 나타날 수 있다. '-거나 -거나' 구성으로 쓰일 때는 뒤에 '하다'가 온다.

예) 나는 일요일에 청소를 **하거나** 합니다.
남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거나** 해요.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거나** 해요.
방학 때 고향에 **가거나** 서울에 **남거나** 할 거예요.

[제약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예) 나는 잠이 안 오면 목욕을 **하거나** (나는) 따뜻한 우유를 마셔요. (o)
네가 민수를 **도와주거나** 내가 민수를 도와줘야 한다. (o)

② 과거 '-었-'은 사용하지만, 미래 · 추측의 '-겠-'은 사용하지 않고 현재 시제로 쓴다. 미래의 뜻은 문장의 마지막에 나타낸다.

예) 그 사람은 나를 **좋아했거나** 내 동생을 좋아했을 것이다. (o)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하거나** 내 동생을 좋아했을 것이다. (x)
내일 백화점에 **가거나** 마트에 갈 거예요. (o)
내일 백화점에 **가겠거나** 마트에 갈 거예요. (x)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或者'

예) 부모님께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해요. - 给父母写信**或者**打电话.
주말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어요. - 周末在家看电视**或者**看书.
힘들거나 아플 때 연락 주세요. - 感觉辛苦**或者**不舒服的时候联系我吧.

내일은 **흐리거나** 비가 오겠습니다. - 明天将阴天**或者**下雨.

② 용법과 오류

-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술할 경우 '-거나' 앞에 '-었-'을 사용해야 하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문법 현상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어제 영희를 만나거나 철수를 만났을 거예요. (x)
지난 주말에 친구와 같이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했을 것이다. (x)

-거나2):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주로 '-거나 -거나'로 쓰여, 둘 모두를 선택해도 괜찮거나 상관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이때 '-거나'로 연결되는 앞과 뒤의 내용은 서로 반대되거나 매우 다른 뜻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가: 오늘도 왕밍 씨가 안 왔어요? 나: 왕밍 씨가 **오거나 안 오거나** 미도리 씨는 열심히 공부하세요. 가: 사전이 너무 비싸요. 나: **싸거나 비싸거나** 사전은 필요하니까 꼭 사야 해요. 가: 마이클 씨는 정말 성실해요. 나: 네, 시험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열심히 공부해요. 가: 빨리 준비해라. 학교에 늦겠다. 나: 내가 학교에 **늦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가: 영수 씨는 합격이에요. 나: 저는 영수 씨가 **합격이거나 불합격이거나** 관심 없어요.
문장예문	· 치마를 **입거나** 바지를 **입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 농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다 좋아요. · 음식이 **맛있거나 맛없거나** 상관없이 다 먹을 거예요. · 방이 **크거나 작거나** 저는 그 집에서 살고 싶어요. · 성적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진급을 할 수 없어요. · 그 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왔어요. · 당신이 **불편하거나 말거나** 내 친구를 데리고 올 거예요. · 손님이 **오거나 말거나** 나랑 상관없어요. · 친구가 **기다리거나 말거나** 항상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 **한국 사람이거나 중국 사람이거나** 가리지 않고 회원을 받아요.

+ '-거나2)'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개 이상의 행위나 상태를 제시하여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뒤의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농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다 좋아요'는 농구를 해도 좋고 축구를 해도 좋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 '-거나 말거나' 꼴로 쓰여 '-거나'와 결합하는 상태나 행동에 대해 긍정과 부정을 나열하고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 '당신이 불편하거나 말거나 내 친구를 데리고 올 거예요'는 당신이 불편한 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친구를 데리고 오겠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우리 주말에 같이 밥을 먹어요. 어때요?
학생: 좋아요.
교사: 아니면 같이 영화를 볼까요?
학생: 네, 좋아요.
교사: 밥을 먹을까요? 영화를 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해요. 어떤 걸 할까요?
학생: 다 좋아요.
교사: 주말에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다 좋아요.

(2)
교사: (멋있는 자동차 사진을 보여 주며)
여러분, 이 차가 어때요?
학생: 멋있어요.
교사: 왕밍 씨, 이 차를 사고 싶어요?
학생: 네, 사고 싶어요.
교사: 그런데 이 차가 비싸요. 그래도 괜찮아요?
학생: 네./ 아니요.
교사: 선생님도 이 차를 사고 싶어요. 이 차가 비싸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이 차를 사고 싶어요. 이 차가 싸요. 그것도 괜찮아요. 이 차를 사고 싶어요. 이 차가 **비싸거나 싸거나** 사고 싶어요.

+ '-거나2)'를 도입할 때 학생들에게서 두 가지 이상의 대립되는 상황을 제시한 다음,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모두 괜찮다, 상관없다는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함을 알려 준다.

[형태 정보]
앞의 '-거나1)'을 참고한다.

[확장]
① '-거나'는 '-건'으로 줄여 쓸 수 있다.

예) 내가 아침에 치킨을 **먹거나** 불고기를 **먹거나** 상관하지 마세요.
= 내가 아침에 치킨을 **먹건** 불고기를 **먹건** 상관하지 마세요.
네가 **믿거나 말거나** 그건 모두 사실이야.
= 네가 **믿건 말건** 그건 모두 사실이야.

② '간에, 상관없이' 따위가 뒤따라 뜻을 분명히 한다.

예)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간에 네 마음대로 해라.
영희가 꽃을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나는 꽃을 선물했다.

③ '무엇, 어디, 누구, 언제, 어떻게' 등과 함께 사용하여 어떤 경우에도 상관이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수지 씨는 무엇을 **하거나** 열심히 해요.
줄리아 씨는 어디에 **가거나** 사랑받을 거예요.
앤디 씨가 누구와 **사귀거나**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 이때도 '수지 씨는 무엇을 하거나 간에 열심히 해요, 줄리아 씨는 어디에 가거나 상관없이 사랑받을 거예요'와 같이 '-거나'의 뒤에 '간에, 상관없이'를 사용해서 뜻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不管……还是……'

예)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학교에 갑니다. - **不管**下雨**还是**下雪, 都去学校.
싸거나 **비싸거나** 필요하면 사세요. - **不管**贵**还是**便宜, 需要就买吧.
철수가 **가거나** 영희가 가거나 상관 없다. - **不管**哲洙去**还是**英姬去, 都无所谓.

② 용법과 오류

- 조사 '이나'와 어미 '-거나'의 중국어 대응 표현이 같으므로 학습자들이 이 두 문법을 헷갈려 체언 뒤에도 '-거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사과거나 배를 사다 주세요. (x)
그는 노래거나 운동을 다 잘해요. (x)

3.3.2. '-게'

-게[연결어미] 1) **정도**나 **방식** 2)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게1):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뒤에 오는 상태나 행동의 정도, 또는 방식을 나타낸다. '어떻게' 또는 '얼마나'에 대한 답으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머리를 얼마나 자를까요? 나: 더우니까 **짧게** 잘라 주세요. 가: 수지 씨 어디 아파요? 나: 아니요, 어제 **늦게** 자서 조금 피곤해요. 가: 미도리 씨, 방학에 어떻게 지냈어요? 나: **바쁘게** 지냈어요. 가: 옷을 싸게 사고 싶은데 어디에서 살까요? 나: 동대문 시장에 가면 옷을 **싸게** 살 수 있어요. 가: 민수 씨는 술 마시러 안 가요? 나: 네, 이제 술을 마시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어요.
문장예문	·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 흐엉 씨는 글씨를 **예쁘게** 써요. · 친구가 종이를 **길게** 잘라서 나에게 주었어요. · 주말에는 방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 지나가는 사람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 영수 씨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서 친구들이 많습니다. · 줄리아 씨가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었어요. · 그 강아지는 정말 **귀엽게** 생겼어요. · 왕밍 씨를 목이 **터지게**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 그 사람은 천재라서 **어렵지 않게**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 '-게1)'은 형용사와 일부 동사에 붙어 뒤에 오는 상태나 행위의 의미를 한정한다. '더우니까 짧게 잘라 주세요'나 '친구가 종이를 길게 잘라서 나에게 주었어요'에서는 자르는 행위의 정도나 방식을 나타내고 있고, '흐엉 씨는 글씨를 예쁘게 써요'에서는 글씨를 쓰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게1)은 주로 상태나 행위의 정도 또는 방식을 나타내게 된다.

[도입]

(1)
교사: (글씨를 크게 쓰며) 선생님이 무엇을 해요?
학생: 글자를 써요.
교사: 선생님이 글자를 써요. 글자가 어때요?
학생: 커요.
교사: 네, 선생님이 글자를 써요. 글자가 커요.
선생님이 글자를 **크게** 써요.

(2)
교사: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 모습을 보여 주며)
무엇을 해요?
학생: 머리를 잘라요.
교사: 머리를 잘라요. 머리가 어때요?
학생: 짧아요.
교사: 네, 머리를 잘라요. 얼마나? 짧아요. 게. **짧게** 잘라요.

+ '-게1)'을 도입할 때는 먼저 특정한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그 상태나 행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유도하는 질문을 한다.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 다음에 '-게1)'이 결합하여 얼마나, 혹은 어떻게 뒤의 행동을 하는지 보여줄 때 사용함을 알 수 있게 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게'를 쓴다.

예) 굳- + -게 → 굳게
작- + -게 → 작게
싸- + -게 → 싸게
크- + -게 → 크게
길- + -게 → 길게
터지- + -게 → 터지게
넓- + -게 → 넓게
깨끗하- + -게 → 깨끗하게
느리- + -게 → 느리게
달- + -게 → 달게

+ 어떤 동사나 형용사가 와도 형태가 변하지 않음에 주의한다.

①	받침 o	+ -게	굳게, 작게, 넓게, 길게, 달게
	받침 x	+ -게	터지게, 싸게, 깨끗하게, 크게, 느리게

[제약 정보]
①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그 사람의 딸은 아주 **예뻤게** 생겼어요. (x)
그 사람의 딸은 아주 **예쁘겠게** 생겼어요. (x)
그 사람의 딸은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o)

놀이공원에 가서 **재미있었게** 놀아요. (x)
놀이공원에 가서 **재미있겠게** 놀아요. (x)
놀이공원에 가서 **재미있게** 놀아요. (o)

[확장]

①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 '는', '도', '만' 등과 함께 쓸 수 있다.

예) 그 영화가 **재미있게는** 보여요.
답안을 **짧게도** 썼구나.
그 사람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② 형용사에 결합하여 '여기다, 보다, 생각하다' 등의 동사 앞에서, 어떠하다고 생각하고 느낌을 나타낸다.

예) 그러한 관심은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나를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나는 유미 씨의 남자 친구를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③ '놀랍다, 슬프다' 등의 형용사에 '-게도'의 형태가 결합하여 문장의 제일 앞에서 뒤 절에 대한 느낌, 감상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놀랍게도** 그 사람은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
슬프게도 유미 씨의 할아버지께서 어제 돌아가셨다.
다행스럽게도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유사 문법]

① '-게1)', '-도록'

-게1)	**-도록**
· 정도나 방식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 정도나 방법의 의미일 때는 형용사와 동사 둘 다와 결합한다. 예)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친구가 종이를 **길게** 잘라서 나에게 주었어요.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 정도나 방법의 의미일 때 주로 동사와 결합한다. 예)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쉽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x) 친구가 종이를 **길도록** 잘라서 나에게 주었어요. (x)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어요.
· 시간의 한계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없다. 예) 친구는 12시가 **되게** 오지 않았다. (x) 3년이 **지나게** 그는 소식이 없다. (x)	· 시간의 한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 친구는 12시가 **되도록** 오지 않았다. (o) 3년이 **지나도록** 그는 소식이 없다.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地', '得'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 老师亲切**地**给我们讲解.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 把房间打扫**得**干干净净.
어머니는 음식을 **맛있게** 만듭니다. - 妈妈做饭很好吃.
영희는 글씨를 아주 **예쁘게** 써요. - 英姬写字很漂亮.

② 용법과 오류

- '많게', '조용하게'는 '많이', '조용히'와 쓰임이 다름에도 이를 구별하지 못하여 오류가 나타난다.

예) 옷을 많게 입으세요. (x) 옷을 많이 힙으세요. (o)
떠들지 말고 조용하게 해. (x)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 (o)

-게2):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뒤 절의 행위에 대한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낸다. 앞 절의 상황을 이루기 위해 뒤 절에 조건이나 방법이 나올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왜 머리를 잘라요? 나: 지금은 여름이니까 **덥지 않게** 머리를 잘라요. 가: 교실이 너무 더워요. 나: 그래요? 바람이 **들어오게** 창문을 여세요. 가: 흐엉 씨가 만든 김밥이 무척 맛있어요. 나: 나도 **먹어 보게** 한 개만 주세요. 가: 학생들이 **집중하게** 조용히 해 주십시오. 나: 네, 죄송합니다. 가: 수지 씨, 일찍 왔네요? 나: 네, **늦지 않게** 지하철을 탔어요.
문장예문	· 사진을 **찍게** 모두 모이세요. · 이 선물을 들고 **가게** 잘 포장해 주세요. · 문을 **열게** 조금만 비켜 주세요. · 민수 씨가 범인을 **잡게** 도와주었어요. · 뒤에 오는 사람이 **지나가게** 문을 잡아 주었습니다. · 손님들이 편안히 **지내시게** 배려해야 합니다. ·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 바닥이 미끄러우니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 **춥지 않게** 두꺼운 옷을 입었습니다.

+ '-게2)'는 동사 및 형용사의 뒤에 붙어 뒤에 오는 행위의 목적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 '-게1)'은 '머리를 짧게 잘라요'처럼 '자르다'라는 행위의 정도를 나타내지만, 목적의 의미로 사용된 '-게2)'는 '덥지 않게 머리를 잘라요'처럼 '자르다'라는 행위의 목적을 나타낸다.

[도입]

(1)
교사: (칠판에 글씨를 아주 작게 쓰며)
여러분, 글씨가 보여요?
학생: 아뇨, 안 보여요.
교사: (칠판에 글씨를 아주 크게 쓰며)
여러분, 글씨가 보여요?
학생: 네, 보여요.
교사: 네, 글씨가 잘 보여요. 글씨를 써요.
글씨가 잘 **보이게** 써요.

(2)
교사: 날씨가 추워요.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요.
감기에 걸리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학생: 따뜻한 옷을 입어요.
교사: 네,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따뜻한 옷을 입어요.
감기에 **걸리지 않게** 따뜻한 옷을 입어요.

+ '-게2)'를 도입할 때는 먼저 어떠한 행위나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의 목적이 무엇인지 학습자들이 스스로 대답하도록 유도한 다음, '-게2)'를 제시하여 목적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 반대로 어떠한 목적을 제시하고 그 목적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여 '-게2)'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형태 정보]
앞의 '-게1)'을 참고한다.

[제약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예) 아기가 잘 수 **있게** 모두 조용히 이야기했다. (o)
(내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게** (내가) 공책에 써 놓았다. (o)

②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나는 유미 씨가 옷을 **갈아입었게** 밖으로 나왔어요. (x)
나는 유미 씨가 옷을 **갈아입겠게** 밖으로 나왔어요. (x)
나는 유미 씨가 옷을 **갈아입게** 밖으로 나왔어요. (o)
약을 **먹었게** 물을 주세요. (x)
약을 **먹겠게** 물을 주세요. (x)
약을 **먹게** 물을 주세요. (o)

[확장]
① '-게'를 강조하기 위해서 '-게끔'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 멀리서도 **보이게** 크게 쓰세요.
= 멀리서도 **보이게끔** 크게 쓰세요.
접시를 깨지 **않게** 조심하세요.
= 접시를 깨지 **않게끔** 조심하세요.

②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 '-게'를 종결어미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예) 제가 직접 **이야기하게** 영수 씨 좀 바꿔 주세요.
= 영수 씨 좀 바꿔 주세요. 제가 직접 **이야기하게**.
어머니께서 **기뻐하시게** 열심히 공부합시다.
= 열심히 공부합시다. 어머니께서 **기뻐하시게**.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为了……(而)……'

예) 학생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세요.
- **为了**让学生都能听到, 请大声说.
글씨가 잘 보이게 **크게** 썼어요. - **为了**能看清楚, 字写得很大.
감기에 걸리지 **않게** 두꺼운 옷을 입으세요. - **为了**不感冒, 清穿厚点的衣服吧.
아이가 잠을 잘 **자게** 조용히들 하세요. - **为了**让小孩能睡好觉, 请大家安静一点.

② 용법과 오류
- 목적을 나타내는 '-기 위하여'와 목적을 나타내는 '-게'의 중국어 대응 표현이 모두 '了……(而)……'이므로 학습자들이 헷갈려 하여 오류를 보인다.

예) 학생들이 다 듣기 위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세요. (x)
글씨가 잘 보이기 위해 크게 썼다. (x)
아이가 잠을 잘 자기 위해 조용히들 하세요. (x)

3.3.3. '-고'

-고[연결어미] 1) **나열** 2)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1):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어떤 상태나 행위를 나열함을 나타낸다. 시간의 순서와 관계없이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이나 내용을 대등하게 연결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지금 뭐 해요? 나: 나는 밥을 **먹고** 동생은 숙제를 해요. 가: 앤디 씨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해요? 나: 네,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가: 오늘 날씨가 어때요? 나: 조금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가: 수진 씨의 남자 친구가 어때요? 나: 키가 **크고** 멋있어요. 가: 왕밍 씨와 줄리아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 왕밍 씨는 **중국 사람이고** 줄리아 씨는 미국 사람입니다.
문장예문	· 오늘 나는 원피스를 **입고** 언니는 바지를 입었어요. · 흐엉 씨는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영어도 배웁니다. · 나는 서울에 **살고** 마이클 씨는 뉴욕에 살아요. · 이 의자는 **가볍고** 튼튼합니다. · 오렌지 주스가 **시원하고** 맛있어요. · 학생 식당은 음식이 **싸고** 아주머니들이 친절합니다. · 내 동생은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커요. · 요스케 씨의 가방은 **회색이고** 미도리 씨의 가방은 빨간색입니다. · 제 아버지는 **경찰이셨고** 어머니는 요리사셨습니다. . 저는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입니다.

+ '-고1)'은 동사나 형용사, '명사+이다' 뒤에 붙어 어떤 사실을 시간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하여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나는 밥을 먹는다', '동생은 숙제를 한다'라는 두 개의 사실을 '-고'로 연결해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앤디 씨의 두 가지 상태 '(앤디 씨가) 열이 나다', '(앤디 씨가) 기침을 하다'를 '-고'를 사용하여 '(앤디 씨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다'처럼 대등하게 연결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우리 교실이 어때요?
학생: 넓어요.
교사: 네, 교실이 넓어요. 또 어때요?
학생: 깨끗해요.
교사: 교실이 넓어요. 그리고 교실이 깨끗해요.
교실이 **넓고** 깨끗해요.

(2)
('월요일: 한국어 공부, 운동'을 판서한다.)
교사: 여러분, 월요일에 뭐 해요?
학생: 한국어 공부를 해요.
교사: 그리고 또 뭐 해요?
학생: 운동해요.
교사: 네, 한국어 공부를 해요. 그리고 운동해요.
월요일에 우리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운동해요.

+ '-고1)'을 도입할 때 '교실', '생활' 등의 주제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사실이나 내용을 두 가지 이상 이끌어낸다. 두 가지 사실을 나란히 나열하고 사이에 '-고'를 넣어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도입(2)를 제시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일에 따른 시간표를 제시하면 '-고1)'의 의미를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단, 시간의 순서를 드러나게 제시하면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고2)'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한다.
예)

월	한국어 공부, 운동
화	한국어 공부, 쇼핑
수	독서, 청소
목	한국어 공부, 운동
금	한국어 공부, 빨래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고'를 쓴다.

예) 읽- + -고 → 읽고　　잡- + -고 → 잡고
가- + -고 → 가고　　오- + -고 → 오고
넓- + -고 → 넓고　　어둡- + -고 → 어둡고
빠르- + -고 → 빠르고　　예쁘- + -고 → 예쁘고
살- + -고 → 살고　　길- + -고 → 길고

+ 어떤 동사나 형용사가 와도 형태가 변하지 않음에 주의한다.

①	받침 o	+ -고	읽고, 잡고, 넓고, 어둡고, 살고, 길고
	받침 x	+ -고	가고, 오고, 빠르고, 예쁘고

② '이다, 아니다'는 '-고'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고'라고 쓴다.

예) 연필이- + -고 → 연필이고　　사람이- + -고 → 사람이고
책이- + -고 → 책이고　　우유이- + -고 → 우유이고/우유고
의자이- + -고 → 의자이고/의자고　　아니- + -고 → 아니고

+ 'N+-고'는 격식적인 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을 바꿔 쓸 수 있다.

예) 도서관이 **크고** 조용합니다.
= 도서관이 **조용하고** 큽니다.
나는 피아노를 **치고** 동생은 노래를 부릅니다.
= 동생은 노래를 **부르고** 나는 피아노를 칩니다.

[제약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예) 내 친구는 **착하고** (내 친구는) 똑똑합니다.
나는 책을 **읽고** 앤디 씨는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 가게는 연필도 **팔고** (그 가게는) 공책도 팝니다.
우리 집은 여기**이고** 유미 씨의 집은 저기입니다.

②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은 앞 절과 뒤 절에 모두 쓰일 수 있으나, 주로 뒤 절에만 사용된다.

예) 나는 사과를 **먹고** 수지 씨는 바나나를 먹었어요. (o)
나는 사과를 **먹었고** 수지 씨는 바나나를 먹었어요. (o)
내일 서울의 날씨는 **춥고** 비도 내리겠습니다. (o)
내일 서울의 날씨는 **춥겠고** 비도 내리겠습니다. (o)

[확장]

① 서로 상반되거나 대립되는 사실을 나열할 때 사용한다. 이때는 앞 절과 뒤 절을 바꾸어 쓰지 않는다.

예) **싸고** 비싼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KTX는 1년 내내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갑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② 관용적으로 '-고 또 -도'나 '-고 -은'의 형태로 동사나 일부 형용사를 반복함으로써 그 행위나 상태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예) 나는 너무 피곤해서 **자고 또 자도** 졸린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아주 많이 자도 졸린다.)
줄리아 씨의 고향은 아주 **멀고 먼** 나라입니다.
(줄리아 씨의 고향은 아주 먼 나라입니다.)

[유사 문법]

① '-고1)', '-으며'

고1)	-으며
·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연결함을 나타낸다. 예) 왕밍 씨는 **친절하고** 재미있습니다. 왕밍 씨는 **친절하며** 재미있습니다.	
· 글을 쓸 때와 말할 때 둘 다 사용한다. 예) 선생님, 페이페이 씨의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주부예요.	· 글을 쓸 때 주로 사용한다. 예) 이 작가의 아버지는 **회사원이며** 어머니는 주부이다.
· 과거 사실을 나타낼 때, 앞 절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을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된다. 예) 나는 숙제를 **하고** 친구도 함께 숙제를 했다. (o) 나는 숙제를 **했고** 친구도 함께 숙제를 했다. (o)	· 과거 사실을 나타낼 때, 앞 절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나는 숙제를 **하며** 친구도 함께 숙제를 했다. (x) 나는 숙제를 **했으며** 친구도 함께 숙제를 했다. (o)
· 두 가지 이상의 상태나 행동을 겸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없다. 예) 나는 아침 식사를 **하고** 신문을 본다. (아침 식사를 하는 행위와 신문을 보는 행위에 동시성이 없음)	· 두 가지 이상의 상태나 행동을 겸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나는 아침 식사를 **하며** 신문을 본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시에 신문을 봄)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又', '既……又'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교실이 **밝고** 넓습니다. - 教师**又**亮又宽敞.
식당 음식이 **싸고** 맛있습니다. - 食堂的饭菜**既**便宜**又**好吃.

나는 중국 사람**이고** 마이클 씨는 미국 사람입니다.
- 我是中国人, 迈克是韩国人.
아버지는 의사**이시고** 어머니는 은행원이십니다.
- 我爸爸是医生, 我妈妈是银行职员.
지난 주말에 나는 집에 **있었고** 언니는 영화 보러 갔다.
- 上周末我待在家里, 姐姐去看电影了.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서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연결어미 '-고'를 사용하지 않고 종결어미로 문장을 끝맺는 경우가 있다.

예) 나는 중학생이다. 동생은 초등학생이다.
방이 넓다. 방이 밝다.
나는 공부를 했다. 동생은 텔레비전을 봤다.

- 상태나 행위를 대등하게 나타내는 '-으며'와 '-고'의 중국어 대응 표현이 동일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혼용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주말에 영화를 보며 쇼핑을 한다. (x) ('영화를 보고'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저녁 시간에는 운동을 하며 책을 읽는다. (x) ('운동을 하고'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고2): (동사에 붙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것임을 나타낸다. 시간적으로 먼저 하는 행동과 나중에 하는 행동을 이어 말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라면을 어떻게 끓여요? 나: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으세요. 가: 주말에 뭐 했어요? 나: 청소를 **하고**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명동에서 친구를 **만나고** 옷을 살 거예요. 가: 운동화를 어느 쪽부터 신습니까? 나: 왼쪽을 **신고** 오른쪽을 신습니다. 가: 지금 놀아도 돼요? 나: 먼저 숙제를 **하고** 놀아라.

문장예문	· 저는 밥을 **먹고** 이를 닦습니다. · 저는 밤에 **샤워하고** 잡니다. · 여러분, 책을 **읽고** 문제를 푸세요. · 수업이 **끝나고** 우리 같이 인사동에 갑시다. · 나는 그 영화를 **보고** 울었어요. · 줄리아 씨는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 저는 세계 여행을 **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 우리는 사진을 **찍고** 헤어졌어요. · 수지 씨는 전화를 **받고** 밖에 나갔어요. ·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힙니다.

+ '-고2)'는 동사 뒤에 붙어 먼저 하는 행동과 나중에 하는 행동을 순서대로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위 예문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으세요'에서 앞 절과 뒤 절은 시간의 선후 관계로 연결된 것으로, 앞 절의 물을 끓이는 행위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뒤 절의 라면을 넣는 행위가 이어진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요. 옷을 입어요.
티셔츠를 먼저 입어요? 바지를 먼저 입어요?
학생1: 티셔츠를 입어요. 바지를 입어요.
학생2: 바지를 입어요. 티셔츠를 입어요.
교사: 앤디 씨는 티셔츠를 입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지를 입어요. 티셔츠를 **입고** 바지를 입어요.
줄리아 씨는 바지를 입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티셔츠를 입어요. 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어요.

(2)
교사: (손을 씻는 그림, 밥을 먹는 그림을 보여 주며)
손을 씻어요. 밥을 먹어요. 무엇을 먼저 해요?
학생: 손을 씻어요.
교사: 다음에 무엇을 해요?
학생: 밥을 먹어요.
교사: (그림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손을 씻는 그림 옆에 ①, 밥을 먹는 그림 옆에 ②라고 번호를 쓴다.)
네, 손을 씻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요.
손을 **씻고** 밥을 먹어요.

+ '-고2)'를 도입할 때 두 가지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먼저 하는 행동과 나중에 하는

행동을 구분하도록 한다. 그리고 '먼저 하는 행동 + -고 + 나중에 하는 행동'의 순서를 보여 주고 이해를 돕는다.

예)

티셔츠를 입어요 바지를 입어요 손을 씻어요	+	-고	+	바지를 입어요 티셔츠를 입어요 밥을 먹어요

[형태 정보]

앞의 '-고1)'을 참고하되, 동사와만 결합하므로 이에 주의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을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

예) 나는 옷을 **갈아입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먼저 옷을 갈아입었다. 나중에 텔레비전을 켰다.)
≠ 나는 텔레비전을 **켜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먼저 텔레비전을 켰다. 나중에 옷을 갈아입었다.)
오빠는 시험에 **떨어지고** 술을 마셨어요.
(먼저 시험에 떨어졌다. 나중에 술을 마셨다.)
≠ 오빠는 술을 **마시고** 시험에 떨어졌어요.
(먼저 술을 마셨다. 나중에 시험에 떨어졌다.)

[제약 정보]

① 형용사, '이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형용사나 '이다'와 결합하면 나열의 의미인 '-고1)'로 해석된다.

예) 나는 **슬프고** 울었다. (x)
수지 씨의 남자 친구는 **의사이고** 출장을 갔다. (x)
이 책은 내 책이 **아니고** 왕밍 씨의 책이다. ('-고1)'의 의미)

②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같아야 한다.

예) 나는 옷을 **벗고** 앤디 씨는 욕실에 들어갔다. (x)
나는 옷을 **벗고** (나는) 욕실에 들어갔다. (o)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앤디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x)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o)

③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은 뒤 절에서만 나타낸다. 앞 절에 '-었-'과 '-겠-'이 사용되면 나열의 의미인 '-고1)'로 해석된다.

예) 나는 숙제를 **했고** 컴퓨터 게임을 했다. ('-고1)'의 의미)
나는 숙제를 **하고** 컴퓨터 게임을 했다. (o)

나는 숙제를 **하겠고** 컴퓨터 게임을 하겠다. ('-고1)'의 의미)
나는 숙제를 **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겠다. (o)
나는 청소를 **끝냈고** 텔레비전을 봤다. ('-고1)'의 의미)
나는 청소를 **끝내고** 텔레비전을 봤다. (o)
나는 청소를 **끝내겠고** 텔레비전을 보겠다. ('-고1)'의 의미)
나는 청소를 **끝내고** 텔레비전을 보겠다. (o)

[확장]

① '입다, 쓰다, 신다' 등의 동사, '타다, 들다, 잡다' 등 동작의 완료성이 있는 동사와 결합하여, 앞 절의 행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뒤의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 여름에는 모자를 **쓰고** 밖에 나가요.
등산을 할 때 운동화를 **신고** 오세요.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요.
이 줄을 **잡고** 걸으세요.

②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우리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세요.
오늘 하루 종일 비를 **맞고** 다녔어요.

③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임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글을 **읽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④ 부정 표현과 어울려 사용하면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앞 절의 행동이나 결과가 뒤 절에 그대로 지속됨을 나타낸다.

예)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 (순서)
아침을 **먹지 않고** 학교에 갔다. ('안 먹은 채로'의 뜻)
아침을 **안 먹고** 학교에 갔다. ('안 먹은 채로'의 뜻)

[유사 문법]

① '-고2)', '-어서2)'

-고2)	**-어서2)**
· 행동의 시간적 순서를 나타낸다.	
· 단순히 행동의 시간적 순서를 나타낸다. 예) 영수는 친구를 **만나고** 학교에 갔다. (동작의 시간 순서만 나타냄. 영수가 친구와 만난 후 혼자 학교에 갔다는 의미) 수지는 학교에 **가고** 공부를 했어요. (x) 버스에서 **내리고** 지하철을 탔어요. (x)	· 행동의 순서를 나타내되, 두 행동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 영수는 친구를 **만나서** 학교에 갔다. (친구를 만난 후 친구와 같이 학교에 갔다는 의미) 수지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o)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를 했어요. (x)	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탔어요. (o)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했어요. (o)

② '-고2)', '-으면서'

-고2)	**-으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 앞의 동작이 먼저 시작되고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뒤의 동작도 시작되어 일정 부분 두 동작이 겹치는 것을 말한다. 예) 비를 **맞고 다니면** 감기에 걸려요. ('비를 맞는다' + '그 상태 그대로 비가 그쳐도 길을 다닌다'의 의미)	· 두 동작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 시점에서 상태를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예) 비를 **맞으면서 다니면** 감기에 걸려요. ('비를 맞는다' + '동시에 길을 다닌다'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先).....然后.....', '(之)后', '了'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숙제를 **하고** 텔레비전을 봐. - **先**做作业, **然后**看电视吧.
학교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강의실로 갑니다. - 在学校食堂吃饭，**然后**去教室.
왕단 씨는 **졸업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 王丹你毕业**后**要回中国吗?
오빠는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갔다. - 哥哥接**了**电话就出去了.
수업이 **끝나고** 남산타워에 갑시다. - 下课去南山塔吧.

② 용법과 오류

- '-고'는 선어말어미 '-었-'과 '-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지만 중국어 대응 표현은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나는 밥을 먹었고 학교에 갔다. (x)
내일 일을 끝내겠고 친구를 만날 거예요. (x)

- 선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서'와 '-고'의 대응 표현이 중국어에서 동일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두 문법 항목을 혼용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아침에 일어나고 운동을 했다. (x)
친구를 만나고 영화를 봤어요. (x)
밥을 먹어서 학교에 갔어요. (x)
영화를 봐서 기숙사로 돌아갔다. (x)

3.3.4. '-는데1'

-는데[-은데/-ㄴ데][연결어미] 1) **배경이나 상황 제시** 2)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는데1):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 에 붙어) 뒤 절의 사실에 대해 앞 절이 배경이 되거나 상관되는 상황으로 제시됨을 나타낸다. 뒤 절에서 서술하거나 질문하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에 앞서서 관련 배경이나 상황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지금 마트에 **가는데** 무엇을 사올까요? 나: 과자와 맥주를 사 오세요. 가: 이 치마를 어제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나: 그래요? 그럼 가게에 가서 환불하세요. 가: 학교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어요? 나: '맛나 식당'이 **괜찮은데** 거기에 가 보세요. 가: 배가 **고픈데** 밥 먹으러 갑시다. 나: 네, 좋아요. 가: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 제 **친구인데** 지금 미국에 있어요.
문장예문	·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 눈을 감아 버렸어요. · 저는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 비가 **오는데** 택시를 탑시다. · 인사동에 **갔는데** 한국의 전통 물건이 많이 있었어요. · **심심한데** 같이 영화를 보러 갈래요? · 영수 씨는 혼자 **사는데** 매일 청소를 해서 방이 깨끗합니다. · 저는 잡채를 잘 **만드는데** 무엇을 잘 만드세요? · **추운데** 창문을 닫을까요? · 얼굴이 **하얀데**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 줄리아 씨는 아직 **학생인데** 다음 달에 졸업할 거예요.

+ '-는데1)'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앞서 그 배경이나 상황 등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무엇을 사올까요?'처럼 무언가 사올 것이나 부탁할 것이 있느냐고 물을 때, 이 질문에 앞서서 관련 상황이 되는 '마트에 가다'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도입]

(1)
교사: 오늘 날씨가 어때요?
학생: 좋아요.
교사: 날씨가 좋아요. 공원에 갈까요?
날씨가 **좋은데** 공원에 갈까요?
학생: 좋아요. 공원에 가요.

(2)
교사: 유미 씨는 지난주에 뭐 했어요?
학생: 저는 명동에 갔어요.
교사: 어땠어요?
학생: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교사: 명동에 갔어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명동에 **갔는데**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 '-는데1)'을 도입할 때 뒤 절의 배경이 되는 어떠한 상황, 즉 공원에 가기 위한 관련 상황이 되는 좋은 날씨를 먼저 제시하고 뒤 절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것을 알려 준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는데'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먹- + -는데 → 먹는데
잡- + -는데 → 잡는데
가- + -는데 → 가는데
기다리- + -는데 → 기다리는데
살- + -는데 → 사는데
읽- + -는데 → 읽는데
남- + -는데 → 남는데
쓰- + -는데 → 쓰는데
공부하- + -는데 → 공부하는데
밀- + -는데 → 미는데

+ '있다, 없다'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는데'가 결합한다.

②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데'를 쓴다.

예) 좋- + -은데 → 좋은데
작- + -은데 → 작은데
낮- + -은데 → 낮은데
높- + -은데 → 높은데
많- + -은데 → 많은데
넓- + -은데 → 넓은데

③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ㄴ데'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크- + -ㄴ데 → 큰데
싸- + -ㄴ데 → 싼데

아프- + -ㄴ데 → 아픈데　　바쁘- + -ㄴ데 → 바쁜데
멀- + -ㄴ데 → 먼데　　힘들- + -ㄴ데 → 힘든데

+ '-는데'는 동사, 형용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다른 받침과 달리 '-은데'가 아니라 '-ㄴ데'가 결합한다.

①	동사	받침 o	+ -는데	먹는데, 읽는데, 잡는데, 남는데
		받침 x		가는데, 쓰는데, 기다리는데, 공부하는데
		ㄹ 받침	+ -는데 (어간 'ㄹ' 탈락)	사는데, 미는데
②	형용사	받침 o	+ -은데	좋은데, 높은데, 작은데, 많은데, 낮은데, 넓은데
③	형용사	받침 x	+ -ㄴ데	큰데, 싼데, 아픈데, 바쁜데
		ㄹ 받침	+ -ㄴ데 (어간 'ㄹ' 탈락)	먼데, 힘든데

④ '이다, 아니다'는 '-ㄴ데'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ㄴ데'라고 쓴다.

예) 책이- + -ㄴ데 → 책인데　　방이- + -ㄴ데 → 가방인데
사과이- + -ㄴ데 → 사과인데/사관데　　의자이- + -ㄴ데 → 의자인데
지우개이- + -ㄴ데 → 지우개인데/지우갠데　　아니- + -ㄴ데 → 아닌데

+ 'N+-ㄴ데'는 격식적인 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⑤ '있다, 없다'는 형용사이지만, 동사와 같이 '-는데'를 붙여 사용한다.

예) 있- + -는데 → 있는데　　없- + -는데 → 없는데
재미있- + -는데 → 재미있는데　　맛없- + -는데 → 맛없는데

⑥ 불규칙

맵-　예) 김치가 **매운데** 먹어 볼래요?
빨갛-　예) 얼굴이 **빨간데** 감기에 걸린 거 아니에요?

[확장]

① 주로 질문이나 요청, 제안, 명령을 하기 전에 그 이유나 근거를 말할 때 사용한다.

예) 건강도 좋지 **않은데**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말고 쉬세요.
비가 많이 **오는데** 지하철을 타고 갑시다.
오늘 제 **생일인데**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답답한데 밖으로 나갑시다.

+ 이때 뒤 절에는 주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쓴다.

② '-는데야'와 같은 의미로, 어떤 상태나 행동을 강조하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아무리 화를 내도 듣지 **않는데** 어쩌겠어요.
여자 친구가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도와줘야지.
방법이 **없는데** 어쩌겠어요.
무조건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 이때 앞 절의 내용은 말하는 사람이 판단할 때 바람직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뒤 절에는 주로 '어쩌겠느냐, 어떻게 하느냐'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③ '다시 말하다, 다시 설명하다, 거듭 덧붙이다' 등과 결합하여 '-거니와'와 같은 의미로 뒤의 사실과 상관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함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다시 **말하는데**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다시 **설명하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규칙입니다.
거듭 **덧붙이는데** 내일은 절대로 늦게 오면 안 됩니다.

[유사 문법]

① '-는데1)', '-으니까1)'

-는데1)	**-으니까1)**
· 질문, 요청, 제안, 명령을 하기 위한 이유나 근거를 나타낸다.	
· 이유나 근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배경 설명을 통해 듣는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으니까'보다 더 부드러운 권유를 나타낸다. 예) 날씨가 **좋은데** 공원에 갑시다. (공원에 가자고 하는 권유를 꺼낸 배경 설명, 부드러운 권유)	·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제안이나 명령의 직접적인 이유로 사용된다. 예)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에 갑시다. (공원에 가자고 하는 이유를 강조, 다소 딱딱하고 강한 권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한국어를 배운 지 1년이 되어 **가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 学习韩国语已有一年, 觉得很有意思.
이 사람은 저의 형**인데** 중국에 있어요. - 这个人是我的哥哥, 现在中国.
마트에 **가는데** 같이 갈래요? - 我现在去超市, 你要一起去吗?
지은이는 저의 한국 친구**인데** 키가 크고 예뻐요.
- 知恩是我的韩国朋友, 个子高又漂亮.

② 용법과 오류

- '-는데'는 질문이나 요청, 제안, 명령을 하기 전에 그 이유나 근거를 말할 때 사용되는데,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서'와 혼용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몸도 좋지 않아서 집에서 쉬세요. (x)
  비가 많이 와서 버스를 타고 갑시다. (x)
  힘들어서 좀 쉴까요? (x)
  배가 아팠는데 학교에 못 갔어요. (x)

-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제안이나 명령의 직접적인 이유를 나타내는 '-으니까'와 혼용하여 '-는데'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으니까'를 사용함으로 딱딱하고 강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예)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 봅시다.
  날씨가 좋으니까 소풍 갑시다.

-는데2):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 에 붙어) 앞 절의 내용과 다른 상황이나 결과가 뒤 절에 이어짐을 나타낸다. 대조되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왕밍 씨는 김치를 잘 먹어요? 나: 네, 처음에는 잘 못 **먹었는데** 지금은 잘 먹어요. 가: 민수 씨는 축구를 좋아해요? 나: 네, 축구를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해요. 가: 공원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나: 낮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밤에는 적어요. 가: 가방이 어때요? 나: **예쁜데** 너무 비싸요. 가: 두 사람 다 학생이에요? 나: 아니요, 저는 **학생인데** 제 친구는 회사원이에요.
문장예문	· 나는 손을 잘 **씻는데** 동생은 잘 씻지 않아요. · 줄리아 씨는 춤은 잘 **추는데** 노래는 잘 못 불러요. · 읽기 시험은 100점을 **받았는데** 쓰기 시험은 60점을 받았어요. · 마이클 씨는 매일 열심히 **공부하는데** 앤디 씨는 매일 놀아요. · 흐엉 씨는 언니는 **있는데** 여동생은 없어요. · 우리 회사는 일은 **많은데** 월급은 적습니다.

	· 지금은 **바쁜데** 오후에는 한가해요. · 방은 **추운데** 거실은 따뜻해요. · 미도리 씨는 **외국인인데** 한국어를 잘해요. · 서울은 지금 **여름인데** 제 고향은 겨울입니다.

+ '-는데2)'는 '처음에 김치를 잘 못 먹었다, 지금은 잘 먹는다', '낮에는 사람들이 많다, 밤에는 사람들이 적다'와 같이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 사실을 연결하여 말할 때 사용한다.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도입]

(1)
교사: 왕밍 씨는 중국어를 잘해요?
학생: 네, 잘해요.
교사: 선생님은 중국어를 잘해요?
학생: 아니요.
교사: 네, 왕밍 씨는 중국어를 잘해요. 선생님은 중국어를 못해요. 왕밍 씨는 중국어를 **잘하는데** 선생님은 중국어를 못해요.

(2)
교사: (키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의 사진을 보여 주며) 누가 키가 커요?
학생: 형이 키가 커요.
교사: 누가 키가 작아요?
학생: 동생이 키가 작아요.
교사: 네, 형은 키가 커요. 동생은 키가 작아요. 형은 키가 **큰데** 동생은 키가 작아요.

+ '-는데2)'를 도입할 때 먼저 대조되는 두 상황을 제시한 다음, 두 상황을 이어서 말할 때 '-는데2)'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필요한 경우, '↔' 기호를 통해 앞 절과 뒤 절이 서로 대조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판서한다.

[형태 정보]
앞의 '-는데1)'을 참고한다.

[확장]
① '-는데'에 조사 '도'가 결합하여 그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예) 나는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 나는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음'을 강조)

나는 밥을 잘 **먹는데** 살이 찌지 않아요.

= 나는 밥을 잘 먹는데도 살이 찌지 않아요. ('밥을 잘 먹음'을 강조)

[유사 문법]

① '-는데2)', '-지만'

-는데2)	**-지만**
· 앞의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이야기를 이음을 나타낸다.	
· 앞 절은 뒤 절의 배경 상황이 되며 대립되는 배경 상황 제시의 의미를 가진다. 예) 영수 씨는 농구를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해요.	· 앞 절과 뒤 절의 내용이 대등하며 대립의 의미를 가진다. 예) 영수 씨는 농구를 **좋아하지만** 민수 씨는 축구를 좋아해요.
· 비교적 중립적 연결 기능을 담당하는 연결 어미로서 '-지만'보다 '대립'의 의미가 약하다. 따라서 뒤 절이 생략되면 대립의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예)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시험이 취소됐어요./ 시험 문제가 잘못 나왔어요.....)	· '대립'의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는 연결 어미로서 뒤 절이 생략되어도 대립되는 결과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예)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但', '但是', '可是', '然而'

예) 언니는 키가 **큰데** 동생은 키가 작아요. - 姐个子高, **但是**妹妹个子矮.

집이 깨끗하고 **좋은데** 회사에서 너무 멀어요.

- 房子又干净友好, **但里**公司太远了.

마이클 씨는 미국 사람**인데** 한국어를 아주 잘해요.

- 迈克是美国人, **但是**韩国语说得很好.

점심을 많이 **먹었는데** 또 배가 고파요. - 午饭吃了很多, **可是**又觉得饿了.

예전에는 많이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 过去很喜欢, **然而**现在不那么喜欢了.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는 'ㄹ'이 탈락되고 '-는데', 'ㄹ'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는 'ㄹ'이 탈락되고 '-ㄴ데'가 결합되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문법 현상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집이 멀은데 걸어서 다녀요. (x)
동생이 울는데 형이 양보를 안 해요. (x)

-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상황을 기술할 경우에는 동사, 형용사 모두 '-었-'에 '-는데'가 결합되어 쓰지만 학습자들이 형용사 뒤에 '-었은데'를 사용하거나 '-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동사 뒤에 '-ㄴ데, -은데'를 과거시제로 잘못 인식하고 사용하거나 '-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어제는 날씨가 좋은데 오늘은 흐렸다. (x)
어릴 때는 날씬했은데 지금은 뚱뚱해요. (x)
눈이 완데 춥지 않다. (x)
어제는 제시간에 도착하는데 오늘은 많이 늦었어요. (x)

- 대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지만'과 '-는데'의 중국어 대응 표현이 동일하므로 혼용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밤이 깊었지만 아직까지 안 자고 뭐 해? (x)

-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쓸 수 없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힘든데 계속합시다. (x)
형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 너는 열심히 해라. (x)

3.3.5. '-다가'

-다가[연결어미] 어떠한 행위나 상태가 중단되고 다른 행위나 상태로 **전환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다가: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어떠한 행위나 상태가 중단되고 다른 행위나 상태로 바뀜을 나타낸다.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 그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집에서 책을 **읽다가** 피곤해서 잤어요. 가: 어제 본 영화는 재미있었어요? 나: 아니요, 너무 재미없어서 **보다가** 나왔어요. 가: 오늘 한국 날씨는 어땠어요? 나: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개었어요. 가: 아직 새벽인데 왜 벌써 일어났어요? 나: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꿨어요. 가: 왕밍 씨, 이 커피 다 마신 거예요? 나: 아니요, 커피를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문장예문	·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 조금 전까지 비가 **오다가** 지금은 눈이 온다. . 줄리아 씨가 과일을 **깎다가** 손을 다쳤어요. .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 교실이 **조용하다가** 다시 시끄러워졌다. . 남자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울었어요. · 저는 기숙사에서 **살다가** 지난주에 하숙집으로 이사했습니다. .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 산에 **올라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쉬고 있습니다. · 아침에는 **춥다가** 오후에는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 '-다가'는 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 뒤에 붙어 앞 절의 행위나 상태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고 진행되는 도중에 뒤 절의 다른 행위로 바뀌거나, 뒤 절의 행위가 추가로 끼어듦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책을 읽다', '영화를 보다'와 같은 앞 절의 행동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이 중지되고, 뒤 절의 '자다', '나오다'와 같은 행동으로

바뀔 때 '-다가'를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다가'는 앞 절의 행동이 계속되면서 추가로 뒤 절의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꿨어요'에서 '잠을 자다'와 같은 행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도중에 '무서운 꿈을 꾸다'라는 행동이 추가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초급에서 '-다가'는 주로 동사와의 결합만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도입]

(1)
교사: (숙제를 하는 그림과 잠을 자는 그림을 보여 주며)
무엇을 해요?
학생: 숙제해요./ 잠을 자요.
교사: (잠을 자는 그림에서 다 못한 숙제를 보여 주며)
숙제를 다 했어요?
학생: 아니요.
교사: 네, 숙제를 다 안 했어요. 숙제를 해요. 다 안 해요.
중간에 잠을 자요. 숙제를 **하다가** 잠을 자요.

(2)
교사: (사거리가 나온 간단한 지도를 보여 주며)
병원에 어떻게 가요?
학생: 똑바로 가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요.
교사: 똑바로 가요. (지시봉이나 손으로 사거리를 지나친다.)
그리고 계속 끝까지 가요?
학생: 아니요.
교사: 네, 계속 가지 않아요. 똑바로 가요. 중간에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요.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요.

+ '-다가'를 도입할 때는 두 가지 행동을 학생들에게 노출시키고 먼저 하는 행동을 끝까지 하지 않고 도중에 중단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알려 준다. 그 다음 두 번째 행동을 하게 됨을 알려 준다. 도입(2)와 같이 지도를 통하여 다양한 장소로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게 하여 학생들이 '-다가'를 사용한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다가'를 쓴다.

예) 먹- + -다가 → 먹다가　　입- + -다가 → 입다가
듣- + -다가 → 듣다가　　찾- + -다가 → 찾다가
춥- + -다가 → 춥다가　　어둡- + -다가 → 어둡다가

가- + -다가 → 가다가　　오- + -다가 → 오다가
쉬- + -다가 → 쉬다가　　마시- + -다가 → 마시다가
예쁘- + -다가 → 예쁘다가　　흐리- + -다가 → 흐리다가

+ 어떤 동사나 형용사가 와도 형태가 변하지 않음에 주의한다.

①	받침 o	+ -다가	먹다가, 입다가, 듣다가, 찾다가, 춥다가, 어둡다가
	받침 x	+ -다가	가다가, 오다가, 쉬다가, 마시다가, 예쁘다가, 흐리다가

② '이다, 아니다'는 앞의 명사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다가'를 쓴다.

예) 공원이- + -다가 → 공원이다가　　선생님이- + -다가 → 선생님이다가
의자이- + -다가 → 의자이다가　　아기이- + -다가 → 아기이다가
책상이- + -다가 → 책상이다가　　아니- + -다가 → 아니다가

[문장 구성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할 때에는 앞 절의 상태와 뒤 절의 상태가 대립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예) 하늘이 **맑다가** 갑자기 흐려졌다.
불이 **환하다가** 그만 꺼져 버렸다.
아침에 **춥다가** 따뜻해졌다.
교실이 **조용하다가** 다시 시끄러워졌다.

[제약 정보]

① 일반적으로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예) 영수 씨가 의자에 **앉다가** 유미 씨가 넘어졌어요. (x)
영수 씨가 의자에 **앉다가** (영수 씨가) 넘어졌어요. (o)
나는 숙제를 **하다가** 동생이 전화를 받았어요. (x)
나는 숙제를 **하다가**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o)

+ 그러나,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르고 서술어가 동일한 경우, 행위의 전환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상황의 전환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이 방은 원래 형이 **쓰다가** 요즘은 내가 씁니다.
이 옷은 어머니가 **입으시다가** 요즘은 여동생이 입어요.

② 과거를 나타낼 때 문장의 가장 마지막 서술어를 과거 시제로 바꾼다.

예) 어제 옷을 **입었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x)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지난주에 그만뒀어요. (o)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큰 소리가 나서 깼어요. (o)
어제 옷을 **입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o)

+ '-다가'는 과거의 '-었-'과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었-'과 결합한 '-었다가'는 '-다가'의 과거 시제 표현이 아니고, 앞 절의 행동이 모두 완료된 뒤에 뒤 절의 행동을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었다가'는 '-다가'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예) 옷을 **입었다가** 더워서 벗었어요.
  버스를 **탔다가** 잘못 타서 내렸어요.

③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할 수 없다.

  예) 내일 집에 **가겠다가** 친구를 만나요. (x)
  내일 스케이트를 **타겠다가** 넘어져서 다쳐요. (x)
  내일 길을 **걷겠다가** 고향 생각이 나요. (x)
  내일 **일하겠다가** 잠깐 나가요. (x)

[확장]

① '-다가'는 '-다'로 줄여 쓸 수 있다.

  예) 요리를 **하다가** 소금이 없어서 사 왔어요.
  = 요리를 하다 소금이 없어서 사 왔어요.
  버스에서 **내리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 버스에서 내리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② '-다가 -다가 하다'의 구성으로 쓰여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이 번갈아 일어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이때 주로 대립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인다.

  예) 날씨가 좋지 않아서 버스가 **가다가 멈추다가** 한다.
  = 날씨가 좋지 않아서 버스가 가다 멈추다 한다.
  재미있는 이야기에 우리 모두 **울다가 웃다가** 했습니다.
  = 재미있는 이야기에 우리 모두 울다가 웃다가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밤에 **자다가 깨다가** 했어요.
  = 몸이 아파서 밤에 자다 깨다 했어요.

+ 주로 대립되는 동작을 나타내거나 관계가 있는 동사를 씀으로써 동작이 교대로 반복해서 일어남을 나타낸다.

③ '-다가 -다가'의 구성으로 쓰여 행위의 계속을 나타내어 그 행위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예) 나는 그 일을 **하다가 하다가** 포기하고 말았다.
  = 나는 그 일을 **하다 하다** 포기하고 말았다.
  너 같은 사람은 **보다가 보다가** 처음이다.
  = 너 같은 사람은 **보다 보다** 처음이다.

+ 이때 주로 동일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이때 '-다가 -다가'는 '-다

-다'로 줄여 쓸 수 있다.
+ 어떠한 일을 하고 또 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다른 여러 사람을 보고 또 보는 행위를 계속함을 나타냄으로써 '하고, 보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④ '-다가 못해'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위나 상태가 극에 달해 그것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다가 못해'는 '-다 못해'로 줄여 쓸 수 있다.

예) 배가 **고프다가 못해** 아파요.
= 배가 **고프다 못해** 아파요.
수진 씨는 시끄러운 소리를 **참다가 못해** 화를 냈어요.
= 수진 씨는 시끄러운 소리를 **참다 못해** 화를 냈어요.

+ 각각 '배가 고프다', '시끄러운 소리를 참다'라는 행동이 쌓이고 쌓여 극에 다다른 나머지 '아프다', '화를 내다'의 상황으로 돌입했다는 것을 뜻한다.

⑤ 뒤 절의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이나 근거, 조건을 앞 절에서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 과속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늦잠을 **자다가** 회사에 늦었습니다.
친구를 **놀리다가** 선생님께 혼났어요.
마이클 씨는 **무리하다가**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다.

+ '과속을 하다', '늦잠을 자다', '친구를 놀리다', '무리하다'와 같은 원인의 결과로 '교통사고가 나다', '회사에 늦다', '선생님께 혼나다', '병에 걸리다' 같은 일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 이때 '-다가'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다가는'이나 그 준말인 '-다간', 또는 '-다간'의 줄임말인 '-단'으로 쓸 수 있다.

예) 욕심을 **내다가** 본전마저 잃게 될 수 있다.
= 욕심을 **내다가는** 본전마저 잃게 될 수 있다.
= 욕심을 **내다간** 본전마저 잃게 될 수 있다.
= 욕심을 **내단** 본전마저 잃게 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着.....着', '的时候'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 看书**看着**看**着**睡着了.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 吃饭**的时候**接了个电话.
영화가 재미없어서 **보다가** 나왔어요. - 因为电影没意思, 没看完就出来了.
조금 전까지 비가 **오다가** 지금은 눈이 와요. - 刚才还下雨, 这会儿下雪了.

② 용법과 오류
- '-으면서', '-으며'의 중국어 대응 표현이 '着'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혼용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책을 읽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x)
뛰어 가며 넘어졌어요. (x)
웃다가 말했어요. (x) ('웃으면서'로 표현해야 할 경우)

- '-는데', '-을 때'의 중국어 대응 표현이 '的时候'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혼용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밥을 먹다가 전화가 왔어요. (x)
잠을 자다가 친구가 나를 깨웠어요. (x)
오랜만에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울었어요. (x)
비가 오다가 밖에 나가지 마세요. (x)

-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다가'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서점에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어요.
('가다가'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영화를 보지 않고 재미없어서 나왔어요.
('영화를 보다가'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

- 과거를 나타낼 때에도 '-다가' 앞에는 '-었-'이 쓰이지 않지만 학습자들이 이러한 문법적 현상에 익숙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잠을 잤다가 전화벨 소리에 깼어요. (x)
하숙집에서 살았다가 학교 기숙사로 옮겼어요. (x)

3.3.6. '-어서'

-어서[-아서/-여서][연결어미] 1) **이유**나 **원인** 2)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서1):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 어떤 상태가 왜 그런지,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왜 수업에 늦었어요? 나: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가: 한국에 왜 왔어요? 나: 한국 노래가 **좋아서** 한국에 왔어요. 가: 왜 저쪽으로 안 가요? 나: 길이 **좁아서**요. 가: 그 가수는 노래를 **잘해서** 인기가 많습니까? 나: 아니요, 얼굴이 **잘생겨서** 인기가 많습니다. 가: 왜 왕밍 씨는 한국말을 잘 못해요? 나: 왕밍 씨는 **중국 사람이어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문장예문	· 저는 옷을 많이 **입어서** 좀 불편해요. · 비가 **와서** 우산을 샀어요. · 질문이 **많아서** 대답을 다 못했어요. · 컵이 **깨져서** 깜짝 놀랐어요. ·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하루에 5잔쯤 마십니다. · 그 영화가 너무 **재미있어서** 3번이나 봤어요. · 내일이 친구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어서**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저는 어제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파요. · 김치가 너무 **매워서** 못 먹었어요.

+ '-어서1)'은 동사나 형용사, '명사+이다' 뒤에 붙어 뒤 절의 행위나 상태의 이유, 원인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앞 절에 이유, 원인이 나타나며 뒤 절에는 그로 인한 결과가 나타난다. '왜 늦었어요?'와 같이 주로 '왜?'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사용되며 '차가 막혔다'라고 이유를 말한 다음 '-어서1)'를 사용하고 '늦었다'라는 상황을 제시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 '-어서1)'은 세 번째 담화예문에서 볼 수 있듯 보조사 '-요'가 붙어 종결어미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길이 좁아서요'는 '길이 좁아서 저쪽으로 안 가요'가 줄어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입]

(1)
교사: (아기가 혼자 우는 사진을 보여 주며)
　　왜 아기가 울어요?
학생: 엄마가 없어요. 배가 고파요.
교사: 네,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가 울어요.
　　엄마가 **없어서** 아기가 울어요.
　　아기가 왜 울어요? 엄마가 **없어서** 울어요.
　　아기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울어요.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어요.
　　아기가 왜 울어요? 배가 **고파서** 울어요.

(2)
교사: 왜 병원에 가요?
학생: 머리가 아파요.
교사: 네,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 '-어서1)'를 도입할 때 먼저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이유를 묻는다. 도입(1)에서는 아기가 우는 사진을 보여 주며 사진 앞에 크게 물음표를 그려서 보여 준다. 학생들이 다양하게 대답하는 이유를 물음표 아래 판서하고 사진의 상황과 연결하여 원인-결과가 이어지는 한 문장을 완성하여 아래에 제시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인 경우 '-아서'를 쓴다.

예) 찾- + -아서 → 찾아서　　좁- + -아서 → 좁아서
　　좋- + -아서 → 좋아서　　가- + -아서 → 가서
　　사- + -아서 → 사서　　오- + -아서 → 와서
　　아프- + -아서 → 아파서　　고프- + -아서 → 고파서

+ 어간 음절이 'ㅏ'로 끝나면 '가서, 사서'로 줄여서 쓴다.
+ 어간 음절이 'ㅗ'로 끝나면 줄여서 '와서'와 같이 쓴다.
+ 이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ㅡ'일 때는 'ㅡ'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때 'ㅡ' 모음은 탈락한다.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가 아닌 경우 '-어서'를 쓴다.

예) 먹- + -어서 → 먹어서　　울- + -어서 → 울어서
서- + -어서 → 서서　　두- + -어서 → 두어서/둬서
슬프- + -어서 → 슬퍼서　　기쁘- + -어서 → 기뻐서
막히- + -어서 → 막히어서/막혀서　　마시- + -어서 → 마시어서/마셔서
보내- +- 어서 → 보내어서/보내서　　세- + -어서 → 세어서/세서
있- + -어서 → 있어서　　없- + -어서 → 없어서

+ 어간 음절이 'ㅓ'로 끝나면 '서서'로 줄여서 쓴다.
+ 어간 음절이 'ㅜ'로 끝나면 줄여서 '둬서, 꿔서'와 같이 쓴다.
+ 이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ㅡ'일 때는 'ㅡ'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때 'ㅡ' 모음은 탈락한다.
+ 어간 음절이 'ㅣ'로 끝나면 흔히 줄여서 '막혀서, 마셔서'와 같이 쓴다. 어간 음절이 'ㅐ, ㅔ'로 끝나면 '보내서, 세서'로 줄여서 쓴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및 형용사 어간에는 '-여서'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서'로 쓴다.

예) 하- + -여서 → 하여서/해서　　말하- + -여서 → 말하여서/말해서
공부하- + -여서 → 공부하여서/공부해서　　친절하- + -여서 → 친절하여서/친절해서
사랑하- + -여서 → 사랑하여서/사랑해서　　시작하- + -여서 → 시작하여서/시작해서

①	ㅏ, ㅗ	+ -아서	찾아서, 좁아서, 좋아서, 가서, 와서, 고파서
②	ㅏ, ㅗ 이외	+ -어서	먹어서, 울어서, 서서, 둬서, 슬퍼서, 기뻐서, 막혀서, 마셔서, 보내서, 세서, 있어서, 없어서
③	-하다	+ -여서 (-해서)	해서, 말해서, 공부해서, 친절해서, 사랑해서, 시작해서

④ '이다' 앞의 명사에는 '이어서'가 오는데, 받침이 있으면 '이어서',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여서'라고 쓴다.

예) 책이- + -어서 → 책이어서　　학생이- + -어서 → 학생이어서
종이이- + -어서 → 종이여서　　의사이- + -어서 → 의사여서
남자이- + -어서 → 남자여서　　아니- + -어서 → 아니어서

+ '이다' 앞의 명사는 말할 때 '-어서'보다 '-라서'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책이라서', '학생이라서', '종이라서', '의사라서'처럼 사용할 수 있다.
+ '아니다'는 말할 때 '아니어서'보다 '아니라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⑤ 불규칙

듣-　　예) 그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다 외웠어요.
춥-　　예) 날씨가 **추워서**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붓- 예) 눈이 **부어서** 집에 있어요.
파랗- 예) 하늘이 **파래서** 예뻐요.
부르- 예) 배가 **불러서** 더 못 먹어요.

[제약 정보]
①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생일 선물을 **받았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x)
생일 선물을 **받겠어서** 기분이 좋겠어요. (x)
생일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좋겠어요. (o)
눈이 **내렸어서** 길이 미끄러웠어요. (x)
눈이 **내리겠어서** 길이 미끄럽겠어요. (x)
눈이 **내려서** 길이 미끄럽겠어요. (o)

②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차가 옵시다. (x)
고통사고가 **나서** 경찰차가 오세요. (x)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차가 왔어요. (o)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켭시다. (x)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켜세요. (x)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켰어요. (o)

[확장]
① 큰 의미 차이 없이 '서'를 생략하고 '-어'로 바꿔 사용한다.

예) 길을 **몰라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 길을 몰라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배가 **고파서** 식탁 위에 있는 빵을 다 먹었어요.
= 배가 고파 식탁 위에 있는 빵을 다 먹었어요.

② '반갑다,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등과 함께 관용적인 인사말에 쓰인다.

예) **만나서** 반가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③ 말할 때 뒤 절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을 높이고자 할 때는 '-요'를 붙여 사용한다.

예) 가: 어제 왜 파티에 안 갔어요?
나: **바빠서./ 바빠서요**.
가: 왜 더 안 먹어요?
나: **맛없어서./ 맛없어서요**.

④ 동사에 붙어 앞 절의 행동이 뒤 절의 목적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서** 여기저기 가 보았어요.
교통이 편리한 곳을 **원해서**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 이때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동일해야 하고, 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

⑤ 관용적으로 특정 시기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어느 시기에 이르러'의 뜻을 나타낸다.

예) 20세기에 **들어와서** 환경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사람들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족해졌다.

⑥ 관용적으로, '말하다, 예를 들다' 등의 말과 함께 쓰여 설명함을 나타낸다.

예)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두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자.

+ ⑤, ⑥번의 경우 주로 글을 쓸 때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많이 사용한다.

[유사 문법]

① '-어서1)', '-으니까1)'

<table>
<tr><th>-어서1)</th><th>-으니까1)</th></tr>
<tr><td colspan="2">·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낸다.
예) 옷이 작으니까 입을 수 없어요. (o)
옷이 작아서 입을 수 없어요. (o)</td></tr>
<tr><td>·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을 사용할 수 없다.
예) 시간이 없어서 서두르세요. (x)
시간이 없어서 서두릅시다. (x)</td><td>· 문장의 종결 제약이 없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서두르세요. (o)
시간이 없으니까 서두릅시다. (o)</td></tr>
<tr><td>· 과거를 나타내는 '-었-', 미래, 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꽃을 좋아했어서 꽃을 선물해요. (x)
꽃을 좋아하겠어서 꽃을 선물해요. (x)</td><td>· 과거를 나타내는 '-었-', 미래, 추측을 나타내는 '-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 꽃을 좋아했으니까 꽃을 선물해요. (o)
꽃을 좋아하겠으니까 꽃을 선물해요. (o)</td></tr>
<tr><td>· 보편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연의 현상이나 사물의 변화로 발생한 결과를 설명할 때는 '-어서'를 주로 사용한다.
예)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났다.</td><td>· 주로 주관적인 행동의 동기, 주장이나 추론의 전제, 명령 따위의 근거를 제시하는 이유를 나타낸다.
예) 배가 고프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요.
집에서 책만 읽으니까 친구가 없지.</td></tr>
</table>

· '반갑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반갑다, 고맙다, 감사하다' 등과 어울려 자주 쓰이는 인사말처럼 관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만나서** 반가워요. (o)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o)	· 관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 **만나니까** 반가워요. (x) **도와주시니까** 감사합니다. (x)

② '-어서1)', '-으니까1)', '-기 때문에'

-어서1)	**-으니까1)**	**-기 때문에**
·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낸다.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비가 **왔어서** 여행을 취소했다. (x)	· 과거 '-었-'과 결합한다. 예) 비가 **왔으니까** 여행을 취소했다. (o)	· 과거 '-었-'과 결합한다. 예) 비가 **왔기 때문에** 여행을 취소했다. (o)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비가 **와서** 여행을 취소하자. (x)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있다. 예) 비가 **오니까** 여행을 취소하자. (o)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비가 **오기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자. (x)

+ '만나서 반갑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등과 같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인사말에 '-으니까'나 '-기 때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반갑다,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등과 함께 자주 쓰이는 인사말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기 때문에'가 쓰이기 어렵고, '-어서'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어서1)', '-느라고'

-어서1)	**-느라고**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낸다.	
· 앞 절의 결과로 뒤 절이 일어남을 나타낸다. 예) 첫사랑을 다시 **만나서** 기뻤다. (o)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했어요. (o)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고생했다. (x)	· 앞 절의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뒤의 상황이 일어남을 나타낸다. 예) 첫사랑을 다시 **만나느라고** 기뻤다. (x) 늦게 **일어나느라고** 지각을 했어요. (o) 어려운 문제를 **푸느라고** 고생했다. (o)
· 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와 모두 결합한다. 예) 데이트를 **해서** 기분이 좋아요. (o) 머리가 **길어서** 바람에 자주 날린다. (o) 이것은 내 동생의 **책이어서** 너에게 빌	· 동사와만 결합한다. 예) 데이트를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o) 머리가 **기느라고** 바람에 자주 날린다. (x) 이것은 내 동생의 **책이느라고** 너에게 빌려줄 수 없다. (x)

려줄 수 없다. (o)	
·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달라도 된다. 예) 나는 술을 **마셔서** 운전을 할 수 없어요. (o) 나는 술을 **마셔서** 앤디 씨가 운전을 했어요. (o)	·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예) 나는 술을 **마시느라고** 돈을 다 썼어요. (o) 나는 술을 **마시느라고** 앤디 씨가 돈을 다 썼어요. (x)
· 뒤 절의 내용에 의미적 제약이 없다.	· 주로 어떤 일을 못 하거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이유일 경우 사용한다. 예) 나는 잠을 **자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김장을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因为……所以……', '由于……(因此)……'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앞뒤 문장의 의미에 따라 인과 관계를 나타낸다.

예) 길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 **因为**堵车, **所以**来晚了.
노래를 **잘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 **因为**唱歌很好, **所以**很有人气.
감기에 **걸려서** 학교에 못 갔습니다. - **由于**感冒, 没能去学校.
영화가 **재미있어서** 3번이나 봤다. - 电影很有意思, 看了三遍.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해요. - 运动过多, 有点累.

② 용법과 오류

-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인 경우에는 '-아서', 'ㅏ, ㅗ'가 아닌 경우에는 '-어서'를 사용하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문법 현상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방이 좁어서 불편해요. (x)
너무 많이 먹아서 배가 아파요. (x)

- '명사+이다'에는 '-어서'가 결합하는데, 명사가 받침이 있으면 '-이어서', 받침이 없으면 주로 축약되어 '-여서'라고 쓰지만 학습자들이 이러한 현상에 익숙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겨울여서 날씨가 춥다. (x)
여자 아이이어서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x)

- '-으니까', '-느라고' 등의 중국어 대응 표현이 '-어서'의 대응 표현과 동일하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자주 헷갈려 다음과 오류가 나타난다.

예) 시험 준비를 해서 밤을 새웠다. (x)
비가 와서 내일 떠나세요. (x)
피곤하느라고 샤워도 못하고 잤다. (x)

- '-어서'는 선어말어미 '-었-', '-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지만 중국어의 대응 표현은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비가 왔어서 시원했어요. (x)
내일 일찍 떠나겠어서 일찍 누웠어요. (x)

- 청유문이나 명령문에는 '-어서'를 사용할 수 없지만 중국어 대응 표현은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시간이 없어서 서두르세요. (x)
날씨가 더워서 선풍기를 틉시다. (x)

-어서2): (동사에 붙어)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 앞의 내용이 먼저 일어나고 뒤의 내용이 나중에 일어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아이들이 뭐해요? 나: 거실에 **앉아서** 만화 영화를 봐요. 가: 어제 뭐 했어요? 나: 친구를 **만나서** 같이 쇼핑했어요. 가: 오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나: 네, 내일이 시험이어서요. 가: 은행에 어떻게 갑니까? 나: 이 길을 **건너서** 왼쪽으로 가세요. 가: 무엇을 마실까요? 나: 커피를 **끓여서** 한 잔씩 마셔요.
문장예문	·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습니다. · 저는 돈을 **모아서** 세계여행을 할 거예요. · 영수 씨가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께 보냈어요. · 경찰이 범인을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 과일을 **씻어서** 접시에 담았어요. · 그 사람은 벽에 **기대서** 유미 씨를 기다렸어요. · 여름에는 물을 **끓여서** 마셔야 해요. ·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려요. ·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어요. ·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 '-어서2)'는 동사 뒤에 붙어 어떠한 행동이나 동작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이때 앞 절은 뒤 절의 조건이 되며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습니다.'를 살펴보면 '도서관에 가다'라는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책을 빌리다'라는 행동을 한다. 이 '도서관에 가다'와 '책을 빌리다'는 각각 독립된 행동이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가는 행동 후에 그 행동으로 인해 책을 빌리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도입]

(1)
교사: 수업이 끝나고 어디에 가요?
학생: 집에 가요.
교사: 집에 가요. 그 다음에 집에서 무엇을 해요?
학생: 점심을 먹어요.
교사: 집에 가요. 집에 간 다음에 점심을 먹어요.
왕밍 씨는 집에 **가서** (집에서) 점심을 먹어요.

(2)
교사: (남자가 여자 친구를 떠올리며 꽃가게에서 꽃을 사는 사진을 제시한다.)
남자가 무엇을 해요?
학생: 꽃을 사요.
교사: 꽃을 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학생: 여자 친구에게 줘요.
교사: 먼저 꽃을 사요. 그리고 그 꽃을 여자 친구에게 줘요.
영수가 꽃을 **사서** (그 꽃을) 여자 친구에게 줘요.

+ '-어서2)'를 도입할 때 먼저 어떤 행동을 제시하고 그 행동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묻는다. 학생들의 대답에 따라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이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여 준다. 이때 앞 절의 행동과 뒤 절의 행동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괄호의 내용을 강조하며 주지시킨다. '-고2)'를 미리 학습한 상태이면 두 어미를 비교하여 설명해 준다.

[형태 정보]

앞의 '-어서1)'을 참고하되, 동사와만 결합하므로 이에 주의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동사와만 결합한다. 형용사, '이다'와 결합할 경우 '-어서1'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김 선생님은 **친절해서** 인기가 많다. ('-어서1)'의 의미)
줄리아 씨는 **가수여서** 노래를 잘 부른다. ('-어서1)'의 의미)
그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어서** 부르지 않았다. ('-어서1)'의 의미)

② 앞 절과 뒤 절은 반드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앞 절의 동작이나 행위 없이는 뒤 절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나타낸다.

예) 어제 책을 **사서** 읽었어요. (o)
어제 책을 **사서** 친구를 만났어요. (x)
밥을 **지어서** 동생과 함께 먹었습니다. (o)
밥을 **지어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x)

+ '-어서'로 연결되는 앞 절과 뒤 절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동이어야 한다. '책을 사다'와 '친구를 만나다'처럼 서로 독립된 행동은 '-어서'로 연결될 수 없다. '책을 사다' 뒤에는 '책을 읽다', '책을 선물하다', '책을 주다' 등과 같이, 앞선 행위의 상태나 결과에 따라 이어 나올 수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제약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하고, 주로 뒤 절의 주어는 생략한다.

예) 나는 어제 중국 음식을 **만들어서** 친구가 먹었어요. (x)
나는 어제 중국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먹었어요. (o)
나는 침대에 **누워서** 동생은 책을 읽었어요. (x)
나는 침대에 **누워서** (나는) 책을 읽었어요. (o)

② 과거 '-었-', 미래·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저는 사과를 **씻었어서** 먹었어요. (x)
저는 사과를 **씻겠어서** 먹겠어요. (x)
유미 씨는 과자를 **만들었어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x)
유미 씨는 과자를 **만들겠어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겠어요. (x)

[확장]

① 말할 때 뒤 절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을 높이고자 할 때는 '-요'를 붙여 사용한다.

예) 가: 어디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나: 백화점에 **가서**. / 백화점에 **가서요**.

② 뒤 절의 행위가 일어난 시간,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 요즘에는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요.
어제 회의는 저녁 7시가 **지나서** 끝났어요.
미도리 씨는 **얼마 안 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며칠 못 **가서** 채식을 포기했어요.
그는 3개월에 **걸쳐서** 이 소설을 썼어요.

+ '며칠, 얼마' 등과 '안, 못' 등의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

았음을 나타낸다.

[유사 문법]

① '-어서2)', '-고2)'

-어서2)	-고2)
· 행동의 시간적 순서를 나타낸다.	
· 행동의 순서를 나타내되, 앞 절과 뒤 절의 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 영수는 친구를 **만나서** 학교에 갔다. (친구를 만난 후 친구와 같이 학교에 갔다는 의미) 수지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o) 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탔어요. (o)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했어요. (o)	· 단순히 행동의 시간적 순서를 나타낸다. 예) 영수는 친구를 **만나고** 학교에 갔다. (동작의 시간 순서만 나타냄. 영수가 친구와 만난 후 혼자 학교에 갔다는 의미) 수지는 학교에 **가고** 공부를 했어요. (x) 버스에서 **내리고** 지하철을 탔어요. (x)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를 했어요. (x)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了'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선물을 **사서** 친구에게 보내 주었다. - 买礼物, 寄给朋友了.
기차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 到了火车站打的回家了.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봤어요. - 早上起来看书了.
친구를 **만나서** 같이 영화를 봤어요. - 见了朋友, 一起看电影了.

② 용법과 오류

- '-어서'로 실현된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이 반드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이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어제 영화를 봐서 친구를 만났어요. (x)
숙제를 해서 텔레비전을 봤다. (x)

-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와 '-어서'의 대응 표현이 중국어에서 동일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두 문법 항목을 혼용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아침에 일어나고 운동을 했다. (x)
친구를 만나고 영화를 봤어요. (x)
밥을 먹어서 학교에 갔어요. (x)
도서관에 가고 책을 빌렸다. (x)

- '-어서'는 과거를 나타내는 '-었-', 미래, 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문법 현상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어제 사전을 샀어서 동생에게 부쳤어요. (x)
나는 이번 주말에 음식을 준비하겠어서 친구를 초대하려고 해요. (x)

-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하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제가 숙제를 끝내서 친구가 왔어요. (x)
같이 영화를 봐서 친구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x)

3.3.7. '-으니까'

-으니까[-니까][연결어미] 1) **이유**나 **근거** 2) **발견**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니까1):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앞 절이 뒤 절에 대한 이유나 원인, 판단의 근거임을 나타낸다. 앞 절에 나타난 이유나 원인으로 인해 뒤 절에 그에 따른 결과나 판단이 나오게 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등산을 갈까요, 집에서 영화를 볼까요? 나: 날씨가 **좋으니까** 등산을 갑시다. 가: 이번 주 주말에 만날까요? 나: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 주에 만나요. 가: 어느 식당으로 갈까요? 나: 학생 식당이 싸고 음식이 **맛있으니까** 학생 식당으로 가요. 가: 이 컴퓨터를 사용해도 돼요? 나: 이 컴퓨터는 **고장 났으니까** 저 컴퓨터를 쓰세요. 가: 조용히 하세요. 나: 왜요? 가: 여기는 **도서관이니까** 조용히 해야 해요.
문장예문	· 낮은 의자에 **앉으니까** 칠판이 안 보이지요. · 주말에는 길이 **막히니까** 지하철을 타세요. · 방 안이 **밝으니까** 잠을 잘 수 없어요. · 비행기가 **빠르니까** 비행기로 갑시다. · 수지 씨가 떡볶이를 잘 **만드니까** 수지 씨에게 물어보세요. · 그 빵은 왕밍 씨의 빵이**니까** 먹지 마세요. · 유미 씨의 동생은 성인이 **아니니까** 이 영화를 볼 수 없어요. · 1시간 전에 **출발했으니까** 곧 도착할 거예요. · 매일 똑같은 음악을 **들으니까** 지겨워요. · 그 영화는 엄청 **무서우니까** 보지 마세요.

+ '-으니까1)'는 앞 절의 동작이나 상황이 일어나거나 어떤 상태로 인하여 뒤의 상황이 일어나게 될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낮은 의자에 앉다', '방 안이 밝다'와 같이 이유나 원인이 먼저 제시되면서 뒤 절에 '칠판이 잘 보이지 않다', '잠을 잘 수 없다'와 같은 결과가

따라온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와요. 무엇을 해요?
학생: 청소를 해요. 음식을 만들어요.
교사: 네, 손님이 와요. 그러니까 청소를 해요.
손님이 **오니까** 청소를 해요.

(2)
교사: (영화 포스터나 연극 포스터를 보여주며)
이 영화 봤어요?
학생: 아니요.
교사: 그래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재미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 '-으니까1)'을 도입할 때 학생들이 각자 생각하는 이유나 원인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특정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를 다양하게 끌어내고 그 이유와 '-으니까1)'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유도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니까'를 쓴다.

예) 먹- + -으니까 → 먹으니까　　입- + -으니까 → 입으니까
작- + -으니까 → 작으니까　　좋- + -으니까 → 좋으니까
재미있- + -으니까 → 재미있으니까　　없- + -으니까 → 없으니까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니까'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니까 → 가니까　　주- + -니까 → 주니까
크- + -니까 → 크니까　　예쁘- + -니까 → 예쁘니까
살- + -니까 → 사니까　　만들- + -니까 → 만드니까
멀- + -니까 → 머니까　　길- + -니까 → 기니까

+ '-으니까'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니까'가 결합함에 주의한다.

①	받침 o	+ -으니까	먹으니까, 입으니까, 작으니까, 좋으니까, 재미있으니까, 없으니까
②	받침 x	+ -니까	가니까, 주니까, 크니까, 예쁘니까

	ㄹ 받침	+ -니까 (어간 'ㄹ' 탈락)	사니까, 만드니까, 머니까, 기니까

③ '이다, 아니다'는 '-니까'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니까'라고 쓴다.

예) 책이- + -니까 → 책이니까　　과자이- + -니까 → 과자이니까/과자니까
펜이- + -니까 → 펜이니까　　지우개이- + -니까 → 지우개이니까/지우개니까
가방이- + -니까 → 가방이니까　　아니- + -니까 → 아니니까

+ 'N+-니까'는 격식적인 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④ 불규칙

듣-　예) 그 음악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춥-　예) **추우니까** 창문을 닫아 주세요.
짓-　예) 유미 씨가 밥을 **지으니까** 더 맛있어요.
빨갛-　예) 샤오잉 씨의 얼굴이 **빨가니까** 사과 같아요.

[제약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예) (저는) 키가 **작으니까** (저는)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내릴 수 없어요.
나는 거기에 **없었으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네가) 그런 이상한 옷을 **입으니까** 여자 친구가 싫어하지.
필립 씨가 한국어를 **잘하니까** 나는 필립 씨와 같이 갈 거예요.

② 미래를 나타낼 때 '-겠-'을 쓰지 않고 '-을 테니까'를 쓴다.

예) 내가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하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x)
내가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o)
내일 **춥겠으니까** 코트를 입을 거예요. (x)
내일 **추울 테니까** 코트를 입을 거예요. (o)

③ '반갑다,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등과 함께 관용적으로 쓰이는 인사말에서 이유를 말할 때는 '-으니까'를 쓸 수 없다. '-어서'를 쓴다.

예) **만났으니까** 반가워요. (x)
초대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x)
늦었으니까 미안합니다. (x)

[확장]

①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으니까'에 조사 '는'을 결합해 '-으니까는' 또는 그 준말인 '-으니깐'을 쓰기도 한다.

예)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이야기합시다.
= 오늘은 **바쁘니까는** 내일 이야기합시다.
= 오늘은 **바쁘니깐** 내일 이야기합시다.

② '-으니까'는 '-으니'의 형태로 줄여 사용할 수 있다.

예) 아기가 **자니까** 조용히 하세요.
= 아기가 **자니** 조용히 하세요.
너는 **성실하니까** 꼭 성공할 거야.
= 너는 **성실하니** 꼭 성공할 거야.

[유사 문법]

① '-으니까1)', '-는데1)'

-으니까1)	**-는데1)**
· 이유나 근거를 드러냄을 나타낸다.	
· 앞 절의 내용이 뒤 절의 제안이나 명령의 직접적인 이유로 사용된다. 예)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에 갑시다. (공원에 가자고 하는 이유를 강조, 다소 딱딱하고 강한 권유)	· 이유나 근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배경 설명을 통해 듣는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한다. '-으니까'보다 더 부드러운 권유를 나타낸다. 예) 날씨가 **좋은데** 공원에 갑시다. (공원에 가자고 하는 권유를 꺼낸 배경 설명, 부드러운 권유)

② '-으니까1)', '-어서2)'

-으니까1)	**-어서2)**
·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이유나 원인, 근거를 나타낸다. 예) 배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 문장의 종결 제약이 없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서두르세요. (o) 시간이 **없으니까** 서두릅시다. (o)	·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을 사용할 수 없다. 예) 시간이 **없어서** 서두르세요. (x) 시간이 **없어서** 서두릅시다. (x)
· 앞 절에 과거를 나타내는 '-었-', 미래를 타나내는 '-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 꽃을 **좋아했으니까** 꽃을 선물해요. (o) 꽃을 **좋아하니까** 꽃을 선물해요. (o)	· 앞 절에 과거를 나타내는 '-었-', 미래를 타나내는 '-겠-'을 사용할 수 없다. 예) 꽃을 **좋아했어서** 꽃을 선물해요. (x) 꽃을 **좋아해서** 꽃을 선물해요. (o)

꽃을 **좋아하겠으니까** 꽃을 선물해요. (o)	꽃을 **좋아하겠어서** 꽃을 선물해요. (x)
· 주로 주관적인 행동의 동기, 주장이나 추론의 전제, 명령 따위의 근거를 제시하는 때의 이유를 나타낸다. 예) 배가 **고프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요. 집에서 책만 **읽으니까** 친구가 없지.	· 보편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연의 현상이나 사물의 변화로 발생한 결과를 설명할 때는 '-어서'를 주로 사용한다. 예)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났다.
· 관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 **만나니까** 반가워요. (x) **도와주시니까** 감사합니다. (x)	· '미안하다, 죄송하다, 반갑다, 고맙다, 감사하다' 등과 어울려 자주 쓰이는 인사말처럼 관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만나서** 반가워요. (o)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o)

③ '-으니까1)', '-으므로'

-으니까1)	**-으므로**
·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이유나 원인, 근거를 나타낸다. 예)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꼭 성공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므로** 꼭 성공할 것입니다.	
·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 두루 쓰인다. 예) (친구에게) 넌 공부를 **잘하니까** 상을 받는구나! 그 친구는 열심히 **노력하니까** 한국어 실력이 좋아질 것입니다.	· 일반적인 대화보다는 주로 격식적인 상황이나 글에서 많이 사용한다. 예) 성적이 우수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 친구는 열심히 노력하므로 곧 한국어 실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으니까'는 '요'와 결합하여 종결어미처럼 쓰일 수 있다. 예) 토요일에 제주도에 가요. 주말에는 수업이 **없으니까요**. (o) 영수 씨는 인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니까요**. (o)	· 종결어미처럼 사용할 수 없다. 예) 토요일에 제주도에 가요. 주말에는 수업이 **없으므로요**. (x) 영수 씨는 인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므로요**. (x)
·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을 사용할 수 있다. 예) 너는 많이 **먹었으니까** 먹지 마라. (o) 길이 **막히니까** 지하철을 탑시다. (o)	·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을 사용할 수 없다. 예) 너는 많이 **먹었으므로** 먹지 마라 (x) 길이 **막히므로** 지하철을 탑시다. (x)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으니까'앞에 '-었-'이 결합 될 경우'既然……就……'에 대응됨.

예) 이번 주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만나요. - 这周没有时间, 下周见吧.
주말에는 길이 **막히니까** 지하철을 타세요. - 周末堵车厉害, 坐地铁吧.
방 안이 **밝으니까** 잠을 잘 수 없어요. - 房间太亮, 睡不着觉.
기왕 **왔으니까** 식사하고 가세요. - **既然**来了, 吃了饭再走吧.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으로 끝나면 '-니까'를 쓰고 'ㄹ'이 탈락되고 '-니까'를 쓰지만, 학습자들이 '-으니까'를 쓰는 경우가 있다.

예) 거리가 멀으니까 버스를 탑시다. (x)
남자 친구와 놀으니까 재미있어요. (x)

- 동사, 형용사의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오류를 많이 보인다.

예) 음악을 듣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x)
춥으니까 창문을 닫으세요. (x)
미소를 짓으니까 더 예뻐요. (x)
얼굴이 빨갛으니까 사과 같다. (x)

- 과거를 나타낼 때 '-었-'이 쓰이지만, 학습자들이 '-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 시험에 통과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x)
내가 이미 오니까 걱정 마. (x)

- 유사 문법 '-어서'와의 대치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예) 꽃을 좋아해서 사세요. (x)
만나니까 반가워요. (x)

-으니까2): (동사에 붙어) 앞 절의 내용이 진행된 결과 뒤 절의 내용처럼 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남을 나타낸다. 앞의 행동을 함으로 뒤의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내일 날씨가 어떨까요? 나: 하늘을 **보니까** 맑을 것 같아요. 가: 부산 여행은 어땠어요? 나: 좋았어요.

	부산에 **가니까** 생선회와 매운탕이 아주 싸고 맛있었어요. 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8시였어요. 가: 무슨 음식을 만들어요? 나: 김치찌개요. 어떻게 알았어요? 가: 집에 **들어오니까**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가: 가방이 무겁지 않아요? 나: 네, **들어 보니까** 아주 가벼웠어요.
문장예문	· 아침에 **일어나니까** 강아지가 내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 봄이 **되니까** 꽃이 활짝 피었어요. · 친구 집에 **전화하니까** 친구의 어머니께서 받으셨어요. · 교실에 **들어가니까**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주문한 피자가 왔어요. · 창문을 **여니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 텔레비전을 **틀어 보니까** 좋아하는 가수가 나왔어요. · 김치를 **먹어 보니까** 맵지 않고 맛있었어요. · 한국어를 **배워 보니까** 재미있어요. · 즐겁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 '-으니까2)'는 동사 뒤에 붙어 앞의 행동을 한 결과 뒤의 사실을 발견할 때 사용하는 연결 어미이다. 내가 이미 했던 경험이나 행동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사실을 전하기 위해 그 사실을 알게 된 배경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문장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는 대부분 말하는 사람 자신이 되며 뒤 절은 주로 과거형이 온다. '-으니까1)'과 의미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으니까2)'는 주로 경험, 시도를 나타내는 '-어 보다'와 함께 사용된다.

[도입]

(1)
교사: 지하철을 타 봤어요?
학생: 네.
교사: 어땠어요?
학생: 좋았어요. 편했어요.
교사: 네, 지하철을 타 봤어요. 알게 되었어요. 편했어요.
지하철을 **타 보니까** 편했어요.

(2)

교사: 여러분은 명동에 갔어요?
학생: 네.
교사: 명동이 어때요?
학생: 사람이 많아요.
교사: 네. 명동에 갔어요. 사람이 많아요.
명동에 **가니까** 사람이 많아요.

+ '-으니까2)'를 도입할 때 학생들의 특정한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하여 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한다.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으니까'를 통해 연결하여 제시한다.

[형태 정보]
'-으니까1)'을 참고하되, 동사와만 결합함에 주의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앞 절의 주어는 주로 말하는 사람이고, 뒤 절의 주어는 대부분 앞 절의 주어와 다르다.

예) (내가) 한국 신문을 읽어 **보니까** 어렵지 않았다.
(내가) 창밖을 **보니까** 눈이 오고 있었다.
(내가)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통화 중이었습니다.
(내가) 난타 공연을 직접 **보니까** (내가) 즐거웠어요.

② '-어 보다, -고 보다, -다가 보다'와 결합하여 '-어 보니까, -고 보니까, -다가 보니까'의 형태로 많이 사용한다.

예) 가까이 가 **보니까** 그 집은 아주 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더 좋은 그림 같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내 친구의 형이었습니다.

+ '-어 보다'는 경험, 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러한 경험이나 시도에 따라 뒤 절에 어떠한 발견을 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 '-으니까2)'와 함께 자주 사용된다.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형용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으니까1)'의 의미를 갖는다.

예) 한국이 **추우니까** 옷을 두껍게 입었어요. ('으니까1)'의 의미)
한국에 **도착하니까** 날이 많이 추어요. (o)
서울에 볼 것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으니까1)'의 의미)
서울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o)

② 뒤 절에 주로 현재나 과거시제가 오고 미래는 올 수 없다.

예) 백화점에 **가니까** 세일을 하겠어요. (x)

백화점에 **가니까** 세일을 할 거예요. (x)
백화점에 **가니까** 세일을 해요. (o)
백화점에 **가니까** 세일을 했어요. (o)

③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밖에 **나갔으니까** 비가 오고 있었어요. (x)
밖에 **나가겠으니까** 비가 와요. (x)
회의를 **마쳤으니까** 6시였어요. (x)
회의를 **마치겠으니까** 6시예요. (x)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교실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었다. - 到教室一看，一个人都没有.
김치를 먹어 **보니까** 그렇게 맵지 않았어요. - 尝了泡菜，发现没那么辣.
집에 **도착하니까** 7시였어요. - 到家都7点了.
들어보니까 무겁지 않았다. - 提一提，没觉得重.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 대응 표현이 없고, 앞의 행동을 함으로 뒤의 사실을 발견할 때 사용하므로 선후를 나타내는 어미 '-고'와 헷갈려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인다.

예) 도서관에 가고 사람이 별로 없었다. (x)
하늘을 보고 내일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x)

- 과거를 나타내는 '-었-'과 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사용할 수 없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긴다.

예) 운동장에 갔으니까 사람이 많았어요. (x)
회의를 마치겠으니까 6시예요. (x)

3.3.8. '-으러'

-으러[-러][연결어미] 이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러: (동사에 붙어) 뒤 절에 나오는 이동의 목적을 나타낸다. 앞 절의 행동을 하기 위해 이동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지금 어디에 가요? 나: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요. 가: 유미 씨가 왜 도서관에 갔어요? 나: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어요. 가: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거예요? 나: 단풍을 **보러** 설악산에 갈 거예요. 가: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나: 네, 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가: 수지 씨는 왜 학원에 다녀요? 나: 영어를 **배우러** 학원에 다녀요.
문장예문	· 학생들은 보통 점심을 **먹으러** 학생 식당에 갑니다. ·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가요. · 예쁜 옷을 **사러** 동대문 시장에 갈 거예요. · 고향 친구가 서울로 **놀러** 왔어요. · 컴퓨터 게임을 **하러** 피시방에 왔습니다. · 1년 전 약속을 **지키러** 중국에서 찾아왔어요. · 앤디 씨는 요즘 수영을 **배우러** 다녀요. · 미국에서는 할로윈데이 때 아이들이 사탕을 **얻으러** 다닙니다. · 비를 **피하러** 빈 집에 들어갔습니다. · 내 친구가 이사를 **도와주러** 우리 집에 왔어요.

+ '-으러'는 앞 절이 뒤 절의 목적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이때 뒤 절에는 이동의 의미가 있는 동사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앞 절의 내용은 뒤 절에 나오는 이동에 관한 동사의 목적으로 한정된다.
+ 주로 '-으러 가다/-으러 오다'의 구성으로 많이 쓰인다.

[도입]

(1)
교사: 필립 씨, 왜 한국에 왔어요?
학생: 한국어를 배워요.
교사: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에 왔어요.

(2)
교사: 필립 씨, 수업이 끝나면 어디에 가요?
학생: 도서관에 가요.
교사: 왜 도서관에 가요?
학생: 공부해요.
교사: 공부해요. 도서관에 가요.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요.

+ '-으러'를 도입할 때 먼저 이동에 관련된 동사를 제시하고, 그 이동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가다, 오다, 다니다' 등의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으러'를 사용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노출하고 이해시킨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러'를 쓴다.

예) 먹- + -으러 → 먹으러　　읽- + -으러 → 읽으러
잡- + -으러 → 잡으러　　앉- + -으러 → 앉으러
찾- + -으러 → 찾으러　　참- + -으러 → 참으러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러'를 쓴다.

예) 사- + -러 → 사러　　쓰- + -러 → 쓰러
배우- + -러 → 배우러　　빌리- + -러 → 빌리러
살- + -러 → 살러　　만들- + -러 → 만들러

+ '-으러'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데,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다른 받침과 달리 '-으러'가 아니라 '-러'가 결합한다.

①	받침 o	+ -으러	먹으러, 읽으러, 잡으러, 앉으러, 찾으러, 참으러
②	받침 x ㄹ 받침	+ -러	사러, 쓰러, 배우러, 빌리러, 살러, 만들러

③ 불규칙 동사

듣- 예) 앤디 씨는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돕- 예) 마이클 씨는 나를 **도우러** 왔어요.

짓-　　예) 할아버지께서는 농사를 **지으러** 시골에 내려가셨어요.

[문장 구성 정보]

① 뒤 절에는 이동의 의미가 있는 동사만 함께 사용한다. 이때 이러한 동사는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사용한다.

예)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가요.
쇼핑하러 명동에 왔어요.
과일을 **사러** 마트에 갔어요.
요리를 **배우러** 학원에 다녀요.

+ '가다, 오다, 다니다'와 같은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이들의 합성어인 '다녀가다, 다녀오다. 나가다, 나오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오다, 내려오다' 등의 동사만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약 정보]

① 앞에 '가다, 오다, 다니다' 등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올 수 없다.

예) 나는 부산에 **가러** 기차역에 왔어요. (x)
나는 밖에 **나가러** 갔어요. (x)
줄리아 씨는 친척집에 **오러** 한국에 왔어요. (x)
흐엉 씨는 대학교에 **다니러** 미국에 갔어요. (x)

②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하며 뒤 절의 주어는 흔히 생략해서 쓸 수 있다.

예) 미셸 씨가 숙제를 **하러** 앤디 씨가 도서관에 갔어요. (x)
미셸 씨가 숙제를 **하러** (미셸 씨가) 도서관에 갔어요. (o)
요스케 씨가 축구 경기를 **보러** 미도리 씨가 경기장에 갔어요. (x)
요스케 씨가 축구 경기를 **보러** (요스케 씨가) 경기장에 갔어요. (o)

③ 과거를 나타내는 '-었-', 미래·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예) 수지 씨는 테니스를 **쳤으러** 연습장에 갔어요. (x)
수지 씨는 테니스를 **치겠으러** 연습장에 갈 거예요. (x)
왕밍 씨를 **만났으러** 1층으로 내려왔어요. (x)
왕밍 씨를 **만나겠으러** 1층으로 내려올 거예요. (x)

④ 부정 표현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예) 나는 물고기를 **안 잡으러** 바다에 갔어요. (x)
나는 물고기를 **잡지 않으러** 바다에 갔어요. (x)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가지 않았어요. (o)
저는 돈가스를 **안 먹으러** 식당으로 올라갔어요. (x)

저는 돈가스를 **먹지 않으러** 식당으로 올라갔어요. (x)
저는 돈가스를 **먹으러** 식당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o)

+ 문장의 가장 끝의 동사에 부정 표현을 쓰면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동사의 부정이 아닌, 문장 전체의 부정이 된다.

[유사 문법]
① '-으러', '-으려고'

-으러	-으려고
· 의도나 목적을 나타낸다.	
· 문장의 마지막에 '가다, 오다, 다니다' 등의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만 사용한다. 예) 나는 친구를 **만나러** 명동에 갔어요. (o) 나는 친구를 **만나러** 명동에서 기다려요. (x)	· 뒤 절에 오는 동사의 제약이 없다. 예) 나는 친구를 **만나려고** 명동에 갔어요. (o) 나는 친구를 **만나려고** 명동에서 기다려요. (o)
· 앞에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올 수 없다. 예) 남이섬에 **가러** 한국에 왔어요. (x) 한국대학교에 **오러** 한국에 왔어요. (x)	· 앞에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올 수 있다. 예) 남이섬에 **가려고** 한국에 왔어요. (o) 한국대학교에 **오려고** 한국에 왔어요. (o)
·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이 올 수 있다. 예) 비행기를 **타러** 갑시다. (o) 비행기를 **타러** 가세요. (o)	·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비행기를 **타려고** 갑시다. (x) 비행기를 **타려고** 가세요. (x)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대부분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고 가끔 '为了……(而)……'로 쓰임.

예) 밥 **먹으러** 식당에 가요. - 去食堂吃饭.
단풍을 **보러** 설악산에 갈 거예요. - 打算去雪岳山看枫叶.
박 교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 我来拜见朴教授.
지난 주말에 옷을 **사러** 동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 上周末**为了**买衣服去东大门市场了.

② 용법과 오류
- '-으러'와 '-려고'가 중국어에서 모두 '为了……(而)……'로 실현되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오류가 있다.

예) 친구를 만나러 전화를 했어요. (x)
북경에 가러 북경행 기차를 탔다. (x)

- 'ㄹ' 받침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러'를 사용하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문법 현상이 없기

때문에 '-으러'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마당을 쓸으러 나가요. (x)

- 동사의 불규칙 활용에 익숙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수업을 듣으러 간다. (x)
농사를 짓으러 시골로 내려갔어요. (x)

- '-으러' 앞에 '가다, 오다, 다니다' 등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올 수 없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부산에 가러 기차역으로 갔다. (x)
대학교에 다니러 한국에 왔다. (x)

- 부정 표현에 '-으러'가 쓰일 수 없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그녀를 만나지 않으러 가지 않았어요. (x)
밥을 먹지 않으러 식당에 안 갔어요. (x)

3.3.9. '-으려고1'

-으려고1[-려고1][연결어미]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려고1: (동사에 붙어) 뒤 절의 행동을 하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낸다. 주어가 어떤 의도로 뒤 절의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산에 왜 가요? 나: 나무를 **심으려고** 산에 가요. 가: 우리 반 친구들과 같이 **먹으려고** 빵을 샀어요. 드세요. 나: 와, 맛있겠어요. 가: 왜 운동을 해요? 나: 살을 **빼려고** 운동을 해요. 가: 비행기 표를 **예매하려고** 전화했는데요. 나: 네, 언제 출발하십니까? 가: 유미 씨, 왜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셔요? 나: 잠을 **자지 않으려고** 커피를 마셔요.
문장예문	· 바깥이 너무 시끄러워서 왕밍 씨가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났어요. · 아버지는 요즘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 나는 이번 주말에 친구와 **놀려고** 약속을 했어요. · 아내에게 **주려고** 꽃을 샀어요. · 7시에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춰 두었어요. · 시합에서 **이기려고** 매일 열심히 연습합니다. · 앤디 씨는 숙제를 **하려고** 도서관에 갔어요. · 남자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매일 전화해요. · 민수 씨는 어머니를 **도우려고** 심부름을 했어요. · 나는 선생님의 말을 잊지 **않으려고** 메모했어요.

+ '-으려고1'은 뒤 절의 행동에 대한 의도나 목적을 앞 절에서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나무를 심다, 친구들과 같이 먹다'와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 '산에 가다, 빵을 사다'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한다.

[도입]

(1)
교사: 앤디 씨는 왜 한국어를 배워요?
학생: 대학교에 입학해요.
교사: 대학교에 입학해요. 한국어를 배워요.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한국어를 배워요.

(2)
교사: (백화점으로 가는 여자의 그림을 보여 주며)
오늘 친구의 생일이에요. 어디에 가요?
학생: 백화점에 가요.
교사: 왜 백화점에 가요?
학생: 선물을 사요.
교사: 네, 선물을 사요. 백화점에 가요.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가요.

+ '-으려고1'을 도입할 때 먼저 특정한 상황을 제시한 다음,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된 목적이나 의도를 유추하도록 유도한다. 그 다음 어떠한 행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할 때 '-으려고1'을 사용하여 말할 수 있다고 알려 준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려고'를 쓴다.

예) 먹- + -으려고 → 먹으려고
찾- + -으려고 → 찾으려고
참- + -으려고 → 참으려고
읽- + -으려고 → 읽으려고
찍- + -으려고 → 찍으려고
잡- + -으려고 → 잡으려고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려고'를 쓴다.

예) 가- + -려고 → 가려고
건너- + -려고 → 건너려고
살- + -려고 → 살려고
쓰- + -려고 → 쓰려고
공부하- + -려고 → 공부하려고
만들- + -려고 → 만들려고

+ '-으려고'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데,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다른 받침과 달리 '-으려고'가 아니라 '-려고'가 결합한다.

①	받침 o	+ -으려고	먹으려고, 읽으려고, 찾으려고, 찍으려고, 참으려고, 잡으려고
②	받침 x ㄹ 받침	+ -려고	가려고, 쓰려고, 건너려고, 공부하려고, 살려고, 만들려고

③ 불규칙 동사

듣- 예) 나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앞에 앉았어요.
돕- 예) 수지 씨는 나를 **도우려고** 노력했어요.
짓- 예) 우리 아버지는 집을 **지으려고** 땅을 사셨어요.

[제약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야 하고, 주로 뒤 절의 주어는 생략한다.

예) 유미 씨가 친구를 **만나려고** 영수 씨가 커피숍에 갔어요. (x)
유미 씨가 친구를 **만나려고** (유미 씨가) 커피숍에 갔어요. (o)
나는 수지 씨와 **통화하려고** 민수 씨가 수지 씨의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x)
나는 수지 씨와 **통화하려고** (내가) 수지 씨의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o)

② 과거를 나타내는 '-었-', 미래·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컴퓨터를 **배웠으려고** 학원에 다녀요. (x)
컴퓨터를 **배우겠으려고** 학원에 다닐 거예요. (x)
잠을 **잤으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x)
잠을 **자겠으려고** 침대에 누울 거예요. (x)

③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공부를 **하려고** 집에 일찍 돌아갑시다. (x)
공부를 **하려고** 집에 일찍 돌아가세요. (x)
커피를 **마시려고** 물을 끓입시다. (x)
커피를 **마시려고** 물을 끓이세요. (x)

[확장]

① 말할 때 흔히 '-을려고/-을려구', '-을라고/-을라구'의 형태로 쓰이기도 한다. 글로 쓸 때는 '-으려고'로 써야 한다.

예) 나는 매일 아침 **산책하려고** 공원에 가요. (o)
나는 매일 아침 **산책할려고** 공원에 가요.
나는 매일 아침 **산책할려구** 공원에 가요.
나는 매일 아침 **산책할라고** 공원에 가요.
나는 매일 아침 **산책할라구** 공원에 가요.

② '-으려고 하다'의 꼴로 1) 어떤 일이나 행위를 할 마음, 뜻, 의향이 있음, 2)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거나 어떤 상황이 시작될 것 같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 1)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 곳에 있는 음식을 다 **먹으려고 했어요**.
1) 나는 의사가 **되려고 해요**.
2) 날씨가 **추워지려고 합니다**.
2)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오려고 합니다**.

+ 2)의 뜻으로 사용할 때는 주어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무생물이 주어로 쓰인다. '-으려

하다'라고 사용할 수 있다.

③ '-으려고 들다'의 꼴로 어떤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노력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 수지 씨는 항상 **싸우려고 든다**.
그 강아지는 아무것도 **먹으려 들지** 않았다.

+ 이때 말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으려 들다'라고 사용할 수 있다.

[유사 문법]

① '-으려고', '-으러'

-으려고	**-으러**
· 의도나 목적을 나타낸다.	
· 뒤 절에 오는 동사의 제약이 없다. 예) 나는 친구를 **만나려고** 명동에 갔어요. (o) 나는 친구를 **만나려고** 명동에서 기다려요. (o)	· 문장의 마지막에 '가다, 오다, 다니다' 등의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만 사용한다. 예) 나는 친구를 **만나러** 명동에 갔어요. (o) 나는 친구를 **만나러** 명동에서 기다려요. (x)
· 앞에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올 수 있다. 예) 남이섬에 **가려고** 한국에 왔어요. (o) 한국대학교에 **오려고** 한국에 왔어요. (o)	· 앞에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올 수 없다. 예) 남이섬에 **가러** 한국에 왔어요. (x) 한국대학교에 **오러** 한국에 왔어요. (x)
·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비행기를 **타려고** 갑시다. (x) 비행기를 **타려고** 가세요. (x)	· 뒤 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이 올 수 있다. 예) 비행기를 **타러** 갑시다. (o) 비행기를 **타러** 가세요. (o)

② '-으려고', '-고자'

-으려고	**-고자**
· 의도나 목적을 나타낸다.	
· '이다'와 쓸 수 없다. 예)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려고** 한다. (x) 저희들은 좋은 **부모이려고** 노력합니다. (x)	· '이다'와 쓸 수 있다. 예)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고자** 한다. (o) 저희들은 좋은 **부모이고자** 노력합니다. (o)
· 공식적.비공식적 말이나 글에서 모두 사용한다.	· 주로 격식을 갖춘 말이나 공식적인 장소에서의 대화, 글에서 많이 사용한다.

예)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를 **만나려고** 왔어.	예) 여러분께 중요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② '-으려고', '-기 위해'

-으려고	**-기 위해**
· 의도나 목적을 나타낸다.	
· 단순히 의도만을 나타낸다. 예) 나는 대학교에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	· 목적을 분명히 드러낸다. 예) 나는 대학교에 **가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의미)
· 뒤 절에 청유문,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한국어를 배웁시다. (x)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한국어를 배우세요. (x)	· 뒤 절에 청유문, 명령문이 올 수 있다. 예)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웁시다. (o)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세요.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为', '为了'

예)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다. - **为了**成为医生我学习很用功.
우승을 **하려고** 매일매일 운동을 계속했다. - **为了**拿冠军，我每天都坚持运动了.

② 용법과 오류

- 목적, 의도를 나타내는 '-으려고'에는 '-었-'이 결합되지 않지만 학습자들이 과거 사실을 기술할 때 '-으려고' 앞에 '-었-'을 사용하여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사전을 샀으려고 서점에 갔다. (x)
대학에 붙었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x)

- 목적, 의도를 나타내는 '-으려고'는 명령문이나 청유문과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 '为', '为了'는 이런 제약이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이번 경기에 우승하려고 열심히 노력합시다. (x)
책을 빌리려고 도서관에 가세요. (x)

- '-으려고'와 '-으러'가 중국어에서 '为', '为了'에 대응될 수 있으므로 '-으려고'와 '-으러'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취직을 하러 열심히 준비했다. (x)
지각하지 않으러 일찍 떠났어요. (x)
내일 수영하려고 수영장에 가자. (x)

3.3.10. '-으면'

-으면[-면][연결어미]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뒤 절의 내용에 대한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낸다. 뒤 절의 내용이 일어나기 위한 근거나 상황에 대한 조건, 확실하지 않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수지 씨, 왜 매일 사과를 먹어요? 나: 매일 사과를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가: 지금 출발하면 몇 시쯤 도착할까요? 나: 지금 **출발하면** 5시에 도착할 수 있어요. 가: 내일 또 산책할 거예요? 나: 날씨가 **좋으면** 산책할 거예요. 가: 너무 피곤해요. 나: **피곤하면** 집에 가서 쉬세요. 가: 보통 아침 몇 시에 일어납니까? 나: 보통 7시에 일어납니다. **주말이면** 10시에 일어납니다.
문장예문	· 코트를 **입으면** 따뜻해요. · 나는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요. · 수업이 **끝나면**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어요. · 흐엉 씨가 서울에서 **살면** 매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 키가 **작으면** 몸무게도 가벼워요. ·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 우리 가족은 **추석이면** 항상 할머니 댁에 가요. · 내가 부자가 **되면** 너에게 차를 사 줄게. · 감기가 **나으면** 수영장에 놀러갈 것입니다. . 네가 **못 하겠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 '-으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조건을 나타내거나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코트를 입으면 따뜻해요'에서 '코트를 입다'라는 조건으로 '따뜻해요'라는 상황이 된다.
+ '-으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사실을 가정할 때도 사용한다. '내가 부자가

되면 너에게 차를 사 줄게'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불확실하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실인데 이때 '-으면'이 결합하여 그 사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이 뒤 절에 연결된다.

[도입]

(1)
교사: 선생님은 여행을 하고 싶어요. 지금 할 수 있어요?
학생: 아니요.
교사: 그러면 언제 할 수 있어요?
학생: 방학. 방학이요.
교사: 네, 방학이 돼요. 여행을 할 수 있어요.
방학이 **되면** 여행을 할 거예요.

(2)
교사: (지폐를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 주며)
이 사람은 돈이 아주 많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그러면 어때요?
학생: 행복해요. 좋아요.
교사: 네, 돈이 많아요. 행복할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예요.

+ '-으면'을 도입할 때, 먼저 특정한 행동이나 상태를 제시해 주고, 그 행동이나 상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조건을 생각하고 문장을 구성하도록 한다.
+ 불확실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의 '-으면'을 도입할 때는 먼저 특정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한 다음, 그 상황에 처했을 때를 가정하여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면'을 쓴다.

예) 읽- + -으면 → 읽으면　　높- + -으면 → 높으면
있- + -으면 → 있으면　　없- + -으면 → 없으면
참- + -으면 → 참으면　　좋- + -으면 → 좋으면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면'을 쓴다.

예) 오- + -면 → 오면　　비싸- + -면 → 비싸면
가- + -면 → 가면　　크- + -면 → 크면
만들- + -면 → 만들면　　살- + -면 → 살면

+ '-으면'은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데,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다른 받침과 달리 '-으면'이 아니라 '-면'이 결합한다.

①	받침 o	+ -으면	읽으면, 높으면, 있으면, 없으면, 참으면, 좋으면
②	받침 x ㄹ 받침	+ -면	오면, 비싸면, 가면, 크면, 만들면, 살면

③ '이다, 아니다'는 '-면'을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면'이라고 쓴다.

예) 학생이- + -면 → 학생이면　　겨울이- + -면 → 겨울이면
겨울이- + -면 → 겨울이면　　공부이- + -면 → 공부이면/공부면
노래이- + -면 → 노래이면/노래면　　아니- + -면 → 아니면

+ 'N+-면'은 격식적인 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④ 불규칙 동사

듣-　예) 큰소리로 음악을 **들으면** 귀가 나빠져요.
덥-　예) 교실이 **더우면** 에어컨을 켜세요.
낫-　예) 감기가 **나으면** 수영장에 갈 거예요.
까맣-　예) 피부가 **까마면** 건강해 보입니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문장의 앞부분에 '만약, 만일, 혹시, 가령' 등과 같은 부사어와 함께 쓰여, 가정의 뜻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주로 확실하지 않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을 때 사용한다.

예) 수지 씨는 반드시 2시까지 올 거예요. 만약 수지 씨가 2시까지 오지 **않으면** 전화하세요.
영수는 시험에 합격할 거예요. 만일 **떨어지면** 또 시험을 볼 거예요.
벌써 늦었어요. 지각이에요. 혹시 택시를 **타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제약 정보]

① 불확실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할 때는 뒤 절에 '-었-'을 쓸 수 없다.

예) 내일 비가 **오면** 롯데월드에 갈 수 없었습니다. (x)
제가 지금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했어요. (x)
사람들이 모두 **모이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o)
저는 학생 때 책만 **펴면** 잠이 왔어요. (o)

② 앞 절의 조건의 내용과 뒤 절의 상황이 특정한 경우는 가정의 의미로 해석된다.

예) 저는 오늘 친구와 **만나면** 스파게티를 사 먹어요. (x)
저는 오늘 친구와 **만나면** 스파게티를 사 먹을 거예요. (o)
저는 친구와 **만나면** 보통 밥을 사 먹어요. (o)

+ 일반적으로 '-으면' 뒤에는 '-을 거예요'가 오지 않는다. '오늘' 같이 특별한 때일 경우는

가정의 의미로 '-을 거예요'가 올 수 있다.

[확장]

① '-으면 하다, -으면 싶다, -으면 좋겠다, -으면 -을 텐데'의 꼴로 쓰여 말하는 사람의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 오늘은 외식을 **했으면 해요.**
감기에 걸려서 내일은 집에서 **쉬었으면 싶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에는 비가 덜 **오면 좋을 텐데.**

+ 이때 주로 '-었-'과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의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내용이 완전히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② '-으면 -을수록'의 꼴로 쓰여 동작이나 상태의 정도가 강해지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 영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요.
모델은 키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요.

③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예로는 '예를 들면'의 꼴로 쓰여 뒤 절에서 예시함을 나타낼 때가 있다. 일부 특별한 서술어 '말하다, 알다, 살다' 등에 붙어 '바꿔 말하면, 알고 보면, 살다 보면' 등의 표현으로 쓰여 뒤 절의 내용에 대한 근거를 나타낼 때도 사용한다.

예) **예를 들면** 제주도가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무척 좋은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한국인의 정에 대해 잘 알게 될 거예요.

④ 주로 '-었-' 뒤에 붙어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과 반대되는 상황이나,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한다. 현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거나 그렇지 않음을 애석해하는 뜻을 나타낸다.

예) 조금만 일찍 **도착했으면** 기차를 탈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영어를 **잘했으면** 앤디 씨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 '-었으면'은 이미 일어난 일의 반대를 가정하는 것이고, '-으면'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임의로 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었으면'을 사용할 때는 뒤 절에 말하는 사람의 희망 사항이나 이루어지지 않는 애석함이 나오고, '-으면'을 사용할 때는 뒤 절에 가정에 대한 생각이나 예상이 나온다.

[유사 문법]

① '-으면', '-는다면', '-다면', '-라면'

-으면	-는다면, -다면, -라면
·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가정을 나타낸다.	
· 주로 현실 세계의 일이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예)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배가 아프다.	·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가상하여 제시하는 의미가 강하다. 예) 외계인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② '-으면', '-거든'

-으면	-거든
·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대한 가정을 나타낸다. 예) 날씨가 **좋으면** 등산을 갑시다 날씨가 **좋거든** 등산을 갑시다.	
· 문장의 종결 제약이 없어 일반적인 서술을 나타내는 평서문을 사용할 수 있다. 예) 눈이 **오면** 눈사람을 만듭니다. (o) 눈이 **오면** 눈사람을 만듭시다. (o) 눈이 **오면** 눈사람을 만드세요. (o)	· 뒤 절에 일반적인 서술을 나타내는 '-습니다, -는다'가 올 수 없다. 예) 눈이 **오거든** 눈사람을 만듭니다. (x) 눈이 **오거든** 눈사람을 만듭시다. (o) 눈이 **오거든** 눈사람을 만드세요. (o) 단 추측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겠다, -을 것이다'는 평서문도 가능하다. 예) 눈이 **그치거든** 떠나겠습니다.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如果.....(就)'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매일 사과를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 - **如果**每天吃苹果, 对健康很好.
비가 **오면** 다음에 갈게요. - **如果**下雨**就**下次去.
주말이면 공원에 사람이 많아요. - 到周末 , 公园里人很多.
나는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요. - 我喝咖啡睡不着.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면'을 쓰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문법 현상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멀으면 버스를 탑시다. (x)
또 울으면 사탕을 안 줄 거야. (x)

-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오류를 많이 보인다.

예) 큰소리로 음악을 듣으면 귀에 안 좋아요. (x)
교실이 덥으면 창문을 여세요. (x)

감기가 낫으면 수영하러 갈 거예요. (x)
피부가 까맣으면 건강해 보인다. (x)

- 과거의 일이나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앞에 '-었-'을 사용하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일찍 말하면 내가 안 와도 되잖아. (x)
조금만 더 일찍 도착하면 저 버스를 탈 수 있었을 텐데. (x)

3.3.11. '-으면서'

-으면서[-면서][연결어미] 둘 이상의 행동이나 상태를 **동시에 겸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서: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 에 붙어)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이나 상태를 동시에 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앞 절의 행동을 하거나 상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뒤 절의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상태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가: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하세요? 나: 신문을 **읽으면서** 아침을 먹고 계세요. 가: 어제 친구와 만나서 뭐 했어요? 나: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 새로 나온 휴대폰이 어때요? 나: **얇으면서** 성능이 뛰어나요. 가: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 **친절하면서** 재미있는 분이세요. 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 그는 훌륭한 축구 **선수이면서** 뛰어난 사업가예요.
문장예문	· 앤디 씨가 손을 **씻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 우리 비를 **맞으면서** 함께 걸을까요? · 나는 잡지를 **보면서** 친구를 기다렸어요. · 수지 씨가 **울면서** 교실에서 나갔어요. · 제 어머니께서는 항상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 조용한 노래를 **들으면서** 쉬고 계세요. · 이 코트는 **예쁘면서** 값도 쌉니다. · 나는 TV를 **보면서** 공부하지 않았아요. · 그 가방은 **가벼우면서** 튼튼한 것 같아요. · 서울은 나의 **고향이면서** 내가 평생 살아갈 곳입니다.

+ '-으면서'는 앞 절과 뒤 절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동사와 결합하면 두 가지의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며, 형용사, '이다, 아니다'와 결합하면 두 가지 상태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도입]

(1)
교사: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여 주며)
아이들이 무엇을 해요?
학생1: 밥을 먹어요.
학생2: 텔레비전을 봐요.
교사: 네, 아이들이 밥을 먹어요.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봐요.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봐요.

(2)
교사: 여러분, 줄리아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학생1: 예뻐요.
학생2: 착해요.
교사: 네, 줄리아 씨는 예뻐요. 줄리아 씨는 착해요.
줄리아 씨는 **예쁘면서** 착해요.

+ '-으면서'를 도입할 때 먼저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 주며 학생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대답한 두 가지의 행동을 동시에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으면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 도입(2)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상태를 대답하도록 유도한 다음, 어떠한 상태와 동시에 또 다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 줄 수도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면서'를 쓴다.

예) 찾- + -으면서 → 찾으면서　　입- + -으면서 → 입으면서
넓- + -으면서 → 넓으면서　　좋- + -으면서 → 좋으면서
맛있- + -으면서 → 맛있으면서　　재미없- + -으면서 → 재미없으면서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면서'를 쓴다.

예) 가- + -면서 → 가면서　　쓰- + -면서 → 쓰면서
크- + -면서 → 크면서　　비싸- + -면서 → 비싸면서
살- + -면서 → 살면서　　울- + -면서 → 울면서
멀- + -면서 → 멀면서　　길- + -면서 → 길면서

+ '-으면서'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데,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다른 받침과 달리 '-으면서'가 아니라 '-면서'가 결합한다.

①	받침 o	+ -으면서	찾으면서, 입으면서, 넓으면서, 좋으면서, 맛있으면서, 재미없으면서

②	받침 x ㄹ 받침	+ -면서	가면서, 쓰면서, 크면서, 비싸면서, 살면서, 울면서, 멀면서, 길면서

③ '이다, 아니다'는 '-면서'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면서'라고 쓴다.

예) 학생이- + -면서 → 학생이면서　　선생님이- + -면서 → 선생님이면서
여자- + -면서 → 여자이면서/여자면서　　남자- + -면서 → 남자이면서/남자면서
바다이- + -면서 → 바다이면서/바다면서　　아니- + -면서 → 아니면서

+ 'N+-면서'는 격식적인 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④ 불규칙

걷-　예) 나는 **걸으면서**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드럽-　예) 그 옷은 **부드러우면서** 따뜻해요.
짓-　예) 나는 집을 **지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얗-　예) 미셸 씨의 얼굴은 **하야면서** 동그래요.

[문장 구성 정보]

① '-으면서 -지 마세요'의 꼴로 사용하여 특정한 상황이나 장소에서 동시의 행동을 금지할 때 사용한다.

예) 음식을 **먹으면서** 바닥에 흘리지 마세요.
수업을 **들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마세요.
운전하면서 전화하지 마세요.
유물을 **관람하면서** 사진을 찍지 마세요.

[제약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반드시 같아야 하고, 주로 뒤 절의 주어는 생략한다.

예) 나는 피아노를 **치면서** 동생은 노래를 불렀어요. (x)
나는 피아노를 **치면서** (나는) 노래를 불렀어요. (o)
영수 씨의 성격은 **밝으면서** 유미 씨의 성격은 침착합니다. (x)
영수 씨의 성격은 **밝으면서** (영수 씨의 성격은) 침착합니다. (o)

+ 단, 사물이 주어로 사용될 경우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앞 절과 뒤 절은 동일한 주제여야 한다.

예) 어제는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렸어요. (o)
그 가게는 물건의 품질이 **좋으면서** 서비스도 좋아요. (o)

② 과거를 나타내는 '-었-', 미래·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면서** 집으로 갔어요. (x)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겠으면서** 집으로 갈 거예요. (x)
나는 **울었으면서** 화를 냈어요. (x)
나는 **울겠으면서** 화를 낼 거예요. (x)

+ 앞 절과 뒤 절에 대립되는 내용을 써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이나 상태, 행동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낼 때는 '-었-'과 결합할 수 있다.

[확장]

① 부정의 표현과 어울릴 경우 '동시'의 의미라기보다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이나 그러한 상태가 아닌 것을 강조하는 문장이 된다.

예) 나는 답을 안 **보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나는 답을 보지 **않으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흐엉 씨가 안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흐엉 씨가 웃지 **않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② '-으면서'를 강조하기 위해 조사 '도'가 붙은 '-으면서도'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예) 유미 씨는 돈을 **벌면서** 대학원에 계속 다녔어요.
유미 씨는 돈을 **벌면서도** 대학원에 계속 다녔어요. ('돈을 벌다' 강조)
비행기는 기차보다 **빠르면서** 편합니다.
비행기는 기차보다 **빠르면서도** 편합니다. ('빠르다' 강조)

③ 앞 절과 뒤 절에 대립되는 내용을 써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이나 상태, 행동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저 가게는 음식이 **맛없으면서** 값이 비싸다.
내 친구는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미도리 씨와 요스케 씨는 서로 **좋아하면서** 결혼은 하지 않아요.
민수 씨는 100점을 **받았으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 동시에 일어나는 대립되는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어 앞 절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뒤 절의 내용이 함께 존재함을 주로 나타낸다. 이때는 과거를 나타내는 '-었-'을 사용할 수 있다.

[유사 문법]

① '-으면서', '-으며'

-으면서	**-으며**
· 앞 절과 뒤 절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낸다.	
·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 예) 미셸 씨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춥니다. (o) 미셸 씨가 노래를 **부르면서** 앤디 씨가	·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예) 미셸 씨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o)

춤을 춥니다. (x)	미셸 씨가 노래를 **부르며**, 앤디 씨가 춤을 춥니다 (o)
· 구어에서 많이 사용한다. 예) 내 동생은 자주 게임을 **하면서** 식사해요.	· 문어에서 자주 사용한다. 예) 최근 게임을 **하며**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一边……一边……', '着', '既……又……'

예)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 **一边**看电视，**一边**吃饭.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 喝**着**咖啡聊天.
선생님께서는 항상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 老师一直笑**着**说话.
이 옷은 **예쁘면서** 가격도 쌉니다. - 这件衣服**既**漂亮**又**便宜.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면서'를 사용하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문법 현상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으면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동생이 울으면서 대답했다. (x)
언니가 요리를 만들으면서 노래를 했다. (x)

- 학습자들이 동사의 불규칙 활용에 익숙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수업을 듣으면서 문자를 보냈다. (x)
미소를 짓으면서 이야기하셨다. (x)

3.3.12. '-지만'

-지만[연결어미] **반대**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지만: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앞 절과 뒤 절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임을 나타낸다. 앞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고 뒤 절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이나 다른 내용을 연결하여 말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아침에 무엇을 먹어요? 나: 저는 빵을 **먹지만** 유미 씨는 밥을 먹어요. 가: 민수 씨는 노래를 잘 불러요? 나: 아니요,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춤은 잘 춰요. 가: 수지 씨는 오빠가 있어요? 나: 아니요, 언니는 **있지만** 오빠는 없어요. 가: 그 가게 음식이 어때요? 나: 조금 **비싸지만** 맛있어요. 가: 영수 씨의 여자 친구는 일본 사람이에요? 나: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말을 잘해요.
문장예문	· 저는 한국 가요를 자주 **듣지만** 제 동생은 자주 팝송을 들어요. · 흐엉 씨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만** 저는 매운 음식을 싫어합니다. · 미도리 씨는 한국에서 **살지만** 가족은 모두 일본에서 살아요. · 기숙사는 **작지만** 아주 깨끗해요. · 왕밍 씨는 키가 **크지만** 페이페이 씨는 키가 작아요. · 미국은 **멀지만** 중국은 가까워요. · 주말에는 **바쁘지 않지만** 평일에는 바빠요. · 음식은 **맛있었지만** 너무 많아서 다 못 먹었어요. · 이 옷을 입으면 **불편하겠지만**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 저는 **학생이지만** 언니는 회사원입니다.

+ '-지만'은 서로 역접 관계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여 말할 때 사용하는 연결어미이다.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은 대조되거나 앞 절로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내용을 뒤이어 말할 때 쓴다.

[도입]

(1)
교사: 필립 씨, 아침을 먹었어요?
학생: 네, 아침을 먹었어요.
교사: 필립 씨는 아침을 먹었어요. 선생님은 아침을 먹지 않았어요. 필립 씨는 아침을 **먹었지만** 선생님은 아침을 먹지 않았어요.

(2)
교사: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학생1: 어려워요.
학생2: 재미있어요.
교사: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요.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요. 한국어 공부가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 '-지만'을 도입할 때는 '필립 씨는 아침을 먹었지만 선생님은 아침을 먹지 않았어요'와 같이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상황 중에서 대조되는 사실들을 이끌어내고, 그 두 가지를 이어서 이야기할 때 '-지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 도입(2)와 같이 한 가지 상황이나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두 가지 느낌을 이끌어내고, 이를 연결하여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도 있음을 알려 준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지만'을 쓴다.

예) 먹- + -지만 → 먹지만
가- + -지만 → 가지만
살- + -지만 → 살지만
좋- + -지만 → 좋지만
크- + -지만 → 크지만
길- + -지만 → 길지만
읽- + -지만 → 읽지만
다니- + -지만 → 다니지만
만들- + -지만 → 만들지만
작- + -지만 → 작지만
예쁘- + -지만 → 예쁘지만
멀- + -지만 → 멀지만

+ 어떤 동사나 형용사가 와도 형태가 변하지 않음에 주의한다.

①	받침 o	+ -지만	먹지만, 읽지만, 살지만, 만들지만, 좋지만, 작지만, 길지만, 멀지만
	받침 x	+ -지만	가지만, 다니지만, 크지만, 예쁘지만

② '이다, 아니다'는 '-지만'을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지만'이라고 쓴다.

예) 학생이- + -지만 → 학생이지만
책이- + -지만 → 책이지만

의사이- + -지만 → 의사이지만/의사지만　　사람이- + -지만 → 사람이지만
가수이- + -지만 → 가수이지만/가수지만　　아니- + -지만 → 아니지만

+ 'N+-지만'은 격식적인 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제약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예) 책은 **싸지만** 사전은 비싸요.
학교 앞 식당의 음식은 **싸지만** (그 음식은) 맛있어요.
나는 축구를 **잘하지만** 내 동생은 못해요.
이 노트북은 **작지만** (노트북은) 용량이 커요.

+ 단,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에는 뒤 절의 주어를 생략한다.

예) 이 책상은 **무겁지만** (이 책상은) 아주 튼튼합니다.
마이클 씨는 머리가 **아팠지만** (마이클 씨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② 앞 절과 뒤 절의 내용이 대조되거나 반대일 경우, 주어에는 조사 '는'이 결합한다.

예) 내가 빨간색을 좋아하지만 앤디 씨가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x)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지만** 앤디 씨는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o)

③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여 쓰인다.

예) 어제 서울에는 눈이 **내리지만** 부산에는 비가 내렸어요. (x)
어제 서울에는 눈이 **내렸지만** 부산에는 비가 내렸어요. (o)
어제는 눈이 **내리지만** 오늘은 맑아요. (x)
어제는 눈이 **내렸지만** 오늘은 맑아요. (o)
내일 그 사람은 바지를 **입지만** 나는 치마를 입을 거예요. (x)
내일 그 사람은 바지를 **입겠지만** 나는 치마를 입을 거예요. (o)
내일 그 사람은 바지를 **입지만** 오늘은 치마를 입어요. (x)
내일 그 사람은 바지를 **입겠지만** 오늘은 치마를 입어요. (o)

+ '어제는 눈이 내렸지만 오늘은 맑아요', '내일 그 사람은 바지를 입겠지만 오늘은 치마를 입어요'와 같이 '-지만'과 결합하는 앞 절의 시제는 과거일 경우 '-었/았지만', 미래나 추측일 경우 '-겠지만'을 쓴다.

[확장]

① '-지만'은 '-지마는'의 준말이다. 보통 '-지만'을 더 많이 사용한다.

예) 형은 키가 **크지만** 나는 키가 작아요.
= 형은 키가 크지마는 나는 키가 작아요.
나는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청춘이다.
= 나는 비록 몸은 늙었지마는 마음은 청춘이다.

② '미안하다, 죄송하다, 실례하다' 등에 붙어, 부탁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상황에서 관용적으로 쓰인다.

예) **미안하지만** 그 책 좀 나한테 줘.
죄송하지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어디 계세요?
바쁘시겠지만 같이 좀 갑시다.

③ 앞 절에 보조사 '도'와 함께 사용하여 앞의 내용에 대한 조건이나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예) 수지 씨는 얼굴**도 예쁘지만** 성격이 정말 좋아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오렌지**도 맛있지만** 역시 귤이 제일 맛있어요.
유미 씨는 한국어**도 잘하지만** 영어도 무척 잘해요.

+ 이때는 뒤 절의 의미에 초점이 놓인다.

[유사 문법]

① '-지만', '-는데2)'

-지만	**-는데2)**
· 앞의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이야기를 이음을 나타낸다.	
· 앞 절과 뒤 절의 내용이 대등하며, 대립의 의미를 가진다. 예) 영수 씨는 농구를 **좋아하지만** 민수 씨는 축구를 좋아해요.	· 앞 절은 뒤 절의 배경 상황이 되며, 대립되는 배경 상황 제시의 의미를 가진다. 예) 영수 씨는 농구를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해요.
· '대립'의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는 연결 어미로서 뒤 절이 생략되어도 대립되는 결과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예)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열심히 **공부했지만**.....(시험을 잘 못 봤어요.)	· 비교적 중립적 연결 기능을 담당하는 연결 어미로서 '-지만'보다 '대립'의 의미가 약하다. 따라서 뒤 절이 생략되면 대립의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예)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시험이 취소됐어요./ 시험 문제가 잘못 나왔어요.....)

② '-지만', '-으나'

-지만	**-으나**

· 앞의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이야기를 이음을 나타낸다.	
· 앞의 내용에 대한 조건이나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예) 그 휴대폰은 모양도 **예쁘지만** 가격도 아주 싸다. (o)	· 앞의 내용에 대한 조건이나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는 의미로는 사용할 수 없다. 예) 그 휴대폰은 모양도 **예쁘나** 가격도 아주 싸다. (x)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但是', '但', '可是'

예) 방이 **작지만** 아주 깨끗해요. - 房间小, **但是**很干净.
비가 **오지만** 춥지는 않습니다. - 下雨, **但是**不冷.
형은 키가 **크지만** 동생은 키가 안 커요. - 哥哥个子高, **但**弟弟个子不高.
평일에는 **바쁘지만** 주말에는 바쁘지 않아요. - 平时忙, **但**周末不忙.

② 용법과 오류

- 과거의 일을 기술할 경우 '-지만' 앞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을 사용해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종결형에만 시제를 사용하고 '-지만' 앞에는 사용하지 않는 오류를 보인다.

예) 두꺼운 옷을 입지만 추워요. (x)
어제는 비가 오지만 오늘은 맑아요. (x)

3.4. 전성어미

3.4.1. '-기'

-기[전성어미] 동사, 형용사 등을 **명사형**으로 바꾸어 그 말이 문장 내에서 **명사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전성어미.

-기: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그 말이 명사로 기능함을 나타낸다. 동사, 형용사 등을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등으로 만들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수지 씨, 취미가 뭐예요? 나: 제 취미는 **요리하기**예요. 가: 왕밍 씨, 요즘 저녁에 무엇을 해요? 나: 공원에서 **산책하기**를 자주 해요. 가: 흐엉 씨, 이 의자 편해요? 나: 아니요, 그 의자는 **앉기**에 불편해요. 가: 앤디 씨, 올해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 제 계획은 열심히 **공부하기입니다**. 가: 영수 씨, 새로 온 반 친구가 어때요? 나: **보기**보다 친구들과 잘 어울려요.
문장예문	. 저는 혼자 밥을 **먹기**가 싫어요. . 선생님이 너무 바쁘셔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 수지 씨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를 좋아해요. . 마이클 씨는 밖에서 **운동하기**를 싫어해요. . 영수 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걷기**가 힘들어요. . 현우 씨의 동생이 **예쁘기**는 해요. . 나는 남자 친구가 **한국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 왕밍 씨는 집에 혼자 **있기**를 싫어합니다. . 서울역은 너무 복잡해서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 '-기'는 동사나 형용사 등을 명사화한다는 점에서 전성어미 '-음'과 유사하나, '-음'과 교체되어 사용되지 않으며 '-음'보다 사용이 더 활발하다. 학교 문법에서는 둘 다 동사, 형용사

를 명사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명사형 어미라고 한다. '-기'는 '-는 것'과 큰 의미 차이 없이 바꿔 쓸 수 있는데, '-기에, -기는 하다'와 같이 굳어져 사용되는 표현은 '-는 것'으로 바꿔 쓰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한국어 배웁니다. 한국어 어려워요?
학생: 네, 어려워요.
교사: 네, 한국어 배웁니다. 한국어 어려워요. 한국어를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럼 뭐가 쉬워요?
학생: 중국어요.
교사: 네, 중국어를 배웁니다. 쉬워요. 중국어를 **배우기**가 쉬워요.

(2)
교사: 미도리 씨, 책을 읽어요, 노래를 들어요, 운동을 해요. 어느 것을 좋아해요?
학생: 책을 읽어요. 좋아해요.
교사: 네, 미도리 씨는 책을 읽어요, 좋아해요. 미도리 씨는 책을 **읽기**를 좋아해요.

+ (1)과 (2)는 '-기' 명사형이 문장 속에서 주어와 목적어로 쓰인 예이다. 교사가 두 개의 문장을 제시하고 이를 '-기'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만들어 준다. 일반적으로 '-기'는 초급에서 '-기가 쉽다, -기가 어렵다, -기로 하다' 등의 표현으로 교수하는데 위와 같은 도입을 통해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면 좋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기'를 쓴다.

예) 먹- + -기 → 먹기　　입- + -기 → 입기
좋- + -기 → 좋기　　어렵- + -기 → 어렵기
가- + -기 → 가기　　예쁘- + -기 → 예쁘기
공부하- + -기 → 공부하기　　깨끗하- + -기 → 깨끗하기

①	받침 o	+ -기	먹기, 입기, 좋기, 어렵기
	받침 x	+ -기	가기, 예쁘기, 공부하기, 깨끗하기

[문장 구성 정보]

① '-기'는 문장을 명사화하여 문장 전체의 주제나 내용을 설명할 때 자주 쓴다. 주로 '-기를 좋아하다/싫어하다/바라다/원하다', '-기 쉽다/어렵다/좋다/싫다/나쁘다/시작하다/힘들다' 등

의 표현으로 사용한다.

예) 마이클 씨, 내년에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기**가 어렵지 않아요.
수지 씨, 그 옷을 입으니 **보기**가 좋아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어 **공부하기**가 편해요.

[확장]

① '-기'는 일반화된 사실을 나타내거나, 계획이나 결심, 지침과 같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짧게 기술할 때 종결어미 대신 사용한다.

예) 이 일은 '누워서 떡 **먹기**'야.
저녁에 일찍 **들어오기**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 **하기**
영화관에서 휴대폰 **끄기**
하루 일과: **일어나기** / **세수하기** / 밥 **먹기** / 회사 **가기**...

② '-기는 -다'와 같이 동사나 형용사가 반복적으로 쓰여 그 뜻을 강조한다. 뒤에 쓰는 동사와 형용사를 반복하지 않고 '하다'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예) KTX가 버스보다 **빠르기**는 빨라요.(o) KTX가 버스보다 **빠르기**는 해요.(o)
수지 씨가 **예쁘기**는 예뻐요.(o) 수지 씨가 **예쁘기**는 해요.(o)
앤디 씨가 매운 음식을 잘 **먹기**는 먹어요.(o) 앤디 씨가 매운 음식을 잘 **먹기**는 해요.(o)
동생이 낮에도 **자기**는 자요.(o) 동생이 낮에도 **자기**는 해요.(o)

+ '-기는 -다' 또는 '-기는 -하다'의 문장 구성은 '-긴 -다' 또는 '-긴 -하다'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예) KTX가 버스보다 **빠르긴** 빨라요.(o) KTX가 버스보다 **빠르긴** 해요.(o)
수지 씨가 **예쁘긴** 예뻐요.(o) 수지 씨가 **예쁘긴** 해요.(o)
앤디 씨가 매운 음식을 잘 **먹긴** 먹어요.(o) 앤디 씨가 매운 음식을 잘 **먹긴** 해요.(o)
동생이 낮에도 **자긴** 자요.(o) 동생이 낮에도 **자긴** 해요.(o)

③ '-기도 하다', '-기야 하다'와 같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그 뜻이 정말 그렇다고 강조할 때 쓴다. 구어에서 많이 사용한다.

예) 우와, 저 연예인이 정말 **예쁘기도 하**네요.
오늘부터 방학이라 동생이 집에서 **자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해**요.
선생님 말씀대로 **공부하기야 하**지만 시험은 잘 볼지 모르겠어요.
줄리아 씨는 한국에서 10년이나 살았으니 한국어를 **잘하기야 하**겠지요.

④ 상황이나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할 때는 '-기에'로 문장을 구성한다. 이는 판단의 근거를 나타낸다.

예) 내가 **생각하기에** 영수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책상은 두 명이 **들기에** 너무 무거워요.

처음부터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 가방은 제가 **사기에** 너무 비싸요.

[유사 문법]

① '-기', '-음'

-기	-음
· 동사, 형용사 또는 '이다', '아니다' 등에 붙어 그 말이 문장 내에서 명사 기능을 하게 한다.	
·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머릿속에서 그린 일을 나타낼 때 주로 쓴다. 예) 은행에서 돈을 **찾기**. (앞으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한다.)	· 이미 일어났거나 구체적인 일을 나타낼 때 주로 쓴다. 예) 은행에서 돈을 **찾음**. (이미 은행에서 돈을 찾았다.)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나타내므로 '-었-'과 함께 쓰이기 어렵다. 예) 비가 와서 집에 **가기**가 싫었다. (o) 비가 와서 집에 **갔기**가 싫었다. (x)	· 이미 일어난 일을 나타내므로 '-었-'과 함께 쓰일 수 있다. 예) 문소리로 그가 **왔음**을 알았다.
· '꺼리다, 싫어하다, 좋아하다, 즐기다, 가능하다, 까다롭다, 나쁘다, 쉽다, 알맞다, 어렵다, 적당하다, 좋다, 힘들다, 갈망하다, 고대하다, 기다리다, 기대하다, 기원하다, 바라다, 원하다, 희망하다, 결심하다, 결정하다, 계획하다, 맹세하다, 약속하다, 정하다' 등의 서술어가 뒤에 나온다.	· '기억하다, 깨닫다, 떠오르다, 떠올리다, 모르다, 알다, 잊다, 한탄하다, 보이다, 알리다, 암시하다, 드러나다, 드러내다, 분명하다, 밝혀지다, 밝히다, 알려지다, 틀림없다, 확실하다, 고백하다, 발표하다, 보고하다, 주장하다, 지적하다, 통지하다, 부당하다, 어리석다, 이상하다, 타당하다, 현명하다' 등의 서술어가 뒤에 나온다.
· '-기 나름이다, -기 마련이다, -기 십상이다, -기는 하다, -기도 하다, -기 위해, -기 때문'과 같이 관습적으로 굳어진 표현에서 자주 쓰인다.	· '-음으로써' 이외에는 관습적으로 굳어진 표현에서 쓰이는 경우가 드물다.

② '-기', '-는 것/-은 것/-을 것'

-기	-는 것, -은 것, -을 것
· 동사, 형용사 또는 '이다', '아니다' 등에 붙어 그 말이 문장 내에서 명사 기능을 하게 한다.	
· 뒤에 나오는 서술어에 제약이 있다.	· 뒤에 나오는 서술어에 제약이 거의 없다.
· 동사와 형용사, '이다', '아니다' 모두에 '-	· 동사와 형용사('이다, 아니다' 포함)의 관형사형의 시제에 따라 '-는 것', '-은 것', '-을 것'이

기'가 붙는다. 예) 그는 아침에 **조깅하기**를 좋아한다. / 영희가 **예쁘기**는 예쁘지?	나뉘어 쓰인다. 예) 그가 **가는 것**이 보인다. (동사 현재) / 순희가 **예쁜 것**이 확실하다. (형용사 현재) / 그 도둑이 **잡힌 것**을 나중에 들었다. (동사 과거) / 영희가 **학생인 것**이 맞니? ('이다' 현재) / 그가 **갈 것**이 예정되어 있다. (동사 미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중국어에서는 동사, 형용사가 직접 주어, 목적어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저는 **달리기**를 잘해요. - 我跑步很好.
철수는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 哲洙喜欢一个人待着.
할아버지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希望爷爷一直很健康.
영희도 책 **읽기**를 좋아해? - 英姬也喜欢看书吗?

② 용법과 오류

- '-기'는 문장을 명사화하여 문장 전체의 주제나 내용을 설명할 때 자주 쓴다. 주로 '-기를 좋아하다/싫어하다/바라다/원하다', '-기 쉽다/어렵다/좋다/싫다/나쁘다/시작하다/힘들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중국어 학습자들은 '-음', '-은 것', '-는 것'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도 '-기'를 사용하여 용언을 명사화함으로 사용 오류를 보인다.

예) 방금 철수가 학교 가기를 보았어요. (x)
나는 사람이 많기를 싫어해요. (x)
나는 비가 오기를 좋아해요. (x)
이야기 줄거리의 치밀하기가 마음에 들어요. (x)
저는 그 사람의 친절하기가 좋았어요. (x)

3.4.2. '-는2'

-는[전성어미] 동사 등을 **관형사형**으로 바꾸어 명사를 수식하게 하며, 동작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전성어미.

-는2: (동사나 '있다, 없다, 계시다'에 붙어) 그 동작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는' 앞에 오는 동사와 형용사 등을 관형사형으로 바꾸어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누가 수지 씨 언니예요? 나: 저기 책을 **읽는** 사람이 제 언니예요. 가: 미도리 씨가 누구예요? 나: 지금 **발표하는** 사람이 미도리 씨예요. 가: 미셸 씨, 저기가 어디예요? 나: 저곳은 제가 **다니는** 학교예요. 가: 여러분, 남동생이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나: 우리 반에 남동생이 **있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가: 저는 10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요. 나: 어디에 가요? 가: 부산에 놀러가요.
문장예문	. 앤디 씨가 **찾는** 책이 여기에 있다. .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제 동생이에요. · 지영 씨가 **보는** 영화가 재미있어요. . 고향으로 **떠나는** 히로 씨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영수 씨예요. . **운동하는** 현우 씨가 제일 멋있어요. .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 도서관이 **없는** 대학은 없어요. · 중국에 **있는**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요. . 이 편지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보냅니다.

+ 한국어는 동사나 형용사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려면 '-는, -은, -을'과 같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필요하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2'는 현재 일어나는 행위를 나타내며 동사

뒤에만 결합한다.

+ 형용사인 '있다, 없다'에는 다른 형용사와 달리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이 아니라, '-는'이 붙어 사용된다.

[도입]

(1)
교사: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학생: 저는 불고기를 좋아해요.
교사: 흐엉 씨는 불고기를 좋아해요. 흐엉 씨가 **좋아하는** 음식은 불고기예요.

(2)
교사: 누가 교실에 있어요?
학생: 선생님이 있어요. 학생이 있어요.
교사: 선생님이 교실에 있어요. 교실에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학생이 교실에 있어요. 교실에 **있는** 사람은 학생이에요.

+ '-는2'를 도입할 때는 (1)에서와 같이 학생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에 대해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학생이 '좋아하-'에 '-는'을 결합하고 좋아하는 음식의 이름을 뒤에 붙여 동사에 '-는'을 붙여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 줄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2)에서는 '있다, 없다'가 '-은'이 아닌, '-는'을 붙여 쓴다는 점을 보여 준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상관없이 '-는'을 쓴다.

예) 먹- + -는 → 먹는　　찾- + -는 → 찾는
입- + -는 → 입는　　가- + -는 → 가는
보- + -는 → 보는　　만나- + -는 → 만나는

②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는 'ㄹ'을 탈락시키고 '-는'을 쓴다.

예) 살- + -는 → 사는　　만들- + -는 → 만드는
빌- + -는 → 비는　　팔- + -는 → 파는
열- + -는 → 여는　　밀- + -는 → 미는

③ '있다, 없다'는 형용사이지만, 동사와 같이 '는'을 붙여 사용한다. 또한 '있다, 없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 '재미있다, 재미없다, 맛있다, 맛없다' 등도 '는'을 붙여 쓴다.

예) 있- + -는 → 있는　　없- + -는 → 없는
맛있- + -는 → 맛있는　　맛없- + -는 → 맛없는

재미있- + -는 → 재미있는　　재미없- + -는 → 재미없는

+ '있다'의 높임말인 '계시다'는 동사로 사용되므로 '-는'을 붙여 사용한다. 다만, '계시다'는 높임을 받는 대상이 사람일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사물일 때는 '계시다'를 사용할 수 없다.

예) 고향에 있는 동생이 보고 싶다. (o) /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보고 싶다. (o)
얼굴에 점이 있으신 할머니가 집에 오셨다. (o)
얼굴에 점이 계신 할머니가 집에 오셨다. (x)
사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o)
사진에 관심 계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x)

①	받침 o, x	+ -는	먹는, 찾는, 입는, 가는, 보는, 만나는
②	ㄹ 받침	+ -는 (어간 'ㄹ' 탈락)	사는, 만드는, 비는, 파는, 여는, 미는
③	있다, 없다, 계시다	+ -는	있는, 없는, 맛있는, 맛없는, 재미있는, 재미없는, 계시는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춥는** 겨울이 왔어요. (x)
건강이 **나쁘는** 이유는 과식 때문이에요. (x)

②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능력의 의미로 해석된다.

예) 아기가 **잤는** 방을 청소했어요. (x)
정답을 **모르겠는** 사람은 다시 공부해야 해요. (o)

[확장]

①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내포문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같으면 '-는'을 사용한다.

예) 어제 형이 내가 **읽는** 책을 빌려갔다.
철수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을 어머니가 끄셨다.

+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내포문의 행위가 주절의 시간보다 앞선 경우는 '-은'을 쓴다.

예) 어제 집에 일찍 **간** 영수가 걱정되었다. (o)
어제 집에 일찍 **가는** 영수가 걱정되었다. ('가는 행위'와 '걱정되다'는 같은 시간)
어제 식당에서 **먹은** 음식이 이상했다. (o)
어제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이상했다. (x)

② 일반적인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거나,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설명할 때는 '-는'을 사용한다.

예) 영수는 부산에 **가는** 기차를 탔다. (o) / 영수는 주말에 부산에 **간** 기차를 탔다. (x)
어머니는 글씨를 예쁘게 **쓰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o) / 어머니는 글씨를 예쁘게 **쓴** 사람을 좋아하신다. (x)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힘들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이 더 좋아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은 당연해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的'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지금 **노래하는** 사람이 철수예요. - 现在唱歌**的**那个人是哲洙.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 做运动**的**人越来越多.
지금은 **쉬는** 시간이에요. - 现在是休息时间.
저기 **예쁜** 여자애가 누구예요? - 那个漂亮女孩是谁?

② 용법과 오류

- '-는'은 동사, '있다', '없다'와만 결합한다. 그러나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的'은 동사, 형용사와 모두 결합하고 시제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예쁘는 꽃을 좋아해요. (x)
조용하는 교실에서 공부합니다. (x)
어제 보는 영화가 재미있어요. (x)

- 'ㄹ' 받침의 동사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는'을 써야 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동사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울는 아이를 빨리 달래세요. (x)
나는 음식 만들는 것을 좋아해요. (x)

3.4.3. '-은2'

-은2[-ㄴ2][전성어미] 동사를 **관형사형**으로 바꾸어 명사를 수식하게 하며, 동작이나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전성어미.

-은2: (동사에 붙어) 그 동작이나 행위가 과거에 있어났거나 완료된 행위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은' 앞에 오는 동사를 관형사형으로 바꾸어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선생님, 이 사진은 언제 찍으셨어요? 나: 지난 학기에 **찍은** 사진이에요. 가: 수지 씨가 누구예요? 나: 저기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수지 씨예요. 가: 이 편지는 누가 **쓴** 편지예요? 나: 마이클 씨가 **쓴** 편지예요. 가: 영수 씨가 **만든** 꽃은 어디에 있어요? 나: 제가 **만든** 꽃은 집에 있어요. 가: 이 상자는 뭐예요? 나: 어머니께서 **주신** 제 생일 선물이에요.
문장예문	. 제가 어제 친구와 **먹은** 음식은 불고기예요. . 어제 여기에 **앉은** 사람이 누구예요? · 작년 여름방학에 저희가 **방문한** 곳은 부산입니다. . 봄에 **산** 옷이 작아요. . 지난 주말에 도서관에서 **공부한** 사람은 앤디 씨예요. . 제가 **여행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 미국이에요. . 지난주에 수지 씨가 **만든** 케이크가 정말 맛있었어요. . 어제 마이클 씨에게 **들은** 소식을 알려주세요. . 작년 생일에 제가 **받은** 선물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 어젯밤에 저와 **전화한** 사람은 왕밍 씨입니다.

+ '-은2'는 동사와 결합하든 형용사와 결합하든 뒤의 명사를 수식할 수 있게 한다. 둘의 차이는 동사에 '-은'이 결합하면 과거 사건을 나타낸다는 점인데, 이처럼 동사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은'과 현재를 나타내는 '-는'이 있다.
+ '-은'이 결합하는 동사에 따라 '-은'의 기능이 달리 해석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찍은'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행위이지만 '입은'은 과거의 행위가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입다'가 동작이 완료된 결과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이다.

[도입]

(1)
교사: 왕밍 씨, 어디에서 왔어요?
학생: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교사: 왕밍 씨는 중국에서 왔어요. 이 사람은 중국에서 **온** 왕밍 씨예요.

(2)
교사: 주말에 누가 영화 봤어요?
학생들: 마이클 씨가 영화를 봤어요.
교사: 네, 마이클 씨가 영화를 봤어요.
주말에 영화를 **본** 사람은 마이클 씨에요.

(3)
교사: (책을 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학생: 책이에요.
교사: 네, 책이에요. 선생님이 이 책을 샀어요. 이 책은 선생님이 **산** 책이에요. 선생님이 책을 읽었어요?
학생: 몰라요.
교사: 선생님이 이 책 읽었어요. 이 책은 선생님이 **읽은** 책이에요.

+ '-은2'를 도입할 때는 (1),(2)에서와 같이 학생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 물어보고 그 대답을 문장으로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좋다. (3)은 사물을 이용하여 이를 수식할 수 있는 동사를 찾아 학생들에게 질문한 뒤 목표 문법을 제시해 준 예이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을 쓴다.

예) 입- + -은 → 입은　　받- + -은 → 받은
먹- + -은 → 먹은　　읽- + -은 → 읽은
찾- + -은 → 찾은　　찍- + -은 → 찍은

② 동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에는 '-ㄴ'을 쓴다.

예) 오- + -ㄴ → 온　　만나- + -ㄴ → 만난
보- + -ㄴ → 본　　주- + -ㄴ → 준
살- + -ㄴ → 산　　만들- + -ㄴ → 만든

①	받침 o	+ -은	입은, 받은, 먹은, 읽은, 찾은, 찍은
②	받침 ×	+ -ㄴ	온, 만난, 본, 준
	ㄹ 받침	+ -ㄴ (어간 'ㄹ' 탈락)	산, 만든

③ 불규칙 동사
듣- 예) 어제 **들은** 노래가 수지 씨의 노래예요.
짓- 예) 작년에 제가 **지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줍- 예) 어제 제가 **주운** 지갑을 경찰서에 갖다 주었어요.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지 않다'를 '-은' 앞에 쓰거나, '안'을 '-은' 앞에 쓴다.
예) 언니는 저에게 아직 읽지 **않은** 책을 주었어요.
언니는 저에게 아직 안 **읽은** 책을 주었어요.
어제 숙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숙제를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확장]
① '-은'이 완료된 행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은'은 '-아 있다'나 '-고 있다'으로 대체될 수 있다.
예) 저기 의자에 **앉은** 분이 영수 씨입니다.
= 저기 의자에 **앉아 있는** 분이 영수 씨입니다.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제 동생입니다.
=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제 동생입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的'
예) 작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 去年照**的**照片.
친구에게 **쓴** 편지입니다. - 给朋友写**的**信.
어제 **본** 영화가 아주 재미있었어요. - 昨天看**的**电影很有意思.
제가 **만든** 김밥을 드셔 보세요. - 请尝尝我做**的**紫菜包饭.

② 용법과 오류
- 동사 어간과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 '-는'과 '-ㄴ/은'의 중국어 대응 표현이 모두 '的'이므로 학습자들이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ㄴ/은'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는'을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어제 사는 옷이에요. (x)
지난 주말에 찍는 사진이에요. (x)

- 'ㄹ' 받침의 동사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ㄴ'을 써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동사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받침 있는 어간 뒤에 쓰이는 '-은'을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제가 직접 만들은 떡볶이예요. (x)
왕밍 씨가 어릴 때 살은 집이에요. (x)

3.4.4. '-은3'

-은3[-ㄴ3][전성어미] 형용사 등을 **관형사형**으로 바꾸어 명사를 수식하게 하고, 사물이나 사람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전성어미.

-은3: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수식하는 명사의 구체적인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형용사 등을 관형사형으로 바꾸어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민준 씨,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나: 저는 키가 **작은** 여자가 좋아요. 가: 수지 씨, 어떤 컴퓨터를 사고 싶어요? 나: 저는 속도가 **빠른** 컴퓨터를 사고 싶어요. 가: 무슨 음식을 먹을까요? 나: 저는 **매운** 음식이 먹고 싶어요. 가: 왕밍 씨, 어떤 교실이 좋아요? 나: 저는 **깨끗한** 교실이 좋아요. 가: 저 책은 누구의 책이에요? 나: 책상 위에 **있는** 책은 모두 줄리아 씨의 책이에요. 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 이것은 한국의 전통 **악기인** 장구입니다.
문장예문	. 흐엉 씨, 좀 **낮은** 구두를 신으세요. . 제가 이번에 **넓은** 방으로 이사했어요. .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은 영수 씨예요. . 이 옷보다 더 **싼** 옷을 보여주세요. . 우리 반에서 제일 **착한** 사람은 현우 씨예요. . 줄리아 씨가 집에서 **먼**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 어머니, **무거운** 가방은 저에게 주세요. . 집에 혼자 **있는** 동생이 걱정이에요. . 선생님은 **의사인** 남자친구가 있어요. . **신입생인** 영수 씨는 항상 아침에 일찍 옵니다.

+ '-은3'은 형용사에 붙어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게 하는 관형사형 어미로,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수식되는 대상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동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주절의

시제를 기준으로 내포절의 시제가 현재이면 '-는'을(나는 철수가 학교에 가는 것을 보았다.), 과거이면 '-은'을 사용한다(나는 철수가 어제 학교에 간 것을 안다.). 그러나 대상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은'은 주절의 시제가 현재이든 과거이든 관계없이 '-은'을 사용한다.('영수는 오늘 넓은 방으로 이사한다./ 영수는 어제 넓은 방으로 이사했다.) 다시 말하여 대상의 속성이나 상태는 주절의 사건과 상관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은'을 사용하는 것이다.

+ '있다/없다'나 '있다/없다'가 붙은 형용사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한다.

[도입]

(1)
교사: (교실에 있는 학생을 가리키며) 줄리아 씨가 어때요?
학생: 예뻐요. 착해요.
교사: 줄리아 씨는 예뻐요. **예쁜** 줄리아 씨예요.
예쁜 줄리아 씨는 무엇을 해요?
학생: 한국어 공부를 해요.
교사: 네, **예쁜** 줄리아 씨는 한국어 공부를 해요.

(2)
교사: 앤디 씨는 어떤 사람 좋아요?
학생: 착해요. 예뻐요. 멋있어요. 키가 커요.
교사: 착해요. 좋아요. 저는 **착한** 사람이 좋아요.
멋있어요. 좋아요. 저는 **멋있는** 사람이 좋아요.

+ '은3'을 도입할 때는 (1)에서와 같이 교실 안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 교실 안 학생의 모습이나 사물의 상태를 물어보면서 연습을 반복하면 좋다. 이와 마찬가지로 (2)에서와 같이 사람의 성격이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을 연습할 수 있다. '있다, 없다'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는다는 것도 알려 주는 게 좋다.

[형태 정보]

①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을 쓴다.

예) 작- + -은 → 작은　　많- + -은 → 많은
짧- + -은 → 짧은　　높- + -은 → 높은
좋- + -은 → 좋은　　맑- + -은 → 맑은

②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ㄴ'을 쓴다.

예) 크- + -ㄴ → 큰　　예쁘- + -ㄴ → 예쁜
싸- + -ㄴ → 싼　　깨끗하- + -ㄴ → 깨끗한
길- + -ㄴ → 긴　　멀- + -ㄴ → 먼

①	받침 ㅇ	+ -은	작은, 많은, 짧은, 높은, 좋은, 많은
②	받침 ×	+ -ㄴ	큰, 예쁜, 싼, 깨끗한
	ㄹ 받침	+ -ㄴ (어간 'ㄹ' 탈락)	긴, 먼

+ '-은'은 형용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ㄴ'이 결합한다. '길은, 멀은'처럼 쓰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저는 머리가 긴 사람이 좋아요. (o) 저는 머리가 길은 사람이 좋아요. (x)
치앙 씨는 학교에서 먼 곳에 살아요. (o) 치앙 씨는 학교에서 멀은 곳에 살아요. (x)

③ '이다, 아니다'는 '-ㄴ'을 쓴다.

예) 학생이- + -ㄴ → 학생인 사람이- + -ㄴ → 사람인
교사이- + -ㄴ → 교사인 컴퓨터이- + -ㄴ → 컴퓨터인
아니- + -ㄴ → 아닌

④ 불규칙 형용사
춥- 예) 저는 **추운** 날씨가 좋아요.
낫- 예) 히로 씨, 푹 쉬고 빨리 **나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빨갛- 예) 수지 씨의 **빨간** 구두가 너무 예뻐요.

⑤ '있다, 없다'나 '있다, 없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 '재미있다, 재미없다, 맛있다, 맛없다' 등의 형용사는 '-는'을 붙여 쓴다.

예) 방에 **있는** 물건을 모두 옮기세요.
지금 교실에 **없는** 사람은 마이클 씨예요.
저는 요즘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요.
주말에 수지 씨와 같이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확장]
① 두 가지 이상의 형용사를 이용하여 상태를 설명하고 싶을 때는 '-고'를 사용하여 연결한 후에 가장 뒤의 형용사에 '-은'을 쓴다.

예) 수지 씨는 재미있고 **아름다운** 영화를 좋아해요. (o)
수지 씨는 **재미있는 아름다운** 영화를 좋아해요. (x)
저는 키가 크고 **잘생긴** 마이클 씨가 좋아요. (o)
저는 키가 **큰 잘생긴** 마이클 씨가 좋아요. (x)

② 대상의 속성이나 상태가 과거의 일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던'이나 '-었던'을 사용한다.

예) 어제 **아프던** 사람은 영수 씨예요. (o)
어제 **아팠던** 사람은 영수 씨예요. (o)
작년에 **길던** 옷이 지금은 작아요. (o)
작년에 **길었던** 옷이 지금은 작아요.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的'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매운** 음식이 먹고 싶다. - 想吃辣**的.**
저는 키가 **작은** 사람이 좋아요. - 我喜欢个字矮**的**人.
철수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 哲洙是个善良**的**人.
넓은 방으로 이사했어요. - 搬到大房间.

② 용법과 오류

- '-는'은 동사, '있다', '없다'와 결합하고 '-은'은 형용사 어간과 '이다, 아니다' 어간과 결합하지만, '-는'과 '-은'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的'은 동사, 형용사와 모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예쁘는 꽃을 좋아해요. (x)
조용하는 교실에서 공부합니다. (x)
생일에 맛있은 케이크를 먹었어요. (x)
재미있은 영화를 봤어요. (x)

- 'ㄹ' 받침의 형용사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ㄴ'을 써야 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ㄹ'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저는 길은 머리가 좋아요. (x)
그렇게 멀은 거리는 아니에요. (x)

3.4.5. '-을2'

-을2[-ㄹ2][전성어미] 동사, 형용사 등을 **관형사형**으로 바꾸어 명사를 수식하게 하며, **미래**에 일어날 상황이나 **추측, 예정, 의도** 등을 나타내는 전성어미.

-을2: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미래에 발생하는 상황이나 행위에 대한 추측, 예정, 의도 등을 나타낸다. '-을' 앞에 오는 동사와 형용사 등을 관형사형으로 바꾸어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흐엉 씨, 이 옷을 여름에 입어도 괜찮을까요? 나: 네, 여름에 입으면 **예쁠** 옷이에요. 가: 현우 씨, 이번 방학에 어디에 갈 거예요? 나: 저는 부산에 **갈** 예정이에요. 가: 마이클 씨, 고향에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나: 아니요. 내년에 갈 거예요. 가: 줄리아 씨, 새 책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나: 새 책이 **아닐** 경우에 서점에 가서 바꿔 달라고 하세요. 가: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할머니가 과거에 **겪었을**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장예문	· 수지 씨, 제가 **먹을** 케이크를 남겨주세요. · 시험이 내일이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 저는 이번 학기부터 대학교에 **다닐** 생각이에요. · 비행기가 **출발할** 시간이 되었어요. . 그 옷이 마이클 씨가 입기에는 **작을** 크기예요. · 다음 주에는 지금보다 더 **바쁠** 거예요. · 저는 영수 씨에게 **들을** 이야기가 없어요. . 나는 이 책을 **읽을** 마음이 없다. . 줄리아 씨가 철수 씨의 **여자친구일** 가능성이 있어요. . 앤디 씨는 지난 달에 미국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 '-을2'는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결합하여 이를 관형어로 바꾸어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게 한다. '-을'의 기능은 미래, 추측, 예정, 의도 등으로 기술되는데 '제가 먹을 케이크'는 미래나 예정, '입기에는 작을 크기'는 추측, '읽을 마음'은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추측이나 예정은 뜻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술할 때 사용하

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 학문 문법에서는 '-을'의 미래 시제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교육 문법에서는 미래 시제를 인정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도입]

(1)
교사: 미도리 씨, 주말에 뭐 할 거예요?
학생1: 저는 영화를 볼 거예요.
학생2: 저는 친구와 농구를 할 거예요.
교사: 미도리 씨는 주말에 영화를 볼 거예요.
주말에 영화를 **볼** 사람은 미도리 씨예요.
그럼 농구를 **할** 사람은 누구예요?
학생들: 농구를 **할** 사람은 앤디 씨예요.

(2)
교사: 왕밍 씨, 1년 후에 뭐해요?
학생: 직장에 다녀요. 중국에 가요.
교사: 네, 왕밍 씨 1년 후에 직장 다녀요. 1년 후에 직장에 **다닐** 왕밍 씨를 생각해 봐요. 왕밍 씨가 어떨까요?
학생: 멋있어요. 돈 많아요.
교사: **멋있을** 왕밍 씨를 생각해 봐요.

+ '-을2'는 (1)과 같이 예정의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하므로, 주말에 할 일을 물어 보고 이에 대한 대답을 이용하여 '-을'을 도입할 수 있다. (2)에서는 '-을'의 추측의 의미를 도입하기 위한 예이다. 추측 역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예정의 의미와 겹친다.

[형태 정보]

① 동사나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을 쓴다.

예) 먹- + -을 → 먹을　　읽- + -을 → 읽을
찾- + -을 → 찾을　　많- + -을 → 많을
높- + -을 → 높을　　작- + -을 → 작을

② 동사나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ㄹ'을 쓴다.

예) 보- + -ㄹ → 볼　　쓰- + -ㄹ → 쓸
만나- + -ㄹ → 만날　　다니- + -ㄹ → 다닐
살- + -ㄹ → 살　　멀- + -ㄹ → 멀

①	받침 o	+을	먹을, 읽을, 찾을, 많을, 높을, 작을

②	받침 x	+ㄹ	볼, 쓸, 만날, 다닐
	ㄹ 받침	+ㄹ (어간 'ㄹ' 탈락)	살, 멀

③ 불규칙

듣- 예) 저는 수지 씨에게 **들을** 말이 없어요.

짓- 예) 우리 가족은 내년에 제주도에 집을 **지을** 예정이에요.

돕- 예) 선생님,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듣다'의 경우 '들을'의 형태로 활용하는 데 간혹 학습자들이 '들을'에서 받침이 'ㄹ'인데 왜 '을'이 오느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듣다' 기본형의 원래 받침이 'ㄹ'이 아닌 'ㄷ'임을 주지시켜서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은 '-지 않을', '안 -을'로 쓴다.

예) 수지 씨는 새 옷을 입지 **않을** 생각이에요.
수지 씨는 새 옷을 안 **입을** 생각이에요.
저는 내년에 학교에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저는 내년에 학교에 안 **갈** 생각이에요.

[제약 정보]

① 과거 '-었-'과 결합할 수 있으나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영수는 시험에 꼭 **합격했을** 사람이야. (o)
영수는 시험에 꼭 **합격하겠을** 사람이야. (x)

[확장]

① '-을' 뒤에 '일, 때, 뿐' 등이 붙을 때는 시제 의미 없이, 단지 뒤에 나타나는 명사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예) 저는 그 노래를 **부를** 일이 없어요.
아기는 **웃을** 때가 제일 예뻐요.
두 사람이 사귀는 것은 저만 아는 **비밀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큰 소리로 말해야 해요.

+ '요즘 주말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의 '할 일'과 '수지 씨가 너무 바빠서 쉴 틈이 없어요.'의 '쉴 틈'과 같이 시제와 무관하게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

②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추측할 때 '-었을'을 쓴다.

예) 지금쯤 아이를 **찾았을** 경찰에게 전화해야겠다.
내가 어렸을 때 **겪었을** 일에 대해 떠올려 본다.
왕밍 씨가 혼자 살았다면 **있었을** 일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수지 씨는 친구들이 어제 **공부했을** 부분을 정리하고 있어요.

③ 한자의 새김인 뜻과 음을 이어서 읽을 때 사용한다.

예) **많을** 다(多)　　**클** 대(大)　　**먹을** 식(食)　　**밝을** 명(明)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的'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내일 **입을** 옷이에요. - 是明天要穿**的**衣服.
주말에 농구를 **할** 사람 있어요? - 有没有周末打篮球**的**人?
친구에게 **줄** 선물입니다. - 要送给朋友的礼物.
다음 주부터 영어학원에 **다닐** 생각이에요. - 打算下周开始上英语补习班.

② 용법과 오류

- 동사 어간과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 '-는'과 '-을'이 중국어에서 모두 '的'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을'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는'을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내일 발표하는 내용이에요. (x)
하는 말이 있으면 어서 하세요. (x)

- 'ㄹ' 받침의 동사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ㄹ'을 써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동사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받침 있는 어간 뒤에 쓰이는 '-을'을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내일 만들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x)
옷을 걸을 곳이 없어요. (x)

'사다'는 '-을'이 결합하면 '살'이라고 써야 하는데 '살을'로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마트에서 살을 물건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x)

-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추측할 때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하여 '-었을'로 쓰이지만 학습자들이 '-었-'을 사용하지 않아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내가 7살 때 겪을 일에 대해 떠올려 보았다. (x)
지금쯤 이미 도착할 철수에게 전화해야겠다. (x)

3.4.6. '-음'

-음[-ㅁ][전성어미] 동사, 형용사 등을 **명사형**으로 바꾸어 그 말이 문장 내에서 **명사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전성어미.

-음: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그 말이 명사로 기능함을 나타낸다. 동사, 형용사 등을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만들 때 사용한다. 주로 글에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왕밍 씨,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해요? 나: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봄**으로 시간을 보내요. 가: 흐엉 씨, 벌써 10월이에요. 나: 시간이 **빠름**을 알 수 있어요. 가: 영수 씨가 기분이 좋아 보여요. 나: 네, 영수 씨가 시험에 **합격했음**이 확실해요. 가: 수지 씨, 앤디 씨가 학생이에요? 나: 네, 앤디 씨가 **학생임**이 틀림없어요. 가: 선생님이 칠판에 뭐라고 쓰셨어요? 나: '내일 수업은 **휴강임**'이라고 쓰셨어요.
문장예문	· 왕밍 씨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준다. · 남자친구가 제 잘못을 **모름**에 안심했어요. · 그 남자는 곧 연주회가 **시작됨**을 모두에게 알렸다. · 영수의 키가 **작음**에 다시 한 번 놀랐다. · 수지는 내가 영수에게 편지를 **보냈음**을 안다. · 영수는 수지가 이미 **결혼했음**을 몰랐다. · 줄리아 씨가 이번 시험에 최선을 **다했음**을 저는 압니다. · 메모에는 '내일 다시 **오겠음**'이라고 써 있었다. · 앤디 씨가 미국 **사람임**을 알아요. · 오늘 수업이 **없음**을 학생들에게 알려 주세요.

+ '-음'은 동사나 형용사 등을 명사화한다는 점에서 전성어미 '-기'와 유사하나, '-기'와 교체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학교 문법에서는 둘 다 동사, 형용사를 명사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명사형 어미라고 한다. '-음'은 '-는 것'이나 '-은 것'과 큰 의미 차이 없이 바꿔 쓸 수 있는데, '-음'은 글이나 격식적인 맥락에서 주로 쓰고 '-는 것'은 말할 때 주로 쓴다.
+ '-음'은 '내일 수업은 휴강임, 내일 다시 오겠음'의 예에서 보듯 종결어미처럼 사용된다. '-

음'은 이처럼 종결어미가 있는 문장을 명사형으로 짧게 줄이는 기능을 한다. 편지글에서 사용하는 '드림, 올림, 씀, 보냄' 등은 '드립니다, 올립니다, 씁니다, 보냅니다'를 명사형으로 바꾸어 쓰는 말이다.

[도입]

(1)
교사: 밤에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요?
학생: 텔레비전을 봐요. 책을 읽어요.
교사: 텔레비전을 **봄**으로 시간을 보내요. 책을 **읽음**으로 시간을 보내요.

(2)
교사: 시험이 언제예요?
학생: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교사: 그래요. 시험이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잊지 마세요.
시험이 다음 주 **수요일임**을 잊지 마세요.

+ '-음'을 따로 교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음'을 도입할 때 (1)에서와 같이 '-음으로'의 형태로 수단을 나타내는 용법을 제시하거나, (2)처럼 명사형 어미 '-음'과 자주 결합하는 동사나 형용사를 정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여 '-음'을 사용하여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 제시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음'을 쓴다.

예) 먹- + -음 → 먹음　　찾- + -음 → 찾음
입- + -음 → 입음　　작- + -음 → 작음
높- + -음 → 높음　　맑- + -음 → 맑음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ㅁ'을 쓴다.

예) 가- + -ㅁ → 감　　보- + -ㅁ → 봄
크- + -ㅁ → 큼　　멀- + -ㅁ → 멂
알- + -ㅁ → 앎　　살- + -ㅁ → 삶

①	받침 o	+ -음	먹음, 찾음, 입음, 작음, 높음, 맑음
②	받침 ×	+ -ㅁ	감, 봄, 큼
	ㄹ 받침	+ -ㅁ (어간 'ㄹ' 탈락)	멂, 앎, 삶

+ 'ㄹ' 받침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할 때 'ㄹ' 받침이 탈락하지 않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팖, 만듦' 등의 명사형은 '팜, 만듬'과 발음이 같기 때문에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예) 팔다 → 팜(x) 팖(o) 알다 → 암(x) 앎(o) 살다 → 삼(x) 삶(o)
만들다 → 만듬(x) 만듦(o) 멀다 → 멈(x) 멂(o) 길다 → 김(x) 깊(o)

③ 불규칙
듣- 예) 오늘 아침에 선생님께 **들음**으로써 시험 점수를 알았다.
춥- 예) 11월이 되자 날씨가 **추움**을 느꼈다.
낫- 예) 어머니는 철수의 감기가 쉽게 **나음**에 안심하셨다.

[문장 구성 정보]
① 과거 '-었-'과 결합할 수 있다.
예) 선생님이 어제 시험에 대해 **말했음**을 잊었어요.
저는 수지 씨가 대학교에 **합격했음**을 몰랐어요.
나는 친구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많았음**을 뒤늦게 알았다.
마이클 씨가 **학생이었음**이 분명해요.

[확장]
① 문장을 종결할 때 '-음'을 사용하여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간단하게 알리거나 기록할 때 쓴다. 주로 메모나 공고문을 쓸 때 사용한다. 이때 미래, 추측, 의지 등을 표현하기 위해 '-겠-'이 결합되어 쓰이기도 한다.

예) 내일 오전 9시에 회의가 **있음**. 다음 주 목요일에 시험을 **봄**.
내일은 날씨가 **맑겠음**. 오늘 수업은 10시부터 **하겠음**.

② 동사나 형용사에 '-음'이 붙은 형태가 명사인 예가 있다.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예) 영수는 텔레비전을 보다 **웃음**을 터뜨렸다.
수지는 **믿음**이 가는 친구이다.
동생은 큰 **슬픔**을 이기고 잘 살고 있다. (o)
동생은 크게 **슬픔**을 이기고 잘 살고 있다. (x)

[유사 문법]
① '-음', '-기'

-음	-기
· 동사, 형용사 또는 '이다', '아니다' 등에 붙어 그 말이 문장 내에서 명사 기능을 하게 한다.	
· 이미 일어났거나 구체적인 일을 나타낼 때 주로 쓴다. 예) 은행에서 돈을 **찾음**. (이미 은행에서 돈을 찾았다.)	·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머릿속에서 그린 일을 나타낼 때 주로 쓴다. 예) 은행에서 돈을 **찾기**. (앞으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한다.)
· 이미 일어난 일을 나타내므로 '-었-'과 함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나타내므로 '-었

께 쓰일 수 있다. 예) 문소리로 그가 **왔음**을 알았다.	-'과 함께 쓰이기 어렵다. 예) 비가 와서 집에 **가기**가 싫었다. (o) 비가 와서 집에 **갔기**가 싫었다. (x)
· '기억하다, 깨닫다, 떠오르다, 떠올리다, 모르다, 알다, 잊다, 한탄하다, 보이다, 알리다, 암시하다, 드러나다, 드러내다, 분명하다, 밝혀지다, 밝히다, 알려지다, 틀림없다, 확실하다, 고백하다, 발표하다, 보고하다, 주장하다, 지적하다, 통지하다, 부당하다, 어리석다, 이상하다, 타당하다, 현명하다' 등의 서술어가 뒤에 나온다.	· '꺼리다, 싫어하다, 좋아하다, 즐기다, 가능하다, 까다롭다, 나쁘다, 쉽다, 알맞다, 어렵다, 적당하다, 좋다, 힘들다, 갈망하다, 고대하다, 기다리다, 기대하다, 기원하다, 바라다, 원하다, 희망하다, 결심하다, 결정하다, 계획하다, 맹세하다, 약속하다, 정하다' 등의 서술어가 뒤에 나온다.
· '-음으로써' 이외에는 관습적으로 굳어진 표현에서 쓰이는 경우가 드물다.	· '-기 나름이다, -기 마련이다, -기 십상이다, -기 위해, -기 때문'과 같이 관습적으로 굳어진 표현에서 자주 쓰인다.

② '-음', '-는 것/-은 것/-을 것'

-음	**-는 것, -은 것, -을 것**
· 동사, 형용사 또는 '이다', '아니다' 등에 붙어 그 말이 문장 내에서 명사 기능을 하게 한다.	
· 뒤에 나오는 서술어에 제약이 있다.	· 뒤에 나오는 서술어에 제약이 거의 없다.
· 동사와 형용사, '이다', '아니다' 모두에 '-음'이 붙는다. 과거는 '-었음'으로 나타낸다. 예) 그가 일을 그렇게 **처리함**은 현명하다. 그가 가장 **어리석었음**이 드러났다.	· 동사와 형용사('이다, 아니다' 포함)의 관형사형의 시제에 따라 '-는 것', '-은 것', '-을 것'이 나뉘어 쓰인다. 예) 그가 **가는 것**이 보인다. (동사 현재) 순희가 **예쁜 것**이 확실하다. (형용사 현재) 그 도둑이 **잡힌 것**을 나중에 들었다. (동사 과거) 영희가 **학생인 것**이 맞니? ('이다' 현재) 그가 **갈 것**이 예정되어 있다. (동사 미래)
· 미래 표현 '-겠음'은 종결형으로만 쓰이고 문장 속에 안겨 쓰이지 않는다. 예) 내가 **가겠음**. (o) 그가 **가겠음**이 예정되어 있다. (x)	· 미래 표현 '-을 것'은 종결형에서뿐 아니라 문장 속에 안겨서도 쓸 수 있다. 예) 그가 **갈 것**. (o) 그가 **갈 것**이 예정되어 있다. (o)
· 문어에서 주로 사용한다. 예) 그는 밤새 친구가 **왔다갔음**을 알았다. (o) / 밤새 친구가 **왔다갔음**을 알았어?	· 문어와 구어에 관계없이 쓰인다. 예) 그는 밤새 친구가 **왔다간 것**을 알았다. (o) / 밤새 친구가 **왔다간 거** 알았어?

(?) 나는 피로로 온몸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o) / 가방이 **무거워짐**을 느꼈니? (?)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 (o)	(o) 나는 피로로 온몸이 **무거워진 것**을 느꼈다. (o) / 가방이 **무거워진 거** 느꼈어?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저는 제주도의 **깨끗함**이 좋아요. - 我喜欢济州岛的干净.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겠다.
- 以认真学习来报答父母对我的爱.
그가 이번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알게 되었다.
- 知道了他尽力准备了本次活动.
헤럴드 씨가 **미국사람임**을 몰랐다. - 不知道海勒得是美国人.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의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지 않고 '-ㅁ'을 써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음'을 사용하거나 'ㄹ'을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다.

예) 음식을 만듬 (x) 음식을 만들음 (x) 음식을 만듦 (o)

- 과거를 나타낼 때는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하여 '-었음'으로 쓰이지만 학습자들이 '-었-'을 사용하지 않아 오류가 나타난다.

예) 작년에 날씨가 추움을 몰랐다. (x)
동생이 대학교에 합격함을 몰랐다. (x)

- 학습자들이 '듣다', '눕다', '짓다' 등 동사의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인다.

예) 음악을 듣음. (x)
밥을 짓음. (x)

- 중국어 학습자들은 '-음'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 '-기'를 사용하여 용언을 명사화하는 사용 오류를 보인다.

예) 마이클 씨가 학생이었기가 분명해요. (x)
나는 수지 씨가 결혼했기를 몰랐다. (x)
앤디 씨가 미국 사람이기를 알아요. (x)
수업이 없기를 학생들에게 말해주세요. (x)

- '-음'은 문어에서 많이 쓰이지만 학습자들이 구어에서도 사용하여 어색한 문장을 만들기도 한다.

예) 나는 친구들과 여행함을 좋아해. (?)
너는 날씨가 추움을 느꼈니? (?)

3.5. 종결어미

3.5.1. '-고4'

-고4{-고요}[종결어미] 앞의 말에 **덧붙이거나 계속 이어서 서술하거나 질문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고4: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상대방이나 말하는 사람이 한 말에 어떤 내용을 계속 이어 말하거나 덧붙이거나 또는 뒤에 올 말을 생략하여 서술, 질문함을 나타낸다. 주로 말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오늘 날씨가 어때요? 나: 추워요. 바람도 **불고요.** 가: 줄리아 씨가 노래를 참 잘하지요? 나: 네, 춤도 잘 **추고요.** 가: 몸은 좀 어때요? 나: 이제 괜찮아요. 목도 **아프지 않고요.** 가: 안녕하세요? 나: 그래, 잘 지냈니? 부모님은 **안녕하시고?** 가: 책하고 공책도 다 넣었어요. 나: 펜은 **넣었고?**
문장예문	· 어서 오거라. 밥은 **먹었고?** · 저는 책을 읽어요. 누나는 텔레비전을 **보고요.** · 저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신혼여행은 아직 못 **갔고요.** · 방이 너무 좁아요. 어둡기도 **하고요.** · 너무 힘들어요. 숙제도 **어렵고요.** · 그 영화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고요.** · 잘 지내셨어요? 어른들도 별고 **없으시고요?** · 줄리아 씨요? 흐엉 씨가 **아니고요?** · 왕밍 씨는 중국 사람이에요. 미도리 씨는 **일본 사람이고요.**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예요. 땅의 대부분은 **산지고요.**

+ '-고'는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 자신이나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에서

어떠한 내용을 계속 이어 말하여, 자신의 뜻을 덧붙이며 전달하거나 질문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이다. '방이 너무 좁다'는 자신의 생각에 덧붙여서 '방이 어둡다'는 사실까지 이어서 전달할 때 사용한다. 또한 '밥은 먹었고'처럼 끝을 올려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도 사용한다. 말할 때 주로 사용되며 [구]로 발음되기도 한다.

+ 주로 친구 관계나 그 밖에 아주 친한 사이에서, 또는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쓴다. 높임 표현으로는 '-요'가 결합한 '-고요'의 형태를 사용한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미도리 씨가 한국어를 잘해요?
학생: 네, 잘해요.
교사: 미도리 씨가 한국어를 잘해요. 또 무엇을 잘해요?
학생: 일본어도 잘해요.
교사: 네, 미도리 씨가 한국어를 잘해요. 일본어도 **잘하고요.**

(2)
교사: 선생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학생: 한국 사람이에요.
교사: 왕밍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학생: 중국 사람이에요.
교사: 네, 선생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왕밍 씨는 **중국 사람이고요.**

+ '-고'를 도입할 때는 먼저 어떠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덧붙이도록 유도한다. 학생들에게 앞에서 끝난 이야기에 무언가 덧붙이거나 이어서 말할 때, 이어서 질문할 때 '-고'를 사용한다고 알려 준다. '+' 기호를 사용해 앞의 내용과 덧붙이는 내용을 제시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고'를 쓴다.

예) 찾- + -고 → 찾고　　읽- + -고 → 읽고
가- + -고 → 가고　　다니- + -고 → 다니고
놀- + -고 → 놀고　　만들- + -고 → 만들고
밝- + -고 → 밝고　　좁+ -고 → 좁고
크- + -고 → 크고　　예쁘- + -고 → 예쁘고
길- + -고 → 길고　　멀- + -고 → 멀고

+ 어떤 동사나 형용사가 와도 형태가 변하지 않음에 주의한다.

①	받침 o	+ -고	찾고, 읽고, 놀고, 만들고, 밝고, 좁고, 길고, 멀고

	받침 x	+ -고	가고, 다니고, 크고, 예쁘고

② '이다, 아니다'는 '-고'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고'라고 쓴다.

예) 학생이- + -고 → 학생이고　　선생님이- + -고 → 선생님이고
과자이- + -고 → 과자이고/과자고　　종이이- + -고 → 종이이고/종이고
가방이- + -고 → 가방이고　　아니- + -고 → 아니고

[확장]

① 의문문과 함께 쓰여 그 질문과 관련된 상황이나 덧붙여 말할 내용을 나타낸다.

예) 어머,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아직 집에 **있고요**.
무슨 일일까요? 미셸 씨가 화를 다 **내고요**.
지금 뭐 하세요? 손님이 오셨는데 나오지 **않고요**.

+ 이때 주로 관련된 상황에 대해 의아해함을 나타낸다.

② 수사 의문문의 꼴로 쓰여 이미 언급되거나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해 따져 묻거나 상황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예) 안 간다고 할 때는 **언제고**?
네가 안 먹으면 이 많은 음식은 다 어떻게 **하고**?
이 돈을 다 쓰시면 저는 **어떡하고요**?

+ 질문 형식이지만 수사 의문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끝을 올리지 않는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왕밍 씨도 중국 사람이**고요**.
- 我是中国人, 王明也是中国人.
드라마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주인공들의 연기도 좋**고요**.
- 连续剧很有意思, 主人公的演技也很棒.
여행지로 제주도가 좋아. 설악산도 **좋고**.
- 济州岛是个很好的旅游之地, 雪岳山也不错.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별 다른 일은 없었**고요**? - 过得好吗？ 没别的事情吧？

② 용법과 오류

-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내용을 덧붙여 말할 경우에도 '-고'를 사용하지 않고 '-ㅂ/습니다', '-어요'와 같은 종결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 여행지로 제주도가 좋아. 설악산도 좋아.

('설악산도 좋고'로 표현해야 할 경우)
과일 사 왔어요. 우유도 사 왔어요.
('우유도 사 왔고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제주도가 좋아요. 설악산도 좋아요.
('설악산도 좋고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3.5.2. '-네'

-네{-네요}[종결어미] 지금 알게 된 일을 서술하는 종결어미.

-네: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낸다. 흔히 감탄의 뜻으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저는 1년에 책을 100권씩 읽어요. 나: 수지 씨는 책을 정말 많이 **읽네요.** 가: 이 그림은 영수 씨가 그렸어요. 나: 정말요? 영수 씨는 그림을 아주 잘 **그리네요.** 가: 오늘 날씨가 정말 **춥네요.** 나: 네, 바람이 불어서 더 추운 것 같아요. 가: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로 2시간 반 걸려요. 나: 집이 정말 **머네요.** 가: 와, 정말 예쁜 **반지네요.** 누가 줬어요? 나: 남자친구가 선물해 줬어요.
문장예문	· 미도리 씨는 매운 음식을 잘 **먹네요.** · 오늘은 길이 많이 **막히네요.** · 줄리아 씨는 떡볶이를 아주 잘 **만드네요.** · 왕밍 씨는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네요.** · 마이클 씨는 키가 아주 **크네요.** · 흐엉 씨는 머리가 무척 **기네요.** · 이렇게 덥다니 벌써 **여름이네요.** · 컴퓨터로 하니까 일이 별로 **어렵지 않네요.** · 8시 30분인데 벌써 선생님께서 **오셨네요.** · 3시간이나 걸었더니 힘들어서 더 못 **가겠네요.**

+ '-네'는 말하는 사람이 새로 알게 된 사실, 예를 들면 '마이클 씨가 키가 아주 크네요.'나 '흐엉 씨는 머리가 무척 기네요'에서처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놀랍다고 느낄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이다. 주로 친구 관계나 그 밖에 아주 친한 사이에서 또는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에게 쓰는데,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높임 표현으로는 '-요'가 결합한 '-네요'의 형태로 사용하며 주로 말할 때 사용한다.

+ 흔히 놀라움과 감탄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정말, 매우, 무척, 많이'와 같이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와 자주 어울려서 쓰인다.

[도입]

(1)
교사: (자신의 책을 보여 주며)
여러분, 이 책 얼마일까요?
학생: 10,000원이요./ 20,000원이요.
교사: 이 책은 50만원이에요. 어때요?
학생: 정말요? 비싸요.
교사: 몰랐어요. 새로 알았어요. 50만원이에요. 책이 비싸요.
책이 정말 **비싸네요.**

(2)
교사: (아주 많은 음식을 다 먹는 대식가의 사진이나 짧은 동영상을 보여 주며)
여러분, 이 사람 어때요?
학생: 많이 먹어요. 대단해요.
교사: 이 사람은 많이 먹어요. 아주 많이 먹어요. 몰랐어요. 새로 알았어요. 이 사람은 아주 많이 **먹네요.**

+ '-네'를 도입할 때는 학생들이 미처 몰랐던 사실을 그 자리에서 공유하면서 놀라는 감정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놀라움이나 감탄을 표현할 때 '-네'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네'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먹- + -네 → 먹네　　앉- + -네 → 앉네
가- + -네 → 가네　　오- + -네 → 오네
놀- + -네 → 노네　　만들- + -네 → 만드네
작- + -네 → 작네　　넓- + -네 → 넓네
예쁘- + -네 → 예쁘네　　깨끗하- + -네 → 깨끗하네
길- + -네 → 기네　　멀- + -네 → 머네

+ 동사 및 형용사와 결합하며, 'ㄹ' 받침을 제외하면 어떤 받침의 동사나 형용사가 와도 형태가 변하지 않음에 주의한다.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 및 형용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네'가 결합한다.

①	받침 ㅇ	+ -네	먹네, 앉네, 작네, 넓네
	받침 x	+ -네	가네, 오네, 예쁘네, 깨끗하네
	ㄹ 받침	+ -네 (어간 'ㄹ' 탈락)	노네, 만드네, 기네, 머네

② '이다, 아니다'는 '-네'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네'라고 쓴다.

예) 책이- + -네 → 책이네　　사진이- + -네 → 사진이네
의자이- + -네 → 의자이네/의자네　　아기이- + -네 → 아기이네/아기네
여자이- + -네 → 여자이네/여자네　　아니- + -네 → 아니네

[제약 정보]

① 주어가 2,3인칭일 때 주로 사용한다. '-네'는 지금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1인칭 주어를 쓸 수 없다.

예) 나는 친구를 **만나네요**. (x)
왕밍 씨가 친구를 **만나네요**. (o)
나는 많이 **바쁘네요**. (x)
철수가 많이 **바쁘네요**. (o)

+ 주어가 1인칭이더라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내용을 나타낼 때는 '-네'를 쓸 수 있다.

예) 이번 시험에서 내가 **1등이네**. (o)
(1등인지 모르다가 1등인지를 새롭게 알게 된 경우)
아무래도 그 일은 제가 **해야겠네요**. (o)

[확장]

① 주로 어미 '-겠-'과 결합하여 '-겠네요'의 형태로, 말하는 사람이 추측하거나 짐작한 내용을 듣는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여 물어 봄을 나타낸다.

예) 서울역 근처에 있어요? 여기서도 **가깝겠네요**?
배가 부르다니 내가 이 빵을 다 먹어도 **되겠네요**?
이 일을 오전에 다 마치면 오후에는 시간이 좀 **남겠네요**?
영수 씨는 여자 친구가 미스코리아라니 정말 **예쁘겠네요**?

+ 이때 억양은 끝을 올린다.

[유사 문법]

① '-네', '-는군'

-네	-는군
·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감탄함을 나타낸다.	
· 말하는 사람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감탄하며 말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예) (철수를 보고) 철수 씨는 키가 **크네요**. 예) (철수를 보지 않고) 철수 씨가 키가 **크네요**. (x) 예) 가: 이 식당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요. 나: (먹지 않고) 이 식당의 비빔밥이 **맛있네요**. (x) 예) 가: 어제 마이클 씨가 계속 전화했어요. 나: **그랬네요**. (x)	·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감탄하며 말할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 (철수를 보고) 철수 씨는 크가 **크군요**. 예) 가 : 철수는 엄마를 닮아서 키가 커요. 나 : (철수를 보지 않고) **그렇군요**. (o) 예) 가: 이 식당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요. 나: (먹지 않고) 이 식당의 비빔밥이 **맛있군요**. (o) 예) 가: 어제 마이클 씨가 계속 전화했어요. 나: **그랬군요**. (o)
. 말하는 사람이 현재 인식하게 된 어떤 사실에 대해 감탄하며 말할 때 사용한다. 예) 철수가 1등을 **했네요**. (o) 철수가 1등을 **했었네요**. (o)	. 말하는 사람이 현재와 과거에 인식하게 된 어떤 사실에 대해 감탄하며 말할 때 사용한다. 예) 철수가 1등을 **했더군요**. (o) 철수가 1등을 **했군요**. (o)

+ 어떤 사실을 들어서 안 경우 '-네'로 표현하려면 화자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으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예) 가: 학교에서 집까지 10시간 걸렸어요.
나: 10시간 **걸렸네요.** (x)
/ 오래 **걸렸네요.**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어머, 밖에 눈이 **오네요**.- 哇！ 外面下雪了！
동생이 키가 참 **크네요**. - 弟弟个字真高啊！
캠퍼스가 정말 **아름답네요**. - 校园真漂亮啊！
오늘따라 길이 많이 **막히네요**. - 今天格外堵车.

② 용법과 오류

- 현재 깨달은 사실을 나타내므로 1인칭 주어가 잘 쓰이지 않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나는 요즘 많이 바쁘네요. (x)

나는 정말 빨리 걷네요. (x)

3.5.3. '-는군'

-는군[-군]{-는군요/-군요}[종결어미]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는군: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보거나 들음으로써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주목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흔히 감탄의 뜻을 갖는다.

[예문]

담화예문	가: 수지 씨는 학교에 몇 시에 와요? 나: 저는 8시에 와요. 가: 정말 일찍 **오는군요**. 가: 어제 명동에서 새로 산 옷이에요. 어때요? 나: 옷이 정말 **예쁘군요**. 가: 선생님, 수업 시간이 벌써 20분이나 지났어요. 나: 영수 씨가 많이 **늦는군요**. 가: 와, 이 케이크가 참 **맛있겠군요**. 나: 제가 지금 만들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가: 줄리아 씨, 오늘 흐엉 씨의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요? 나: 아, 오늘이 흐엉 씨의 **생일이군요**.
문장예문	. 왕밍 씨가 매운 음식을 잘 **먹는군요**. . 에베레스트 산이 정말 **높더군요**. . 미도리 씨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군요**. . 수지 씨가 눈이 **나쁘군요**. · 오늘은 교실이 정말 **깨끗하군**. . 어머니께서 새로운 요리를 **만드시는군요**. . 현우 씨가 도서관에 혼자 **있군요**. . 분티안 씨가 아직 **학생이군요**. . 동생이 아직도 자는 것을 보니, 감기에 **걸렸군**. . 어제 눈이 제법 많이 **왔군**.

+ '에베레스트 산이 정말 높더군요.'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고 인식하거나, '왕밍 씨가 매운 음식을 잘 먹는군요.'와 같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주목함을 나타낸다. 흔히 감탄하듯이 말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수업에서는 감탄의 뜻으

로 가르치기도 한다.

+ '-는군'은 주로 구어에서 '아랫사람이나 친구'와 같이 친한 사이나 혼잣말에서 사용된다. 듣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을 때는 '-는군요'의 형태로 사용한다.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이 자주 사용한다.

[도입]

(1)
교사: 명동에 가 봤어요?
학생: 네, 가 봤어요.
교사: 명동에 사람이 많았어요?
학생: 네, 많았어요.
교사: 아주 많았어요? 조금 많았어요?
학생: 아주 많았어요.
교사: 네, 명동에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사람이 아주 **많았군요**.

(2)
교사: (비교적 읽기가 능숙한 학생에게 책을 읽게 한다.)
여러분, 어때요? 미도리 씨가 잘 읽어요?
학생: 네, 아주 잘 읽어요.
교사: 네, 아주 잘 읽어요. 정말 잘 **읽는군요**.

+ '-는군'을 도입할 때 도입(1)과 같이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교사가 그 사실을 잘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되어 감탄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는군'을 사용함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도입(2)와 같이 학생들이 몰랐던 사실을 새로 알게 되어 감탄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 '-는군'의 사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는군'을 쓴다.

예) 먹- + -는군 → 먹는군
찾- + -는군 → 찾는군
보- + -는군 → 보는군
만들- + -는군 → 만드는군
듣- + -는군 → 듣는군
가- + -는군 → 가는군
파는- + -는군 → 파는군

②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군'을 쓴다.

예) 작- + -군 → 작군
춥- + -군 → 춥군
바쁘- + -군 → 바쁘군
많- + -군 → 많군
크- + -군 → 크군
예쁘- + -군 → 예쁘군

①	동사	받침 o	+ -는군	먹는군, 듣는군, 찾는군
		받침 x	+ -는군	가는군, 보는군
		ㄹ 받침	+ -는군 (어간 'ㄹ' 탈락)	파는군, 만드는군
②	형용사	받침 o	+ -군	작군, 많군, 춥군
		받침 x	+ -군	크군, 바쁘군, 질군

③ '이다, 아니다'도 '-군'을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군'이라고 쓴다.

예) 학생이- + -군 → 학생이군　　선생님이- + -군 → 선생님이군
책상이- + -군 → 책상이군　　의사 + -군 → 의사군
사과 + -군 → 사과군　　아니- + -군 → 아니군

+ 'N+-군'은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문장 구성 정보]

① 과거는 '-었-'을 붙여 '-었군'으로 쓴다.

예) 작년에는 서울에 눈이 많이 **왔군요**.
어제 수지가 열심히 **공부했군요**.
줄리아 씨가 어렸을 때 정말 **귀여웠군요**.

② 추측을 나타낼 때는 '-겠-'을 붙여 '-겠군'으로 쓴다.

예) 지금쯤 현우 씨는 부산에 **가겠군요**.
주말이라서 도서관에 사람이 **없겠군요**.
12월이니 한국은 날씨가 **춥겠군요**.

③ 동사의 높임은 '-시는군'을, 형용사의 높임은 '-시군-'으로 쓴다.

예) 선생님께서 이제 점심을 **드시는군요**.
할아버지께서 제 방에서 **주무시는군요**.
어머니께서 어제부터 많이 **아프시군요**.
수지 씨의 아버지께서 키가 정말 **크시군요**.

[제약 정보]

① 주어가 2,3인칭일 때 주로 사용한다. '-는군'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1인칭 주어를 쓸 수 없다.

예) 나는 주말에 친구를 **만나는군요**. (x)
왕밍 씨가 주말에 친구를 **만나는군요**. (o)
나는 요즘 많이 **바쁘군요**. (x)

철수가 요즘 많이 **바쁘군요**. (o)

+ 주어가 1인칭이더라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내용을 나타낼 때는 '-는군'을 쓸 수 있다.

예) 이번 시험에서 내가 **1등이군요**. (o)
(1등인지 모르다가 1등인지를 새롭게 알게 된 경우)
아무래도 그 일은 제가 **해야겠군요**. (o)

[확장]

① 잘못한 일을 빈정거리거나 비꼬듯이 말할 때 사용한다.

예) 앤디 씨가 공부는 안 하면서 시험은 잘 **보는군요**.
미셸 씨는 돈도 안 내면서 많이도 **먹는군요**.
동생이 오늘 일찍 일어난다더니 아직도 **자는군요**.

② '-는군'은 해라체에 사용되는 '-는구나'의 준말로 사용된다.

예) 오늘은 수업이 늦게 **끝나는구나**.
= 오늘은 수업이 늦게 **끝나는군**.
너는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 너는 운동을 **좋아하는군**.

[유사문법]

① '-는군', '-네'

-는군	**-네**
·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감탄함을 나타낸다.	
·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감탄하며 말할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 (철수를 보고) 철수 씨는 크가 **크군요**. 예) 가 : 철수는 엄마를 닮아서 키가 커요. 나 : (철수를 보지 않고) **그렇군요**. (o) 예) 가: 이 식당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요. 나: (먹지 않고) 이 식당의 비빔밥이 **맛있군요**. (o) 예) 가: 어제 마이클 씨가 계속 전화했어요. 나: **그랬군요**. (o)	· 말하는 사람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감탄하며 말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예) (철수를 보고) 철수 씨는 키가 **크네요**. 예) (철수를 보지 않고) 철수 씨가 키가 **크네요**. (x) 예) 가: 이 식당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요. 나: (먹지 않고) 이 식당의 비빔밥이 **맛있네요**. (x) 예) 가: 어제 마이클 씨가 계속 전화했어요. 나: **그랬네요**. (x)
. 말하는 사람이 현재와 과거에 인식하게 된 어떤 사실에 대해 감탄하며 말할 때 사용한다.	. 말하는 사람이 현재 인식하게 된 어떤 사실에 대해 감탄하며 말할 때 사용한다. 예) 철수가 1등을 **했네요**. (o)

예) 철수가 1등을 **했더군요**. (o) 철수가 1등을 **했군요**. (o)	철수가 1등을 **했었네요**. (o)

+ 어떤 사실을 들어서 안 경우 '-네'로 표현하려면화자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으로 바꾸어 말해야 한다.

예) 가: 학교에서 집까지 10시간 걸렸어요.
나: 10시간 **걸렸네요.** (x)
/ 오래 **걸렸네요.**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방이 정말 **깨끗하군요.** - 房间真干净啊！
비가 제법 많이 **오는군요**. - 雨下得真大.
철수가 벌써 **떠났군요**. - 哲洙已经出发了呀.
어머니께서 요리를 정말 잘 **만드시는군요**. - 妈妈的烹饪手艺真不错！

② 용법과 오류

- 동사에는 '-는군요', 형용사, '이다, 아니다', '-었-', '-겠-'에는 '-군요'가 결합하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문법 현상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자주 헷갈려 잘못 사용한다.

예) 아이가 밥을 잘 먹군요. (x)
꽃이 참 예쁘는군요. (x)
어릴 때 아주 귀여웠는군요. (x)
철수 씨 동생이는군요. (x)

- 1인칭 주어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감탄을 나타낼 경우에만 쓰이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감탄문에는 잘 쓰이지 않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났군요. (x)
나는 요즘 많이 힘들군요. (x)

3.5.4. '-는데2'

-는데2[-ㄴ데2/-은데2]{-는데요/-ㄴ데요/-은데요}[종결어미] 어떤 일에 대해 **감탄함** 또는 듣는 사람의 **반응을 기다림**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는데2: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어떤 사실을 말하면서 듣는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거나 그것에 대해 감탄하며 서술함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가: 수지 씨,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할까요? 나: 전 오늘 친구와 영화관에 **가는데요**. 가: 영수 씨, 이번 주말에 마이클 씨 생일파티에 같이 갈까요? 나: 저는 초대를 못 **받았는데요**. 가: 저 검은 구름 좀 봐. 금방 비가 **오겠는데**. 나: 그러네. 우리 빨리 집에 가자. 가: (전화 통화할 때) 실례지만, 누구세요? 나: 저 흐엉**인데요**. 가: 분티안 씨, 비가 와서 우산 좀 빌리고 **싶은데요**. 나: 그러세요. 여기 있어요.
문장예문	· 미도리 씨가 한국 음식을 정말 잘 **먹는데요**. · 그 옷은 저한테 너무 **작은데요**. · 저는 무서운 영화를 못 **보는데요**. · 동생이 감기에 걸려서 많이 **아픈데요**. · 앤디 씨가 운동을 아주 **잘하는데요**. · 오늘은 교실이 정말 **깨끗한데요**. · 요즘 서울의 날씨가 정말 **더운데요**.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3시간이나 **노는데요**. · 수지 씨의 어머니가 정말 **미인이신데요**. · 마이클 씨가 어제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 -는데'는 '금방 비가 오겠는데'를 말하고 나서 '우리 빨리 집에 가자'와 같이 듣는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며 대답하거나 반박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듯이 말할 때 사용한다. '-는데'가 초급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전화 통화하는 상황으로, '흐엉인데요.'와 같이 대답을 하고 난 후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림을 나타낸다. 또한 '미도리 씨가 한국 음식

을 정말 잘 먹는데요'와 같이 어떤 사실에 대한 감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이때 문장의 끝부분에서 억양을 살짝 올리면서 말한다.

[도입]

(1)
교사: 우리 같이 밥을 먹을까요?
학생: 오늘 먹어요?
교사: 미안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 안 돼요.
오늘 약속이 **있는데요.**
학생: 그럼 내일은 어때요?
교사: 내일도 약속이 **있는데요**.

(2)
교사: (예쁜 꽃이 있는 사진을 보여 주며)
미도리 씨, 이 꽃이 어때요?
학생: 아주 예뻐요.
교사: 이 꽃이 아주 예뻐요. 아주 **예쁜데요**.

+ 도입(1)과 같이 어떤 상황이나 사실에 대해 말하면서 듣는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는 경우에 '-는데2'를 사용함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입(2)에서와 같이 놀랍거나 흥미로운 그림 또는 사진 자료를 통해 감탄을 나타낼 때 '-는데2'를 사용함을 보여 줄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는데'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먹- + -는데 → 먹는데　　찾- + -는데 → 찾는데
보- + -는데 → 보는데　　가- + -는데 → 가는데
놀- + -는데 → 노는데　　만들- +-는데 → 만드는데

②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데'를 쓴다.

예) 작- + -은데 → 작은데　　많- + -은데 → 많은데
높- + -은데 → 높은데　　낮- + -은데 → 낮은데
넓- + -은데 → 넓은데　　좁- + -은데 → 좁은데

③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ㄴ데'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크- + -ㄴ데 → 큰데　　바쁘- + -ㄴ데 → 바쁜데
싸- + -ㄴ데 → 싼데　　예쁘- + -ㄴ데 → 예쁜데

힘들- + -ㄴ데 → 힘든데　　멀- + -ㄴ데 → 먼데

①	동사	받침 ㅇ	+ -는데	먹는데, 찾는데
		받침 ×		가는데, 보는데
		ㄹ 받침	+ -는데 (어간 'ㄹ' 탈락)	노는데, 만드는데
②	형용사	받침 ㅇ	+ -은데	작은데, 많은데, 높은데, 낮은데, 넓은데, 좁은데
③	형용사	받침 x	+ -ㄴ데	큰데, 바쁜데, 싼데, 예쁜데
		ㄹ 받침	+ -ㄴ데 (어간 'ㄹ' 탈락)	먼데, 힘든데

④ 불규칙

춥- 예) 올해 서울의 날씨가 정말 **추운데요**.

빨갛- 예) 이 사과는 **빨간데요**.

⑤ '이다, 아니다'는 '-ㄴ데'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ㄴ데'라고 쓴다.

예) 선생님이- + -ㄴ데 → 선생님인데　　학생이- + -ㄴ데 → 학생인데
책이- + -ㄴ데 → 책인데　　친구이- + -ㄴ데 → 친구인데/친군데
의사이- + -ㄴ데 → 의사인데/의산데　　아니- + -ㄴ데 → 아닌데

+ 'N+-ㄴ데'는 격식적인 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⑥ '있다, 없다'는 형용사이지만, 동사와 같이 '는데'를 붙여 사용한다.

예) 있- + -는데 → 있는데　　없- + -는데 → 없는데
재미있- + -는데 → 재미있는데　　맛없- + -는데 → 맛없는데

[문장 구성 정보]

① 과거는 '-었는데'로 쓴다.

예) 작년에 할아버지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는데요**.
어제 현우 씨가 컴퓨터를 **샀는데요**.
2년 전에는 동생이 키가 **작았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앤디 씨가 많이 **바빴는데요**.

② '-겠는데'는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추측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통해 유추함을 나타낸다.

예) 왕밍 씨가 저 케이크를 전부 **먹겠는데요**.

이제 곧 비가 **그치겠는데요**.
손님이 많이 와서 준비한 음식이 **적겠는데요**.
수지 씨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기분이 **나쁘겠는데요**.

[확장]

① 어떤 상황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거나 걱정스러움을 혼잣말로 나타낼 때 '-는데'를 쓴다.

예)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책이 분명히 책상 위에 **있었는데**.

② '-는데'를 '어디, 언제, 누구, 무엇, 왜' 등의 의문사와 함께 쓰면, 일정한 대답을 요구하며 물어볼 때 사용한다.

예) 영수 씨가 어디에 **사는데요**?
지금 수지 씨가 누구와 같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언제 **결혼하시는데요**?
마이클 씨가 왜 시험을 못 **봤는데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한국도 비가 많이 **오는데요**. - 韩国也降雨量多.
캠퍼스가 정말 **깨끗한데요**. - 校园真干净.
철수 씨 지금 집에 **없는데요**. - 哲洙现在不在家.
저는 무서운 영화를 못 **보는데요**. - 我不能看恐怖电影.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 대응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는데'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예) 철수 씨 지금 집에 없어요.
('철수 씨 지금 집에 없는데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가: 수진 씨,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할까요?
나: 전 오늘 친구와 영화관에 가요.
('전 오늘 친구와 영화관에 가는데요.'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경우)

3.5.5. '-습니까'

-습니까[-ㅂ니까][종결어미] **정중**하게 **질문**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습니까: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어떠한 사실에 대해 물어봄을 나타낸다. 의문형 종결 어미 중 가장 상대방을 높이는 최고 높임의 뜻을 가지며, 격식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현재의 상황이나 동작에 대해 공손하게 질문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어디에 **사십니까?** 나: 방화동에 삽니다. 가: 영수증이 **필요하십니까?** 나: 네, 주세요. 가: 아침에 무엇을 **먹습니까?** 나: 빵을 먹습니다. 가: 어디에 **갑니까?** 나: 명동에 갑니다. 가: 공책이 **있습니까?** 나: 네, 공책이 있습니다.
문장예문	· 누가 책을 **읽습니까?** . 수지 씨가 **예쁩니까?** . 왕밍 씨는 기숙사에서 **삽니까?** . 아사코 씨는 **회사원입니까?** . 마이클 씨는 미국 사람이 **아닙니까?** . 질문 **있으십니까?** . 휴식 시간은 **없습니까?** .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장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 모임이 끝나면 집에 가도 **됩니까?**

+ '-습니까'는 동사나 형용사, '명사+이다' 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대답을 듣기 위해 물어볼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로 학교문법에서는 의문형 종결어미라고 한다. 의문형 종결어미 중 상대방을 가장 높이는 격식체로서 일반적으로 회의나 발표, 텔레비전

뉴스, 인터뷰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사용된다. 회의를 할 때 '질문 있으십니까?', 토론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아 높여야 할 때, 또는 처음 만난 사람이거나 손님과 같이 예의를 갖춰서 말해야 할 때 사용한다. '마이클 씨는 미국 사람이 아닙니까?', '영수증이 필요하십니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입]

(1)
(칠판에 동사를 두 개 써 놓거나 동사 카드를 두 개 붙여 놓는다.)
교사: (책을 읽는 시늉을 하며 동사 카드를 가리킨다.) 선생님이 ?
학생: 읽다
교사: 선생님이 읽다. 읽습니까? 선생님이 **읽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며 '네'를 유도한다.)
학생: 네.
교사: 선생님이 (노래하는 시늉을 한다)?
학생: 노래하다
교사: 선생님이 **노래합니까?**
학생: 네.

(2)
교사: 선생님의 이름은 유미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교실 안의 학생을 가리킨다.) 왕밍입니다.
왕밍은 중국 사람?
학생: 중국 사람.
교사: 왕밍 씨는 **중국 사람입니까?** 네, 중국 사람입니다.
학생: 네, 중국 사람입니다.

+ (1)처럼 '-습니까'를 도입할 때 동사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는 (2)처럼 교실 사물, 학생 개개인의 국적, 가지고 있는 물건 등을 물어보는 상황을 연출하여 도입을 한다. 이미 '-습니다'를 배운 경우는 '-습니다'와 연계하여 질문과 대답을 하도록 연습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습니까'를 쓴다.

예) 먹- + -습니까 → 먹습니까　　읽- + -습니까 → 읽습니까
좋- + -습니까 → 좋습니까　　참- + -습니까 → 참습니까
있- + -습니까 → 있습니까　　춥- + -습니까 → 춥습니까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ㅂ니까'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ㅂ니까 → 갑니까　　바쁘- + -ㅂ니까 → 바쁩니까
오- + -ㅂ니까 → 옵니까　　공부하- + -ㅂ니까 → 공부합니까
놀- + -ㅂ니까 → 놉니까　　만들- + -ㅂ니까 → 만듭니까

+ '-습니까'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ㅂ니까'가 결합한다.

①	받침 o	+ -습니까	먹습니까, 읽습니까, 좋습니까, 참습니까, 있습니까, 춥습니까
②	받침 x	+ -ㅂ니까	갑니까, 바쁩니까, 옵니까, 공부합니까
	ㄹ 받침	+ -ㅂ니까 (어간 'ㄹ' 탈락)	놉니까, 만듭니까

③ '이다, 아니다'는 '-ㅂ니까'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ㅂ니까'라고 쓴다.

예) 학생이- + -ㅂ니까 → 학생입니까　　선생님이- + -ㅂ니까 → 선생님입니까
가수이- + -ㅂ니까 → 가수입니까/가숩니까　숙제이- + -ㅂ니까 → 숙제입니까/숙젭니까
의사이- + -ㅂ니까 → 의사입니까/의삽니까　아니- + -ㅂ니까 → 아닙니까

+ 'N+-ㅂ니까'는 격식적인 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유사 문법]

① '-습니까', '-어2)'

-습니까	**-어2)**
· 어떤 상황이나 사실을 질문하는 종결어미이다.	
· 예의와 격식을 차려서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격식체이다. 예) 회의 시간은 몇 시**입니까**? 사장님께서는 어디에서 점심을 **드십니까**?	·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될 만큼 가깝거나 친한 사이에서 사용하는 비격식체이다. 예) 롯데월드는 몇 시에 문을 **열어요**? 유미 씨, 지금 뭐 **먹어요**?
· 높임의 정도가 가장 높다. 예) 사장님, 오후에 회의가 **있으십니까**? 교수님, 점심 **드셨습니까**?	· '-어2)는 듣는 사람을 두루 낮출 때 사용하고, '-어요2)'는 듣는 사람을 두루 높일 때 사용한다. 예) 미셸 씨, 오후에 회의가 **있어요**? 선배님, 점심 **드셨어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어느 학교 **학생입니까?** - 那个学校的学生？
어디에 **갑니까?** - 去哪里？
저 꽃이 **예쁩니까?** - 那个花漂亮吗？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십니까?** - 爷爷在看报纸吗？

② 용법과 오류

- '-습니까'는 받침으로 끝나는 어간과 결합하지만 학습자들이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학교에 가습니까? (x)
언제 오습니까? (x)

- 'ㄹ' 받침으로 끝나는 어간은 'ㄹ' 받침이 탈락하여 '-ㅂ니까'와 결합하지만 학습자들이 'ㄹ' 받침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도 '-습니까'를 사용하여 오류가 나타난다.

예) 왜 울습니까? (x)
무엇을 만들습니까? (x)

- 중국어에는 종결형에 따른 상대경어법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경어법을 잘못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교수님, 지금 사무실로 가요/가? (x)
영희야, 너 지금 어디 가십니까? (x)

3.5.6. '-습니다'

-습니다[-ㅂ니다][종결어미] 정중하게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습니다: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사실을 말하며 알림을 나타낸다. 평서형 종결 어미 중 가장 상대방을 높이는 최고 높임의 뜻을 가지며, 격식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현재의 상황이나 동작에 대해 정중하게 설명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책을 읽습니까? 나: 네, **읽습니다**. 가: 어디에 갑니까? 나: 학교에 **갑니다.** 가: 앤디 씨의 방은 깨끗합니까? 나: 네, **깨끗합니다.** 가: 수지 씨는 예쁩니까? 나: 네, **예쁩니다**. 저는 샤오잉**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대학교에 **다닙니다**. 저는 외국인 기숙사에서 **삽니다**.
문장예문	· 저는 아침에 빵을 **먹습니다**. . 미도리 씨는 요리를 **잘합니다**. . 저는 서울에서 **삽니다**. . 도서관에 책이 **많습니다.** . 마이클 씨는 키가 **큽니다**. . 1시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시작합니다.** .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가방은 **19800원입니다.** . 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 '-습니다'는 동사나 형용사, '명사+이다' 뒤에 붙어 생각을 말하거나 알릴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로, 학교문법에서는 평서형 종결어미라고 한다. 평서형 종결어미 중 상대방을 가장 높이는 격식체로서 일반적으로 회의나 발표, 텔레비전 뉴스, 인터뷰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사용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에서 삽니다', 회사에서 윗사람에게 보고할 때 '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대회장에서 사회자가 '1시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시작합니다' 등으로 사용한다.

+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아 높여야 할 때, 또는 처음 만난 사람이거나 손님과 같이 예의를 갖춰서 말해야 할 때 사용한다. 선생님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으로 '저는 아침에 빵을 먹습니다.' '미도리 씨는 요리를 잘합니다.', 또는 직원이 손님에게 이야기할 때 '이 가방은 19800원입니다.' 등으로 사용한다.
+ '-습니다'는 공손하게 말할 때 사용하는 어미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주어일 때 '저'를 사용하는 것이 어울린다.

[도입]

(1)
(교사와 학생 모두 이름표를 달고 있다.)
교사: (자신의 이름표를 가리키며)
김영희. 김영희입니다.
(학생들이 따라하도록 한다.)
학생: **김영희입니다.**
교사: (학생의 이름표를 가리키며)
미도리. 미도리입니다.
(학생들이 따라하도록 한다.)
학생: **미도리입니다.**

(2)
(칠판에 동사를 두 개 써 놓거나 동사 카드를 두 개 붙여 놓는다.)
교사: (책을 읽는 시늉을 하며 동사 카드를 가리킨다.)
선생님이 ?
학생: 읽다
교사: 선생님이 읽다. 읽습니다. 선생님이 **읽습니다.**
(노래하는 시늉을 한다.) 선생님이?
학생: 노래하다
교사: 선생님이 노래하다. 선생님이 **노래합니다.**

+ '-습니다'를 도입할 때 먼저 학생에게서 쉽게 끌어낼 수 있는 이름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말하는 이름과 '이름+-ㅂ니다'를 나란히 제시하여 문장을 만들어 준다. 선생님과 학생 한두 명의 연습이 끝나면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름이 끝나면 명사 카드 또는 교실에 있는 사물을 이용해서 '-입니다'를 연습한다. '무엇입니까?'를 미리 학습한 상태에서는 질문과 함께 연습한다.
+ 동사 카드를 사용하여 '-습니다'를 도입한다. 교사가 카드에 있는 동사를 행동으로 보여

주면서 자연스럽게 '-습니다'를 연결하여 제시한다. 도입 후에 다양한 동사 카드를 활용하여 '-습니다'를 연습한다. '무엇을 합니까?'를 미리 학습한 상태에서는 질문하고 대답하는 활동까지 연계할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습니다'를 쓴다.

예) 먹- + -습니다 → 먹습니다　　읽- + -습니다 → 읽습니다
찾- + -습니다 → 찾습니다　　많- + -습니다 → 많습니다
좋- + -습니다 → 좋습니다　　덥- + -습니다 → 덥습니다

② 동사 및 형용사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ㅂ니다'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ㅂ니다 → 갑니다　　오- + -ㅂ니다 → 옵니다
크- + -ㅂ니다 → 큽니다　　공부하- + -ㅂ니다 → 공부합니다
살- + -ㅂ니다 → 삽니다　　만들- + -ㅂ니다 → 만듭니다

+ '-습니다'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ㅂ니다'가 결합한다.

①	받침 o	+ -습니다	먹습니다, 읽습니다, 찾습니다, 많습니다, 좋습니다, 덥습니다
②	받침 x	+ -ㅂ니다	갑니다, 옵니다, 큽니다, 공부합니다
	ㄹ 받침	+ -ㅂ니다 (어간 'ㄹ' 탈락)	삽니다, 만듭니다

③ '이다, 아니다'는 '-ㅂ니다'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ㅂ니다'라고 쓴다.

예) 책이- + -ㅂ니다 → 책입니다　　학생이- + -ㅂ니다 → 학생입니다
가수이- + -ㅂ니다 → 가수입니다/가숩니다　　식탁이- + -ㅂ니다 → 식탁입니다
요리사이- + -ㅂ니다 → 요리사입니다/요리삽니다
아니- + -ㅂ니다 → 아닙니다

+ 'N+-ㅂ니다'는 격식적인 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유사 문법]

① '-습니다', '-어1)'

-습니다	**-어1)**
· 생각이나 사실을 설명함을 나타낸다.	
· 예의와 격식을 차려서 말해야 하는 상황	·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될 만큼 가깝거나 친

에서 사용하는 격식체이다. 예)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2시에 **시작합니다.**	한 사이에서 사용하는 비격식체이다. 예) 가: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었어요**. 나: 나도 먹고 **싶어요**.
· 높임의 정도가 가장 높다. 예) 사장님, 오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주무십니다**.	· '-어1)은 듣는 사람을 두루 낮출 때 사용하고, '-어요1)'은 듣는 사람을 두루 높일 때 사용한다. 예) 미셸 씨, 오후에 회의가 **있어요**. 형, 지금 저 **서울이에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저는 **학생입니다**. - 我是学生.
도서관에 **갑니다**. - 去图书馆.
저 꽃이 참 **예쁩니다**. - 那个花真漂亮.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십니다**. - 爷爷在看报纸.

② 용법과 오류

- '-습니다'는 받침으로 끝나는 어간과 결합하지만 학습자들이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학교에 가습니다. (x)
비가 오습니다. (x)

- 'ㄹ' 받침으로 끝나는 어간은 'ㄹ' 받침이 탈락하여 '-ㅂ니다'와 결합하지만 학습자들이 'ㄹ' 받침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도 '-습니다'를 사용하여 오류가 나타난다.

예) 아이가 울습니다. (x)
나무로 의자를 만들습니다 (x)

- 중국어에는 종결형에 따른 상대경어법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경어법을 잘못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할머니, 저 지금 떠났어. (x)
선생님, 저녁 때 같이 밥 먹읍시다. (x)

3.5.7. '-어'

-어[-아/-여]{-어요/-아요/-여요}[종결어미] 사실을 1) **서술** 2) **질문** 3) **명령** 4) **청유**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어1):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아침에 무엇을 먹어요? 나: 저는 아침에 빵과 우유를 **먹어요.** 가: 지금 뭐 해? 나: 도서관에서 숙제를 **해.** 가: 비가 올 것 **같아요.** 나: 그래요? 우산을 가져가요. 가: 이 방은 어때요? 나: 조금 **좁아요.** 그렇지만 **깨끗해요.** 가: 유미 씨는 직업이 뭐예요? 나: 저는 **회사원이에요.**
문장예문	· 줄리아 씨는 매일 치마를 **입어요.** · 앤디 씨는 어제 저녁 11시에 **잤어요.** · 흐엉 씨는 비빔밥을 **좋아해.** · 학생 식당의 음식이 정말 **맛있어.** · 마이클 씨는 한국 친구가 **많아요.** · 왕밍 씨의 여자 친구는 아주 **친절해요.** · 저는 매일 한국 노래를 **들어요.** · 지난 여름은 많이 **더웠어.** · 이 가방은 **비싸지 않아요.** · 미셸 씨는 **미국 사람이야.**

+ '-어1)'는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 뒤에 붙어 생각을 말하거나 설명할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이다. 높임 표현으로는 '-요'가 결합한 '-어요'의 형태로 사용한다. '-어1)'는 비격식체로 격식체인 '-습니다'와 달리 일상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주로 말할 때 많이 사용하며 정중하게 대해야 하는 윗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도입]

(1)
교사: (밥을 먹는 사진을 보여 주며) 이 사람이...?
학생: 먹다.
교사: 먹다. 어요. **먹어요.**
학생: 먹어요.
교사: (물을 마시는 사진을 보여 주며) 이 사람이...?
학생: 마시다.
교사: 마시다. 어요. **마셔요.**
학생: 마셔요.

(2)
교사: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 주며)
어느 나라 사람?
학생: 한국 사람.
교사: 한국 사람. 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 '-어1)'를 도입할 때 학생들이 먼저 학습한 동사를 나타내는 그림 자료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동사를 말하도록 이끌어내고, 그 다음으로 '-어'를 활용하여 제시한다. 도입이 끝나면 이어서 먼저 학습한 동사들을 제시하여 '-어'를 연결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다.
+ 학생들이 먼저 학습한 나라 이름을 '이다'와 함께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도입이 끝나면 교실 안 사물을 사용해서 연습을 할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인 경우 '-아요'를 쓴다.

예) 앉- + -아요 → 앉아요　　많- + -아요 → 많아요
좋- + -아요 → 좋아요　　가- + -아요 → 가요
오- + -아요 → 와요　　아프- + -아요 → 아파요

+ 어간 음절이 'ㅏ'로 끝나면 '가요, 사요'로 줄여서 쓴다.
+ 어간 음절이 'ㅗ'로 끝나면 줄여서 '와요'와 같이 쓴다.
+ 이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ㅡ'일 때는 'ㅡ'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때 'ㅡ' 모음은 탈락한다.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가 아닌 경우 '-어요'를 쓴다.

예) 먹- + -어요 → 먹어요　　읽- + -어요 → 읽어요
서- + -어요 → 서요　　주- + -어요 → 주어요/줘요
슬프- + -어요 → 슬퍼요　　기다리- + -어요 → 기다리어요/기다려요

마시- + -어요 → 마시어요/마셔요　　막히- + -어요 → 막히어요/막혀요
지내- + -어요 → 지내어요/지내요　　세- + -어요 → 세어요/세요
있- + -어요 → 있어요　　없- + -어요 → 없어요

+ 어간 음절이 'ㅓ'로 끝나면 '서요'로 줄여서 쓴다.
+ 어간 음절이 'ㅜ'로 끝나면 줄여서 '줘요, 꿔요'와 같이 쓴다.
+ 이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ㅡ'일 때는 'ㅡ'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때 'ㅡ' 모음은 탈락한다.
+ 어간 음절이 'ㅣ'로 끝나면 흔히 줄여서 '기다려요, 마셔요'와 같이 쓴다. 어간 음절이 'ㅐ, ㅔ'로 끝나면 '지내요, 세요'로 줄여서 쓴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및 형용사 어간에는 '-여요'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요'로 쓴다.

예) 하- + -여요 → 하여요/해요　　말하- + -여요 → 말하여요/말해요
착하- + -여요 → 착하여요/착해요　　청소하- + -여요 → 청소하여요/청소해요
친절하- + -여요 → 친절하여요/친절해요　　공부하- + -여요 → 공부하여요/공부해요

①	ㅏ, ㅗ	+ -아요	앉아요, 많아요, 좋아요, 가요, 와요, 아파요
②	ㅏ, ㅗ 이외	+ -어요	먹어요, 읽어요, 서요, 줘요, 마셔요, 기다려요, 지내요, 세요, 있어요, 없어요
③	-하다	+ -여요 (-해요)	해요, 말해요, 착해요, 청소해요, 친절해요, 공부해요

④ '이다' 앞의 명사에는 '-이에요'가 오는데,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예요'라고 쓴다.

예) 펜이- + -에요 → 펜이에요　　학생이- + -에요 → 학생이에요
사과이- + -에요 → 사과예요　　가수이- + -에요 → 가수예요
의자이- + -에요 → 의자예요　　아니- + -에요 → 아니에요

+ '아니에요'는 '아니예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도록 한다.

⑤ 불규칙

듣-　　예) 저는 한국 음악을 자주 **들어요**.
무겁-　　예) 이 의자는 크고 **무거워요**.
짓-　　예)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파랗-　　예) 가을 하늘이 무척 **파래요**.
부르-　　예) 유미 씨는 노래방에 가면 항상 팝송을 **불러요**.

[문장 구성 정보]

① 주어를 존대해야 할 경우에는 '-으시-'를 써서 '-으셔요/-으세요/-으시어요'로 쓴다.

예) 동생은 책을 **읽어요**.
아버지는 책을 **읽으셔요.**
= 아버지는 책을 **읽으세요.**
= 아버지는 책을 **읽으시어요.**

[유사 문법]

① '-어1)', '-으세요1)'

-어1)	**-으세요1)**
·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함을 나타낸다.	
· 문장의 주어는 높이지 않는다. 예) 가: 미셸이 지금 뭐 해요? 나: 미셸은 지금 한국 음식을 **만들어요.** ('미셸'을 높이지 않음)	· 문장의 주어를 높인다. 예) 가: 어머니께서 지금 뭐 하세요? 나: 어머니께서는 지금 한국 음식을 **만드세요.** ('-시-'가 주체인 어머니를 높임)
· '-어'는 듣는 사람을 두루 낮출 때 사용하고, '-어요'는 듣는 사람을 두루 높일 때 사용한다. 예) 유미는 피아노를 잘 **쳐**. 줄리아 씨는 피아노를 잘 **쳐요**.	· 듣는 사람을 두루 높일 때 사용한다. 예) 선생님께서 피아노를 잘 **치세요**.

② '-어1)', '-습니다'

-어1)	**-습니다**
·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함을 나타낸다.	
·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될 만큼 가깝거나 친한 사이에서 사용하는 비격식체이다. 예) 가 :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었어요**. 나 : 나도 먹고 **싶어요**.	· 예의와 격식을 차려서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격식체이다. 예)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2시에 **시작합니다.**
· '-어'는 듣는 사람을 두루 낮출 때 사용하고, '-어요'는 듣는 사람을 두루 높일 때 사용한다. 예) 유미야, 오후에 회의가 **있어**. 미셸 씨, 오후에 회의가 **있어요**.	· 듣는 사람을 아주 높일 때 사용한다. 예) 사장님, 오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③ '-어1)', '-지1)'

어1)	**-지1)**

·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함을 나타낸다.	
·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정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전제하지 않고 말할 때 사용한다. 예) 가: 이 꽃은 향기가 참 **좋아요**. 나: 네, 참 좋네요**.** (그 꽃의 향기가 좋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몰랐음. 지금 알게 되었음)	·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미 정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확인하듯 말할 때 사용한다. 예) 가: 이 꽃은 향기가 참 좋아요. 나: 네, 향기가 참 **좋지요.** (그 꽃의 향기가 좋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음)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매일 아침 운동을 **해요**. - 每天早晨运动.
저는 봄이 **좋아요**. - 我喜欢春天.
지난 겨울 많이 **추웠어요**. - 去年冬天很冷.
철수는 **학생이에요**. - 哲洙是学生.
저것은 의자가 **아니에요**. - 那个不是椅子.

② 용법과 오류

- 동사의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오류를 많이 보인다.

예) 한국 노래를 처음 듣어요. (x)
날씨가 정말 춥어요. (x)
밥을 짓어요. (x)
작년 가을 하늘은 정말 파랗아요. (x)
노래를 부르어요. (x)

- 중국어에는 한국어의 상대경어법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으므로 학습자들이 예의와 격식을 차려서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어요'를 사용한다.

예) 교수님, 빨리 왔어요. (?)
사장님, 오후에 회의가 있어요. (?)

-어2): (동사나 형용사, '이다'에 붙어)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에 대해 질문함을 나타낸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현재의 상태나 동작에 대해 물어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몇 시에 점심을 **먹어요?**

	나: 보통 1시에 점심을 먹어요. 가: 지금 어디에 **가?** 나: 화장실에 가. 가: 왕밍 씨는 어디에서 **살았어?** 나: 기숙사에서 살았어. 가: 김치가 많이 **매워요?** 나: 네, 매워요. 그렇지만 맛있어요. 가: 이것은 누구의 **가방이에요?** 나: 민수 씨 가방이에요.
문장예문	· 지금 무엇을 **읽어요?** · 줄리아 씨가 누구를 **기다려요?** · 무슨 운동을 **좋아해?** · 그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 흐엉 씨 집이 학교에서 **멀어?** · 마이클 씨가 앤디 씨보다 키가 **커요?** · 시험을 잘 **봤어요?** · 한국어가 **어려워요?** · 교실이 **덥지 않아?** · 고향이 **어디야?**

+ '-어2)'는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 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물어볼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이다. 높임 표현으로는 '-요'가 결합한 '-어요'의 형태로 사용한다.
+ 서술의 의미를 가지는 '-어1)'과 형태가 같으며 이야기할 때 문장의 끝을 살짝 올려 발음한다.

[도입]

(1)
교사: (자신을 가리키며) 선생님, 선생님이에요.
(학생을 가리키며 억양을 강조하며) **선생님이에요?**
학생: 아뇨.
교사: **학생이에요?**
학생: 네, 학생이에요.

(2)

교사: (전화하는 동작을 보이며) 지금 공부해요? 학생: 아니요, 전화해요. 교사: **전화해요?** 학생: 네, 전화해요.

+ '-어2)'를 도입할 때 교실 사물이나 학생,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용하여 물어 보는 상황을 만든다. 평서문의 '-어1)'과 의문문의 '-어2)'가 형태는 같으나 억양을 달리하여 사용함을 강조하며, 문장 끝을 올려 사용하는 '-어2)'가 질문할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임을 가르쳐 준다.

[형태 정보]

앞의 '-어1)'을 참고한다.

[유사 문법]

① '-어2)', '-으세요2)'

-어2)	**-으세요2)**
·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질문함을 나타낸다.	
· 문장의 주어는 높이지 않는다. 예) 가: 미셸이 지금 뭐 **해요?** ('미셸'을 높이지 않음) 나: 미셸은 지금 한국 음식을 만들어요.	· 문장의 주어를 높인다. 예) 가: 어머니께서 지금 뭐 **하세요?** ('-시-'가 주체인 어머니를 높임) 나: 어머니께서는 지금 한국 음식을 만드세요.
· '-어'는 듣는 사람을 두루 낮출 때 사용하고, '-어요'는 듣는 사람을 두루 높일 때 사용한다. 예) 유미는 피아노를 잘 **쳐?** 줄리아 씨는 피아노를 잘 **쳐요?**	· 듣는 사람을 두루 높일 때 사용한다. 예) 선생님께서 피아노를 잘 **치세요?**

② '-어2)', '-습니까'

-어2)	**-습니까**
·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질문함을 나타낸다.	
·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될 만큼 가깝거나 친한 사이에서 사용하는 비격식체이다. 예) 롯데월드는 몇 시에 문을 **열어요?** 유미 씨, 지금 뭐 **먹어요?**	· 예의와 격식을 차려서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격식체이다. 예) 회의 시간은 **몇 시입니까?** 사장님께서 어디에서 점심을 **드십니까?**
· '-어'는 듣는 사람을 두루 낮출 때 사용하고,	· 듣는 사람을 아주 높일 때 사용한다.

'-어요'는 듣는 사람을 두루 높일 때 사용한다. 예) 유미야, 오후에 회의가 **있어?** 미셸 씨, 오후에 회의가 **있어요?**	예) 사장님, 오후에 회의가 **있으십니까?**

③ '-어2)', '-지2)'

-어2)	**-지2)**
·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질문함을 나타낸다.	
· 정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모르고 듣는 사람은 알고 있어서, 말하는 사람이 모르는 것을 질문할 때 사용한다. 예) 가: 지금 비가 **와요?** 나: 네, 비가 와요. (말하는 사람은 비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 모름.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질문함)	·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도 이미 정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질문할 때 사용한다. 예) 가: 지금 비가 **오지요?** 나: 네, 비가 와요. (말하는 사람이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하며 물어 봄)
· 선택 의문문으로 사용된다. 예) 비가 **와요**? 안 **와요**? (o)	· 선택 의문문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예) 비가 **오지요**? 안 **오지요**? (x)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가부 의문문에는 '吗'가 대응되고, 설명 의문문에는 대응 표현이 없음.

예) 매일 아침 운동을 **해요?** - 每天早晨运动**吗 ?**
봄을 **좋아해요?** - 喜欢春天**吗 ?**
지난 겨울 많이 **추웠어요?** - 去年冬天很冷**吗 ?**
철수 씨는 **학생이에요?** - 哲洙是学生**吗 ?**
거기서 뭘 **해요?** - 在那干什么 ?

② 용법과 오류: -어1) 참고.

-어3): (동사에 붙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을 명령함을 나타낸다. 주로 듣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선생님, 저희는 어디에 앉아요? 나: 여기에 **앉아요.** 가: 지하철을 타요, 아니면 버스를 타요? 나: 지금은 퇴근시간이니까 빨리 가려면 지하철을 **타.**

	가: 왕밍 씨, 빨리 **일어나요.** 지각하겠어요. 나: 지금 몇 시예요? 가: 주스가 맛이 없어요. 나: 몸에 좋은 주스니까 어서 다 **마셔요.** 가: 어서 갑시다. 나: 잠깐만 **기다려요.** 유미 씨가 아직 안 왔어요.
문장예문	·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어요.** · 서울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요.** ·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웃어요.** · 짐 좀 **받아.** · 늦었어요. 빨리 **준비해요.** · 어서 줄리아 씨에게 **전화해요.** ·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니까 일찍 **들어와요.** · 김밥을 10인분이나 **만들어요.** · 열이 많이 나요. 지금 당장 침대에 **누워요.** · 품절되기 전에 빨리 **골라요.**

+ '-어3)'는 동사 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명령할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이다. 높임 표현으로는 '-요'가 결합한 '-어요'의 형태를 사용한다.

[도입]

(1)
교사: (한쪽 손을 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학생: 손.
교사: 네, 손이에요. 손을 들다. 어요. 손을 들어요.
여러분, 손을 **들어요.** (말을 한 후에 손을 들어 보인다. 다함께 할 때까지 말하고 손을 드는 행위를 순차적으로 반복하며 명령의 상황임을 알게 한다.)
학생: 네.

(2)
교사: (미리 교실의 불을 끈다.) 교실이 어때요?
학생: 어두워요.
교사: 네, 어두워요. 요스케 씨, 불을 켜요. 불을 켜다.
어요. **불을 켜요.**
학생: 네.

+ '-어3)'를 도입할 때 먼저 명령하는 말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휘를 이용하여 명령 상황에 집중하여 '-어3)'를 인식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교사의 지시를 자연스럽게 따라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기능과 문법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 준다.

[형태 정보]

앞의 '-어1)'을 참고하되, 동사와만 결합하므로 이에 주의한다.

[유사 문법]

① '-어3)', '-으십시오', '-으세요3)'

-어3)	**-으십시오**	**-으세요3)**
· 명령을 나타낸다.		
· 비격식체로 다소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일상적인 대화에서 두루두루 편하게 쓰인다. 예) 다음으로 줄리아 씨가 **발표해요.** (줄리아 씨와 친하며, 비격식적 상황)	· 격식체로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 많이 쓰인다. 예) 다음 발표자, **발표하십시오.** (사회자가 발표자에게, 격식적 상황)	· 비격식체로 다소 친분이 있는 윗사람, 비슷한 지위지만 친하지 않아서 약간 높여야 하는 경우에 쓴다. 예) 다음으로 줄리아 씨가 **발표하세요.** (줄리아 씨가 친한 윗사람이거나 친하지 않은 비슷한 또래)
. '-어'는 듣는 사람을 두루 낮출 때 사용하고, '-어요'는 듣는 사람을 두루 높일 때 사용한다. 예) 수지야, 이쪽으로 **와.** 영수 씨, 이쪽으로 **와요.**	· 듣는 사람을 아주 높일 때 사용한다. 예) 과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 듣는 사람을 두루 높일 때 사용한다. 예) 앤디 씨, 이쪽으로 **오세요.**

+ '-으십시오'는 명령문으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으세요', '-어'는 평서, 의문, 명령, 제안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吧'

예)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 在十字路口右拐**吧**.
내일 일찍 **와요**. - 明天早点来**吧**.
시간이 없어요. 빨리 **준비해요**. - 没有时间了. 赶快准备**吧**.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어요**. - 天气冷, 穿厚点**吧**.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는 종결형에 따른 상대경어법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경어법을 잘못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할머니, 이쪽으로 와요. (x)
선생님, 빨리 와. (x)
철수야, 어서 떠나세요. (x)

-어4): (동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거나 요청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와, 떡볶이네요. 저도 떡볶이를 좋아해요. 나: 그래요? 그럼 왕밍 씨도 같이 **먹어요.** 가: 어디 가? 나: 수지 씨하고 인사동에 갈 거야. 너도 같이 **가.** 가: 책상이 너무 무거워요. 앤디 씨, 이것 좀 함께 **옮겨요.** 나: 네, 알겠어요. 가: 뭐 해요? 나: 내일이 시험이라서 공부해. 너도 여기서 같이 **공부해.** 가: 노래가 정말 좋아요. 같이 **들어요.** 나: 와, 정말 좋네요.
문장예문	· 책이 한 권밖에 없으니까 같이 **읽어요.** · 집에 같이 **들어가요.** · 모두 다함께 사진을 **찍어요.** · 이 영화가 너무 무서워요. 같이 **봐요.** · 우리 흐엉 씨에게 **부탁해요.** · 주말에 함께 테니스를 **쳐요.** · 우리 둘 다 영어를 못하니까 같이 영어 학원에 **다녀요.** · 미도리 씨도 같이 **놀아요.** · 혼자서 다 못 만들어요. 같이 **만들어요.** · 마이클 씨 우산이 없어요? 그럼 내 우산을 같이 **써요.**

+ '-어4)'는 동사 뒤에 붙어 듣는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과 함께 어떠한 행동을 하자고 제안할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이다. 높임 표현으로는 '-요'가 결합한 '-어요'의 형태를 사용한다.
+ '같이, 함께' 등과 같은 부사와 자주 어울려 쓰인다.

[도입]

(1)
교사: 수업이 끝난 후에 같이 밥을 먹어요. 왕밍 씨, 어때요?
학생: 좋아요.
교사: 또 누구와 같이 밥을 먹고 싶어요?
학생: 줄리아 씨.
교사: 그럼 줄리아 씨에게 어떻게 말해요?
줄리아 씨, 우리 같이 밥을 **먹어요.**

(2)
교사: 흐엉 씨가 책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이클 씨는 책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학생: 같이 봐요.
교사: 네, 같이 봐요. 어떻게 말해요?
마이클 씨, 우리 책을 같이 **봐요.**

+ '-어4)'를 도입할 때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을 제시하여 같이 하자고 요청하고 제안하는 상황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시킨다.

[형태 정보]
앞의 '-어1)'을 참고하되, 동사와만 결합하므로 이에 주의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一起……吧', '我们……吧'

예) 주말에 영화 보러 같이 **가요**. - 周末**一起**去看电影**吧**.
점심 같이 **만들어요**. - 中午**一起**吃饭**吧**.
책이 한 권밖에 없으니까 같이 **읽어요**. - 只有一本书，**一起**看**吧**.
우리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 **가요**. - **我们**周末去济州岛旅游**吧**.

② 용법과 오류
- '-어'가 청유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같이'나 '우리'와 같은 말이 함께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잘 숙지하지 못하여 청유의 상황에서 명령을 사용하는 오류를 나타낸다.

예) 가: 왕밍 씨, 같이 청소해요.
나: 지금 좀 바빠요.
가: 왕밍 씨, 청소해요. (?)

3.5.8. '-으세요'

-으세요[-세요]{-으셔요/-셔요/-으시어요/-시어요}[종결어미] 문장의 주어를 높이면서 어떤 사실을 1) **서술** 2) **질문** 3) **명령**, **요청**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으세요1):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에 대해 말함을 나타낸다. 문장의 주어를 높이며,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사실을 말할 때도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영수 씨, 지금 선생님께서 뭐 **하세요**? 나: 선생님께서 수업**하세요.** 가: 왕밍 씨, 아버지께서 언제 한국에 **오세요**? 나: 아버지께서 내일 한국에 **오세요.** 가: 지금 누가 집에 있어요? 나: 어머니가 집에 **계세요.** 가: 이분은 누구세요? 나: 이분은 앤디 씨의 **선생님이세요.** 가: 이분이 유미 씨의 어머니세요? 나: 아니요, 이 분은 제 어머니가 **아니세요.**
문장예문	· 할아버지는 아침에 신문을 **읽으세요.** . 사장님은 오후에 **도착하세요.** . 어머니는 냉면을 **좋아하세요.** · 할머니는 키가 **작으세요.** . 아버지는 지금 아주 **바쁘세요.** . 우리 선생님은 아주 **친절하세요.** . 할머니는 시골에서 **사세요.** . 왕밍 씨의 어머니는 한국 음악을 자주 **들으세요.** . 줄리아 씨의 오빠는 **경찰이세요.** . 영수 씨의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 **아니세요.**

+ '-으세요1)'은 동사나 형용사, '명사+이다' 뒤에 붙어 현재 사실을 서술하거나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사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평서형 종결어미이다.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일상적인 만남에서 편하게 쓰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선생님'과 같이 다소 친분이 있는 윗사람이 주어일 때 사용된다. '줄리아 씨의 오빠'와 같이 비슷한 나이나 지위의 사람이더라도 처음 만났거나 친하지 않아 약간 높여야 하는 경우에 쓰기도 한다.

[도입]

(1)
교사: (아이가 책을 읽는 사진을 보여 준다.)
아이가 무엇을 해요?
학생: 아이가 책을 읽어요.
교사: (할아버지가 책을 읽는 사진을 보여 준다.)
할아버지가 무엇을 해요?
학생: 할아버지가 책을 읽어요.
교사: 할아버지예요. 나이가 많아요.
할아버지가 책을 **읽으세요.**

(2)
교사: 여러분, 어디 살아요?
학생: 한국에 살아요. 서울에 살아요.
교사: 네, 서울에 살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디 살아요?
학생: 중국에 살아요. 베이징에 살아요.
교사: 네, 베이징에 살아요. 부모님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부모님은 베이징에 **사세요.**
나는 서울에 살아요. 부모님은 베이징에 **사세요.**

+ '-으세요1)'을 도입할 때 문장의 주어로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윗사람이 온다는 것을 학생들이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습니다', '-어요' 중 먼저 학습한 문법과 비교하여 함께 연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세요'를 쓴다.

예) 읽- + -으세요 → 읽으세요　　닦- + -으세요 → 닦으세요
앉- + -으세요 → 앉으세요　　괜찮- + -으세요 → 괜찮으세요
작- + -으세요 → 작으세요　　많- + -으세요 → 많으세요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세요'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세요 → 가세요　　쓰- + -세요 → 쓰세요
바쁘- + -세요 → 바쁘세요　　아프- + -세요 → 아프세요
공부하- + -세요 → 공부하세요　　식사하- + -세요 → 식사하세요
놀- + -세요 → 노세요　　알- + -세요 → 아세요

+ '-으세요'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세요'가 결합한다.

①	받침 o	+ -으세요	읽으세요, 닦으세요, 앉으세요, 괜찮으세요
②	받침 x	+ -세요	가세요, 쓰세요, 공부하세요, 식사하세요
	ㄹ 받침	+ -세요 (어간 'ㄹ' 탈락)	노세요, 아세요.

③ '이다, 아니다'는 '-세요'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세요'라고 쓴다.

예) 경찰이- + -세요 → 경찰이세요　　선생님이- + -세요 → 선생님이세요
교수님이- + -세요 → 교수님이세요　　가수이- + -세요 → 가수이세요/가수세요
의사이- + -세요 → 의사이세요/의사세요　　아니- + -세요 → 아니세요

④ 불규칙

듣-　예) 앤디 씨의 어머니는 한국 음악을 자주 **들으세요.**
줍-　예) 우리 할아버지는 가을이 되면 산에서 밤을 **주우세요.**
짓-　예) 아버지께서 아침마다 밥을 **지으세요.**
빨갛-　예) 열이 나서 할머니의 얼굴이 **빨가세요.**

[문장 구성 정보]

① '먹다, 마시다, 자다, 말하다, 있다' 등의 동사는 높임 표현으로 바뀌어 결합한다.

예)

먹다	+ -으세요 + -세요	→ 잡수세요, 드세요
마시다		→ 드세요
자다		→ 주무세요
말하다		→ 말씀하세요
있다(동사)		→ 계세요
있다(형용사)		→ 있으세요

+ 학습자들이 높임 표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으세요'를 그대로 결합하여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높임 표현을 배우기 전이면 관용적인 표현으로 먼저 지도하고, 높임 표현을 배우고 난 후면 한 번 더 높임 표현을 복습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쓰도록 유도한다.

[확장]

① '-으세요'를 '-으셔요'로 쓰기도 한다. 이는 높임의 선어말 어미 '-으시-'와 어말 어미 '-어요'가 결합된 '-으시어요'의 준말이다. '-으셔요'와 '-으시어요'는 모두 '-으세요'와 바꿔 쓸 수 있다.

예) 어머니께서 얼굴색이 좋지 **않으세요**.
어머니께서 얼굴색이 좋지 **않으셔요**.
모두 여기를 **보세요**.
모두 여기를 **보셔요**.
이 꽃을 받**으시어요**.
먼저 **가시어요**.

+ '-으셔요'보다 '-으세요'가 보편적으로 더 많이 쓰인다. '-으셔요'와 '-으시어요'는 주로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

② 감탄문에도 사용한다.

예) 아, 형님**이세요**.
아휴, 선생님 이제 **오세요**.

+ 평서문은 느낌을 강조하여 말하면 모두 감탄문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예) 아, 달이 밝다!
철수가 옵니다!

[유사 문법]

① '-으세요1)', '-어1)'

-으세요1)	**-어1)**
·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함을 나타낸다.	
· 문장의 주어를 높인다. 예) 가: 미셸이 지금 뭐 해요? 나: 미셸은 지금 한국 음식을 **만들어요.** ('미셸'을 높이지 않음)	· 문장의 주어는 높이지 않는다. 예) 가: 어머니께서 지금 뭐 하세요? 나: 어머니께서는 지금 한국 음식을 **만드세요.** ('-시-'가 주체인 어머니를 높임)
· 듣는 사람을 두루 높일 때 사용한다. 예) 선생님께서 피아노를 잘 **치세요**.	· '-어'는 듣는 사람을 두루 낮출 때 사용하고, '-어요'는 듣는 사람을 두루 높일 때 사용한다. 예) 유미는 피아노를 잘 **쳐**. 줄리아 씨는 피아노를 잘 **쳐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이분은 우리 **선생님이세요**. - 这位是我们班主任.
우리 어머니는 아주 **친절하세요**. - 我妈妈很亲切.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시골에 **사세요**. - 爷爷和奶奶住在乡下.
아버지는 아침에 신문을 **읽으세요**. - 爸爸早晨读报纸.

② 용법과 오류

- '먹다, 마시다, 자다, 말하다, 있다' 등의 동사는 높임 표현으로 바뀌어 '-으세요'가 결합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국어에 이러한 언어 현상이 없기 때문에 높임 표현으로 바꾸지 않고 '먹다, 마시다, 자다, 말하다, 있다'에 '-으세요'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드시다', '계시다'의 경우에는 '드시세요', '계시세요'로 잘못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 매운 음식도 잘 먹으세요. (x)
  매일 약을 드시세요. (x)
  할아버지께서는 댁에 계시세요. (x)
  할머니께서 방에서 자세요. (x)

- 학습자들이 '-으세요'를 명령형 종결어미로만 인식하고 평서문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 할머니는 노래를 잘 해요. (?)
  ('할머니는 노래를 잘 하세요'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할아버지도 와요. (?)

-으세요2):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에 대해 질문함을 나타낸다. 문장의 주어를 높이면서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현재의 상태나 동작에 대해 물어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왕밍 씨, 무슨 책을 **읽으세요?** 나: 한국 소설을 읽어요. 가: 어디에서 한국어를 **배우세요?** 나: 한국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워요. 가: 영수 씨,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나: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가: 저는 미도리 씨 휴대폰 번호를 몰라요. 미도리 씨 휴대폰 번호를 **아세요?** 나: 네, 제가 알아요. 가: 지금 무슨 음악을 **들으세요?** 나: 한국 노래를 들어요.
문장예문	· 선생님께서 학생을 **찾으세요?**

	. 아버지, 지금 어디 **가세요?** . 선생님, 지금 무엇을 **만드세요?** . 손님, 의자가 많이 **불편하세요?** . 수지 씨는 김치를 **좋아하세요?** . 선생님, 내일 시간이 **있으세요?** . 어머니, 음식이 **맛없으세요?** . 에어컨을 켰는데 아직 **더우세요?** . 저분이 이 선생님의 **남편이세요?** . 여기가 아저씨 댁이 **아니세요?**

+ '-으세요2)'는 동사나 형용사, '명사+이다' 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대답을 듣기 위해 물어볼 때 사용하는 의문형 종결어미이다.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일상적인 만남에서 편하게 쓰거나 '아버지, 선생님, 아저씨'와 같이 다소 친분이 있는 윗사람에게 쓴다. 비슷한 나이나 지위의 사람이더라도 처음 만났거나 친하지 않아서 약간 높여야 하는 경우에 쓰기도 한다.
+ '-으세요2)'로 질문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답은 '-으세요'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주어가 되므로 '-어요'라고 해야 한다. 담화예문을 보면 질문은 모두 '-으세요?'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답은 '-어요'로 하고 있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학생: 불고기를 좋아해요.
교사: 네, 불고기를 좋아해요. 선생님은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알아요?
학생: 몰라요. 선생님은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교사: 선생님은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은 나이가 적어요.
'세요?'를 써요. 선생님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학생: 선생님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교사: 선생님은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2)
교사: (아이가 책을 읽는 사진을 보여 준다.)
아이가 무엇을 해요?
학생: 아이가 책을 읽어요.
교사: (할아버지가 책을 읽는 사진을 보여 준다.)
할아버지가 책을...할아버지께서 무엇을 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요. '-세요?'를 써요.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세요?**
학생: 할아버지가 책을 읽어요.

교사: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세요.

+ '-으세요2)'를 도입할 때 문장의 주어가 나이가 많거나 윗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습니까', '-어요' 중 먼저 학습한 문법과 비교하여 함께 연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평서형의 '-으세요1)'과 의문형의 '-으세요2)'는 같이 교수하는 경우가 많다. 도입(2)는 평서형의 '-으세요'를 도입하는 상황과 같다. 둘을 같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형태 정보]

앞의 '-으세요1)'을 참고한다.

[유사 문법]

① '-으세요2)', '-어2)'

-으세요2)	**-어2)**
·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질문함을 나타낸다.	
· 문장의 주어를 높이면서 동시에 말하는 상대를 높인다. 예) 가: 어머니께서 지금 뭐 **하세요**? ('-시-'가 주체인 어머니를 높임, '-요'가 청자를 높임) 나: 어머니께서는 지금 한국 음식을 **만드세요**.	· 문장의 주어는 높이지 않으나 말하는 상대를 높인다. 예) 가: 미셸이 지금 뭐 **해요**? ('미셸' 높이지 않음, 청자만 높임) 나: 미셸은 지금 한국 음식을 **만들어요**.
· 듣는 사람을 두루 높일 때 사용한다. 예) 선생님께서 피아노를 잘 **치세요?**	· '-어'는 듣는 사람을 두루 낮출 때 사용하고, '-어요'는 듣는 사람을 두루 높일 때 사용한다. 예) 유미는 피아노를 잘 **쳐?** 줄리아 씨는 피아노를 잘 **쳐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가부 의문문에는 '吗'가 대응되고, 설명 의문문에는 대응 표현이 없음.

예) 저분이 박 선생님의 **남편이세요**? - 那位是朴老师的丈夫**吗**？
주말에도 **출근하세요**? - 周末也上班**吗**？
누굴 **찾으세요**? - 您找谁？
언제 한국으로 **떠나세요**? - 什么时候出发去韩国？

② 용법과 오류

- '먹다, 마시다, 자다, 말하다, 있다' 등의 동사는 높임 표현으로 바뀌어 '-(으)세요'가 결합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국어에 이러한 언어 현상이 없기 때문에 높임 표현으로 바꾸지 않고 '먹다, 마시다, 자다, 말하다, 있다'에 '-(으)세요'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드시다', '계시

다'의 경우에는 '드시세요', '계시세요'로 잘못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 매운 음식 못 먹으세요? (x)
지금도 약을 드시세요? (x)
할아버지께서 댁에 계시세요? (x)
할머니, 아직 안 자세요? (x)

- 학습자들이 '-으세요'를 명령형 종결어미로만 인식하고 의문문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 할머니, 어디 가요? (?) ('할머니, 어디 가세요?'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선생님, 뭐 해요? (?) ('선생님, 뭐 하세요?'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

-으세요3): (동사에 붙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을 명령하거나 요청함을 나타낸다. 주로 높임의 대상인 사람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이 종이에 무엇을 써요? 나: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세요.** 가: 무엇을 드릴까요? 나: 빵하고 우유를 **주세요.** 가: 한국어 말하기를 잘하고 싶어요. 나: 그럼 한국 친구를 **사귀세요.** 한국 친구와 한국어로 **이야기하세요.** 가: 엄마, 저 인형 **사 주세요.** 나: 안 돼. 집에 다른 인형도 많잖아. 가: 이 영화 어때요? 재미있어요? 나: 이 영화를 **보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문장예문	·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세요.** ·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세요.** · 내일 학교에 9시까지 **오세요.** · 교실에서 한국어로 **말하세요.** · 조용히 **하세요.** · 저 좀 **도와주세요.** · 잘 듣고 문제를 **푸세요.** · **떠들지 마세요.** · 술을 **마시지 마세요.**

	·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 '-으세요3)'는 동사 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명령형 종결어미이다. '-으십시오'와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으십시오'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높임 표현인 반면, '-으세요3)'는 일상적인 만남에서 편하게 쓰거나 다소 친분이 있는 윗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시킬 때 쓴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와 같은 표현은 공공장소에 붙어 있는 표어로 많이 쓰이지만 '조용히 하세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와 같은 표현은 말할 때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 '-으세요3)'은 명령 외에 요청의 의미로 사용한다. 엄마, 아빠와 같은 친분이 있는 윗사람에게 '인형 사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와 같이 어떤 일을 요청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요청의 의미로 사용할 때는 '-어 주다'가 주로 결합한다.

[도입]

(1)
교사: 선생님 이름은 김유미입니다. 선생님이 이름을 씁니다. (칠판에 크게 이름을 쓴다. 그리고 학생 한 명을 지목한다.)
미도리 씨, 이름을 씁니다. 쓰다. 세요. 쓰세요.
미도리 씨 **이름을 쓰세요.**
학생: 네.

(2)
교사: 줄리아 씨는 의자에 앉아 있어요. 줄리아 씨, 일어나요. 일어나다. 세요. 일어나세요.
줄리아 씨 **일어나세요.**
학생: 네.

+ '-으세요3)'를 도입할 때 먼저 행동을 보여주고 이어 학습자에게 지시를 하고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행동을 따라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뜻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주위의 사물을 이용하여 직접 몸으로 보여 주고 활동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형태 정보]

앞의 '-으세요1)'을 참고하되, 동사와만 결합하므로 이에 주의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은 '-지 마세요'로 쓴다.

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혼자 집에 **가지 마세요**.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② '-어 주다'와 결합하여 요청의 의미로 많이 사용한다.

예) 여기 좀 **잡아 주세요**.
아주머니, 저 등 좀 **밀어 주세요**.
영화관에서 휴대폰을 **꺼 주세요**.

[제약 정보]

① 형용사, '이다, 아니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오늘 날씨는 **맑으세요**. (x)
내일이 마감일이니까 어서 **바쁘세요**. (x)
빨리 **대학생이세요**. (x)
어서 요리사가 **아니세요**. (x)

② 과거 '-었-'이나 미래·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숙제는 어제까지 **했으세요**. (x)
숙제는 다음주까지 **하겠으세요**. (x)
어제 커피숍에서 친구를 **기다렸으세요**. (x)
내일 커피숍에서 친구를 **기다리겠으세요**. (x)

[유사 문법]

① '-으세요3)', '-으십시오', 어3)

-으세요3)	**-으십시오**	**-어3)**
· 명령함을 나타낸다.		
· 다소 친분이 있는 윗사람, 비슷한 지위지만 친하지 않아서 약간 높여야 하는 경우에 쓴다. 예) 다음으로 줄리아 씨가 **발표하세요**. (줄리아 씨가 친한 윗사람이거나 친하지 않은 비슷한 또래)	· 아주 높임의 격식체로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 많이 쓰인다. 예) 다음 발표자, **발표하십시오**. (사회자가 발표자에게, 격식적 상황)	· 두루 높임의 비격식체로 다소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일상적인 대화에서 두루두루 편하게 쓰인다. 예) 다음으로 줄리아 씨가 **발표해요**. (줄리아 씨와 친하며, 비격식적 상황)
· 청유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청유문으로 사용하려면 '같이, 함께' 등의 부사를 사용해야 한다. 예) 앤디 씨, 도서관에 **가세요**. (명령의 의미) 앤디 씨, 같이 도서관에	· 청유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예) 앤디 씨, 같이 도서관에 **가십시오**. (x)	· 청유문에 사용된다. 예) 앤디 씨, (같이) 도서관에 **가요**. (o)

가세요.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긍정형 명령문에는 '吧'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부정형 명령문(-지 마세요)에는 '不要', '别'이 대응됨.

예) 열심히 **공부하세요**. - 认真学习**吧**.
일찍 **주무세요**. - 早点休息**吧**.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 把手洗干净.
술을 마시지 **마세요**. - **不要**喝酒.

② 용법과 오류

- '먹다, 마시다, 자다, 말하다, 있다' 등의 동사는 높임 표현으로 바뀌어 '-으세요'가 결합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국어에 이러한 언어 현상이 없기 때문에 높임 표현으로 바꾸지 않고 '먹다, 마시다, 자다, 말하다, 있다'에 '-으세요'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드시다', '계시다'의 경우에는 '드시세요', '계시세요'로 잘못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 많이 먹으세요. (x)
어서 약을 드시세요. (x)
가시지 마시고 여기 계시세요. (x)
할머니, 편히 자세요. (x)

- 중국어에는 종결형에 따른 상대경어법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경어법을 잘못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할머니, 이쪽으로 와요. (x)
선생님, 빨리 와. (x)
철수야, 어서 떠나세요. (x)

3.5.9. '-으십시오'

-으십시오[-십시오][종결어미] 격식적으로 높여 정중하게 **명령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으십시오: (동사에 붙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을 명령하거나 권유함을 나타낸다. 주로 격식적인 상황에서 듣는 사람을 높여 정중하게 무언가를 시키거나 요청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어디에 앉을까요? 나: 이 의자에 **앉으십시오.** 가: 내일 몇 시에 올까요? 나: 내일 7시에 **오십시오.** 가: 지하철역에 어떻게 갑니까? 나: 똑바로 **가십시오.** 그리고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십시오.** 가: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지 마십시오.** 나: 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문장예문	· 날씨가 추우니 두꺼운 옷을 **입으십시오.** ·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 이 종이에 이름을 **쓰십시오.** ·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사십시오.** · 그 짐은 이 차에 **실으십시오.** · 같은 나라 사람끼리 서로 **도우십시오.** · 여기에서 잠시 **기다리십시오.** · 교실에서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 벽에 **낙서하지 마십시오.**

+ '-으십시오'는 동사 뒤에 붙어 격식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명령형 종결어미이다. 음악회 안내원이 손님에게 '이 의자에 앉으십시오', 박물관 직원이 손님에게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지 마십시오'처럼 사용

한다. 그리고 '도서관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벽에 낙서하지 마십시오'와 같이 공지사항이나 주의사항을 써 놓은 게시글에 사용할 수 있다.

[도입]

(1)
교사: 여러분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선생님은 서 있어요.
선생님 다리가 많이 아파요. 어떻게 해요?
학생: 선생님 앉아요.
교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말해요. 앉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말해요. 선생님 앉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앉으십시오**. 따라하세요.
학생: 선생님 **앉으십시오**.
교사: 네, 감사합니다. (교사는 자리에 앉는다)

(2)
(여러 종류의 표지판을 준비한다. 학습자들이 금방 떠올리지 못할 것 같은 표지판은 미리 아래에 '조용히 하다' '담배를 피우다' 같은 것을 제시해 주어도 좋다.
교사: (정숙 표지판을 보여 준다.)
어떻게 해요?
학생: 조용히 해요.
교사: 네, 조용히 하다. 말해요. 여러분,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십시오.**
교사: (금연 표지판을 보여 준다.)
무엇입니까?
학생: 담배 안돼요. 담배를 피우지 말아요.
교사: 네, 담배를 피우지 말아요. 말해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지 말아요.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 '-으십시오'를 도입할 때 도입(1)처럼 학습자들이 교사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상황을 만든다. 그리고 도입(2)처럼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표지판을 사용하여 '-으십시오'를 도입하면 격식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명령할 때 사용하는 표현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으십시오'를 쓴다.

예) 읽- + -으십시오 → 읽으십시오　　앉- + -으십시오 → 앉으십시오
잡- + -으십시오 → 잡으십시오　　찾- + -으십시오 → 찾으십시오
참- + -으십시오 → 참으십시오　　먹- + -으십시오 → 먹으십시오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십시오'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십시오 → 가십시오
자- + -십시오 → 자십시오
살- + -십시오 → 사십시오
쓰- + -십시오 → 쓰십시오
하- + -십시오 → 하십시오
만들- + -십시오 → 만드십시오

+ '-으십시오'는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ㄴ'이 결합한다.
+ 학습자들이 '어서 오십시요', '안녕히 계십시요'와 같이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발음은 '-으십시요'로 나지만 동사 어간에 '-으십시오'가 붙은 형태이므로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로 쓰도록 주의한다.

①	받침 o	+ -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잡으십시오, 찾으십시오, 참으십시오, 먹으십시오
②	받침 x	+ -십시오	가십시오, 쓰십시오, 자십시오, 하십시오
	ㄹ 받침	+ -십시오 (어간 'ㄹ' 탈락)	사십시오, 만드십시오

③ 불규칙 동사

듣- 예)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눕- 예) 어서 침대에 **누우십시오.**
낫- 예) 감기 빨리 **나으십시오.**

[문장 구성 정보]

① '먹다, 마시다, 자다, 말하다, 있다' 등의 동사는 높임 표현으로 바꾸어 결합한다.

예)

먹다	+으십시오 +십시오	→ 잡수십시오, 드십시오
마시다		→ 드십시오
자다		→ 주무십시오
말하다		→ 말씀하십시오
있다		→ 계십시오

+ 학습자들이 높임 표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으십시오'를 그대로 결합하여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높임 표현을 배우기 전이면 관용적인 표현으로 먼저 지도하고, 높임 표현을 배우고 난 후라면 한 번 더 높임 표현을 복습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쓰도록 유도한다.

② 부정은 '-지 마십시오'로 쓴다.

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지 마십시오.**

+ 부정의 형태는 종종 공공장소 등의 규칙에 쓰여 '금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제약 정보]

① 형용사, '이다, 아니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날씨가 계속 **좋으십시오**. (x)
도서관에 책이 **많으십시오**. (x)
지금부터 **선생님이십시오**. (x)
빨리 군인이 **아니십시오**. (x)

② 과거 '-었-'이나 미래·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명령은 청자가 있는 현재 상황에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했으십시오**. (x)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겠으십시오**. (x)
어제 버스를 **탔으십시오**. (x)
내일 버스를 **타겠으십시오**. (x)

[확장]

① 관용적인 인사말에 쓰인다. 이때의 '-으십시오는 명령의 의미가 없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② 시험 문제 등과 같이 글을 쓸 때에는 지시함을 나타낸다.

예) 빈칸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사 문법]

① '-으십시오', '-으세요3)', '-어3)'

-으십시오	**-으세요3)**	**-어3)**
· 명령을 나타낸다.		
· 아주 높임의 격식체로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 많이 쓰인다. 예) 다음 발표자, **발표하**	· 다소 친분이 있는 윗사람, 비슷한 지위지만 친하지 않아서 약간 높여야 하는 경우에 쓴다. 예) 다음으로 줄리아 씨가 **발**	· 두루 높임의 비격식체로 다소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일상적인 대화에서 두루두루 편하게 쓰인다. 예) 다음으로 줄리아 씨가

십시오. (사회자가 발표자에게, 격식적 상황)	**표하세요**. (줄리아 씨가 친한 윗사람이거나 친하지 않은 비슷한 또래에게 비격식적인 상황)	**발표해요**. (줄리아 씨와 친하며, 비격식적 상황)
· 청유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예) 앤디 씨, 같이 도서관에 **가십시오**. (x)	· 청유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청유문으로 사용하려면 '같이, 함께' 등의 부사를 사용해야 한다. 예) 앤디 씨, 도서관에 **가세요**. (명령의 의미임) 앤디 씨, 같이 도서관에 **가세요**. (o)	· 청유문에 사용된다. 예) 앤디 씨, (같이) 도서관에 **가요**. (o)

② '-으십시오', '-어 주세요', '-으세요3)'

-으십시오	**-어 주세요**	**-으세요3)**
· 부탁이나 요청 및 명령을 나타낸다.		
· 동사가 결합하여 보다 강한 요청, 즉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며,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 예) 이리로 **가십시오**.	· 동사가 결합하여 요청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이리로 **가 주세요**.	· 동사가 결합하여 보다 강한 요청, 즉 명령의 의미를 주로 나타낸다. 예) 이리로 **가세요**.
· 형용사와 결합하여 기원의 의미를 나타내며,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 예) **행복하십시오**.	·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행복해 주세요**. (x)	· 형용사와 결합하여 기원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행복하세요**.

+ '-어 주세요'는 부탁을 하거나 요청할 때 사용하는 데 비해, '-으세요'와 '-으십시오'는 명령할 때 사용한다. 단 '-으십시오'가 '-으세요'보다 격식을 갖춰 듣는 이를 높이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 '-으세요'와 '-으십시오'가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기는 해도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은 아니다. 특히 "이리로 가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와 같이 상대의 행위를 구속하는 명령은 개인에게 직접 사용하면 예의 없는 말이 된다.

③ '-으십시오', '-으시지요'

-으십시오	**-으시지요**

· 윗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말함을 나타낸다.

· 격식적인 명령으로 사용되며, 공공장소의 규칙 등에 사용한다. 예)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환자분은 담배를 **끊으십시오**.	· 명령이 아닌 권유나 당부의 의미를 나타낸다. 공공장소의 규칙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다. 예) 여기서 **기다리시지요**. 조용히 **하시지요**. 환자분은 담배를 **끊으시지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긍정형 명령문에는 '吧'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부정형 명령문에는 '不要', '别'이 대응됨.

예)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 认真学习**吧**.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 把手洗干净.
일찍 **주무십시오**. - 早点休息**吧**.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 **不要**喝酒.

② 용법과 오류

- '먹다, 마시다, 자다, 말하다, 있다' 등의 동사는 높임 표현으로 바꾸어 '-으십시오'를 결합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국어에 이러한 언어 현상이 없기 때문에 높임 표현으로 바꾸지 않고 '먹다, 마시다, 자다, 말하다, 있다'에 '-으십시오'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드시다', '계시다'의 경우에는 '드시십시오', '계시십시오'로 잘못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으십시오. (x)
어서 약을 드시십시오. (x)
가시지 마시고 여기 한동안 계시십시오. (x)
할머니, 편히 자십시오. (x)

- '-으십시오'는 아주 높임의 격식체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 많이 쓰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으세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 다음 발표자, 발표하세요. (?)

- 명령은 아무리 정중하게 말해도 일단 명령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으십시오' 대신 더 부드러운 표현인 '-으시지요'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윗사람에게 무조건 '-으십시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 할머니, 어서 떠나십시오. (??) 할머니, 어서 떠나시지요. (o)
할아버지, 일찍 주무십시오. (??) 할아버지, 일찍 주무시지요. (o)

- 중국어에는 종결형에 따른 상대경어법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경어법을 잘못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할아버지, 이쪽으로 와. (x)
언니, 빨리 일어나십시오. (x)

- 청유형 종결어미 '-읍시다'와 명령형 종결어미 '-으십시오'의 중국어 대응 표현이 모두 '-吧'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이 두 문법을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할머니, 이쪽으로 오십시다. (x)
그럼 우리 같이 가십시오. (x)

3.5.10. '-을게'

-을게[-ㄹ게]{-을게요/-ㄹ게요}[종결어미] 미래에 대한 **의지**나 **약속**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을게: (동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미래의 어떤 일을 하겠다는 뜻이나 의지를 나타낸다. 또한 약속을 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앤디 씨, 오늘 집에 몇 시에 와요? 나: 저녁 7시에 **갈게요**. 가: 영수 씨, 지금 전화할 수 있어요? 나: 미안해요. 제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가: 이 책을 누가 읽을까요? 나: 제가 **읽을게요**. 가: 수지 씨, 내일은 지각하면 안 돼요. 나: 네, 내일은 지각하지 **않을게요**. 가: 영수 씨,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나: 좋아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문장예문	· 저는 비빔밥을 **먹을게요**. · 그 소포는 제가 **받을게요**. · 이번 주말에는 저희가 할머니 댁에 **갈게요**. · 제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탈게요**. · 다음 시험부터 열심히 **공부할게요**. · 내가 동생과 같이 미리 **준비할게**. · 제가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게요**. · 저는 피곤해서 잠깐 침대에 **누울게요**. · 저희가 여기에 집을 **지을게요**. · 교실에는 우리가 **있을게요**.

+ '-을게'는 미래에 나타날 어떤 사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다짐, 의지를 나타내거나 상대방에게 약속할 때 사용하는 평서형 종결어미이다. 이때 '-을까'는 나보다 듣는 사람이 아랫사람이거나 친구 관계일 때 사용하며, 높임 표현으로는 '-요'가 결합한 '-을까요'의 형태로 사용한다. 주로 말할 때 쓴다.
+ '저는 비빔밥을 먹을게요'와 같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하거나, '다음 시험부터 열심

히 공부할게요'처럼 약속할 때 사용한다. '이번 주말에는 저희가 할머니 댁에 갈게요'와 같이 '의지'와 '약속'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도입]

(1)
교사: (음식 이름이 적힌 메뉴를 보여 주며) 무엇을 먹을까요?
학생: 저는 불고기를 먹어요.
교사: 선생님은 불고기를 먹어요. 선생님은 불고기를 **먹을게요**. 왕밍 씨도 불고기를 먹어요. 말해 보세요.
학생: 저도 불고기를 **먹을게요**.

(2)
교사: 지금 교실이 너무 더러워요. 어떻게 해요?
학생: 청소를 해요.
교사: 제가 청소를 해요. **할게요**. 제가 청소를 **할게요**. 흐엉 씨는 무엇을 할 거예요?
학생: 저도 청소를 **할게요.**

+ '-을게'를 도입할 때 교사는 학생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물어 보고 학생들의 대답을 '-을게'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제시한다. 그런 다음 다시 학생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을게요'를 이용하여 말하도록 유도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게'를 쓴다.

예) 먹- + -을게 → 먹을게　　찾- + -을게 → 찾을게
찍- + -을게 → 찍을게　　끊- + -을게 → 끊을게
받- + -을게 → 받을게　　입- + -을게 → 입을게

② 동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ㄹ게'를 쓴다.

예) 가- + -ㄹ게 → 갈게　　사- + -ㄹ게 → 살게
타- + -ㄹ게 → 탈게　　마시- + -ㄹ게 → 마실게
만들- + -ㄹ게 → 만들게　　팔- + -ㄹ게 → 팔게

+ '-을게'는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ㄹ게'가 결합한다.
+ 학습자들이 '일찍 올께', '갈께'와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 발음은 '-께'로 나지만 동사 어간에 '-을게'가 붙은 형태이므로 '일찍 올게', '갈게'로 쓰도록 주의한다.

①	받침 o	+ -을게	먹을게, 찾을게, 찍을게, 끊을게, 받을게, 입을게

②	받침 ×	+ -ㄹ게	갈게, 살게, 탈게, 마실게
	ㄹ 받침	+ -ㄹ게 (어간 'ㄹ' 탈락)	만들게, 팔게

③ 불규칙

듣- 예)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을게요.**

짓- 예) 내가 밥을 **지을게요.**

돕- 예) 제가 부모님을 **도울게요.**

[문장 구성 정보]

① '-아/어 드리다'와 결합하여 '-아/어 드릴게요'의 형태로 자주 쓴다. 주로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말하거나 높임을 나타낼 때 쓴다.

예) 제가 선생님을 **도와 드릴게요.** 저희가 책을 **찾아 드릴게요.**
제가 내일 공항에 **모셔다 드릴게요.** 제가 어머니께 꽃을 **사 드릴게요.**

② 부정문은 '-을게' 뒤에 '-지 않다'를 붙이거나 '-을게' 앞에 '안'을 붙여 사용한다. '-을게'는 말할 때 주로 쓰므로 '안 -을게'의 형태를 자주 쓴다.

예) 사진을 안 **찍을게**. (o) 사진을 찍지 **않을게**. (o)
컴퓨터 게임을 안 **할게**. (o)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을게**. (o)
담배를 안 **피울게요**. (o) 담배를 피우지 **않을게요**. (o)
커피를 안 **마실게요**. (o) 커피를 마시지 **않을게요**. (o)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다음에는 제가 **늦을게요**. (x) 제가 내일부터 **예쁠게요**. (x)
제가 키가 **클게요**. (x) 다음 주부터 제가 **바쁠게요**. (x)

② 인식 동사나 심리 동사 등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제가 한국어를 **알게요**. (x) 저는 사과를 **좋아할게요**. (x)
제가 내년부터 부산에서 **살게요**. (x) 저는 청소를 **싫어할게요**. (x)

+ 상태나 성질은 의지나 약속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을게'와 결합하지 않는다.

③ 주어는 1인칭만 사용할 수 있으며, 2, 3인칭은 사용할 수 없다.

예) 저는 먼저 **잘게요**. (o) / 너는 먼저 **잘게요**. (x) / 수지 씨가 먼저 **잘게요**. (x)
제가 커피를 **살게요**. (o) / 네가 커피를 **살게요**. (x) / 영수 씨가 커피를 **살게요**. (x)
저희가 **갈게요**. (o) / 너희가 **갈게요**. (x) / 그들이 **갈게요**. (x)
우리가 **준비할게요**. (o) / 우리가 **준비할게요**. (x) / 우리가 **준비할게요**. (x)

+ '-을게'는 의지나 약속을 나타내므로, '나'가 아닌 다른 사람(2, 3인칭)의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없다.

④ 의문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서문에만 사용한다.

예) 제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게요**? (x)　　저희가 먼저 **갈게요**? (x)
제가 그 가방을 **찾을게요**? (x)　　우리가 돈을 **낼게요**? (x)

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손해가 되는 행위를 나타낼 때는 '-을게'를 쓸 수 없다.

예) 제가 그 일을 **할게요**. (o)　　제가 그 일을 **안 할게요**. (?)
제가 책을 **찾을게요**. (o)　　제가 책을 **안 찾을게요**. (?)
제가 밥을 **사 줄게요**. (o)　　제가 밥을 **안 사 줄게요.** (?)
제가 종이에 **써 줄게요**. (o)　　제가 종이에 **안 써 줄게요**. (?)

+ 형태상으로 '안 해 줄게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나타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나, 의미상 어색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유사 문법]

① '-을게', '-기로 하다'

-을게	**-기로 하다**
· 약속을 나타낸다.	
· '약속'의 의미를 나타내며,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약속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가: 내일 은행 앞에서 만나요. 나: 네, 은행 앞에서 **기다릴게요**.	· 상대방과 이미 한 약속을 나타내며, 대화 중에 약속을 정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예) 내일 은행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예) 가: 내일 은행 앞에서 만나요. 나: 네, 은행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x)

+ '-을게'와 '-기로 하다'가 모두 '약속'의 의미를 나타내나, 사용하는 상황이 다르다. '-을게'는 상대방과 대화 중에 자신의 약속에 대해 사용하지만, '-기로 하다'는 주로 '-기로 했다'의 형태로 쓰여 정한 약속이나 결심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그러므로 '-기로 하다'는 상대방과 대화 중에 약속을 정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을게', '-을 거예요'

-을게	**-을 거예요**
· 미래에 할 행동을 나타낸다.	
· 대화를 하는 상대방과 관계가 있으며,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한다.	· 대화를 하는 상대방과 관계가 없으며, 자신이 이미 결심한 사실을 이야기한다.

예) 가: 몸에 안 좋으니 이제 술을 마시지 마세요. 나: 네, 이제 술을 마시지 **않을게요.**	예) 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을 거예요.** 나: 좋은 생각이에요.
·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약속을 나타내므로 2, 3인칭 대명사가 주어로 올 수 없다. 예) (제가)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게요**. (o) 수지 씨가 공부를 열심히 **할게요**. (x)	· 말하는 사람뿐 아니라 2, 3인칭 대명사가 주어로 올 수 있다. 2, 3인칭 대명사가 주어가 되면 의지나 약속이 아니라 미래에 할 행동을 나타낸다. 예)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o) 수지 씨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거예요**. (o)

③ '-을게', '-을래'

-을게	**-을래**
·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며, 말할 때 자주 쓴다.	
· 약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제가 내일 학교에 일찍 **올게요**. (o)	· 약속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예) 제가 내일 학교에 일찍 **올래요**. (약속의 의미가 아니라 의지의 의미임.)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吧'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제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 我回头给你打电话**吧**.
교실에서 **기다릴게요**. - 我在教室等你**吧**.
김밥은 제가 **준비할게요**. - 我来准备紫菜包饭.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않을게요**. - 下次开始再也不迟到了.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의 동사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ㄹ게'를 써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동사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받침 있는 어간 뒤에 쓰이는 '-을게'를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음식은 내가 만들을게. (x)
과일은 내가 살을게. (x)

- 학습자들이 '듣다', '눕다', '짓다' 등 동사의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인다.

예) 시간 날 때 듣을게요. (x)
침대에 천천히 눕을게요. (x)
제가 밥을 짓을게요. (x)

- 주어로 1인칭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을게요'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에서는 주어가 2,3인칭일 때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철수가 갈게. (x)
  너희가 준비할게요. (x)

- 미래에 대한 의지나 약속을 나타낼 때 구어에서 '-을게요'를 사용하는데 중국어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학습자들이 '-을게요'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평서형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나중에 내가 너에게 전화해. (x) ('너에게 전화할게'로 표현해야 할 경우)
  내가 여기서 기다려. (x)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로 표현해야 할 경우)

- '-을게요'를 '-을 거예요'의 축약형으로 착각하여 '-을 거예요'가 쓰일 수 있는 의문문에 '-을게요'를 사용하여 오류가 나타난다.

  예) 철수가 갈게요? (x)
  저녁 때 만날게요? (x)

- 중국어에는 종결형에 따른 상대경어법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경어법을 잘못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할머니, 이건 제가 할게. (x)
  영희야,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요. (x)

3.5.11. '-을까'

-을까[-ㄹ까]{-을까요/-ㄹ까요}[종결어미] 1) 상대에게 **제안**을 하거나 2) **추측**을 나타내며 **질문**하는 의문형의 종결어미.

-을까1): (동사에 붙어) 듣는 사람에게 앞으로 할 일을 제안하며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수지 씨, 우리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갈까요**? 나: 안 돼요. 이번 주말에는 바빠서 못 가요. 가: 왕밍 씨, 수업이 끝나고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나: 미안해요.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안 돼요. 가: 앤디 씨, 제가 교실을 **청소할까요**? 나: 네, 좋아요. 지금 시작해요. 가: 지영 씨, 저녁에 떡볶이를 **만들까요**? 나: 네, 같이 만듭시다. 가: 현우야, 저녁에 같이 공원을 **걸을까**? 나: 응, 좋아.
문장예문	·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까요**? . 수업이 끝나면, 같이 커피를 **마실까요**? . 오후에 같이 **운동할까요**? . 날씨가 더운데, 창문을 **열까요**? . 우리 함께 음악을 **들을까요**? . 우리가 쓰레기를 **주울까요**? . 물이 다 끓었는데, 라면에 물을 **부을까요**? . 저기서 우리 같이 사진을 **찍을까**? . 줄리아 씨 생일인데, 선물을 **살까**? . 방학 때 해외 여행 **갈까**?

+ '-을까1)'은 상대에게 무엇을 하자고 권유하거나 제안할 때 사용하는 의문형 어미로, 이에 대해 상대는 '네(응), 아니, 안 돼요, 미안한데' 등으로 제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답으로 말하면 된다. 이때 '-을까'는 나보다 듣는 사람이 아랫사람이거나 친구 관계일 때 사용하며, 높임 표현으로는 '-요'가 결합한 '-을까요'의 형태로 사용한다.
+ '-을까1)'은 문장의 주어로 '나'나 '우리'가 오며, 듣는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읍시다'보다는 완곡한 표현이다.

[도입]

(1)
교사: 무슨 음식을 좋아해요?
학생: 저는 비빔밥을 좋아해요.
교사: 선생님도 비빔밥을 좋아해요.
수업이 끝나면 우리 같이 비빔밥을 먹어요. 어때요?
우리 같이 비빔밥을 **먹을까요**?

(2)
교사: 다음 주에 밖에서 우리 같이 운동을 해요.
무슨 운동을 **할까요**?
학생: 저는 축구가 좋아요.
교사: 그럼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축구를 해요. 어때요?
우리 같이 축구를 **할까요**?

+ '-을까1)'을 도입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1)과 (2)처럼 제안을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다. 상대방에게 나와 같이 할 것을 제안하는 용법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등의 부사를 사용하여 제시하면 '-을까'의 의미를 확실히 드러낼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까'를 쓴다.

예) 입- + -을까 → 입을까　　앉- + -을까 → 앉을까
먹- + -을까 → 먹을까　　찍- + -을까 → 찍을까
찾- + -을까 → 찾을까　　받- + -을까 → 받을까

② 동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ㄹ까'를 쓴다.

예) 사- + -ㄹ까 → 살까　　만나- + -ㄹ까 → 만날까
보- + -ㄹ까 → 볼까　　배우- + -ㄹ까 → 배울까
팔- + -ㄹ까 → 팔까　　만들- + -ㄹ까 → 만들까

+ '-을까'는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ㄹ까'가 결합한다.

①	받침 o	+ -을까	입을까, 앉을까, 먹을까, 찍을까, 찾을까, 받을까
②	받침 ×	+ -ㄹ까	살까, 만날까, 볼까, 배울까

	ㄹ 받침	+ -ㄹ까 (어간 'ㄹ' 탈락)	팔까, 만들까

③ 불규칙
걷- 예) 우리 같이 공원을 **걸을까요**?
짓- 예)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을까요**?
줍- 예) 함께 쓰레기를 **주울까요**?

[문장 구성 정보]
① '-을까1)'은 제안의 의미를 지니는 의문형 어미로, 주어로 주로 '우리'가 사용된다. 이때 '우리'는 자주 생략된다.

예) 수지 씨, (우리) 영화 **볼까요**?
왕밍 씨, (우리) 부산에 **갈까요**?

② '-을까1)'은 부사 '같이', '함께'와 자주 사용한다.

예) 수지 씨, 같이 길을 **찾을까요**?
여러분, 같이 노래를 **부를까요**?
영수 씨, 함께 잡지를 **읽을까요**?
우리 함께 음악을 **들을까요**?

③ 부정문은 '-을까' 뒤에 '-지 말다'를 써서 '-지 말까'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 스파게티를 **먹지 말까**? 이 음악을 **듣지 말까**?
오후에 백화점에 **가지 말까요**?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까요**?

④ '-을까요'에 대한 대답은 보통 '-어요'를 사용하는데, 이는 청유의 의미를 갖는다. 격식적인 상황에서 대답은 '-읍시다'를 쓰지만, 이는 윗사람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예) 가: 선생님, 오후에 같이 차를 **마실까요**?
나: 네, 좋아요. 같이 마셔요. (o)
네, 좋아요. 같이 마십시다. (o)

가: 지영아, 엄마랑 함께 **쇼핑할까**?
나: 네, 좋아요. 쇼핑을 해요. (o)
네, 좋아요. 쇼핑을 합시다. (x)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형용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을까2)'의 의미를 갖는다.

예) 주말에 영화를 보면 **좋을까요**? 한국어 공부가 **어려울까요**?
마이클 씨가 키가 **클까요**? 교실이 **깨끗할까요**?

② 제안의 의미를 나타내는 '-을까1)'은 주어가 3인칭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주어가 3인칭이면 '-을까'는 추측의 의미를 갖는 의문문이 된다.

예) 영수 씨가 케이크를 **만들까요**? 어머니가 지금 요리를 **하실까요**?
앤디 씨가 기차를 **탈까요**? 미도리 씨가 여기에 **앉을까요**?

[확장]

① '-을까'는 친한 사이나 아랫사람에게 쓰고, 상대를 높이려면 '-을까요'를 사용한다.

예) 동생아, 우리 라면을 **먹을까**? 영수야, 같이 드라마를 **볼까**?
선생님, 제가 창문을 **열까요**? 어머니, 커피를 **드릴까요**?

② '-을까(요)? + -을까(요)?'의 형태로 쓰여서 듣는 사람의 선택을 물을 때 사용한다.

예) 줄리아 씨, 이번 주말에 부산으로 **갈까요**? 제주도로 **갈까요**?
페이페이 씨, 저녁에 비빔밥을 **먹을까요**? 냉면을 **먹을까요**?
왕밍 씨, 빨간색 원피스를 **살까요**? 파란색 원피스를 **살까요**?
손님, 커피를 **드릴까요**? 주스를 **드릴까요**?

[유사 문법]

① '-을까요1)', '-을래요'

-을까요1)	**-을래요**
· 상대방의 의향을 알아보거나 제안을 나타낸다.	
· 주어가 '나, 우리' 등 1인칭일 때 사용하며 3인칭일 때 사용하지 못한다. 예) 우리 드라마 **볼까요**? (o) 제가 저녁에 **전화할까요**? (o) 수지 씨가 저녁에 **전화할까요**? (?)	· 주어가 '나'일 때 사용할 수 없다. 예) 우리 드라마 **볼래요**? (o) 제가 저녁에 **전화할래요**? (x) 수지 씨가 저녁에 **전화할래요**? (o)

+ '-을까요1)'은 주어로 말하는 사람, 즉 '나'나 말하는 사람을 포함한 '우리'를 사용한다. 주어가 3인칭이면 제안의 뜻이 아닌 추측의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을래요'는 말하는 사람이 행동의 주체가 아니라, 듣는 사람이 앞으로 할 행동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로 '나'를 쓸 수 없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怎么样', '呢'

예) 주말에 제주도에 같이 **갈까요**? - 周末一起去济州岛**怎么样**？
수업이 끝나고 축구하러 **갈까요**? - 下课后去踢足球**怎么样**？
몇 시에 **만날까요**? - 我们几点见**呢**？
이 책들을 어디에 **놓을까요**? - 这些书放哪里**呢**？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의 동사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ㄹ까요'를 써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동사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받침 있는 어간 뒤에 쓰이는 '-을까요'를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무겁지 않아요? 같이 들을까요? (x)
음식을 같이 만들을까요? (x)

- 학습자들이 '듣다', '눕다', '짓다' 등 동사의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인다.

  예) 음악을 듣을까요? (x)
  이 생선을 굽을까요? (x)

- 부정문은 '-지 말까요'인데 학습자들이 '안 -을까요?', '-지 않을까요?'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안 말할까요? (x)
  우리 가지 않을까요? (x)

- 주어는 반드시 1인칭인 '나/저' 또는 '우리'여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2인칭 주어로 사용하여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예) 네가 저녁에 나한테 전화할까? (x)
  당신은 저녁에 뭘 드실까요? (x)

- 제안하면서 의견이나 생각을 물을 때에도 학습자들이 '-을까요'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의문법 종결형 '-어(요)'를 사용하거나 '어떻습니까?, 어때(요)?'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 우리 저녁 6시에 만나요? (x) ('만날까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저녁 때 영화 보러 가요. 어때요?/어떻게 생각해요? (?)

-을까2):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추측을 제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영수 씨가 술을 **마실까요**? 나: 아니요, 영수 씨는 술을 안 마셔요. 가: 현우 씨가 이 드라마를 내일 **볼까요**? 나: 아니요. 내일은 보지 않을 거예요. 가: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 나: 그럼요. 가: 수지 씨 여동생이 **예쁠까요**? 나: 네, 아마 예쁠 거예요. 가: 앤디 씨가 어제 수업에 **왔을까**?

	나: 응, 왔을 거야.
문장예문	· 동생이 엄마를 **찾을까요**? · 이 옷이 저에게 **작을까요**? · 줄리아 씨가 이 책을 **살까요**? · 왕밍 씨의 키가 **클까요**? · 영수 씨가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할까요**? · 내일 날씨가 **따뜻할까요**? · 이 김치가 많이 **매울까**? · 저 사람이 우리 반 **선생님일까요**? · 소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 마이클 씨가 어제 **운동했을까요**?

+ '-을까2)'는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 추측하거나 듣는 사람의 의견을 물어볼 때 사용한다. 또한 동작이나 상태에 대해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내거나 가능성에 대해 물을 때 사용한다.

[도입]

(1)
교사: 오늘 날씨가 어때요?
학생: 더워요.
교사: 내일 날씨는 어때요? 날씨가 **더울까요**?
학생: 네, 내일도 더울 거예요.

(2)
교사: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학생: 네, 좋아해요.
교사: (영화 포스터 몇 개를 보여 주며) 어떤 영화가 **재미있을까요**?
학생: 이 영화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 '-을까2)'를 도입할 때는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입(1)과 같이 미래에 있을 상황을 설정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도입(2)와 같이 상태나 상황에 대해 추측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까'를 쓴다.

예) 찾- + -을까 → 찾을까　　읽- + -을까 → 읽을까
　　먹- + -을까 → 먹을까　　작- + -을까 → 작을까

많- + -을까 → 많을까　　좋- + -을까 → 좋을까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ㄹ까'를 쓴다.

예) 타- + -ㄹ까 → 탈까　　크- + -ㄹ까 → 클까
가- + -ㄹ까 → 갈까　　예쁘- + -ㄹ까 → 예쁠까
열- + -ㄹ까 → 열까　　멀- + -ㄹ까 → 멀까

+ '-을까'는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ㄹ까'가 결합한다.

①	받침 o	+ -을까	찾을까, 읽을까, 먹을까, 작을까, 많을까, 좋을까
②	받침 ×	+ -ㄹ까	탈까, 클까, 갈까, 예쁠까
	ㄹ 받침	+ -ㄹ까 (어간 'ㄹ' 탈락)	열까, 멀까

③ 불규칙
듣- 예) 수진 씨가 라디오를 **들을까요**?
짓- 예) 영수 씨가 집을 혼자 **지을까요**?
춥- 예) 주말에 날씨가 **추울까요**?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을까' 뒤에 '-지 않다'를 써서 '-지 않을까'의 형태로 사용한다.

예) 왕밍 씨가 내일 학교에 **오지 않을까**?　　기차가 지금 **출발하지 않을까**?
저 영화가 **무섭지 않을까요**?　　지금 백화점에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② 과거는 '-을까요' 앞에 '-었-'을 넣어 '-었을까요'의 형태로 쓴다.

예) 어제 서울에 비가 **왔을까**?　　수지 씨가 점심을 **먹었을까**?
영수 씨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제가 시험을 잘 **봤을까요**?

③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대답은 주로 '-을 거예요'를 사용한다.

예) 가: 왕밍 씨가 한국어를 **잘할까요**?　　가: 수진 씨, 주말에 명동에 사람이 **많을까요**?
나: 네, 아마 잘 할 거예요.　　나: 아니요, 많지 않을 거예요.

[확장]
① '-을까'가 '보다, 싶다, 하다, 생각하다, 고민하다, 걱정하다' 등의 동사와 함께 쓰이면, 의문형의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평서형의 문장으로 쓴다. 이때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낸다.

예) 하늘이 흐리니, 내일은 눈이 많이 **올까 봐요.**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내용을 **이해했을까 싶어요.**
저는 이번 주말에 부산으로 여행을 **갈까 해요.**
차가 막혀서 **지각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② 듣는 사람에게 가능성을 물어볼 경우에는 '-을까' 앞에 가능성을 나타내는 '-을 수 있다'를 붙여 뜻을 분명히 나타낸다.

예) 마이클 씨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줄리아 씨가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왕밍 씨가 한국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③ '얼마나 -을까'의 형태로 사용되어 '아주 그러할 것 같다'라는 뜻으로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날씨가 더운데 달리려면, 얼마나 **힘들까**?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외투도 안 입고 밖에 있으면, 얼마나 **추울까요**?
밤에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데, 얼마나 **바쁠까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会……吗', '能……吗'

예) 영희가 이 옷을 **좋아할까요**? - 英姬**会**喜欢这件衣服**吗**？
내일 날씨가 **따뜻할까요**? - 明天**会**暖和**吗**？
저녁에 철수 씨가 **올까요**? - 晚上哲洙**会**来**吗**？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 我**能**做这件事情**吗**？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의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ㄹ까요'를 써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동사, 형용사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받침 있는 어간 뒤에 쓰는 '-을까요'를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왕밍 씨가 기숙사에서 살을까요? (x)
집이 학교에서 멀을까요? (x)

- 학습자들이 '듣다', '눕다', '짓다' 등 동사의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인다.

예) 철수가 제 말을 듣을까요? (x)
할머니께서 병이 낫을까요? (x)

- 부정문은 '안 -을까요?' 또는 '-지 않을까요?'인데 학습자들이 첫 번째 용법과 헷갈려 '-지 말까요'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영희가 말하지 말까요? (x)

제가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웃지 말까요? (x)

- 과거는 '-을까요' 앞에 '-었-'을 넣어 '-었을까요'의 형태로 쓰지만, 학습자들이 '-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영희가 벌써 도착할까? (x)
철수가 어제 영희한테 말할까요? (x)

- '-을 수 있어요?'의 대응 표현도 '-을까요'의 대응 표현 '会……吗？'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헷갈려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영희가 제 말을 믿을 수 있어요? (x)
내일 비가 올 수 있어요? (x)

3.5.12. '-을래'

-을래[-ㄹ래]{-을래요/-ㄹ래요}[종결어미] 어떤 일을 할 **의사**나 **의향이 있음**을 1) **서술**하거나 2) **질문**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을래1): (동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의지나 의향, 계획이 있음을 나타낸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밝혀 말할 때 사용하며, 주로 비격식적인 구어에서 많이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오늘 도서관에 같이 갈까? 나: 아니, 안 **갈래**. 피곤해**.** 가: 무엇을 마실까요? 나: 저는 커피를 **마실래요.** 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아니면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나: 저는 피아노를 **배울래요.** 가: 유미 씨는 치마가 잘 어울리니까 치마를 입으세요. 나: 오늘은 많이 걸어야 하니까 바지를 **입을래요.** 가: 밥 좀 더 드세요. 나: 아니요, 너무 배가 불러서 그만 **먹을래요.**
문장예문	· 저는 스포츠 신문을 **읽을래요.** . 오래 걸어야 하니까 운동화를 **신을래.** . 집에 갈 때 저는 지하철을 **탈래요.** . 기숙사가 편하니까 기숙사에서 **살래요.** . 두 분이 다녀오세요. 저희는 그냥 여기 **있을래요.** · 방학이 되면 여행을 **할래.** . 디저트는 살이 찌니까 **먹지 않을래요.** . 저는 최신 가요보다 클래식 음악을 **들을래요.** · 저는 바닥 말고 침대에 **누울래요.** .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액션 영화는 **안 볼래요.**

+ '-을래1)'는 동사 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앞으로 하고 싶은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이다. 말하는 사람의 의향이나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이때의 주어는 모두 1인칭을 사용해야 한다.

+ 격식을 차리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한다. 글을 쓸 때보다 말을 할 때 많이 사용하며, 친구 사이나 아주 친한 사이에서 또는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입]

(1)
교사: (여러 가지 음식의 그림을 보여 주며)
우리 같이 식당에 왔어요. 무엇을 먹고 싶어요?
학생: 저는 김밥을 먹고 싶어요.
교사: 네, 선생님도 김밥이 먹고 싶어요. 김밥을 먹을 거예요.
선생님은 김밥을 **먹을래요. 그리고 떡볶이도 먹을래요.**

(2)
교사: 12월에 방학을 해요. 방학에 무엇을 할 거예요?
학생 1: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학생 2: 한국에서 계속 공부할 거예요.
교사: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고향에 **돌아갈래요.**
저는 고향에 **돌아갈래요.**
한국에서 공부할 거예요. **공부할래요.**
저는 한국에서 계속 **공부할래요.**

+ '-을래1)'를 도입할 때 여러 가지 가능한 선택 조건을 주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자신의 의사를 밝힐 때 '-을래1)'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학생들이 문법 사용에 익숙해지면 자유로운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나 계획을 밝혀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래'를 쓴다.

예) 먹- + -을래 → 먹을래
잡- + -을래 → 잡을래
참- + -을래 → 참을래
앉- + -을래 → 앉을래
읽- + -을래 → 읽을래
남- + -을래 → 남을래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ㄹ래'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ㄹ래 → 갈래
숙제하- + -ㄹ래 → 숙제할래
살- + -ㄹ래 → 살래
마시- + -ㄹ래 → 마실래
쇼핑하- + -ㄹ래 → 쇼핑할래
만들- + -ㄹ래 → 만들래

+ '-을래'는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ㄹ래'가 결합한다.

①	받침 ㅇ	+ -을래	먹을래, 앉을래, 잡을래, 읽을래, 참을래, 남을래
②	받침 x	+ -ㄹ래	갈래, 마실래, 숙제할래, 쇼핑할래
	ㄹ 받침	+ -ㄹ래 (어간 'ㄹ' 탈락)	살래, 만들래

③ 불규칙 동사

걷- 예) 오늘은 집까지 **걸을래**.
줍- 예) 나는 여기에서 밤을 **주울래**.
짓- 예) 나는 시골에 집을 **지을래**.

[제약 정보]

① 주어는 1인칭만 사용한다.

예) 나 먼저 **잘래**.
저는 한국 전통 기념품을 **살래요**.
우리는 도서관에 좀 더 **있을래요**.
저희는 명동에 가서 **쇼핑할래요**.

+ 말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어미이므로 1인칭 이외의 주어는 사용할 수 없다. 1인칭 단수인 '나, 저'를 사용하거나 나를 포함한 1인칭 복수인 '우리, 저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을래1)'의 뒤에 '-요'가 붙어 높임 표현 '-을래요'가 된다. 하지만 '-요'가 붙어도 구어에서 많이 쓰는 비격식체의 말이므로 정중한 느낌을 주지 못하므로 말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상대로 사용할 수 없다.

예) 나는 영수를 **믿을래**.
저는 영수 씨를 **믿을래요**.
나는 오늘 일찍 집에 **갈래**.
저는 오늘 일찍 집에 **갈래요**.

[유사 문법]

① '-을래1)', '-고 싶다'

-을래1)	**-고 싶다**
·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의향을 나타낸다.	
·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겠다거나 무엇을 하겠다는 상세한 의사 표현을 나타낸다. 예) 나는 점심 때 불고기를 **먹을래**.	·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희망을 나타낸다. 예) 나는 하늘을 **날고 싶어**.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결혼을 해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유학을 **갈래**.	서 아이를 다섯 명 **낳고 싶어**.

② '-을래1)', '-을게'

-을래1)	**-을게**
·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낸다.	
·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계획을 표현하기 때문에 초점이 말하는 사람에게 있다. 예) 내일은 일찍 학교에 **올래**. (말하는 사람의 의지, 생각이 담겨 있음. 듣는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음.)	· 말하는 사람의 결심을 듣는 사람에게 약속하듯이 표현하는 어미이기 때문에 초점이 듣는 사람에게 있다. 예) 내일은 일찍 학교에 **올게**. (듣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있음. 듣는 사람이 중요)
. 듣는 사람에게 불리한 행위라도 사용할 수 있다. 예) 나는 너랑 친구 안 **할래**. (o)	. 듣는 사람에게 불리한 행위를 사용할 수 없다. 예) 나는 너랑 친구 안 **할게**. (x)
· 상대방의 명령이나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 가: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나: 네, 안 **피울래요**. (x)	· 상대방의 명령이나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가: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나: 네, 안 **피울게요**.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想'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무서운 영화는 안 **볼래요**. - 不**想**看恐怖电影.
힘들어서 집에서 **쉴래요**. - 太累了, **想**在家里休息.
저녁 때 모임에 안 **갈래요**. - 晚上聚会我不去了.
저는 냉면을 **먹을래요**. - 我吃冷面.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으로 동사 어간은 'ㄹ' 받침이 탈락하고 '-ㄹ래'가 쓰이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문법 현상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을래'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기숙사에 살을래요. (x)
김밥을 만들을래요. (x)

- 주어는 1인칭만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어 대응 표현 '想'은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철수도 도서관에 갈래요. (x)

동생은 집에서 쉴래요. (x)

- '-고 싶다', '-려고 하다'의 대응 표현도 '想'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럼 저는 냉면을 먹으려고 해요. (x)
철수 씨는 냉면 시켰어요? 그럼 저도 냉면을 먹고 싶어요. (?)

- 중국어에서는 부사어로 의사나 의향을 나타내므로 학습자들이 의사나 의향을 나타낼 때 '-을래요'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 전 힘들어서 집에 있어요. (x) ('있을래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저는 비빔밥을 먹어요. (x) ('먹을래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을래2): (동사에 붙어) 어떤 일이나 선택에 대해 듣는 사람의 의사나 의향을 물음을 나타낸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 질문할 때 사용하며, 주로 비격식적인 구어에서 많이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주말에 네 방 청소 좀 **할래**? 나: 네, 좋아요. 가: 수지 씨, 다리 아파요? 저 의자에 **앉을래요?** 나: 아니요, 괜찮아요. 가: 시험 끝나고 뭐 **할래요?** 나: 먼저 집에 가서 푹 잘래요. 가: 요즘 여의도에서 벚꽃 축제가 열려요. 나: 그래요? 그럼 오늘 여의도에 같이 **갈래요?** 가: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지 않을래요?** 나: 네, 좋아요.
문장예문	· 줄리아 씨 먼저 손을 **씻을래요?** . 더우면 코트를 **벗을래?** . 내일 아침 8시에 학교 앞에서 **만날래요?** · 여기에서 잠시만 **기다릴래?** . 저는 늦을 것 같으니까 흐엉 씨 먼저 **출발할래요?** . 우리 집에서 같이 **놀래?**

	. 오늘 저와 같이 영화 **보지 않을래요?** . 김치를 한번 **먹어 볼래요?** . 미도리 씨에게 내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줄래요?** . 컴퓨터가 고장 났어요? 제 노트북을 **쓰실래요?**

+ '-을래2)'는 동사 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향을 듣기 위해 물어볼 때 사용하는 의문형 종결어미이다. 듣는 사람에게 물을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이때의 주어는 2인칭이 된다.
+ 주로 격식을 차리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한다. 글을 쓸 때보다 말을 할 때 많이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친구 사이나 아주 친한 사이에서, 또는 아랫사람에게 사용한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이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친분이 있을 경우에는 높임말의 형태인 '-으실래요?'의 형태로 바꾸면 사용할 수도 있다.

[도입]

(1)
교사: (영화 포스터를 보여 주며)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세요?
학생: 네, 좋아해요.
교사: 오늘 숙제는 영화 보기예요. 영화를 보세요.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학생: 한국 영화를 좋아해요. 한국 영화를 볼 거예요.
교사: 그럼 한국 영화를 **볼래요?**
학생: 네, 한국 영화를 볼 거예요.
교사: 그럼 어떤 영화를 **볼래요?**
학생: 재미있는 영화를 볼 거예요.

(2)
교사: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학생: 좋아요.
교사: 뭐 먹고 싶어요? 뭐 **먹을래요?**
학생: 고기를 먹고 싶어요.
교사: 고기를 **먹을래요?** 고기를 먹고 뭐 **할래요?**
학생: 영화를 봐요.
교사: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볼래요?**
학생: 네, 영화를 볼래요.

+ '-을래2)'를 도입할 때 듣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듣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사를 물어볼 때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형태 정보]
앞의 '-을래1)'을 참고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을래2)'의 뒤에 '요'가 붙어 높임 표현 '-을래요?'가 된다. 하지만 '요'가 붙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상대로 사용할 수 없다. 친분이 있는 윗사람이나 높은 사람,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가까운 직장 상사에게는 '-으시'와 결합하여 '-으실래요?'의 형태로는 사용할 수 있다.

예) 왕밍, 여기 **앉을래**?
왕밍 씨, 여기 **앉을래요**?
선생님, 여기 **앉으실래요**?
수지야, 먼저 **갈래**?
수지 씨, 먼저 **갈래요**?
어머니, 먼저 **가실래요**?

[확장]
① 위협하는 어조로 쓰여 남을 위협하거나 협박할 때, 또는 상대방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여 그러지 말 것을 야단치듯이 말할 때 사용한다.

예) 너 나한테 **맞을래**?
너 혼 좀 나 **볼래**?
너 엄마한테 정말 **이럴래**?
너 그렇게 욕심 **부릴래**?

[유사 문법]
① '-을래2)', '-을까'

-을래2)	**-을까**
· 듣는 사람의 의사나 의향을 물음을 나타낸다.	
· 주어가 2인칭이다. 예) 내일 네가 1시쯤에 학교로 **올래**? 나는 청소를 할 거야. 너는 빨래를 **할래**?	· 주어가 1인칭이다. 예) 내일 내가 1시쯤에 학교로 **갈까**? 우리 같이 청소를 **할까**?
· '-을까'보다 더 비격식적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보다 윗사람이나 높은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예) 영수야, 뭐 **먹을래**? (친구 o) 선생님, 몇 시쯤 **갈래요**? (윗사람 x) . 자신과 친분이 있는 윗사람이나 높은 사람에게는 높임말의 형태인 '-으실래요?'로	· 말하는 사람과 아주 친한 윗사람이나 높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다. 예) 영수야, 몇 시쯤 **갈까**? (친구 o) 할머니, 몇 시쯤 **갈까요**? (아주 친한 윗사람 o) 부장님, 몇 시쯤 **가실까요**? (높은 사람 o)

사용할 수 있다. 예) 선생님, 몇 시쯤 **가실래요**? (윗사람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想'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주말에 여행 같이 **갈래요**? - 周末**想**一起去旅游吗？
철수 씨는 뭘 **드실래요**? - 哲洙**想**吃什么？
더운데 창문 좀 **열래**? - 挺热的, 开点窗户好吗？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실래요**? - 能告诉我你的电话号码吗？

② 용법과 오류

- '-을래요'는 비격식적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윗사람이거나 높은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문법 현상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윗사람에게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교수님도 가실래요? (x)
할아버지, 뭘 드실래요? (x)

- '-고 싶다', '-려고 하다'의 대응 표현도 '想'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럼 넌 냉면을 먹으려고 해? (x)
영화 보러 가는데 같이 가고 싶어? (?)

- 중국어에서는 부사어로 의사나 의향을 나타내므로 학습자들이 의사나 의향을 나타낼 때 '-을래요'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 마트에 가는데 같이 가세요? (x) ('가실래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전 냉면 시켰어요. 철수 씨도 냉면 먹어요? (?)

3.5.13. '-읍시다'

-읍시다[-ㅂ시다][종결어미] 어떤 행동을 함께하자고 **제안**하거나 **요청**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읍시다: (동사에 붙어) 어떠한 행동을 제안하거나 요청함을 나타낸다. 격식적인 상황에서 아랫사람이나 동등한 관계의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 하자고 권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수업이 끝난 후에 식당에 가서 김밥을 **먹읍시다.** 나: 네, 좋습니다. 가: 다음 주에 시험이 있으니까 같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합시다.** 나: 네, 그럼 몇 시에 만날까요? 가: 5시에 **만납시다.** 나: 알겠습니다. 5시에 **만납시다.** 가: 내일 유미 씨 생일 케이크를 같이 **만듭시다.** 나: 미안해요. 이번 주말에는 약속이 있어요. 가: 잠시 쉬시겠습니까? 나: 네, 좀 **쉽시다.** 새치기를 **하지 맙시다.** 안전 운전을 **합시다.**
문장예문	· 저기 있는 의자에 **앉읍시다.** . 아침마다 같이 **운동합시다.** . 길이 많이 막히니까 지하철을 **탑시다.** . 집에서 음악을 **들읍시다.** . 우리 같이 한국 드라마를 **봅시다.** .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 수업이 끝난 후에 명동에서 **쇼핑합시다.** . 새 집을 찾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함께 **삽시다.** . 불쌍한 사람을 **도웁시다.** . 잔디에 **들어가지 맙시다.**

+ '-읍시다'는 동사 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행동을 같이 하자고 요

청할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이다. 따라서 '-읍시다'의 주어는 반드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포함된 '우리'가 되어야 하며 종종 생략될 수 있다.

+ 주로 말하는 사람과 동등한 관계이거나 아랫사람일 경우에 사용하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격식체인 '-읍시다'는 비격식체인 '-어요'에 비해 정중하고 예의바른 표현으로 잘못 여겨진다. 이로 인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나보다 윗사람이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자고 청할 때 '-읍시다'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읍시다'는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 말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으시지요'를 사용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읍시다'가 정중하고 공손한 표현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준다.

[도입]

(1)
교사: (동사 카드를 보여 주며)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어요.
학생: 여행가고 싶어요.
교사: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갑시다.
(동사 카드를 보여 주며)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어요?
학생: 쇼핑을 하고 싶어요.
교사: 네, 좋아요. 우리 같이 쇼핑을 해요. 쇼핑을 합시다.
(동사 카드를 보여 주며 학생들이 말하게 한다.)
지금부터 같이 하고 싶은 것을 '읍시다'로 말해 보세요.
학생: **공부합시다**, **먹읍시다**, **걸읍시다**.

(2)
교사: 주말에 모두 다함께 소풍 가요! 어디에 갈까요?
학생: 롯데월드에 가요.
교사: 롯데월드에 가요. 우리 같이 롯데월드에 갑시다.
가다. ㅂ시다. **갑시다. 롯데월드에 갑시다.**
롯데월드에 앤디 씨하고, 줄리아 씨하고, 미셸 씨하고, 모두 같이 가요. **갑시다**.

+ '-읍시다'를 도입할 때 '우리 같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여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과 함께 어떤 행동을 같이 하자고 권유하는 상황을 보여 준다. 칠판에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을 그리고 가운데에 '-읍시다'를 써서 학습자들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다.
+ 명령을 나타내는 '-으세요'를 먼저 학습했을 경우, 말하는 사람이 시키는 것과 말하는 사람이 함께 하는 청유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도록 비교해서 연습을 해도 좋다.
+ (2)를 충분히 이해시킨 후에 소풍 이외에도 영화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문화 체험, 여행, 방학 계획 등의 상황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학습자들 스스로 장소, 시간, 교통수단 등을 제안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읍시다'를 쓴다.

예) 먹- + -읍시다 → 먹읍시다　　받- + -읍시다 → 받읍시다
잡- + -읍시다 → 잡읍시다　　찾- + -읍시다 → 찾읍시다
참- + -읍시다 → 참읍시다　　읽- + -읍시다 → 읽읍시다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ㅂ시다'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ㅂ시다 → 갑시다　　오- + -ㅂ시다 → 옵시다
기다리- + -ㅂ시다 → 기다립시다　　공부하- + -ㅂ시다 → 공부합시다
팔- + -ㅂ시다 → 팝시다　　만들- + -ㅂ시다 → 만듭시다

+ '-읍시다'는 동사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며, 특히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는 'ㄹ'이 탈락하고 '-ㅂ시다'가 결합한다.

①	받침 ㅇ	+ -읍시다	먹읍시다, 받읍시다, 잡읍시다, 찾읍시다, 참읍시다, 읽읍시다
②	받침 x	+ -ㅂ시다	갑시다, 옵시다, 기다립시다, 공부합시다
	ㄹ 받침	+ -ㅂ시다 (어간 'ㄹ' 탈락)	팝시다, 만듭시다

③ 불규칙 동사

듣-　　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읍시다**.
돕-　　예) 같은 중학교 동창끼리 서로 **도웁시다**.
낫-　　예) 푹 쉬고 빨리 **나읍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일부 형용사는 다음과 같이 결합할 수 있다.

예) 우리 모두 **침착합시다**.
우리 좀 더 **부지런합시다**.
모두 자신의 일에 **충실합시다**.

+ 이 외에도 '정직하다, 냉정하다, 성실하다' 등이 결합할 수 있다.

② 제안하여 의견을 물어보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을까요'의 대답으로 그렇게 같이 하자는 의미로 '-읍시다'를 자주 함께 사용한다.

예) 가: 점심에 같이 비빔밥을 먹을까요?
나: 네, 비빔밥을 **먹읍시다**.

가: 방 안이 더운데 창문을 열까요?
나: 네, 창문을 **엽시다**.

③ 부정문은 '-지 맙시다'로 쓴다.

예)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시험지에 답을 연필로 **쓰지 맙시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맙시다**.
차도로 **걷지 맙시다**.

④ '같이, 함께'와 같은 부사와 자주 붙어서 쓰인다.

예) 우리 같이 제주도에 **놀러갑시다**.
우리 함께 테니스를 **칩시다**.

[확장]

① '좀'과 함께 사용하여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거나 양해를 구할 때 사용한다.

예) 나 좀 **봅시다**.
미안하지만 나 좀 **내립시다**.
택시 좀 같이 **탑시다**.
거기 좀 조용히 **합시다**.

+ '-읍시다'의 주어는 주로 '우리'이며,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 좀 내립시다'처럼 어떤 일을 요구하거나 양해를 구할 때는 '나'를 주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② 동사 '치다, 하다'에 붙어 어떠한 내용을 가정할 것을 제안할 때 사용한다.

예) 나한테 돈 천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대통령이 있다고 **합시다**.

[유사 문법]

① '-읍시다', '-어4)', '-자'

-읍시다	**-어4)**	**-자**
. 제안, 권유를 나타낸다.		
· 자기보다 윗사람이나 높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다. 예) 선생님, 우리 점심을 **먹읍시다**. (x) 사장님, 저희 집에 **갑시**	· 윗사람에게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 선생님,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해요**. (o) 아버지, 내일 우리 가족	· 말하는 사람과 친구이거나 아랫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자고 요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영수야, 우리 이번 주에 영화 보러 **가자**. (o) 엄마, 오늘 오후에 나랑

다. (x)	모두 **외식해요**. (o)	밖에서 **만나자**. (x)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吧'

예) 주말에 영화 보러 같이 **갑시다**. - 周末一起去看电影**吧**.
점심 같이 **만듭시다**. - 中午一起吃饭**吧**.
책이 한 권밖에 없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 只有一本书，一起看**吧**.
우리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 **갑시다**. - 我们周末去济州岛旅游**吧**.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 어간은 'ㄹ'이 탈락하고 '-ㅂ시다'가 결합하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문법 현상이 없으므로 학습자들이 '-읍시다'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 저녁을 같이 만들읍시다. (x)
내일 나가서 팔읍시다. (x)

- 부정문은 '-지 맙시다'인데 학습자들이 '-지 않읍시다'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집에 가지 않읍시다. (x)
차도로 걷지 않읍시다. (x)

- 중국어에는 종결어미에 따른 경어법이 없기 때문에 경어법을 잘못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할머니, 우리 같이 가자. (x)
영수야, 빨리 떠납시다. (x)

- 명령형 종결어미 '-으십시오'와 청유형 종결어미 '-읍시다'의 중국어 대응 표현이 모두 '-吧'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이 두 문법을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할머니, 이쪽으로 오십시다. (x)
그럼 우리 같이 가십시오. (x)

3.5.14. '-지'

-지{-지요}[종결어미]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1) **서술** 2) **질문**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지1):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실에 대해 듣는 사람도 알고 있다고 전제하여 말함을 나타낸다. 주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사실을 재확인시킬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요즘에도 주말에 자전거를 타세요? 나: 네, 주말이면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타지요.** 가: 요즘 감기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나: 맞아요, 날씨가 추워서 감기에 걸린 사람이 **많지요.** 가: 이 전자사전은 정말 비싸요. 나: 이게 최신 모델이니까 가격이 **비싸지요.** 가: 필립 씨, 친구들이 다 착한 거 같아요. 나: 네, 그래요. 특히 흐엉 씨가 **착하지요**. 가: 벌써 겨울인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나: 11월 말이니까 추울 때가 **되었지요.** 가: 오늘 영화 보는 게 어때요? 나: 역시 주말에는 영화를 보는 게 **최고지요**. 가: 시험공부 안 해? 나: 맞다. 내일 **시험이지**.
문장예문	· 학생들은 주로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지요.** · 필립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을 **하지요.** · 가방에 책이 많이 들어 있어서 **무겁지요.** · 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이 **빠르지요.** · 서울에서는 미국이 **멀지요.** · 줄리아 씨는 **영국 사람이지요.** · 수지 씨의 동생은 고등학생이니까 **성인이 아니지요.** · 요즘은 경기가 **좋지 않지요.** · 우리는 작년에 한국에 **왔지요.**

	· 여기에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만나겠지요.**

+ '-지1)'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하는 종결 어미이다. 주로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준 정보, 즉, '친구들이 착하다'는 정보에 대한 동의하면서 '특히 흐엉 씨가 착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때 사용한다. 또한 '여기에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만나겠지요'처럼 말하는 사람 자신에 관한 이야기나 자신의 생각을 친근하게 말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높임 표현으로는 '-요'가 결합한 '-지요'의 형태로 사용하며 주로 구어에서 많이 쓰인다.

[도입]

(1)
교사: (창밖의 풍경이나 하늘을 가리켜 주의를 환기시키며) 선생님은 오늘 추워요. 여러분은 오늘 날씨가 어때요?
학생: 추워요.
교사: 네, 추워요. 날씨가 **춥지요.** 선생님은 옷을 따뜻하게 입었어요. 여러분도 따뜻하게 입었어요? **입었지요?**
학생: 네, 입었어요.

(2)
교사: 내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학생: 목요일이에요.
교사: 내일도 학교에 와요?
학생: 네, 학교에 와요.
교사: 맞아요. 학교에 와요. 학교에 **오지요.** 내일은 평일이에요. 주말이 아니에요. 학교에 와요. 내일도 학교에 **오지요.**

+ '-지1)'를 도입할 때는 선생님도 알고 학생들도 알고 있는 '날씨'나 '요일'과 같은 일상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모두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함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고 가르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지'를 쓴다.

예) 먹- + -지 → 먹지
살- + -지 → 살지
작- + -지 → 작지
멀- + -지 → 멀지
있- + -지 → 있지
사- + -지 → 사지
받- + -지 →받지
만들- + -지 → 만들지
귀엽- + -지 → 귀엽지
길- + -지 → 길지
없- + -지 → 없지
공부하- + -지 → 공부하지

크- + -지 → 크지　　예쁘- + -지 → 예쁘지

①	받침 o	+ -지	먹지, 받지, 살지, 만들지, 작지, 귀엽지, 멀지, 길지, 있지, 없지
	받침 x		사지, 공부하지, 크지, 예쁘지

② '이다, 아니다'는 '-지'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지'라고 쓴다.

예) 사람이- + -지 → 사람이지　　가방이- + -지 → 가방이지
책이- + -지 → 책이지　　구두이- + -지 → 구두이지/구두지
자전거이- + -지 → 자전거이지/자전거지　　아니- + -지 → 아니지

[확장]

① '-지'에 '요'가 붙어 높임 표현으로 사용하는 '-지요'는 '-죠'로 줄여 쓸 수 있다.

예) 시간이 있으면 조용히 음악을 **듣지요**.
=시간이 있으면 조용히 음악을 **듣죠**.
미도리 씨도 한국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지요**.
=미도리 씨도 한국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죠**.

② 동사에 붙어 듣는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과 함께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저희들하고 같이 **가시지요**.
오늘 함께 술 한 잔 **하시지요**.
제 책이라도 같이 **보시지요**.
오늘은 저희 집에서 함께 **주무시지요**.

+ '같이, 함께' 등의 부사와 어울려 자주 쓰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위의 주체인 상대방을 높여, '-시-'와 결합한 '-으시지요'의 꼴로 자주 쓰인다.

③ 동사에 붙어 듣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공손하게 요구하거나 명령 또는 권유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이제 그만 **일어나시지요**.
그냥 이걸로 **정하시지요**.
저쪽에서 담배를 **피우시지요**.
밖에서 **기다리시지요**.

+ 일반적으로 행위의 주체인 상대방을 높여, '-으시-'와 결합한 '-으시지요'의 꼴로 자주 쓰인다.

④ 동사에 붙어 이미 일어난 상황이 말하는 사람의 원하는 것과 달라 마음에 들지 않음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흐엉 씨도 함께 데리고 **가시지요**. 왜 혼자 두고 가셨어요?
여기 있던 빵을 다 드셨네요. 제 것도 좀 남겨 **놓으시지요**.
앤디 씨를 많이 도와주셨군요. 저도 좀 **도와주시지요**.
미셸 씨 것도 사 **오지요**. 왜 다른 사람들 것만 사 오셨어요?

+ 일반적으로 행위의 주체인 상대방을 높여, '-으시-'와 결합한 '-으시지요'의 꼴로 자주 쓰인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이 **빠르지요**. - 下班时间地铁快.
저는 당연히 **모르지요**. - 我当然不知道了.
학생들은 주로 기숙사에 **살지요**. - 大部分学生住宿舍.
매일 운동하니까 몸이 **건강하지요**. - 每天运动，所以健康.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 대응 표현이 없기 때문에 '-지요'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저는 당연히 몰라요. (?)
물론 사과가 건강에 좋아요. (?)

-지2):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실을 듣는 사람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질문함을 나타낸다.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왕밍 씨는 기숙사에서 **살지?** 나: 응, 기숙사에서 살아. 가: 지금 밖에 비가 **오지요?** 나: 아니요, 아까 왔는데 지금은 안 와요. 가: 한국어 배우기가 **재미있지요?** 나: 네,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가: 그 가게의 물건 값이 좀 **비싸지요?** 나: 네, 그래서 다른 가게에서 샀어요.

	가: 약속 시간이 **5시지요?** 나: 맞아요. 5시에 만나요.
문장예문	· 여기가 한국대학교 **맞지요?** · 수지 씨는 영어를 **잘하지요?** · 우리 회사는 크리스마스 때 **쉬지요**? · 김치가 **맵지요?** · 그 영화는 정말 **재미있지요?** · 제주도는 **섬이지요?** · 여보세요, 거기 대한 **여행사지요?** ·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지요?** ·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모두 한복을 **입었지요?** · 지금 점심을 **드실 거지요?**

+ '-지2)'는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으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듯 물어볼 때 사용하는 종결어미이다. 주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아는 사실에 대해 재확인하거나 그러한 사실에 대해 동의를 구할 때 사용한다.

[도입]

(1)
교사: 왕밍 씨, 선생님에게 책을 주세요.
(모든 학생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받은 책을 보여 주며)
여러분, 이 책은 누구의 책이에요?
학생: 왕밍 씨의 책이에요.
교사: 네, 왕밍 씨의 책이에요. 왕밍 씨의 **책이지요?**

(2)
교사: 앤디 씨는 어디에서 살아요?
학생: 학교 앞에서 살아요.
교사: 학교까지 얼마나 걸려요?
학생: 걸어서 5분쯤 걸려요.
교사: 와, 가까워요. 여러분, 앤디 씨 집이 **가깝지요?**
학생: 네, 가까워요.

+ '-지2)'를 도입할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즉 '줄리아 씨 집이 가깝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을 먼저 강조한 다음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물어볼 때 '-지2)'를 사용한다고 가르친다.
+ 학습자들이 '-지2)'에 대해 이해했으면, '-어2)'의 용법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다. "선생님의 집이 가까워요?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의 집이 가까워요?라고 물어요. 그런데 줄리아 씨의 집이 가까워요. 우리 알아요. 줄리아 씨의 집이 가깝지요?라고 확

인하면서 물어요"와 같이 비교하여 가르친다.

[형태 정보]
앞의 '-지1)'을 참고한다.

[유사 문법]
① '-지2)', '-어2)'

-지2)	**-어2)**
· 어떤 정보에 대해 질문함을 나타낸다.	
·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도 이미 정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질문할 때 사용한다. 예) 가: 지금 비가 **오지요**? 나: 네, 비가 와요. (말하는 사람이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하며 물어봄)	· 정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모르고 듣는 사람은 알고 있어서, 말하는 사람이 모르는 것을 질문할 때 사용한다. 예) 가: 지금 비가 **와요**? 나: 네, 비가 **와요**. (말하는 사람은 비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 모름.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질문함)
· 선택 의문문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예) 비가 **오지요**? 안 **오지요**? (x)	· 선택 의문문으로 사용된다. 예) 비가 **와요**? 안 **와요**?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吧'

예) 날씨가 많이 **춥죠**? - 天气很冷**吧**？
여기가 도서관 **맞지요**? - 这里是图书馆**吧**？
철수 씨도 저녁에 모임에 가실 **거지요**? - 哲洙你也去晚上聚会**吧**？
제주도는 **섬이지요**? - 济州岛是岛屿**吧**？

② 용법과 오류
- '-지(요)'로 질문해야 할 경우에도 '-지(요)'를 사용하지 않고 자주 쓰이는 '-어(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참, 철수 씨도 오늘 간다고 했어요? (?) ('했지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이곳도 여름에 많이 더워요? (?) (덥다는 걸 알고 '덥지요'로 확인해야 할 경우)

3.6. 표현

3.6.1. -게 되다

-게 되다[표현] 외부의 영향에 의해 **변화된 결과나 상황 및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게 되다: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어떤 상황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 어떠한 결과에 이르거나 상황이나 상태가 변화함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 예문	가: 왜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나: 손님이 너무 없어서 문을 **닫게 됐어요**. 가: 주말에 뭘 해요? 나: 영화표가 생겨서 영화를 **보게 됐어요**. 가: 어떻게 줄리아 씨를 알아요? 나: 옆집에 살아서 **알게 됐어요**. 가: 흐엉 씨, 어떻게 한국에 **가게 됐어요**? 나: 한국 대학에 합격해서 **가게 됐어요**. 가: 미도리 씨, 과자를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나: 맛이 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
문장 예문	· 왕밍 씨가 도와줘서 지갑을 **찾게 됐어요.** ·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계속 **보게 돼요.** · 드디어 한국어 책을 잘 **읽게 됐어요.** · 앤디 씨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됐어요.** ·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됐습니다**. · 우리 반 대표 선수로 운동회에 **나가게 됐어요.** · 졸려서 커피를 계속 **마시게 돼요.** · 흐엉 씨 옆자리에 **앉게 돼서** 다행이에요. · 수지 씨를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 늦은 시간에 전화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 '-게 되다'는 외부적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손님이 너무 없어서 문을 닫

게 됐어요, 영화표가 생겨서 영화를 보게 됐어요, 옆집에 살아서 알게 됐어요, 한국 대학에 합격해서 가게 됐어요, 맛이 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와 같이 원인을 함께 제시하는 게 좋다.

+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발생한 상황에서도 '-게 되다'를 사용하기도 한다. '옆자리에 앉게 돼서 다행이에요,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늦은 시간에 전화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와 같은 예문은 외부적 상황에 의한 결과이지만 외부적 상황이 명시적이지 않으며,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도입]

(1)
교사: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김치를 잘 먹었어요?
학생: 아니요, 못 먹었어요.
교사: 지금도 김치를 못 먹어요?
학생: 아니요, 이제 잘 먹어요.
교사: 처음에는 김치를 못 먹었어요. 그런데 왕밍 씨가 한국에 와서 살았어요. 김치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치를 잘 먹어요. 이제 김치를 잘 **먹게 됐어요**.

(2)
교사: 저는 요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학생: 요리를 잘해요.
교사: 결혼을 해서 매일 요리를 했어요. 이제 변했어요. 요리를 잘해요. 요리를 **잘하게 됐어요**.

+ 도입(1)과 도입(2)를 통해 '-게 되다'가 '어떻게 변했어요'를 말할 때 사용한다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김치를 못 먹었지만 많이 먹다 보니 결과적으로 잘 먹게 변했다는 상황과 요리를 못했지만 결혼해서 매일 하다 보니 잘하게 되었다는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지 적용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게 좋다.
+ 도입(2)를 제시할 때 '요리를 못해 쩔쩔매는 그림/ 결혼하는 그림/ 요리를 잘하는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를 준비하면 의미를 이해하기에 보다 용이하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와 관계없이 '-게 되다'를 쓴다.

예) 씻- + -게 되다 → 씻게 되다
먹- + -게 되다 → 먹게 되다
아프- + -게 되다 → 아프게 되다
살- + -게 되다 → 살게 되다
만들- + -게 되다 → 만들게 되다
맛있- + -게 되다 → 맛있게 되다
보- + -게 되다 → 보게 되다
사- + -게 되다 → 사게 되다
놀- + -게 되다 → 놀게 되다

①	받침 ㅇ	+ -게 되다	씻게 되다, 맛있게 되다, 먹게 되다
	받침 ×	+ -게 되다	보게 되다, 아프게 되다, 사게 되다
	ㄹ 받침	+ -게 되다	살게 되다, 놀게 되다, 만들게 되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게 되지 않다, '안 -게 되다'로 쓴다. '안 -게 되다'는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 쇼핑을 **하게 안 돼요**. (x)
쇼핑을 **하게 되지 않아요**. (o)
쇼핑을 **안 하게 돼요**. (o)

② 과거는 '되다'에 '-었-'을 붙여 쓴다. '-게' 앞에 '-었-'을 붙이지 않는다.

예) 병원에 **갔게 돼요**. (x)
병원에 **갔게 됐어요**. (x)
병원에 **가게 됐어요**. (o)

[확장]

① 주로 '-게 되었다'의 형태로 사용한다.

예) 가: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나: 한국 친구를 만나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가: 언제부터 야구를 **하게 되었습니까**?
나: 7살 때부터 야구를 **하게 되었어요**.

+ '상황의 결과'를 의미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완료된 상황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결국, 마침내, 드디어' 등의 부사와 자주 결합한다.

예) 드디어 나도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결국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 '상황의 결과'를 의미하므로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와 호응 관계를 가진다.

③ 겸손한 표현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예) 이번 가을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되었어요**.
대학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이번 달부터 월급이 **오르게 되었어요**.

+ 주로 주어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일에 쓰이지만, 결과에 대해 주어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겸손하게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유사 문법]

① '-게 되다', '-어지다'

-게 되다	**-어지다**
· 어떠한 상황이나 사태로 변화됨을 나타낸다. 예) 시험을 못 봐서 합격이 **어렵게 되었다**. 시험을 못 봐서 합격이 **어려워졌다**.	
· 변화한 결과를 더 강조한다. 예) 날씨가 추워서 두꺼운 옷을 **입게 되었어요.**	· 변화하는 과정을 더 강조한다. 예) 점점 날씨가 **추워져요.**
· 타동사와의 결합이 자유롭다. 예) 올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게 되었다.**	· 타동사와 결합하여 자동사로 사용된다. 예) 올해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졌다.**
· 일부 형용사 결합에 제약을 보인다. 예) 과일 값이 **비싸게 되었어요.** (x) 마음이 **따뜻하게 되었다.** (x) 얼굴이 **곱게 되었다.** (x)	· 형용사와 결합하여 동사로 사용된다. 예) 과일 값이 **비싸졌어요.** (o) 마음이 **따뜻해졌다.** (o) 얼굴이 **고와졌다.**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동사 어간과 결합할 경우,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없다. 다만 동사 앞에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쓰일 경우 '변화'를 나타내는 '变得'와 대응될 수 있겠으나, 대응 표현이 없이 어휘의미만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형용사 어간에 결합할 경우에는 대체로 '变成', '变得'와 대응한다.

예) 이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계속 **보게 되었어요.**
-因为这部连续剧很好看, 所以就继续看下去了. (대응 표현이 없음)
예전에는 싫어했는데 먹다 보니 **좋아하게 되었어요.**
- 过去不喜欢吃, 后来吃着执着, (**变得**)喜欢吃了.
흰색이 **파랗게 되었어요.** - 白色**变成**蓝色了.
눈이 와서 대지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 下雪了, 大地**变得**一片雪白.

② 용법과 오류

- 중국어에는 어떤 상황의 결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게 되다'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게 되다'가 사용되어야 할 자리에 '-게 되다'가 사용되

지 않아서 어색한 문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예) 예전에는 한국어 책을 못 읽었는데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읽을 수 있어요. (??) ('드디어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로 써야 할 경우)

3.6.2. '-고 싶다'

-고 싶다[표현] 말하는 사람의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

-고 싶다: (동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하기 원하거나 바라는 것을 나타낸다. 계획이나 취향과 같은 주제로 원하는 것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가: 수지 씨, 주말에 어디 갈까요? 나: 명동 어때요? 저는 명동에 **가고 싶어요**. 가: 수업 끝나면 뭘 해요? 나: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어요**. 가: 왜 한국어 공부를 해요? 나: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서요.** 가: 왕밍 씨도 이 책을 **읽고 싶어요**? 나: 아니요, 그 책은 작년에 읽었어요. 가: 줄리아 씨는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나: 저는 베트남에서 **살고 싶어요.**
문장 예문	· 이 옷을 **입고 싶어요.** · 저도 이 가방을 **사고 싶어요.** · 만화책을 **읽고 싶어요**. · 신나는 음악을 **듣고 싶어요**. · 한국 영화를 **보고 싶었습니다.** · 너무 졸려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 흐엉 씨, 제주도를 **여행하고 싶어요**? ·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 주말에 청소를 **하고 싶어요**. · 아파서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 '-고 싶다'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희망을 나타내므로 '명동에 가고 싶어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어요,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서요'와 같이 사용한다. 듣는 사람의 희망을 나타낼 때는 의문문으로만 사용되므로 '왕밍 씨도 이 책을 읽고 싶어요?, 줄리아 씨는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등으로 제시함에 주의한다.

[도입]

(1)
교사: 같이 점심을 먹어요. 뭘 먹을까요?
학생1: 저는 피자가 좋아요.
교사: 왕밍 씨는 피자를 **먹고 싶어요**? 흐엉 씨는요?
학생2: 저는 햄버거가 좋아요.
교사: 흐엉 씨는 햄버거를 **먹고 싶어요**.

(2)
교사: 줄리아 씨는 주말에 뭘 해요?
학생1: 저는 영화를 봐요.
교사: 미도리 씨도 영화를 좋아해요? 줄리아 씨와 같이 영화를 보세요. 어때요? **보고 싶어요**?
학생2: 네, 좋아요. 같이 영화를 봐요.
교사: 저도 여러분과 같이 영화를 **보고 싶어요**.

+ 도입(1)과 도입(2)는 학생들이 원하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희망을 나타내는 '-고 싶다'의 의미를 인식하게 하는 방식이다. 단, '-고 싶다'가 형용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동사가 붙는 예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와 관계없이 '-고 싶다'를 쓴다.

예) 찾- + -고 싶다 → 찾고 싶다
먹- + -고 싶다 → 먹고 싶다
사- + -고 싶다 → 사고 싶다
살- + -고 싶다 → 살고 싶다
만들- + -고 싶다 → 만들고 싶다
읽- + -고 싶다 → 읽고 싶다
가- + -고 싶다 → 가고 싶다
공부하- + -고 싶다 → 공부하고 싶다
놀- + -고 싶다 → 놀고 싶다

①	받침 o	+ -고 싶다	찾고 싶다, 읽고 싶다, 먹고 싶다
	받침 ×	+ -고 싶다	가고 싶다, 사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ㄹ 받침	+ -고 싶다	살고 싶다, 놀고 싶다, 만들고 싶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안 -고 싶다', '-고 싶지 않다'로 쓴다.

예) 쇼핑을 **하고 안 싶어요**. (x)
쇼핑을 **안 하고 싶어요**. (o)

쇼핑을 **하지 않고 싶어요.** (o)
쇼핑을 **하고 싶지 않아요**. (o)

② 과거는 '싶다'에 '-었-'을 붙여 쓴다. '-고' 앞에 '-었-'을 붙이지 않는다.

예) 김치찌개를 **먹었고 싶어요**. (x)
김치찌개를 **먹었고 싶었어요.** (x)
김치찌개를 **먹고 싶었어요**. (o)

③ 미래, 추측을 나타내는 '-겠-'이 붙으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추측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예)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겠어요**. (x)
앤디 씨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겠어요.** (o)
(나는) 스키를 잘 **타고 싶겠다**. (x)
(너는) 스키를 잘 **타고 싶겠다.** (o)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저는 **예쁘고 싶어요**. (x)
기분이 **좋고 싶어요**. (x)
왕밍 씨, **빠르고 싶어요?** (x)

+ 형용사에 '-어지다'가 붙으면 결합이 가능하다.

예) 저는 **예뻐지고 싶어요**. (o)

② 다른 사람이 아닌 말하는 사람의 바람을 나타낸다.

예) 줄리아 씨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x)
저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o)

+ 의문문으로 쓰일 때는 듣는 사람의 바람을 나타낼 수 있다.

예) 너도 영화를 **보고 싶어?** (o)

①	평서문에서는 1인칭 주어가 오고,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가 와야 한다.	저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o) 너는/ 줄리아 씨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x) 너도 영화를 **보고 싶어?** (o)
②	'-겠-'이 붙으면 1인칭 주어가 올 수 없다.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겠어요**. (x)

[확장]
① 규범적 표현은 아니지만 '행복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와 같이 '-고 싶다'와 관용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되는 형용사도 있다. 주로 긍정적 의미의 형용사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예) **건강하고 싶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저도 이제 **행복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불행하고 싶습니다. (??)
아프고 싶어서 운동을 안 합니다. (??)

② 문학적 표현을 위한 특별한 경우에는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주어로 쓸 수 있다. 주어가 희망하는 일을 말하는 이가 전지적으로 아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이다.

예) 기차는 달리고 싶다.
그 남자는 떠나고 싶었다.

[유사 문법]

① '-고 싶다', '-고 싶어 하다'

-고 싶다	**-고 싶어 하다**
· '희망'을 나타낸다.	
· 동사와 결합한다. 예) 나는 **예쁘고 싶다.** (x) 나는 제주도에 **가고 싶다.** (o)	· 동사, 형용사와 결합한다. 예) 수지도 **예쁘고 싶어 한다.** (o) 수지도 제주도에 **가고 싶어 한다.** (o)
· 평서문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의문문에서는 듣는 사람이 주어가 된다. 예) 왕밍 씨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x) 나는 제주도에 **가고 싶어**. (o) 너도 제주도에 **가고 싶어?** (o)	·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어가 된다. 예) 나는 제주도에 **가고 싶어 한다.** (x) 너도 제주도에 **가고 싶어 한다.** (x) 수지도 제주도에 **가고 싶어 한다.**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想'

예) 저녁에 뭘 **먹고 싶어요**? - 晚上**想**吃什么?
친구와 같이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 **想**和朋友去济州岛.
한국에 유학 **가고 싶어요**. - **想**去韩国留学.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요**. - 今天**想**在家里休息.

② 용법과 오류

- 한국어의 '-고 싶다'는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 대응 표현 '想'은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들이 나타난다.

예) 나도 이렇게 뚱뚱하고 싶지 않아요. (x)
저는 날씬하고 싶어요. (x)

- '-고 싶다'는 서술문에서 일인칭 주어제약, 의문문에서는 이인칭 주어제약이 따르지만, 중국어의 '想'은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주어가 3인칭인 경우에도 '-고 싶다'를 사용하는 오류가 보인다.

  예) 철수도 베이징에 가고 싶어요. (x)
  영희 씨도 영화를 보고 싶어요. (x)
  네 동생도 한국에 가고 싶어? (x)

- 주어가 3인칭인 경우 '-고 싶어 하다'가 결합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주어의 인칭에 상관없이 모두 '想'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고 싶다'와 '-고 싶어 하다'를 혼동해서 사용한다.

  예) 철수도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x)
  너도 가고 싶어 하니? (x)
  나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 해. (x)

3.6.3. -고 있다

-고 있다[표현] 1) **동작의 진행** 2) **결과 상태의 지속** 등을 나타내는 표현.

-고 있다1): (동사에 붙어) 어떤 동작이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금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한다. 또한 진행의 의미가 확장되어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지속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는 주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요즘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 예문	가: 도서관 앞에서 뭘 해요? 나: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 방에서 뭘 해요? 나: 어제 빌려 온 책을 **읽고 있어요**. 가: 뭘 **하고 있어요**? 나: 지갑을 **찾고 있어요**. 가: 왕밍 씨, 왜 대답을 안 해요? 나: 미안해요. 음악을 **듣고 있어서** 몰랐어요. 가: 수지 씨는 주말마다 뭘 해요? 나: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하고 있어요.**
문장 예문	· 영수는 밥을 **먹고 있어요.** · 미도리 씨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 앤디는 잠을 **자고 있어요.** · 동생이 김치찌개를 **만들고 있어요.** · 도서관에서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 줄리아 씨는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 엄마가 **요리하고 있어요.** · 형은 5시간 동안 컴퓨터를 **고치고 있어요.** ·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 '-고 있다1)'은 동작의 진행을 의미하므로 '도서관 앞에서 뭘 해요?/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방에서 뭘 해요?/ 어제 빌려 온 책을 읽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지갑을 찾고 있어요.'와 같이 '무엇을 해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건강을 위해 등산을 다니고 있어요'의 예처럼 '건강'이라는 목표를 위해 등산이라는 일을 반복적으로 지속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에도 사용된다.

[도입]

(1)
교사: (칠판에 글을 쓰면서) 선생님이 지금 무엇을 해요?
학생: 써요.
교사: 선생님이 지금 써요. **쓰고 있어요**.
(지우면서) 선생님이 지금 무엇을 해요?
학생: 지워요.
교사: 선생님이 지금 지워요. **지우고 있어요.**

(2)
교사: (여행가는 사진을 보여 주며) 방학 때 뭘 할 거예요?
학생: 여행을 갈 거예요.
교사: (아르바이트 하는 사진을 보여 주며) 방학 때 여행을 가기 위해 요즘 뭘 해요?
학생: 아르바이트를 해요.
교사: 방학 때 여행을 가기 위해 요즘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 도입(1)은 '지금 해요'라는 설명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교실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직접 수행하며 학생들에게 진행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커피를 따르거나 마시는 행위를 중간에 멈추고 커피를 지금 마시고 있는지 물어봄으로써 현재 진행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 도입(2)는 시점을 넓혀서 요즘 수행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제시하는 방식이다. 도입(1)을 중심으로 진행의 의미를 먼저 제시하고 충분히 연습한 후에, 상황에 따라 도입(2)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고 있다'를 쓴다.

예) 찾- + -고 있다 → 찾고 있다　　먹- + -고 있다 → 먹고 있다
잡- + -고 있다 → 잡고 있다　　살- + -고 있다 → 살고 있다
가- + -고 있다 → 가고 있다　　흐르- + -고 있다 → 흐르고 있다

①	받침 o	+ -고 있다	찾고 있다, 먹고 있다, 잡고 있다, 살고 있다
	받침 ×	+ -고 있다	가고 있다, 흐르고 있다

[문장 구성 정보]

① 현재 진행의 의미를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 '지금'과 같은 부사가 함께 사용된다.

예) 가: 지갑을 찾았어요?
나: 아니요, 지금 **찾고 있어요.**

② 부정문은 '-고 있지 않다, 안 -고 있다'로 쓴다. '안 –고 있다'는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 지금 비가 **오고 없어요**. (x)
지금 비가 **오고 안 있어요**. (x)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아요**. (o)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어요**. (o)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o)

③ 문장의 주체를 높일 경우에는 '-고 계시다'로 쓴다.

예)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보고 있으세요**. (x)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보고 계세요**. (o)

④ 과거는 '-고 있었다'로 쓴다. '-고' 앞에 '-었-'을 붙이지 않는다.

예) 눈이 **내렸고 있어요**. (x)
눈이 **내렸고 있었어요**. (x)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o)

⑤ 추측은 '-고 있겠다'로 쓴다. '-고' 앞에 '-겠-'을 붙이지 않는다.

예) 강릉에 눈이 **내리겠고 있어요**. (x)
강릉에 눈이 **내리겠고 있겠어요**. (x)
강릉에 눈이 **내리고 있겠어요**. (o)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날씨가 **춥고 있습니다**. (x)
수지가 **예쁘고 있습니다**. (x)

+ 형용사 뒤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동사가 되면 '-고 있-'이 결합할 수 있다.

② '앉다'나 '서다'와 같이 행위가 시작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끝나는 동사와의 결합은 자연스럽지 않다.

예) 개가 **죽고 있다**. (x)
친구가 **졸업하고 있다**. (x)
영수가 소파에 **앉고 있다**. (??)
수지가 교실 앞에 **서고 있다**. (??)

+ 현재 진행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되기도 한다.

예) 열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o)
대통령께서 지금 **일어서고 계십니다**. (o)

+ 순간 동사의 행위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는 '-고 있다'와 결합이 가능하다.

예) 영수가 교실 앞에서 벌을 **서고 있어요**. (o)

예)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o)

[유사 문법]

① '-고 있다1)', '-는 중이다'

-고 있다1)	**-는 중이다**
·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 지금 친구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나 지금 드라마 안 보고 **공부하고 있어**. / 나 지금 드라마 안 보고 **공부하는 중이야**.	
· 그 순간에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예) 수지가 밥을 **먹고 있다**.	· 동작이 시작되어 끝나기 전까지의 사이, 어떤 일을 하는 동안의 시간적인 의미를 강하게 나타낸다. 예) 수지가 밥을 **먹는 중이다**.

② '-고 있다1)', 현재 시제

-고 있다1)	**현재 시제**
· '어떤 행위가 지금 행해짐'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다**. / 지금 밖에 비가 **온다**. 요즘 눈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 요즘 눈병이 **유행합니다**. 나 지금 드라마 안 보고 **공부하고 있어**. / 나 지금 드라마 안 보고 **공부해**.	
· 동사와만 결합한다. 예) 수지가 **예쁘고 있다**. (x)	· 용언 어간의 결합 제약이 없다. 예) 수지가 **예쁘다**. (o)
· '있다'에 '-겠-, -을 것이-, -었-' 등이 결합되어 미래 및 과거 진행으로 사용된다. 예) 영수는 내일 집에서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영수는 어제 집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 미래 및 과거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문법 형태가 따로 있으며, 진행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예) 영수는 내일 집에서 **공부할** 것이다. 영수는 어제 집에서 **공부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在', '正在'

예) 동생은 **자고 있어요**. - 弟弟在睡觉.
언니는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 姐姐在打电话.
철수 씨는 책을 **읽고 있어요**. - 哲洙**正在**看书.

반복적으로 지속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거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할 때에는 '在', '正在'가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 주말마다 친구와 같이 배드민턴을 **하고 있어요**. - 每个周末和朋友们打羽毛球.

② 용법과 오류

- '앉다', '서다'와 같이 순간적으로 끝나는 동사와는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在'는 순간 동사와도 결합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소파에 안고 있어요. (x)
그는 서고 있다. (x)

- 과거에 진행 중인 행위를 서술할 때 과거시제 '-었-'을 사용하여 '-고 있었다'로 쓰이지만, 중국어에서는 현재시제와 동일한 문장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어제 철수 집에 갔을 때 철수가 숙제를 하고 있어요. (x)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昨天我去哲洙家的时候, 他在做作业."에서는 현재진행을 나타내는 문장과 똑같이 쓰임)

-고 있다2): ('입다, 신다, 타다, 가지다, 알다, 좋아하다' 등의 동사에 붙어) 동작이 끝난 후에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인물이나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이 사진에서 누가 여자 친구예요? 나: 청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이요. 가: 누가 영수 씨의 동생이에요? 나: 저기 꽃을 **들고 있는** 아이예요. 가: 어디에 가서 밥을 먹을까요? 나: 제가 맛있는 식당을 **알고 있어요.** 가: 누가 수지 씨의 남자 친구예요? 나: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 추운데 왜 계속 코트를 **벗고 있어요**?

	나: 저는 춥지 않아요.
문장예문	· 줄리아 씨가 빨간 구두를 **신고 있어요.** · 수지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 아기가 모자를 **쓰고 있어요**. · 가방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이 미라 씨예요. · 제가 지갑을 **가지고 있었어요**. · 흐엉 씨가 결혼반지를 **끼고 있어요.** · 저는 1시간 전부터 차에 **타고 있었어요.** · 왜 계속 가방을 **매고 있어요**? · 옷을 어깨에 **걸치고 있는** 사람이 제 동생이에요. · 왕밍 씨를 **믿고 있습니다.**

+ '-고 있다2)'는 주로 '입다, 쓰다' 등의 착용 동사와 '알다, 믿다, 좋아하다' 등의 감정 및 인지를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하는데, 이때 '-고 있다1)'과의 의미 차이를 분명하게 알려 주는 게 필요하다. '-고 있다2)'는 '이 사진에서 누가 여자 친구예요?/ 청바지를 입고 있는 사람이요', '누가 영수 씨의 동생이에요?/ 저기 꽃을 들고 있는 아이예요.' 등과 같이 행위가 완료된 후 그 완료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도입]

(1)
교사: (자신의 옷을 가리키며) 선생님이 무엇을 입었어요?
학생: 코트를 입었어요.
교사: 네, 선생님이 코트를 입었어요. 코트를 **입고 있어요.**
(모자를 쓰며) 선생님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학생: 모자를 **쓰고 있어요**.
교사: 네, 지금은 선생님이 모자를 썼어요. 선생님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학생에게 모자를 씌운 후) 흐엉 씨도 모자를 썼어요. 흐엉 씨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2)
교사: 왕밍 씨는 넥타이를 매었어요, 안 매었어요?
학생: 넥타이를 매었어요.
교사: 네, 왕밍 씨는 넥타이를 **매고 있어요**. 구두는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학생: 구두를 신었어요.
교사: 네, 구두를 신었어요. 구두를 **신고 있어요**.

+ 도입(1)과 도입(2)는 착용 동사와 결합하는 '-고 있다2)'의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 교실 환

경을 활용한 것이다. 도입(1)은 행위가 끝나고 지속되는 상태라는 의미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언제 모자를 썼는지, 그 후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강조하여 제시하는 방식이다. 도입(2)에서는 학생들의 복장 상태를 가지고 다양하게 제시하는 방식이며, 상황에 따라 그림을 보여주는 것도 좋다.

+ '-고 있다1)'의 의미를 알고 있는 학습자에게는 동작의 진행과 완료된 상태의 진행 모두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모자를 쓰는 행위를 보여 주며) 모자를 쓰고 있어요. (모자를 쓴 후에) 모자를 쓰고 있어요.'라는 제시를 통해 '모자를 쓰고 있다'는 두 가지 의미 모두 가능함을 알려주고, 그 구별은 상황에 따라 가능함도 알려준다.

[형태 정보]

앞의 '-고 있다1)'를 참고하되, 일부 동사와만 결합하므로 이에 주의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착용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와 감정 및 인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타동사와 결합한다.

예) 동생이 시계를 **차고 있어요**.
동생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 착용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는 '(반지를) 끼다, (가방을) 들다, (넥타이/스카프를) 매다, (신을) 신다, (모자를) 쓰다, (옷을) 입다, (시계를) 차다, (목걸이를) 하다, (꽃을) 들다, (차에) 타다, 가지다' 등이 있다.
+ 감정 및 인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타동사로는 '사랑하다, 좋아하다, 알다, 믿다, 모르다, 기억하다, 느끼다' 등이 있다.

② 부정문은 '-고 있지 않다, 안 -고 있다'로 쓴다. '안 –고 있다'는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 모자를 **쓰고 없어요**. (x)
모자를 **쓰고 안 있어요**. (x)
모자를 **쓰고 있지 않아요**. (o)
모자를 **안 쓰고 있어요**. (o)

③ 높임은 '-고 계시다'로 쓴다.

예) 교수님께서 안경을 **쓰고 있으세요**. (x)
교수님께서 안경을 **쓰고 계세요**. (o)

④ 과거는 '-고 있었다'로 쓴다. '-고' 앞에 '-었-'을 붙이지 않는다.

예) 앤디 씨가 합격했다는 것을 **알았고 있어요**. (x)
앤디 씨가 합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o)

[제약 정보]

① 형용사나 순간 동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김치가 **맛있고 있습니다**. (x)
영수가 영화관 앞에 **서고 있어요**. (x)

+ 순간 동사가 상태 지속의 의미를 가지려면 '-어 있다'를 결합하면 된다.

예) 영수가 영화관 앞에 **서 있어요**. (o)

[확장]

① 지속의 의미를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 '계속'과 같은 부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 가: 신발을 벗었어요?
나: 아니요, 계속 **신고 있어요**.

② '-고 있다2)'와 착용 의미의 동사가 결합했을 때 상황에 따라 '-고 있다1)'로도 해석된다. 이때 '-고 있다2)'는 '-었-'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예) 수지 씨는 빨간 색 옷을 **입고 있어요**.
(수지 씨는 지금 빨간 색 옷을 입는 중이에요.): '-고 있다1)'
(빨간 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수미 씨예요.): '-고 있다2)' → 수지 씨는 지금 빨간 색 옷을 입었어요.

[유사 문법]

① '-고 있다2)', '-어 있다'

-고 있다2)	**-어 있다**
· 결과 상태의 지속을 의미한다.	
· 타동사와만 결합한다. 예) 양말을 **신고 있어요**. (o) 집에 **가고 있어요.** (x) ('-고 있다1)'의 의미일 때는 맞음)	· 자동사와만 결합한다. 예) 집에 **가 있어요**. (o) 한국노래를 **좋아해 있어요.** (x)
· 착용동사의 결과 상태 지속을 나타낸다. 예) 신문을 **읽고 있어요**. (x) ('-고 있다1)'의 의미임) 코트를 **입고 있는** 사람이 제 언니예요. (o)	· 착용동사 이외의 타동사로 결과 상태의 지속을 의미할 때는 과거로 나타낸다. 예) 밥을 다 **먹어 있어요**. (x) 밥을 다 **먹었어요.** (o)

+ '-고 있다2)'와 '-어 있다'의 의미는 동일하지만 결합하는 동사가 다르다. '-고 있다2)'와 결합하는 동사는 '-어 있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② '-고 있다2)', 현재 시제

-고 있다2)	**현재 시제**

· 감정 및 인지 동사와 결합하여 '어떤 행위가 현재 지속되는 상태임'을 나타낸다.

· 현재 시제보다 현재의 상태를 강조한다. 예) 가: 아직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 가: 아직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 확실하게 **기억해요**.
· 현재는 그러하나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어, 자신의 감정이나 인지를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한다. 예) 가: 왕밍 씨가 말하기 대회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나: 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가: 왕밍 씨가 말하기 대회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나: 네, 그렇게 **믿어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着'

예) 까만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제 친구예요. - 带**着**黑色帽子的人是我的朋友.
빨간색 가방을 **메고 있어요.** - 背**着**红色的包.
저기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 那边带**着**眼睛的人就是.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 还记**着**那件事啊?

② 용법과 오류

- 한국어에서는 동작이 끝난 후에 지속되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 과거 시제 '-었-'을 사용하여 '-고 있었다'로 쓰지만, 중국어에서는 현재나 과거가 동일한 문장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어제 영희를 만났을 때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x)
(중국어에서는 "穿着白色连衣裙."으로 현재 시제와 동일한 문장으로 표현)

3.6.4. '-기 때문에'

-기 때문에{N 때문에/-기 때문이다}[표현]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

-기 때문에: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 에 붙어) 앞 절이 뒤 절의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가: 왜 떡볶이를 못 먹어요? 나: 매운 걸 잘 못 **먹기 때문에** 떡볶이를 못 먹어요. 가: 왜 주말에 영화 보러 갈 수 없어요? 나: 숙제가 **많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가: 서울역까지 버스를 타고 갈까요? 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야 해요. 가: 미도리 씨는 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나: **조용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가: 왕밍 씨, 왜 오늘 학교에 안 갔어요? 나: **방학이기 때문에** 요즘 학교에 안 가요.
문장예문	· 수지는 중국 친구와 같이 **살기 때문에** 중국을 잘 알아요. · 저는 시장이 백화점보다 물건이 **싸기 때문에** 시장에 자주 가요. ·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 영수 씨는 **영어 교사(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요. · 밖이 **시끄럽기 때문에** 창문을 닫았어요. · 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어요. · 저는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해요. · 한국 가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어도 좋아하게 됐어요. · 이 식당은 비싸지만 **맛있기 때문에** 손님이 많아요. · 매일 늦게 **자기 때문에** 항상 피곤합니다.

+ '-기 때문에'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므로 결과나 이유에 대한 질문과 대답에 사용된다. '왜 학교에 안 갔어요?/ 방학이기 때문에 요즘 학교에 안 가요', '왜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갈 수 없어요?/ 숙제가 많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서울역까지 버스를 타고 갈까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야 해요.'와 같이 질문에 대한 이유를 보다 정확하게 밝혀 쓸 경우에 자연스럽다.

[도입]

(1)
교사: 어디에서 옷을 사요?
학생: 명동에서 옷을 사요.
교사: 왜 명동에서 옷을 사요?
학생: 싸요.
교사: 왕밍 씨는 **싸기 때문에** 명동에서 옷을 사요.

(2)
(추운 날씨를 나타내는 그림과 감기에 걸린 그림을 보여 주며)
교사: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학생: 감기에 걸렸어요.
교사: 날씨가 **춥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어요.
(더운 날씨를 나타내는 그림과 에어컨이 켜 있는 그림을 보여 주며)
교사: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학생: 에어컨을 켰어요.
교사: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켰어요.

+ 도입(1)은 학생이 실제로 이유를 생각해낼 수 있는 내용을 소재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가격이 싼 것뿐만 아니라, 종류가 많거나, 디자인이 예쁘거나 교통이 편리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교사는 미리 준비하여 학생들이 생각해내지 못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 도입(2)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을 두 장 준비하여 차례로 보여 주며 목표 문법을 제시하여 의미를 인식하게 하는 방식이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기 때문에'를 붙여 쓴다.

예) 찾- + -기 때문에 → 찾기 때문에　　살- + -기 때문에 → 살기 때문에
좋- + -기 때문에 → 좋기 때문에　　작- + -기 때문에 → 작기 때문에
사- + -기 때문에 → 사기 때문에　　공부하- + -기 때문에 → 공부하기 때문에
예쁘- + -기 때문에 → 예쁘기 때문에　　착하- + -기 때문에 → 착하기 때문에

①	받침 o	+ -기 때문에	찾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받침 ×	+ -기 때문에	사기 때문에, 공부하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② '이다, 아니다'도 '-기 때문에'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

기 때문에' 라고 쓴다.

예) 학생이- + -기 때문에 → 학생이기 때문에
선물이- + -기 때문에 →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 -기 때문에 →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이- + -기 때문에 → 의사이기 때문에/의사기 때문에
휴가이- + -기 때문에 → 휴가이기 때문에/휴가기 때문에
아니- + -기 때문에 → 아니기 때문에

[문장 구성 정보]

①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예) (내가) 12시까지 텔레비전을 **봤기 때문에** (내가) 늦잠을 잤어요.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내가) 산책을 할 수 없어요.
철수가 방학 때 중국에 **가기 때문에** 영희는 철수를 만날 수 없어요.

+ 첫 예문의 앞 절과 뒤 절의 주어는 화자이고, 동일하다. 이때, 주어는 구어에서는 주로 생략된다. 두 번째 예문은 앞 절은 '비' 뒤 절은 '나', 즉 화자가 주어인 예이다. 이 또한 구어에서 화자가 주어인 경우 생략이 가능하다. 세 번째 예문은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른 예이다. 이처럼 '-기 때문에'로 연결되는 두 문장의 주어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② 앞 절과 뒤 절의 시제가 같거나 달라도 된다.

예) 요즘 약을 **먹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요즘 약을 **먹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 않았어요.
요즘 약을 **먹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 않을 거예요.
약을 **먹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약을 **먹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 않았어요.
약을 **먹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 않을 거예요.

[제약 정보]

① 과거는 '-었기 때문에'로 쓴다.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밥을 다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요. (o)
밥을 다 **먹겠기 때문에** 배가 부를 거예요. (x)

②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자/먹읍시다/먹을래요?/먹을까요?/먹는 건 어때요? (x)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어라/먹어/먹어요. (x)

[확장]

① 'N 때문에'의 구성으로 쓰기도 한다. 'N'만으로 이유나 원인을 추측할 수 있을 때 사용한다.

예) 저는 **부모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기 때문에/효도하기 위해)
비 때문에 길이 막힌다. (비가 오기 때문에/비가 와서 앞이 잘 안 보여서...)
너 때문에 오늘 학교는 못 가겠다.

+ 'N+(이)기 때문에'는 '( )이 N+이다'라는 문장에 '-기 때문에'가 결합한 것이므로 위의 문장을 아래의 문장으로 대체할 수 없다.

예) 저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요. (x)
비이기 때문에 길이 막힌다. (x)
너이기 때문에 오늘 학교는 못 가겠다. (x)

+ 'N+(이)기 때문에'의 구성으로 쓸 수 있는 문장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예) 저는 **아빠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나는 아빠이므로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주어와 N이 같음)
저는 **아빠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아빠에게 효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주어와 N이 같지 않음)

② '-기 때문이다'의 구성으로 쓰기도 한다. 문어에서는 주로 '왜냐하면'과 결합하여 사용한다.

예) 가: 왜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나: 한국 가수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 '-기 때문이다'를 사용하면 이유가 뒤 절에 온다.

예)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 제가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이유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③ '-어서'에 비해 이유를 더 분명하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

예)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웁니다.

[유사 문법]

① '-기 때문에', '-어서', '-으니까'

-기 때문에	**-어서**	**-으니까**
·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과거 '-었-'과 결합한다. 예) 비가 **왔기 때문에** 여행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 과거 '-었-'과 결합한다. 예) 비가 **왔으니까** 여행을

을 취소했다. (o)	예) 비가 **왔어서** 여행을 취소했다. (x)	취소했다. (o)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비가 **오기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자. (x)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비가 **와서** 여행을 취소하자. (x)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있다. 예) 비가 **오니까** 여행을 취소하자. (o)

+ '만나서 반갑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등과 같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인사말에 '-니까'나 '-기 때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반갑다,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등과 함께 자주 쓰이는 인사말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기 때문에'가 쓰이기 어렵고, '-어서'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접속사 '因为……所以……', '由于……所以……'

예) 이곳은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 **因为**这里景色很美丽, **所以**游客很多.
나무가 **많기 때문에**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 **由于**树多, **所以**空气很好.

② 용법과 오류

-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기 때문에'는 명령문이나 청유문, '-(으)ㄹ까요?'와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 '因为……所以……', '由于……所以……'는 이런 제약이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길이 막히기 때문에 일찍 떠나세요. (x)
날씨가 춥기 때문에 옷을 많이 입어라. (x)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저녁 먹을까? (x)

- 현재 또는 미래 사실에 대해 기술할 때에는 용언 어간에 '-기'가 결합되지만 과거의 원인을 기술할 때에는 '-기' 앞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과거 사실을 기술할 때에도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了'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예) 어제 저녁에 떠나기 때문에 지금쯤 이미 도착했을 거예요. (x)
아침에 차가 고장 나기 때문에 또 지각했습니다. (x)
오늘 아침을 많이 먹기 때문에 2시가 되었는데도 배가 안 고프다. (x)

3.6.5. -기 전에

-기 전에{-기 전/N 전에}[표현]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보다 **시간상 나중임**을 나타내는 표현.

-기 전에: (동사에 붙어) 뒤의 행위가 앞의 행위보다 먼저 일어남을 나타낸다. 일의 순서를 말할 때 주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언제 한국어를 배웠어요? 나: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웠어요. 가: 언제 저녁을 먹어요? 나: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먹어요. 가: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나: 운전은 할 줄 알아요? 가: 아니요. 나: 자동차를 **사기 전에** 먼저 운전을 배우세요. 가: 이 약을 언제 먹어요? 나: **자기 전에** 드세요. 가: 언제 도서관에 왔어요? 나: 도서관 문을 **열기**도 **전에** 왔어요.
문장예문	·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 비가 **오기 전에** 시장에 갔다 올게요. ·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에** 팝콘을 샀어요. · 철수 씨를 **알기 전에** 영수 씨를 먼저 알았어요. · 휴가를 **가기 전에** 일을 다 끝냈습니다. ·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세요. · 줄리아 씨를 **만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 은행 문을 **닫기 전에** 빨리 가세요. · 버스를 **타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 소설을 **읽기 전에** 작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 '-기 전에'는 일의 순서를 나타내므로 '언제'와 관련된 질문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언제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배웠어요.', '언제 저녁을 먹어요?/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먹어요.', '이 약을 언제 먹어요?/ 자기 전에 드세요.'와 같이 '-기 전에'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자주 사용된다. '도서관 문을 열기도 전에 왔어요.'에서 '도'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도입]

(1)
교사: 왕밍 씨, 아침에 무엇을 해요?
학생: 세수를 해요.
교사: 세수를 하고 무엇을 해요?
학생: 밥을 먹어요.
교사: 왕밍 씨는 세수를 하고 밥을 먹어요. 왕밍 씨는 밥을 **먹기 전에** 세수를 해요.

(2)
교사: 아침에 밥을 먹고 세수를 해요, 세수를 하고 밥을 먹어요?
학생1(왕밍): 저는 밥을 먹고 세수를 해요.
학생2(흐엉): 저는 세수를 하고 밥을 먹어요.
교사: 왕밍 씨는 **세수하기 전에** 밥을 먹어요. 흐엉 씨는 밥을 **먹기 전에** 세수를 해요.

+ 도입(1)과 도입(2)는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도입(1)은 학생 개인이 순차적으로 하는 일의 순서를 이야기하게 하여 '-기 전에'의 의미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도입(2)는 일의 순서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끼리 각자가 수행하는 일의 순서가 다름을 인식하게 하여 '-기 전에'의 의미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도입(1)을 제시하고 자연스럽게 도입(2)로 확장해 나가는 게 좋다.
+ 도입(2)를 제시할 때는 밥을 먹는 그림과 세수하는 그림을 보여 주는 것이 좋다. 학생들 각자의 방식에 따라 그림 나열 순서를 바꾸어 제시하면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서 일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 쉽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기 전에'를 붙여 쓴다.

예) 찾- + -기 전에 → 찾기 전에　　읽- + -기 전에 → 읽기 전에
살- + -기 전에 → 살기 전에　　가- + -기 전에 → 가기 전에
사- + -기 전에 → 사기 전에　　공부하- + -기 전에 → 공부하기 전에

①	받침 o	+ -기 전에	찾기 전에, 읽기 전에, 살기 전에
	받침 ×	+ -기 전에	가기 전에, 사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제약 정보]

①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잠을 **잤기 전에** 세수를 했어요. (x)
잠을 **자겠기 전에** 세수를 할 거예요. (x)
잠을 **자기 전에** 세수를 했어요. (o)
잠을 **자기 전에** 세수를 할 거예요. (o)

[확장]
① '에'를 생략하여 '-기 전'으로 쓰기도 한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 **출근하기 전** 신문을 봐요.
잠 **자기 전** 음악을 들어요.
밥 **먹기 전** 물을 마셔요.
학교에 **가기 전** 운동을 해요.

② 'N 전에'의 구성으로 쓰기도 한다.

예)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
출발 전에 전화 주세요.
9시 전에 학교에 도착해야 한다.

+ 이때 명사는 시간을 나타내거나 행위와 관련된 의미, 즉 서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

비서술성N 전에 (x)	어머니는 밥 **전에** 텔레비전을 봐요. (x) 남자친구는 학교 **전에** 아르바이트를 갑니다. (x) 저 사람은 가수 **전에** 선생님이었어요. (o)
서술성N 전에 (o)	어머니는 식사 **전에** 텔레비전을 봐요. (o) 형은 시험 합격 **전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o) 남자친구는 수업 **전에** 아르바이트를 갑니다. (o)

+ 비서술성 명사 뒤에 '전에'를 사용하려면 다음 예처럼 비서술성 명사에 어울리는 동사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서술성 명사는 이미 서술적 의미가 들어가 있으므로 '-기 전에'로 표현하려면 서술성 명사에 '-하다'를 붙여 사용하면 된다.

예)

동사 + -기 전에	어머니는 밥을 먹기 **전에** 텔레비전을 봐요. (o) 남자친구는 학교에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갑니다. (o) 저 사람은 가수가 되기 **전에** 선생님이었어요. (o) 어머니는 식사하기 **전에** 텔레비전을 봐요. (o) 형은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o) 남자친구는 수업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갑니다. (o)

③ '-기'에 강조의 보조사 '도'가 붙어 '-기도 전에'로 쓰기도 한다.

예) 시험을 **보기도 전에** 포기하면 안 돼요. (o)

+ '-기' 뒤에 다른 조사는 붙지 않는다.

④ '-기 전(에)'의 반의 표현으로 '-은 후(에)'가 있다.

예)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도착했다.
영화가 **시작한 후에** 도착했다.
친구와 **만나기 전에** 쇼핑을 했다.
친구와 **만난 후에** 쇼핑을 했다.

[유사 문법]

① '-기 전에', '-기에 앞서'

-기 전에	**-기에 앞서**
· '앞의 행위보다 뒤의 행위가 먼저 일어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주 쓰인다. 예) 밥 **먹기 전에** 마트에 다녀오자.	·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로 쓰인다. 예)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총장님의 축하 인사를 듣겠습니다.

+ '-기에 앞서'는 격식적인 표현으로 '밥 먹기에 앞서 마트에 다녀오자'처럼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면 아주 어색하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在).....之前'

예) 비가 **오기 전에** 떠나세요. - 下雨**之前**出发吧.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해요. - 吃饭**之前**要洗手.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1년 동안 배웠어요. - 来韩国**之前**学了一年韩国语.
자기 전에 책을 읽어요. - 睡**前**看书.

② 용법과 오류

- '-기 전에'는 '-었-'과 결합하지 않지만 학습자들이 과거 사실을 기술할 때 '-었기 전에'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어제 잤기 전에 책을 읽었어요. (x)
밥을 먹었기 전에 약을 먹었다. (x)

3.6.6. -기로 하다

-기로 하다[표현] 계획하거나 **결정**함을 나타내는 표현.

-기로 하다: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에 대하여 그렇게 할 것을 계획하거나 결정함을 나타낸다. 상대에게 제안하거나 약속을 할 때 또는 자신의 결심이나 결정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누가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나: 줄리아 씨가 스파게티를 **만들기로 했어요**. 가: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나: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가: 어디에서 만날까요? 나: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해요.** 가: 왕밍 씨, 같이 산책할래요? 나: 좋아요. 한강까지 **걷기로 해요.** 가: 버스를 탈까요, 택시를 탈까요? 나: 시간이 없으니까 택시를 **타기로 해요.**
문장예문	· 오늘 저녁에는 라면을 **먹기로 해요.** · 친구와 함께 교실을 **청소하기로 했어요.** · 지하철이 빠르니까 지하철을 **타기로 해요.** · 한국어 공부를 위해 한국 노래만 **듣기로 했어요.** · 우리는 가을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 시험이 끝나면 여자 친구와 **놀기로 했어요**. ·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기로 하자**. · 내일 6시에 **보기로 할까요**? · 등산을 갈 때에는 운동화를 **신기로 해요**. · 수지 씨에게서 사전을 **빌리기로 했어요**.

+ '-기로 하다'는 앞으로 할 일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상황에 따라 제안이나 약속, 결심이나 결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먹기로 해요, 타기로 해요'는 '먹어요, 타요'처럼 '-기로 하다'를 사용하지 않아도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청소하기로 했어요, 듣기

로 했어요'는 '청소했어요, 들었어요'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데 이는 '-기로 하다'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기로 하다'는 발화 현장에서의 계획이나 결정을, '-기로 했다'는 이미 한 계획이나 결정을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수지 씨, 내일 비빔밥을 먹기로 해요'는 제안이나 약속을 나타내고, '수지 씨, 내일 비빔밥을 먹기로 했어요'는 결심이나 결정을 나타낸다.

[도입]

(1)
교사: 어떤 악기를 배우고 싶어요?
학생1: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학생2: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교사: 선생님은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방학 때 기타를 배울 거예요. 방학 때 기타를 **배우기로 했어요.**

(2)
교사: 주말에 뭐 할 거예요?
학생: 영화를 볼 거예요.
교사: 선생님도 영화를 보고 싶어요. 같이 영화를 볼래요?
학생: 네, 같이 영화를 봐요.
교사: 그럼, 같이 영화를 봐요. 약속해요. 같이 영화를 **보기로 해요**.

+ 도입(1)은 자신이 결정하거나 결심하는 상황을 설정하였고, 도입(2)는 다른 사람과 어떤 내용에 대해 제안하고 약속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기로 하다'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도입(1)에서 보듯 미래에 행할 일이라도 결정한 일에는 '-기로 했다'처럼 과거형을 사용함에 주의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와 관계없이 '-기로 하다'를 쓴다.

예) 먹- + -기로 하다 → 먹기로 하다　　만들- + -기로 하다 → 만들기로 하다
앉- + -기로 하다 → 앉기로 하다　　가- + -기로 하다 → 가기로 하다
자- + -기로 하다 → 자기로 하다　　공부하- + -기로 하다 → 공부하기로 하다

①	받침 o	+ -기로 하다	먹기로 하다, 만들기로 하다, 앉기로 하다
	받침 ×	+ -기로 하다	가기로 하다, 자기로 하다, 공부하기로 하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이미 결정하여 결심한 의미로 사용될 때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과거형으로 쓴다.

예)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기로 <u>했어요</u>**. (o)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기로 해요**. (x)

치앙 씨와 다음 시험은 잘 **보기로 <u>했어요</u>**. (o)
치앙 씨와 다음 시험은 잘 **보기로 해요**. (x)

② 부정문은 '-지 않기로 하다', '안 -기로 하다'로 쓴다. '안 -기로 하다'는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 왕밍 씨와 주말에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왕밍 씨와 주말에 **안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 드라마를 **보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드라마를 **안 보기로 했어요**.

+ '-기로 하지 않다', '-기로 안 하다'는 '하다'를 부정하여 결정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에 가깝다. 이에 비해 위의 표현은 결정하거나 약속하는 내용에 대한 부정의 의미이다.

예) 왕밍 씨와 주말에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안 만나기로 했어요.
(왕밍 씨와 주말에 만나지 말자는 내용의 약속을 했어요.)
왕밍 씨와 주말에 **만나기로 하지 않았어요**./만나기로 안했어요.
(왕밍 씨와 주말에 만나자는 내용의 약속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제약 정보]
① 과거는 '-기로 했다'로 쓴다. '-기' 앞에 '-었-'을 붙이지 않는다.

예) 운동을 열심히 하기로 했다. (o)
운동을 열심히 했기로 했다. (x)
수지와 결혼하기로 했다. (o)
수지와 결혼했기로 했다. (x)

②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이제 돈이 없기로 해요. (x)
후식까지 다 먹었으니 배가 부르기로 해요. (x)
어떤 상황에서도 용감하기로 해요. (x)
내년부터는 바쁘기로 해요. (x)

+ '용감하기로 해요, 바쁘기로 해요'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 '용감하다, 바쁘다'의 의미는 상태성이 아니라 동작성의 의미로 해석되며, '용감해지기로 해요', '바빠지기로 해요'라고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决定', '约好', '打算'

예)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기로 하자**. - **决定**明天开始早起.
오늘 저녁에는 라면을 **먹기로 했어요**. - 今天晚上**决定**吃方便面了.

저녁 7시에 영화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 **约好**晚上7点在电影院见.
매일 아침 운동을 **하기로 했다**. - **打算**每天早晨运动.

② 용법과 오류

- 이미 결정하여 결심한 의미로 사용될 때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주로 과거형으로 쓰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언어 습관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기로 해요. (x)
저녁 6시에 친구와 만나기로 해요. (x)

3.6.7. -는 것

-는 것[표현]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여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표현.

-는 것: (동사나 '있다, 없다, 계시다'에 붙어) 어떤 행위나 사실을 나타내거나 행위와 관련된 사물을 가리킨다. 결합하는 말이 문장 내에서 명사로 기능하게 하여 주어나 목적어 및 서술어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어떤 운동을 좋아해요? 나: 저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해요. 가: 수지 씨, 지금 **읽는 것**이 소설책이에요? 나: 아니요, 만화책이에요. 가: 어느 가방이 미도리 씨 가방이에요? 나: 의자 위에 **있는 것**이 제 가방이에요. 가: 미셸 씨도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해요? 나: 네, 좋아해요. 가: 한국에서 뭐가 힘들어요? 나: 고향 음식을 못 **먹는 것**이요.
문장예문	· 집에 오면 손을 먼저 **씻는 것**이 중요해요. · 저는 스파게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 수지 씨의 꿈은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 저는 잘 때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아요. · 제 목표는 이 회사에 **다니는 것**이에요. · 추우니까 코트를 **입는 것**이 어때요? · 저는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해요. ·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는 것**이 좋겠어요. · 오늘은 흐엉 씨가 **좋아하는 것**을 먹을까요? ·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 자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 '-는 것'은 동사에 붙어 명사로 기능하게 하는 표현으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지금 읽는 것이 소설책이에요?/ 의자 위에 있는 것이 제 가방이에요.'에서는 주어의 역할을 하며, '미셸 씨도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

아해요.'에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수지 씨의 꿈은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제 목표는 이 회사에 다니는 것이에요.'에서는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 '-는 것'의 '것'은 행위나 사실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으며, 행위와 관련된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다. '고향 음식을 못 먹는 것이요./ 저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해요./ 수지 씨의 꿈은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는 것이 좋겠어요.' 등에서 '것'은 행위나 사실 자체를 가리키는 데 비해 '지금 읽는 것이 소설책이에요?/ 지금 마시는 것이 뭐예요?/ 의자 위에 있는 것이 제 가방이에요.' 등에서 '것'은 행위와 관련된 사물을 가리킨다.

[도입]

(1)
교사: 왕밍 씨, 취미가 뭐예요?
학생: 저는 요리가 취미예요.
교사: 왕밍 씨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취미예요. 흐엉 씨는 취미가 뭐예요?
학생: 저는 등산이 취미예요.
교사: 흐엉 씨는 **등산하는 것**이 취미예요.

(2)
교사: 주말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늦게 왔어요. 선생님이 기다렸어요. 저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해요. 줄리아 씨는 뭘 싫어해요?
학생: 집에 늦게 가요. 싫어요.
교사: 줄리아 씨는 집에 늦게 **가는 것**을 싫어해요. 미도리 씨는요?
학생: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요. 싫어요.
교사: 미도리 씨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것**을 싫어해요.

(3)
교사: 제가 지금 무엇을 마셔요?
학생: 커피요.
교사: 제가 지금 마셔요. 커피예요. 제가 지금 **마시는 것**이 커피예요. 제가 지금 무엇을 읽어요?
학생: 책이요.
교사: 제가 지금 **읽는 것**이 책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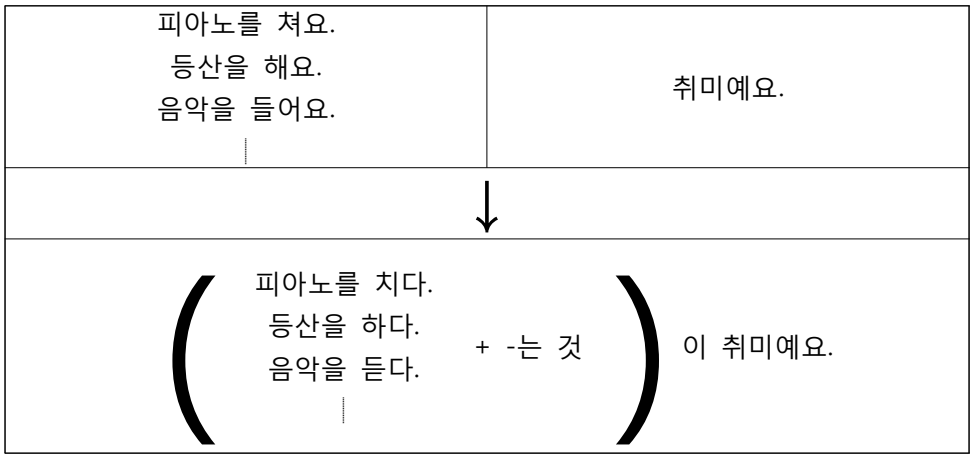
+ 도입(1)은 '-는 것'을 주어로 사용하는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미 활동을 묻고 '-는 것이 취미예요'라는 문장으로 주어의 자리에 오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 주는 기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입(2)는 '-는 것'을 목적어로 사용하는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는 것을 싫어하다'라는 문장으로 목적어의 자리에 오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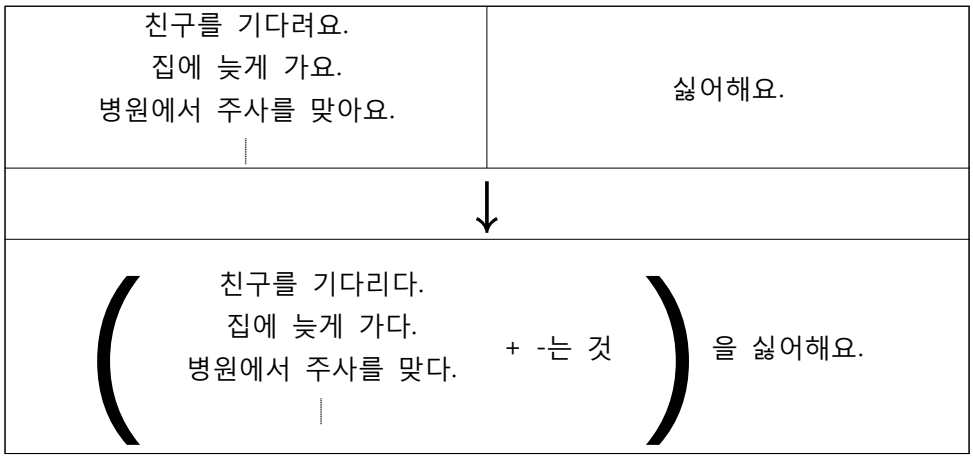
주는 기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게 좋다. 도입(3)은 '-는 것'의 '것'이 행위나 사실 자체가 아닌 행위와 관련된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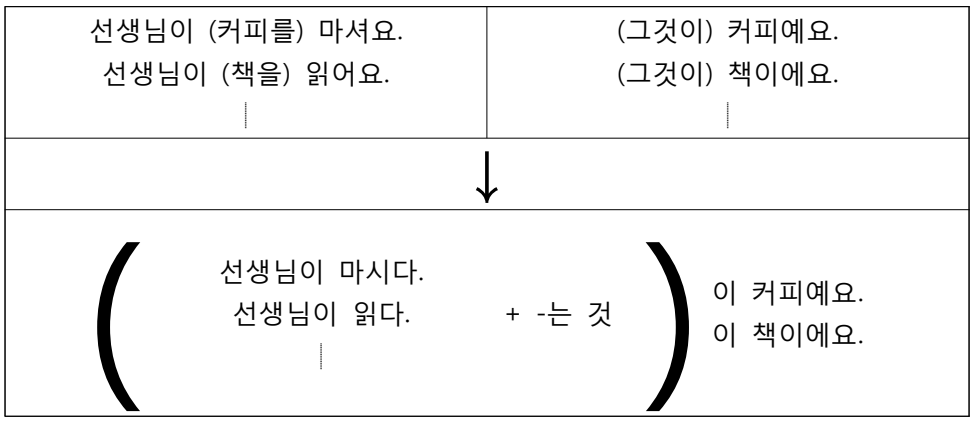
+ '-는 것'을 제시할 때 동사를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도입(2)를 제시할 때에는 상황을 잘 나타내는 그림을 함께 제시하여 명사나 형용사로 대답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원래 명사의 자리에 문장이 온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예)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는 것'을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씻- + -는 것 → 씻는 것　　읽- + -는 것 → 읽는 것
먹- + -는 것 → 먹는 것　　보- + -는 것 → 보는 것
가- + -는 것 → 가는 것　　사- + -는 것 → 사는 것
살- + -는 것 → 사는 것　　놀- + -는 것 → 노는 것
만들- + -는 것 → 만드는 것

①	받침 ㅇ	+ -는 것	씻는 것, 읽는 것, 먹는 것
	받침 ×	+ -는 것	가는 것, 보는 것, 사는 것
	ㄹ 받침	+ -는 것(어간 'ㄹ' 탈락)	사는 것, 노는 것, 만드는 것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지 않는 것', '안 -는 것'으로 쓴다. '안 -는 것'은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잘못이다.
음악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음악은 제가 **안 좋아하는 것**이에요.

② 높임은 '-시는 것'으로 쓴다.

예) 할머니께서 신문을 **읽으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사장님께서는 **운동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저는 방이 **넓는 것**을 좋아해요. (x)
너무 **편하는 것**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x)

② '-는 것'의 '-는'이 현재를 나타내므로, 과거나 미래를 나타내는 '-었-',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비가 많이 와서 우비를 **입었는 것**이 기억나요. (x)
눈이 내려서 모자를 **썼는 것**이 생각나요. (x)
비가 올 때 새 우산을 **쓰겠는 것**이 기대돼요. (x)
눈이 내릴 때 같이 길을 **걷겠는 것**을 약속해요. (x)

[확장]

① '-는 것'은 현재의 행위, '-은 것/-ㄴ 것'은 과거의 행위 및 현재의 상태, '-을 것2/-ㄹ 것2'는 미래의 행위나 상태 및 사실을 나타낸다.

결합어의 품사	시제 및 형태		예문
동사	현재	-는 것	지금 **찾는 것**이 지갑이에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요.
	과거	-은 것 -ㄴ 것	지갑을 **찾은 것**을 기억해요. 한국어를 **공부한 것**이 도움이 돼요.
	미래	-을 것2 -ㄹ 것2	반드시 지갑을 **찾을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공부할 것**이 기대돼요.
형용사	현재	-은 것 -ㄴ 것	저는 날씨가 **맑은 것**을 좋아해요. 수지 씨는 날씨가 **흐린 것**을 좋아해요.
	미래	-을 것2 -ㄹ 것2	수지 씨는 날씨가 **맑을 것**을 기대한다. 내일 날씨가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었던 것', '-던 것'으로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동사 및 형용사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형용사의 과거에는 '-은'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형용사의 과거는 '-었던 것', '-던 것'으로 쓴다.

예) 입- + -었던 것/-던 것 → 입었던 것/입던 것
잡- + -았던 것/-던 것 → 잡았던 것/잡던 것
재미있- + -었던 것/-던 것 → 재미있었던 것/재미있던 것
나쁘- + -았던 것/-던 것 → 나빴던 것/나쁘던 것

+ 'N+이다' 서술어는 'N+인 것'의 구성으로 쓸 수 있다.

예) 교사 + -인 것 → 교사인 것
학생 + -인 것 → 학생인 것

② 의존명사 '것'은 문장 내의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하거나 행위나 상태 자체를 지시하기도 한다.

예) 줄리아 씨가 **읽는 것**은 신문이에요. (문장 내의 사물)
지금 **보는 것**이 그 영화예요. (문장 내의 사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 자체)

③ '-는 것이'를 줄여 '-는 게'로, '-는 것을'을 줄여 '-는 걸'로 쓰기도 한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 지금 저녁을 **먹는 게** 좋겠어요.
아사코 씨, 방학 때 여행을 **가는 게** 어때요?
의사가 **되는 걸** 목표로 정했어요.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는 것이다'는 '-는 것입니다', '-는 것이에요', '-는 것이다', '-는 것이야', '-는 것일까' 등 다양하게 활용하며 이는 각각 '-는 겁니다', '-는 거예요', '-는 거다', '-는 거야', '-는 걸까'로 줄여 쓴다.

[유사 문법]

① '-는 것/-은 것/-을 것2', '-기'

-는 것, -은 것, -을 것2	**-기**
· 동사, 형용사 또는 '이다', '아니다' 등에 붙어 그 말이 문장 내에서 명사 기능을 하게 한다.	
· 뒤에 나오는 서술어에 제약이 거의 없다. 예) 흐엉 씨가 **성실한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비가 올 때 **걷는 것**을 좋아한다.	· 뒤에 나오는 서술어에 제약이 있다. 예) 흐엉 씨가 **성실하기**를 알고 있다. (x) 나는 비가 올 때 **걷기**를 좋아한다. (o)
· 동사와 형용사, '이다', '아니다'의 관형사형의 시제에 따라 '-는 것', '-은 것', '-을 것'이 나뉘어 쓰인다. 예) 그가 **가는 것**이 보인다. (동사 현재) 순희가 **예쁜 것**이 확실하다. (형용사 현재) 그 도둑이 **잡힌 것**을 나중에 들었다. (동사 과거) 영희가 **학생인 것**이 맞니? ('이다' 현재) 그가 **갈 것**이 예정되어 있다. (동사 미래)	· 동사와 형용사, '이다', '아니다' 모두에 '-기'가 붙는다. 예) 그는 아침에 **조깅하기**를 좋아한다. 영희가 **예쁘기**는 예쁘지?

② '-는 것/-은 것/-을 것2', '-음'

-는 것, -은 것, -을 것2	**-음**
동사, 형용사 또는 '이다', '아니다' 등에 붙어 그 말이 문장 내에서 명사 기능을 하게 한다.	
· 뒤에 나오는 서술어에 제약이 거의 없다. 예) 흐엉 씨가 **성실한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비가 올 때 **걷는 것**을 좋아한다.	· 뒤에 나오는 서술어에 제약이 있다. 예) 흐엉 씨가 **성실함**을 알고 있다. (o) 나는 비가 올 때 **걸음**을 좋아한다. (x)
· 동사와 형용사, '이다', '아니다'의 관형사형의 시제에 따라 '-는 것', '-은 것', '-을 것'이 나뉘어 쓰인다. 예) 그가 **가는 것**이 보인다. (동사 현재) 순희가 **예쁜 것**이 확실하다. (형용사 현재) 그 도둑이 **잡힌 것**을 나중에 들었다.	· 동사와 형용사, '이다', '아니다' 모두에 '-음'이 붙는다. 과거는 '-었음'으로 나타낸다. 예) 그가 일을 그렇게 **처리함**은 현명하다. 그가 가장 **어리석었음**이 드러났다.

(동사 과거) 영희가 **학생인 것**이 맞니? ('이다' 현재) 그가 **갈 것**이 예정되어 있다. (동사 미래)	
· 미래 표현 '-을 것'은 종결형에서뿐 아니라 문장 속에 안겨서도 쓸 수 있다. 예) 그가 **갈 것**. (o) 그가 **갈 것**이 예정되어 있다. (o)	· 미래 표현 '-겠음'은 종결형으로만 쓰이고 문장 속에 안겨 쓰이지 않는다. 예) 내가 **가겠음**. (o) 그가 **가겠음**이 예정되어 있다. (x)
· 문어와 구어에 관계없이 쓰인다. 예) 그는 밤새 친구가 **왔다간 것**을 알았다. (o) / 밤새 친구가 **왔다간 거** 알았어? (o) 나는 피로로 온몸이 **무거워진 것**을 느꼈다. (o) / 가방이 **무거워진 거** 느꼈어? (o)	· 문어에서 주로 사용한다. 예) 그는 밤새 친구가 **왔다갔음**을 알았다. (o) / 밤새 친구가 **왔다갔음**을 알았어? (?) 나는 피로로 온몸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o) / 가방이 **무거워짐**을 느꼈니? (?)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 (o)

[중국인 학습자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 我喜欢看电影.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 早睡早起对健康好.
오늘 저녁에는 마이클 씨가 **좋아하는 것**을 먹읍시다.
- 今天晚上吃迈克喜欢吃的料理吧.
길이 많이 막히니까 지하철을 **타는 것**이 어때요? - 堵车厉害, 我们坐地铁吧.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의 동사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ㄴ 것'을 써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동사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영희는 음식 만들는 것을 좋아한다. (x)
저는 아이가 울는 것을 싫어해요. (x)

- '-는 것'과 '-은 것'이 중국어 표현에서는 구별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은 것'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는 것'을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저 영화가 지난주에 보는 거예요. (x)
이 사진은 언제 찍는 거예요? (x)

- 전성 어미 '-기', '-음'도 중국어에 대응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는 것'과 혼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나는 영화 봄을 좋아한다. (x)

저는 아이가 울기를 싫어해요. (x)
철수 씨가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바랍니다. (x)
('거두기를 바랍니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3.6.8. '-는 동안에'

-는 동안에{-는 동안/N 동안}[표현] 어떤 행위가 **계속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는 동안에: (동사나 '있다, 없다, 계시다'에 붙어) 어떤 행위가 계속되는 시간을 나타낸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적 사이를 나타내며, 주절에는 그 시간에 해당되는 어떤 행위나 상태가 온다.

[예문]

담화예문	가: 언제 청소를 할 거예요? 나: 아기가 **자는 동안에** 청소를 할 거예요. 가: 늦어서 죄송해요. 나: 괜찮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책을 봤어요. 가: 언제 한국어 단어를 다 외웠어요? 나: 버스를 타고 **있는 동안** 다 외웠어요. 가: **얼마 동안** 한국을 여행할 거예요? 나: **한 달 동안** 여행할 거예요. 가: **여름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요. 나: 방학 때 다음 학기 준비도 해야 해요.
문장예문	· 줄리아 씨가 **씻는 동안에** 제가 식사를 준비할게요. · 스파게티를 **만드는 동안에** 샐러드를 드세요. · 미도리 씨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 저는 집에 있었어요. · 엄마가 **없는 동안에** 아이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 수지가 음악을 **듣는 동안에** 잠이 들었다. · 왕밍 씨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 배낭여행을 했다. · 영화를 **보시는 동안에**는 전화기를 꺼 주십시오. · 집에 **가는 동안** 이 책을 읽어 보세요. · 흐엉 양은 **일주일 동안** 학교에 안 왔다. · 현우는 **추석 연휴 동안** 살이 많이 쪘다.

+ '-는 동안에'는 시간의 간격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 동안 한 일이 후행절로 연결되어야 한다.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왕밍 씨가 자는 동안에'의 후행절에는 이 시간의 사이에 행해질 일인 '청소를 할 거예요'가 연결될 수 있다. 시간의 간격을 나타내는 부사절에는 어떤 행위를 하는 시간으로서 '자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는 동안에'의 부사격 조사 '에'는 주로 구어에서는 생략되며, '-는 동안에'를 구성하는 '동안'은 '여름 방학 동안,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의 예에서 보듯 기간의 뜻을 포함하는 명사나 명사구와 결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제가 할 일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30분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학생: 네, 기다릴 수 있어요.
교사: 기다리면서 무엇을 할 거예요?
학생: 기다리면서 책을 볼 거예요.
교사: 그러면 선생님을 기다려요. 책을 봐요. 선생님을 **기다리는 동안** 책을 보세요.

(2)
교사: 왕밍 씨, 어제 수업 후에 어디에 갔어요?
학생: 도서관에 갔어요.
교사: 도서관에 가서 뭘 했어요?
학생: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교사: 치앙 씨는 어제 수업 후에 어디에 갔어요?
학생: 저는 집에 갔어요.
교사: 집에 가서 뭘 했어요?
학생: 잠을 잤어요.
교사: 어제 수업 후에 왕밍 씨는 공부를 했어요. 어제 수업 후에 치앙 씨는 잠을 잤어요. 왕밍 씨가 **공부하는 동안에** 치앙 씨는 잠을 잤어요.

+ 도입(1)은 동일한 인물이 두 가지의 행위를 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는 동안에'를 사용한 문장을 구성하였다. 이에 비해 도입(2)는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다르게 상황을 만들어 문장을 구성하였다. 두 가지 구성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시간상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다음과 같이 행위를 수평적으로 나열한 후에 목표 문법을 적용하여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시하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뒤 절에 올 내용에 대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목표 문법을 활용하여 대답해 주는 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

예)

(내가) 친구를 기다려요.	(내가) 숙제를 해요. (내가) 커피를 마셔요. (내가) 음악을 들어요.
왕밍 씨가 공부해요.	치앙 씨는 잠을 자요.

	치앙 씨는 게임을 해요. 치앙 씨도 공부를 해요.

↓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에 숙제를 해요.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에 커피를 마셔요.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에 음악을 들어요.
왕밍 씨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치앙 씨는 잠을 잤어요. 왕밍 씨가 공부하는 동안에 치앙 씨는 게임을 했어요. 왕밍 씨가 공부하는 동안에 치앙 씨도 공부를 했어요.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는 동안에'를 쓴다.

예) 씻- + -는 동안에 → 씻는 동안에
먹- + -는 동안에 → 먹는 동안에
가- + -는 동안에 → 가는 동안에
살- + -는 동안에 → 사는 동안에
만들- + -는 동안에 → 만드는 동안에
읽- + -는 동안에 → 읽는 동안에
보- + -는 동안에 → 보는 동안에
사- + -는 동안에 → 사는 동안에
놀- + -는 동안에 → 노는 동안에

①	받침 ㅇ	+ -는 동안에	씻는 동안에, 읽는 동안에, 먹는 동안에
	받침 ×	+ -는 동안에	보는 동안에, 가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ㄹ 받침	+ -는 동안에 (어간 'ㄹ' 탈락)	사는 동안에, 노는 동안에, 만드는 동안에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방이 **추운 동안에** 옷을 두껍게 입어요. (x)
건강이 **나쁜 동안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x)

② 행위가 시작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끝나는 동사(순간 동사)와의 결합은 자연스럽지 않다.

예) 수지는 숙제를 **마치는 동안** 놀았다. (x)
왕밍 씨는 의자에 **앉는 동안** 배가 아팠다. (x)
미도리 씨는 문 앞에 **서는 동안** 라디오를 들었어요. (x)
영수가 대학을 **졸업하는 동안** 줄리아는 배낭여행을 갔다. (x)

③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아기가 **잤는 동안에** 청소를 했어요. (x)

영화를 **봤는 동안에** 팝콘을 먹었어요. (x)
아기가 **자겠는 동안에** 청소를 할 거예요. (x)
영화를 **보겠는 동안에** 팝콘을 먹겠어요. (x)
아기가 **자는 동안에** 청소를 했어요. (o)
영화를 **보는 동안에** 팝콘을 먹을 거예요. (o)

+ 과거를 나타내는 '-은 동안에'의 형태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미래를 나타내는 '-을 동안에'의 형태로는 사용된다.

예) 아기가 **잔 동안에** 청소를 했어요. (x) / 아기가 **자는 동안에** 청소를 했어요. (o)
영화를 **본 동안에** 팝콘을 먹었어요. (x) / 영화를 **보는 동안에** 팝콘을 먹었어요. (o)
아기가 **잘 동안에** 청소를 할 거예요. (o) / 아기가 **자는 동안에** 청소를 할 거예요. (o)
영화를 **볼 동안에** 팝콘을 먹을 거예요. (o) / 영화를 **보는 동안에** 팝콘을 먹을 거예요. (o)

[확장]

① 조사 '에'를 생략하여 '-는 동안'의 구성으로 쓰기도 한다.

예) **기다리는 동안** 신문을 읽으세요.
밥을 **먹는 동안**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숙제하는 동안 라디오를 들었어요.
비가 **내리는 동안** 여기에 들어와 계세요.

② '명사(명사구)+동안(에)'의 구성으로 쓰기도 한다. 이때 명사(명사구)는 기간을 나타낸다.

예) 저는 일주일 **동안** 미도리 씨를 못 봤어요.
아사코 씨는 한 달 **동안** 몸무게를 3킬로그램을 뺐다.
왕밍 씨는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돼서 기뻐요.

[유사 문법]

① '-는 동안에', '-는 사이에'

-는 동안에	**-는 사이에**
· '어떤 행위를 하는 계속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어떤 행위가 계속되는 전체 시간에 걸쳐 다른 일이 행해짐을 의미한다. 예) 영수는 밥을 **먹는 동안에** 뉴스를 봤다. (밥을 먹는 동안 계속 뉴스를 봤다.)	·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시간의 중간이나 짧은 시간의 사이에 다른 일이 행해짐을 의미한다. 예) 영수는 밥을 **먹는 사이에** 뉴스를 봤다. (밥을 먹는 중간에 잠시 뉴스를 봤다.)

+ '-는 동안'은 어떤 행위가 계속되는 전체 시간에 걸쳐 다른 일이 행해짐을 의미하는 데 비해, '-는 사이'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시간의 중간이나 짧은 시간의 사이에 다른 일이

행해짐을 의미할 때 쓴다.

② '-는 동안에', '-을 때'

-는 동안에	-을 때
· '어떤 행위를 하는 계속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어떤 행위가 계속되는 전체 시간에 걸쳐 다른 일이 행해짐을 의미한다. 예) 영수는 밥을 **먹는 동안에** 뉴스를 봤다. (밥을 먹는 동안 계속 뉴스를 봤다.)	·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계속되는 전체 시간이나 한 시점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 영수는 밥을 **먹을 때** 뉴스를 봤다. (밥을 먹는 동안 또는 밥을 먹는 순간 뉴스를 봤다.)
· 동사, '있다, 없다, 계시다'와 결합한다. 예) 영수는 **바쁘는 동안** 전화를 받지 않는다. (x)	· 동사, 형용사와 모두 결합한다. 예) 영수는 **바쁠 때** 전화를 받지 않는다. (o)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영수는 집에 **왔는 동안** 아무도 없었다. (x)	· 과거 '-었-'과 결합한다. 예) 영수가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없었다. (o)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的时候', '的时间', '的期间'

예) 동생이 **자는 동안에** 저녁을 해 놓았다. - 弟弟睡觉**的时候**做好烦了.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에** 책을 봤어요. - 等朋友**的时候**看了书.
내가 이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차 마시면서 기다려.
- 我整理这些文件**的时候**你喝着茶等我吧.
내가 집에 **없는 동안** 밥을 잘 챙겨 먹어. - 我不在家**期间**好好做饭吃啊.

② 용법과 오류

- 과거에 일어난 일을 서술할 경우에도 '-는 동안에'는 과거시제 '-었-'과 결합하지 않고 '-는'을 과거시제 관형사형 어미 '-ㄴ/은'으로 바꿔 쓰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동생이 공부했는 동안에 저녁 준비를 했어요. (x)
친구를 기다린 동안에 신문을 봤어요. (x)

3.6.9. '-어 보다'

-어 보다[-아 보다/-여 보다][표현] 1) **시도**, 2)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

-어 보다1): (동사에 붙어) 과거에 경험하지 않은 어떤 행위를 한번 시도함을 나타낸다. 권유하거나 조언하는 말을 할 때 주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이 옷이 마음에 들어요. 나: 그럼 한번 **입어 보세요.** 가: 그 책 재미있어요? 나: 네, 한번 **읽어 볼래요**? 가: 왕밍 씨가 집에 있을까요? 나: 모르겠어요. **전화해 봐요.** 가: 불고기가 맛있어요? 나: 네, 한번 **먹어 봐요**. 가: 어디에 가고 싶어요? 나: 제주도에 한번 **가 보고** 싶어요.
문장예문	· 사진을 한번 **찍어 보세요**. · 이 화장품을 한번 **써 봐요.** · 한국어를 **배워 보세요.** · 한국 노래를 **들어 볼게요.** · 외국인과 **이야기해 보세요**. · 할아버지, 이 약을 **드셔 보세요**. · 이 구두를 **신어 보세요**. · 학교에 조금 일찍 **와 보세요**. · 재미있게 **놀아 볼까요?** · 한국 음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 '시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 보다'는 과거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주로 '(한번) -어 보세요.'의 구성으로 상대방에게 시도할 것을 권유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주로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또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상황이나 추천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도입]

(1)
교사: 어디에 가서 옷을 사요?
학생: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요.
교사: 백화점은 비싸요. 그래서 저는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사요. 동대문 시장을 알아요?
학생: 아니요, 잘 몰라요.
교사: 동대문 시장에 가면, 옷이 싸고 종류도 많아요. 동대문 시장에 **가 보세요**.

(2)
교사: 왕밍 씨, 매운 음식 좋아해요?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학생: 떡볶이를 먹었어요.
교사: 저는 비빔냉면을 좋아해요. 맵지만 맛이 있어요. 먹고 싶어요?
학생: 네, 먹고 싶어요.
교사: 그럼 한번 **먹어 보세요**.

+ '-어 보다1)'은 시도의 의미이므로 한국에 대해 학생들이 접해보지 못한 장소나 상황을 제시하여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게 좋다. 도입(1)은 학생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소지품을 어디에서 샀는지 물어보고, 교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소지품을 산 곳을 제시하여 '가 보다'라는 표현을 제시한 것이다.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일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연결하여 시도 표현을 만들도록 한다. 도입(2)를 제시할 때 떡볶이, 비빔냉면, 김치 등 매운 음식 사진을 직접 보여 주며 이야기하면 좋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인 경우 '-아 보다'를 쓴다.

예) 남- + -아 보다 → 남아 보다
만나- + -아 보다 → 만나 보다
오- + -아 보다 → 와 보다
찾- + -아 보다 → 찾아 보다
살- + -아 보다 → 살아 보다
가- + -아 보다 → 가 보다

②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가 아닌 경우 '-어 보다'를 쓴다.

예) 입- + -어 보다 → 입어 보다
그리- + -어 보다 → 그리어 보다/그려 보다
기다리- + -어 보다 → 기다려 보다
먹- + -어 보다 → 먹어 보다
서- + -어 보다 → 서 보다
쓰- + -어 보다 → 써 보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어간에는 '-여 보다'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 보다'로 쓴다.

예) 여행하- + -여 보다 → 여행해 보다　　시작하- + -여 보다 → 시작해 보다
노력하- + -여 보다 → 노력해 보다　　공부하- + -여 보다 → 공부해 보다
청소하- + -여 보다 → 청소해 보다　　도전하- + -여 보다 → 도전해 보다

①	ㅏ, ㅗ	+ -아 보다	남아 보다, 찾아 보다, 만나 보다, 살아 보다, 와 보다, 가 보다
②	ㅏ, ㅗ 이외	+ -어 보다	입어 보다, 먹어 보다, 그려 보다, 서 보다, 써 보다, 기다려 보다
③	-하다	+ -여 보다(-해 보다)	여행해 보다, 시작해 보다, 노력해 보다, 공부해 보다, 청소해 보다, 도전해 보다

④ 불규칙
걷-　예) 학교까지 **걸어 보세요**.
눕-　예) 새 침대에 **누워 보세요**.
짓-　예) 밥을 **지어 보세요**.
부르-　예) 노래를 **불러 보세요**.

[문장 구성 정보]
① '한번 V-어 보고 싶다/한번 V-어 보세요'의 구성으로 주로 사용한다.

예) 이 옷을 한번 **입어 보고** 싶다. (o)
이 옷을 한번 **입어 보세요**. (o)
그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o)
그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o)

+ '한번'은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한다는 의미로 '-어 보다'가 가지는 '시도'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부각시킨다.

② 부정문은 '-어 보지 않다, 안 -어 보다'로 쓴다. '안 –어 보다'는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 이 옷을 **입어 안 보겠다**. (x)
이 옷을 **입어 보지 않겠다**. (o)
이 옷을 **안 입어 보겠다.** (o)

③ 높임은 '-어 보시다'로 쓴다.

예) 할아버지, 신문을 **읽어 봐요**. (x)
선생님, 문자 메시지를 **읽어 봐요**. (x)
할아버지, 신문을 **읽어 보세요**. (o)
선생님, 문자 메시지를 **읽어 보세요**. (o)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배가 한번 **고파 보세요**. (x)
저도 한번 **예뻐 보고** 싶어요. (x)
키가 **커 볼까요**? (x)
방이 **넓어 보면** 좋겠어요. (x)

② 동사 '보다'와의 결합은 자연스럽지 않다.

예) 이 책을 한번 **봐 보세요**. (?)
안경을 쓰고 **봐 보세요**. (?)
신문을 **봐 보고** 싶어요. (x)
왕밍 씨를 **봐 볼** 수 있어요? (x)

+ '보다'의 형태와 의미가 충돌하여 어색해지기 때문에 '봐 보다'의 구성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어 보다2):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를 경험함을 나타낸다. 여행이나 취미와 같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말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어디에 **가 봤어요**? 나: 명동에 **가 봤어요**. 가: 운전을 **해 봤어요**? 나: 네, 운전을 **해 봤어요.** 가: 길을 **잃어버려 봤어요**? 나: 네, 길을 **잃어버려 봤어요.** 가: 매운 음식을 **먹어 봤어요**? 나: 네, 떡볶이를 **먹어 봤어요**. 가: 등산을 **해 봤어요**? 나: 아니요, 등산을 **해 본** 적이 없어요.
문장예문	· 편지를 **받아 봤어요.** · 비행기를 **타 봤어요.** · 눈병에 **걸려 봤다**. · 지갑을 **주워 본** 적이 있다. · 아르바이트를 **해 봤어요.**

	·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어요.** · 수영을 **배워 봤어요.** · 연예인을 **만나 봤어요.** · 사전을 **읽어 봤어요.** · 수업 시간에 **발표해 봤습니다.**

+ '경험'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 보다'는 주로 과거형으로 사용된다. '-어 봤어요?'의 형태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면 '-어 봤어요, -어 보지 않았어요' 등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전형적인 대화문이다.

[도입]

(1)
교사: 왕밍 씨, 어떤 나라로 여행을 갔어요?
학생: 미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교사: 왕밍 씨는 미국에 가 봤어요. 줄리아 씨는요?
학생: 저는 일본에 갔어요.
교사: 줄리아 씨는 일본에 **가 봤어요**. 저는 프랑스로 여행을 갔어요. 프랑스에 **가 봤어요**.

(2)
교사: 어떤 운동을 좋아해요?
학생: 저는 스키를 좋아해요. 스키 타는 게 재미있어요.
교사: 미도리 씨는 스키를 **타 봤어요**. 저도 스키를 **타 봤어요**.

+ '-어 보다1)'은 경험의 의미이므로 한국에 대해 학생들이 접했을 법한 장소나 상황을 제시하여 어떤 행위를 해 봤는지 서로 이야기하도록 한다. 도입(1)을 제시할 때는 학생들이 가 본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도가 있으면 지도를 활용하거나 또는 칠판에 간단하게 지도를 그리며 이야기한다. 가 본 나라가 다양하지 않다면 한국에서 가 본 장소를 선정하는 게 좋다. 도입 (2)를 제시할 때는 '스키 타는 그림, 스케이트 타는 그림, 수영하는 그림, 골프 치는 그림' 등을 보여 주며 이야기하는 게 좋다.

[형태 정보]
앞의 '-어 보다1)'을 참고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어 본 적이 있다'의 구성으로 사용하여 경험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
예) 제주도에 **가 본** 적이 있어요.

김치를 **먹어 본** 적이 있어요.

+ '-어 본 적이 있다'는 '-어 보다'에 '-은 적이 있다'가 결합한 구성으로 경험에 대한 보다 강한 느낌을 주는 표현이다.

② 부정문은 '-어 보지 않다, 안 -어 보다'로 쓴다. '안 –어 보다'는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 이 모자를 **써 안 봤다**. (x)
이 모자를 **써 보지 않았다**. (o)
이 모자를 **안 써 봤다**. (o)

③ 높임은 '-어 보시다'로 쓴다.

예) 할아버지께서 중국에 **가 봤다**. (x)
교수님께서 숙제를 **읽어 봤어요**. (x)
할아버지께서 중국에 **가 보셨다**. (o)
교수님께서 숙제를 **읽어 보셨어요**. (o)

[제약 정보]

①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에는 쓰지 않는다.

예) 저는 잠을 **자 봤어요.** (x)
저는 공항에서 잠을 **자 봤어요**. (o)

②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동생이 **착해 봤어요**. (x)
나는 **작아 봤어요**. (x)
얼굴이 **예뻐 봤어요**. (x)
머리가 **아파 봤어요**. (x)
배가 **고파 봤어요**. (x)

③ 동사 '보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이 영화를 **봐 봤어요**. (x)
이 책을 **봐 봤어요**. (x)
그 사람을 **봐 봤어요**. (x)
시장에서 장을 **봐 봤어요**. (x)

+ '보다'의 형태와 의미가 충돌하여 어색해지기 때문에 '봐 보다'의 구성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경험을 나타내므로 주로 과거형으로 쓴다. 미래, 추측을 나타내는 '-겠-'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현재나 미래형으로 쓰면 경험이 아닌 시도의 의미가 나타난다.

예) 가: 이 책을 **읽어 봤어요**? (경험)
나: 아니요, **읽어 보지 않았어요**. (경험)
가: 그럼, 한번 **읽어 보세요**. (시도)
나: 네, 한번 **읽어 볼게요**. (시도)

[확장]

① 가끔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결합하기도 한다.

예) 우리는 옛날에 **배고파 봤어요**.
전염병으로 **아파 봤어요**.

[유사 문법]

① '-어 보다2)', '-은 적이 있다'

-어 보다2)	**-은 적이 있다**
· 과거의 경험을 나타낸다.	
· 의도적인 경험이 아닌 상황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예)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 봤어요**. (?) 영수는 눈병에 **걸려 봤어**요. (?)	·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예) 저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영수는 눈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 경험의 '-어 보다'는 '-어 봤다'의 형태로 쓴다. 예) 영수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봤다**.	· '적'은 때나 시기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어 보다'보다 경험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예) 영수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 부사어는 '-어 봤다' 앞에 사용한다. 예) 영수는 아파서 병원에 한 번 **입원해 봤다**.	· '있다' 앞에 부사어의 삽입이 가능하다. 예) 영수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 번 있다.

+ '적'은 때나 시기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은 일이 있다'와도 비슷한 표현이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试着', 과거형으로 쓰일 경우에는 '过'

예) 이 옷을 한번 입**어 보세요**. - **试**穿一下这件衣服吧.
김치를 먹**어 보았다**. - 吃**过**泡菜.
한국어를 배**워 보세요**. - 学学韩国语吧.
한국어로 말**해 보세요**. - 用韩国语说说看.

② 용법과 오류

- 부정문은 '-어 보지 않다, 안 -어 보다'로 쓰이지만 학습자들이 '-어 안 보다'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 이 옷을 입어 안 보실래요? (x)
김치를 먹어 안 봤다. (x)

3.6.10. '-어 있다'

-어 있다[-아 있다/-여 있다][표현] 결과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표현.

-어 있다: (동사에 붙어) 어떤 행동이 끝난 결과 그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가: 어떤 게 왕밍 씨 가방이에요? 나: 저 가방이에요. 제 가방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가: 미안해요.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나: 그럼 먼저 영화관에 **들어가 있을게요.** 가: 박물관 구경은 잘 했어요? 나: 아니요, 문이 **닫혀 있어서** 못했어요. 가: 작년에 심은 꽃이 **살아 있어요**? 나: 네, 잘 자라고 있어요. 가: 할아버지께서는 어떠세요? 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문장예문	· 수지 씨 가방에 책과 지갑이 **들어 있어요.** ·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 저는 **앉아 있고** 친구는 **서 있어요**. · 영수가 침대에 **누워 있어요.** · 식당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어요.** · 교실에 불이 **꺼져 있어요.** · 지갑이 복도에 **떨어져 있어요**. · 식탁에 꽃병이 **놓여 있어요**. ·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요.** · 기차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 '-어 있다'는 '제 가방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영화관에 들어가 있을게요, 문이 닫혀 있어요, 교실에 불이 꺼져 있어요'와 같이 자동사(접사 파생 피동사, '-어지다'형의 피동사)에 결합하여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와 결합하지 않는 데 주의한다.

[도입]

(1)
교사: (의자에 앉은 후) 선생님이 지금 앉았어요, 섰어요?
학생: 앉았어요.
교사: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있어요. 선생님은 의자에 **앉아 있어요.**

(2)
교사: (지우개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지우개가 떨어졌어요. 지우개가 계속 바닥에 있어요?
학생: 네, 지우개가 계속 바닥에 있어요.
교사: 지우개가 떨어졌어요. 계속 바닥에 있어요. 지우개가 **떨어져 있어요**.
(종이를 칠판에 붙인 후) 종이가 칠판에 붙었어요. 계속 칠판에 있어요?
학생: 네, 계속 있어요.
교사: 종이가 칠판에 붙었어요. 계속 있어요. 종이가 칠판에 **붙어 있어요**.

+ 도입(1)과 도입(2) 모두 교실에서의 행동을 바탕으로 행위의 결과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여 주는 방식이다. 행위가 끝난 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인 경우 '-아 있다'를 쓴다.

예) 남- + -아 있다 → 남아 있다　　앉- + -아 있다 → 앉아 있다
살- + -아 있다 → 살아 있다　　가- + -아 있다 → 가 있다
오- + -아 있다 → 와 있다　　나오- + -아 있다 → 나와 있다

②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가 아닌 경우 '-어 있다'를 쓴다.

예) 들- + -어 있다 → 들어 있다　　죽- + -어 있다 → 죽어 있다
피- + -어 있다 → 피어 있다/펴 있다　　서- + -어 있다 → 서 있다
닫히- + -어 있다 → 닫혀 있다　　놓이- + -어 있다 → 놓여 있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어간에는 '-여 있다'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 있다'로 쓴다.

예) 입원하- + -여 있다 → 입원해 있다　　정지하- + -여 있다 → 정지해 있다

①	ㅏ, ㅗ	+ -아 있다	남아 있다, 앉아 있다, 살아 있다, 가 있다, 와 있다, 나와 있다
②	ㅏ, ㅗ 이외	+ -어 있다	들어 있다, 죽어 있다, 피어 있다(펴 있다),

			서 있다, 닫혀 있다, 놓여 있다
③	-하다	+ -여 있다(-해 있다)	입원해 있다, 정지해 있다

④ 불규칙 동사
붇- 예) 비가 많이 와서 한강의 물이 **불어 있어요**.
눕- 예) 감기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붓- 예) 어제 넘어져서 다리가 계속 **부어 있어요**.

[문장 구성 정보]
① 동사 중에 일부 자동사, 접사 파생 피동사, '-어지다'형의 피동사와 결합한다.

예) 가: 시험 준비를 다 했어요?
나: 아니요, 아직 공부할 게 **남아 있어요**.

가: 왜 집에 안 들어가요?
나: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 교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나: 아니요, 불이 **꺼져 있었어요.**

+ 일부 자동사로 '앉다, 서다, 가다, 오다, 피다, 들다, 붙다 떨어지다' 등이 있다.
+ 접사 파생 피동사로 '닫히다, 열리다, 놓이다, 쌓이다, 걸리다, 쓰이다, 적히다, 모이다, 섞이다' 등이 있다.
+ '-어지다'형의 피동사로 '켜지다, 꺼지다, 버려지다, 쓰러지다, 떨어지다, 넘어지다' 등이 있다.

② 부정문은 '-어 있지 않다', '안 -어 있다'로 쓴다. '안 -어 있다'는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 교실에 학생이 **남아 없어요**. (x)
교실에 학생이 **남아 안 있어요**. (x)
교실에 학생이 **남아 있지 않아요**. (o)
교실에 학생이 **안 남아 있어요**. (o)

③ 높임은 '-어 계시다'로 쓴다.

예) 할아버지께서 **살아 있으세요**. (x)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세요**. (o)

④ 과거는 '-어 있었다'로 쓴다. '-어' 앞에 '-었-'을 붙이지 않는다.

예) 공원 벤치에 **앉았어 있어요**. (x)
공원 벤치에 **앉았어 있었어요.** (x)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o)

[제약 정보]

① 형용사나 타동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목소리가 **작아 있어요.** (x)
문을 **열어 있어요**. (x)
불을 **켜 있어요**. (x)

+ 타동사는 피동접미사나 '-어지다'가 붙으면 자동사가 되어 '-어 있다'와 결합이 가능하다.

예) 문이 **열려 있어요**. (o)
불이 **켜져 있어요**. (o)

② '-어 있다'는 행동이 끝난 결과 그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기 때문에, 행동이 끝나고 그 결과가 계속 지속되는 의미의 동사와만 결합한다.

예) 날씨가 흐려서 하늘이 안 **보여 있다**. (x)
열심히 **공부해 있다**. (x)
아기가 엄마에게 **안겨 있다**. (o)
나무가 **죽어 있다**. (o)

+ 행동의 결과가 계속 지속될 수 없으면 '-어 있다'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유사 문법]

① '-어 있다', '-고 있다2)'

-어 있다	**-고 있다2)**
· 결과 상태의 지속을 의미한다.	
· 자동사와만 결합한다. 예) 양말을 **신어 있어요.** (x) 집에 **가 있어요**. (o)	· 타동사와만 결합한다. 예) 집에 **가고 있어요.** (x) ('-고 있다1)'의 의미임) 양말을 **신고 있어요**. (o)
· 착용동사 이외의 타동사가 결과 상태의 지속을 의미할 때는 과거 '-었-'으로 나타낸다. 예) 밥을 다 **먹어 있어요**. (x) 밥을 다 **먹었어요.** (o)	· 착용동사의 결과 상태 지속을 나타낸다. 예) 신문을 **읽고 있어요**. (x) ('-고 있다1)'의 의미임) 코트를 **입고 있는** 사람이 제 언니예요. (o)

+ '-고 있다2)'와 '-어 있다'의 의미는 동일하지만 결합하는 동사가 다르다. '-고 있다2)'와 결합하는 동사는 '-어 있다'와 결합하지 않는다.

② '-어 있다', '-었-'(과거)

-어 있다	'-었-'(과거)
· '어떤 행위가 끝났음'을 나타낸다.	
· 동작이 완료된 결과 그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예) 학생이 의자에 **앉아 있다**. (학생이 의자에 앉은 후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됨.)	· 과거의 동작을 나타낸다. 예) 학생이 의자에 **앉았다**. (학생이 의자에 앉은 사실만을 나타냄.)
· 이때 '-어 있다'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 수지는 이미 **결혼해 있다**. (x) 철수는 오늘 청바지를 **입어 있다.** (x)	· 결합되는 동사에 따라 상태 지속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예) 수지는 이미 **결혼했다**. (o) 철수는 오늘 청바지를 **입었다.** (o)거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着'

예) 동생이 침대에 **누워 있어요**. - 弟弟在床上躺**着**.
누나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 姐姐在椅子上做**着**.
지도가 벽에 **걸려 있다**. - 墙上挂**着**地图.
아직도 불이 **켜져 있네요**. - 等还亮**着**.

② 용법과 오류

- '-어 있다'가 타동사와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着'는 타동사와도 결합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인다.

예) 문을 열어 있다. (x)
책상 위에 책을 놓아 있다. (x)
사진을 걸어 있다. (x)

- 동작이 끝난 후에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고 있다'와 '-어 있다'의 대응 표현이 모두 '着'이므로 학습자들이 이 두 문법 항목을 혼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모자를 써 있다. (x)
안경을 써 있는 사람 아세요? (x)

- '-어 있다'의 높임은 '-어 계시다'로 써야 하는데 중국어에 이러한 구별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어 계시다'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어 있다'를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할머니께서 살아 있습니다. (x)
교수님께서 저기 서 있다. (x)

- 행동이 끝난 후 지속되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 과거시제 '-었-'을 사용하여 '-어 있었다'로 쓰이지만, 중국어에서는 현재나 과거가 동일한 문장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방금 여기 앉아 있어요. (x)
  어제 봤을 때 여기 놓여 있어요. (x)

3.6.11. '-어 주다'

-어 주다[-아 주다/-여 주다][표현] 도움을 주는 어떤 행위를 함을 나타내는 표현.

-어 주다: (동사에 붙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함을 나타낸다. 남에게 도움을 제안하거나 약속할 때, 또는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주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수지 씨랑 통화할 수 있어요? 나: 네, 수지 씨를 **바꿔 줄게요.** 가: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방법을 알아요? 나: 아니요, 좀 **알려 주세요**. 가: 제가 한국어 공부를 **도와줄까요**? 나: 네, 너무 어려워요. 가: 영수 씨, 이 가방 좀 **들어 줄래요**? 나: 네, 제가 **들어 줄게요**. 가: 국어사전이 없어요. 나: 제가 학생에게 **빌려 주었어요.** 가: 이 가방은 십만 원이에요. 나: 너무 비싸요. 좀 **깎아 주세요**.
문장예문	· 왕밍 씨는 사진을 잘 **찍어 줘요.** · 미도리 씨, 제가 병원에 같이 **가 줄게요.** ·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 주세요.** · 휴지를 **주워 주세요.** · 영화가 시작되면 휴대전화를 **꺼 주세요**. · 창문 좀 **닫아 주세요**. · 잘 안 들리니까 크게 **말해 주세요**. · 주말에 운전을 **가르쳐 줄게요**. · 만두 2인분을 **포장해 주세요**. · 수지 씨가 떡볶이를 **만들어 줬습니다.**

+ '-어 줄까요?'는 도움을 권유할 때, '-어 줄게요'는 도움을 약속할 때, '-어 주세요', '-어 줄래요?'는 도움을 요청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도움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기도 하

지만,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 주세요'처럼 완곡한 명령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어 주다'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예문을 통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도입]

(1)
교사: (칠판에 글씨를 작게 쓰며) 알겠어요?
학생: 아니요, 모르겠어요.
교사: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학생: 크게 써요.
교사: (글씨를 크게 쓰며)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 크게 써요. 선생님이 글씨를 크게 **써 줘요**.
(2)
교사: 여러분 너무 더워요. 어떻게 할까요?
학생: 창문을 열어요. 에어컨을 틀어요.
교사: 너무 더워요. 부탁을 합니다. 창문을 **열어 주세요**.
에어컨을 **틀어 주세요**.

+ '-어 주다'는 어떤 행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가정하여 '-어 주다'를 유도하는 게 좋다.
+ 도입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는 불편한 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간단하게 판서한 후, 부탁하는 표현에 '-어 주다'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 주면 '-어 주다'는 도움을 주거나 받기 위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인 경우 '-아 주다'를 쓴다.

예) 찾- + -아 주다 → 찾아 주다
만나- + -아 주다 → 만나 주다
보- + -아 주다 → 봐 보다
남- + -아 주다 → 남아 주다
가- + -아 주다 → 가 주다
오- + -아 주다 → 와 주다

② 동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가 아닌 경우 '-어 주다'를 쓴다.

예) 먹- + -어 주다 → 먹어 주다
켜- + -어 주다 → 켜 주다
알리- + -어 주다 → 알려 주다
열- + -어 주다 → 열어 주다
바꾸- + -어 주다 → 바꾸어 주다/바꿔 주다
끄- + -어 주다 → 꺼 주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어간에는 '-여 주다'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 주다'로 쓴다.

예) 전화하- + -여 주다 → 전화해 주다
노력하- + -여 주다 → 노력해 주다
설치하- + -여 주다 → 설치해 주다
칭찬하- + -여 주다 → 칭찬해 주다
축하하- + -여 주다 → 축하해 주다
이야기하- + -여 주다 → 이야기해 주다

①	ㅏ, ㅗ	+ -아 주다	찾아 주다, 남아 주다, 만나 주다, 가 주다, 봐 주다, 와 주다
②	ㅏ, ㅗ 이외	+ -어 주다	먹어 주다, 열어 주다, 켜 주다, 바꿔 주다, 알려 주다, 꺼 주다
③	-하다	+ -여 주다(-해 주다)	전화해 주다, 칭찬해 주다, 노력해 주다, 축하해 주다, 설치해 주다, 이야기해 주다

④ 불규칙

듣- 예) 제 얘기를 잘 **들어 주세요**.
줍- 예) 지갑을 **주워 줬어요**.
붓- 예) 여기에 물을 **부어 주세요**.
부르- 예) 생일에 노래를 **불러 줬어요**.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어 주지 않다, 안 -어 주다'로 쓴다. '안 –어 주다'는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 지갑을 **찾아 안 줬다**. (x)
지갑을 **찾아 주지 않았다**. (o)
지갑을 **안 찾아 줬다**. (o)

② 청유 및 명령인 '-어 주세요, -어 주십시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한다.

예) 이 가방 좀 **들어 주세요**.
이 가방 좀 **들어 주십시오.**
라디오 좀 **켜 주세요**.
라디오 좀 **켜 주십시오**.

③ 높임은 '-어 드리다'로 쓴다.

예) 할아버지, 내가 가방을 **들어 줄게요**. (x)
엄마가 동생에게 컴퓨터를 **사 드렸어요**. (x)
할아버지, 제가 가방을 **들어 드릴게요**. (o)
엄마가 동생에게 컴퓨터를 **사 줬어요**. (o)

+ 단 도움을 받는 사람이 윗사람일 때 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윗사람일 때는 '-어 주시다'를 쓴다. 위 예문에서 윗사람인 '할아버지'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제'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므로 할아버지에 대한 나의 행위에 '-어 드리다'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동생을 위한 엄마의 행위에는 '-어 드리다'를 사용할 수 없다.

예) 선생님께서 제 가방을 **들어 드렸어요**. (x)
사장님께서 저녁을 **사 드렸어요.** (x)
선생님께서 제 가방을 **들어 주셨어요**. (o)
사장님께서 저녁을 **사 주셨어요.** (o)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청소를 **깨끗해 주세요**. (x)
강아지를 **예뻐 줬어요**. (x)
청소를 **깨끗하게 해 주세요**. (o)
강아지를 **예뻐해 줬어요**. (o)

+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깨끗하다'는 '깨끗하게 하다'로, '예쁘다'는 '예뻐하다'로 문맥에 맞게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형용사에 '-어지다'가 붙어 자동사가 되어도 '예뻐져 주다, 깨끗해져 주다'와 같은 표현은 의미상 어색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동사 '주다'와의 결합은 자연스럽지 않다.

예) 여자 친구에게 선물을 **줘 줬다**. (x)
엄마가 용돈을 **주셔 줬어요**. (x)
여자 친구에게 선물을 **줬다**. (o)
엄마가 용돈을 **주셨어요**. (o)

+ 동사 '주다'의 의미와 '-어 주다'의 의미가 겹쳐서 충돌하게 되어 어색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확장]

① 의문문인 '-어 줄까요?'(-어 드릴까요?)는 상대를 도와주기 위해 의향을 물어볼 때 사용한다. 이에 비해 '-어 주시겠어요?'는 '-어 주세요'와 같이 듣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로 '-어 주세요'보다 정중한 표현이다.

예) 가: 줄리아 씨, 가방을 **들어 줄까요**?(**들어 드릴까요**?) (도움 제안)
나: 네, 가방을 **들어 주세요**. 그리고 문도 **열어 주시겠어요**? (도움 요청)

+ '-어 드릴까요?'에 대한 대답은 주로 '-어 주세요/-어 줘요'로 사용한다. '-어 드릴까요?'는 도움을 받는 사람을 높이는 표현이며,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일 수는 없으므로 '-어 주세요/-어 줘요'만 사용하고 '-어 드리세요/-어 드려요'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가: 문을 **열어 드릴까요**?
나: 네, **열어 주세요**.

② '-어 줄게요'(-어 드릴게요)는 상대에게 도움을 약속할 때 사용한다.

예) 가: 영수 씨, 문 좀 **열어 주세요.** (도움 요청)
나: 네, 잠깐만 기다려요. **열어 줄게요.**(**열어 드릴게요.**) (도움 약속)

③ '-겠-'은 '-어 주시겠어요?'의 형태로 주로 사용한다. '-어 주겠어요', '-어 드리겠어요'의 형태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예) 가: 문을 **닫아 주시겠어요**?

나: 네, **닫아 드릴게요./ 닫아 줄게요**. (??닫아 드리겠어요./ 닫아 주겠어요.)

도움 약속	도움 제안	도움 요청
-어 줄게요	*-어 줄까요?*	*-어 주세요*
문을 **열어 줄게요**.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겠다.)	문을 **열어 줄까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문을 열지 물어봄.)	문을 **열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함.)
-어 드릴게요(-어 드리겠습니다)	*-어 드릴까요?*	*-어 주시겠어요?(-어 주시겠습니까)*
문을 **열어 드릴게요**. (나보다 윗사람인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겠다.)	문을 **열어 드릴까요**? (나보다 윗사람인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지 물어봄.)	문을 **열어 주시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간접적이고 완곡하게 요청함.)
		-어 주십시오
		문을 **열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함. '-어 주세요'보다는 좀 더 듣는 이를 높이지만 '-어 주시겠어요?'보다는 덜 정중함.)

[유사 문법]

① '-어 주세요', '-으세요', '-으십시오'

-어 주세요	-으세요	-으십시오
· 부탁이나 요청 및 명령의 의미를 나타낸다.		
· 동사가 결합하여 요청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이리로 가 주세요.	· 동사가 결합하여 보다 강한 요청, 즉 명령의 의미를 주로 나타낸다. 예) 이리로 가세요.	· 동사가 결합하여 보다 강한 요청, 즉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며,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 예) 이리로 가십시오.
·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행복해 주세요. (x)	· 일부 형용사와 결합하여 기원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행복하세요.	· 형용사와 결합하여 기원의 의미를 나타내며,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 예) 행복하십시오.

+ '-어 주세요'는 부탁을 하거나 요청할 때 사용하는 데 비해, '-으세요'와 '-으십시오'는 명령할 때 사용한다. 단 '-으십시오'가 '-으세요'보다 격식을 갖춰 듣는 이를 높이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 '-으세요'와 '-으십시오'가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기는 해도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은 아니다. 특히 "이리로 가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와 같이 상대의 행위를 구속하는 명령은 개인에게 직접 사용하면 예의 없는 말이 된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给', '帮我'

예) 동생에게 과일을 **사 줘요**. - **给**弟弟买水果.
가방 좀 **들어 줄래요**? - **帮我**拿一下包好吗?
사전 좀 **빌려 주세요**. - 借我一下词典.
공연이 시작되면 휴대전화를 **꺼 주세요**. - 演出开始, 请把手机关掉.

② 용법과 오류

- 윗사람에게는 '-어 드리다'를 쓰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문법 현상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윗사람에게도 '-어 주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할아버지, 제가 도와줄까요? (x)
할아버지께 저녁을 사 주었다. (x)

- '편지하다', '전화하다' 등을 제외한 다른 동사는 반드시 '-어 주다'를 써야 남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함을 나타낼 수 있지만, 학습자들은 '에게'가 중국어 '给'에 대응하기도 하므로 동사 어간에 '-어 주다'를 사용하지 않는 오류가 많다.

예) 나는 동생에게 사전을 샀다. (x)
언니가 나에게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x)

3.6.12. '-어도 되다'

-어도 되다[-아도 되다/-여도 되다][표현]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허락이나 허용**을 나타내는 표현.

-어도 되다: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어떤 행위나 상태를 허락하거나 허용함을 나타낸다. 허용이 되는지를 질문하거나 이에 대해 허용한다는 의미의 대답을 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이 옷을 입어 **봐도 됩니까**? 나: 네, 입어 **봐도 됩니다**. 가: 지금 숙제를 내야 돼요? 나: 아니요, 내일 **내도 돼요.** 가: 영화관에서 전화를 **받아도 돼요**? 나: 아니요, 영화관에서 전화를 받으면 안 돼요. 가: 이 책을 버릴까요? 나: 네, 그 책은 **버려도 돼요**. 가: 나이가 많아도 괜찮을까요? 나: 예, 나이가 좀 **많아도 돼요**.
문장예문	· 이제 자리에 **앉아도 돼요.** · 여기에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 제가 식사 준비를 **도와도 될까요**? · 여러분, 수업을 **시작해도 될까요**? · 수지 씨, 오늘 집에 **놀러 가도 돼요**? · 왕밍 씨, 라디오를 **틀어도 돼요**? · 물건이 좋으면 가격이 **비싸도 돼요**. · 음식이 좀 **달아도 됩니다**. · 가방이 빨간색**이어도 돼요**. · 반드시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 '-어도 되다'는 허락 및 허용을 나타내므로 '이 옷을 입어 봐도 됩니까?/ 네, 입어 봐도 됩니다'와 같이 허락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는 의문문과 이에 대한 대답으로 주로 사용된다. '영화관에서 전화를 받아도 돼요?/ 아니요, 영화관에서 전화를 받으면 안 돼요.'에서 볼 수 있듯 '-어도 되다'는 허락을 나타내며, 이와 반의적 관계에 있는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으

로는 '-으면 안 되다'를 사용한다.

[도입]

(1)
교사: 교실에서 술을 마셔요. 괜찮아요?
학생: 아니요, 안 괜찮아요.
교사: 교실에서 커피를 마셔요. 괜찮아요?
학생: 네, 괜찮아요.
교사: 교실에서 커피를 마셔요. 괜찮아요. 교실에서 커피를 **마셔도 돼요**.

(2)
교사: 영화관에서 전화를 받아요. 괜찮아요?
학생: 아니요, 안 괜찮아요.
교사: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어요. 괜찮아요?
학생: 네, 괜찮아요.
교사: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어요. 괜찮아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어도 돼요.**

+ '-어도 되다'를 도입할 때 (1)과 (2)처럼 어떤 장소에서 허용이 안 되는 행위를 먼저 제시한 후에 허용이 되는 행위를 제시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금지'와 대비되는 의미로 '허용'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용되는 상황만을 제시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것이 허용의 의미를 제시하기 위한 것인지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주의한다.
+ '-어도 돼요?'라고 물어보면 '-어도 돼요', '-(으)면 안 돼요'로 대답할 수 있음을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으)면 안 돼요'가 수업의 목표문법이 아니며, 아직 학생들이 배우지 못한 항목이라면 허용의 반대라는 것만 제시한다.
+ 위의 도입을 제시하며 영화관에서 전화를 시끄럽게 받는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과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는 그림을 함께 제시하는 게 좋다.

[형태 정보]

① 동사,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인 경우 '-아도 되다'를 쓴다.

예) 남- + -아도 되다 → 남아도 되다　　만나- + -아도 되다 → 만나도 되다
오- + -아도 되다 → 와도 되다　　좋- + -아도 되다 → 좋아도 되다
비싸- + -아도 되다 → 비싸도 되다　　나쁘- + -아도 되다 → 나빠도 되다

+ 이음절 이상의 어간 끝음절 모음이 '으'일 때는 '으' 앞의 끝음절 모음에 따라 교체한다. 이때 '으' 모음은 탈락한다.

② 동사,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가 아닌 경우 '-어도 되다'를 쓴다.

예) 먹- + -어도 되다 → 먹어도 되다　　입- + -어도 → 입어도 되다
그리- + -어도 되다 → 그려도 되다　　서- + -어도 되다 → 서도 되다
크- + -어도 되다 → 커도 되다　　슬프- + -어도 되다 → 슬퍼도 되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형용사 어간에는 '-여도 되다'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도 되다'로 쓴다.

예) 공부하- + -여도 되다 → 공부해도 되다　　시작하- + -여도 되다 → 시작해도 되다
깨끗하- + -여도 되다 → 깨끗해도 되다　　따라하- + -여도 되다 → 따라해도 되다
쇼핑하- + -여도 되다 → 쇼핑해도 되다　　준비하- + -여도 되다 → 준비해도 되다

①	ㅏ, ㅗ	+ -아도 되다	남아도 되다, 만나도 되다, 와도 되다, 좋아도 되다, 비싸도 되다, 나빠도 되다
②	ㅏ, ㅗ 이외	+ -어도 되다	먹어도 되다, 입어도 되다, 그려도 되다, 서도 되다, 커도 되다, 슬퍼도 되다
③	-하다	+ -여도 되다 (-해도 되다)	공부해도 되다, 시작해도 되다, 깨끗해도 되다, 따라해도 되다, 쇼핑해도 되다, 준비해도 되다

④ '이다, 아니다'는 '-어도 되다'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 +-여도 되다'라고 쓴다.

예) 사람이- + -어도 되다 → 사람이어도 되다　　책상이- + -어도 되다 → 책상이어도 되다
우유이- + -어도 → 우유이어도 되다/우유여도 되다　　의사이- + -어도 되다 → 의사이어도 되다/의사여도 되다
아니- + -어도 되다 → 아니어도 되다

+ '이다' 앞의 명사는 말할 때 '여도'보다 '-라도'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사람이라도', '책상이라도', '우유라도', '의사라도'처럼 사용할 수 있다.
+ '아니다'는 말할 때 '아니어도' 보다 '아니라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⑤ 불규칙 동사
걷-　예) 이 신발을 신고 **걸어도 돼요**?
눕-　예) 이제 침대에 **누워도 돼요**.
짓-　예) 강아지 이름을 새로 **지어도 돼요**.
그렇-　예) 머리 색깔이 **그래도 돼요**?
모르-　예) 왕밍 씨는 이 사실을 **몰라도 돼요**.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은 '-지 않아도 되다', '안 -어도 되다'로 쓴다. '안 -어도 되다'는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　밥을 **<u>먹지 않아도 돼요</u>**.

밥을 **안 먹어도 돼요**.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돼요**.
커피를 **안 마셔도 돼요**.

+ 어떤 행위에 대한 허용의 의미인 '-어도 되다'의 부정인 '-지 않아도 되다', '안 -어도 되다'는 그 반대 행위에 대한 허용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밥을 먹어도 돼요?'는 밥을 먹는 행위를 허락하겠느냐는 의미인 데 비해 '밥을 먹지 않아도 돼요?'는 밥을 먹지 않는 행위를 허락하겠느냐는 말이다.

+ '-으면 안 되다'는 '-어도 되다'의 반의적 표현으로 금지를 나타낸다.

예) 가: 지금 밥을 **먹어도 돼요**? (긍정 행위에 대한 허용)
나: 아니요, 지금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긍정 행위에 대한 금지)

가: 지금 밥을 **안 먹어도 돼요**? (부정 행위에 대한 허용)
나: 아니요, 지금 **안 먹으면 안 돼요**. (부정 행위에 대한 금지)

② '-어도 되다'의 '되다' 자리에 '좋다', '괜찮다', '상관없다' 등을 써서 '-어도 좋다', '-어도 괜찮다', '-어도 상관없다'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 사진을 **찍어도 돼요**.
사진을 **찍어도 좋아요**.
사진을 **찍어도 괜찮아요**.
사진을 **찍어도 상관없어요**.

[확장]

① '-어도 되다'의 반대적 의미인 금지 표현으로 '-으면 안 되다'를 사용한다. '-으면 안 되다'는 어떤 조건의 상황에는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예)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도서관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돼요**.
수업에 **지각하면 안 돼요**.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 금지 표현인 '-으면 안 되다'는 '-어야 되다', '-지 않으면 안 되다' 등의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과 관련이 있다.

예)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② 상황에 따라 '-어도 되다'는 허용보다 '요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 선생님: 줄리아 씨, 앞에 나와서 발표해도 돼요. (요청)

줄리아: 네, 제가 발표해도 돼요. (?) / 아니요, 제가 발표하지 않아도 돼요. (?)
네, 제가 발표할게요. (o) / 죄송해요. 제가 발표하지 못할 것 같아요. (o)

사장님: 이 대리가 이 문제를 처리해도 되겠나? (요청)
이 대리: 네, 제가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 아니요, 제가 처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o) /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 담당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도 되다'를 요청이 아닌 허용으로 해석하게 되면 학생은 '네, 제가 발표해도 돼요/아니요, 제가 발표하지 않아도 돼요'로 대답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직장 상사에게 '네, 제가 처리해도 되겠습니다/아니요, 제가 처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로 대답하는 것도 어색하다. 왜냐하면 학생이나 직원은 선생이나 사장의 요청에 대해 허락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보다 공손하고 적절한 표현이 된다. 요청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허락하지 못하겠다는 표현인 '-지 않아도 되다'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음에 대해 돌려서 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유사 문법]

① '-어야 되다', '-어도 되다', '-으면 되다'

-어야 되다	**-어도 되다**	**-으면 되다**
· 조건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낸다.		
· 필수적 의무나 조건을 나타낸다. 예)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내일 안 바쁘면 집에 꼭 **와야 돼요.**	· 허락이나 허용을 나타낸다. 예) 우리 집에 내일 **놀러와도 돼요.** 내일 안 바쁘면 집에 **와도 돼요.**	· 충족하는 조건임을 나타낸다. 예) 늦지 않으려면 9시에 **출발하면 돼요.**

+ 세 표현은 연결어미와 '되다'가 붙어 형태가 유사하며, 의미도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어야 되다'는 필수적 조건을, '-어도 되다'는 선택적 조건을, '-으면 되다'는 충족적 조건을 나타낸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可以'

예) 지금 가**도 됩니까**? - 现在去**可以**吗?
이 책을 봐**도 됩니다**. - **可以**看这本书.
품질만 좋으면 비싸**도 됩니다**. - 只要质量好, 贵点也**可以.**

TV를 틀어**도 됩니까**? - **可以**开电视吗?

② 용법과 오류

- '-어도 되다'의 부정형 '안 -어도 되다', '-지 않아도 되다'와 '-어도 되다'의 반대적 의미인 금지 표현 '-으면 안 되다'를 혼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어도 되다'의 부정형 표현은 중국어 '可以不'에 대응하고 반대적 의미인 금지 표현은 중국어 '不可以'에 대응함을 강조하여 가르쳐야 한다.

예) 가: 지금 가도 돼요?
나: 가지 않아도 돼요. (x)

오늘 제출하면 안 돼요. 내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x)

- '-어도 되다'의 부정형은 '안 -어도 되다', '-지 않아도 되다'이지만 학습자들이 '-어도 안 되다', '-어도 되지 않다'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지금 가도 안 돼요. (x) ('지금 안 가도 돼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오늘은 제출해도 안 돼요. 내일 제출하면 돼요. (x)
('오늘은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못 마시면 마셔도 되지 않아요. (x)
('못 마시면 마시지 않아도 돼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힘들면 가도 되지 않아요. (x) ('힘들면 가지 않아도 돼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3.6.13. '-어야 되다'

-어야 되다[-아야 되다/-여야 되다][표현]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의무나 필요성**을 나타내는 표현.

-어야 되다: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어떤 상태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의무나 필연적 조건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주말에 집에 놀러가도 돼요? 나: 아니요, 주말에는 **청소해야 돼요**. 가: 오늘 쇼핑하러 갈래요? 나: 미안해요,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돼요**. 가: 명동에 가려면 지하철 5호선을 타면 돼요? 나: 아니요, 4호선을 **타야 돼요**. 가: 미도리 씨, 찾는 집이 좁아도 괜찮아요? 나: 아니요, 친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집이 **넓어야 돼요**. 가: 가방이 너무 커요. 나: 가방이 좀 **작아야 되겠어요**.
문장예문	· 식사 후에 약을 **먹어야 돼요.** · 한국어 공부를 하려면 이 책을 **사야 돼요**. · 지각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돼요.** · 차에 타면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 살을 빼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 가수가 되려면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 내일까지 발표 준비를 **마쳐야 돼요**. · 이 옷을 입으려면 다리가 **길어야 돼요**. · 우리가 마실 물은 깨끗한 **물이어야 돼요.** · 한국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 '-어야 되다'는 의무 및 필수 조건을 나타낸다. 따라서 '친구와 함께 살기 때문에 집이 넓어야 돼요. 가방이 더 작아야 돼요, 지각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돼요, 차에 타면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등에서와 같이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일이나 요구되는 필연적 조건에 대해 서술할 때 사용한다.

[도입]

(1)
교사: 수업에 지각해도 돼요?
학생: 아니요, 안 돼요.
교사: 수업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학생: 일찍 일어나요.
교사: 지각하지 않으려면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2)
교사: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요. (여권 사진을 보여 주며) 뭐가 필요해요?
학생: 여권이요.
교사: 여권이 없어도 돼요?
학생: 아니요, 안 돼요.
교사: 여권이 없으면 안 돼요. 여권이 꼭 **있어야 돼요**.
여권을 꼭 **가져가야 돼요**.

+ '-어야 되다'의 도입으로 (1)은 어떤 장소에서 허용이 안 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여 계속해서 예문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일찍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라고 교사가 다시 묻고 학생이 이에 대한 방안을 답하면 다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 도입 (2)는 특정 상황에서 부과되는 필수 조건에 대한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외여행과 관련된 공항이나 비행기 사진 및 여권 사진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여권을 안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와 같은 질문을 부가하여 필수 조건인 여권을 가져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는 게 좋다. 필수적이라는 의미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형태 정보]

① 동사,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인 경우 '-아야 되다'를 쓴다.

예) 일어나- + -아야 되다 → 일어나야 되다　　놓- + -아야 되다 → 놓아야 되다
보- + -아야 되다 → 보아야/봐야 되다　　자- + -아도 되다 → 자야 되다
많- + -아야 되다 → 많아야 되다　　싸- + -아야 되다 → 싸야 되다

② 동사, 형용사 어간 끝음절 모음이 'ㅏ, ㅗ'가 아닌 경우 '-어야 되다'를 쓴다.

예) 먹- + -어야 되다 → 먹어야 되다　　입- + -어야 되다 → 먹어야 되다

쉬- + -어야 되다 → 쉬어야 되다　　마시- + -어야 되다 → 마셔야 되다
적- + -어야 되다 → 적어야 되다　　예쁘- + -어야 되다 → 예뻐야 되다

③ '-하다'가 붙은 동사, 형용사 어간에는 '-여야 되다'를 쓰는데, 흔히 줄여서 '해야 되다'로 쓴다.

예) 운동하- + -여야 되다 → 운동해야 되다
건강하- + -여야 되다 → 건강해야 되다
편하- + -여야 되다 → 편해야 되다
친절하- + -여야 되다 → 친절해야 되다
숙제하- + -여야 되다 → 숙제해야 되다
청소하- + -여야 되다 → 청소해야 되다

①	ㅏ, ㅗ	+ -아야 되다	일어나야 되다, 놓아야 되다, 봐야 되다, 자야 되다, 많아야 되다, 싸야 되다
②	ㅏ, ㅗ 이외	+ -어야 되다	먹어야 되다, 입어야 되다, 쉬어야 되다, 마셔야 되다, 적어야 되다, 예뻐야 되다
③	-하다	+ -여야 되다 (-해야 되다)	운동해야 되다, 건강해야 되다, 편해야 되다, 친절해야 되다, 숙제해야 되다, 청소해야 되다

④ '이다, 아니다'도 '-어야 되다'를 쓴다. 단, '-이다' 앞의 명사에 받침이 없으면 주로 '명사+-여야 되다'라고 쓴다.

예) 꽃이- + -어야 되다 → 꽃이어야 되다　　공책이- + -어야 되다 → 공책이어야 되다
나무이- + -어야 되다 → 나무이어야 되다/나무여야 되다　　가수이- + -어야 되다 → 가수이어야 되다/가수여야 되다
아니- + -어야 되다 → 아니어야 되다

⑤ 불규칙 동사
듣-　예)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돕-　예)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요**.
낫-　예) 미도리 씨, 감기에서 빨리 **나아야 돼요**.
하얗-　예) 웨딩드레스는 **하얘야 돼요**.
빠르-　예) 식사 시간이 더 **빨라야 돼요**.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은 '-지 않아야 되다', '안 -어야 되다'로 쓴다. '안 -어야 되다'는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아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술은 **안 마셔야 돼요**.

+ 어떤 행위가 의무적이어야 함을 나타내는 '-어야 되다'의 부정인 '-지 않아야 되다', '안 -어야 되다'는 그 반대 행위가 의무적이어야 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학교에 출석해야 돼요.'는 출석하는 행위가 의무적이어야 함을 나타내는 데 비해 '학교에 결석하지 않아야 돼요.'는 결석하지 않는 행위가 의무적이어야 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위의 표현은 의무적인 행위나 상태에 대한 부정을 나타낸다. '의무' 자체에 대한 반의는 '의무가 아님'이므로 허용이 된다.

예) 가: 약을 먹기 전에 밥을 **먹어야 돼요**? (긍정 행위에 대한 의무)
나: 아니요,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긍정 행위에 대한 금지)
아니요, 밥을 **안 먹어도 돼요.** (부정 행위에 대한 허용)

가: 약을 먹을 때 물을 **안 마셔야 돼요**? (부정 행위에 대한 의무)
나: 아니요, 물을 **안 마시면 안 돼요**. (부정 행위에 대한 금지)
아니요, 물을 **마셔도 돼요**. (긍정 행위에 대한 허용)

[확장]

① 보조사 '만'이 함께 쓰여 '-어야만 되다'의 구성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만 돼요.**
부모님과 한 약속은 꼭 **지켜야만 돼요**.
다이어트에 반드시 **성공해야만 돼요**.
나쁜 습관은 꼭 **고쳐야만 돼요.**
이번 과제는 주말까지 **끝내야만 돼요.**

+ 의무를 더욱 강조하는 상황에서 사용한다. '꼭', '반드시'와 같은 부사와 함께 주로 사용한다.

② 의무나 조건에 대한 의미는 듣는 이에게 부담을 주므로 공손하지 못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특히 윗사람에게는 쓰기 어렵다.

예) 선생님, 여기에 **계셔야 됩니다**. (공손하지 못함)
선생님, 여기에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손함)

③ 과거로 쓰면 현재 이루지 못한 행위나 상태에 대한 후회의 의미가 나타난다.

예) 기차를 타려면 더 일찍 **일어났어야 돼요**.
기차를 타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됐어요**.
기차를 타려면 더 일찍 **일어났어야 됐어요**.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려면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돼요**.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됐어요.**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려면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됐어요.**

+ 위의 예문은 각각 기차를 타지 못하여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

해 후회하고 있다. 과거 '-었-'이 붙어 '-었어야 되다', '-어야 됐다', '-었어야 됐다'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유사 문법]

① '-어야 되다', '-지 않으면 안 되다'

-어야 되다	**-지 않으면 안 되다**
· '당위적인 의무'나 '필연적 조건'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당위적 의무를 나타낸다. 예) 이번 방학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	· '-으면 되다'의 이중 부정 표현으로 '-어야 되다'보다 단호하고 강한 표현이 된다. 예) 이번 방학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어야 되다', '-어도 되다', '-으면 되다'

-어야 되다	**-어도 되다**	**-으면 되다**
· 조건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낸다.		
· 필수적 의무나 조건을 나타낸다. 예)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내일 안 바쁘면 집에 꼭 **와야 돼요.**	· 허락이나 허용을 나타낸다. 예) 우리 집에 내일 **놀러와도 돼요.** 내일 안 바쁘면 집에 **와도 돼요.**	· 충족하는 조건임을 나타낸다. 예) 늦지 않으려면 9시에 **출발하면 돼요.**

+ 세 표현은 연결어미와 '되다'가 붙어 형태가 유사하며, 의미도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어야 되다'는 필수적 조건을, '-어도 되다'는 선택적 조건을, '-으면 되다'는 충족적 조건을 나타낸다.

③ '-어야 되다', '-어야 하다'

-어야 되다	**-어야 하다**
· '당위적인 의무'나 '필연적 조건'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둘은 의미상의 차이 없이 사용 가능하다.	
예) 농구 선수는 키가 **커야 돼요**. 농구 선수는 키가 **커야 해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u>해야 해요</u>**.

· 피동의 의미를 가지며 구어나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 예) 지금 **<u>가야 돼요</u>**. (구어) 건강하려면 운동을 **<u>해야 돼</u>**. (비격식적 상황)	· 능동의 의미를 가지며 문어나 격식적인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 예) 지금 전원 **<u>출발해야 합니다.</u>** (문어)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u>해야 합니다.</u>** (격식적 상황)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得, 应该

예) 시간이 없어요. 빨리 **떠나야 돼요**. - 没时间了. **得**赶快出发.
명동에 가려면 지하철 4호선을 **타야 돼요**. - 要想去明洞, **得**做地铁4号线.
다이어트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 想要减肥, **得**运动.
열이 나면 약을 **먹어야 된다**. - 发烧**应该**吃药.

② 용법과 오류

- 현재 이루지 못한 행위나 상태에 대한 후회의 의미로 쓰일 때 '-었어야 되다', '-어야 되었다', '-었어야 되었다' 형태로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었-'을 사용해야 하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시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었-'을 사용하지 않는 오류를 보인다.

예) 어제 저녁에 행사에 가야 돼. (x)
어제 그녀를 만나야 돼. (x)
작년에 토픽 시험을 봐야 돼. (x)

3.6.14. '-은 것'

-은 것[-ㄴ 것][표현]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여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표현.

-은 것1): (동사에 붙어) 과거의 어떤 행위나 사실을 설명함을 나타내거나 행위와 관련된 사물을 가리킨다. 결합하는 말이 문장 내에서 명사로 기능하게 하여 주어나 목적어 및 서술어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이 너무 속상해요. 나: 분실물 센터에 가 보세요. 가: 제가 방금 **먹은 것**이 뭐예요? 나: 한국 전통 음식인 잡채예요. 가: 줄리아 씨가 아까 **본 것**이 뭐예요? 나: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예요. 가: 눈이 오면 뭐가 생각나요? 나: 어렸을 때 아빠와 함께 눈사람을 **만든 것**이 생각나요. 가: 미도리 씨,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나: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을 잊을 수 없어요.
문장예문	· 나는 지갑을 **찾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 처음으로 스키를 **탄 것**이 5년 전이에요. · 이 책은 제가 다 **읽은 것**이에요. ·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으며 **걸은 것**이 기억나요. · 이 대학에 **합격한 것**이 정말 기뻐요. · 이 편지는 왕밍 씨가 손으로 **쓴 것**이에요. · 제 빵은 오늘 아침에 **구운 것**으로 주세요. · 제가 **마신 것**이 수지 씨의 커피였어요? · 흐엉 씨가 **결혼한 것**을 몰랐어요. · 명동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알려드립니다.

+ '-은 것'은 동사에 붙어 명사로 기능하게 하는 표현으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이 가장 속상해요./ 제가 방금 먹은 것이 뭐예요?/ 줄리아 씨가 아까 본 것이 뭐예요?'에서는 주어의 역할을 하며,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을 잊을 수 없어요./ 나는 지갑을 찾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흐엉

씨가 결혼한 것을 몰랐어요.'에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이 책은 제가 다 읽은 것이에요./ 이 편지는 왕밍 씨가 손으로 쓴 것이에요.'에서는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 '-은 것'의 '것'은 행위나 사실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으며, 행위와 관련된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다. '처음으로 스키를 탄 것이 5년 전이에요./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으며 걸은 것이 기억나요.' 등에서 '것'은 행위나 사실 자체를 가리키는 데 비해 '제 빵은 오늘 아침에 구운 것으로 주세요./ 제가 마신 것이 수지 씨의 커피였어요?/ 이 책은 제가 다 읽은 것이에요.' 등에서 '것'은 행위와 관련된 사물을 가리킨다.

[도입]

(1)
교사: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기억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학생: 버스를 잘못 탔어요.
교사: 왕밍 씨는 버스를 잘못 **탄 것**이 기억나요. 흐엉 씨는요?
학생: 저는 매운 음식을 먹고 울었어요.
교사: 흐엉 씨는 매운 음식을 먹고 **운 것**이 기억나요.

(2)
교사: 고향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학생: 바다에서 수영을 했어요.
교사: 줄리아 씨는 고향에서 수영을 했어요. 잊을 수 없어요. 고향에서 **수영한 것**을 잊을 수 없어요. 미도리 씨는요?
학생: 저는 축제에 갔어요.
교사: 미도리 씨는 축제에 갔어요. 잊을 수 없어요. **축제에 간 것**을 잊을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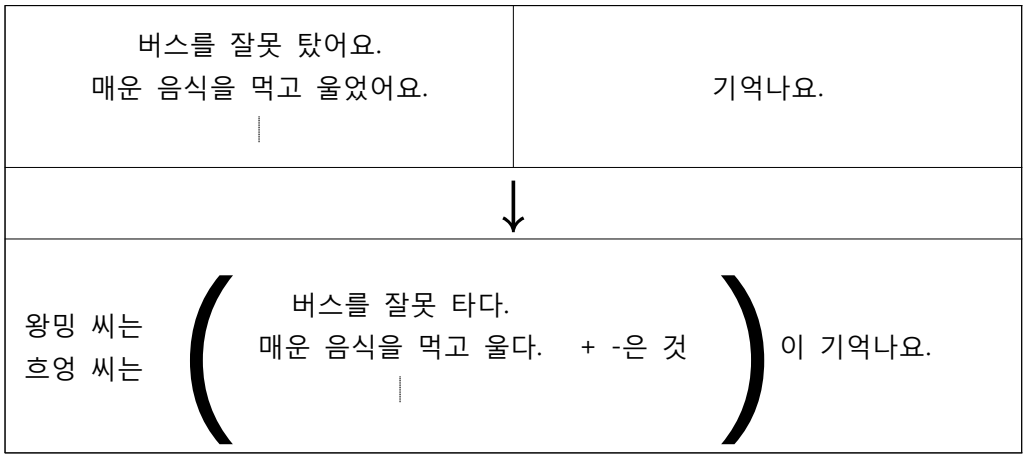
(3)
교사: (커피를 마신 후) 선생님이 지금 **마셨어요.** 무엇이에요?
학생: 커피요.
교사: 선생님이 마셨어요. 커피예요. 선생님이 **마신 것**이 커피예요. (옷을 입은 후) 선생님이 **입었어요.** 무엇이에요?
학생: 선생님이 **입은 것**이 옷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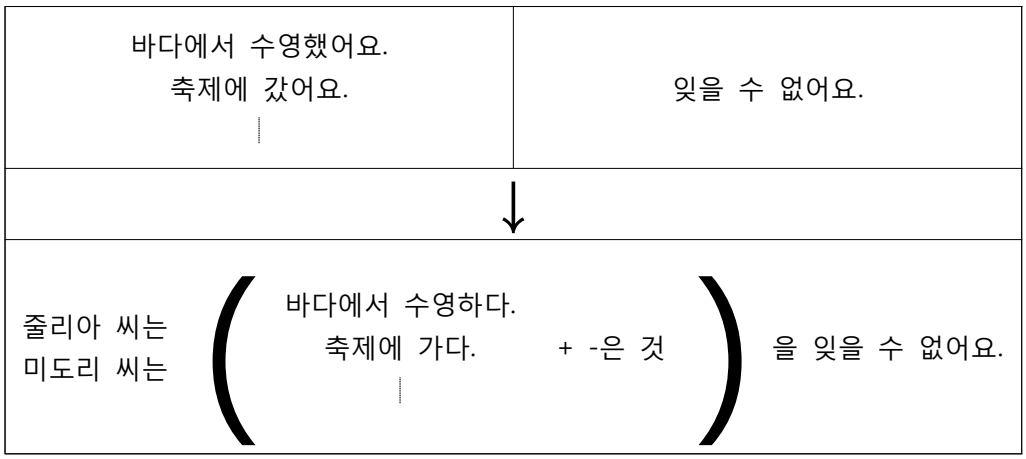
+ 도입(1)은 '-은 것'을 주어로 사용하는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에게 한국에 처음 와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게 하고 '-은 것이 기억나다'라는 문장으로써 주어의 자리에 오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 주는 기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입(2)는 '-은 것'을 목적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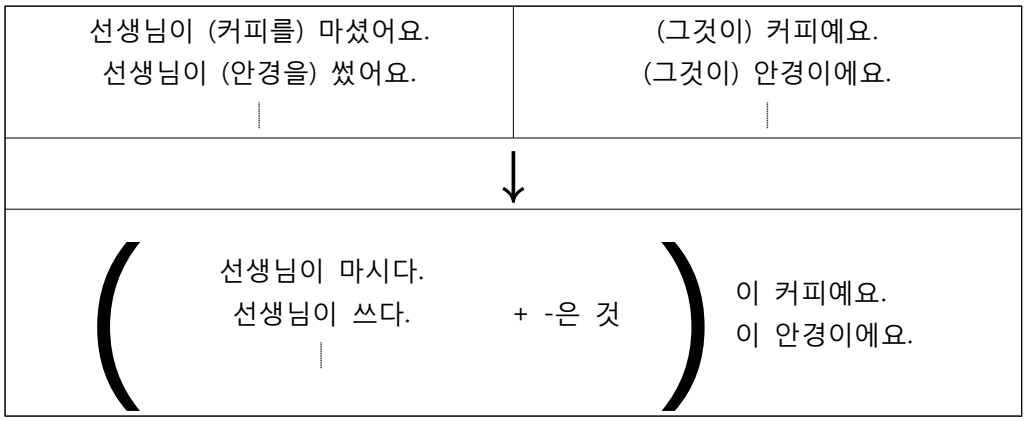
사용하는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은 것을 잊을 수 없다'라는 문장으로서 목적어의 자리에 오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 주는 기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게 좋다. 도입(3)은 '-은 것'의 '것'이 행위나 사실 자체가 아닌 행위와 관련된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이다.

+ 다음과 같이 원래 명사의 자리에 문장이 온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예)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 것'을 쓴다.

예) 씻- + -은 것 → 씻은 것　　받- + -은 것 → 받은 것
찾- + -은 것 → 찾은 것　　읽- + -은 것 → 읽은 것
먹- + -은 것 → 먹은 것　　놓- + -은 것 → 놓은 것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이 오면 '-ㄴ 것'을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타- + -ㄴ 것 → 탄 것　　배우- + -ㄴ 것 → 배운 것
보- + -ㄴ 것 → 본 것　　마시- + -ㄴ 것 → 마신 것
놀- + -ㄴ 것 → 논 것　　만들- + -ㄴ 것 → 만든 것

①	받침 o	+ -은 것	씻은 것, 받은 것, 찾은 것, 읽은 것, 먹은 것, 놓은 것
②	받침 ×	+ -ㄴ 것	탄 것, 배운 것, 본 것, 마신 것
	ㄹ 받침	+ -ㄴ 것 (어간 'ㄹ' 탈락)	논 것, 만든 것

③ 불규칙
듣- 예) 어제 수업 시간에 들은 것이 기억나지 않아요.
줍- 예) 제가 주운 것은 지갑이에요.
잇- 예) 아버지의 뒤를 이은 것은 제가 아니라 동생입니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지 않은 것', '안 -은 것'으로 쓴다. '안 -은 것'은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 제 휴대폰을 **만지지 않은 것**이 확실해요?
제 휴대폰을 **안 만진 것**이 확실해요?
제가 공책에 **쓰지 않은 것**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제가 공책에 **안 쓴 것**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② 높임은 '-으신 것'으로 쓴다.

예) 할머니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렸어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뭐예요?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형용사와 결합하면 '-은 것2)'의 의미가 된다.

예) 왕밍 씨는 학교가 **가까운 것**을 좋아했어요. (형용사 결합: '-은 것2)')
왕밍 씨와 학교에 **다닌 것**을 기억해요. (동사 결합: '-은 것1)')

② '-은 것1)'의 '-은'이 과거를 나타내므로, 과거나 미래를 나타내는 '-었-', '-겠-'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 비가 많이 와서 우비를 **입었은 것**이 기억나요. (x)
비가 올 때 새 우산을 **쓰겠은 것**으로 기대돼요. (x)
눈이 내려서 모자를 **썼은 것**이 생각나요. (x)
눈이 내릴 때 같이 길을 **걷겠은 것**으로 약속해요. (x)

[확장]

① '-는 것'은 현재, '-은 것/-ㄴ 것'은 과거 및 현재, '-을 것2/-ㄹ 것2'는 미래의 행위나 상태 및 사실을 나타낸다.

결합어의 품사	시제 및 형태		예문
동사	현재	-는 것	지금 **찾는 것**이 지갑이에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요.
	과거	-은 것 -ㄴ 것	지갑을 **찾은 것**을 기억해요. 한국어를 **공부한 것**이 도움이 돼요.
	미래	-을 것2 -ㄹ 것2	반드시 지갑을 **찾을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공부할 것**이 기대돼요.
형용사	현재	-은 것 -ㄴ 것	저는 날씨가 **맑은 것**을 좋아해요. 수지 씨는 날씨가 **흐린 것**을 좋아해요.
	미래	-을 것2 -ㄹ 것2	내일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지 씨는 날씨가 **흐릴 것**을 기대한다.

+ '-었던 것', '-던 것'으로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동사 및 형용사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형용사의 과거에는 '-은'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형용사의 과거는 '-었던 것', '-던 것'으로만 쓴다.

예) 입- + -었던 것/-던 것 → 입었던 것/입던 것
잡- + -았던 것/-던 것 → 잡았던 것/잡던 것
재미있- + -었던 것/-던 것 → 재미있었던 것/재미있던 것
나쁘- + -았던 것/-던 것 → 나빴던 것/나쁘던 것

② 의존명사 '것'은 문장 내의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하거나 행위 자체를 지시하기도 한다.

예) 교사 + -인 것 → 교사인 것
학생 + -인 것 → 학생인 것

예) 저번 주에 **본 것**이 이 영화예요. (문장 내 사물)
비행기를 **탄 것**이 처음이에요. (행위 자체)
어제 수지를 **만났던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행위 자체)

③ '-은 것이'를 줄여 '-은 게'로, '-은 것을'을 줄여 '-은 걸'로 쓰기도 한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 점심에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요.

아사코 씨가 **화난 게** 누구 때문이에요?
대학에 **합격한 걸** 축하합니다.
의사가 **된 걸** 축하해요.

+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은 것이다'는 '-은 것입니다', '-은 것이에요', '-은 것이다', '-은 것이야', '-은 것일까' 등 다양하게 활용하며 이는 각각 '-은 겁니다', '-은 거예요', '-은 거다', '-은 거야', '-은 걸까'로 줄여 쓴다.

④ 완료된 행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는 '-어 있는 것'이나 '-고 있는 것'의 의미로 사용된다.
예) 제가 지금 **입은 것**이 영수 씨 옷이에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이 영수 씨 옷이에요.
저기 문 앞에 **떨어진 것**이 뭐예요?
=저기 문 앞에 **떨어져 있는 것**이 뭐예요?

[유사 문법]
① '-는 것/-은 것/-을 것2', '-기'

-는 것, -은 것, -을 것2	**-기**
· 동사, 형용사 또는 '이다', '아니다' 등에 붙어 그 말이 문장 내에서 명사 기능을 하게 한다.	
· 뒤에 나오는 서술어에 제약이 거의 없다. 예) 흐엉 씨가 **성실한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비가 올 때 **걷는 것**을 좋아한다.	· 뒤에 나오는 서술어에 제약이 있다. 예) 흐엉 씨가 **성실하기**를 알고 있다. (x) 나는 비가 올 때 **걷기**를 좋아한다. (o)
· 동사와 형용사, '이다', '아니다'의 관형사형의 시제에 따라 '-는 것', '-은 것', '-을 것'이 나뉘어 쓰인다. 예) 그가 **가는 것**이 보인다. (동사 현재) 순희가 **예쁜 것**이 확실하다. (형용사 현재) 그 도둑이 **잡힌 것**을 나중에 들었다. (동사 과거) 영희가 **학생인 것**이 맞니? ('이다' 현재) 그가 **갈 것**이 예정되어 있다. (동사 미래)	· 동사와 형용사, '이다', '아니다' 모두에 '-기'가 붙는다. 시제는 과거와 미래를 나타내는 '-었-'과 '-겠-'이 붙어 '-었기', '-겠기'로 나타낸다. 예) 그는 아침에 **조깅하기**를 좋아한다. 영희가 **예쁘기**는 예쁘지? 저희 아버지께서 **교사였기에** 매우 엄하셨습니다. 이제는 수업을 **끝내야겠기에** 질문을 받지 않겠어요.

②'-는 것/-은 것/-을 것2', '-음'

-는 것, -은 것, -을 것2	**-음**
동사, 형용사 또는 '이다', '아니다' 등에 붙어	

그 말이 문장 내에서 명사 기능을 하게 한다.	
· 뒤에 나오는 서술어에 제약이 거의 없다. 예) 흐엉 씨가 **성실한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비가 올 때 **걷는 것**을 좋아한다.	· 뒤에 나오는 서술어에 제약이 있다. 예) 흐엉 씨가 **성실함**을 알고 있다. (o) 나는 비가 올 때 **걸음**을 좋아한다. (x)
· 동사와 형용사, '이다', '아니다'의 관형사형의 시제에 따라 '-는 것', '-은 것', '-을 것'이 나뉘어 쓰인다. 예) 그가 **가는 것**이 보인다. (동사 현재) 순희가 **예쁜 것**이 확실하다. (형용사 현재) 그 도둑이 **잡힌 것**을 나중에 들었다. (동사 과거) 영희가 **학생인 것**이 맞니? ('이다' 현재) 그가 **갈 것**이 예정되어 있다. (동사 미래)	· 동사와 형용사, '이다', '아니다' 모두에 '-음'이 붙는다. 예) 그가 일을 그렇게 **처리함**은 현명하다. 그가 가장 **어리석었음**이 드러났다.
· 미래 표현 '-을 것'은 종결형에서뿐 아니라 문장 속에 안겨서도 쓸 수 있다. 예) 그가 **갈 것**. (o) 그가 **갈 것**이 예정되어 있다. (o)	· 미래 표현 '-겠음'은 종결형으로만 쓰이고 문장 속에 안겨 쓰이지 않는다. 예) 내가 **가겠음**. (o) 그가 **가겠음**이 예정되어 있다. (x)
· 문어와 구어에 관계없이 쓰인다. 예) 그는 밤새 친구가 **왔다간 것**을 알았다. (o) / 밤새 친구가 **왔다간 거** 알았어? (o) 나는 피로로 온몸이 **무거워진 것**을 느꼈다. (o) / 가방이 **무거워진 거** 느꼈어? (o)	· 문어에서 주로 사용한다. 예) 그는 밤새 친구가 **왔다갔음**을 알았다. (o) / 밤새 친구가 **왔다갔음**을 알았어? (?) 나는 피로로 온몸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o) / 가방이 **무거워짐**을 느꼈니? (?)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 (o)

③ '-은 것', '-던 것', '-었던 것'

-은 것	**-던 것**	**-었던 것**
· 과거의 어떤 행위나 사실을 설명함을 나타낸다.		
· 과거에 완료된 행위나 완료된 후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사물이나 사건을 나타낸다. 예) 어제 아침에 줄리아 씨가 **읽은 것**이 뭐예요?	· 과거에 완료되지 않은(중단된) 행위와 관련된 사물이나 사건을 나타낸다. 예) 어제 아침에 줄리아 씨가 **읽던 것**이 뭐예요? / 흐엉 씨가 **마시던 것**이	· 과거의 일을 회상하거나 완료된 행위와 관련된 사물이나 사건을 나타낸다. 예) 어제 아침에 줄리아 씨가 **읽었던 것**이 뭐예요?

/ 흐엉 씨가 **마신 것**이 한국의 전통 음료예요.	한국의 전통 음료예요.	/ 흐엉 씨가 **마셨던 것**이 한국의 전통 음료예요.
· 과거에 지속되거나 반복된 사건이나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지 않는다. 예) 그 빵은 내가 대학 때 자주 먹은 것이다. (??) 주말마다 친구와 함께 기차 여행을 간 것이 기억난다. (??)	· 과거에 지속되거나 반복된 사건이나 행위를 나타낸다. 예) 그 빵은 내가 대학 때 자주 먹던 것이다. 주말마다 친구와 함께 기차 여행을 가던 것이 기억난다.	· 과거에 지속되거나 반복된 사건이나 행위를 나타낸다. 예) 그 빵은 내가 대학 때 자주 먹었던 것이다. 주말마다 친구와 함께 기차 여행을 갔던 것이 기억난다.
· 과거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동사와만 결합한다. 예) 키가 작은 영수가 키가 많이 컸다. (??)	· 과거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동사뿐 아니라 형용사와도 결합한다. 예) 키가 작던 영수가 키가 많이 컸다.	· 과거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동사뿐 아니라 형용사와도 결합한다. 예) 키가 작았던 영수가 키가 많이 컸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的'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방금 저한테 **준 것**이 뭐예요? - 刚才给我**的**是什么东西啊?
제가 **마신 것**이 영희 씨 커피였어요. - 我喝**的**是英姬的咖啡.
철수 씨가 **결혼한 걸** 몰랐어요. - 我不知道哲洙结婚了.
영희가 대학에 **붙은 걸** 이제야 알았어요. - 今天才知道英姬考上大学了.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의 동사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ㄴ 것'을 써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동사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받침 있는 어간 뒤에 쓰이는 '-은 것'을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제가 직접 만들은 거예요. (x)
이 신발은 지난 주말에 살은 거예요. (x)

- '-는 것'과 '-은 것'이 중국어 표현에서는 구별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은 것'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는 것'을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이 옷은 어제 사는 거예요. (x)
지난 주말에 찍는 거예요. (x)

- 전성 어미 '-기', '-음'도 중국어에 대응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은 것'과 혼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어제 저녁에 보기가 뭐였어요? (x) ('본 것이'로 표현해야 할 경우)

지난 주말에 샀음이 마음에 들어요. (x) ('산 것이'로 표현해야 할 경우)
철수 씨가 이번에 시험을 잘 보는 것을 바랍니다. (x)
('잘 보기를 바랍니다'로 표현해야 할 경우)

-은 것2):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현재의 어떤 상태나 상황을 설명함을 나타내거나 행위와 관련된 사물을 가리킨다. 결합하는 말이 문장 내에서 명사로 기능하게 하여 주어나 목적어 및 서술어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이 집이 마음에 드세요? 나: 아니요, 방이 **좁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가: 어떤 가방이 마음에 드세요? 나: **작은 것**보다 **큰 것**이 더 예뻐요. 가: 어떤 색깔의 재킷이 저에게 잘 어울려요? 나: 색깔이 더 **진한 것**이 잘 어울려요. 가: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나: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오. 가: 줄리아 씨, 김치찌개 드실래요? 나: 아니요, 저는 **매운 것**을 못 먹어요.
문장예문	· 구두는 **낮은 것**이 건강에 좋아요. · 저는 드라마가 **슬픈 것**을 싫어해요. · 마당이 **넓은 것**을 좋아해요. · 저는 날씨가 **추운 것**을 제일 싫어해요. · 성공이란, 돈이 **많은 것**보다 친구가 **많은 것**이다. · 가방에 **무거운 것**이 많이 들어 있어요. · 산에 가면 공기가 **깨끗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 저는 방이 **더러운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 앤디 씨가 **아픈 것**을 몰랐어요. · 너무 **편한 것**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 영수 씨가 **교사인 것**을 알아요. . 이제는 아이가 **아닌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 '-은 것'은 동사, 형용사에 붙어 명사로 기능하게 하는 표현으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방이 좁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작은 것보다 큰 것이 더 예

뻐요./ 색깔이 더 진한 것이 잘 어울려요.'에서는 주어의 역할을 하며, '저는 매운 것을 못 먹어요./ 저는 드라마가 슬픈 것을 싫어해요./ 앤디 씨가 아픈 것을 몰랐어요.'에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성공이란 ~ 친구가 많은 것이다.'에서는 서술어로 사용되었다.

+ '-은 것'의 '것'은 상태나 상황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으며, 관련된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다. '마당이 넓은 것을 좋아해요./ 저는 날씨가 추운 것이 제일 싫어요.' 등에서 '것'은 상태나 상황 자체를 가리키는 데 비해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예뻐요./ 색깔이 더 진한 것이 잘 어울려요./ 매운 것을 못 먹어요.' 등에서 '것'은 관련된 사물을 가리킨다.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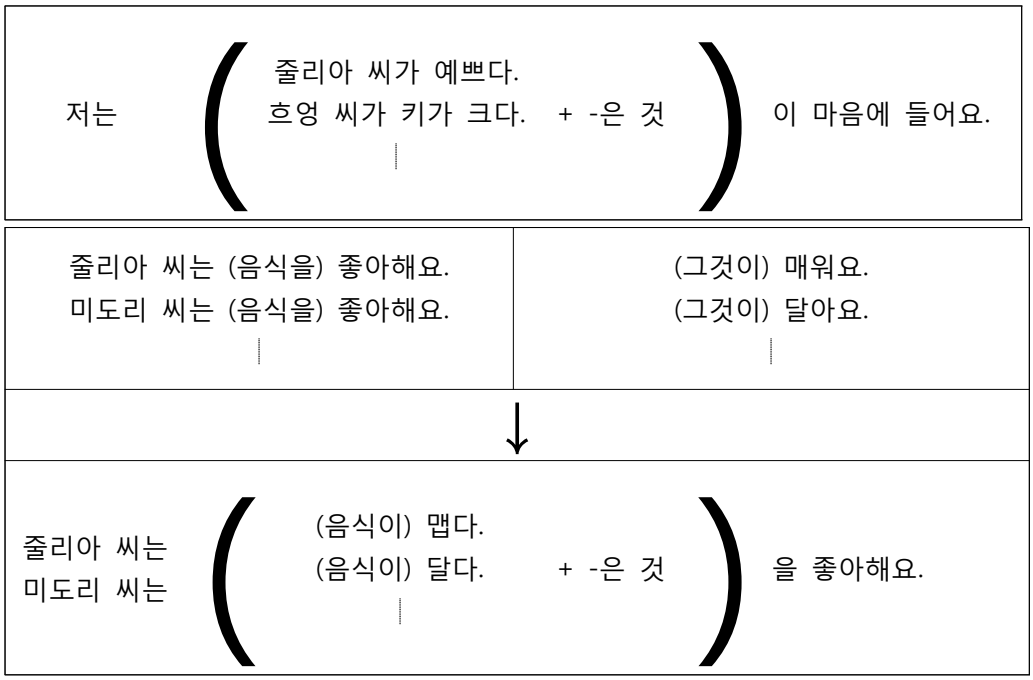
(1)
교사: 왕밍 씨, 줄리아 씨의 무엇이 마음에 들어요?
학생: 착해요.
교사: 왕밍 씨는 줄리아 씨가 **착한 것**이 마음에 들어요. 줄리아 씨, 왕밍 씨의 무엇이 마음에 들어요?
학생: 키가 커요.
교사: 줄리아 씨는 왕밍 씨가 키가 **큰 것**이 마음에 들어요.

(2)
교사: 여러분, 어떤 맛의 음식을 좋아해요?
학생: 단 음식을 좋아해요.
교사: 줄리아 씨는 단 음식을 좋아해요. 줄리아 씨는 **단 것**을 좋아해요. 미도리 씨는요?
학생: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교사: 미도리 씨는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미도리 씨는 **매운 것**을 좋아해요.

+ 도입(1)은 '-은 것'을 주어로 사용하는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들이 '얼굴이 예쁘다, 키가 크다, 마음이 착하다, 양보를 잘한다' 등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문장 카드를 제시해 주는 것도 좋다. 도입(2)는 '-은 것'을 목적어로 사용하는 상황으로 구성하였는데, 어떤 맛의 음식을 좋아하는지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맛과 관련된 단어 카드를 준비하는 게 좋다. 도입(1)은 '-은 것'이 상황이나 상태 자체를 가리키며, 이에 비해 도입(2)의 '-은 것'은 관련된 사물을 가리킨다.
+ 다음과 같이 원래 명사의 자리에 문장이 온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예)

줄리아 씨가 예뻐요. 흐엉 씨가 키가 커요. ⋮	마음에 들어요.
↓	



[형태 정보]

앞의 '-은 것1)'을 참고하되, 형용사와 '이다, 아니다'에 결합하므로 이에 주의한다.

① '이다, 아니다'는 '-ㄴ 것'을 쓴다.

예) 영수 씨가 **교사인 것**을 알아요.
앤디 씨가 미국 **사람인 것**을 몰랐어요?
이제는 아이가 **아닌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고향 음식이 **아닌 것**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② '있다, 없다'나 '있다, 없다'가 붙은 형용사는 동사에 결합하는 것처럼 '-는 것'을 붙여 사용한다.

예) 방에 **있는 것**을 모두 옮기세요.
저에게 **없는 것**은 여자 친구뿐이에요.
요즘 제일 **맛있는 것**이 사과예요.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것**을 하며 놀고 싶어요.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지 않은 것', '안 -은 것'으로 쓴다. '안 -은 것'은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 키가 **크지 않은 것**은 불편하다.
키가 **안 큰 것**은 불편하다.
커피가 **달지 않은 것**이 있으면 주세요.
커피가 **안 단 것**이 있으면 주세요.

② 높임은 '-으신 것'으로 쓴다.

예) 할머니께서 **좋으신 것**을 고르세요.
사장님께서 **편하신 것**을 입으세요.

+ '좋으신 것, 편하신 것'의 '-시-'는 수식하는 명사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인 '할머니, 사장님'이 윗사람이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다.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것, 사장님께서 편해하시는 것'이라는 의미로 '-시-'가 사용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제약 정보]

① 동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동사와 결합하면 '-은 것1)'의 의미가 된다.

예) 왕밍 씨와 학교에 **다닌 것**을 기억해요. (동사 결합: '-은 것1)')
왕밍 씨는 학교가 **가까운 것**을 좋아했어요. (형용사 결합: '-은 것2)')

② 과거나 미래를 나타내는 '-었-', '-겠-'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 백화점에서 코트가 **비쌌은 것**이 기억나요. (x)
백화점에서 코트가 **비싸겠은 것**으로 생각돼요. (x)
그 영화가 **슬펐은 것**으로 생각나요. (x)
그 영화가 **슬프겠은 것**으로 기대돼요. (x)

[확장]

① '-는 것'은 현재, '-은 것/-ㄴ 것'은 과거 및 현재, '-을 것2/-ㄹ 것2'은 미래의 행위나 상태 및 사실을 나타낸다.

결합어의 품사	시제 및 형태		예문
동사	현재	-는 것	지금 **찾는 것**이 지갑이에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요.
	과거	-은 것 -ㄴ 것	지갑을 **찾은 것**을 기억해요. 한국어를 **공부한 것**이 도움이 돼요.
	미래	-을 것2 -ㄹ 것2	반드시 지갑을 **찾을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공부할 것**이 기대돼요.
형용사	현재	-은 것 -ㄴ 것	저는 날씨가 **맑은 것**을 좋아해요. 수지 씨는 날씨가 **흐린 것**을 좋아해요.
	미래	-을 것2 -ㄹ 것2	내일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지 씨는 날씨가 **흐릴 것**을 기대한다.

+ '-었던 것', '-던 것'으로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동사 및 형용사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형용사의 과거에는 '-은'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형용사의 과거는 '-었던 것', '던 것'으로만 쓴다.

예) 입- + -었던 것/-던 것 → 입었던 것/입던 것
잡- + -았던 것/-던 것 → 잡았던 것/잡던 것

재미있- + -었던 것/-던 것 → 재미있었던 것/재미있던 것
나쁘- + -았던 것/-던 것 → 나빴던 것/나쁘던 것

+ 'N+이다' 서술어는 '-인 것'의 구성으로 쓸 수 있다.

예) 교사 + -인 것 → 교사인 것
학생 + -인 것 → 학생인 것

② 의존명사 '것'은 문장 내의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하거나 상태 자체를 지시하기도 한다.

예) 기분이 나쁠 때 제일 **좋은 것**은 영화를 보는 거예요. (상태 자체)
몸이 건강한 것보다 마음이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하다. (상태 자체)
이렇게 **예쁜 것**이 제 것이라고요? (문장 내 사물)

③ '-은 것이'를 줄여 '-은 게'로, '-은 것을'을 줄여 '-은 걸'로 쓰기도 한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 가격이 **싼 게** 이것뿐이에요?
저는 방이 **좁은 게** 더 좋아요.
이 중에 제일 **좋은 걸** 주세요.
늦은 걸 사과합니다.

+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은 것이다'는 '-은 것입니다', '-은 것이에요', '-은 것이다', '-은 것이야', '-은 것일까' 등 다양하게 활용하며 이는 각각 '-은 겁니다', '-은 거예요', '-은 거다', '-은 거야', '-은 걸까'로 줄여 쓴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的'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큰 것**보다 **작은 것**이 더 귀여워요. - 小**的**比大**的**可爱.
저는 **매운 것**을 못 먹어요. - 我不能吃辣**的**.
영희 씨가 **아픈 것**을 몰랐어요. - 我不知道英姬生病了.
저는 날씨가 **추운 것**을 싫어해요. - 我不喜欢冷天气.

② 용법과 오류
- 동사 어간에 결합하는 '-는 것'과 혼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철수가 그렇게 바쁘는 것을 몰랐다. (x)
동생이 키가 이렇게 크는 걸 오늘에야 알았다. (x)

- 전성 어미 '-기', '-ㅁ/음'도 중국어에 대응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은 것'과 혼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저는 날씨가 더움이 싫어요. (x) ('더운 것이'로 표현해야 할 경우)
저는 맵기를 잘 먹어요. (x) ('매운 것을'로 표현해야 할 경우)

3.6.15. '-은 적이 있다'

-은 적이 있다[-ㄴ 적이 있다]{-은 적이 없다/-ㄴ 적이 없다}[표현]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

-은 적이 있다: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가 과거에 있었던 일임을 나타낸다. 과거의 사건이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왕밍 씨, 불고기 먹어 봤어요? 나: 네, 중국에서 불고기를 **먹은 적이 있어요**. 가: 한국 영화관에 가 봤어요? 나: 네, 미도리 씨랑 같이 영화관에 **간 적이 있어요**. 가: 어느 나라 음식을 좋아해요? 나: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해요. 가: 이탈리아에 **가 본 적이 있어요?** 나: 아니요, 아직 안 가 봤어요. 가: 지갑을 **읽어버린 적이 있어요**? 나: 네,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몇 번 **있어요**. 가: 한복을 **입은 적이 있어요**? 나: 아니요, 한복을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장예문	· 나는 한국 신문을 **읽은 적이 있다**. · 너는 중국에 가 **본 적이 있다.** · 영철이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적이 있다**. · 수지는 연예인을 **만난 적이 있다**. · 왕밍 씨는 비싼 가방을 **산 적이 있다**. · 분티안 씨는 배를 **탄 적이 있다**. · 현우는 스파게티를 **만든 적이 있다**. · 앤디 씨는 내 노래를 **들은 적이** 한 번 **있다**. · 아사코 씨는 무서운 꿈을 **꾼 적이** 전혀 **없다**. · 영수는 밤을 새워 **공부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 '-은 적이 있다'는 과거의 일이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불고기를 먹은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간 적이 있어요'와 같이 전에는 해 보지 않은 일을 해 봤을 때 사용한다. 이때 '적'은 '때'의 의미와 비슷하다.

[도입]

(1)
교사: 꾸앙 씨, 도서관에 가요?
학생: 네, 저는 매일 도서관에 가요.
교사: 그럼, 어학실습실에도 가요?
학생: 네, 어학실습실에 한 번 갔어요.
교사: 꾸앙 씨는 어학실습실에 한 번 갔어요. 꾸앙 씨는 어학실습실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2)
교사: 줄리아 씨, 한국 음식을 먹어 봤어요?
학생: 네, 한국 음식을 먹어 봤어요.
교사: 줄리아 씨는 한국 음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어 봤어요?
학생: 김치를 먹어 봤어요.
교사: 줄리아 씨는 김치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김치를 **만든 적이 있어요**?
학생: 아니요, 김치를 만들어 보지 않았어요.
교사: 줄리아 씨는 김치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김치를 **만든 적은 없어요**.

+ 도입(1)에서는 '-어 보다'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과거인 '-었다'와의 차이를 통해 '-은 적이 있다'를 제시한다. 도입(2)는 '-어 보다'를 사용하여 '-은 적이 있다'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 '-은 적이 있다'는 경험한 일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므로 학생이 한국에 와서 경험해 본 일이나 한국과 관련하여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경험의 의미를 지니는 '-어 봤다'를 이미 학습한 후 '-은 적이 있다'를 배우므로 이를 활용하여 '-은 적이 있다'를 교수하면 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 적이 있다'를 쓴다.

예) 씻- + -은 적이 있다 → 씻은 적이 있다
받- + -은 적이 있다 → 받은 적이 있다
찾- + -은 적이 있다 → 찾은 적이 있다
읽- + -은 적이 있다 → 읽은 적이 있다
먹- + -은 적이 있다 → 먹은 적이 있다
넣- + -은 적이 있다 → 넣은 적이 있다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이 오면 '-ㄴ 적이 있다'를 쓴다. 단, 'ㄹ' 받

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타- + -ㄴ 적이 있다 → 탄 적이 있다
배우- + -ㄴ 적이 있다 → 배운 적이 있다
보- + -ㄴ 적이 있다 → 본 적이 있다
다니- + -ㄴ 적이 있다 → 다닌 적이 있다
놀- + -ㄴ 적이 있다 → 논 적이 있다
만들- + -ㄴ 적이 있다 → 만든 적이 있다

①	받침 ㅇ	+ -은 적이 있다	씻은 적이 있다, 받은 적이 있다, 찾은 적이 있다, 읽은 적이 있다, 먹은 적이 있다, 넣은 적이 있다
②	받침 ×	+ -ㄴ 적이 있다	탄 적이 있다, 배운 적이 있다, 본 적이 있다, 다닌 적이 있다
	ㄹ 받침	+ -ㄴ 적이 있다 (어간 'ㄹ' 탈락)	논 적이 있다, 만든 적이 있다

③ 불규칙

듣- 예) 왕밍 씨의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줍- 예) 지갑을 **주운 적이 있어요**.
짓- 예) 한국 이름을 **지은 적이 있어요**.

[문장 구성 정보]

① '있다' 앞에 '한 번, 몇 번, 많이' 등 횟수를 나타내거나 양을 나타내는 말이 자주 붙는다.

예) 랜디의 노래를 들은 **적이 한 번 있다.**
밤을 새워 공부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 반의 표현인 '-은 적이 없다'는 '없다' 앞에 강조하는 말로 '한 번도, 전혀' 등의 부사어가 자주 온다.

예) 한복을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서운 꿈을 꾼 **적이 전혀 없다.**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8월인데 날씨가 **추운 적이 있어요**. (x)
수지가 건강이 **나쁜 적이 있어요**. (x)

+ 형용사와 결합하여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려면 '-었던 적이 있다'를 사용한다.

예) 8월인데 날씨가 **추웠던 적이 있어요**. (o)
수지가 건강이 **나빴던 적이 있어요**. (o)

+ '가슴이 답답한 적이 있다, 하루 종일 피곤한 적이 있다'의 예처럼 일부 형용사와 결합해

서 사용하기도 한다.

② 과거 '-었-'이 선행 어간에 결합하지 않는다.

예) 그 책을 **읽었은 적이 있어요**. (x)
미도리 씨와 식사를 **했은 적이 있어요**. (X)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o)
미도리 씨와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o)

+ '-은'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결합할 필요가 없다.

[확장]

① 반의 표현으로 '-은 적이 없다/-ㄴ 적이 없다'를 쓴다.

예) 수지는 비행기를 **탄 적이 없어요**.
분티안 씨는 김치를 **먹은 적이 없어요**.
미도리 씨는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민우는 방을 **청소한 적이 없어요**.

② '-어 본 적이 있다/-아 본 적이 있다'의 구성으로 쓰기도 한다.

예) 왕밍 씨는 제주도에 **가 본 적이 있어요**.
수지 씨는 중국 음식을 **먹어 본 적이 있어요**.
미도리 씨는 명동에서 **쇼핑해 본 적이 있어요**.
현우는 중국어를 **배워 본 적이 있어요**.

③ '-었던 적이 있다/-았던 적이 있다'의 구성으로 쓰여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 '-었던 적이 있다'에는 형용사가 결합할 수 있다.

예) 왕밍 씨는 길을 **잃었던 적이 있어요**.
수지 씨는 도둑을 **잡았던 적이 있어요**.
미도리 씨는 남자 친구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겁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동생이 건강이 **좋았던 적이 있어요.** (o)

④ '-는 적이 있다/-는 적이 없다'는 '항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는 적이 없다'는 '항상 없다'의 의미로, '는 적이 있다'는 의문문의 형태로 강조의 반어법으로 쓰여 '항상 없다'의 의미로 쓰인다.

예) 꾸앙 씨는 **지각하는 적이 없어요**. (꾸앙 씨는 언제나 지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침에 **식사하는 적이 없어요**. (저는 언제나 아침에 식사하지 않아요.)
선생님께서 화를 **내는 적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화를 내는 경우가 없다. 항상 화를 내지 않는다.)

동생이랑 **싸우지 않는 적이 있어요?** (동생이랑 싸우지 않는 경우가 없다. 항상 싸운다.)

+ '선생님께서 화를 내는 적이 있어요?', '동생이랑 싸우지 않는 적이 있어요?'는 각각 '선생님께서 화를 내는 경우가 없다', '동생이랑 싸우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의미를 확인하는 내용의 의문문이다.

[유사 문법]

① '-은 적이 있다', '-었-'(과거)

-은 적이 있다	**-었-(과거)**
· 과거의 사건을 나타낸다.	
· 과거에 있었던 경험에 초점을 둔 표현이다. 예) 나는 물을 마신 적이 있다. (?) (전에는 물을 한 번도 마셔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표현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므로 어색한 표현이 된다.) 나는 더러운 물을 마신 적이 있다. (특별히 더러운 물을 먹어 본 경험에 대해 초점을 둔 상황이므로 사용 가능하다.)	· 과거에 있었던 행위나, 사건이 종료되었음을 나타낸다. 예) 나는 물을 마셨다. 나는 더러운 물을 마셨다. (새로운 경험이라는 의미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행위나 사건이라는 정보만을 제공한다.)

② '-은 적이 있다', '-어 보다2)'

-은 적이 있다	**-어 보다2)**
· 과거의 경험을 나타낸다.	
·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예) 저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영수는 눈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 의도적인 경험이 아닌 상황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예)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 봤어요**. (?) 영수는 눈병에 **걸려 봤어**요. (?)
· '적'은 때나 시기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어 보다'보다 경험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예) 영수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 경험의 '-어 보다'는 '-어 봤다'의 형태로 쓴다. 예) 영수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봤다**.
· '있다' 앞에 부사어의 삽입이 가능하다. 예) 영수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 번 **있다**.	· 부사어는 '-어 봤다' 앞에 사용한다. 예) 영수는 아파서 병원에 한 번 **입원해 봤다**.

③ '-은 적이 있다', '-은 일이 있다'

-은 적이 있다	-은 일이 있다
· 과거의 경험을 나타낸다.	
· 과거에 있었던 경험의 때, 즉 '시간'에 초점을 둔 표현이다. 예) 예전에 한국에 여행을 **온 적이 있어**요.	·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초점을 둔 표현이다. 예) 예전에 한국에 여행을 **온 일이 있어요.**

+ '-은 적이 있다'는 '적'은 '그 동작이 진행되거나 상태가 나타나는 때'라는 의미이므로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인데 비해 '일'은 '어떤 내용을 가진 상황이나 장면'이라는 의미의 명사이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过'

예) 김치를 먹어 **본 적이 있어요**. - 吃**过**泡菜.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 丢**过**包.
그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 见**过**那位教授.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 看**过**韩剧.

② 용법과 오류

- '-은 적이 있다'는 일반적으로 형용사 어간과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 대응 표현 '过'는 동사, 형용사에 모두 쓰일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인다.

예) 여름인데 날씨가 추운 적이 있어요. (x)
건강이 나쁜 적이 있다. (x)

- 'ㄹ' 받침의 동사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ㄴ 적이 있다'를 써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동사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받침 있는 어간 뒤에 쓰이는 '-은 적이 있다'를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김치를 만들은 적이 있어요. (x)
그 서점에서 책을 살은 적이 있다. (x)

- '있다'에 '-었-'이 결합하지 않지만 학습자들이 '-었-'을 사용하는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예) 한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x)
그 음식을 먹은 적이 있었다. (x)

3.6.16. '-은 지2'

-은 지2[-ㄴ 지][표현] 어떤 행위에 대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

-은 지2: (동사에 붙어) 어떤 일을 한 후 시간이 얼마 지났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머리를 **감은 지** 얼마나 됐어요? 나: 머리를 **감은 지** 이틀 됐어요. 가: 한국에서 **산 지** 얼마 됐습니까? 나: 한국에서 **산 지** 3년 됐습니다. 가: 그 신문을 **읽은 지** 얼마나 됐어요? 나: 그 신문을 **읽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가: 왕밍 씨가 고향으로 **돌아간 지** 얼마나 됐지요? 나: 이제 한 달 됐어요. 가: 버스가 **출발한 지** 한참 됐어요? 나: 아니요, 방금 떠났어요.
문장예문	· 밥을 **먹은 지** 일주일 됐어요. · 자리에 **앉은 지** 5시간이나 됐어요. · 수지 씨를 **만난 지** 10분밖에 안 됐어요. · 영화가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어요. · 커피를 **마신 지** 30분이 됐어요. · 비가 안 **온 지** 한 달이 됐습니다. · 내년이면 태권도를 **배운 지** 10년이 돼요. · 편지를 **받은 지** 6개월 만에 답장을 썼어요. · 음악을 **들은 지** 한참 됐어요. · **출발한 지** 10시간이나 지나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 '-은 지2'를 포함한 답변에 가장 자연스러운 질문은 '~은 지 얼마(나) 됐어요?'로, 이 역시 '-은 지2'를 포함하고 있다. 담화예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먼저 이와 같은 전형적인 질문과 대답의 패턴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그 후에 대답에 '이제 한 달 됐어요'처럼 '-은 지'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는 게 좋다.
+ '-은 지2'는 기준 시점의 행위와 결합하며, 그 뒤에 경과된 시간이 오는데 '~이/가 됐어요', '-이/가 지났어요' 등의 고정된 패턴으로 제시됨을 알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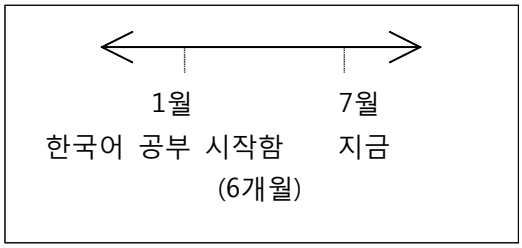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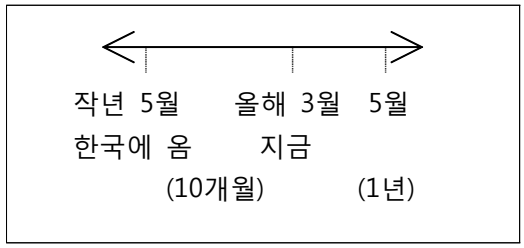
(1)
교사: 왕밍 씨, 언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학생: 1월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교사: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학생: 6개월이 지났어요.
교사: 왕밍 씨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2)
교사: 미도리 씨, 한국에 언제 왔어요?
학생: 작년 5월에 한국에 왔어요.
교사: 미도리 씨는 작년 5월에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10개월이 지났어요. 미도리 씨는 한국에 **온 지** 10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올해 5월이면 미도리 씨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어요.

+ '-은 지2'를 도입할 때 (1)과 (2)처럼 특정 행위의 시점을 물어본 후, 대화 시점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인지하게 한다. 이때 판서를 통해 기준이 되는 시점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확실히 알게 해 주는 것이 용이하다. 그 후에 목표 문법을 사용하여 '기준 시점의 행위+경과된 시간'의 순서로 문장을 구성하여 제시한다.
+ 도입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을 돕는다.

예)





+ 특정 시점을 묻는 질문 '언제 ~했어요'에 대답할 때 그 시점을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는 방식 이외에도 '-은 지2'를 사용하여 경과된 시간을 제시해 주는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게 좋다.

예) 가: 수지 씨는 <u>언제 결혼했어요?</u>
나: 저는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가: 대학을 <u>언제 졸업했어요?</u>
나: **졸업한 지** 2년이나 지났어요.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 지'를 쓴다.

예) 먹- + -은 지 → 먹은 지　　씻- + -은 지 → 씻은 지
찾- + -은 지 → 찾은 지　　남- + -은 지 → 남은 지
입- + -은 지 → 입은 지　　읽- + -은 지 → 읽은 지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받침이 오면 '-ㄴ 지'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ㄴ 지 → 간 지　　만나- + -ㄴ 지 → 만난 지
떠나- + -ㄴ 지 → 떠난 지　　일하- + -ㄴ 지 → 일한 지
살- + -ㄴ 지 → 산 지　　만들- + -ㄴ 지 → 만든 지

①	받침 o	+ -은 지	먹은 지, 씻은 지, 찾은 지, 남은 지, 입은 지, 읽은 지
②	받침 ×	+ -ㄴ 지	간 지, 만난 지, 떠난 지, 일한 지
	ㄹ 받침	+ -ㄴ 지 (어간 'ㄹ' 탈락)	산 지, 만든 지

③ 불규칙

듣-　예) 라디오 뉴스를 **들은 지** 오래 됐어요.
눕-　예) 자려고 **누운 지** 2시간이 지났어요.
낫-　예) 눈병이 **나은 지** 일주일 됐습니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은 지 ~이 되다'의 구성으로 주로 사용한다.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는 조사 '이/가'는 생략되기도 한다.

예) 한국 음악을 **좋아한 지** 5년(이) 됐어요.
청소를 **한 지** 일주일(이) 됐어요.
약을 **먹은 지** 30분(이) 됐어요.
기차가 **떠난 지** 30초(가) 됐어요.
영화가 **끝난 지** 1시간(이) 됐어요.

② 뒤 절에는 시간과 관련된 '되다, 지나다, 넘다, 흐르다, 경과하다' 등의 동사가 온다. 또한 이미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주로 과거형으로 사용된다.

예) 대학생이 **된 지** 3개월이 됐어요.
감기에 **걸린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자 친구를 **사귄 지** 1년이 넘었어요.
고향에 **다녀온 지** 3년이 흘렀어요.

수술을 **받은 지** 반 년이 경과했다.

③ 부정은 '-지 않은 지', '안 -은 지'로 쓴다. '안 -은 지'는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 비가 **오지 않은 지** 한 달이 됐다.
비가 **안 온 지** 한 달이 됐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은 지** 1년이 됐다.
나는 텔레비전을 **안 본 지** 1년이 됐다.

+ 긍정과 부정의 문장 의미가 동일하게 해석되는 상황도 있다. 아래 예문처럼 긍정일 경우에는 '-은 지2'와 결합한 행위가 순간적으로 행해지고 멈춘 것인지, 그 시점에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인지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

예) 비가 **오지 않은 지** 한 달이 됐다. (한 달 전에 비가 오고 안 왔다.)
비가 **온 지** 한 달이 됐다. (한 달 전에 비가 오고 안 왔다./ 한 달 내내 비가 오고 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은 지** 1년이 됐다. (텔레비전을 1년 전에 보고 안 봤다.)
텔레비전을 **본 지** 1년이 됐다. (텔레비전을 1년 전에 보고 안 봤다./ 텔레비전을 1년 내내 봐 왔다.)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날씨가 **추운 지** 한 달이 됐어요. (x)
건강이 **좋은 지** 2개월이 됐어요. (x)

+ 형용사는 '-어지다'가 붙으면 자동사가 되어 '-은 지'와 결합이 가능하다.

예) 날씨가 **추워진 지** 한 달이 됐어요. (o)
건강이 **좋아진 지** 2개월이 됐어요. (o)

②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자전거를 **탔은 지** 한 달이 됐어요. (x)
책을 **읽었은 지** 오래 됐어요. (x)
자전거를 **탄 지** 한 달이 됐어요. (o)
책을 **읽은 지** 오래 됐어요. (o)

[확장]

① '-은 지' 뒤에 강조의 보조사 '도'가 붙을 수 있으며 뒤 절에는 시간의 경과의 길고 짧음을 강조하기 위한 보조사 '이나, 밖에' 등이 쓰이기도 한다.

예) 그를 **만난 지**도 1년이나 됐다.
한국어를 **공부한 지** 3년이나 됐어요.
대학원에 **입학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운전을 **배운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 '밖에' 뒤에는 반드시 부정이 오기 때문에 '-은 지 ~밖에 안 되다'의 구성으로 쓴다.

② 뒤 절에 정확하게 경과한 시간 표현 대신 '-은 지 얼마 안 되다', '-은 지 한참 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예)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수지 씨를 **만난 지** 한참 됐어요.
버스를 **기다린 지** 한참 됐어요.
마트에서 **장을 본 지** 오래 됐어요.

[유사 문법]

① '-은 지2', '-은 다음에', '-은 뒤에', '-은 후에'

-은 지2	**-은 다음에, -은 뒤에, -은 후에**
· '어떤 행위를 한 후'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뒤 절에는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만 올 수 있다. 예) **결혼한 지** 2년이 됐어요. (o) **결혼한 지** 유학을 갔어요. (x)	· 시간의 선후를 나타내므로 뒤 절에는 앞 절의 행위 후 이루어진 행위를 제시해야 한다. 예) **결혼한 다음에/뒤에/후에** 유학을 갔어요. (o) **결혼한 다음에/뒤에/후에** 2년이 됐어요. (x)

② '-은 지2', '-은지1'

-은 지2	**-은지1**
·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 '지'가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예) 왕밍 씨는 전화를 **끊은 지** 30분이 됐어요. (왕밍 씨가 전화를 끊은 후 30분이 지났어요.)	· 의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예) 왕밍 씨가 전화를 **끊은지** 몰랐어요. (왕밍 씨가 전화를 끊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없음.

예)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다. - 来韩国已有三年了.
그 친구를 **만난 지** 한 달이 지었다. - 见到那个朋友已有一个月了.
영화가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어요. - 电影开演已过30分钟了.

한국어를 **배운 지** 1년이 되었어요. - 学习韩国语已经一年了.

② 용법과 오류

- '-은 지'는 일반적으로 형용사 어간과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에서는 어떤 행위에 대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형용사의 경우에도 동사의 경우와 같은 문형으로 표현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인다.

  예) 날씨가 이렇게 더운 지 한 달이 되었다. (x)
  건강이 좋은 지 1달 되었다. (x)

- 'ㄹ' 받침의 동사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ㄴ 지'를 써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동사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받침 있는 어간 뒤에 쓰이는 '-은 지'를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김치를 만들은 지 일주일 되었다. (x)
  그 서점에서 책을 살은 지 3일 지났다. (x)

- 학습자들이 '듣다', '눕다', '낫다' 등 동사의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인다.

  예) 박 선생님 강의를 듣은 지 오래 되었어요. (x)
  침대에 눕은 지 1시간이 지났다. (x)
  감기가 낫은 지 3일 되었다. (x)

3.6.17. '-은 후에'

-은 후에[-ㄴ 후에]{-은 후/-ㄴ 후}[표현] 앞의 행위가 뒤의 행위보다 **시간상 앞섬**을 나타내는 표현.

-은 후에: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를 시간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뒤의 행위를 함을 나타낸다. 시간 순서에 따른 행위를 나열하거나, 특정 시점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행위에 대해 강조하여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나: 밥을 **먹은 후에** 텔레비전을 봤어요. 가: 왕밍 씨, 주말에 뭐 할까요? 나: 영화를 **본 후에** 쇼핑을 해요. 가: 언제 산책을 할래요? 나: 책을 다 **읽은 후에** 산책을 하고 싶어요. 가: 수업이 **끝난 후에** 뭐 할 거예요? 나: 도서관에 갈 거예요. 가: 한국어를 **공부한 후에** 뭐 하고 싶어요? 나: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문장예문	· 손을 **씻은 후에** 식사를 하세요. · 나는 스파게티를 **만든 후에** 샐러드를 만들 거예요. · 나는 책을 다 **읽은 후에** 잠을 잘 거예요. · 철수는 숙제를 **한 후에** 텔레비전을 봐요. · 영희는 **결혼한 후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 저는 한국 음악을 들**은 후에**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 미도리는 대학에 **입학한 후에**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 수지는 버스를 **탄 후에** 잠이 들었어요. · 모두 자리에 **앉은 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번개가 **친 후에** 비가 내립니다.

+ '-은 후에'는 시간 상 선후 관계에 있는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행위를 시간 순서로 나열할 때 사용하거나, 특정 행위가 끝난 이후에 일어날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위의 대화문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와 같은 질문에는 어제 저녁에 한 여러 가지 일들을 시간 순서로 '밥을 먹은 후에 텔레비전을 봤어요.'와 같이 대답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수업이 끝난 후에 뭐 할 거예요?'와 같이 특정 행위 이후에 일어날 행위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은 후에'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뒤 절의 행위가 내용의 중심이 된다.

+ '저는 한국 음악을 들은 후에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와 같은 문장에서는 앞 절과 뒤 절의 내용이 단순히 시간상의 선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앞 절의 행위에 의한 결과적 행위로 뒤 절이 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입]

(1)
교사: 왕밍 씨, 어제 집에 가서 뭐 했어요?
학생: 어제 집에 가서 컴퓨터를 했어요.
교사: 컴퓨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학생: 컴퓨터를 하고 잠을 잤어요.
교사: 왕밍 씨는 어제 집에 가서 컴퓨터를 하고 잠을 잤어요. 왕밍 씨는 컴퓨터를 **한 후에** 잠을 잤어요.

(2)
교사: 줄리아 씨, 수업이 끝나면 뭐 할 거예요?
학생: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교사: 줄리아 씨는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뭐 할 거예요?
학생: 밥을 먹으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교사: 줄리아 씨는 밥을 **먹은 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 '-은 후에'의 도입은 시간의 선후 관계를 알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는 게 좋다. 먼저 했던 일을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문장을 만들어 제시해 주고, 다음에는 앞으로 할 일을 '-은 후에'와 연결하여 제시한다. 도입 (2)에서는 목표 문법을 도입한 후 학생들에게 '줄리아 씨가 밥을 먹은 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후에 밥을 먹을 거예요?'라는 질문을 하여, 목표 문법이 시간의 선후를 나타내므로 행위의 순서 배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다.
+ 도입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시간에 따른 행위를 순차적으로 판서하고 설명을 하면 시간의 선후 관계에 대한 인식을 도울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 후에'를 쓴다.

예) 씻- + -은 후에 → 씻은 후에　　받- + -은 후에 → 받은 후에
찾- + -은 후에 → 찾은 후에　　읽- + -은 후에 → 읽은 후에
먹- + -은 후에 → 먹은 후에　　잡- + -은 후에 → 잡은 후에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이 오면 '-ㄴ 후에'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타- + -ㄴ 후에 → 탄 후에
보- + -ㄴ 후에 → 본 후에
놀- + -ㄴ 후에 → 논 후에
배우- + -ㄴ 후에 → 배운 후에
쓰- + -ㄴ 후에 → 쓴 후에
만들- + -ㄴ 후에 → 만든 후에

①	받침 o	+ -은 후에	씻은 후에, 받은 후에, 찾은 후에, 읽은 후에, 먹은 후에, 잡은 후에
②	받침 ×	+ -ㄴ 후에	탄 후에, 배운 후에, 본 후에, 쓴 후에
	ㄹ 받침	+ -ㄴ 후에 (어간 'ㄹ' 탈락)	논 후에, 만든 후에

③ 불규칙

묻- 예) 왕밍 씨의 생각을 **물은 후에** 시간을 정할까요?
굽- 예) 고기를 **구운 후에** 찌개를 끓일게요.
낫- 예) 감기가 **나은 후에** 수영장에 가고 싶어요.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날씨가 **추운 후에** 눈이 올 거예요. (x)
건강이 **좋은 후에** 일을 시작할 거예요. (x)

+ 형용사는 '-어지다'가 붙으면 자동사가 되어 '-어 있다'와 결합이 가능하다.

예) 날씨가 **추워진 후에** 눈이 올 거예요. (o)
건강이 **좋아진 후에** 일을 시작할 거예요. (o)

+ 행위의 앞섬을 뜻하므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② 과거 '-었-'이 결합하지 않는다.

예) 책을 **읽었은 후에** 독후감을 썼어요. (x)
식사를 **했은 후에** 커피를 마셨어요. (X)
책을 **읽은 후에** 독후감을 썼어요. (o)
식사를 **한 후에** 커피를 마셨어요. (o)

+ 이미 알고 있듯이 '-은'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결합할 필요가 없다.

[확장]

① '-은 후/-ㄴ 후'의 구성으로 쓰기도 한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배낭여행을 갈 거예요.
철수는 숙제를 **마친 후** 놀 거예요.
저는 한국에 **온 후**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됐어요.
철수 씨는 미도리 씨를 **만난 후** 사랑에 빠졌어요.
비가 **온 후** 날씨가 추워졌어요.

② '명사+후(에)'의 구성으로 쓰기도 한다.

예) 영수 씨가 한 달 **후에** 결혼을 해요.
일주일 **후에** 시험이 있어요.
도착 **후에** 바로 전화 주세요.
저는 졸업 **후에** 유학을 갈 거예요.
저는 취업 **후에** 결혼할 거예요.

+ 이때 명사는 시간을 나타내거나 행위와 관련된 의미, 즉 서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 어머니는 밥 **후에** 텔레비전을 봐요. (x)
남자친구는 학교 **후에** 아르바이트를 갑니다. (x)
어머니는 식사 **후에** 텔레비전을 봐요. (o)
남자친구와 졸업 **후에** 결혼할 거예요. (o)

③ '-은 뒤에', '-은 다음에'와 바꿔 쓸 수 있다. 이때 조사 '에'는 모두 생략될 수 있다.

예) 철수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한 후(에)** 밥을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한 뒤(에)** 밥을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한 다음(에)** 밥을 먹어요.

④ 행위의 단순 나열의 의미로 사용될 때 부정 형태 '-지 않은 후에', '안 -은 후에'가 사용되면 의미적으로 어색한 경우가 많다.

예) 텔레비전을 **본 후에** 잠을 잤다.
텔레비전을 **안 본 후에** 잠을 잤다. (?)
밥을 **먹지 않은 후에** 산책을 했다. (?)
밥을 **안 먹은 후에** 산책을 안 했다. (??)

+ '-은 후에'는 완료된 행위를 시간적 순서로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완료하여 나열한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모순된다.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은 후에 건강해졌다, 라면을 안 먹은 후에 살이 빠졌다'처럼 앞 절의 행위로 인한 결과적 행위나 상태가 뒤 절의 내용으로 오면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예) 라면을 **먹지 않은 후에** 살이 빠졌다. /라면을 **안 먹은 후에** 살이 빠졌다.
술을 **마시지 않은 후에** 건강해졌다. /술을 **안 마신 후에** 건강해졌다.

[유사 문법]

① '-은 후에', '-고'

-은 후에	-고
· '어떤 행위를 한 다음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앞 절의 행위가 뒤 절의 행위보다 앞섬을 나타내며, 앞 행위의 완료에 초점을 둔다. 예) 수지는 숙제를 **한 후에** 친구를 만났다.	· 앞 절의 행위가 끝났다는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며, 단순히 행동의 연결에 초점을 둔다. 예) 수지는 숙제를 **하고** 친구를 만났다.

② '-은 후에', '-기 전에'

-은 후에	-기 전에
· 앞 절과 뒤 절의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	
· 앞 절의 행위가 뒤 절의 행위보다 먼저임을 나타낸다. ·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A, B라고 했을 때, 'A -은 후에 B'의 구성이 된다. 예) 철수는 운동을 **한 후** 샤워를 해요. 수지는 신문을 **본 후** 출근했어요.	· 앞 절의 행위가 뒤 절의 행위보다 나중임을 나타낸다. ·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A, B라고 했을 때, 'B 기 전에 A'의 구성이 된다. 예) 철수는 샤워를 **하기 전에** 운동을 해요. 수지는 **출근하기 전에** 신문을 봤어요.

+ '-은 후에'는 '후(後)'라는 한자어의 의미대로 이 절의 행위가 뒤 절의 행위보다 앞서 있으나 '-기 전에'는 '전(前)'이라는 한자어의 의미대로 이 절의 행위가 뒤 절의 행위보다 뒤에 일어남을 뜻한다. 그러므로 두 표현을 사용하여 동의의 문장을 만들려면 앞뒤의 동사가 바뀐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后', '之后'

예) 대학을 졸업**한 후에**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 大学毕业**后**想在公司工作.
손을 씻**은 후에** 식사하세요. - 洗手**之后**用餐吧.
수업이 끝**난 후에** 운동하러 가요. - 下课**之后**去运动.
식사를 **한 후에** 곧 떠날 거예요. - 吃饭**之后**接着出发.

② 용법과 오류

- '-은 후에'는 형용사 어간과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에서는 형용사의 경우에도 동사의 경우와 같은 문형으로 표현되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인다.

예) 건강이 좋은 후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x)
날씨가 따뜻한 후에 여행 갑시다. (x)

- 'ㄹ' 받침의 동사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ㄴ 후에'를 써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동사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받침 있는 어간 뒤에 쓰이는 '-은 후'를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음식을 만들은 후에 텔레비전을 봤다. (x)
수학 문제를 풀은 후에 게임을 했다. (x)

- 학습자들이 '듣다', '눕다', '낫다' 등 동사의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인다.

예) 그 소식을 듣은 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x)
침대에 눕은 후에 곧 잠들었다. (x)
감기가 낫은 후에 출근할게요. (x)

3.6.18. '-을 것 같다'

-을 것 같다[-ㄹ 것 같다/-는 것 같다/-은 것 같다][표현]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을 것 같다: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 추측함을 나타낸다.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추측하는 말을 할 때 주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날씨가 어때요? 나: 흐린 걸 보니 비가 **올 것 같아요**. 가: 이 음식은 맛이 어때요? 나: 김치가 들어가서 **매울 것 같아요.** 가: 우리 이 영화 볼까요? 나: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가: 줄리아 씨, 언제 여행을 떠나요? 나: 다음 달에 **떠날 것 같아요.** 가: 수지 씨, 주말에 시간 있어요? 나: 아니요, **바쁠 것 같아요.**
문장예문	· 영수가 장학금을 **받을 것 같다.** · 수지가 오늘 학교에 **올 것 같아요.** · 내일 날씨가 **흐릴 것 같아요.** · 저 사람이 왕밍 **씨일 것 같아요.** · 비빔밥이 **매울 것 같아요**. · 이 책은 **쉬울 것 같아요.** · 한국어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 길이 막혀서 **늦을 것 같아요**. · 수업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 주말에는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 '-을 것 같다'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날씨가 어때요?/ 이 음식은 맛이 어때요?' 등의 질문에 '흐린 걸 보니 비가 올 것 같아요./ 김치가 들어가서 매울 것 같아요.'로 대답하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추측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주말에 시간 있어요?/ 언제 여행을 떠나요?' 등의 질문에 '아니요, 바쁠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떠날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한 추측이나 불확실한 결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도입]

(1)
교사: 왕밍 씨, 여자 친구 있어요?
학생: 네, 있어요.
교사: 여자 친구와 헤어지면 기분이 어떨까요?
학생: 슬퍼요.
교사: 여자 친구와 헤어지면 기분이 슬퍼요. 기분이 **슬플 것 같아요**.

(2)
(식당에 손님이 많은 그림을 보여 주며)
교사: 이 식당 음식이 맛있을까요?
학생: 네, 맛있어요.
교사: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 손님이 많아요.
교사: 왕밍 씨, 손님이 많아요. 이 식당의 음식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 도입(1)은 학생에게 가정의 상황을 제시하여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 물어봄으로써 추측하게 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제시한다. 위의 상황 외에도 시험을 잘 보거나 못 본 상황, 복권에 당첨된 상황,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게 되는 상황 등 학생의 형편이나 관심사와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는 게 좋다.
+ 도입(2)는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상황을 시각 자료로 제시하여 추측의 의미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 것 같다'를 쓴다.

예) 찾- + -을 것 같다 → 찾을 것 같다　　먹- + -을 것 같다 → 먹을 것 같다
입- + -을 것 같다 → 입을 것 같다　　좋- + -을 것 같다 → 신을 것 같다
작- + -을 것 같다 → 신을 것 같다　　넓- + -을 것 같다 → 넓을 것 같다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ㄹ 것 같다'를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ㄹ 것 같다 → 갈 것 같다　　크- + -ㄹ 것 같다 → 쓸 것 같다
배우- + -ㄹ 것 같다 → 배울 것 같다　　예쁘- + -ㄹ 것 같다 → 예쁠 것 같다
졸- + -ㄹ 것 같다 → 졸 것 같다　　만들- + -ㄹ 것 같다 → 만들 것 같다

③ '이다, 아니다'는 '-ㄹ 것 같다'를 쓴다.

예) 외국사람이- + -ㄹ 것 같다 → 외국사람일 것 같다
배우이- + -ㄹ 것 같다 → 배우일 것 같다
아니- + -ㄹ 것 같다 → 아닐 것 같다
선생님이- + -ㄹ 것 같다 → 선생님일 것 같다
운동선수이- + -ㄹ 것 같다 → 운동선수일 것 같다

①	받침 ㅇ	+ -을 것 같다	찾을 것 같다, 먹을 것 같다, 입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작을 것 같다, 넓을 것 같다
②	받침 ×	+ -ㄹ 것 같다	갈 것 같다, 클 것 같다, 배울 것 같다, 예쁠 것 같다
	ㄹ 받침	+ -ㄹ 것 같다 (어간 'ㄹ' 탈락)	졸 것 같다, 만들 것 같다

④ 불규칙
듣- 예) 줄리아 씨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 같다**.
덥- 예) 오늘 날씨가 **더울 것 같아요**.
낫- 예) 이제 감기가 **나을 것 같다**.
그렇- 예) 내 생각에도 **그럴 것 같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지 않을 것 같다, -을 것 같지 않다, 안 -을 것 같다'로 쓴다. '안 –을 것 같다'는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 오늘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다**. (o)
오늘은 비가 **안 올 것 같다**. (o)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지 않다**. (o)
오늘은 비가 **올 것 안 같다**. (x)

+ 아래 예문을 비교해 보면 '같다'를 부정하는 '-을 것 같지 않다'와 추측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지 않을 것 같다', '안 –을 것 같다'의 의미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예) 줄리아 씨가 이 가방을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줄리아 씨가 이 가방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② 높임은 '-으실 것 같다'로 쓴다.

예) 할머니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 (o)
할머니께서 **기뻐할 것 같다**. (x)
할머니께서 **기뻐할 것 같으시다**. (x)

[제약 정보]
① '-을 것 같다'의 의미가 추측이므로 미래·추측을 나타내는 '-겠-'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 같겠어요**. (x)
내일은 날씨가 **좋겠을 것 같아요**. (x)

② '-었을 것 같다'의 형태로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기도 한다. 과거 추측인 '-은 것 같다'는 동사와만 결합하는 데 비해, '-었을 것 같다'는 동사, 형용사와 모두 결합한다.

예) 어제 제주도 날씨가 **흐린 것 같다**. (x)
어제 제주도 날씨가 **흐렸을 것 같다**. (o)
어제 춘천에 눈이 **온 것 같다**. (o)
어제 춘천에 눈이 **왔을 것 같다**. (o)

+ '어제 날씨가 흐린 것 같다'는 잘못된 표현이지만 '어제 날씨가 흐린 것 같았다'는 과거 상태에 대한 과거 시점의 추측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다.

[확장]

① '-을 것 같다/-ㄹ 것 같다'는 미래에 대한 추측, '-는 것 같다/-은 것 같다/-ㄴ 것 같다'는 현재에 대한 추측, '-은 것 같다/-ㄴ 것 같다/-었을 것 같다/-았을 것 같다'는 과거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시제	형태		예문
미래	동사 결합	-을 것 같다 -ㄹ 것 같다	주말에 등산화를 **신을 것 같다**. 주말에 눈이 **올 것 같다**.
	형용사 결합	-을 것 같다 -ㄹ 것 같다	주말에 날씨가 **맑을 것 같다**. 주말에 날씨가 **흐릴 것 같다**.
현재	동사 결합	-는 것 같다	지금 바람이 **부는 것 같다**. 지금 눈이 **오는 것 같다**.
	형용사 결합	-은 것 같다 -ㄴ 것 같다	지금 날씨가 **맑은 것 같다**. 지금 날씨가 **흐린 것 같다**.
과거	동사 결합	-은 것 같다 -ㄴ 것 같다 -었을 것 같다 -았을 것 같다 -였을 것 같다	어제 눈이 **녹은 것 같다**. 어제 눈이 **온 것 같다**. 어제 눈이 **내렸을 것 같다**. 어제 눈이 **왔을 것 같다**. 어제 수지가 늦게까지 **공부했을 것 같다.**
	형용사 결합	-었을 것 같다 -았을 것 같다 -였을 것 같다	어제 날씨가 **흐렸을 것 같다**. 어제 날씨가 **맑았을 것 같다**. 이곳은 언제나 **조용했을 것 같다.**

+ '-는 것 같다'는 동사 어간 끝음절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는 것 같다'를 쓴다.

예) 입- + -는 것 같다 → 입는 것 같다
그리- + -는 것 같다 → 그리는 것 같다
만들- + -는 것 같다 → 만드는 것 같다

② 과거 시점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사실이나 내용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때는 각각 '-은 것 같았다/-는 것 같았다/-을 것 같았다'를 쓴다.

시제		형태	예문
과거에서의 추측	과거 사실이나 내용	-은 것 같았다 -었을 것 같았다	어제 비가 **온 것 같았다**. (어제보다 더 과거의 시점에 비가 왔었다는 사실에 대해 어제 추측했다.)
	현재 사실이나 내용	-는 것 같았다 -은 것 같았다	어제 비가 **오는 것 같았다**. (어제 비가 오고 있음을 그 순간에 추측했다.)
	미래 사실이나 내용	-을 것 같았다	어제 비가 **올 것 같았다**. (어제보다 미래에 비가 올 것이라고 어제 추측했다.)

③ '-을 것 같다'와 '-은 것 같다'의 의미가 확신의 정도에 의해 구분되기도 한다. '-을 것 같다'보다 '-은 것 같다'가 보다 강한 확신을 가진 추측의 의미로 사용된다.

예) 가: 미나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바쁠 것 같아**.
나: 맞아요. 전화도 안 받는 걸 보면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정황상의 근거를 가지고 바쁠 것 같다고 추측하지만, 이어서 전화를 받지 않는 보다 확실한 행위의 근거를 가지고 바쁜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다.)

④ '-을 것 같다'는 사실이나 생각에 대해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때로는 소극적인 태도로 보일 수도 있다.

예) 가: 저녁을 같이 먹을래요?
나: 죄송해요. 오늘 **바쁠 것 같아요**.
(오늘 바쁘다는 사실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여준다.)

⑤ '-을 것 같다'가 '죽다, 살다, 미치다' 등에 붙어, 힘든 상황이거나 힘든 상황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관용적으로 쓰인다.

예)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아**.
배가 부르니 **살 것 같다**.
배가 너무 고파서 **미칠 것 같아**.

[유사 문법]

① '-는 것 같다', '-는 듯하다', '-는 모양이다', '-나 보다

-는 것 같다	-는 듯하다	-는 모양이다	-나 보다
· '추측'을 나타낸다.			
· 사실이나 생각을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다른 근거로 추정할 때만 사용한다.	

예) 줄리아 씨가 **늦는 것 같아요**. 줄리아 씨가 **늦는 듯해요**. 저는 한국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어를 **잘하는 듯해요**.	예) 줄리아 씨가 **늦는 모양이에요.** 줄리아 씨가 **늦나 봐요.** 저는 한국어를 **잘하는 모양이에요**. (x) 저는 한국어를 **잘하나 봐요**. (x)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好像要', '觉得会'

예)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 **好像要**下大雨.
저는 내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 我**觉得**明天参加不了会议.
비빔밥이 **매울 것 같아요**. - 拌饭**感觉会**辣.
영어가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 英语好**想会**很难.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의 용언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ㄹ 것 같다'를 써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동사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받침 있는 어간 뒤에 쓰이는 '-을 것 같다'를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음식을 많이 만들을 것 같아요. (x)
제가 안 가면 아이가 또 울을 것 같아요. (x)

-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추측할 때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하여 '-었을'로 쓰이지만 학습자들이 '-었-'을 사용하지 않아 오류가 나타난다.

예) 지금쯤 이미 도착할 것 같다. (x)
엄마가 동생에게 이미 말할 것 같다. (x)
어렸을 때 아주 귀여울 것 같다. (x)

3.6.19. '-을 것1'

-을 것1[-ㄹ 것1][표현] **명령**이나 지시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문장을 종결**하는 표현.

-을 것1: (동사에 붙어) 명령이나 지시를 나타낸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나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누군가에게 해야 할 일을 알릴 때 쓴다. 주로 문어에서 사용한다.

[예문]

문장예문	· 회의에 **참석할 것**. · 보고서 **제출할 것**. · 전기를 **아껴 쓸 것**. · 세 시까지 교실로 **올 것**. · 하루에 세 번 이를 **닦을 것**. · 이 책을 다음 주까지 **읽을 것**. ·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 것**. · 여기서 30분 **기다릴 것**. ·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을 것**. · 수업 전에 자료를 모두 **읽을 것**.

+ '-을 것'은 동사에 붙어 명사절을 만드는데, 뒤에 다른 말이 오지 않고 '-을 것'으로 끝나면 명령이나 지시의 의미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쓰지 않고 메모나 담화문, 공고 등의 글에서만 쓴다. 가까운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또는 본인 스스로에게 지시, 명령할 때 쓰며, 대중을 상대로 당위성이나 의무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쓴다.
+ '회의에 참석할 것'은 회의에 참석해야 함을 나타내고, '보고서 제출할 것' 또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나타낸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 것'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는 것이고, '수업 전에 자료를 모두 읽을 것'은 수업에 가기 전에 자료를 모두 읽으라고 본인 스스로에게 강조하고자 간단하게 메모 형식으로 나타낸 말이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내일 몇 시까지 학교에 와야 해요?
학생: 아홉 시까지 와야 해요.
교사: 네, 아홉 시까지 학교에 와야 해요. 자. 이렇게 글로 쓸 수 있어요. '내일 아침 아홉 시까지 학교에 **올 것**' 선생님이 얘기해요. 내일 아침 아홉 씨까지 학교에 와야 해요. 글로 써요. '내일 아침 아홉 시까지 학교

에 **올 것**.'

(2)
교사: 앤디 씨, 이 종이에 써 있는 글을 읽어 보세요.
학생: '금요일까지 숙제를 **낼 것**'
교사: 네, 맞아요. 여러분 모두 금요일까지 선생님에게 숙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알았죠?
학생: 네, 알겠어요.

+ 도입(1)의 '아침 아홉 시까지 학교에 올 것', 도입(2)의 '금요일까지 숙제를 낼 것' 모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형태의 예문이다. 대중을 상대로 당위성이나 의무를 나타낼 때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상황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도입을 유도할 수 있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 것'으로 쓴다.

예) 먹- + -을 것 → 먹을 것　　입- + -을 것 → 입을 것
읽- + -을 것 → 읽을 것　　찾- + -을 것 → 찾을 것
놓- + -을 것 → 놓을 것　　끊- + -을 것 → 끊을 것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ㄹ 것'으로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쓰- + -ㄹ 것 → 쓸 것　　마시- + -ㄹ 것 → 마실 것
하- + -ㄹ 것 → 할 것　　이기- + -ㄹ 것 → 이길 것
놀- + -ㄹ 것 → 놀 것　　만들- + -ㄹ 것 → 만들 것

①	받침 ㅇ	+ -을 것	먹을 것, 입을 것, 읽을 것, 찾을 것, 놓을 것, 끊을 것
②	받침 x	+ -ㄹ 것	쓸 것, 마실 것, 할 것, 이길 것
	ㄹ 받침	+ -ㄹ 것 (어간 'ㄹ' 탈락)	놀 것, 만들 것

③ 불규칙

듣- 예) 내일 7시에 수업을 **들을 것**.
짓- 예) 항상 웃음을 **지을 것**.
줍- 예)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울 것**.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지 않을 것', -지 말 것' 으로 쓴다.

예) 줄리아 씨와 **만나지 않을 것**.
줄리아 씨를 **만나지 말 것.**
희망을 **놓지 않을 것**.
희망을 **놓지 말 것**.

+ 이때 '-지 않을 것'과 '-지 말 것'은 의미 차이가 있다. '-지 않을 것'은 단순 부정으로 스스로의 다짐이나 상대에 대한 경고를 의미하는 반면 '-지 말 것'은 명령의 의미가 강하다.

[제약 정보]
①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어제 학교에 **왔을 것**. (x)
내일 운동장에 **오겠을 것**. (x)
12시 전에 **자겠을 것**. (x)

[유사 문법]
① '-을 것1', '-기'

-을 것	**-기**
· 동사에 붙어 미래의 계획을 나타낸다.	
·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나타낸다. 예) 내일 세 시까지 **갈 것**. 김 선생님께 보고서를 **제출할 것**.	· 단순한 계획을 나타낸다. 예) 내일 세 시까지 **가기**. 김 선생님께 보고서를 **제출하기**.

+ '을 것1'과 '-기'는 모두 문장의 마지막에 쓰여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한다. 두 표현 모두 미래의 계획을 나타내지만 그 의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을 것1'이 '-기'보다 당위성 및 의무의 기능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② '-을 것1', '-을 것2'

-을 것1	**-을 것2**
· 어미 '-을2'와 의존명사 '것'이 함께 쓰인 표현이다.	
· 문장을 종결하며, 명령이나 지시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서울역에 5시까지 **도착할 것**.	· 문장에서 동사 및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어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예) 줄리아 씨도 서울역에 **갈 것**을 알았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请'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제시간에 **도착할 것**. - **请**按时到达.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 - **请**明天交报告书.
미리 **준비할 것**. - **请**提前准备.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을 것**. - 饭前洗手.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의 용언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ㄹ 것'을 써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동사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받침 있는 어간 뒤에 쓰이는 '-을 것'을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5시 전까지 빵을 만들을 것. (x)

- 중국어 대응 표현 '请'은 형용사에도 쓰여 명령이나 지시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을 것'은 동사에만 결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좀 더 깨끗할 것. (x)
앞으로 씩씩할 것. (x)

3.6.20. '-을 것2'

-을 것2[-ㄹ 것2][표현]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여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표현.

-을 것2: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미래의 어떤 행위나 사실을 예측하거나 행위와 관련된 사물을 나타낸다. 결합하는 말이 문장 내에서 명사로 기능하게 하여 주어나 목적어 및 서술어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수지 씨, **먹을 것**이 있어요? 나: 네, 여기에 빵이 있어요. 가: 이번 시험에 **합격할 것**을 믿어요? 나: 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할 거예요. 가: 심심한데 **읽을 것** 좀 주세요. 나: 여기 신문이 있어요. 가: 내일 날씨가 맑을까요? 나: 네,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가: 이 문제가 어려워요? 나: 흐엉 씨에게는 **어렵지 않을 것**이 확실해요.
문장예문	· **입을 것**이 없는데 쇼핑하러 같이 갈래요? · 이번 시험은 중요한 시험이 **아닐 것**이에요. · 할머니께서 계속 **건강할 것**을 약속하셨다. · 이번 주말에는 영화관에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 이 대학에 **다닐 것**을 상상해 보세요. · 이 드라마는 **재미있을 것**이다. · 더 **닦아야 할 것**이 있으면 주세요. · 더운데 **마실 것** 좀 주세요. · 수지 씨는 분명히 착한 사람**일 것**으로 믿어요. · 주말에 비가 **올 것**입니다.

+ '-을 것'은 동사, 형용사에 붙어 명사로 기능하게 하는 표현으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먹을 것이 있어요?/ 어렵지 않을 것이 확실해요.'에서는 주어의 역할을 하며, '이번 시험에 합격할 것을 믿어요?/ 심심한데 읽을 것 좀 주세요.'에서는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이 드라마는 재미있을 것이다./ 주말에 비가 올 것입니다.'에서는 서술

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 '-을 것'의 '것'은 행위나 사실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으며, 행위와 관련된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다. '할머니께서 계속 건강할 것을 약속하셨다./ 이 대학에 다닐 것을 상상해 보세요' 등에서 '것'은 행위나 사실 자체를 가리키는 데 비해, '입을 것이 없는데 쇼핑하러 갈래요?/ 더운데 마실 것 좀 주세요./ 더 닦아야 할 것이 있으면 주세요.' 등에서 '것'은 행위와 관련된 사물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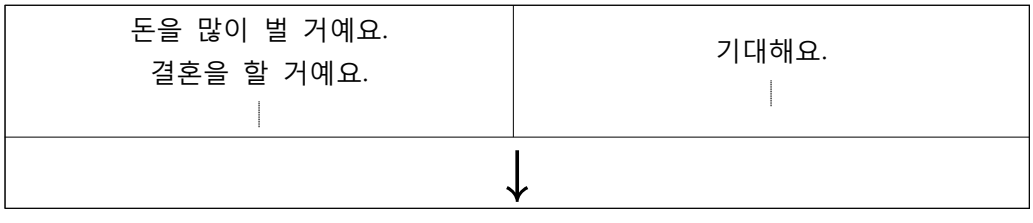
[도입]

(1)
교사: 왕밍 씨, 왕밍 씨가 회사에 취직해요. 무엇을 기대해요?
학생: 돈을 많이 벌어요.
교사: 왕밍 씨는 돈을 많이 **벌 것**을 기대해요. 흐엉 씨는요?
학생: 결혼을 해요.
교사: 흐엉 씨는 **결혼할 것**을 기대해요.

(2)
교사: 선생님이 배가 고파요. 저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어요?
학생: 네, 여기에 빵이 있어요.
교사: 줄리아 씨가 선생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러면 **마실 것**이 있어요?
학생: 여기 주스가 있어요.
교사: 미도리 씨가 선생님에게 **마실 것**을 주었어요.

+ 도입(1)은 '-을 것'을 미래의 추측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의미로 제시하였다. 학습자가 체언이 아닌 용언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을 것'이 목적어로 사용되는 상황이므로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장을 '-을 것'을 사용하여 바꿀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도입(2)에서는 '-을 것'이 문장 내의 사물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을 것'이 목적어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음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다음과 같이 원래 명사의 자리에 문장이 온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예)



회사에 취직하면	(	돈을 많이 벌다. 결혼을 하다.	+ -을 것) 을 기대해요.

선생님에게 (무엇)을 줬어요.	(그것은) 마실 거예요. (그것은) 먹을 거예요.
↓	
미도리 씨가 선생님에게 (마시다. 먹다. + -을 것) 을 줬어요.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 것'으로 쓴다.

예) 먹- + -을 것 → 먹을 것　　입- + -을 것 → 입을 것
읽- + -을 것 → 읽을 것　　찾- + -을 것 → 찾을 것
많- + -을 것 → 많을 것　　작- + -을 것 → 작을 것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ㄹ 것'으로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쓰- + -ㄹ 것 → 쓸 것　　마시- + -ㄹ 것 → 마실 것
깨끗하- + -ㄹ 것 → 깨끗할 것　　빠르- + -ㄹ 것 → 빠를 것
놀- + -ㄹ 것 → 놀 것　　만들- + -ㄹ 것 → 만들 것

①	받침 o	+ -을 것	먹을 것, 입을 것, 읽을 것, 찾을 것, 많을 것, 작을 것
②	받침 x	+ -ㄹ 것	쓸 것, 마실 것, 깨끗할 것, 빠를 것
	ㄹ 받침	+ -ㄹ 것 (어간 'ㄹ' 탈락)	놀 것, 만들 것

③ '이다, 아니다'는 '-ㄹ 것'을 쓴다.

예) 외국책이- + -ㄹ 것 → 외국책일 것　　볼펜이- + -ㄹ 것 → 볼펜일 것
교사이- + -ㄹ 것 → 교사일 것　　운동선수이- + -ㄹ 것 → 운동선수일 것

아니- + -ㄹ 것 → 아닐 것

④ 불규칙
듣- 예) 저는 수지 씨에게 **들을 것**이 없어요.
짓- 예) 이곳에는 아직 **지을 것**이 많습니다.
줍- 예) 더 이상 **주울 것**이 없어요.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지 않을 것', '안 -을 것'으로 쓴다. '안 -을 것'은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 줄리아 씨와 **만나지 않을 것**을 알아요.
줄리아 씨를 **안 만날 것**을 알아요.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 당연해요.
희망을 **안 놓을 것**이 당연해요.

② 높임은 '-으실 것'으로 쓴다.

예) 할머니께서는 **좋아하실 것**으로 음식을 준비했어요.
사장님께서 이 대리를 **찾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③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추측할 때에는 과거 '-었-'과 결합한다.

예) 지금쯤 집에 **도착했을 것**으로 믿어요.
이미 기차가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 과거에 발생했던 일에 대해 추측할 때도 '-을 것'의 '-을'을 쓸 수 있다. 이때 '-을'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추측'의 의미를 지닌다.

[제약 정보]
① '-을 것'의 '-을'이 미래를 나타내므로, 미래를 나타내는 '-겠-'과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 비가 많이 **오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x)
눈이 내릴 때 같이 길을 **걷겠을 것**을 약속해요. (x)

[확장]
① '-는 것'은 현재, '-은 것/-ㄴ 것'은 과거 및 현재, '-을 것2/-ㄹ 것2'는 미래의 행위나 상태 및 사실을 나타낸다.

결합어의 품사	시제 및 형태		예문
동사	현재	-는 것	지금 **찾는 것**이 지갑이에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요.
	과거	-은 것 -ㄴ 것	지갑을 **찾은 것**을 기억해요. 한국어를 **공부한 것**이 도움이 돼요.

	미래	-을 것2 -ㄹ 것2	반드시 지갑을 **찾을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공부할 것**이 기대돼요.
형용사	현재	-은 것 -ㄴ 것	저는 날씨가 **맑은 것**을 좋아해요. 수지 씨는 날씨가 **흐린 것**을 좋아해요.
	미래	-을 것2 -ㄹ 것2	내일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지 씨는 날씨가 **흐릴 것**을 기대한다.

+ '-었던 것', '-던 것'으로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으며 동사 및 형용사가 모두 결합할 수 있다. 형용사의 과거에는 '-은'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형용사의 과거는 '-었던 것', '-던 것'으로만 쓴다.

예) 입- + -었던 것/-던 것 → 입었던 것/입던 것
잡- + -았던 것/-던 것 → 잡았던 것/잡던 것
재미있- + -었던 것/-던 것 → 재미있었던 것/재미있던 것
나쁘- + -았던 것/-던 것 → 나빴던 것/나쁘던 것

② 서술격조사 '이다'와 함께 '-을 것이다'로 쓰면 어떤 행위에 대한 강한 의지 및 추측을 나타낸다. 1인칭 주어와 쓰면 의지를 나타내며, 3인칭 주어와 쓰면 추측을 나타낸다.

예) (저는) 이번 시험에 **합격할 것입니다**. (1인칭 주어 : 의지)
(저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할 거예요.** (1인칭 주어 : 의지)
내일은 눈이 **올 것이다**. (3인칭 주어 : 추측)
흐엉 씨는 지금 **잘 거예요**. (3인칭 주어 : 추측)

+ '-을 거예요'는 '-을 것이에요'의 축약형이다.

③ '-을 것이'를 줄여 '-을 게'로, '-을 것을'을 줄여 '-을 걸'로 쓰기도 한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예) 저녁에 **먹을 게** 없어요.
왕밍 씨가 의사가 **될 걸** 믿어요.

+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을 것이다'는 '-을 것입니다', '-을 것이에요', '-을 것이다, '-을 것이야', '-을 것일까' 등 다양하게 활용하며 이는 각각 '-을 겁니다', '-을 거예요', '-을 거다', '-을 거야', '-을 걸까'로 줄여 쓴다.

[유사 문법]

① '-는 것/-은 것/-을 것2', '-기'

-는 것, -은 것, -을 것2	**-기**
· 동사, 형용사 또는 '이다', '아니다' 등에 붙어 그 말이 문장 내에서 명사 기능을 하게 한다.	

· 뒤에 나오는 서술어에 제약이 거의 없다. 예) 흐엉 씨가 **성실한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비가 올 때 **걷는 것**을 좋아한다.	· 뒤에 나오는 서술어에 제약이 있다. 예) 흐엉 씨가 **성실하기**를 알고 있다. (x) 나는 비가 올 때 **걷기**를 좋아한다. (o)
· 동사와 형용사, '이다', '아니다'의 관형사형의 시제에 따라 '-는 것', '-은 것', '-을 것'이 나뉘어 쓰인다. 예) 그가 **가는 것**이 보인다. (동사 현재) 순희가 **예쁜 것**이 확실하다. (형용사 현재) 그 도둑이 **잡힌 것**을 나중에 들었다. (동사 과거) 영희가 **학생인 것**이 맞니? ('이다' 현재) 그가 **갈 것**이 예정되어 있다. (동사 미래)	· 동사와 형용사, '이다', '아니다' 모두에 '-기'가 붙는다. 시제는 과거와 미래를 나타내는 '-었-'과 '-겠-'이 붙어 '-었기', '-겠기'로 나타낸다. 예) 그는 아침에 **조깅하기**를 좋아한다. 영희가 **예쁘기**는 예쁘지? 저희 아버지께서 **교사였기** 때문에 매우 엄하셨습니다. 이제는 수업을 **끝내야겠기**에 질문을 받지 않겠어요.

② '-는 것/-은 것/-을 것2', '-음'

-는 것, -은 것, -을 것2	**-음**
동사, 형용사 또는 '이다', '아니다' 등에 붙어 그 말이 문장 내에서 명사 기능을 하게 한다.	
· 뒤에 나오는 서술어에 제약이 거의 없다.	· 뒤에 나오는 서술어에 제약이 있다.
· 동사와 형용사, '이다', '아니다'의 관형사형의 시제에 따라 '-는 것', '-은 것', '-을 것'이 나뉘어 쓰인다. 예) 그가 **가는 것**이 보인다. (동사 현재) 순희가 **예쁜 것**이 확실하다. (형용사 현재) 그 도둑이 **잡힌 것**을 나중에 들었다. (동사 과거) 영희가 **학생인 것**이 맞니? ('이다' 현재) 그가 **갈 것**이 예정되어 있다. (동사 미래)	· 동사와 형용사, '이다', '아니다' 모두에 '-음'이 붙는다. 과거는 '-었음'으로 나타낸다. 예) 그가 일을 그렇게 **처리함**은 현명하다. 그가 가장 **어리석었음**이 드러났다.
· '-을 것'은 종결형에서뿐 아니라 문장 속에 안겨서도 쓸 수 있다. 예) 그가 **갈 것**. (o) 그가 **갈 것**이 예정되어 있다. (o)	· '-겠음'은 종결형으로만 쓰이고, 문장 속에 안겨 쓰이지 않는다. 예) 내가 **가겠음**. (o) 그가 **가겠음**이 예정되어 있다. (x)
· 문어와 구어에 관계없이 쓰인다. 예) 그는 밤새 친구가 **왔다 간 것**을 알았다.	· 문어에서 주로 사용한다. 예) 그는 밤새 친구가 **왔다 갔음**을 알았다.

(o) / 밤새 친구가 **왔다 간 거** 알았어? (o) 나는 피로로 온몸이 **무거워진 것**을 느꼈다. (o) / 가방이 **무거워진 거** 느꼈어? (o)	(o) / 밤새 친구가 **왔다 갔음**을 알았어? (?) 나는 피로로 온몸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o) / 가방이 **무거워짐**을 느꼈니? (?)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 (o)

③ '-을 것2', '-을 것1'

-을 것2	**-을 것1**
· 어미 '-을2'와 의존명사 '것'이 함께 쓰인 표현이다.	
· 문장에서 동사 및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어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게 한다. 예) 줄리아 씨도 서울역에 **갈 것**을 알았다.	· 문장을 종결하며 명령이나 지시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 서울역에 5시까지 **도착할 것**.

④ '-을 것2', '-겠-'

-을 것2	**-겠-**
· 의지 및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추측의 근거가 객관적일 때 주로 쓴다. 예) (열심히 공부했으니) 나는 대학에 **합격할 것입니다**. (좋은 재료에 정성을 다해 요리했으니) 이 음식은 **맛있을 것이다**.	· 추측의 근거가 주관적일 때 주로 쓴다. 예) 더워 **죽겠다**. 이 음식 **맛있겠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要)……的' 또는 대응 표현이 없이 실현되기도 함.

예) 해야 **할 것**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 **要做的**太多, 真是担心啊.
마실 것 좀 주세요. - 请给我喝**的.**
심심한데 **읽을 것** 없어요? - 没事干, 有什么可读**的**吗?
이 영화가 인기가 **많을 걸** 기대해요. - 期待这部电影会很受欢迎.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의 용언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ㄹ 것'을 써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동사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받침 있는 어간 뒤에 쓰이는 '-을 것'을 사용

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돈을 많이 벌을 것을 기대해요. (x)
이걸로 만들을 거 있나요? (x)

-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추측할 때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하여 '-었을 것'으로 쓰이지만 학습자들이 '-었-'을 사용하지 않아 오류가 나타난다.

예) 이미 숙제를 다 할 것이라고 믿어요. (x)
비행기가 이미 출발할 거라고 생각해요. (x)

3.6.21. '-을 때'

-을 때[-ㄹ 때][표현] 어떤 행위나 상황이 일어나는 **시간이나 동안**을 나타내는 표현.

-을 때: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어떤 행위나 상황이 발생한 시간상의 순간이나 지속되는 동안을 나타낸다. 특정 시점에 행해진 일이나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거나, 특정 조건 및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언제 음악을 들어요? 나: 기분이 **좋을 때** 음악을 들어요. 가: 언제 기타를 배웠어요? 나**:** 대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가: 시간이 **있을 때** 뭘 해요? 나: 영화를 봐요. 가: 철수 씨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요? 나: 저는 화가 **날 때** 따뜻한 차를 마셔요. 가: 왕밍 씨,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나: 부모님께 전화를 해요.
문장예문	· 밥을 **먹을 때** 친구가 왔어요. · 저는 잠이 **올 때** 커피를 마셔요. · 시간이 **많을 때** 전화해 주세요. · 철수 씨는 버스에서 음악을 **들을 때**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 버스에서 **내릴 때** 오토바이를 조심하세요. · 도서관에 **갈 때** 학생증을 가져가세요. · 수지 양은 **공부할 때** 음악을 듣습니다. · 미도리 씨는 **시험 볼 때**만 열심히 공부합니다. · 흐엉 씨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책을 읽습니다. · 저는 **영화 볼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 '-을 때'는 시간의 순간이나 동안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따라서 '언제 ~어요?', '-을 때 ~어요.'를 전형적인 대화쌍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특정 시점이나 상황을 지정하여 '-을 때 무엇을 해요?'와 같은 질문도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다.
+ '-을 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는 영화 볼 때가 제

일 행복합니다'의 문장에서 볼 수 있듯 '-을 때' 뒤에 격조사 '이/가'가 붙어 사용되기도 한다.

[도입]

(1)
교사: 수지 씨는 언제 기분이 좋아요?
학생: 쇼핑을 해요. 기분이 좋아요.
교사: 수지 씨는 쇼핑을 **할 때** 기분이 좋아요.
영수 씨, 피곤해요. 뭘 해요?
학생: 운동을 해요.
교사: 영수 씨는 **피곤할 때** 운동을 해요.

(2)
교사: 왕밍 씨, 피곤해요 뭘 해요?
학생: 잠을 자요.
교사: 왕밍 씨는 **피곤할 때** 잠을 자요.
줄리아 씨, 피곤할 때 뭘 해요?
학생: 저는 커피를 마셔요.
교사: 줄리아 씨는 **피곤할 때** 커피를 마셔요.

+ 도입 질문은 앞 절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언제 ~어요?'와 뒤 절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요. 뭘 해요/어때요?'의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시간이나 상황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언제 하는지 물어보는 질문과, 이와 반대로 특정 시점이나 상황에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한 질문을 나눠서 제시한다. 다음과 같이 앞 절과 뒤 절의 내용을 구분하여 판서하는 게 좋다.

예)

수지 영수 줄리아	쇼핑을 해요. 드라마를 봐요. 샤워를 해요.	기분이 좋아요.

수지 영수 줄리아	피곤해요.	운동을 해요. 잠을 자요. 커피를 마셔요.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 때'로 쓴다.

예) 작- + -을 때 → 작을 때
찾- + -을 때 → 찾을 때
없- + -을 때 → 없을 때
웃- + -을 때 → 웃을 때
앉- + -을 때 → 앉을 때
좋-+ 을 때 → 좋을 때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받침으로 끝나면 '-ㄹ 때'로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자- + -ㄹ 때→ 잘 때　　슬프- + -ㄹ 때 → 슬플 때
크- + -ㄹ 때 → 클 때　　비싸- + -ㄹ 때 → 비쌀 때
놀- + -ㄹ 때 → 놀 때　　만들- + -ㄹ 때 → 만들 때

①	받침 ㅇ	+ -을 때	작을 때, 웃을 때, 찾을 때, 앉을 때, 없을 때, 좋을 때
②	받침 ×	+ -ㄹ 때	잘 때, 슬플 때, 클 때, 비쌀 때
	ㄹ 받침	+ -ㄹ 때 (어간 'ㄹ' 탈락)	놀 때, 만들 때

③ 불규칙 동사
걷-　예) 오랫동안 **걸을 때** 운동화를 신으세요.
춥-　예) 저는 **추울 때** 따뜻한 차를 마셔요.
짓-　예) 수지 씨, 밥을 **지을 때** 물을 적당히 넣으세요.
이렇-　예) 왕밍 씨도 저처럼 **이럴 때** 병원에 가세요.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은 '-지 않을 때', '안 -을 때'로 쓴다. '안 -을 때'는 주로 구어에서 쓴다.

예) 저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매운 음식을 먹어요.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매운 음식을 먹어요.
바쁘지 않을 때 같이 등산할까요?
안 바쁠 때 같이 등산할까요?

② 과거 '-었-'과 결합할 수 있다. '-었을 때'는 '과거의 시간'이나 '어떤 동작이 완료된 상황'을 나타낸다.

예)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북경에 **갔을 때** 날씨가 추웠어요.
남의 발을 **밟았을 때**에는 '미안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경찰서에 가 보세요.

+ '어렸을 때, 북경에 갔을 때'는 과거의 시간을 나타내며,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남의 발을 밟았을 때'는 완료를 뜻한다.
+ 현재형은 조건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데 비해, 과거형은 특정 행위를 했던 시점에 대한 의미만 나타낸다. 학습자에게 이를 제시할 때에는 행동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현재형부터 제시하고, 그 이후에 과거형을 제시하는 게 좋다.

[확장]
① '명사+때'의 구성으로 쓰기도 한다.

예)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식사 때 말 시키지 마세요.
시험 때가 가장 피곤해요.
수지 씨는 **학생 때** 인기가 많았어요.
이번 **휴가 때** 제주도에 갈 거예요.

+ 이때 '방학', '학생', '휴가'와 같은 일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만 결합한다. 시간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도 '주말', '요일', '주', '오전', '오후', '시' 등의 명사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이들 명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와 함께 사용된다.

예) **3시 때** 텔레비전을 봐요. (x)
주말 때 영화를 봤어요. (x)
오전 때 늦잠을 잤어요. (x)
화요일 때 집에 놀러오세요. (x)

② '-을 때' 다음에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예) 잘못을 **반성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시간이 **있을 때(에)만** 영화를 봐요.
머리가 **아플 때는** 약을 먹어요.
돈이 **없을 때도** 쇼핑을 하고 싶어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유사 문법]
① '-을 때', '-을 적에'

-을 때	**-을 적에**
· '어떤 행위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간의 순간이나 동안'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주로 조사 '에'를 붙이지 않고 사용한다. 예) 나는 학교에 **갈 때** 도시락을 싸 간다. 수지는 **어릴 때** 인형같이 예뻤다.	· 주로 조사 '에'를 붙여 사용한다. 예) 나는 학교에 **갈 적에** 도시락을 싸 간다. 수지는 **어릴 적에** 인형같이 예뻤다.
· 다른 조사와 결합할 때 '에' 없이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 수지는 **어릴 때도** 예뻤다. (o) 수지는 **어릴 때만** 예뻤다. (o) 수지는 **어릴 때까지는** 예뻤다. (o)	· 다른 조사와 결합할 때 '에' 뒤에 결합된다. 예) 수지는 **어릴 적에도** 예뻤다. (o) 수지는 **어릴 적도** 예뻤다. (x) 수지는 **어릴 적에만** 예뻤다. (o) 수지는 **어릴 적만** 예뻤다. (x)

② '-을 때', '-는 동안에'

-을 때	**-는 동안에**
· '어떤 행위를 하는 계속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계속되는 전체 시간이나 한 시점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 영수는 밥을 **먹을 때** 뉴스를 봤다. (밥을 먹는 동안 또는 밥을 먹는 순간 뉴스를 봤다.)	· 어떤 행위가 계속되는 전체 시간에 걸쳐 다른 일이 행해짐을 의미한다. 예) 영수는 밥을 **먹는 동안에** 뉴스를 봤다. (밥을 먹는 동안 계속 뉴스를 봤다.)
· 동사, 형용사와 모두 결합한다. 예) 영수는 **바쁠 때** 전화를 받지 않는다.	· 동사, '있다, 없다, 계시다'와 결합한다. 예) 영수는 **바쁘는 동안** 전화를 받지 않는다. (x)
· 과거 '-었-'과 결합한다. 예) 영수가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없었다.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영수는 집에 **왔는 동안** 아무도 없었다. (x)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的时候'

예)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해. - 需要帮忙**的时候**打电话吧.
기분이 **좋을 때** 음악을 듣습니다. - 心情好**的时候**听音乐.
시간이 **있을 때** 배드민턴을 합니다. - 有时间**的时候**打羽毛球.
공부할 때 음악을 듣지 마세요. - 学习**的时候**不要听音乐.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의 동사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ㄹ 때'를 써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동사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받침 있는 어간 뒤에 쓰이는 '-을 때'를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음식을 만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x)
동생이 울을 때 안아 주세요. (x)

- 어떤 동작이 완료된 상황을 나타낼 때에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과 결합하여 '-었을 때'로 쓰이지만 학습자들이 '-었-'을 사용하지 않아 오류가 나타난다.

예) 작년에 북경에 갈 때 날씨가 추웠다. (x)
지갑을 잃어버릴 때에는 경찰서에 가 보세요. (x)

- 학습자들이 '듣다', '눕다', '짓다' 등 동사의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인다.

예) 음악을 듣을 때 이어폰을 사용하세요. (X)
침대에 눕을 때 천천히 누우세요. (X)
밥을 짓을 때 물을 적당히 넣어야 해요. (X)

3.6.22. '-을 수 있다'

-을 수 있다[-ㄹ 수 있다]{-을 수 없다}[표현] 1) **능력** 2)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표현.

-을 수 있다1): (동사에 붙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가: 수지 씨,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나: 네, **탈 수 있어요./** 아니요, **탈 수 없어요.** 가: 줄리아 씨, 중국어를 **할 수 있어요**? 나: 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가: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나: 네,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아니요, 피아노를 **칠 수 없어요**. 가: 불고기를 **만들 수 있어요**? 나: 네, 불고기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불고기를 **만들 수 없어요**. 가: 왕밍 씨,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겠어요**? 나: 네, **찾을 수 있어요**./ 아니요, **찾을 수 없어요**.
문장예문	· 미도리 씨는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 유미 씨는 **운전할 수 있어요?** · 저는 한국어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 영수는 중국어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 수지는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 없어요**. · 너무 시끄러워서 **잘 수 없어요**. · 배가 고프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 영어로 편지를 **쓸 수 있어요**. · 작년에는 수영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수영을 **할 수 있어요.** · 저는 책을 보지 않고 본문을 **외울 수 있습니다**.

+ '-을 수 있다1)'은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인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네, 탈 수 있어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네, 칠 수 있어요.'와 같이 전형적인 대화가 구성된다. '-을 수 없다'는 '-을 수 있다1)'의 반의 표현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없다고 대답할 때 '아니요, 탈 수 없어요./ 아니요, 칠 수 없어요.'와 같이 사용된다.

[도입]

(1)
교사: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어를 잘해요. 한국어를 **잘할 수 있어요**. 왕밍 씨는요?
학생1: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어를 **잘할 수 있어요**.
학생2: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베트남어를 **잘할 수 있어요.**
교사: 저는 한국어를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어, 베트남어를 **잘할 수 없어요**.

(2)
교사: 선생님은 수영을 배웠어요. 수영을 **할 수 있어요**. 흐엉 씨는 수영을 **할 수 있어요**?
학생1: 아니요, 저는 수영을 **할 수 없어요**.
교사: (운동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며)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요**?
학생1: 저는 스키를 **탈 수 있어요**.
교사: 흐엉 씨는 수영을 **할 수 없어요**. 스키를 **탈 수 있어요**. 미도리 씨는 스키를 **탈 수 있어요**?
학생2: 네, 저도 스키를 **탈 수 있어요**.

+ 도입(1)은 교사가 자신의 모국어를 가지고 '-을 수 있다'의 의미를 설명하며, 학생 역시 각자의 모국어를 가지고 '-을 수 있다'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른 나라의 말은 잘하지 못하지만 모국어로는 말을 잘한다는 내용을 통하여 학생들이 '-을 수 있다/-을 수 없다'의 의미를 쉽게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 도입(2)에서는 '수영하다, 농구하다, 축구하다, 피아노 치다, 기타 치다, 스케이트 타다, 자전거 타다, 스키 타다' 등의 그림 및 단어 카드를 보며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없는지 물어보고 대답하게 함으로 '-을 수 있다/-을 수 없다'의 의미를 파악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 수 있다'로 쓴다.

예) 먹- + -을 수 있다 → 먹을 수 있다　　읽- + -을 수 있다 → 읽을 수 있다
잡- + -을 수 있다 → 잡을 수 있다　　찾- + -을 수 있다 → 찾을 수 있다
씻- + -을 수 있다 → 씻을 수 있다　　받- + -을 수 있다 → 받을 수 있다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ㄹ 수 없다'로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마시- + -ㄹ 수 있다 → 마실 수 있다　　가- + -ㄹ 수 있다 → 갈 수 있다
오- + -ㄹ 수 있다 → 올 수 있다　　그리- + -ㄹ 수 있다 → 그릴 수 있다

살- + -ㄹ 수 있다 → 살 수 있다　　만들- + -ㄹ 수 있다 → 만들 수 있다

①	받침 ㅇ	+ -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읽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씻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②	받침 ×	+ -ㄹ 수 있다	마실 수 있다, 갈 수 있다, 올 수 있다, 그릴 수 있다
	ㄹ 받침	+ -ㄹ 수 있다 (어간 'ㄹ' 탈락)	살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③ 불규칙

듣- 예) 헤드폰을 끼고 있어서 **들을 수 없었어요**.

돕- 예)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짓- 예) 밥을 **지을 수 있어요**.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반의 표현인 '-을 수 없다'로 쓴다.

예) 자전거를 **탈 수 있지 않아요**. (x)
자전거를 **안 탈 수 있어요**. (x)
자전거를 **탈 수 없어요**. (o)

② 높임은 '-을 수 있으시다'로 쓴다.

예) 수영을 **할 수 계시다**. (x)
수영을 **할 수 있으시다**. (o)
수영을 **하실 수 있다**. (o)
수영을 **하실 수 있으시다**. (o)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수지는 **예쁠 수 있다.** (x)
영수는 키가 **작을 수 있다.** (x)

② 과거 '-었-'이 결합하는 동사 어간에는 붙지 않는다.

예) 영수는 탁구를 **쳤을 수 있다**. (x)
영수는 탁구를 **쳤을 수 있었다**. (x)
영수는 탁구를 **칠 수 있었다**. (o)

+ '영수는 탁구를 쳤을 수 있다'는 '-을 수 있다1)'이 아닌 '-을 수 있다2)'의 의미로 사용되면 맞는 문장이 된다.

[확장]

① '-을 수 없다1)'은 '-을 수 있다1)'의 반의 표현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나타낸다.

예) 저는 컴퓨터를 **고칠 수 없어요**.
미도리 씨는 스파게티를 **만들 수 없어요**.
왕밍 씨는 한국어로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유사 문법]

① '-을 수 있다/-을 수 없다', '-을 줄 알다/-을 줄 모르다'

-을 수 있다/-을 수 없다	**-을 줄 알다/-을 줄 모르다**
· '어떤 행위를 할 능력 유무'의 의미를 나타낸다.	
·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예) 나는 운전을 **할 수 있어요**.	· 방법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예) 나는 운전을 **할 줄 알아요**.

② '-을 수 없다', '-지 못하다'

-을 수 없다	**-지 못하다**
· '어떤 행위를 할 능력이 없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단순히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 나는 중국어를 **할 수 없어요**. (나는 중국어를 할 줄 알지만 중국어로 말하고 싶지 않거나 또는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 단순히 능력의 부재만을 의미한다. 예) 나는 중국어를 **하지 못해요**. (나는 중국어로 말할 능력이 없어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能/能够'

예) 저는 매운 김치도 먹**을 수 있어요.** - 我**能**吃辣泡菜.
나는 한국 노래를 부**를 수 있다.** - 我**能**唱韩文歌.
길이 많이 막히는데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요**? - 堵车很厉害, **能**按时到吗?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 **能**帮我一下吗?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의 용언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ㄹ 수 있다'를 써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동사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받침 있는 어간 뒤에 쓰이는 '-을 수

있다'를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저도 이런 요리를 만들을 수 있어요. (x)
같은 도시에서 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x)

-을 수 있다2):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어떤 상황이나 일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가능성에 대해 말할 때 주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우산을 가져갈까요? 나: 네, 날씨가 흐려서 비가 **올 수 있어요.** 가: 수지 씨, 8시까지 **올 수 있어요**? 나: 아니요, 길이 막혀서 좀 **늦을 수 있어요**. 가: 걸어서 학교에 갈래요? 나: 비가 안 오면 **걸을 수 있어요**. 가: 늦었어요. 빨리 버스를 타러 갑시다. 나: 빨리 가려면 버스보다 지하철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가: 줄리아 씨가 전화를 안 받아요. 나: 다시 전화해 보세요. 이번에 **받을 수도 있어요**.
문장예문	· 외국인에게는 버스를 타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 방학에 여행을 **갈 수 있어요?** · 그 사람의 동생이 **아닐 수 있어요.** ·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는 **어려울 수 있다.** · 어린이에게는 김치가 **매울 수 있다**. · 이번 주말에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 배가 좀 부르지만 더 **먹을 수 있어요**. · 더 이야기해 보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 오늘 눈이 많이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 '-을 수 있다2)'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8시까지 올 수 있어요?'라는 질문은 상대의 능력이 아니라 상황이나 일이 가능함을 묻는 것이다. '아니요, 길이 막혀서 좀 늦을 수 있어요.'도 상황이나 일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을 수 없다'는 '-을 수 있다2)'의 반의 표현으로, 가능성이 없을 때 '아니요, 올 수 없어요.'와 같이 사용된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갈까요? 언제가 좋을까요?
학생1: 토요일이 좋아요.
교사: 왕밍 씨는 토요일에 **만날 수 있어요**? 줄리아 씨는요?
학생2: 저도요. 선생님은요?
교사: 저도 일요일에는 약속이 있어서 토요일에 만나는 게 좋아요. 토요일에 **만날 수 있어요**.

(2)
(서로 다른 두 집을 보여 주며)
교사: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집이 좋을까요?
학생: 저 집은 너무 좁아요.
교사: 여기는 너무 좁아요. **좁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집은요?
학생: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힘들어요.
교사: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힘들 수 있어요**.

+ 도입(1)에서는 학생들과 약속 일정을 잡으면서 가능한 날짜를 이야기함으로써 가능성의 의미를 유추하도록 한다. 도입(2)에서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집을 보여 주며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을 생각하며 가능성의 의미를 유추하도록 한다.

[형태 정보]
앞의 '-을 수 있다1)'을 참고하되, 형용사, '이다, 아니다'와도 결합하므로 이에 주의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문은 반의 표현인 '-을 수 없다'로 쓴다.

예) 도서관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아요**. (x)
도서관에서는 음식을 **안 먹을 수 있어요**. (x)
도서관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o)

+ 단 형용사와 결합한 경우에 '-을 수 없다'로 부정문을 만드는 것이 어색하므로 주의한다.

예) 버스를 타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o)
버스를 타는 것이 **힘들 수 없어요.** (x)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o)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려울 수 없다.** (x)

② 높임은 '-을 수 있으시다' 또는 '-으실 수 있다'로 쓴다.

예) 이 약을 드시면 **졸릴 수 계세요**. (x)
이 약을 드시면 **졸릴 수 있으세요**. (o)

이 약을 드시면 **졸리실 수 있어요**. (o)
이 약을 드시면 **졸리실 수 있으세요**. (o)

[제약 정보]
① 과거 '-었-'이 '있다' 앞에 오는 동사 어간에 붙는다.
예) 영수는 탁구를 **칠 수 있었다**. (x)
영수는 탁구를 **쳤을 수 있었다**. (x)
영수는 탁구를 **쳤을 수 있다**. (o)

+ '영수는 탁구를 칠 수 있었다'는 '-을 수 있다2)'가 아닌 '-을 수 있다1)'의 의미로 사용되면 맞는 문장이 된다.

[확장]
① '-을 수 없다2)'는 '-을 수 있다2)'의 반의 표현으로 어떤 일이나 상황이 가능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예) 오늘 저녁에는 약속이 있어서 **갈 수 없어요**.
외국인에게는 지하철을 타는 일도 **쉬울 수 없어요**.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비가 **올 수 없어요**.

② '-을 수 있다2)'와 '-을 수 없다2)'는 다음 대화에서처럼 가능함을 묻는 질문에 가능하지 않음을 뜻하는 답으로 자주 사용된다.

예) 가: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나: 아니요, 사진을 **찍을 수 없어요**.

가: 영화관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나: 아니요, 영화관에서는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유사 문법]
① '-을 수 있다/-을 수 없다', '-을 수밖에 없다'

-을 수 있다/-을 수 없다	**-을 수밖에 없다**
· '어떤 행위를 할 가능성 유무'에 대한 의미를 나타낸다.	
· '-을 수 있다'는 어떤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예)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힘들 수 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힘들 가능성이 있다.)	· 어떤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나타낸다. 예)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반드시 힘이 든다.)
· '-을 수 없다'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만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예) 너무 바빠서 외국어를 **배울 수 없다**. (너무 바빠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가능함을 나타낸다. 예) 취직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배울 수밖에 없다**. (취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어를 배워야만 한다.)

② '-을 수 있다/-을 수 없다', '-어도 되다/-으면 안 되다'

-을 수 있다/-을 수 없다	**-어도 되다/-으면 안 되다**
· '어떤 행위가 허용되거나 금지됨'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행위의 허용이나 금지의 정도가 '-어도 되다/-으면 안 되다'에 비해 약하다. 예) 버스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마실 수 없어요.**	· 행위의 허용이나 금지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예) 버스에서 커피를 **마셔도 돼요**./ **마시면 안 돼요.**

③ '-을 수 없다', '-지 못하다'

-을 수 없다	**-지 못하다**
· '어떤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가능하지 않음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예) 그것은 좋은 태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o) 그것은 좋은 태도라고 **말하지 못해요**. (x)	· 외부적 상황이나 타의에 의해 어떤 행위가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예) 바빠서 외국어를 **배우지 못해요**. 바빠서 외국어를 **배울 수 없어요.** (x)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会', '可能(会)'

예)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는 어려**울 수 있다**. - 一开始学习韩国语的时候**会**难.
이 노래가 외국인이 부르기에 힘**들 수 있어요**. - 这首歌对外国人来说**可能会**难.
철수가 이미 떠났**을 수도 있어**. - 哲洙有**可能**已经出发了.
또 지각하면 선생님이 화내**실 수도 있어**. - 如果又迟到, 老师**会**生气的.

② 용법과 오류

- 과거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낼 때에는 앞에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을 사용해야 하지만 중국어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어제 왔으면 그녀를 만날 수도 있다. (x)
일찍 떠났더라면 이미 도착할 수 있었다. (x)

3.6.23. '-을 수밖에 없다'

-을 수밖에 없다[-ㄹ 수밖에 없다][표현] 다른 방법이 없거나 당연한 결과임을 나타내는 표현.

-을 수밖에 없다: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나 다른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가: 버스를 탈까요, 택시를 탈까요? 나: 버스가 끊겨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어요**. 가: 5시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나: 아니요, 5시 표는 매진이 되어서 7시에 **볼 수밖에 없어요.** 가: 영화표를 수지 씨가 가지고 있어요? 나: 네, 그래서 수지 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가: 철수는 키가 정말 커요. 나: 맞아요. 매일 농구를 하니까 키가 **클 수밖에 없어요.** 가: 한국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나: 5년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문장예문	·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 · 삼겹살이 없어서 불고기를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 주말에는 시내에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 ·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 그렇게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 이 드라마를 보면 **울 수밖에 없어요.** · 지금은 너무 졸려서 **잘 수밖에 없어요**. ·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살 수밖에 없어요**. · 어머니는 누구나 강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을 수밖에 없다'는 오직 하나의 방법 내지는 가능성만이 있음을 나타낸다. '-을 수밖에 없다'는 '버스를 탈까요, 택시를 탈까요?'라는 질문에 '버스가 끊겨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어요.'로 답하거나 '5시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5시 영화가 매진이 되어 7시 영화를 볼 수밖에 없어요.'로 답한 것같이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사용한다. 또한 '-을 수밖에 없다'는 '매일 농구를 하니까 키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에서 보듯 앞 절의 내용에 따른 단 하나의 가능성이 뒤 절에 오게 되어 '당연한 결과'를 나타낸다.

[도입]

(1)
(10000원 짜리 피자 그림, 2000원 짜리 김밥 그림을 보여 주며)
교사: 제가 돈이 2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피자를 먹고 싶어요. 먹을 수 있어요?
학생: 아니요, 먹을 수 없어요.
교사: 다른 것을 먹을 수 있어요?
학생: 네, 김밥을 먹을 수 있어요.
교사: 김밥을 먹고 싶지 않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김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2)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그림, 지하철에서 조는 그림을 보여 주며)
교사: 어제 몇 시에 잤어요?
학생: 새벽 2시에 잤어요.
교사: 어제 새벽 2시에 잤어요? 그러면 지금 괜찮아요?
학생: 너무 피곤해요.
교사: 어제 새벽 2시에 잤어요. 오늘 피곤해요. 늦게까지 공부해서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늦게 자서 **졸 수밖에 없어요.**

+ 도입(1)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인 제한된 상황을 제시하여 다른 가능성이나 방법이 없을 때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함을 알게 한다. 도입(2)에서는 앞선 행위나 사건으로 인해 예상되는 상황을 추측하여 말하게 함으로써 '-을 수밖에 없다'가 당연한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함을 인식하게 한다.
+ 도입(1)의 의미를 기본으로 하여 도입(2)로 확장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 수밖에 없다'로 쓴다.

예) 입- + -을 수밖에 없다 → 입을 수밖에 없다
좋- + -을 수밖에 없다 → 좋을 수밖에 없다
작- + -을 수밖에 없다 → 작을 수밖에 없다
찾- + -을 수밖에 없다 → 찾을 수밖에 없다
먹- + -을 수밖에 없다 → 먹을 수밖에 없다

짧- + -을 수밖에 없다 → 짧을 수밖에 없다

②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ㄹ 수밖에 없다'로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가- + -ㄹ 수밖에 없다 → 갈 수밖에 없다
주- + -ㄹ 수밖에 없다 → 줄 수밖에 없다
크- + -ㄹ 수밖에 없다 → 클 수밖에 없다
예쁘- + -ㄹ 수밖에 없다 → 예쁠 수밖에 없다
놀- + -ㄹ 수밖에 없다 → 놀 수밖에 없다
만들- + -ㄹ 수밖에 없다 → 만들 수밖에 없다

①	받침 o	+ -을 수밖에 없다	입을 수밖에 없다, 좋을 수밖에 없다, 작을 수밖에 없다, 찾을 수밖에 없다, 먹을 수밖에 없다, 짧을 수밖에 없다
②	받침 ×	+ -ㄹ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줄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다, 예쁠 수밖에 없다
	ㄹ 받침	+ -ㄹ 수밖에 없다 (어간 'ㄹ' 탈락)	놀 수밖에 없다, 만들 수밖에 없다

③ '이다, 아니다'는 '-ㄹ 수밖에 없다'를 쓴다.

예) 계란이- + -ㄹ 수밖에 없다 → 계란일 수밖에 없다
이불이- + -ㄹ 수밖에 없다 → 이불일 수밖에 없다
아이이- + -ㄹ 수밖에 없다 → 아이일 수밖에 없다
친구이- + -ㄹ 수밖에 없다 → 친구일 수밖에 없다
아니- + -ㄹ 수밖에 없다 → 아닐 수밖에 없다

④ 불규칙 동사
걷- 예) 버스가 없으면 **걸을 수밖에 없어요**.
덥- 예) 여름이니까 **더울 수밖에 없어요**.
붓- 예)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 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당연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당연히', '반드시' 와 같은 부사와 함께 자주 사용한다.

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시험을 못 **볼 수밖에 없다**.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노력했으니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② 부정문은 '-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안 -을 수밖에 없다'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의미 해석이 복잡하여 잘 쓰지 않는다.

예) 그가 자꾸 놀리니 **먹을 수밖에 있어요**. (x)
그가 자꾸 놀리니 **먹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x)
그가 자꾸 놀리니 **먹지 않을 수밖에 있다**. (x)
그가 자꾸 놀리니 **더 이상 먹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o)
그가 자꾸 놀리니 **더 이상 안 먹을 수밖에 없어요.** (o)

[확장]

① '-는 수밖에 없다'는 동사와만 결합하며 오직 한 가지 방법임을 더욱 강조할 때 쓰인다.

동사 o 형용사 x	+ -는 수밖에 없다	졸릴 때는 **자는 수밖에 없어요**. (o) 수술을 했으니까 **아프는 수밖에 없어요**. (x)
동사 o 형용사 o	+ -을 수밖에 없다	졸릴 때는 **잘 수밖에 없어요**. (o) 수술을 했으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요**. (o)

[유사 문법]

① '-을 수밖에 없다', '-을 수 있다/-을 수 없다'

-을 수밖에 없다	**-을 수 있다/-을 수 없다**
· '어떤 행위를 할 가능성 유무'에 대한 의미를 나타낸다.	
· 어떤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나타낸다. 예)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반드시 힘이 든다.)	· 어떤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예)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힘들 수 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힘들 가능성이 있다.)
·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만 가능함을 나타낸다. 예) 취직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배울 수밖에 없다.** (취직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방법만 있다.)	·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예) 너무 바빠서 외국어를 **배울 수 없다.** (너무 바빠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只能', '就是'

예) 여기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 只能在这里等.

다리를 다쳐서 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 腿受伤了, **只能**待在家里.
주말에는 공원에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 - 周末公园里人**就是**多.
야식을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 吃夜宵**就是**长胖.

② 용법과 오류

- 과거시제는 '-을 수밖에 없었다'로 실현되지만 학습자들이 '-었을 수밖에 없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친구에게 말했을 수밖에 없다. (x)
영어 성적이 낮아서 영어학원에 다녔을 수밖에 없었다. (x)

- 'ㄹ' 받침의 용언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ㄹ 수밖에 없다'를 써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동사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받침 있는 어간 뒤에 쓰이는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재료가 부족해서 이렇게 만들을 수밖에 없었다. (x)
기숙사에서 살을 수밖에 없다. (x)

3.6.24. '-을까 보다'

-을까 보다[-ㄹ까 보다][표현] 1) 어떤 행위에 대한 **불확실한 의지** 2) 어떤 행위 및 상황에 대해 **우려되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을까 보다1):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에 대해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화자가 그 행위를 할 생각이 있음을 나타낸다. 확실성의 정도가 약한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나: 특별한 계획은 없고 중국어 공부나 **할까 봐요**. 가: 뭐 시킬래요? 나: 저는 비빔밥을 **먹을까 봐요.** 가: 수업이 끝나면 뭐 할 거예요? 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까 봐요**. 가: 주말에 등산하러 갈래요? 나: 저는 피곤해서 집에서 **쉴까 봐요**. 가: 저는 이 옷을 살래요. 수지 씨는요? 나: 저는 양말이나 **살까 봐요**.
문장예문	· 졸려서 커피를 **마실까 봐요.** ·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갈까 봐요.** · 한국어 공부를 위해 뉴스를 **들을까 봐요.** · 심심한데 만화책을 **읽을까 봐요.** ·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탈까 봐요**. · 너무 늦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봐요.** ·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만들까 봐요**. · 왕밍 씨에게 제가 먼저 **사과할까 봐요.** · 시간도 많은데 한강까지 **걸을까 봐요.** · 너무 더운데 머리를 **자를까 봐요.** · 배가 고픈데 라면이나 **먹을까 봐요.** · 이번 가을에는 제주도로 **떠날까 봅니다.**

+ '-을까 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고 중국어 공부나 할까 봐요'의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다소 불확실하고 약한 의지의 느낌을

주는 게 일반적이다. 예에서 볼 수 있듯 해요체의 종결형으로 주로 사용되며, 화자 '나'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을까 보다'는 불확실하고 약한 의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배가 고픈데 라면이나 먹을까 봐요'와 같이 차선의 선택을 나타내는 조사 '이나'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도입]

(1)
교사: 주말에 뭐 할 거예요?
학생: 영화를 볼 거예요.
교사: 어디에서 누구랑 영화를 볼 거예요?
학생: 글쎄요, 약속하지 않았어요.
교사: 저도 미도리 씨처럼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말에 영화를 보려고 해요. 주말에 영화를 **볼까 봐요**.

(2)
교사: 선생님은 방학 때 부산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부산에 가 봤어요?
학생: 아니요, 저도 부산에 가 보고 싶어요.
교사: 부산에 갈 때 비행기, 기차,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어요.
학생: 어떤 걸 타고 가면 좋아요?
교사: 비행기를 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비싸요. 버스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학생: 그러면 기차를 타는 게 좋겠어요.
교사: 그래요. 비행기는 비싸니까 기차를 타고 **갈까 봐요.**

+ '-을까 보다'의 주어는 1인칭만 가능하므로 교사가 자신을 주어로 말하는 문장으로 도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명시적인 교수의 상황이 아니므로 학생을 주어로 하여 교사가 문장을 발화하게 되면 비문이 발생하게 된다.
+ 도입(1)에서 교사는 학생의 주말 계획을 물은 후 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을 해야 한다. 만약에 질문을 던진 학생의 계획이 매우 확정적인 것이라면, 대화를 마무리한 후 다른 학생에게 질문을 하여 확정적인 계획과 비확정적인 계획에 대한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하게 한다.
+ 도입(2)에서 만약 학생이 부산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 먼저 질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산에 가고 싶은지 학생에게 먼저 물어본 후 이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부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하여 목표 상황으로 유도하도록 한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을까 보다'로 쓴다.

예) 찾- + -을까 보다 → 찾을까 보다　　입- + -을까 보다 → 입을까 보다
읽- + -을까 보다 → 읽을까 보다　　앉- + -을까 보다 → 앉을까 보다
먹- + -을까 보다 → 먹을까 보다　　잡- + -을까 보다 → 잡을까 보다

② 동사 어간 끝음절에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으로 끝나면 '-ㄹ까 보다'로 쓴다. 단, 'ㄹ' 받침으로 끝날 때는 'ㄹ'이 탈락한다.

예) 쉬- + -ㄹ까 보다 → 쉴까 보다　　보- + -ㄹ까 보다 → 볼까 보다
자- + -ㄹ까 보다 → 잘까 보다　　다니- + -ㄹ까 보다 → 다닐까 보다
살- + -ㄹ까 보다 → 살까 보다　　만들- + -ㄹ까 보다 → 만들까 보다

①	받침 ㅇ	+ -을까 보다	찾을까 보다, 입을까 보다, 읽을까 보다, 앉을까 보다, 먹을까 보다, 잡을까 보다
②	받침 ×	+ -ㄹ까 보다	쉴까 보다, 볼까 보다, 잘까 보다, 다닐까 보다
	ㄹ 받침	+ -ㄹ까 보다 (어간 'ㄹ' 탈락)	살까 보다, 만들까 보다

③ 불규칙 동사
걷-　예) 학교까지 **걸을까 봐요**.
눕-　예) 피곤한데 침대에 **누울까 봐요**.
짓-　예) 강아지 이름을 미미로 **지을까 봐요**.

[문장 구성 정보]
① 부정은 '-지 말까 보다', '안 -을까 보다'로 쓴다.

예) 오늘 학교에 **가지 말까 봐요.**
오늘 학교에 **안 갈까 봐요.**
배탈이 나서 저녁을 **먹지 말까 봐요.**
배탈이 나서 저녁을 **안 먹을까 봐요.**
가방이 너무 비싸요. **사지 말까 봐요.**
가방이 너무 비싸요. **안 살까 봐요.**

② '-을까 보다'의 '보-'에 연결 어미가 결합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예) 운동을 **할까 보면** 좋겠어요. (x)
아이가 **넘어질까 봐** 조심스럽다.

+ 연결어미 '-어'가 결합되어 사용된 두 번째 예는 '-을까 봐서2)'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 저는 배가 **아플까 봐요.** (x)
저는 왕밍 씨와 생각이 **다를까 봐요.** (x)
식당에 사람이 **많을까 봐요.** (x)
이 음악이 **좋을까 봐요.** (x)

② 주어는 1인칭인 '나, 우리, 저, 저희' 등만 쓴다.

예) 왕밍 씨는 자전거를 **탈까 봐요**. (x)
왕밍 씨, 자전거를 **탈까 봐요?** (x)
제가 자전거를 **탈까 봐요**. (o)
우리가 자전거를 **탈까 봐요.** (o)

+ 주어가 1인칭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문문이나 명령 및 청유로 사용되지 않는다.

예) 제가 자전거를 **탈까 봐요?** (x)
자전거를 **탈까 보세요.** (x)
제가 자전거를 **탈까 봐라**. (x)
우리가 자전거를 **탈까 봅시다.** (x)

③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어제 운동을 **했을까 봐요.** (x)
어제 운동을 **할까 봤어요.** (x)
어제 운동을 **했을까 봤어요.** (x)
내일 운동을 **하겠을까 봐요.** (x)
내일 운동을 **할까 보겠어요.** (x)

[유사 문법]
① '-을까 보다', '-을까 하다, -을까 싶다'

-을까 보다	**-을까 하다, -을까 싶다**
· '약한 확신을 가진 의지'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과거 '-었-'이 '보-'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어제 수지 씨랑 쇼핑하러 **갈까 봤어요**. (x)	· 과거 '-었-'이 '하-, 싶-'과 결합할 수 있다. 예) 어제 수지 씨랑 쇼핑하러 **갈까 했어요**. (o) 어제 수지 씨랑 쇼핑하러 **갈까 싶었어요**. (o)

+ '-을까 보다, -을까 하다, -을까 싶다' 모두 과거 '-었-'이 '-을까'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어제 수지 씨랑 쇼핑하러 **갔을까 봐요**. (x)
어제 수지 씨랑 쇼핑하러 **갔을까 해요**. (x)
어제 수지 씨랑 쇼핑하러 **갔을까 싶어요**. (x)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想'

예) 졸려서 커피를 **마실까 봐요**. - 太困了, **想**和咖啡.
시간이 있는데 마트에 **다녀올까 봐요**. - 有点时间, **想**去一趟超市.
주말에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탈까 봐요**. - 周末**想**去公园骑自行车.
날씨가 너무 더운데 머리를 **자를까 봐요**. - 天气太热了, **想**剪头发.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의 동사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ㄹ까 봐요'를 써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동사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받침 있는 어간 뒤에 쓰이는 '-을까 봐요'를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소풍 갈 때 김밥을 만들을까 봐요. (x)
이사 가지 않고 그냥 이곳에서 살을까 봐요. (x)

- 학습자들이 '듣다', '눕다', '짓다' 등 동사의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인다.

예)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음악이나 듣을까 봐요. (x)
피곤한데 침대에 눕을까 봐요. (x)
고양이 이름을 미미로 짓을까 봐요. (x)

- 부정문은 '-지 말까 봐요', '안 -을까 봐요'인데 학습자들이 '-지 않을까 봐요'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피곤해서 행사에 가지 않을까 봐요. (x)
배탈이 나서 저녁을 먹지 않을까 봐요. (x)

- 주어는 반드시 1인칭인 '나/저' 또는 '우리/저희'여야 하고 서술문에 쓰이지만 학습자들이 2인칭, 3인칭 주어를 사용하고 기타 문장 형식에도 사용하는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예) 영희 씨가 자전거를 탈까 봐요. (x)
너도 자전거를 탈까 봐? (x)

- '-고 싶다', '-을래요', '-을까 봐요'의 중국어 대응표현이 모두 '想'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시간이 있는데 백화점에 가고 싶어요/갈래요. (?)
('갈까 봐요'로 표현해야 할 경우)

-을까 보다2):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어떤 행위가 발생하거나 어떤 상황이 될 것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이러한 추측이 염려스럽거나 걱정스러울 때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영수 씨, 벌써 왔어요? 나: 비행기가 **떠날까 봐** 일찍 왔어요. 가: 왜 김치를 안 먹어요? 나: **매울까 봐** 못 먹겠어요. 가: 같이 피자를 먹으러 갈래요? 나: 살이 **찔까 봐** 걱정이 돼서 먹을 수가 없어요. 가: 이 컴퓨터를 10년 전에 샀어요? 나: 네, 그래서 고장이 **날까 봐** 조심하고 있어요. 가: 수지 씨, 급한 일이 있어요? 나: 약국이 문을 **닫을까 봐** 걱정이에요.
문장예문	· 시험을 못 **볼까 봐** 걱정이에요. · 머리가 **아플까 봐** 두통약을 준비했어요. · 기차가 **출발할까 봐** 일찍 왔어요. · 교수님께서 저에게 답을 **물을까 봐** 떨려요. · 수업 시간에 **졸까 봐**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 친구 결혼식에 **늦을까 봐** 택시를 타고 왔어요. · 지갑을 **잃어버릴까 봐** 조심하면서 쇼핑했어요. · 아이가 계단에서 **넘어질까 봐** 걱정이 돼요. · 어제 온 분이 우리 **선생님일까 봐** 걱정입니다. · 합격이 **아닐까 봐** 아직 전화를 못 했어요.

+ '-을까 보다2)'는 '-을까 봐(서)'의 형태로만 고정되어 사용되며, 이때의 의미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걱정스러운 추측을 나타낸다. '비행기가 떠날까 봐 일찍 왔어요', '약국이 문을 닫을까 봐 걱정이에요.'의 문장에서와 같이 '-을까 봐'의 뒤 절에는 앞 절의 사건으로 인한 걱정이나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행위에 대한 서술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을까 보다1)'과 의미와 형태 등이 모두 구별되어 사용됨에 주의한다.

[도입]

(1)
교사: 여러분, 모두 건강해요?
학생: 네, 건강해요.
교사: 선생님은 여러분이 아파요. 걱정해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아플까 봐** 걱정해요.

(2)
교사: 여러분, 선생님이 노래하고 싶어요. 노래해도 돼요?
학생: 네, 노래해 주세요.
교사: 그런데 선생님이 노래를 잘 못해요. 걱정이 돼요. 노래를 **못할까 봐** 걱정이 돼요. 여러분이 노래해 주세요.

+ 도입(1)은 학생이 아픈 것에 대해 교사가 걱정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도입(2)는 노래를 하고 싶지만 노래를 못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도입의 상황처럼 무언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구성하여 '-을까 보다'를 사용하는 상황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좋다.

[형태 정보]
앞의 '-을까 보다1)'을 참고하되, 동사 및 형용사, '이다, 아니다'와 모두 결합하므로 이에 주의한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을까 봐(서)'의 형태로 고정되어 사용된다. 주로 '-을까 봐'의 형태로 사용한다.

예) 강아지가 **아플까 보니까** 병원에 데려갔어요. (x)
강아지가 **아플까 봐도** 병원에 데려갔어요. (x)
강아지가 **아플까 봤지만** 병원에 데려갔어요. (x)
강아지가 **아플까 봐(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o)

② 부정은 '-지 않을까 봐', '안 -을까 봐'로 쓴다.
예) 제 사과를 **받지 않을까 봐** 고민이에요.
제 사과를 **안 받을까 봐** 고민이에요.
부모님과 제 생각이 **같지 않을까 봐** 걱정이에요.
부모님과 제 생각이 **안 같을까 봐** 걱정이에요.

[제약 정보]
① 과거 '-었-'과 결합할 수 있다.

예) 기차가 **떠났을까 봐** 서둘렀다.
수업이 **끝났을까 봐** 걱정했어요.
영화가 **시작했을까 봐** 택시를 타고 왔어요.
수지 씨가 **감기에 걸렸을까 봐** 걱정이 돼요.

② 미래·추측을 나타내는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기차가 **떠나겠을까 봐** 서둘렀다. (x)

수업이 **끝나겠을까 봐** 걱정했어요. (x)

[확장]

① '-을까 해서/-을까 싶어/-을지 몰라'와 바꿔 쓸 수 있다.

예) 수지 씨가 **기분이 나쁠까 봐** 걱정이에요.
수지 씨가 **기분이 나쁠까 해서** 걱정이에요.
수지 씨가 **기분이 나쁠까 싶어** 걱정이에요.
수지 씨가 **기분이 나쁠지 몰라** 걱정이에요.
배가 **고플까 봐** 간식을 사 왔어요.
배가 **고플까 해서** 간식을 사 왔어요.
배가 **고플까 싶어** 간식을 사 왔어요.
배가 **고플지 몰라** 간식을 사 왔어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怕', '生怕', '担心'

예) 수업에 **늦을까 봐** 택시를 탔어요. - **怕**上课迟到, 打出租了.
기차가 **출발할까 봐** 일찍 왔어요. - **怕**火车出发, 早点过来了.
아이가 **넘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 **生怕**小孩儿摔倒, 很担心.
배가 **고플까 봐** 빵을 가져왔다. - **担心**肚子饿, 带面包了.

② 용법과 오류

- 'ㄹ' 받침의 용언 어간과 결합할 경우,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ㄹ까 봐'를 써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동사, 형용사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받침 있는 어간 뒤에 쓰이는 '-을까 봐'를 사용하는 오류를 보인다.

예) 내가 사고 싶은 옷을 팔을까 봐 걱정이다. (x)
학교가 집에서 멀을까 봐 일찍 떠났어요. (x)

- 학습자들이 '듣다', '눕다', '짓다' 등 동사의 불규칙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인다.

예) 친구가 듣을까 봐 조용히 얘기했다. (x)
아이들이 별명을 짓을까봐 걱정했어요. (x)

- 부정문은 '안 -을까 봐' 또는 '-지 않을까 봐'인데 학습자들이 첫 번째 용법과 헷갈려 '-지 말까 봐'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영희가 말하지 말까 봐 걱정이다. (x)
제 사과를 받지 말까 봐 걱정했어요. (x)

- 과거는 '-을까 봐' 앞에 '-었-'을 넣어 '-었을까 봐'의 형태로 쓰지만, 학습자들이 '-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철수가 고향으로 이미 떠날까 봐 걱정했다. (x)
어제 영희가 왕밍 씨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할까 봐 걱정했다. (x)

3.6.25. ‘이 아니다’

이 아니다[가 아니다][표현] 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부정함**을 나타내는 표현.

이 아니다: (명사에 붙어) 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부정함을 나타낸다. ‘이다’의 부정 표현으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나: 아니요, 베트남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가: 이 사람이 미도리 씨 오빠예요? 나: 아니요, 오빠**가 아니에**요. 동생이에요. 가: 여기가 도서관입니까? 나: 아니요, 여기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서점입니다. 가: 수지 씨, 이 집이 수지 씨 집 아니지요? 나: 네, 이 집**이 아니에요**. 가: 분티안 씨는 꿈이 의사예요? 나: 아니요, 제 꿈은 의사**가 아니에요.** 축구 선수예요.
문장예문	·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 이 옷은 비싼 것**이 아니에요.** · 수지 씨는 요리사**가 아니에요**. · 왕밍 씨는 부자**가 아니에요**. · 그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 6월은 여름**이 아니에요**. · 제가 좋아하는 것은 커피**가 아니에요**. · 이것은 앤디 씨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 여기는 우리 자리**가 아니에요**. · 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 ‘이 아니다’는 ‘이다’의 부정 표현으로, ‘수지 씨가 요리사예요’의 부정문은 ‘수지 씨가 요리사가 아니에요’이다. ‘이다’를 부정하면 ‘이다’ 앞의 명사가 떨어져 나와 학교문법에서 보격 조사라고 부르는 ‘이/가’가 붙고 뒤에 ‘아니다’가 오게 된다. ‘이 아니다’와 대칭을 이루는 구성은 ‘이 이다’가 아니라 ‘이다’임을 기억한다.

[도입]

(1)
교사: 꾸앙 씨,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맞아요?
학생: 아니요,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교사: 맞아요.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10시예요. 맞아요?
학생: 틀려요. 지금은 11시예요.
교사: 지금은 11시예요. 10시**가 아니에요**.

(2)
교사: 줄리아 씨, 미국 사람이에요?
학생: 아니요,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교사: 줄리아 씨는 영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분티안 씨는 태국 사람이에요?
학생: 아니요, 저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교사: 분티안 씨는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태국 사람**이 아니에요.**

+ '이 아니다'로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다'를 사용하여 잘못된 사실의 문장을 제시한 후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묻는다. 바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학생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형태 정보]

①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 아니다'를 쓴다.

예) 학생 + 이 아니다 → 학생이 아니다
책상 + 이 아니다 → 책상이 아니다
식탁 + 이 아니다 → 식탁이 아니다
사람 + 이 아니다 → 사람이 아니다
건물 + 이 아니다 → 건물이 아니다
선생님 + 이 아니다 → 선생님이 아니다

② 명사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가 아니다'를 쓴다.

예) 컴퓨터 + 가 아니다 → 컴퓨터가 아니다
친구 + 가 아니다 → 친구가 아니다
버스 + 가 아니다 → 버스가 아니다
의자 + 가 아니다 → 의자가 아니다
숙제 + 가 아니다 → 숙제가 아니다
시계 + 가 아니다 → 시계가 아니다

①	받침 o	+ 이 아니다	학생이 아니다, 책상이 아니다, 식탁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선생님이 아니다
②	받침 ×	+ 가 아니다	컴퓨터가 아니다, 친구가 아니다, 버스가 아니다, 의자가 아니다, 숙제가 아니다, 시계가 아니다

③ '아니다'에 어미 '-에요'가 붙은 '아니에요'는 줄여서 '아녜요'라고 쓴다. '아니예요'는 잘못된 표기이다.

예) 저는 학생**이 아니에요.** (o)
저는 학생**이 아녜요.** (o)
저는 학생**이 아니예요.** (x)

+ '아니다'에 어미 '-어요'가 붙은 '아니어요'는 줄여서 '아녀요'라고 쓴다. '아니여요'는 잘못된 표기이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이/가' 다음에 다른 조사가 붙지 않는다. 다른 조사가 붙을 때 '이/가'는 생략된다.

예) 이것은 제 커피**가도 아니에요**. (x)
이것은 제 커피**가만 아니에요**. (x)
이것은 제 커피**가는 아니에요.** (x)
이것은 제 커피**가조차 아니에요**. (x)

+ '이/가'의 이런 특징은 주격 조사와 같다.

[확장]

① '이 아니다'에 연결어미 '-라'가 붙어 '~이 아니라 ~이다', 연결어미 '-고'가 붙어 '~이 아니고 ~이다'의 구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앞 절과 뒤 절의 내용은 서로 대칭이 된다.

예) 이건 제가 만든 음식**이 아니라** 수지 씨가 만든 음식**이에요**.
여기는 백화점**이 아니라** 마트**예요**.
반장은 제**가 아니라** 왕밍 씨**예요**.
이 책은 산 것**이 아니라** 빌린 거**예요.**

② '이 아니다'는 '이다'의 부정 표현이다. '이다'는 '이' 없이 명사에 붙여 사용한다.

예) 아사코 씨는 일본 사람**이 이에요**. (x)
분티안 씨의 모자**가 이에요**. (x)
아사코 씨는 일본 사람**이에요**. (o)
분티안 씨의 모자**예요**. (o)

+ '아니다'는 형용사로 앞에 보어가 오고 앞 말과 띄어 쓰지만, '이다'는 조사로 명사에 직접 붙여 쓴다.

예) 이것은 책상 **이에요**. (x)
이것은 책상**이에요**. (o)
이것은 책상**아니에요**. (x)
이것은 책상이 **아니에요**. (o)

③ '~이 ~이에요?'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할 때 '이 아니다'는 '아니요'와 호응한다. 이에 비해 '~이 ~이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아니다'는 '네'와 호응한다.

예) 가: 이 신발이 새 것이에요?
나: 네, 새 것이에요.
아니요, 새 것**이 아니에요**.

가: 이 신발이 새 것**이 아니에요**? (부정형)
나: 네, 새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새 것이에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不是'

예)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 我**不是**韩国人.
이것은 영어 교과서**가 아니에요**. - 这个**不是**英语课本.
이곳은 기숙사**가 아니에요**. - 这里**不是**宿舍.
오늘은 목요일**이 아닙니다**. - 今天**不是**星期四.

② 용법과 오류

- 한국어에서는 과거의 사실을 기술할 때 '이 아니다'에 과거 '-었-'이 결합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시간 부사로 과거를 나타내므로 학습자들이 과거 '-었-'을 사용하지 않는 오류를 보인다.

예) 어제 온 사람이 철수인 줄 알았는데 철수가 아니에요. (x)
('어제 온 사람이 철수인 줄 알았는데 철수가 아니었어요.'라고 해야 할 경우)
어제 확인했는데 제가 찾으려는 책이 아니에요. (x)
('어제 확인했는데 제가 찾으려는 책이 아니었어요.'라고 해야 할 경우)

- 받침이 있는 단어 뒤에는 '이 아니다', 받침이 없는 단어 뒤에는 '가 아니다'가 결합되지만 중국 학습자들에게는 이러한 문법적 분별이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혼용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예) 저 아이는 제 동생가 아닙니다. (x)
제 컴퓨터이 아닙니다. (x)

- '아니다'의 해요체가 '아니에요'인데 학습자들이 '아니예요'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 저는 의사가 아니예요. (x)
저것은 내 책이 아니예요. (x)

3.6.26. '-지 말다'

-지 말다[표현] 어떤 행위의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

-지 말다: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을 나타낸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금지할 때 주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여기에 주차해도 됩니까? 나: 아니요, 여기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가: 창문을 열어도 돼요? 나: 비가 와요. 창문을 **열지 마세요.** 가: 저는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 나: 떡볶이는 너무 매우니까 **먹지 마세요**. 가: 이곳은 참 조용하군요. 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떠들**지 **맙시다.** 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나: 그러면 커피를 **마시지 말고** 차를 드세요.
문장예문	·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지 마세요.** · 휴지를 **버리지 마세요.** · 미도리 씨, 수업에 **늦지 마세요.** ·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마십시오.** · 영화가 시작되면 전화를 **받지 마요**. · 음악을 크게 **듣지 마세요.** · 우리 도서관에서 크게 **말하지 말아요.** ·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길을 **건너지 마라.** · 밤늦게까지 **게임하지 마**. · 잔디를 **밟지 마십시오.** · 오늘은 운동을 하지 **맙시다.** · 친구들을 놀리지 **말자.**

+ '-지 말다'는 주로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쓰이는데 명령형은 해(해요)체는 '-지 마(요)', 해라체는 '-지 마라', 하십시오체는 '-지 마십시오'이며, 청유형은 '-지 말아요, -지 말자, -지 맙시다' 등으로 사용된다. 학교문법에서는 '말다'가 '안, 못' 같은 부정 요소 없이 부정문을

만들기 때문에 특수 부정어라고도 한다.

+ '-지 말다'는 주로 '-지 마세요'의 형태로 '창문을 열지 마세요, 매우니까 먹지 마세요'와 같이 사용되거나, '-지 마십시오'의 형태로 '여기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마십시오'와 같이 사용된다.

[도입]

(1)
교사: 교실에서 밥을 먹어도 돼요?
학생: 아니요, 안 돼요.
교사: 교실에서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교실에서 밥을 **먹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돼요?
학생: 수업 시간에 잠을 자면 안 돼요.
교사: 맞아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자면 안 돼요. 잠을 **자지 마세요**.

(2)
교사: (표지판을 보여주며) 박물관에 있는 표지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학생: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교사: 맞아요.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학생: 주차하면 안 돼요.
교사: 맞아요. '여기에 **주차하지 말아요'**라는 의미예요.

+ 도입(1)은 '-지 말다'가 금지의 의미이므로 학생들과 인접한 환경인 교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생각하게 하는 방식이다. '-어도 돼요'로 질문하여 안 된다는 대답을 이끌어 내고 이에 맞추어 명령형인 '-지 마세요'를 제시하면 된다. 여기에서는 금지 행위의 의미를 보다 쉽게 제시하기 위해 '-으세요'의 반대 의미로 설명하였다.
+ 도입(2)는 금지 행위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준비하여 함께 제시한다. 표지판을 보고 의미를 먼저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지 마세요'가 주로 사용되지만 기본형인 '-지 말다'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 도입 (2)에서는 '-지 말아요'도 함께 제시하였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와 관계없이 '-지 말다'를 쓴다.

예) 먹- + -지 말다 → 먹지 말다　　남- + -지 말다 → 남지 말다
찾- + -지 말다 → 찾지 말다　　가- + -지 말다 → 가지 말다
만지- + -지 말다 → 만지지 말다　　바꾸- + -지 말다 → 바꾸지 말다

①	받침 o	+ -지 말다	먹지 말다, 남지 말다, 찾지 말다

	받침 x	+ -지 말다	가지 말다, 만지지 말다, 바꾸지 말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높임은 '-지 마세요, -지 마십시오' 형태로 쓰지만, 금지의 의미 자체가 높임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예의 바른 표현은 아니다.

예) 사장님, 술을 **드시지 마세요**.
손님, 그 물건을 **만지지 마십시오**.
할아버지, 라디오를 **켜지 마세요**.
엄마, 제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 '-지 마세요, -지 마십시오'를 보다 공손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 주다' 등과 함께 써서 강한 느낌을 완화시키는 게 좋다.

예) 선생님, 발표를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손님, 그 물건을 **만지지 말아 주십시오**.
할아버지, 라디오를 **켜지 말아 주세요**.
엄마, 제 방에 **들어오지 말아 주세요**.

[제약 정보]

①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예) 키가 **작지 마세요**. (x)
기분이 **나쁘지 마세요**. (x)
배가 **고프지 마세요**. (x)

② 주로 명령문과 청유문에만 사용된다.

예) 수업에 **늦지 말았어요**. (x) 수업에 **늦지 마세요**. (o)
음악을 크게 **듣지 말 거예요?** (x) 음악을 크게 **듣지 마라.** (o)
술을 **마시지 맙니다.** (x) 술을 **마시지 맙시다**. (o)
게임을 **하지 말았어요?** (x) 게임을 **하지 말자**. (o)

+ 바람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지 말다' 뒤에 오면 서술문과 의문문에서도 쓸 수 있다. 이때 '-지 말다'를 '-지 않다'로 바꿔 쓸 수도 있다.

예) 수업에 **<u>늦지 마시기를</u>**/ <u>늦지 않기를</u> 바랍니다. (o)
음악을 크게 **<u>듣지 말았으면</u>**/ <u>듣지 않았으면</u> 좋겠어요. (o)
술을 **<u>마시지 말기를</u>**/ <u>마시지 않기를</u> 원해요? (o)
게임을 **<u>하지 말았으면</u>**/ <u>하지 않았으면</u> 좋겠어요. (o)

+ 명령의 의미인 '-아라'가 결합하면 '말아라'가 아니라 '마라'가 되는 것에 주의한다. 또한 간접 인용문이나 특수한 명령문에서 '-으라'가 결합하면 '말라'가 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으라'는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며, 주로 신문이나 글, 또는 권위적인 상황에서 불특정 독자나 청자에게 사용된다.

예) 수업에 **지각하지 말아**. (x)
수업에 **지각하지 마라**. (o)
선생님께서 수업에 **지각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x)
선생님께서 수업에 **지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o)
젊은이여, **포기하지 마라**. (x)
젊은이여, **포기하지 말라**. (o)

③ 과거 '-었-', 미래·추측의 '-겠-'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문을 **닫지 말았어요**. (x)
길을 **건너지 말았다.** (x)
밤늦게 **전화하지 말았어요?** (x)
빵을 **먹지 말았어요**. (x)

+ 예외적으로 '-지 말면, -지 말았으면'이 '좋겠다, 하다'와 같은 말 앞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지 말기를'이 '바라다, 빌다, 기도하다'와 같은 동사 앞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지 말면'과 '-지 말았으면'은 같은 뜻이나 '-지 말기를'과 '-지 말았기를'은 같은 뜻이 아니다. '-지 말기를'은 미래의 일, '-지 말았기를'은 과거의 일에 대해 쓴다.

예) 문을 **닫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o)
길을 **건너지 말았으면** 한다**.** (o)
밤늦게 **전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o)
당신이 그 일을 **하지 말았기를** 기도해요. (o)

④ '-지 말다' 자체가 부정의 의미이므로 부정문으로는 쓰지 않는다.

예) 약을 **먹지 마세요**. / 약을 **먹지 않지 마세요**. (x) / 약을 **안 먹지 마세요.** (x)
공부를 **하지 마세요**. / 공부를 **하지 않지 마세요**. (x) / 공부를 **안 하지 마세요**. (x)

+ '-지 말고'의 형태로 사용될 때는 부정을 나타내는 '안'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예) 약을 **안 먹지 말고** 꼭 먹으세요. (o)
공부를 **안 하지 말고** 꼭 해라. (o)

[확장]

① '-지 말고' 뒤에 명령문과 청유문이 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예) **졸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요.
일하지 말고 좀 쉬어라.
지금 밥을 **먹지 말고** 미도리 씨가 오면 같이 먹어요.
명동에 **가지 말고** 동대문에 갑시다.

② '-지' 뒤에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도, 는, 를' 등의 조사가 붙기도 한다.

예) 크게 **떠들지는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지를 마세요.**

[유사 문법]

① '-지 말다', '-지 못하다', '-지 않다'

-지 말다	**-지 못하다**	**-지 않다**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 행위의 금지를 나타낸다. 예) 흐엉 씨, 수업 시간에 **졸지 마세요.**	· 능력의 부정을 나타낸다. 예) 흐엉 씨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요.**	· 의도 혹은 단순 사실의 부정을 나타낸다. 예) 졸렸지만 수업 시간에 **졸지 않았어요.** (의도) 오늘은 식당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단순 사실)
· 명령문 및 청유문에서 주로 쓰인다. 예) 우리 오늘 학교에 **가지 말자**. (o) 오늘은 학교에 **가지 맙니다**. (x)	·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서만 쓰인다. 예) 흐엉 씨,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요?** (o) 흐엉 씨, 같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자**. (x)	·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서만 쓰인다. 예) 오늘도 식당 문을 **열지 않았어요?** (o) 오늘은 식당 문을 **열지 않읍시다.** (x)

+ 셋 다 넓은 의미에서 '부정'을 나타낸다. 차이점은 '-지 말다'는 명령문 및 청유문에서 주로 쓰이는 데 비해 '-지 못하다, -지 않다'는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이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不要', '别'

고립어인 중국어에서는 부사 '不要'나 '别'로 행위의 금지를 나타낸다.

예) 수업 시간에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 上课时**不要**说话.
장마철에는 여행 가**지 마세요**. - 雨季**不要**去旅行.
날씨가 더우니까 긴팔을 입**지 마세요**. - 天热, **别**穿长袖了.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출근하**지 말아요**. - 身体不舒服, 今天**别**去上班了.

② 용법과 오류

- 한국어의 '-지 말다'는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不要', '别'은 이러한 제약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너무 많지 마세요. (x)
너무 크지 마세요. (x)
너무 빠르지 마세요. (x)
마음이 아프지 마세요. (x)

- 명령형 종결어미 '-아라'와 결합하면 '말아라'가 아니라 '마라'가 되고, 간접 인용문에 사용될 때 '-으라'와 결합하면 '말라'가 된다. 이와 같이 '말다'의 형태 변화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오류가 나타난다.

예) 혼자 가지 말아라. (x)
어머니는 나에게 늦게 다니지 말으라고 하셨다. (x)

3.6.27. ‘-지 못하다’

-지 못하다[표현] 능력이 없거나 어떤 상태에 이르지 못함을 나타내는 표현.

-지 못하다: (동사에 붙어) 어떤 행위를 이룰 능력이 없거나 행위를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을 나타낸다.

[예문]

담화예문	가: 왕밍 씨, 기타를 칠 수 있어요? 나: 아니요, 기타를 **치지 못해요.** 가: 밥을 더 드실래요? 나: 아니요, 배가 불러서 더 **먹지 못해요.** 가: 등산을 가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해요. 나: 저는 일찍 **일어나지 못해요.** 가: 비가 내리는 소리 들었습니까? 나: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가: 오늘이 시험인 것 몰랐어요? 나: 네, 저는 **알지 못했어요**.
문장예문	· 흐엉 씨는 한국 음식을 **만들지 못해요.** · 영수는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해요.** · 오늘은 할 일이 많아서 **자지 못해요.** · 왕밍 씨는 한국 신문을 **읽지 못해요**. ·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해요.** · 저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요.** · 어머니는 지갑을 **찾지 못했어요.** · 분티안 씨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 이 동네는 시끄러워서 **살지 못하겠어요.** · 어머니는 다리가 아프셔서 바닥에 **앉지 못하십니다.**

+ ‘-지 못하다’는 능력에 대한 부정의 의미로 사용된다. 담화예문에서 제시된 ‘기타를 치지 못하다, 먹지 못하다, 일어나지 못하다’ 등은 이를 나타낸다. 하지만 ‘듣지 못하다, 알지 못하다’는 들을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라는 의미가 아닌, 들을 수 없는 상황이나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그 행위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에 주의한다.

[도입]

(1)
교사: 왕밍 씨, 김치를 만들 수 있어요?
학생: 아니요, 김치를 만들 수 없어요.
교사: 왕밍 씨는 김치를 만들 수 없어요. 왕밍 씨는 김치를 **만들지 못해요**.

(2)
교사: (그림 카드를 보여주며) 수영할 수 있어요?
학생: 아니요, 수영할 수 없어요.
교사: 수영할 수 없어요. 수영을 **하지 못해요**.
스키를 탈 수 있어요?
학생: 아니요, 스키를 탈 수 없어요.
교사: 스키를 탈 수 없어요. 스키를 **타지 못해요**.

+ 도입(1)은 '-지 못하다'의 능력이 없다는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 김치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학생에게 물어본 후 표현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만약 학생이 만들 수 있다고 대답하면 다른 학생에게 질문을 하면 된다.
+ 도입(2)는 여러 가지 그림 카드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는 방식이다.

[형태 정보]

① 동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와 관계없이 '-지 못하다'를 쓴다.

예) 먹- + -지 못하다 → 먹지 못하다
남- + -지 못하다 → 남지 못하다
만들- + -지 못하다 → 만들지 못하다
가- + -지 못하다 → 가지 못하다
쓰- + -지 못하다 → 쓰지 못하다
공부하- + -지 못하다 → 공부하지 못하다

①	받침 o	+ -지 못하다	먹지 못하다, 남지 못하다, 만들지 못하다
	받침 x	+ -지 못하다	가지 못하다, 쓰지 못하다, 공부하지 못하다

[문장 구성 정보]

① 동사 뒤에 붙은 '-지 못하다'는 동사 활용을 한다.

예)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o)
공부를 **잘하지 못하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x)
동생은 배가 아파서 밥을 **먹지 못한다**. (o)

동생은 배가 아파서 밥을 **먹지 못하다**. (x)

② '못하다'에 과거 '-었-'과 미래·추측의 '-겠-'이 결합한다. '-지' 앞에는 붙을 수 없다.

예) 나는 자전거를 **타지 못했어요.** (o)
나는 자전거를 **탔지 못해요**. (x)
나는 자전거를 **탔지 못했어요**. (x)
나는 수영을 **하지 못하겠어요**. (o)
나는 수영을 **하겠지 못해요.** (x)
나는 수영을 **하겠지 못하겠어요.** (x)

③ 높임을 나타내는 '-시-'와 결합한다.

예) 할아버지께서 **걸으시지 못해요.** (o)
할아버지께서 **걷지 못하세요**. (o)
할아버지께서 **걸으시지 못하세요.** (o)
할아버지께서 **걷지 못해요**. (x)

+ '-시-'가 '-지' 앞에만 붙을 수도 있고 '못하다'에만 붙을 수도 있으며, '-시지 못하시다'와 같이 두 군데에 다 붙을 수도 있다.

④ '동사+-지 못하다'를 '못+동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못+동사'는 단형 부정, '동사+-지 못하다'는 장형 부정이라고 한다.

예)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해요**.
쿠앙 씨는 노래를 **못 불러요**.
쿠앙 씨는 노래를 **부르지 못해요**.

+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이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치환되는 것은 아니다. '공부하다'처럼 '명사+하다' 형태의 동사를 부정하려면 '못'을 '명사+하다' 앞이 아니라 '하다' 앞에 써야 한다.

예) 졸려서 **못 공부해요**. (x)
졸려서 **공부 못 해요**. (o)
졸려서 **공부하지 못해요**. (o)
저는 **못 요리해요**. (x)
저는 **요리 못 해요.** (o)
저는 **요리하지 못해요**. (o)

[제약 정보]

① 능력이나 의지와 관계없는 동사나, 피동형의 동사와는 결합하기 어렵다.

예) 텔레비전이 **켜지지 못해요**. (x)

텔레비전이 **켜지지 않아요**. (o)
줄리아 씨가 **보이지 못해요**. (x)
줄리아 씨가 **보이지 않아요**. (o)

+ 이루고 싶지 않는 부정적 의미의 동사와도 결합하기 어렵다.

예) 사업에 **실패하지 못했어요**. (x)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o)
시험에 **떨어지지 못했어요**. (x)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o)

② '-지 못하다' 자체가 부정의 의미로 다른 부정 표현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약을 **먹지 못하지 마세요**. (x)
약을 **먹지 못하지 않아요.** (x)
약을 **안 먹지 못해요.** (x)
약을 **못 먹지 못해요.** (x)

③ '-지 못하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려고, -고자)나 '-고 싶다'와 결합하지 못한다.

예) 다리를 다쳐서 등산을 **가지 못하려고 해요.** (x)
다리를 다쳐서 등산을 **가지 못하고자 합니다.** (x)
다리를 다쳐서 등산을 **가지 못하고 싶어요**. (x)

④ 명령문과 청유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서만 사용된다.

예) 수영을 **하지 못하자**. (x)
수영을 **하지 못합시다.** (x)
수영을 **하지 못해라.** (x)
수영을 **하지 못한다.** (o)
수영을 **하지 못했어?** (o)
수영을 **하지 못하는구나!** (o)

[확장]
① '-지' 뒤에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도, 는, 를' 등의 조사가 붙기도 한다.

예) 운전을 **하지는 못해요.**
화를 **내지도 못하겠다.**
술을 **마시지를 못한다.**

② '-지 못하다'는 일부 형용사와 결합하면 기대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기대되지 않는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 제 마음도 **편하지 못해요**. (o)
그런 행동은 **올바르지 못해요**. (o)
쿠앙 씨는 기분이 **나쁘지 못해요**. (x)
저는 **더럽지 못해요**. (x)

+ 형용사에는 단형 부정(못 + 동사)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장형 부정 '-지 못하다'만 사용가능하다.

예) 왕밍 씨는 **못 학생답다**. (x)
왕밍 씨는 **학생답지 못하다**. (o)
강아지가 **못 귀여워요**. (x)
강아지가 **귀엽지 못해요.** (o)

③ '-지 못하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 가: 왕밍 씨, 어제 왜 결석했어요?
나: 선생님, 죄송해요. 머리가 아파서 학교에 **오지 못했어요.**

+ '오지 못하다'는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결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과 같이 '-지 않다'와 비교하면 '-지 못하다'의 완곡함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예) 머리가 아파서 어제 학교에 **오지 못했어요.**
머리가 아파서 어제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커피를 많이 마셔서 더 **마시지 못하겠어요.**
커피를 많이 마셔서 더 **마시지 않겠어요.**

[유사 문법]

① '-지 못하다',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않다**
·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서만 쓰인다.	
· 주로 동사와만 결합한다. 예) 오늘은 바쁘지 못해요. (x) 목이 아파서 **말하지 못해요**. (o)	· 동사, 형용사와 모두 결합한다. 예) 오늘은 **바쁘지 않아요**. (o) 일요일에는 학교에 **가지 않아요**. (o)
· 능력의 부정을 나타낸다. 예) 가: 왕밍 씨, 공부를 **하지 않고** 놀았어요? 성적이 안 좋아요. 나: 공부를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어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함.)	· 의도 혹은 사실의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예) 가: 왕밍 씨, 왜 김치를 **먹지 않아요**? 나: 먹기 싫어서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먹으면 배가 아파서 먹지 못해요. (먹기 싫은 것은 먹지 않는 것인데 비해 먹을 수 없는 것은 먹지 못하는 것임.)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부정 부사 '不能', '不会', '没(能)', '不'

중국어에서는 부사어 '不能', '不会', '没(能)'으로 능력이 없거나 어떤 상태에 이르지 못함을 나타낸다. 현재나 미래 시제 부정문에는 '不能', '不会', 과거시제 부정문에는 '没(能)'이 쓰인다. 형용사가 서술어인 경우에는 대체로 '不'이 쓰인다.

예) 일이 있어서 일찍 **퇴근하지 못해요**. - 有点事, **不能**早小班.
저는 일본어를 **하지 못해요**. - 我**不会**说日语.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 못했어요**. - 太吵了, **没能**听见.
방이 **깨끗하지 못하다**. - 房间不干净.
저는 춤을 잘 **추지 못합니다**. - 我跳舞跳得不好.

② 용법과 오류

- 능력이나 의지와 관계없는 용언이나 피동형 동사와는 결합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응하는 중국어의 부사는 이러한 제약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아직은 필요 없어서 가져가지 못했어요. (x)
('아직은 필요 없어서 가져가지 않았어요'로 해야 할 경우)
배터리가 없어서 켜지지 못해요. (x)
('배터리가 없어서 켜지지 않아요'로 해야 할 경우)

- 동사 뒤에 붙은 '-지 못하다'는 동사 활용을 하며, 형용사 뒤에 붙은 '-지 못하다'는 형용사 활용을 한다. 그러나 중국어에는 이러한 문법 현상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나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다. (x)
비가 와서 여행 가지 못하다. (x)
시험 성적이 좋지 못한다. (x)
성격이 꼼꼼하지 못한다. (x)

- 특히 관형사형 어미와의 결합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예) 좋지 못하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 (x)
드시지 못한 음식이 있으면 미리 알려 주세요. (x)
('드시지 못하는 음식이 있으면 미리 알려 주세요'로 해야 할 경우)

- 중국어에서는 동일한 부정형 부사로 '-지 못하다'와 '-지 않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이 두 문법을 구별하지 못해 나타나는 오류가 있다.

예) 혼자 할 수 있어서 부탁하지 못했어요. (x)
길이 많이 막혀서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x)

3.6.28. '-지 않다'

-지 않다[표현] 어떤 행위 및 상태의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

-지 않다: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어떤 행위 및 상태를 부정하거나 행위를 할 의지가 없음을 나타낸다. 행위나 상태를 단순하게 부정하거나 의도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한다.

[예문]

담화예문	가: 수지 씨, 머리가 아파요? 나: 아니요, 이제 **아프지 않아요.** 가: 왕밍 씨, 학교에 안 갔어요? 나: 네, 공휴일이어서 학교에 **가지 않았아요.** 가: 미도리 씨, 왜 김치를 **먹지 않아요?** 나: 너무 매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가: 영화관에 사람이 많습니까? 나: 아니요, **많지 않습니다**. 가: 커피 좀 드릴까요? 나: 아니요, 아까 마셔서 **마시지 않을래요**.
문장예문	· 밤에는 서점 문을 **열지 않아요.** · 수지는 토요일에는 학교에 **가지 않아요.** · 택시를 타면 **늦지 않을 거예요.** ·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 영수는 아침에 신문을 **읽지 않았어요**. · 왕밍 씨는 음악을 **듣지 않아요.** · 흐엉 씨는 요즘 **바쁘지 않아요.** · 오늘 저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 영수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 다시는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 '-지 않다'는 긍정 행위나 상태에 대한 부정의 의미로 사용된다. 담화예문에서 제시된 '아프지 않다, 수업을 하지 않다, 많지 않다' 등은 일반적인 단순 부정을 나타내지만, '김치를 먹지 않다, 커피를 마시지 않다' 등에서 보듯이 주어가 사람일 경우 의지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지만 '-지 않다'를 처음 제시할 때는 단순 부정

의 의미를 먼저 다루는 것이 좋다.

+ 문장예문에서 제시된 '읽지 않다, 듣지 않다, 공부하지 않다, 지각하지 않다' 등도 의도적 부정의 의미인데, '신문이 어려워서 읽지 않았어요, 음악을 싫어해서 듣지 않아요'와 같이 의지적으로 부정적 행위를 했다는 맥락을 제시하면 보다 이해하기 용이할 것이다. 이때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정적 행위를 했다는 맥락을 제시하면 '-지 못하다'와의 의미 구별이 모호해지므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맥락을 제시해 주는 게 좋다.

[도입]

(1)
교사: 선생님이 전화를 해요?
학생: 아니요, 전화를 안 해요. 책을 읽어요.
교사: 선생님이 책을 읽어요. 전화를 안 해요. 전화를 **하지 않아요**.

(2)
교사: 왕밍 씨, 미도리 씨가 지금 밥을 먹어요. 맞아요?
학생: 아니요, 미도리 씨가 밥을 안 먹어요.
교사: 미도리 씨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먹지 않아요**.
미도리 씨, 왕밍 씨가 지금 울어요. 맞아요?
학생: 아니요, 왕밍 씨 지금 웃어요. 안 울어요.
교사: 맞아요. 왕밍 씨가 지금 안 울어요. **울지 않아요**.

+ 도입(1)은 '-지 않다'의 부정의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 교사의 행위와 다른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교사는 교실 내에서 다양한 행위를 하며 그 행동과 다른 문장을 생각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 도입(2)는 학생들의 행동이나 상태를 제시하여 '-지 않다'의 의미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관련 단어 카드나 그림 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더 유용하며, 반의적 관계에 있는 어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구성해도 좋다.

예)

제시할 그림	제시할 질문	목표 표현
웃는 그림	울어요?	울지 않아요
더운 날씨 그림	추워요?	춥지 않아요
뛰는 그림	걸어요?	걷지 않아요
노는 그림	공부해요?	공부하지 않아요

+ '-지 않다'의 의지적 부정의 의미는 심화된 내용이므로 도입에서는 제시하지 않는 게 좋다. '-지 못하다'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의미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심화된 내용으로 다루는 게 좋다.

[형태 정보]

① 동사 및 형용사 어간 끝음절의 받침 유무에 관계없이 '-지 않다'를 쓴다.

예) 먹- + -지 않다 → 먹지 않다　　남- + -지 않다 → 남지 않다
좋- + -지 않다 → 좋지 않다　　크- + -지 않다 → 크지 않다
만지- + -지 않다 → 만지지 않다　　고프- + -지 않다 → 고프지 않다

①	받침 o	+ -지 않다	먹지 않다, 남지 않다, 좋지 않다
	받침 x	+ -지 않다	크지 않다, 만지지 않다, 고프지 않다

[문장 구성 정보]

① '않다'에 과거 '-었-'과 미래·추측 '-겠-'이 결합한다.

예) 문을 **닫지 않았어요.** (o)
문을 **닫았지 않아요**. (x)
문을 **닫았지 않겠어요**. (x)
밤늦게 **전화하지 않겠어요.** (o)
밤늦게 **전화하겠지 않아요.** (x)
밤늦게 **전화하겠지 않겠어요.** (x)

+ '-지' 앞에 '-었-'을 결합하여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확인의문문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 일요일에 약국 문을 **닫았지 않아요?** (약국 문을 닫은 사실을 알고 이를 확인하는 질문)
어제 날씨가 정말 **좋았지 않아요**?

② 높임을 나타내는 '-시-'와 결합한다.

예)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읽으시지 않아요.** (o)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읽지 않으세요**. (o)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읽으시지 않으세요.** (o)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읽지 않아요**. (x)

+ '-시-'가 '-지' 앞에만 붙을 수도 있고 '않다'에만 붙을 수도 있으며, '-시지 않으시다'와 같이 두 군데에 다 붙을 수도 있다.

③ '동사(형용사)+-지 않다'를 '안+동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안+동사(형용사)'는 단형 부정, '동사(형용사)+-지 않다'는 장형 부정이라고 한다.

예) 저녁에는 커피를 **안 마셔요**.
저녁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왕밍 씨는 키가 **안 커요**.
왕밍 씨는 키가 **크지 않아요**.

+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이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치환되는 것은 아니다. '수업하다, 공부하다'처럼 '명사+하다' 형태의 동사를 부정하려면 '안'을 '명사+하다' 앞이 아니라 '하다' 앞에 써야 한다.

예) 주말에는 **수업하지 않아요**. (o)
주말에는 **수업 안 해요**. (o)
주말에는 **안 수업해요**. (x)

[제약 정보]

① 인지 동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주어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상 어색하기 때문이다.

예) 그 사실을 **알지 않았어요**. (x)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o)
그 사실을 **깨닫지 않았어요**. (x)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o)

+ 능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동사도 '-지 않다'와 결합하면 의미상 충돌한다.

예) 어려움을 **견디지 않았어요**. (x)
어려움을 **견디지 못했어요**. (o)

② '-지 않다' 자체가 부정의 의미로 다른 장형 부정 표현과 결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형 부정 표현과는 어울릴 수 있다.

예) 약을 **먹지 않지 마세요**. (x)
약을 **먹지 않지 못해요.** (x)
약을 **안 먹지 않아요.** (o)
약을 **못 먹지 않아요.** (o)

+ '-지 않으면 안 되다'의 구성으로 사용되면, 의무의 뜻을 나타낸다.

예)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③ 명령문과 청유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서만 사용된다.

예) 수업에 **늦지 않자**. (x)
수업에 **늦지 않읍시다.** (x)
수업에 **늦지 않아라.** (x)
수업에 **늦지 않는다.** (o)
수업에 **늦지 않았어?** (o)
수업에 **늦지 않았구나!** (o)

+ 명령문과 청유문에는 '-지 말다'를 쓴다.

예) 수업에 **늦지 말자**. (o)
수업에 **늦지 맙시다.** (o)
수업에 **늦지 마라.** (o)
수업에 **늦지 마.** (o)

[확장]

① 파생어와 합성어의 경우에는 단형 부정이 아니라 '-지 않다', 즉 장형 부정을 사용하여 부정을 나타낸다.

예) 왕밍 씨는 **안 학생답다**. (x)
왕밍 씨는 **학생답지 않다**. (o)
도둑을 **안 뒤쫓다**. (?)
도둑을 **뒤쫓지 않다**. (o)

+ 일부 파생어와 합성어, 사동사나 피동사의 경우에는 '안'과 '-지 않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예) 왕밍 씨는 집에 **안 들어갔어요**. 왕밍 씨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왕밍 씨, 1층으로 **안 내려갔어요.** 왕밍 씨, 1층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② '이다/아니다, 있다/없다, 알다/모르다'와 같이 부정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 '안'을 사용할 수 없다.

예) 왕밍 씨는 학생이다. 왕밍 씨는 **안 학생이다**. (x)
왕밍 씨는 **학생이지 않다**. (x)
왕밍 씨는 **학생이 아니다**. (o)
돈이 있다. 돈이 **안 있다**. (x)
돈이 **있지 않다**. (x)
돈이 **없다.** (o)
그 사실을 알다. 그 사실을 **안 알다**. (x)
그 사실을 **알지 않다**. (x)
그 사실을 **모르다**. (o)

③ '-지' 뒤에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도, 는, 를, 가' 등의 조사가 붙기도 한다.

예) 그렇게 **슬프지는 않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겠다.**
아이가 밥을 **먹지를 않는다.**
꽃이 **피지가 않는다.**

+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도, 는, 를, 가' 등의 조사가 붙을 수 있다.

④ '네, 아니요'를 요구하는 긍정형 질문에서 '-지 않다'는 '아니요'와 호응한다. 이에 비해 부정형 질문에서 '-지 않다'는 '네'와 호응한다.

예) 가: 수지 씨, 병원에 갔어요? (긍정형)
나: 네, 갔어요.
아니요, **가지 않았어요**.

가: 수지 씨,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부정형)
나: 네, **가지 않았어요**.
아니요, 갔어요.

[유사 문법]

① '-지 않다', '-지 못하다'

-지 않다	**-지 못하다**
·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서만 쓰인다.	
· 동사, 형용사와 모두 결합한다. 예) 오늘은 바쁘지 않아요. (o) 일요일에는 학교에 가지 않아요. (o)	· 주로 동사와만 결합한다. 예) 오늘은 바쁘지 못해요. (x) 목이 아파서 말하지 못해요. (o)
· 의도 혹은 사실의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예) 가: 왕밍 씨, 왜 김치를 **먹지 않아요**? 나: 먹기 싫어서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먹으면 배가 아파서 **먹지 못해요**. (먹기 싫은 것은 먹지 않는 것인데 비해 먹을 수 없는 것은 먹지 못하는 것임.)	· 능력의 부정을 나타낸다. 예) 가: 왕밍 씨, 공부를 **하지 않고** 놀았어요? 성적이 안 좋아요. 나: 공부를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어**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함.)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도움말]

① 대응 표현: 부정 부사 '不', '没'

중국어에서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어 '不'과 '没'로 부정을 나타낸다. 현재나 미래 시제 부정문에는 '不', 과거시제 부정문에는 '没'이 쓰인다. 형용사가 서술어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어로 과거를 나타내고, 형용사의 부정은 여전히 부사 '不'를 쓴다.

예) 요즘은 **바쁘지 않아요**. - 最近不忙.
지난달에는 **바쁘지 않았어요**. - 上个月不忙.

학교에 **가지 않아요**. - 不去学校.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 没去学校.

② 용법과 오류

- 한국어에서 '-지 않다'는 인지 동사, 능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동사와 결합하지 않지만 중국어의 부정 부사 '不', '没'은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아직도 알아듣지 않았어요. (x)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이해하지 않아요. (x)

저는 추위를 견디지 않아요. (x)
그 일을 해내지 않았어요. (x)

- '-지 않다'는 평서문, 의문문에만 쓰이고 명령문, 청유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어의 '不'은 청유문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지 않다'를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 늦게 일어나지 않으세요. (x) ('늦게 일어나지 마세요.'를 사용해야 할 경우)
우리 그럼 가지 않아요. (x) ('우리 그럼 가지 말아요.'를 사용해야 할 경우)

- 동사 뒤에 붙은 '-지 않다'는 동사 활용을 하며, 형용사 뒤에 붙은 '-지 않다'는 형용사 활용을 한다. 그러나 중국어에는 이러한 문법 현상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나타난다.

예)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다. (x)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다. (x)
이 꽃은 예쁘지 않는다. (x)
요즘은 바쁘지 않는다. (x)

좋지 않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 (x)
가능한 지각하지 않은 것이 좋아요. (x)

- 중국어에서는 동일한 부정형 부사로 '-지 않다'와 '-지 못하다'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이 두 문법을 구별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오류가 있다.

예) 어제 시간이 없어서 숙제를 하지 않았어요. (x)
('-지 못하다'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지 않다'를 사용)
아프지 못했어요. (x) ('-지 않다'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지 못하다'를 사용)

제4장 중급 문법·표현 선정 및 등급화 방안

4.1. 내용 기술 후 변경된 초급 문법·표현 항목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 사업 결과 초급 문항 90항목을 선정하여 제시한 바 있다.[7] 이를 대상으로 2단계에서 문법·표현 항목의 내용을 기술한 결과 연결어미 '-지1'은 초급 문법 교수 항목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지1'은 '-지 않다' 등 부정문을 만들 때 부정어를 연결해 주는 기능과 '나는 중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의 예처럼 상반되는 사실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이다. 앞의 기능으로 '-지1'을 따로 교수하는 일은 별로 없으며, 뒤의 연결어미 기능을 가르치는 교재는 6개 교재 중 고려대(2급 6과)뿐이다.[8] 이러한 오류는 '-지1'이 토픽 초급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잘못 확인한 결과이다.

4.2. 중급 문법·표현 항목 선정과 정련

4.2.1. 1단계 유보 항목

1단계 사업에서 초급 문법·표현 항목을 선정, 정련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2011)(이하 <표준 2단계>로 약칭)의 중급 문법·표현 항목 150항목을 대상으로 중급 항목을 선정, 정련하기로 한다.

먼저 <표준 2단계>의 초급 항목(100항목) 중 1단계 사업에서 항목 선정이 유보된 항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7) 국립국어원(2002) 1단계 보고서에는 총 93항목의 초급 문법 항목을 선정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2단계 사업을 통해 1단계의 오류를 바로잡은 결과 89항목으로 정리되었다.

8) <표준 2단계> 결과물에는 서울대(4권 8과), 경희대(4급 5과)에 있다고 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고려대(2권 6과)에만 나온다. <표준 2단계>에서는 건국대, 이화여대, 고려대, 서울대, 경희대, 연세대 교재를 기준으로 한국어교재 출현 빈도를 고려하였다. 2011년의 보고서임을 감안하면 건국대 교재는 새로 개정된 교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3~6은 2005~2010년에, 개정판인 「건국 한국어」 1~2는 2011년에 출간되었다. 본 과업에서는 최근 출간된 교재를 기준으로 연세대(2007), 고려대(2008), 이화여대(2010), 서강대(2008)와 예전에 출간되었지만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서울대(2003), 경희대(2004) 교재의 출현 빈도를 고려하였다.

<표 1> 1단계 유보 항목

범주	대표형	관련형	토픽	1단계 정련
조사	이다2(나열)	다1	없음	유보
조사	서1		없음	유보
연결어미		-게끔	없음	유보
연결어미		-지마는	없음	유보
연결어미		-으니까는 (-으니깐)	없음	유보
표현	-는 것	-은 것, -ㄴ 것, -을 것	없음	유보
표현	-을 것1(명령형)	-ㄹ 것1	없음	유보

유보 항목은 토픽 초급[9](이하 <토픽 초급>으로 약칭)에 출현하지 않는 항목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항목이다. '이다2'는 나열의 조사로 교수 항목에 포함된다면 같은 기능을 가진 '이니, 이며' 등과 함께 학습하는 것이 적절하다.[10]

'서1'은 '혼자서, 둘이서, 셋이서'처럼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나오는데 학교문법에서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라고 하나 이견이 많고 '혼자서' 등의 예처럼 앞에 오는 말이 제한되기 때문에 문법 항목이 아니라 어휘로 교수해도 무방하다.

연결어미 '-게끔, -지마는, -으니까는'은 대표형 '-게, -지만, -으니까'를 배우면서 같이 추가하여 배울 수 있는 부수적 항목의 성격을 띠므로 독립된 교수 항목으로 다룰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11] 그러므로 위 유보 항목 중 중급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은 '이다2'뿐이다.

명사절을 만들어 주는 '-는 것'은 같은 기능을 가진 명사형 어미 '-음, -기'가 토픽에서도 초급, <표준 2단계>에서도 초급으로 위계화되어 있으므로 초급에서 함께 배우는 것으로 재조정하였다.[12]

'-을 것1'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지시 사항을 기록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표준 2단계>에서 초급 문법 항목으로 기술되었는데 교재에는 초급, 중급에 출현하고 있다.[13] 문법 항목의 기능상, 그리고 명사형을 만들어 주는 '-을 것2'와 형태가 같으므로 초급에 포함하여도 무방하리라 본다.

<표 2> 1단계 유보 항목 재정련

범주	대표형	관련형	1단계 정련	2단계 정련
조사	이다2(나열)	다1	유보	중급
조사	서1		유보	삭제
연결어미		-게끔	유보	부수적 항목
연결어미		-지마는	유보	부수적 항목

9) 토픽 초급이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에서 공개한 초급 문법 항목 110개 항목을 뜻한다.
10) 건국대(1권 6과), 이화여대(1권 8과), 고려대(1권 3과), 서울대(1권 7과)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확인 결과 네 교재 모두 없었다.
11) 실제로 초급 항목을 기술할 때 '게끔, 지마는, 으니까는'은 대표형의 확장 정보로 기술되었다. 확장은 알아두면 좋을 부가적 지식이므로 이들 항목이 초급 항목이라는 뜻은 아니다.
12) '-음'은 이화여대(2급 11과), 서울대(4급 2과), 건국대(4급 16과), 고려대(4급 5과)에서, '-기'는 고려대(3급 1과), 서울대(2급 13과), 건국대(2급 13과)에서 확인된다.
13) '-을 것1'은 이화여대(2급 10과), 고려대(4급 5과)에서 확인된다.

연결어미		-으니까는 (-으니깐)	유보	부수적 항목
표현	-는 것	-은 것, -ㄴ 것, -을 것	유보	초급
표현	-을 것1(명령형)	-ㄹ 것1	유보	초급

참고로 1단계에서 등급 조정이 되거나 삭제된 항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 1단계 등급 조정 및 삭제 항목

범주	대표형	관련형	<표준 2단계>	토픽	1단계 정련
조사	한테		중급	초급	초급
조사	한테서		중급	초급	초급
연결어미	-으려고1	-려고1	중급	초급	초급
전성어미	-을2	-ㄹ2	중급	초급	초급
종결어미	-을래	-ㄹ래, -을래요, -ㄹ래요	고급	초급	초급
종결어미	-에요		중급	초급	초급('-어'에 통합)
종결어미	-다3		초급	없음	삭제

'한테, 한테서'는 '에게, 에게서'와 함께 교수할 가능성이 높으며 <토픽 초급>에도 제시되어 있어 중급에서 초급으로 조정한 항목이며, 전성어미 '-을2' 역시 같은 관형사형 어미 '-는, -은'이 초급 교수 항목인 것을 고려하여 초급으로 조정하였다.

연결어미 '-으려고1'은 '-으려고 하다'는 초급 표현으로 되어 있는 반면 유사한 의미 기능의 '-으려고1'은 중급으로 되어 있어 초급으로 조정하고 '-으려고 하다'는 '-으려고1'과 함께 교수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판단하여 표현에서 삭제하였다.[14)]

'-에요'는 '-어요, -아요, -여요'와 함께 '-어'에 통합하였고, 기본형을 나타내는 '-다3'를 교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본 과업은 교사가 실제 한국어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문법 지식을 체계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3'을 삭제하였으나, 만약 한국어교육용 사전을 편찬하게 된다면 '-다3'은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4.2.2. 범주별 조정 항목

<표준 2단계>의 중급 항목은 모두 150항목으로 조사 29항목, 선어말어미 1항목, 연결어미 29항목, 종결어미 27항목, 표현 6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급 항목의 경우 <토픽 초급> 110항목과 <표준 2단계> 100항목의 일치율은 대표형만을 대상으로 <표준 2단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사 24항목, 선어말어미 3항목, 연결어미 11항목, 전성어미 4항목, 종결어미 16항목, 표현 24항목 등 84항목으로 84%에 이른다.

14)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였다. '-으려고'는 연결어미이고 '-으려고 하다'는 표현이므로 교사들은 이를 달리 인식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으려고 하다'의 '-으려고'가 연결어미 '-으려고'와 다른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으리라는 가정 하에 둘을 통합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어야'와 '-어야 하다'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반면 중급 항목은 일치율이 그리 높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 2단계>가 초-중-고의 3단계 등급이 아니라 초-중-고-최고의 4단계로 등급 조정을 하였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고(<토픽 중급>[15] 187항목, <표준 2단계> 150항목), 한국어 교재의 출현 빈도를 등급 판정의 한 기준으로 한 <토픽 중급>이나 <표준 2단계>가 참고로 한 교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물론 교육 목적이나 학습자에 따라 얼마든지 교수 문법 항목이나 어휘의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표준화된 한국어교육 과정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선택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한국어교육 과정의 필요성은 새삼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각 범주별로 토픽과의 일치율과 앞서 1단계에서 세운 정련 기준[16]을 적용하여 중급 문법 항목을 선정, 재정련하고자 한다.

4.2.2.1. 조사

다음은 <표준 2단계>의 중급 조사 목록으로, 29개의 조사 중 <토픽 중급>과 일치하는 항목은 9항목이다.[17]

<표 4> <표준 2단계>의 중급 조사 목록

	범주	대표형	관련형	토픽	정련
1	조사	같이		중급	중급
2	조사	게1	게서	없음	초급('에게'와 통합)
3	조사(나열)	이고	고1	없음	중급
4	조사(인용)	고2		없음	유보(중급:표현과 통합)
5	조사	인들	ㄴ들	없음	유보: 연결어미 '-은들'과 통합
6	조사	커녕	ㄴ커녕, 는커녕, 은커녕	중급	중급
7	조사	이나마	나마	중급	중급

15) 여기서 <토픽 중급>이라고 약칭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을 뜻한다.

16) 1단계의 정련 기준은 국립국어원(2012:21~29)을 참고하면 된다. 문법의 체계성, 형태·의미·기능의 균형성, 한국어 화자 말뭉치(세종말뭉치) 빈도, 교수·학습 현장의 실제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17) 9항목은 '같이, 커녕, 이나마, 대로, 만큼, 뿐, 아1, 이야, 치고'로 31%의 일치율을 보인다. <토픽 중급>에만 있는 중급 항목은 '이나, 이라도, 이야말로, 마저, 에다가, 조차, 로서' 등 7항목인데, 이중 '이나'는 <토픽 초급>에 보조사와 접속조사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로 판단된다. 이를 제외하면 <토픽 중급>에만 제시된 항목은 모두 6개 항목으로 <표준 2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등급화되어 있다.

대표형	관련형	<표준 2단계>
이라도	라도1	고급
이야말로	야말로	없음
마저		고급
에다가		초급 '에'의 관련형
조차		고급
으로서	로서	고급

8	조사	이니	니1	없음	중급
9	조사	대로		중급	중급
10	조사	이든	든1	없음	중급(연결어미 '-든'과 통합)
11	조사	이든가	든가1	없음	
12	조사	이든지	든지1	없음	
13	조사	라3		없음	중급('이라고'에 통합)
14	조사	이라든가	라든가1	없음	고급
15	조사	이란	란1	없음	중급
16	조사	으로부터	로부터	없음	중급
17	조사	만2	마는	없음	유보
18	조사	만큼		중급	중급
19	조사	이며	며1	없음	중급('이니'에 통합)
20	조사	이면	면1	없음	중급
21	조사	보고		없음	중급
22	조사	뿐		중급	중급
23	조사(호격)	아1	야1	중급	중급
24	조사(강조)	이야	야2	중급	중급
25	조사	요1		없음	중급
26	조사	이라		없음	중급('이라고'에 통합)
27	조사	치고	치고서	중급	중급
28	조사	하며		없음	중급('이니'에 통합)
29	조사	한테	한테서	초급	초급

2의 '게1'은 '내게, 제게, 네게'의 '게'이다. 형태론적으로 '나에게, 저에게, 너에게'가 줄어서 사용되는 말로 이를 문법 항목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에게'의 문법 내용을 기술하게 되면 '내게, 제게, 네게' 형에 대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의 '이고1'은 '이고 이고 간에'의 형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열의 '고'로 조사 '이나, 든'과 유의어 관계에 있다.

(1) a. 친구고 부모고(친구나 부모나/친구든 부모든) 모두 그를 칭찬했다.
a′. 집에서고 학교에서고 간에(집에서나 학교에서나/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그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b. 언제고(?언제나/언제든) 좋으니 연락해라.
b′. 누구고 간에(??누구나/누구든) 내 동생을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나'는 초급, '든'은 중급이므로 '고2'를 중급으로 등급화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인용의 '고2'는 '-다고, -냐고, -라고, -자고, -으마고, -라고' 등의 형태로 사용되는데 학교문법에서 '고2'는 인용의 조사라고 하지만 학문 문법에서는 어미로 보기도 하고 생성문법에서는 보문을 이끄는 보문소(complimentizer)로 본다. 문제는 <표준 2단계>에서 '-다고'류

의 ‘종결어미+인용 조사 결합형’이 모두 고급의 문법 표현으로 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용 조사는 중급에서, 인용 표현은 고급에서 배운다는 것은 교수·학습 현장의 실제성 면에서 맞지 않다. 정련 방법은 인용 조사 ‘고’에 표현 항목으로 범주화되어 있는 기본 인용 표현들을 관련형으로 포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인용 조사 ‘고’를 교수 항목에서 제외하고 기본 인용 표현의 대표형을 설정하여 그 안에 기타 인용 표현을 관련형으로 포함하는 방법이 있다. ‘고2’ 결합형의 교재 출현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5> ‘-고2’ 결합형의 교재 현황

<table>
<tr><th>교재</th><th>건국대</th><th>이대</th><th>고대</th><th>서울대</th><th>경희대</th><th>연세대</th><th>서강대</th></tr>
<tr><td rowspan="8">급</td><td>2급 26과
(현재)</td><td rowspan="3">3급 6과
(-는다고,
-냐고,
-자고,
-라고)</td><td rowspan="4">3급 3과
(-다고,
-냐고,
-자고,
-라고)</td><td>2급 30과
(-는다고)</td><td rowspan="3">3급 5과
(-라고,
-냐고)</td><td rowspan="4">2급 7과
(-는다고,
-자고,
-으라고,
-라고)</td><td>1B-3
(-자고)</td></tr>
<tr><td rowspan="2">2급 27과
(과거,미래
)</td><td rowspan="2">2급 31과
(-으라고)</td><td rowspan="2">1B-5
(-라고)</td></tr>
<tr><td rowspan="3">2급 28과
(의문형,
청유형,
명령형)</td><td rowspan="3">3급 3과
(-자고,
-냐고)</td><td rowspan="3">1B-8
(-냐고)</td></tr>
<tr><td rowspan="4"></td><td rowspan="3">3급 7과
(-으라고,
-자고)</td><td rowspan="4"></td></tr>
<tr><td>3급 24과
(-다고)</td><td>2A-8
(-다고)</td></tr>
<tr><td></td><td></td><td>2A-9
(-는다고)</td></tr>
<tr><td></td><td></td><td>2B-3
(-자고)</td></tr>
<tr><td></td><td></td><td>2B-5
(-으라고)</td></tr>
<tr><td></td><td></td><td>2B-8
(-냐고)</td></tr>
</table>

<표 5>의 문법 형태 수록 현황을 보면 이대, 고대, 연대 교재가 후자의 방법과 가장 근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차이점은 대표형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대표형은 문법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편이성과 형태적 이형태나 관련형을 항목화하여 간단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도구의 하나이므로 대표형을 꼭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대표형을 설정한다면 평서문의 간접 인용 형식인 ‘-다고’가 될 것이다.[18] <표 5>에 따르면 대표적인 간접 인용 형식인 ‘-다고, -자고, -라고, -냐고’ 등은 초급과 중급 초반에서 다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준 2단계>에는 문법화된 연결어미 ‘-는다고1’과 종결어미 ‘-자고2’가 중급으로 되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위의 기본적인 간접 인용 표현들을 모두 중급 표현으로 등급화하고 이때 ‘고2’가 인용과 관련된 형태임을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사 ‘인들’은 연결어미 ‘-은들’과 의미는 같고 앞에 오는 품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조사·어미 동일형이다. ‘-은들’은 <표준 2단계>의 최고급으로 등급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양보라는 의미가 교수하거나 학습하기에 쉽지 않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19] ‘인들’

18) 이대와 서울대는 ‘-는다고’를 대표형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동사의 현재형인 ‘-는다고’를 대표형으로 하면 의문문은 ‘-느냐고’가 되어야 한다. ‘-었다고, -었냐고’ 등을 고려하면 ‘-다고’를 대표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19) ‘-은들’은 건국대(4급 23과), 이화여대(6급 1과), 고려대(6급 7과), 서울대(5B 5-2과), 경희대(4급 8과)에 수

과 '-은들'을 함께 가르치는 것을 제안한다.

'이니'는 '이다2', '이며', '하고', '하며'로 의미상 유사성이 크므로 다섯 개의 문법 항목은 의미와 기능을 기준으로 함께 교수하는 게 유리하다.[20] 이중 가장 빈도가 높은 항목은 '하고'이나 '하고'는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어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이니'를 대표형으로 하여 묶는다.[21] '하고'는 공동과 비교의 의미는 초급에서, 나열의 의미는 중급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든, 든지, 든가'는 의미가 같고 조사·어미 동일형을 조사의 기능과 연결어미의 기능을 같이 교수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연결어미 '든2, 든지2'도 중급 항목으로 빈도를 고려하여[22] '든'을 대표형으로 하여 조사·어미 결합형을 함께 항목화하였다.

'라3'은 직접 인용 조사 '라고1'의 줄임말이다. 그러나 실제 사용되는 예는 많지 않다.

(2) 아주머니는 "천천히 많이 먹어요"라고(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대표형은 '이라고1'이 되어야 하고, '라고1, 라3, 이라'는 관련형이다. '라고1, 이라고1'는 <표준 2단계>에서 고급으로 되어 있으나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함께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급으로 이동해야 한다. 26의 '이라'는 중급 항목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이라고1'로 묶을 수 있다.

14의 '이라든가'는 '이라든지'와 바꿔 쓸 수 있다.[23] 인용의 뜻을 갖는 '라'를 사용하지 않고 '이든지, 이든가'로 바꾸어도 크게 뜻의 차이가 없고 미세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기에 중급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고급으로 이동하였다.

'만2'와 '마는'은 '-지만/-지마는'과 마찬가지로 빈도를 고려하면 '만2'가 대표형이 된다. '만2'는 주로 종결어미 뒤에 붙고 뒤 절은 앞 절과 대립되는 상황이 나온다. 문법의 체계성이나 빈도, 교수·학습의 실제성을 고려할 때 이 항목을 중급에서 꼭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 확신이 없어 유보한다.

대표형을 기준으로 18항목이 선정, 정련되었다.

<표 6> 2단계 중급 조사 목록(18항목)

같이, 이고, 이니(이며, 하며, 하고, 이다2), 커녕(ㄴ커녕, 는커녕, 은커녕), 이나마(나마), 대로, 이든(이든가, 이든지), 이라고1(라고1, 라3, 이라), 이란(란1), 으로부터, 만큼, 이면(면1), 보고, 뿐, 아(야), 이야(야), 요1, 치고 ; 인들[24]

4.2.2.2. 어미

다음은 <표준 2단계>의 중급 어미 목록으로, 57개의 어미 중 선어말어미는 1항목, 연결어

록되어 있다.

20)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갖는 조사를 함께 가르치는 것보다 따로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유의어는 관련형으로 묶어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21) 국립국어원(2005)의 빈도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이니: 223 이며: 187 하고: 417 하며: 98

22) 국립국어원(2005)의 빈도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든: 617 든지: 498 든가: 162

23) 국립국어원(2005)의 빈도는 162이고 한국어교재에 '이라든지'는 교수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4) 조사 '인들'은 연결어미 '-은들'에서 같이 기술하기로 하였다.

미는 29항목, 종결어미는 27개 항목이다. 이중 <토픽 중급>과 일치하는 항목은 26항목이고[25], '-으려고1, -어1, -에요, -네1, -네2'는 1단계에서 초급으로 등급을 정한 바 있다.

<표 7> <표준 2단계>의 중급 어미 목록

	범주	대표형	관련형	토픽	정련	비고
1	선어말	-었었-	-았었-, -였었-	중급	중급	
2	연결	-거니와		없음	중급	
3	연결	-거든1		중급	중급	
4	연결	-거들랑1	-걸랑1	없음	고급	
5	연결	-고도		없음	중급	
6	연결	-고자		없음	중급	
7	연결	-기에[26]		중급	중급	
8	연결(나열)	-는다거나1	-ㄴ다거나1, -다거나1, -라거나1	없음	중급	
9	연결(이유)	-는다고1	-ㄴ다고1, -다고1, -라고3	중급(종결어미)	중급	
10	연결	-으나	-나4	없음	중급	
11	연결	-노라면		없음	고급	
12	연결	-느라고		중급	중급	
13	연결	-으니2	-니4	없음	중급	
14	연결	-다가1	-다5	중급	중급	
15	연결	-다시피		중급	중급	
16	연결	-더라도		중급	중급	
17	연결	-도록		중급	중급	
18	연결	-든2		없음	중급	
19	연결	-든지2		중급		
20	연결	-을뿐더러	-ㄹ뿐더러	없음	유보	
21	연결	-으려고1	-려고1	초급	초급	
22	연결	-으므로	-므로	중급	중급	
23	연결	-어1	-아2, -여1	중급(종결어미로 있음)	초급	
24	연결	-어다	-아다	없음	중급	
25	연결	-어다가	-아다가,	없음		

25) 일치율은 45.6%이다. <토픽 중급>에만 제시된 항목은 전성어미 '-던-'과 연결어미 11항목 '-(ㄴ/는)다면, -(으)ㄴ/는/(으)ㄹ지, -(으)ㄴ/는들, -니만큼, -(으)ㄹ수록, -(으)ㄹ지라도, -(으)려면, -(으)며, -더니, -던데, -듯이', 종결어미 14항목 '-(ㄴ/는)다면서(요), -(으)ㄴ/는걸(요), -(으)ㄴ/는데(요), -(으)ㄴ가(요), -고말고(요), -기는(요), -니/냐, -더라고(요), -던가(요), -나(요), -자, -는군(요), -(으)니까(요), -아/어서(요)'이다. 이중 '-(으)ㄴ/는데(요), -는군(요), -(으)니까(요), -아/어서(요)'는 이미 1단계에서 초급 항목에 포함하였고, '-나(요)'는 <표준 2단계>에 중급 표현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두 21항목을 대상으로 중급 항목의 포함 여부를 논의해 봐야 한다.

			-여다가			
26	연결	-어도	-아도, -여도	중급	중급: -라도 추가	
27	연결	-어야	-아야, -아야만, -여야	중급	중급	
28	연결	-어야지2	-아야지2, -여야지2	중급(종결어 미로 있음)	중급	
29	연결	-자니까3	-자니3	없음	유보	
30	연결	-자마자		중급	중급	
31	종결	-거든2		중급	중급	
32	종결 (의문의 근거)	-게6	-게요2	없음	중급	
33	종결	-고4	-고요	중급(표현으 로 되어 있음)	중급	
34	종결	-는구나	-구나	없음	중급	
35	종결(감탄)	-는구려	-구려1	없음	유보	
36	종결	-는구먼	-구먼, -구먼요, -는구먼요	없음	유보	
37	종결	-그려		없음	유보	
38	종결(이리온)	-ㄴ2	이리온	없음	유보	
39	종결	-는다	-ㄴ다, -다2	중급	중급	
40	종결 (의문, 근거)	-는다니2,	-ㄴ다니2, -다니3, -라니3	중급	중급	
41	종결(서술)	-네1		초급	초급	
42	종결(감탄)	-네2		초급	초급	
43	종결(서술)	-다4		없음	유보	
44	종결	-더군	-더군요	중급	중급	
45	종결	-더라		중급	중급	
46	종결	-던데2	-던데요	중급	중급	
47	종결(감탄)	-으라니1	-라니4	없음	유보	
48	종결	-으려고2	-려고2, -으려고요	없음	유보	
49	종결	-으렴	-렴	없음	유보	
50	종결	-으리라	-리라	없음	유보	
51	종결	-습디다	-ㅂ디다	없음	유보	
52	종결(명령)	-어라1	-아라1, -여라1	중급	중급	
53	종결	-에요		없음	초급	

54	종결	-으오	-오	없음	유보	
55	종결	-으니4		없음	유보. 추가: -으니라고	
56	종결	-자고2	-자고요	없음	유보	
57	종결	-잖아	-잖아요	중급	중급	

연결어미 '-어다, -어다가'는 대치해서 사용 가능하므로 합하여 중급 항목으로 등급화하였다. 초급 조사인 '다가'의 의미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중급에 포함해도 무방하다. '-든2'와 '-든지2'도 마찬가지이다.

'-고자'는 초급 '-으려고'와 유의어 관계지만 문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결어미로 중급에서 교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고도'도 '-어도'와 유사한 의미로 중급으로 교수해도 무방하다.

'-을뿐더러'는 '-을 뿐만 아니라'와 대치해서 사용되는데 '-을 뿐만 아니라'는 <표준 2단계>에서 최상급으로 등급화되어 있지만, 한국어 교재에는 주로 중급에 출현하고 빈도도 높기 때문에 중급으로 등급화해야 할 것이다.[27] '-을뿐더러'가 '-을 뿐만 아니라'보다 빈도도 낮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보하도록 한다.

'-거니와'는 교재 빈도가 7개 교재 중 3이라서 중급 항목에 포함하였다. '-거들랑'은 교재 출현 빈도가 0으로 주로 구어에서 사용되는 '-거든'의 문체적 변이형으로 중급 항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으니'는 교재 출현 빈도는 0이지만 '-으니까' 대신 사용될 수 있는, 주로 문어에 사용되는 문법 형태이므로 중급에 포함한다. '-노라면'은 교재 빈도 2이지만 한 교재가 6급 10과에 출현하고 있어 고급으로 등급화하였다.

'-자니까3'은 '버리자니까 아깝고 쓰자니까 쓸 데가 없다'의 '-자니까'이다. 빈도도 낮을 뿐 아니라 교재 빈도도 0이라 유보하였다.

<표 8> 교재 현황

	건국대	이대	고대	서울대	경희대	연세대	서강대
-거니와		6급 3과	6급 8과			5급 2과	
-거들랑	없음						
-으니4	없음						
-노라면				4급 20과 5B 5-3과		6급 10과	

26) <토픽 중급>에 '-기에'는 없고 유의어 '-길래'가 있으며, '-기에(는)'이 종결어미로 되어 있다. '-기에(는)'을 종결어미로 범주화한 것은 오류로 보인다. '-길래'가 중급에 있으므로 유의어인 '-기에' 역시 중급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기에(는)'은 다음 예처럼 '~하는 것을 위해서는, ~한다고 생각하면'의 의미를 지니므로 연결어미 '-기에'와는 다른 의미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예) a. 이 집은 우리 가족이 살기에(는) 좀 작은 편이야.
b. 어쨌든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왔어.

27) '-을뿐더러'는 연대(5급 3과), 서울대(5A 5-2과), '-을 뿐만 아니라'는 건대(3급 2과), 서울대(3급 31과), 고대(4급 4과), 경희대(4급 2과), 이대(3급 3과)의 교수 항목이다.

-자니까3	없음

<표준 2단계>의 중급 종결어미에는 하오체의 어미가 많다. 하오체의 어미는 실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어미들을 중급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고급에서 다루어질지는 고급에서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37의 '그려'는 학교문법에서 종결어미가 아닌 조사로 범주화되어 있다. 수정이 필요하다.

'-으리라, -으렴'은 해라체에 사용되는 어미로 추측과 다짐, 부드러운 명령 등을 나타낸다.[28] '-으리라'는 이대 교재에만, '-으렴'은 어느 교재에도 없으며, 중급으로 가르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보하였다.

'-게6, -는구나, -으라니1, -으려고2, -자고2'는 '-게6'만 교재 빈도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 중급에 포함하였고, '-는구나'는 초급의 '-는군'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중급에 포함하였다. 나머지는 빈도를 고려하여 모두 유보하였다.

<표 9> 교재 현황

	건국대	이대	고대	서울대	경희대	연세대	서강대
-게6			6급 3과		3급 1과 5급 3과	4급 10과 5급 1과	3B-4과
-는구나	없음						
-으라니1	없음						
-으려고2	없음						
-자고2	없음						

<토픽 중급>과 <표준 2단계>가 일치하는 항목 중 논의가 필요한 항목은 없어 보인다. <표준 2단계>에만 중급으로 되어 있거나 <토픽 중급>에만 중급으로 되어 있는 항목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세부 범주별로 살펴보기 위해 <토픽 중급>에만 중급으로 되어 있는 항목이 <표준 2단계>에서는 어떤 등급으로 등급화되어 있는지를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10> <토픽 중급>에만 있는 항목

범주	대표형	관련형	<표준 2단계>	비고
전성어미	-던		고급	
연결어미	-는다면	-ㄴ다면, -다면	고급	추가: -라면
연결어미	-는지	-ㄴ지, -은지, -ㄴ지, -을지	고급	종결: -는지요, -은지요 추가
연결어미	-는들	-ㄴ들, -은들	최상급	'-는들' 사용 안 됨,

28) '-으리라'는 이대(5급 10과) 교재에만, '-으렴'은 아예 교재에 없다.

				삭제.
연결어미	-니만큼		고급	추가: -느니만큼, -으니만큼, -느니만치, -으니만치
연결어미	-을수록	-ㄹ수록	고급	
연결어미	-을지라도	-ㄹ지라도	고급	
연결어미	-으려면	-려면	고급	
연결어미	-으며	-며	고급	
연결어미	-더니		고급	추가: -더니마는, -더니만
연결어미	-던데		고급	중급 종결어미 '-던데, -던데요'는 중급
연결어미	-듯이		최상급	추가: -듯
종결어미	-는다면서1	-ㄴ다면서, -는다면서요, -ㄴ다면서요	없음	'-는다면서1'은 확인. '-는다면서2'만 최상급 표현(인용)으로 등재
종결어미	-는걸	-ㄴ걸, -은걸, -는걸요, -ㄴ걸요, -은걸요	고급	
종결어미	-는가	-ㄴ가, -은가, -는가요, -은가요, -ㄴ가요	고급	
종결어미	-고말고	-고말고요	고급	
종결어미	-기는	-기는요	고급	추가: -긴, -긴요
종결어미	-니/-냐	-으니	고급	중급 추가: -으니
		-으냐, -느냐	최상급	중급 추가 : -으냐, -느냐
종결어미	-더라고	-더라고요	고급	
종결어미	-던가	-던가요	고급	
종결어미	-자		고급	중급

<토픽 중급>에만 있는 항목들은 <표준 2단계>에 대부분 고급으로 등급화되어 있다.[29] 가능한 한 토픽과의 일치를 추구하며, 1단계에서 제시한 기준을 중심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항목들을 범주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전성어미를 보면 <토픽 중급>에만 있는 '-던-'을 어느 등급에 포함할지 판정해야 한다. 선어말어미 '-더-'는 다른 선어말어미와 달리 관형사절과 서술절이 1:1로 대응되지 않고, 관형사절에서든 문장 종결형의 서술어에서든 결합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더-'를 따

29) 최상급 항목도 일부 눈에 띠지만 표준 모형의 문법 항목 등급은 토픽의 등급을 따라 초-중-고로 조정되기 때문에 최상급을 고급으로 봐도 무방하다.

로 교수하지 않고 '-더니, -더라, -던데, -더라도'처럼 결합형의 형태로 교수하고 있다. 다음은 '-더-'의 결합형이 교재에 출현한 현황이다.

<표 11> '더'의 결합형 교재 현황

	건국대	이대	고대	서울대	경희대	연세대	서강대
-더니	3급 11과 3급 19과	4급 1과	5급 2과	3급 24과 3급 32과	3급 5과	4급 2과	5B-7과
-더라			3급 15과	4급 7과	3급 6과	3급 6과 5급 4과	3B-4과
-던데	3급 26과	3급 2과	3급 6과		4급 2과 5급 6과	3급 1과 3급 2과	3A-6과
-던가	없음						
-더라고		4급 3과	5급 2과		3급 8과	5급 5과	
-던	3급 12과		3급 9과	3급 20과			3B -7과
그 외	았/었더니 : 3급 19과			었던: 3급 25과 더군: 4급 9과		더군요: 2급 9과	았더니: 3B-3과

'-던-'이 대부분의 교재에서 중급에 출현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미 다른 전성어미들은 초급에서 이미 교수가 끝난 것을 고려할 때 전성어미 '-던-'을 중급에서 교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더-'가 결합된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역시 중급에 가장 많이 분포하므로 중급에서 교수하는 것이 무방하리라 본다. 연결어미 '-던데'는 종결어미 '-던데'와 함께 중급에 포함하였다.

<표준 2단계>에는 '-는다거나, -는다고'처럼 인용의 말이 생략된 것으로 해석되는 연결어미가 포함되어 있다. '-거나, -고'를 초급에서 배웠기 때문에 연계하여 교수가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연결어미 '-는다면'은 중급에 포함해도 무방하다.

해라체의 의문형, 청유형 종결어미 '-니/냐, -자'는 역시 해라체의 명령형어미 '-어라'와 같이 중급에서 교수하는 것이 적합하다.[30]

연결어미나 종결어미의 등급은 한국어 화자의 말뭉치 빈도와 기존 교재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표 10>의 문법 항목들의 교재 빈도와 말뭉치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12> 교재 빈도 및 말뭉치 빈도

대표형	교재빈도	교재 현황	말뭉치 빈도
-는다면	4	이대 3급 10과/ 경희대 3급 1과/ 연대 3급 3과/ 서강대 4B-2과	163
-는지	2	이대 2급 12과/ 경희대 3급 3과	657

30) '-니/냐'는 연대(2급 4과), 서강대(5A-6과)에, '-자'는 이대(5급 5과), 고대(4급 14과), 서울대(2급 32과), 연대(2급 4과), 서강대(5A-4과)에 출현한다.

-는들	0		0
-니만큼	2	경희대 5급 3과/ 연대 4급 8과	21
-을수록	5	이대 2급 13과/ 서울대 3급 21과/ 경희대 4급 5과/ 연대 5급 1과/ 서강대 5B-1과	79
-을지라도	0		28
-으려면	6	건대 2급 3과/ 이대 2급 6과/ 고대 4급 12과/ 서울대 2급 12과/ 연대 2급 5과/ 서강대 3A-2과	84
-으며	6	건대 2급 6과/ 이대 4급 2과/ 고대 4급 1과/ 서울대 2급 29과/ 경희대 3급 1과/ 서강대 5A-2과	4864
-더니	7	건대 3급 11과, 3급 19과/ 이대 4급 1과/ 고대 5급 2과/ 서울대 3급 24과, 3급 32과/ 경희대 3급 5과, 4급 4과/ 연대 4급 2과/ 서강대 5B-7과	1146
-듯	5	이대 4급 6과/ 고대 4급 6과/ 경희대 4급 7과/ 연대 3급 10과/ 서강대 5A-7과	830
-는다면서1	3	이대 3급 6과/ 경희대 4급 4과/ 연대 3급 5과	1
-는걸	2	건대 3급 9과/ 연대 4급 4과	64
-는가	0		240
-고말고	1	연대 3급 2과	24
-기는	3	건대 3급 3과/ 서울대 4급 35과/ 연대 3급 9과	0
-더라고	2	서울대 4급 34과/ 경희대 3급 6과	20
-던가	0		413

교재 빈도와 말뭉치 빈도를 고려할 때 오류형인 '-는들'과 교재 빈도와 말뭉치 빈도가 낮고 난이도가 높은 '-을지라도'을 제외하고 토픽의 중급을 모두 중급으로 재등급화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대표형을 기준으로 선어말어미, 전성어미,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53항목을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2단계 중급 어미 목록(53항목)

선어말어미(1)	-었었-
전성어미(1)	-던-
연결어미(31)	-거니와, -거든1, -고도, -고자, -기에, -는다거나1, -는다고1, -으나, -느라고, -으니2, -다가1, -다시피, -더라도, -도록, -든2, -으므로, -어다, -어도, -어야, -어야지2, -자니까3, -자마자, -는다면, -는지, -니만큼, -을수록, -으려면, -으며, -더니, -던데, -듯이
종결어미(20)	-거든2, -게6. -고4, -는구나, -는다, -는다니2, -더군, -더라, -던데2, -어라1, -잖아, -는걸, -는가, -고말고, -기는, -니, -냐, -더라고, -던가, -자

4.2.2.3. 표현

다음은 <표준 2단계>의 중급 표현 목록으로, 64개의 표현 중 <토픽 중급>과 일치하는 항목은 36항목이다.[31] 이중 '-거든요, -나요, -을걸요'는 종결어미로 범주 수정을 하였고, '-

31) <표준 2단계>를 기준으로 한 일치율은 56.3%로 조사, 어미보다 높으나 토픽에만 올라 있는 중급 표현 항목이 많아 실제 일치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다가도'는 연결어미 '-다가'에 통합하였다. 그리고 2.2.2.에서 '-다고, -냐고, -라고, -자고'를 중급 표현에 포함한 바 있다.

<표 14> <표준 2단계>의 중급 표현 목록

	범주	대표형	관련형	토픽	정련	비고
1	표현	-거든2	-거든요	중급	중급	종결어미로 범주 수정
2	표현	-게 하다		중급	중급	-게 되다
3	표현	-고 나다[32]		중급	중급	-고 나니까, -고 나면, -고 나서
4	표현	-고 들다		중급	중급	
5	표현	-고 말다		중급	중급	-고 말고(요)
6	표현	-고 보다		중급	중급	-고 보니까, -다 보면
7	표현	-고 싶어 하다		없음	중급	
8	표현	-고 해서		없음	중급	초급 '-어서'와 유의 관계
9	표현	-고서는		없음	중급	연결어미 '-고서'를 대표형으로 하고, 관련형으로 '-고서는' 처리. 범주는 연결어미로 조정.
10	표현	-기 위한		없음	중급	'을 위해'와 통합.
11	표현	-기 위해	-기 위해서	중급		
12	표현	-은 결과	-ㄴ 결과	없음	중급	
13	표현	-는 김에	-ㄴ 김에, -은 김에	중급	중급	
14	표현	-은 다음에	-ㄴ 다음에	없음	중급	
15	표현 (현재)	-는 대로	-ㄴ 대로1, -은 대로2	중급	중급	
16	표현	-는 대신에	-ㄴ 대신에, -은 대신에	중급	중급	
17	표현	-는 듯	-ㄴ 듯, -은 듯	없음	중급	
18	표현	-는 만큼	-ㄴ 만큼, -은 만큼	중급	중급	
19	표현	-는 반면에	-ㄴ 반면에, -은 반면에	중급	중급	
20	표현	-는 줄[33]	-ㄴ 줄, -은 줄	중급	중급	-는 줄 모르다/알다
21	표현	-는 탓에	-ㄴ 탓에, -은 탓에	중급	중급	'-는 탓에'로 수정

22	표현 (선택)	-는다거나2	-ㄴ다거나2, -다거나2, -라거나2	중급	중급	
23	표현	-나 보다		중급	중급	
24	표현	-나 싶다		중급	중급	
25	표현	-나요		중급	중급	'-나'를 대표형으로 종결어미로 범주 수정
26	표현	-는 바람에		중급	중급	
27	표현	-는 사이		중급	중급	
28	표현	-는 한		중급	중급	
29	표현	-다가도		없음	중급	연결어미 '-다가'에 통합
30	표현	-을 따름이다	-ㄹ 따름이다, -을 뿐이다, -ㄹ 뿐이다	중급	중급	
31	표현	-을 테니	-ㄹ 테니, -을 테니까	중급	중급	
32	표현	-을 텐데	-ㄹ 텐데, -을 텐데요, -ㄹ 텐데(요)	중급	중급	
33	표현	-을걸요	-ㄹ걸요	없음	중급	종결어미 '-을걸'에 통합
34	표현	-으라니2	-라니5	없음	유보	'-으라고 하니'가 줄어든 말.
35	표현	-으면 안 되다	-면 안 되다, -어서는 안 되다	중급	중급	'-면 되다' 형으로 되어 있음.
36	표현	-으면 좋겠다	-면 좋겠다	없음	중급	
37	표현	-어 가다	-아 가다, -여 가다	중급	중급	
38	표현	-어 가지고	-아 가지고, -여 가지고	중급	중급	
39	표현	-어 놓다	-아 놓다, -여 놓다	중급	중급	
40	표현	-어 대다	-아 대다, -여 대다	중급	중급	
41	표현	-어 두다	-아 두다, -여 두다	중급	중급	
42	표현	-어 드리다	-아 드리다, -여 드리다	없음	중급	

43	표현	-어 버리다	-아 버리다, -여 버리다	중급	중급	
44	표현	-어 오다	-아 오다, -여 오다	중급	중급	
45	표현	-어서인지	-아서인지, -여서인지	중급	중급	'-어서 그런지'형으로 되어 있음.
46	표현	-어야겠-	-아야겠-, -여야겠-	없음	중급	
47	표현	-어야지	-아야지, -여야지, -어야지요(죠), -아야지요(죠), -여야지요(죠)	없음	중급	연결어미 '-어야지1, 종결어미 '-어야지2'로 분리
48	표현	-어지다	-아지다, -여지다	중급	중급	
49	표현	-었더니	-았더니, -였더니	없음	중급	
50	표현	-었던	-았던, -였던	없음	중급	
51	표현	-을래야		중급	중급	연결어미로 범주 조정. '으려야'의 방언(<표준>) 관련형 '으려고 하여야, 려고 하여야, 으려야, 려야'
52	표현	-자기에		없음	유보	
53	표현	으로 인하다	로 인하다	없음	중급	'으로 인하여, 으로 인한'으로 형태 교체
54	표현	을 위해	를 위해, 을 위해서, 를 위해서	없음	중급	'-기 위해, -기 위한' 통합
55	표현	만 같아도		없음	중급	
56	표현	만 아니면		없음	중급	
57	표현	에 대하여	에 관하여	중급	중급 통합	'에 대하여'대표형
58	표현	에 대한	에 관한	중급		
59	표현	에 따라		없음	중급 통합	'에 따라' 대표형
60	표현	에 따르면		없음		
61	표현	에 비하여	에 비하면	없음	중급	
62	표현	에 의하면		없음	중급 통합	'에 의하여' 대표형
63	표현	에 의하여		중급		

64	표현	엘		없음	‘에를’의 준말(<표준>)	삭제

‘-다가도, -다가는’은 연결어미 ‘-다가’에 조사 ‘는, 도’가 결합한 형태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다가는’은 연결어미로 되어 있으나 ‘-다가도’는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다가도’는 표현으로 범주화되어 있는데 ‘-다가는’의 결합 방식과 ‘-다가도’의 결합 방식이 같기 때문에 둘을 별도의 범주로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

‘-고서는’도 마찬가지이다. 연결어미 ‘-고서’에 조사 ‘는’이 결합된 ‘-고서는’은 연결어미 ‘-고서, -고3’과 유의 관계이고, ‘-고서’ 뒤에 조사 ‘야’가 결합된 ‘-고서야’도 사용된다. 연결어미 중급 목록 중 연결어미 ‘-고’에 조사 ‘도’가 결합된 ‘-고도’를 연결어미로 범주화한 것을 상기할 때 ‘연결어미+조사’ 결합형의 범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위하-, 대하-, 관하-, 따르-, 비하-’ 등의 동사들은 구문(construction)을 형성하여 부사절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표준 2단계>에서 이들 관용 표현들을 목록화한 것을 보면 일부 체계성이 어그러져 있는데 본고에서는 동사를 기준으로 한 항목으로 묶고[34](예: 을 위해, -기 위해, -기 위한), 유의 관계인 ‘대하-, 관하-’를 한 항목으로 묶었다. 그 다음은 대표형을 정하는 것인데 빈도를 따르는 방법이 있으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연결어미 ‘-어’ 결합형을 기본형으로 하는 것이 통일성이 있어 이를 제안한다. 이에 따르면 ‘을 위해, 에 대하여, 에 따라, 에 비하여, 에 의하여’이 대표형이 된다. 그리고 ‘으로 인하다’는 ‘으로 인하여’를 대표형으로 설정하였다.

‘-은 다음에’는 초급의 ‘-은 뒤에’와 유의 관계로 중급 문법 항목으로 적절하며, ‘-는 듯’은 의존명사면서 연결어미로 사용되는 ‘듯/듯이’의 기능을 고려할 때 중급 연결어미 ‘-듯/듯이’와 함께 중급 항목으로 교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 연결어미 ‘-듯/듯이’와 표현 ‘-는 듯/듯이’를 따로 가르치는 것보다 같이 가르치는 것이 교수나 학습에 이로우므로 함께 묶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때는 물론 단순한 형식인 연결어미 ‘-듯/듯이’를 먼저 교수하고 뒤이어 ‘-는 듯/듯이’를 교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35] 또한 본말, 준말 관계인 ‘듯’과 ‘듯이’ 중 대표형은 본말인 ‘듯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으라니2’는 흔히 ‘으라고 하니’가 줄어든 말이라고 하는데, 인용의 형식이 줄여서 굳어진 표현들을 표현으로 범주화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줄어든 말로 풀이되어 있고 문법 범주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기다리라니 기다리고 있어요, 케이크를 만들라니 만들어야지요” 등의 사용 예를 보면 동사의 어간 뒤에 연결되고 줄기 전의 형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예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연결어미 또는 연결어미의 역할을 하는 연결형식 등으로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교재에는 출현하지 않아 일단 유보한다.

‘-자기에’도 ‘-자고 하기에’가 줄어든 말로 선행절의 내용에 따라 ‘-으라기에, -는다기에, -

32) 토픽에는 ‘-고 나다’같이 기본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고 나니까, -고 나면, -고 나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고 말다, -고 보다’ 등도 마찬가지이다.

33) 토픽에는 ‘-는 줄 모르다/알다’ 형으로 되어 있다.

34) ‘-을 위해’는 ‘-기 위해’와 분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묶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 ‘-기 위해/위한’, ‘-에 대해/대한’, ‘-에 따라/따른’의 통합 여부는 좀 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

35) 교육적으로는 둘의 의미를 굳이 엮어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추측의 양태 표현이 사용 빈도가 더 높고 ‘-는 듯(이)’는 ‘-는 듯하다’와 관련이 있으므로 ‘-는 듯(이)’를 ‘-듯(이)’보다 더 먼저 교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기도 한다.

냐기에' 등과 같은 형식으로 사용된다. 연결어미 '-기에'가 중급으로 등급화되어 있으므로 '-자기에'를 중급에 포함하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다른 유사한 형식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고급에서 다른 형식과 같이 교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36]

'-어야지'는 표현으로 범주화되어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각각 올라 있다. 종결어미 '-어야지2'는 앞서 중급에 포함하였고, 연결어미 '-어야지1'은 대체 표현의 존재 여부, 대체 표현의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고급으로 등급화하였다.

선어말어미와 연결어미 또는 전성어미가 결합된 '-어야겠-, -었더니, -었던'을 표현으로 범주화한 것은 다른 범주에 포함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었더니, -었던'은 연결어미 '-더니', 전성어미 '-던'을 교수하면서 함께 교수하는 것이 둘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 교수 현장에서는 이 둘을 함께 가르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표현으로 범주화하였다. '-어야겠-'은 연결어미와 선어말어미가 결합된 형태로 '-어야 하겠-'이 줄어든 말로 해석하는데 뒤에 종결어미가 결합된다는 점에서 선어말어미의 성격을 갖는다.

'엘'은 '에를'의 준말로 '엘'을 중급 항목에 포함하면 '엔(에는), 에선(에서는)' 등도 문법 항목에서 다루어야 한다. '에'와 '를'이 결합하여 사용된다는 정보는 '에'나 '를'에서 밝혀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제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5> 2단계 중급 표현 목록 및 어미 추가 항목(55항목)

표현(51)	-게 하다, -고 나다, -고 들다, -고 말다, -고 보다, -고 싶어 하다, -고 해서, -을 위해, -은 결과, -는 김에, -은 다음에, -는 대로, -는 대신에, -는 듯, -는 만큼, -는 반면, -는 줄, -는 탓에, -는다거나2, -나 보다, -나 싶다, -는 바람에, -는 사이, -는 한, -을 따름이다, -을 테니, -을 텐데, -으면 안 되다, -으면 좋겠다, -어 가다, -어 가지고, -어 놓다, -어 대다, -어 두다, -어 드리다, -어 버리다, -어 오다, -어서인지, -어야겠-, -어지다, -으로 인하여, -만 같아도, -만 아니면, -에 대하여, -에 따라, -에 비하여, -에 의하여, -는다고 하다, -냐고 하다, -라고 하다, -자고 하다
연결어미(2)	-고서, -을래야
종결어미(2)	-거든2, -나, -을걸

36) '-다기에'는 건대(4급 31과)에, '-기에'는 건대(2급 18과), 이대(3급 8과), 서울대(5A 6-1과), 경희대(4급 1과), 연대(4급 3과)에 나온다.

※ 별첨 자료

<토픽 중급>에만 올라 있는 항목은 69항목에 이른다. 실제로 이들 목록이 토픽 출제에서 지켜진다면 모든 항목을 중급에 포함해서 기술해야 할 것이다. 토픽 중급은 토픽을 관장하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고,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블로그나 카페에 목록이 올라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그렇다면 다른 특정한 목록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그 목록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몇몇 항목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등급화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토픽 중급>에만 올라 있는 항목을 구성 요소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37]

<표 16> <토픽 중급>에만 올라 있는 항목(69항목)

연결어미+연결어미	-으려다가
연결어미(종결어미)+동사	-었으면 하다, -을지 모르다, -곤 하다, -을까 보다(-을까 봐서), -을까 하다/싶다, -어 나가다, -어 내다, -어 달라다, -어 먹다, -어 보이다
종결어미(선어말어미)+연결어미	-는다기에, -는다길래, -는다더니, -는다니까, -는다던데, -는다니, -었더라면
명사형 어미+(보조사)+동사	-기 쉽다, -기 십상이다. -기/게 마련이다, -기는 하지만, -기만 하면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동사(이다)	-을 겸 (해서), -는 걸 보니(까), -을 뿐만 아니라, -을 지경이다, -을 걸 그랬다, -는 중이다, -는 데 (좋다/나쁘다), -는 셈 치다, -는 수가 있다, -는 수밖에 없다, -는 편이다, -려던 참이다, -었던 것 같다, -은 척하다, -는 척하다, -는 법이다, -는 모양이다, -는 셈이다, -는가 보다, -을 만하다, -을 뻔하다, -을 리가 없다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조사	-은 채로, -는 데다(가), -는 통에, -는 중에, -는 길에, -는 덕분에, -을 정도로, -는 한편
조사+동사	만 하다/못하다, -을 비롯해서, -을 통해
인용형	-는다고 해도, -는다고 하다, -냐고 하다, -라고 하다, -자고 하다, -는다더라
호응 구문	마치 ~처럼, 아무 ~나, 아무 ~도, 얼마나 ~은지
기타	-나 마나, -을까 말까, -이나 -이나 할 것 없이

먼저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 호응 구문으로 요약한 '마치 ~처럼'류는 문법·표현 항목보다는 어휘(마치, 아무, 얼마나)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예를 들어 '마치'는 '처럼'뿐 아니라 '듯, 듯이'가 붙은 절(마치 자신이 선생인 듯)이나 '같다' 등의 서술어와도 호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으로 가르치다 보면 항목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7)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다 사용되는 형태는 연결어미로만 분류하였다.

기타의 '-나 마나, -을까 말까'도 유사한 표현 '-거나 말거나', '-거니 말거니', '-든지 말든지' 등을 고려하면 이 둘만을 중급의 표현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하다/못하다'의 '만'은 보조사로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풀이되어 있다. 아래 예에서 볼 수 있듯 '만 하다'는 주로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고, '만 못하다'는 '보다 못하다'와 비슷한 의미로 비교 대상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낸다.

(3) 가. 집채만 한 파도가 몰려온다.
나. 청군이 백군만 못하다.

한국어교육에서 표현은 어휘적 성격이 강한 관용 표현도 포함하고 문법적 성격이 강한 연결 표현, 종결 표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표현 항목의 수는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문법적 성격이 강한 연결 표현(예: -으려다가)이나 종결 표현(예: -었으면 하다)과 달리 관용 표현(마치 ~처럼)은 문법·표현보다는 어휘에서 다루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한국어교육 문법이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제5장 연구의 의의와 과제

5.1. 연구의 의의

본 연구가 한국어교육 연구로서 갖는 의의를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 **언어 정보, 교육 정보를 정리한 충실한 교수 자료 마련**

본 연구는 문법·표현 항목에 대한 교육 내용을 심도 있고 충실하게 기술하여 한국어교육 문법의 기초 자료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한국어 교수자나 연구자, 교재 개발자, 그리고 학습자가 교육, 연구, 교재 개발, 학습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실한 참조 자료의 역할을 할 것이다.

착수 보고회, 자문회의,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거치면서 외부 위원들로부터 사업 방향에 대한 주요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1) 중·고급 용법을 초급 문법 항목의 용법을 기술하는 데 포함하고 이를 '확장'이라는 필드 안에 포함하였다.

2) 사업 초반에 초보 교사를 위한 쉬운 문법 설명에 중점을 두었으나 문법 내용 개발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추어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의미 및 용법 기술의 원칙을 수정하고, 각 필드에 '상세 설명'을 추가하였다.

3) 예문을 풍부히 하였다. 담화 예문은 4~5개, 문장 예문은 10개, 형태 정보 등 각 필드의 예문은 4개 이상 제시하였다.

4) 유사 문법의 기술 대상을 초급 문법 항목에 출현하는 것으로만 한정하였다가 중·고급 문법 항목으로 확대하였다. 이 부분은 중·고급 문법 항목을 기술하면서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임을 밝힌다.

- **교육 현장의 요구 및 경험이 반영된 결과물**

본 연구에는 교육 현장 경험이 1년~3년 이하인 초보 교사들의 요구와 3년 이상의 경력 교사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제성과 연구의 정확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장 교사들의 요구 분석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한국어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는 연구 결과물이 한국어 문법·표현 교육을 위한 실용적인 참조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법·표현 항목 정련과 개별 문법·표현 항목의 내용 기술에는 그간 국어학과 한국어교육학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가 반영되었으며, 코퍼스 언어학의 방법론이 적용된 교재 말뭉치를 활용하고, 한국어교육 현장의 교수 경험을 통해 교수·학습에 효과적인 예문을 엄선하고 학습자의 전형적인 오류 정보를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언어학적 연구 결과물들을 모두 반영하여 교수·학습에 필요한 대조언어학적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인접 학문 분야의 성과를 모두 반영하여 구축된 다양한 언어적, 교육적 정보는 현장 교수자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하며 연구자들에게도 문법·표현 교육 내용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 사업의 계승·발전**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2012) 사업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사업이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이다. 본 사업은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 외에도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0, 2011)에서 마련된 수준별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항목의 기본 틀을 토대로 하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1, 2」(2005)의 개발 이후 지금껏 학계와 교육 현장에 축적된 연구 결과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용 문법·표현 항목의 내용을 개발함으로써 이전 사업의 성과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를 통합적으로 보완하고 그 내용들을 실제 교육 현장에 맞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받아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용 문법·표현 항목을 선정하고 위계화한 초급 문법·표현 항목을 보다 정교하게 체계화하여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수자에게 한국어 문법·표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전 사업의 결과물에 더하여 중급 문법·표현 항목을 보다 정교하게 체계화하여 정련하였다.

5.2. 향후 과제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로 앞으로 3단계, 4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앞서 논의한 의의와 함께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학계와 정부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중·고급 문법·표현 항목의 정련**

2단계 사업 내용 중 하나는 중급 문법·표현 항목의 선정과 정련이다. 이미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010, 2011)과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등급별 문법·표현 항목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목 간 불일치로 인하여 교사나 학습자들은 곤란을 겪고 있다. 한국어교육의 체계화와 연구 내용의 집적, 경험의 축적으로 표준적인 문법·표현 항목의 정련이 가능하리라 본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결과물과 본 사업의 결과물을 기초로 학계에 역량을 총 결집하여 통일된 항목 정련 작업 결과를 교사와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중·고급 문법·표현 항목의 내용 기술 틀 마련**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정련된 중급 문법·표현 항목의 내용 기술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초급 문법 내용 기술 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테지만 중급 항목에 최적화된 기술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물론 2단계 결과물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과 요구를 고려한 후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 **초급 문법·표현 기술 내용의 활용**

초급 문법·표현 기술 내용은 빠르면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될 예정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전문 교사 풀을 활용하여 기술 내용의 문제점이나 오류 등을 잡아내고, 일반 교사들이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삽입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기술 방식은 항목당 기술 내용이 상세하여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 보기를 원하는 교사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한 문법서나 대조언어학적 내용만 볼 수 있는 문법서 등을 출판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 **사업 내용의 일관성 유지**

앞서 기술한 것처럼 문법·표현 항목의 기술 내용은 사업 초반에는 초보 교사들을 대상으로 쉬운 설명 위주로 추진되다가 사업 중반에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으로 주요 방향이 변경되었다. 초보 교사 중심의 문법 내용 개발 연구는 1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고자 하다 보니 이와 같이 사업 방향이 변경된 것이다. 1단계에서는 초급 항목이 10여 개밖에 집필되지 않았기 때문에 2단계의 사업 방향 변경은 무리가 없었지만 앞으로 추진될 3단계, 4단계 사업에서는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5.3. 정책 제안

본 연구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6.2.에서 기술하였으므로 이 절에서는 한국어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올해 수행한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첫째,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을 위한 연구와 자료 구축이 좀 더 심층적으로,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사실 그동안 한국어교육은 놀랄 정도로 양적, 질적 향상을 거듭해 왔다. 최근에 간행된 「한국어교육 연구의 현황 -2013-」(신구문화사)에 따르면 1969년부터 2013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7,380여 편에 이른다. 1969년부터 조사된 이 저작물에 따르면 2011년, 2012년에는 한국어교육 논문이 각각 1,285편, 1,223편에 이른다. 그리고 논문의 성격에 따라 보면 간행물 논문이 4,044편, 석사 학위 논문이 3,143편에 이른다. 세부적 주제에 따라 보면 문법 교육이 1,509편, 어휘 교육이 1,118편, 교재론 808편, 대조언어학 668편, 문화교육 592편, 교수법 546편, 학습자 513편, 발음(음성, 음운론) 459편, 다문화

(여성결혼이민자, 방언) 449편 순이다. 그런데 이번 연구를 수행하며 찾아본 문법 교육에 대한 논저들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는데, 기대보다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논저들의 주제가 중복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위에서 언급한 상위의 한국어교육 연구 주제는 한국어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연구 목표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발음, 어휘, 문법 교육 등 기본적인 언어 지식 교육과 교재론, 교수법 등 실제 교육에 필요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는 그만큼 이 영역의 연구가 중요함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분야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향후 과제에서도 지적한 '단계별 문법 항목 선정'에 대한 연구, 그리고 본 연구에서 힘들여 작업했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유사 문법 항목'에 대한 연구가 그 한 예가 된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 국가 주도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대형 프로젝트로 수행하거나('단계별 문법 항목 선정'), 관련 연구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장기 프로젝트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유사 문법 항목')

다음은 연구의 다각화에 대한 제안이다. 앞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는 연구 주제는, - 총론 등 개괄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학습 목적별 연구 195편, 언어습득/이중언어 33편, 교사 양성 134편, 구어 137편, 문어 28편, 화행/담화 157편, 사례 연구 70편 등이다. 이들 분야의 연구가 좀더 활성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언어습득이나 이중언어 연구는 역시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연구이며, 화행/담화, 사례 연구 등은 교실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오랜 관찰 시간이 필요한 연구 주제이다. 이 외에도 표현과 이해 영역을 비교해 보면 표현보다 이해 영역(201편:35편)의 비중이 낮고 4가지 기능 영역을 보면 쓰기가 319편으로 가장 많고, 읽기(245편), 말하기(171편), 듣기(98편)으로 말하기, 듣기 즉 구어와 관련한 기능 영역의 논저가 적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쓰기 관련 연구물이 많지만 실제로 쓰기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 자료는 교재 외에는 부족하며, 이는 읽기, 말하기, 듣기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요약하면 한국어교육 연구에 기초한 교육 자료 구축을 위해 질적 연구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나온 연구 업적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정책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둘째, 교실 상황에 맞는 교육 자료 개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첫째 제안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하며 알게 된 점은 같은 대학 부설 교육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기관별, 학습자별 변인에 따라 교육 상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어떤 좋은 교육 자료가 만들어져도 교사가 이를 학습자나 교육 환경에 따라 가공하여 쓸 능력이 없으면 불필요하거나 불완전한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심층적 연구와 연구 결과물의 축적, 가공도 중요하지만 이를 교실 상황에 맞게 운용해서 쓸 수 있는 교사의 양성과 교사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교육 이전에 충분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자녀, 여성 결혼 이민자, 세종학당 학습자, 재외 동포 등을 위한 교재가 개발되어 나온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1, 2」의 보완 필요성에 근거하여 수행된 본 사업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위의 교재들의 부족한 점과 보완점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은 바로 교실 상황에 맞는 교육 자료 개발과 같은 이야기다. 이를 정책이나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은 교육 여건이 안 좋은 학습자 100명 이하의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을 하여 그 기관에 맞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다. 대학의 한국어교육 기관은 국제화 지수를 높이기 위해 또는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여러 곳에 생겨났다. 그러나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한국어교육을 해서 얻은 수익이 교육에 투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1000만원을 투자하면 정부에서 그만큼의 재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한국어교육 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물론 사업의 내용은 교실 상황에 맞는 교육 자료의 개발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정부는 질 높은 한국어교육을 위해 교사 자격 제도와 교육 기관 인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는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기관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한편으로 교육의 일방화, 획일화를 조장하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 다양한 학습자, 학습 목적, 기관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교사와 연구자가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마련을 제안한다. 최근 누리세종학당 홈페이지가 전격 가동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 학당에는 교육 자료는 많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교사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은 없는 것 같다. 주로 개인적 공간(주로 블로그나 카페)을 통해 교사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다. 가르치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질문을 올리고 그러면 다른 교사가 답을 하고 논의하는 방식의 공간을 국가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공간을 통해 국가 기관은 이미 수행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를 거름 장치 없이 들을 수 있고, 연구 개발 자료에 대한 선호도 등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간접적 방법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국립국어원에서 출간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면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자료 이용 건수만 나올 뿐이지 주관적 반응은 알 수 없다. 몇몇 연구자들에게 정책 제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간을 마련하여 모니터를 통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회원들끼리는 경험을 공유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좋다. 물론 처음에는 인터넷 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냥 만들어만 놓고는 아무런 반응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향후 과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 사업의 보고서인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와 또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1단계)」,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2단계)」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 보면 좋겠다. 물론 의견을 낸 사람들에게는 국어원에서 나온 자료를 나누어 주는 등의 보상책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한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 가능하겠지만 크게 이 세 가지를 제안한다. 정책의 내용이 정련되지 못하고 투박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정책 수립자의 손을 거치게 되면 더 훌륭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본다.

부록 1. 문법 용어 해설

<용어 해설의 기준>
- 문법 용어 해설은 문법 항목을 기술하면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용어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문법 용어를 설명한 것이다.
- 기술의 편의를 위해 #으로 구분하여 #1 표제어, #2 설명, #3 관련 문법 용어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 사전적 설명이 아니라 예를 중심으로 쉽게 풀이하였다.
- 문법 용어는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다.

#1감정 동사 #2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나타내는 동사. 예를 들어 '좋다', '나쁘다', '즐겁다' 등과 같이 정서적인 경험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동사(형용사)를 말한다.

#1감탄사 #2감탄이나 놀람, 부름, 명령 등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말. 감탄사를 감정 감탄사와 의지 감탄사 둘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정 감탄사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기쁨, 성냄, 슬픔, 한숨, 놀라움 등을 나타내는 말들이 포함된다. 이와는 달리 상대방을 의식하며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는 의지 감탄사에는 상대방에게 단념시키거나(아서라 등), 독려하거나(자, 어서 등), 부르는 말(여보, 여보세요, 얘, 이봐, 등), 또는 긍정이나 의혹, 부정을 나타내는 말(예, 글쎄, 아니요 등)이 포함된다.

#1격조사 #2체언이나 용언의 명사형 뒤에 붙어서, 그 말이 다른 말에 대해 가지는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 예를 들어 주격 조사(이/가), 서술격 조사(이다), 목적격 조사(을/를), 보격 조사(이/가), 관형격 조사(의), 부사격 조사(에, 에서, 부터 등), 호격 조사(아, 야 등) 등이 있다. #3보조사

#1관형사 #2체언 앞에 쓰여 그 체언이 어떠한 것이라고 꾸며 주는 품사. 조사를 취하지 않고, 어미 활용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새', '헌'과 같은 성상 관형사, '한', '두'와 같은 수 관형사, '이', '그'와 같은 지시 관형사가 있다. #3관형어

#1관형어 #2체언 앞에서 이들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 관형어는 세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① 관형사, ② 체언 또는 체언 구실을 하는 말에 관형격 조사(의)를 붙여서, ③ 용언 뒤에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 만들 수 있다. ①의 예로는 '새 책, 한 사람, 이 의자'에서 '세, 한, 이' 등이 관형어이며, ②의 예로는 '철수의 책, 영희의 우산'에서 '철수의, 영희의'가 관형어이다. ③의 예로는 '우는 아이, 사랑한 사람, 푸른 하늘, 부자인 아버지, 집에 갈 사람, 아름답던 고향'에서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 '-는, -(으)ㄴ, -(으)ㄹ, -던'이 붙은 '우는, 사랑한, 푸른, 부자인, 갈, 아름답던'이 뒤의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 뒤에 붙지만 정확히 말하면 '[집에 가]ㄹ 사람'처럼 문장 '집에 가다'에 붙는 것이다. #3관형사

#1끝음절 #2단어의 끝에 있는 음절. 예를 들어 ‘책상’에서 ‘-상’이 끝음절이다. 조사나 어미 중에는 단어의 끝음절에 따라 형태가 다른 조사가 붙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주격 조사 ‘이’는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철수가’처럼 ‘가’가 붙고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사람이’처럼 ‘이’가 붙어 사용된다.

#1단체 명사 #2명사가 단체의 의미를 갖는 명사. 예를 들어 ‘회사’, ‘학교’, ‘국가’ 등이 있다.

#1대명사 #2사람, 사물, 처소 따위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다만 가리키기만 하는 품사.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나 모든 사물, 모든 처소를 대신하며, 이런 이유로 같은 사물이 그 단어 형태를 달리하여 지시될 수 있다. 기능상으로는 명사와 큰 차이가 없어 명사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분류상 이는 크게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뉜다. 예를 들어, ‘너는, 거기에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에서 ‘너’는 ‘철수’, ‘영수’ 등의 이름을 대신한 인칭 대명사이고, ‘거기’는 ‘회사’, ‘시골’ 등의 처소 이름을 대신한 지시 대명사이며, ‘무엇’은 ‘미지의 사물’을 대신한 지시 대명사이다. 인칭 대명사는 1인칭 대명사(나, 우리), 2인칭 대명사(너, 너희), 3인칭 대명사(그, 그녀, 그들, 이이, 그이, 저이)로 다시 나눌 수 있고, 지시 대명사는 지시어 ‘이, 그, 저’에 따라 근칭, 중칭, 원칭으로 나누기도 한다. #3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1독립어 #2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독립하여 쓰이는 문장 성분. 감탄사, 체언이나 체언에 호격 조사(呼格助詞)가 붙은 호칭어, 문장 접속 부사, 제시어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어 감탄사는 모두 독립어가 된다. ‘아, 눈이 온다’, ‘후유, 힘들다’ 등의 ‘아’, ‘후유’ 같이 느낌을 나타내는 말, ‘자, 시작합시다.’ 등에서 ‘자’ 같이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말,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에서 ‘예’, ‘아니요’같이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등의 감탄사는 모두 독립어가 된다. 체언이나 체언에 호격조사가 붙은 말이 독립어가 될 수 있다. ‘아버지, 그가 왔어요’ 등의 ‘아버지’는 체언 단독으로 또는 체언에 호격조사가 붙어 호칭어가 되는데 이는 문장성분상 독립어이다.

#1동사 #2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 활용을 하며, 그 뜻과 쓰임에 따라 본동사와 보조 동사, 성질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 어미의 변화 여하에 따라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로 나뉜다.

#1동작 동사 #2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동사, 형용사를 구별하지 않고 함께 '동사'로 보아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런데 형태론적으로 동작 동사는 상태 동사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상태 동사에 비해 동작 동사는 명령형 어미와 청유형 어미와의 결합이 비교적 자유롭다. 또한 평서 종결형 어미 ‘-는다/ㄴ다’와 관형사형 어미 ‘-는’과도 연결이 자유롭다. #3 상태 동사

#1뒤 절 #2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과 연결되어 이어진 문장을 이룰 때 뒤의 성분으로 쓰이는 절.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간다.’의 문장에서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이 뒤 절이다. 후행절이라고도 한다. #3앞 절

#1명사 #2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 ‘강감찬, 남대문’처럼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은 고유 명사라 하고, ‘사람, 책상’처럼 특정하지 않은 대상의 이름은 보통 명사라고 한다. 한국어에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문장에 나타날 수 있는 ‘것, 바, 줄, 수’ 같은 의존 명사가 있다. 대상의 구체성에 따라 구체 명사와 추상 명사로 나누기도 한다. 한국어 명사 뒤에는 조사가 결합하며, 명사를 수식하는 말은 명사 앞에 온다.

#1목적어 #2글의 서술어인 타동사의 움직임의 대상이 되는 말. 목적격 조사 ‘을/를’과 결합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공을 찼다’에서 ‘공을’이 목적어에 해당한다. 대개 동사 앞에 위치한다.

#1무정 명사 #2식물이나 무생물처럼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가리키는 명사. 예를 들어 ‘책상’, ‘돌’, ‘나무’ 등이 있다. #3유정 명사

#1문장 성분 #2한 문장을 이루는 요소. 예를 들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등을 말한다.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을 주성분이라 하며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여기에 포함된다. 주어는 사건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고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및 성질을 서술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며 목적어는 서술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필요할 때,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할 때 필요한 성분이다.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 부사어 등이 있으며 주성분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관형어는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을 꾸며주는 말이며 부사어는 용언(동사,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이다.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을 독립 성분이라 하며 독립어가 있다. #3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1보어 #2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서술어를 보완하여 완전하게 만드는 필수 성분. 학교 문법에서는 용언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성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곰이 사람이 되었다.’에서 ‘사람이’,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에서 ‘학생이’가 보어에 해당한다.

#1보조사 #2체언이나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는’은 대조(對照)의 의미를, ‘도’는 동일(同一)의 의미를, ‘만’은 단독의 의미를, ‘부터’는 시발(始發)의 의미를, ‘까지’는 도달의 의미를 가진다. ‘나도 상을 받았다’에서 ‘도’는 내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나만 상을 받았다’에서 ‘만’은 다른 사람은 상을 받지 못했고 ‘나’ 혼자 상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특수 부사라고도 한다.

#1부사 #2품사(品詞)의 하나.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 앞에서 그 뜻을 한정하는 말이다. 크게는 ‘매우’, ‘가장’, ‘겨우’ 등과 같이 특정한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와 ‘과연’, ‘아마’, ‘그리고’ 등과 같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로 나누어진다. #3부사어

#1부사격 조사 #2체언이나 용언의 명사형 뒤에 붙어서, 그 말을 부사어로 만드는 조사. 격

조사 중에는 부사격 조사가 가장 다양한데 처소를 나타내는 '에, 에서', 비교를 나타내는 '보다, 처럼', 수단을 나타내는 '으로', 공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 부름을 나타내는 '아, 야' 등이 있다. 부사격 조사는 형태에 따라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1부사어 #2주로 서술어를 꾸미는 문장 성분. 모든 부사나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말, 부사에 보조사가 붙은 말 따위가 이에 속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아직 집에 안 왔다'에서 부사 '아직, 안', 부사격 조사 '에'가 붙은 '학교에'가 부사어이다. '아직'에 보조사 '도'가 붙은 '아직도'도 부사어이다. #3부사

#1상태 동사 #2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존재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말. 학교문법에서는 용언을 형태와 기능에 따라 동사, 형용사로 나누는데, 활용하는 용언을 모두 동사로 보고 동작성과 상태성에 따라 동작 동사, 상태 동사로 나누기도 한다. #3동작 동사

#1서술어 #2주어를 서술하는 문장 성분의 하나. 한 문장의 주어로 제시된 인물이나 사물에 대하여 그 동작, 상태, 성질, 유개념을 설명하는 말로서 주어와 함께 문장의 두 중요 성분을 이룬다. 동사, 형용사, '명사+ 이다'가 서술어가 된다.

#1수사 #2품사의 하나. 사물의 수량이나 차례를 나타내는 말로 양수사(量數詞)와 서수사(序數詞)가 있다. 고유어계 수사(하나, 둘, 셋, 넷…)와 한자어계 수사(일, 이, 삼, 사…)로 나누기도 한다. 수사는 '학생 둘이 왔다'에서 보듯 명사와 마찬가지로 조사가 붙어 사용되나 명사와 달리 관형어의 수식이 자유롭지 않다.

#1순간 동사 #2순간에 동작이 행해지는 동사. '죽다, 졸업하다, 결혼하다' 등이다. 순간 동사는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와의 결합이 자유롭지 않다.

#1앞 절 #2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과 연결되어 이어진 문장을 이룰 때 앞의 성분으로 쓰이는 절.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간다.'의 문장에서 '나는 밥을 먹다.'가 앞 절이다. 선행절이라고도 한다. #뒤 절

#1어간 #2동사와 형용사가 문장에서 사용될 때 변화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먹다'라는 동사가 문장에서 사용될 때 '먹으니, 먹어서, 먹었다' 등으로 활용되는데 이때 '먹-'은 뒤에 어떤 어미가 와도 변하지 않는다. '먹-'을 어간이라고 하고, 어간 뒤에 붙어 일정한 기능을 하는 '-으니, -어서, -었-' 등을 어미라고 한다. 어간과 어미는 각각 뒤와 앞에 다른 형태소가 붙어 사용되므로 붙임표(-)를 붙여 '먹-', '-으니'로 표기한다. #3어미

#1어미 #2동사와 형용사가 문장에서 사용될 때 변화하는 부분. 예를 들어 '먹다'라는 동사가 문장에서 사용될 때 '먹으니, 먹어서, 먹었다' 등으로 활용되는데 이때 '먹-'은 뒤에 어떤 어미가 와도 변하지 않는 반면, 어간 뒤의 형태는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먹-'을 어간이라고 하고, 어간 뒤에 붙어 일정한 기능을 하는 '-으니, -어서, -었-' 등을 어미라고 한다. 어간과 어미는 각각 뒤와 앞에 다른 형태소가 붙어 사용되므로 붙임표(-)를 붙여 '먹-', '-으니'로 표기한다. #3어간

#1연결어미 #2어간에 붙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미. 연결 관계에 따라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로 나뉜다. 예를 들어 대등적 연결어미로 '-고', '-면서', '-지만', '-나' 등이 있고, 종속적 연결어미로 '-면', '-니', '-는데', '-아서, '-니까'' 등이 있고, 보조적 연결어미로 '-아', '-게', '-지', '-고' 등이 있다.

#1유정 명사 #2명사 가운데 감정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 즉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를 이른다. #3무정 명사

#1이동 동사 #2장소의 변화를 수반하고 이동을 표현하는 동사. 예를 들어 '가다', '오다', '다니다', '나가다' 등이 있다.

#1인지 동사 #2인식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 예를 들어 '알다', '모르다', '판단하다' 등이 있다.

#1인칭 대명사 #2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예를 들어 1인칭에 '나', '저', '우리', 2인칭에 '너', '너희', '자네', 3인칭에 '이', '그', '저', '이이들', '저이들', '그이들', 미지칭(未指稱)에 '누구', '누구들', 부정칭(不定稱)에 '아무', '아무들' 등이 있다. #3대명사

#1접속 조사 #2단어와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기능을 하는 조사. 예를 들어 '와'와 '과', '(이)랑', '하고' 등이 있다. #3조사

#1제약 #2어떤 문법 형태가 특정한 품사나 어미 등과 결합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 문장 종결 제약, 선어말어미 결합 제약, 동일 주어 제약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연결어미 '-으려고'는 명령형 어미나 청유형 어미와 결합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문장 종결 제약이 있다.(*밥을 먹으려고 상을 차려라. *밥을 먹으려고 상을 차리자.)

#1조사 #2체언의 뒤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품사. 대개 체언의 뒤에 오지만, 용언이나 부사, 어말 어미의 뒤에 오기도 한다.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 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 등으로 나뉜다. #3격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

#1종결 어미 #2용언을 서술어로 만들어 문장을 끝맺게 하는 어미. 동사에는 평서형, 감탄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이 있고, 형용사에는 평서형, 감탄형, 의문형이 있다. 예를 들어 '-다', '-구나', '-느냐', '-라',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말 어미라고도 한다.

#1주어 #2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 대개 체언에 '가'나 '이'와 같은 조사가 붙는다. 예를 들어 '철수가 공을 차다'에서 '철수가'와 같이 쓰인다.

#1주격조사 #2체언에 붙어 그 체언을 문장의 주어가 되게 하는 조사. 예를 들어 '이, 가, 께서, 에서' 등이 있다.

#1지시 대명사 #2어떤 사물이나 장소, 방향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 예를 들어 ‘그’, ‘이것’, ‘어디’, ‘무엇’ 등이 있다. #3대명사

#1착용 동사 #2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착용함을 표현하는 동사. 예를 들어 ‘입다’, ‘쓰다’, ‘신다’, ‘끼다’, ‘매’, ‘감다’, ‘두르다’, ‘차다’ 등이 있다

#1품사 #2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끼리 모아 놓은 단어의 갈래. 흔히 문법적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문법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아홉 가지로 나누고 있다.

#1형용사 #2품사의 하나.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존재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한국어의 경우, 활용을 하기 때문에 동사와 함께 용언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예쁘다’, ‘좋다’, ‘싫다’와 같이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다.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종결어미로 ‘-는다’가 아니라 ‘-다’가 오고, 관형사형 어미 ‘-는’이 올 수 없다.

#1형태 정보 #2단어가 문장에서 사용될 때 조사나 어미가 결합되는 양상 내지는 규칙을 보여 주는 정보. 예를 들어 조사는 앞에 오는 명사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며, 어미 역시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를 규칙화하여 제시한 것이 형태 정보이다.

부록 2. 연구 진행 일정 및 내용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
연구 진행 일정 및 내용

일자	제목	내용
5.13.	착수 보고회	○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 연구 내용 및 계획 보고
5.21.	회의	○ 착수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 샘플 안과 설문조사 내용 결정 - 초보 교사의 정의 수정 : 1~5년 → "1~3년"으로 수정(한국어교사 교육프로그램의 구분 참고) - 예문 작성 관련 지침 안 · 토픽의 예문 참고 (표절 주의: 단어나 상황을 바꿔서 활용할 것) · 예문의 기준 필요 · 의견: 문장 예문 교재의 연습 문제 참고, 대화쌍도 포함 · 예문의 복수화 : 도입 예문 → 담화 예문 → 문장 예문의 순서 - 의미 설명 부분을 쉽게 풀이 · 상황을 주고 예를 설명하는 방안
6.3.	회의	○ 연구 내용 관련 단계별, 영역별 집필항목 및 집필자 작업 내용 확정
6.20.	회의	○ 설문조사 결과 정리 및 반영: 각 항목별 집필 샘플 작성과 3차 집필자의 집필내용 검토 및 영역별 논의 정리 - 영역별 논의 사항 정리할 때 집중 논의할 사항(2차샘플 참고) · 항목별 의미 선정 기준 및 참고자료 · 쉬운 용법 설명 참고자료 · 심화 용법에 담을 내용의 범위 · 형태 정보에 포함할 내용 및 제시 방법(받침 있는 것->없는 것, 규칙->불규칙..) · 제약 정보의 범위 및 제시 방법 · 유사문법 선정 기준 및 집필 참고자료 · 기타 지침 변경이 필요한 내용
7.3.	회의	○ 지침 수정 ① 심화와 문장 구성 정보의 위치 수정 : 현재 심화 내용이 주로 확장에 해당되어 형태 정보보다 앞서는 것 맞지 않음. - 문장 구성 정보 양이 많아 제약이 묻힘. 문장 구성 정보의 일부는 교사 시 강조점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듯함. ② 심화와 교사 시 강조점 분리

		- 심화 내용 안에 기본적 내용과 심화 내용이 같이 들어 있음. - 교수 시 강조해야 할 내용 분리, 제시해 주는 것이 초보 교사들에게 필요 판단 ③ 의미 및 용법 설명을 좀 더 쉽게 하는 방법 모색 ○ 집필자 훈련 계획 및 감독자 배정 - 3차 감수자는 훈련 주요 내용을 정리, 참석 또는 카페 올리기 - 집필 항목이 많아지기 전 집필 양식에 대한 자문 필요 ○ 전체 사업 4단계로 수정: 로드맵 수정 ○ 중급 항목 선정 작업 시작
7.4.	기술 지침 마련	○ 지속적인 회의와 실제 집필을 통한 구체적 지침 마련과 수정
7.5.	집필자 교육 워크숍	○ 집필 관련 지침 교육, 전체 일정 공지 및 설명
7.24.	자문 회의	○ 자문회의 결과 반영 및 수정 사항 - [2.7. 중고급 용법]의 이름을 [확장]으로 수정 - 쉬운 설명보다 [정확한 설명]을 목표로 의미 및 용법 기술의 원칙 수정, 이에 따라 각 필드에 [+상세 설명] 추가 - 예문을 풍부히 함: 담화 예문 4~5개, 문장 예문 10개, 형태 정보 등 각 필드의 예문 4개 이상
10.5.	중간 보고 준비 회의	○ 지침 보고 <u>1. 확장 필드의 순서 및 정보</u> - [2.7. 확장]과 [2.8 유사 문법] 순서 교체 - 2.7. [확장]은 초급 내용이 아니며 양이 많아 [유사 문법]이 가려짐. - 2.7.의 문제점: 초급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관련형, 준말-본말, 관용표현 등이 중고급 용법과 같이 제시됨. 대안) 2.7.의 확장에 있는 관련형, 준말-본말, 관용표현을 의미 및 용법으로 옮기고, 2.7에는 중·고급 용법만 국한하여 제시 <u>2. 문법 항목 기술 단위</u> - 에게, 에게로, 에게서: 1단계에는 '에게, 에게로, 에게서'를 별도로 집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에게로, 에게서'는 '에게'를 기술할 때 동의어로 기술되므로, '에게'만 집필하고 '에게로'와 '에게서'는 색인을 통해 '에게'로 가서 정보를 찾도록 기술. - '-을게(요)', '-을래(요)': 1단계에는 '-을게(요)', '-을래(요)'의 대표형을 '요'가 결합되지 않은 형태로 잡았으나 초급에서 배우는 형태는 '-을게요, -을래요'임. 대표형을 '-을게, -을래'로 하고 예문 등은 모두 '-을게요, -을래요'를 제시함. 예문 아래 + 상세 설명에서 이에 대한 설명(높임의 등급만 다르다는 설명)을 붙임.

		- 관형사형 어미 '-은'은 동사 결합형 '-은1'과 형용사 결합형 '-은2'로 나누어 기술함.: 같이 기술하니 시제 차이로 인해 혼동의 여지가 큼. 3. 초급 용법의 기준 - 초급 교사의 편이를 위해 6개 교재 중 한 교재 이상 출현하면 초급 용법으로 기술. 예) '-을까 보다2)'(추측) 고대 2에 제시. 초급에 포함.
10.25.	중간 보고	○ 제1 과제 결정 사항 - 6개 교재 중 한 교재 이상 출현 - 초급 용법으로 기술 - 의미 단위 : 가능한 한 교수 단위를 기준. - 문법 항목의 기술 단위 . 복합 조사의 기술: '에게서, 에게로' 별도로 기술 . 사용역만 다른 조사의 기술: '한테, 한테서'를 '에게, 에게서'와 별도로 기술 . 관형사형 어미 '-은'을 '-은1'과 '-은2'로 나누어 기술 - 중급 항목 재정련 결과 2항목 추가 집필(-는 것{-은 것, -을 것2}, -을 것1) ○ 제2 과제 결정 사항 - 급 이동: 연결어미 '-지1' 중급으로 이동 - 삭제: 조사 '다가'('에다가'에서 부분 기술) - 1단계 유보 항목 처리: '이다2' 중급, '-는 것, -을 것1' 초급 항목으로 추가(보고서 <표2> 참고) - 표준모형(2단계)의 중급 항목(150항목)을 토픽과 비교한 결과 126항목을 중급 항목으로 결정, 1단계 기준에 따라 재정련.(<표 6>, <표 13>, <표 15> 참고) ○ 제3 과제 결정 사항 - 한국어 의미 용법의 구분에 따라 대조한다. - 대응 표현, 제약, 용법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 학습자들의 오류와 대조언어적 결과를 상관하여 기술한다. ○ 제1 과제 논의 사항 - 2.7. 확장의 범위: 현재 확장에는 초급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관련형, 준말.본말, 관용 표현과 중.고급 용법이 함께 기술되어 있음. - 문법 항목의 기술 단위 . '-요' 결합형 어미: 대표형을 '-을게, -을래'로 잡고, 초급에서 교수하는 '-을게요, -을래요'의 사용 주로 설명. 둘 관계는 확장에서 설명 .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 의미 및 용법/확장에서 다루는 방안.('-어서' 참고) - 유사 문법의 기술 · 뒤에 나오는 항목에서 기술, 앞에 나오는 항목에서는 '→' 표시. 참고하게 하는 방법과 양쪽 다 기술하는 방법(현재는 지침은 첫 번째, 집필은 두 번째로 되어 있음)

		○ 제2 과제 논의 사항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중급>에만 올라 있는 70항목을 중급 목록에 포함할지의 여부 ○향후 과제 논의 사항 - 제1 과제: 집필 지침 완성 및 집필 완료 - 제2 과제: 중급 목록 확정, 초급 목록 확정 - 제3 과제: 대조 항목 기술 완료, 필요 시 외부 검토 의뢰.
11.2.	회의	○ 최종 보고회까지 향후 일정 확인, 지침 반영 내용 확인 - 논의 사항: 까지1과 같이 '1'로 표제어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표기 방식 (까지2는 중급 항목에 없음) → 1,2로 나눈 것과 아닌 것 분류 기준 명시 필요
12.13.	최종 보고회	○ 2단계 과제 전체 항목 기술 완료, 중급 항목 확정, 중국어 대조부분 지침 완료

[ABSTRACT]

Research on development of grammar·express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2nd stage)

This research is planned for 2nd stage of "The research on grammar·express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irst of all, by selecting and grading the proficiency of elementary and intermediate level Korean language, it is to provide average standard of Korean language grammar education in various of areas.

Second purpose is for professors, researchers or book manufacturer of Korean language to contribute actively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skills by describing elementary level of grammar·expression in a more profound way providing enough baseline data.

Thirdly, the other purpose is to establish basis for development of future multilingual contrasting perspective of grammar·expression for Korean education by providing contrasting multilingual materials.

In the first stage, it focused on three particular research projects which were selecting grammar·expression, finding technical proposal for grammar·expression and comparison between the mother language of learners.

In the second stage, it chose the final technical categories by arraying the selected grammar·expression from the first stage. In selecting categories, it had its basis on "development of internationally most commonly used average mode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made the final decision considering grammar part of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Also, it proposed the intermediate grammar·expression categories by applying the standard of grammar·expression ranking and selection of the 1st stage

For selected grammar·expression category, it provided optimized technical guideline by modifying and remedying the framework of the content shown in 1st stage.

The survey was held targeting 6 different institution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ttached to universities in Seoul and Chung-Cheong province to be more objectively reasonable and to be more applicational.

Total 89 categories were described according to the technical guidelines which includes 3 prefinal ending, 12 final ending, 6 malleable ending, 14 final ending, 26 expression reflecting the requested data.

In elementary grammar·expression category, it was described in a framework which is composed of 'headword, semantic as well as usage·example, introduction, morphological information, sentence constituent information, constraint information, extended, similar grammar'.

The authenticity was heightened by the order of suggesting the discourse examples

first then the sentence examples in turn. In adoption, the proposal of discourse circumstance was started for a teacher to teach the relevant grammar·expression in a real class field.

In morphological information, it regularized the combination of verb and adjective which is mainly used in elementary level. In sentence constituent information, the patterning syntactic information was described. In constraint information, the constraint of verb·adjective in sentence composition, subject and personal pronoun, identical subject, tense morphology and lastly end of sentence were described. In extension, additional and profound information such as the usage of relevant grammar·expression category, abbreviation·original word, usage of phrase, usage of intermediate ·high level were described. In similar grammar, the relevant category and morphologically·semantically similar grammar ·expression categories were compared and contrasted

The standardized grammar·expression article of Korean education for elementary level and intermediate level and the description of elementary level contents and the contrastive analysis with Chinese that have been done through this study is expected to diversely utilized in the spot of Korean education for a systemic and authentic grammar education and also as a fundamental data for a Korean education study.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elementary level, intermediate level, grammar items, expression items, grading, introduction, morphological information, sentence constituent information, sentence constituent information, similar grammar, contrastive linguistics, contrastive analysis with Chinese.

연구 책임자: 양 명 희 (중앙대학교, 교수)
공동 연구원: 안 경 화 (서울대학교, 교수)
김 재 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 선 웅 (경희대학교, 교수)
고 홍 희 (산동대학교, 교수)
정 선 화 (중앙대학교, 교수)
유 해 준 (서원대학교, 교수)
박 지 순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연구 보조원: 이 지 용 (중앙대학교, 강사)
고 예 진 (중앙대학교, 강사)
이 찬 희 (중앙대학교, 강사)
김 지 연 (중앙대학교, 강사)
이 결 (중앙대학교, 강사)

담당 연구원: 박지순(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한국어 교육 문법 · 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

발 행 인 민 현 식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길 148(방화 3동 827)
전화: 02-2669-9723 전송: 02-2669-9727

인 쇄 일 2013년 12월 15일

발 행 일 2013년 12월 15일

인 쇄 유일문화사

(책 등)

국립국어원
2013-01-49

한국어 교육 문법 · 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

국립국어원

(겉표지 뒷면)

